두 도시 영적 이야기

엘렌 굴드 화이트

두 도시 영적 이야기

엘렌 굴드 화이트

왕과 성직자들과 귀족들은 흥분하고 미쳐서 날뛰는 군중들의 잔악무도한 행동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복수하고자 갈망하는 그들은 왕을 처형함으로 한층 더 자극되었다. 그리고 왕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자들도 오래지 않아서 왕의 뒤를 이어 단두대로 끌려갔다. 혁명을 반대하는 것으로 혐의를 받은 자들은 다 살육되었다. 감옥들은 만원이 되었는데 한 때는 20만 명 이상의 검거자들이 수용되었다. 국내의 각 도시에 무서운 사건들이 일어났다. 혁명주의자들의 한 당이 다른 당과 싸우므로 프랑스는 드디어 하나의 커다란 수라장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서로 싸우는 군중들의 분노와 격정은 온 세상을 흔들어 놓았다. "파리에서는 소동이 뒤를 이어 일어났고, 시민들은 여러 당파로 나누어져서 피차에 서로 물고 뜯는 일밖에 아무것도 없는 듯이 보였다." 온 나라가 이와 같은 참상을 당한 외에도 구라파의 열강들을 상대로 오랫동안 황폐케 하는 전쟁에 휘말려 들었다. "나라는 거의 파멸 상태에 이르렀고, 군인들은 급료의 지불이 지연됨으로 소동하였고, 파리 시민들은 굶어 죽어갔으며, 각 지방들은 비적들로 말미암아 황폐되었고, 문화는 무정부 상태와 백성들의 방종으로 거의 사라질 지경까지 되었다.".

New Covenant Publications

International Inc.

개혁 된 책,변형 된 마음

Alt-Heerdt 104, 40549 Düsseldorf, Germany
Tel : +49 211 399 435 234

Email: newcovenantpublicationsintl@gmail.com

헌정의 글

하나님께 바쳐진

서문

새 언약: 출판물 국제 하늘과 땅을 바인딩 신성한 계획과 사랑의 법의 영속을 강화와 독자를 다시 연결합니다. 언약의 방주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백성과 하나님의 법의 중심 사이의 친밀감을 나타냅니다. [...] 사실, 새 언약은 구속에 증명, 줄어들지 않은 투쟁에 의해 탄생과 혈액에 의해 밀봉.

수많은 세기 동안,많은 견디고 마모에 고통하고 이해할 수 없는 탄압의 계산을 없애는 진리입니다. 특히 암흑 시대에,빛이 있었다 크게는 궁지에 몰린과에 의해 가려는 인간의 전통과 인기있는 무지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세계는 지혜를 멸시하고 배반하의 언약입니다. 대재앙의와 타협을 방지할 자극 악 이러한 재앙의 무한 퇴화 및 악마 같은 비인간적에는 많은 생명을 희생을 부당하게 거부,항복하심이 있으. 그럼에도 불구하고,잃어버린 지식은 특히 개혁의 시간 동안,부활했다.

16 세기의 개혁 시대는 반 개혁에 반영 된 진리,근본적인 변화 및 결과적 난류의 순간을 촉발 시켰습니다. 그러나,이를 통해 볼륨,하나의 재발견 명백한 의미의 이 유일한 혁명의 관점에서 본 개혁자 및 다른 용감한 개척자. 자신의 계정에서,하나는 황폐 한 전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놀라운 저항과 초자연적 인 개입의 기본 이유.

우리의 모토:"개혁 된 책,변형 된 마음"은 중요한 시대와 그 영향으로 구성된 문학의 독특한 장르를 강조합니다. 또한 개인 개혁,부활과 변화의 긴급 공감. 으로 구텐베르크 인쇄기와 결합에 의해 기관의 번역,전파의 원리,개혁 신앙을 약 500 년 전,디지털 압박과 온라인 미디어 통신 것이라 모든 언어로 진리의 빛에서 이러한 마지막 시간.

목차

1 장 — 세계사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 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눅 19:42~44).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꼭대기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셨다. 그 때에 그분의 눈앞에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광경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때마침 유월절을 맞이하여 이 큰 절기를 지키려고 야곱의 자손들이 각 지방으로부터 모여 와 있었다. 순례자들의 천막이 정원과 포도원과 언덕 위의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층층대처럼 생긴 산들과 위엄 있는 궁전들과 이스라엘 도성의 거대한 성곽들이 우뚝우뚝 서 있었다. 시온의 딸이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계 18:7) 고 자랑하는 듯하였다. 옛날에 한 왕이 "온 세계가 즐거워함이여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시 48:2) 고 노래하던 때와 같이 지금도 여전히 그 성은 아름답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듯하였다. 장엄한 성전의 건물은 완전히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바야흐로 서산에 지는 햇살은 눈과 같이 흰 대리석에 비치어 황금빛의 문과 성전의 첨탑 (尖塔) 에 반사되어 있었다. 그 성전은 실로 온전히 아름다워 이스라엘의 자랑이었다. 이러한 광경을 눈으로 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 누가 기쁨과 찬탄의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있었으랴!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이러한 것과는 전혀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 (눅 19:41) 셨다. 많은 무리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기쁨의 "호산나"를 불러 산을 진동시키고 그분을 가리켜 왕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의 입성을 모든 사람이 환호성으로 축하하는 그 때에 구주의 마음은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하여졌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언약된 분이시며 사망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사로잡힌 자를 불러낸 능력을 가지신 그분께서는 한낱 보통의 슬픔으로가 아니라 억누를 수 없는 강렬한 고뇌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발걸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잘 아셨으나 그분의 눈물은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분의 앞에는 겟세마네 곧 다가오는 고뇌의 장면이 펼쳐져 있었다. 여러 세기 동안에 번제 드릴 양들이 지나간 문, 이제는 또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양" (사 53:7) 이신 그분께서 지나갈 양문도 보였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장소인 갈바리도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오래지 않아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실 그 길 위에는 장차 당신의 영혼이 속죄 제물로 드려질 때에 무서운 큰 암흑이 임할 것이었다. 그러나 이 즐거운 때에 그분의 마음을 어둡게 한 것은 이런 장면들을 명상함으로가 아니었다. 자신에게 미치리라고 예상되는

초인간적인 고뇌도 그분의 무아 (無我) 의 정신에 구름이 끼게 할 수는 없었다. 그분께서는 멸망 받을 운명에 처한 예루살렘의 무수한 백성들을 위하여 우셨다. 곧 그분께서 축복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 백성들의 무지와 고집 때문이었다.

예수님의 눈앞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보호를 입은 택한 백성들의 천여 년간의 역사가 펼쳐져 있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상징하는 언약의 아들이 아무런 반항 없이 제물로서 제단에 묶이어 있던 모리아 산이 보였다. 이곳이야말로 축복의 언약, 곧 메시야에 대한 영광스러운 허락이 믿음의 조상에게 확증되었던 곳이다. 이곳이야말로 죄인을 위한 구주의 희생과 중보를 적절히 상징하는 번제의 불꽃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감으로써 그 멸망시키는 천사의 검을 제지시킨 곳이다 (대상 21 장 참조). 예루살렘은 세상의 어떤 곳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많이 입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시 132:13) 하셨다. 그 곳은 여러 시대 동안에 거룩한 선지자들이 경고의 기별을 전한 곳이요, 제사장들이 향로를 가지고 분향하던 곳이요, 향연이 예배하는 자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상달되던 곳이었다. 그 곳은 하나님의 어린양을 상징하는 어린양을 잡아 날마다 그 피를 드리던 곳이요, 여호와께서 속죄소 위에 있는 영광의 구름으로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시던 곳이었다. 그 곳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그 위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이 세상에 열어 준 신비로운 사다리가 놓여 있던 곳이다 (창 28:12; 요 1:51 참조).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였었더라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택한 곳으로 영원히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처럼 은총 받은 백성의 역사가 배교와 반역의 기록으로 점철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그들의 특권을 남용하고 그들의 기회를 경히 여겼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 (대하 36:16) 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에게 당신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출 34:6) 으로 나타내셨다. 거듭되는 배반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자비는 그들이 회개하기를 계속 탄원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아비가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 더한 사랑으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 (대하 36:15) 셨다. 마침내 모든 권고와 경계와 견책이 허지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가장 귀한 선물을 보내 주셨는바, 그분께서는 그 하나의 선물을 통하여 하늘의 모든 것을 다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회개하지 않는 도성에 간청하기 위하여 파견되셨다. 일찍이 이스라엘을 좋은 포도나무로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이는 바로 그리스도셨다 (시 80:8). 그분께서는 손수 이방 사람들을 그 앞에서 몰아내시고 그 나무를 “심히 기름진 산에” 심으셨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나무를 보호하기 위하여 산울을 둘러치셨다. 또 종들을 보내

그것을 가꾸게 하셨다. 그분께서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사 5:1~4 참조) 고 외치셨다. 그분께서 포도가 열렸는지 살피셨을 때 들포도가 열렸다. 이와 같이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열매를 맺히게 하시려는 열망으로 친히 포도원에 오셔서 그를 멸하지 않고 구원하시고자 하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포도나무의 주위를 파고 전정을 하고 가꾸셨다. 그분께서는 손수 심으신 그 포도나무를 살리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다.

빛과 영광의 주께서 3 년 동안 당신의 백성과 함께 지내셨다. 그분께서는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 (행 10:38) 셨다. 그분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갇힌 자를 놓아 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앉은뱅이를 걷게 하고 문둥병자를 깨끗케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눅 4:18; 마 11:5 참조).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28) 는 은혜의 초청이 똑같이 주어졌다.

그분께서는 선에 대하여 악으로, 당신의 사랑에 대하여 미움으로 보답을 받으셨지만 당신의 자비의 사명을 꿋꿋이 행하셨다 (시 109:5 참조). 그분께 은혜를 구한 사람 중에 거절을 당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분께서는 집 없는 방랑자로서 비난을 받고 날마다 궁핍하게 살면서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사람들의 재난을 덜어 주고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선물을 받아들이게 하시고자 탄원하는 생애를 사셨다. 완고한 자의 마음의 벽에 부딪혀 은혜의 물결이 되돌아올지라도 헤아릴 수 없이 깊은 사랑은 다시 긍휼의 조수가 되어 더 힘 있게 몰려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장 좋은 벗이요, 자기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을 버렸다. 그분의 사랑의 간청은 멸시당하고, 그분의 권고는 배척당하고, 그분의 경고는 조소를 받았다.

희망과 사유의 시간은 신속히 지나가고 오랫동안 지체되어 온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거의 찼다. 배교와 반역의 각 시대를 통하여 쌓여 온 저주의 검은 구름은 형벌 받을 백성에게 바야흐로 내려 덮이려 하고 있었다. 그런데 임박한 멸망에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신 그분은 멸시와 모욕과 거절을 당하셨으며, 얼마 안 있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게 되실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면, 그 때로부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받는 나라로서의 이스라엘 시대는 끝나게 될 것이었다. 단 한 사람의 영혼일지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온 세계의 이득과 보화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실 때 한 때 하나님의 택하신 곳이요, 특별한 보배가 되었던 그 성과 그 온 백성의 멸망이 그분의 앞에 나타나 보였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배교와 죄로 말미암아 초래된 무서운 파멸 때문에 울었다.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의 딸들이 죽임을 당하고 여호와의 양 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주야로 울었으며, 자기의 눈이 눈물의 샘이 되기를 원하였다 (렘 9:1, 13:17 참조). 하물며 예언적 안목으로 몇 년뿐 아니라 여러 세기의 미래를 내다보시는 이의 슬픔이 어떠하였으랴! 그분께서는 멸망시키는 천사가 검을 들고 참으로 오랫동안 여호와의 거처가 되었던 성을 향하여 서 있는 것을 보셨다. 감람산 위에서, 그분께서는 감람산 골짜기 저편에 있는 성전과 주랑 (柱廊) 들이 티투스 (Titus) 와 그의 군대에게 점령당하는 것을 보셨고, 그 성벽들이 외국의 군대에게 포위당하는 무서운 광경을 눈물 어린 눈으로 내다보셨다. 그분께서는 싸움을 위하여 행진하는 군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셨다. 그분께서는 포위당한 성 중에서 어머니들과 아이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분께서는 그 아름다운 성전과 궁전들과 탑들이 불꽃에 싸이고 한 때 그것들이 서 있던 그 장소에서 마침내 연기 나는 폐허의 무더기가 되어 버리는 것을 보셨다.

먼 장래를 내다보실 때, 그분께서는 언약의 백성이 거칠고 쓸쓸한 바닷가에 깨어진 배 조각들처럼 각지에 흩어져 있는 광경을 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릴 현세의 보응은, 그들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셔야 할 진노의 잔에 비교하면 겨우 한 모금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보셨다. 그리하여 거룩한 동정과 애끓는 사랑은 드디어 비통한 어조가 되어 그분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마 23:37). 오, 어떤 나라보다 더욱 많은 은혜를 받은 나라여, 네가 권고하시는 날과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다행이었을 것을! 나는 의의 사자로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었고, 너희가 회개하도록 호소하였지만 허사가 되었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척한 이는 단순히 종이나 대리자나 선지자가 아니요, 진실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곧 너희의 구속주 (救贖主) 시다. 만일 너희가 멸망당한다면, 그 책임은 다만 너희에게 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요 5:40).

그리스도께서는 불신과 반역으로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보응의 형벌을 재촉하고 있는 이 세상을 예루살렘이 상징하고 있음을 보셨다. 타락한 인류의 신음 소리는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 고민의 부르짖음이 그분의 입에서 새어나오게 하였다. 그분께서는 인류의 불행과 눈물과 피 흘리는 일에서 죄의 기록을 보셨고, 세상에서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무한히 동정하셨다. 그분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갈망하셨다. 그러나 그분의 손으로도 인류의 저주의 물결을 물리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곧 인류의 유일한 도움의 근원이신 그분을 찾아 구하는 자가 적었기 때문이었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당신의 영혼을

즐거운 마음으로 죽음에 내어 주고자 하셨지만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분께로 나오는 자들은 별로 없었다.

하늘의 대주재께서 눈물을 흘리시다니!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고뇌에 눌리시다니! 그 광경을 보고 온 하늘은 놀랐다. 그 광경은 죄가 얼마나 사악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 주고, 전능하신 분에게 있어서도 죄인을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린 결과에서 구원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나타내 준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를 내다보시고 예루살렘을 멸망으로 이끌어 간 그 같은 속임수에 온 세계가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셨다. 유대인의 큰 죄는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이었고, 그리스도교계의 큰 죄는 천지를 다스리는 하나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율법을 배척하는 것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계명은 멸시받고 무시당할 것이다. 죄에 속박되어 사단의 종이 된 무수한 자들이 둘째 사망을 받을 운명에 놓여 있으면서도 권고 (眷顧) 하시는 날에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맹목 (盲目) 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유월절 이틀 전 유대 관원들의 위선을 질책하신 후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으로 성전을 떠나시고 다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 예루살렘이 내려다보이는 풀밭에 앉으셨다. 그분께서는 다시 한 번 그 성의 성벽과 탑들과 궁전들을 내려다보셨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거룩한 산 위에 아름답게 우뚝 선, 눈부시게 찬란한, 미의 왕관인 그 성전을 바라보셨다.

이때로부터 천년쯤 전에 시인 다윗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집을 당신의 처소로 삼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총을 찬양하였다.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음이여 그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시 76:2). 그분께서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 (시 78:68, 69) 다. 그 첫 성전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번영하였던 시대에 지은 것이었다. 다윗왕은 이 목적을 위하여 많은 보화를 준비하고 또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그것을 설계하였다 (대상 28:12, 19 참조).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 그 사업을 완성시켰다. 이 성전은 일찍이 이 세상에 있었던 건축물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둘째 번 성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 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 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 2:9, 7).

이 성전은 첫 성전이 느부갓네살에 의해 파괴된 후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이 황폐된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약 500 년 전에 다시 건축한 것이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일찍이 솔로몬이 지은 훌륭한 성전을 본 노인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새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 그것이 처음 성전보다 못한 것을 보고 울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졌던 감정을 선지자는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자 곧 이 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학 2:3; 스 3:12) 고 강력하게 표현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지은 성전의 영광이 이전에 있던 성전의 영광보다 더욱 클 것이라는 허락이 주어졌다. 그러나 이 둘째 성전은 그 웅장하고 화려한 점에 있어서 처음 성전과 비교가 안 되었다. 그리고 그 처음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던 신성한 표적들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지도 못했다.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어떤 초자연적 권능의 표시도 없었다. 새로 건축된 성소를 가득 채울 영광의 구름도 없었다.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사를 불도 내려오지 않았다. 지성소의 그룹들 사이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 (쉐키나) 도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그 곳에서 법궤와 속죄소와 증거의 두 돌판도 볼 수 없었다.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의 뜻을 알리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오지도 않았다.

여러 세기 동안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 주신 허락이 어느 곳에서 성취되었는지 보이기 위하여 헛된 노력을 해왔다. 교만과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은 선지자의 말씀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였다. 둘째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으로가 아니라,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심으로 존귀하게 되었다. 나사렛 예수님께서 성전 뜰에서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던 때는 참으로 "만국의 사모하는" 분께서 당신의 성전에 오신 때였다. 다름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으로 둘째 성전의 영광은 첫 성전의 영광을 능가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늘이 주신 선물이신 그분을 배척하였다. 그 겸손한 선생이 그날 황금 문을 통하여 나오심으로 그 영광은 성전에서 영원히 떠나 버리고 말았다.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마 23:38) 고 하신 구주의 말씀은 이미 성취되었다.

제자들은 성전의 멸망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을 듣고 무서워하고 이상히 여겼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깨닫기를 원했다. 40 여 년 동안 재물과 노력과 건축상의 기술이 이 성전의 장려 (壯麗) 함을 높이기 위하여 아낌없이 소비되었다. 헤롯 대왕은 로마의 부 (富) 와 유대의 보물을 그 성전을 위하여 물 쓰듯이 썼으며 당시의 천하를 지배하던 로마의 황제까지도 예물을 보내어 그 일을 도왔다. 거의 믿기 어려울 정도의 거대한 대리석들이 로마로부터 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수송되어 그 전 (殿) 의 일부를 이루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들에 그들의 선생님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막 13:1).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마 24:2) 고 엄숙하고도, 깜짝 놀라게 하는 대답을 하셨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그리스도께서 전 세계적인 제국의 보좌를 빼앗으시고, 완고한 유대인들을 벌하시고, 유대 국가로부터 로마의 멍에를 꺾어 버리시고자 세속적 영광으로 오실 사건과 관련시켰다. 주님께서는 일찍이 당신께서 두 번째로 오시리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루살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재림을 회상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감람산 위에서 예수님 주위에 둘러앉아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마 24:3) 라고 물었다.

자비롭게도 그 제자들에게 미래가 가리워졌다. 그 때에 그들이 구속주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실 것과 그 도시와 성전이 멸망당하게 될 두 가지의 무서운 사실을 완전히 깨달았었더라면, 그들은 두려움에 눌려 압도당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세상의 종말이 있기 전에 일어날 큰 사건들의 윤곽만을 보여 주셨다. 그분의 말씀이 당시에는 완전히 이해되지 못하였으나 당신의 백성들이 그 때 주어진 교훈을 필요로 하게 될 때에 밝혀지게 될 것이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예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전조 (前兆) 를 보여 주는 동시에 마지막 큰 날의 두려운 사건을 미리 알려 주는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배역한 이스라엘에게 내릴 심판, 특히 메시야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일로 인하여 그들에게 내릴 보응의 징벌을 선포하셨다. 두려운 사건이 절정에 이르기 전에 먼저 분명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 무서워하던 시간은 갑자기 또한 신속히 이를 것이다. 구주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경고하셨다. 곧 우상 숭배하는 로마의 군기 (軍旗) 가 예루살렘 성벽 밖 수 마일까지 미치는 거룩한 땅 (聖地) 에 세워질 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도망하여 안전을 얻어야 할 것이었다. 경고하는 징조가 보일 때에 도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지체 없이 서둘러야 할 것이었다. 예루살렘은 물론이요, 온 유대 땅에서도 도망하라는 신호에 즉시 순종해야 할 것이었다. 그 때 지붕 위에 있던 사람은, 아무리 값진 보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건지기 위해 내려가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 것이었다. 밭과 포도원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더운 날에 일하기 위하여 벗어둔 겉옷을 가지러 되돌아감으로 시간을 써서는 안 될 것이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멸망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한 순간도 지체하지 말아야 할 것이었다.

헤롯이 다스리던 당시의 예루살렘은 매우 아름답게 단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탑과 성벽과 보루 (堡壘) 들을 세웠고, 더욱이 지세까지도 좋았으므로 그 성이야말로 함락시킬 수 없는 성과 같았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공공연하게 예언하는 것은 마치 노아가 당시의 사람들에게 취급되었던 것처럼 정신 빠진 경고자로 불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 24:35) 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은 그 죄로 인하여 이미 진노의 선고를 받았으며, 그 완고한 불신으로 멸망의 운명을 확정지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 미가를 통하여 "야곱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삯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미 3:9~11)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부패하고 독선적인 예루살렘의 거민들의 형편을 여실히 묘사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가르침을 엄격히 지키노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모든 원칙들을 범하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순결과 성결이 그들의 불의를 드러내 주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오하였다. 또 그들은 자기들의 죄의 결과로 이르러 온 모든 재난의 원인이 그분에게 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들은 그분의 무죄를 알고서도 그들의 나라의 안전을 위하여 그분의 죽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요 11:48) 고 말하였다.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 그들은 다시 한 번 더 강하고 단결된 나라가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들은 그렇게 추론하였으며,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온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대제사장의 결정에 찬동하였다.

그와 같이 하여 유대의 지도자들은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 (미 3:10) 였다. 그들은 구주께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신 까닭에 그분을 죽였으면서도 자신들을 하나님의 은총 받는 백성으로 간주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라고 기대하리만큼 독선적이었다. 이러므로 선지자는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갊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미 3:12) 고 예언하였다. 예루살렘의 운명이 그리스도 자신의 입으로 선고된 후 거의 40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성과 그 백성에 대한 형벌을 미루어 오셨다. 당신의 복음을 거절하고 당신의 아들을 죽인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놀라웠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의 비유는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처사를 잘 설명해 준다.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눅 13:7) 고 하는 명령은 이미 하달되었지마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일을 잠깐 동안 지체하였다. 유대인 가운데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품성과 사업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은 일찍이 그들의 부모가 거절한 빛을 받아서 실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과 그 동료들의 전도를 통하여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고자 하셨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생애는 물론이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예언이 어떻게 성취된 것을 그들에게 알려 주어야 했다. 그 자녀들이 부모의 죄 때문에 형벌을 선고받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부모들에게 주어진 빛은 물론이요, 그들 자신들이 받은 빛까지도 거절하므로 부모의 죄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악의 잔을 가득 채웠다.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유대인의 완고한 고집을 더욱 크게 해줄 따름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고 학대함으로 마침내 마지막으로 주어진 자비까지도 거절하였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호의 손을 그들에게서 거두시고 사단과 그 사자들을 억제하던 능력을 그들에게서 거두시므로 그 백성은 자기들의 택한 지도자의 지배에 버려진 바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에게 그들의 악한 충동을 제어할 능력을 줄 수 있었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절하였으므로 이제는 그 악한 충동들이 그들을 정복하였다. 사단은 사람의 가장 격렬하고도 비열한 정욕을 불러 일으켰다. 사람들은 시비를 가리지 않고, 이성 (理性) 을 떠나서 충동과 맹목적인 격정 (激情) 의 지배를 받았다. 그들의 잔인성은 악마와 같았다. 가정에, 백성들 사이에, 상류 계급과 하류 계급들 간에 한결같이 의심, 질투, 원한, 불화, 모반, 살육이 편만하였다.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았다.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살해하였다. 위정자들은 자기 자신들을 다스릴 힘이 없었다. 마음을 억제할 수 없었으므로 그들은 폭군이 되었다. 유대인들은 흠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정죄하기 위하여 거짓 증언을 받아들였다. 이제는 거짓 고소가 그들 자신들의 생명을 불확실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사 30:11) 고 말해 왔었다. 이제는 그들의 소원이 성취되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다. 사단은 나라의 수령이 되고, 국가와 종교의 최고 권위자들은 모두 그에게 지배되었다.

서로 적대적인 파당의 지도자들이 때때로 불쌍한 사람들을 박해하고 약탈하는 일에 결탁하였고, 다시 그들끼리 싸우고 무자비하게 살육하였다. 신성한 성전에서까지도 그들은 포악무도한 일을 행하였다. 예배하던 사람들이 제단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성소는 그 시체들로 더럽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흉악한 사건의 선동자들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므로 멸망될 염려가 없다는 그들의 맹목적이며 모독적인 억측을 공공연하게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세력을 더욱 확고하게 구축하기 위하여 그들은 거짓 선지자를 매수하여, 비록 성전이 로마군에게 포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한다고 공포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최후까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의 원수들을 무찔러 주실 것이라는 신념을 꽉 붙잡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거절하였으므로 이제 그들에게는 아무런 방비가 없었다. 불행한 예루살렘이여! 내분 (內紛) 으로 찢겨지고, 피차의 손으로 죽임을 당한 자녀들의 피로써 거리는 붉게 물들고 그 요새 (要塞) 는 이방인들에게 파괴되고, 용사들은 죽임을 당한 불행한 예루살렘이여!

그리스도께서 하신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예언은 글자 그대로 성취되었다. 유대인들은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마 7:2) 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경고의 말씀이 진리임을 경험하였다. 재난과 멸망의 전조가 되는 징조와 기사들이 나타났다. 깊은 밤중에 한 줄기의 이상한 빛이 성전과 제단 위에 나타났다. 해가 질 무렵에는 구름 위에

싸움터로 모여드는 군사들과 전차 (戰車) 들의 광경이 나타났다. 밤에 성소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이 신비한 소리를 듣고 공포에 질렸다. 땅이 진동하였고, “우리가 여기서 떠나가자”고 하는 군중의 외침이 들렸다. 20 명이 힘을 합하지 않으면 열 수 없는 육중하고 견고한 주춧돌에 깊이 박혀 있는 철빗장으로 굳게 닫힌 동문 (東門) 의 문짝이 아무런 인적 (人迹) 도 없이 밤중에 열렸다 (Milman, The History of the Jews, book 13).

그리고 7 년 동안 예루살렘의 시가를 오르내리며 성도 (聖都) 에 재앙이 내릴 것을 선포한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밤낮으로 슬픈 노래를 불렀다. 그는 “동편에서 한 소리가, 서편에서 한 소리가, 사방에서 한 소리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책망하는 한 소리가, 신랑과 신부를 책망하는 한 소리가, 온 백성을 책망하는 한 소리가” (Milman, The History of the Jews, book 13) 난다고 외쳤다. 그 수상한 사람은 옥에 갇히어 벌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한 마디의 원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온갖 능욕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 거민들이여”라고 말할 뿐이었다. 그의 경고의 외침은 그 자신이 예언한 그대로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그가 죽는 순간까지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리스도인은 예루살렘의 멸망 때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미리 경고하셨으므로 그분의 말씀을 믿은 모든 사람은 그 약속의 징조에 유의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눅 21:20, 21) 라고 말씀하셨다. 로마군은 세스티우스 (Cestius) 의 지휘 아래 그 성을 포위하였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즉각적으로 공격하기에 유리한 것처럼 보였을 때에 그들은 갑자기 그 포위를 풀고 퇴군하였다. 성 안에 포위되어 있던 사람들은 적군을 격퇴할 수 없음을 알고 항복하려던 찰나였는데, 그 때에 아무런 명백한 이유 없이 로마의 대장은 군사를 철수시켰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사건들을 조종하고 계셨다. 약속된 징조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 이제 구주의 경고를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때가 절호의 기회였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로마인을 막론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도망하는 일은 막을 수 없도록 사건들을 그렇게 조종하셨다. 세스티우스가 퇴각하는 것을 본 유대군은 예루살렘성에서 나와서 물러가는 적군을 추격하였다. 그리하여 두 군대가 교전하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성을 빠져나갈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이때에는 그들을 막으려고 노력했던 원수들이 지방에는 없었다. 그 성이 포위된 당시에 유대인들은 장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으므로 전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방해받지 않고 도망할 수 있었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안전한 곳, 즉 요단강 건너편 베뢰아 땅에 있는 벨라성으로 피난하였다.

유대군은 세스티우스와 그의 군대를 추격하여 그들을 전멸시킬 듯한 맹렬한 세력으로 뒤에서 공격하였다. 그러므로 로마군은 후퇴하는 데 많은 곤란을 겪었다. 유대군들은 거의 아무런 손실 없이 전쟁을 끝내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외관상으로 승리한 듯한 이 일이 그들에게 재난을 가져다주었다. 이 사건이 로마인들에 대한 그들의 고집스런 반항심을 더욱 굳게 하였고 멸망 받을 운명에 놓여 있는 성을 더욱 신속히 비참한 재앙 가운데 빠지게 하였다.

예루살렘이 티투스로 말미암아 재차 포위되었을 때에 당한 재난은 실로 끔찍스러웠다. 그 도성은 유월절에 포위를 당했는데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성 안에 모여 있었다. 잘 보존하기만 하였더라면 주민들이 몇 년 동안 넉넉히 먹을 수 있었을 저장된 식량은 불목한 당파 간의 질투와 복수로 이미 없어져 버렸고 지금은 온갖 심한 기아에 빠지게 되었다. 밀 한 되의 값이 한 달란트나 되었다. 사람들은 기아의 고통을 견디다 못해 그들의 가죽 허리띠와 신발과 방패 뚜껑을 씹기까지 하였다. 많은 백성들은 들에서 자라는 식물을 뜯어오고자 밤중에 몰래 성벽을 넘어갔다. 그러나 그들 중의 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잔인한 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하였다. 설혹 안전하게 돌아온 사람들이라도 죽음을 무릅쓰고 거두어 온 것들을 도둑맞거나 빼앗기기 일쑤였다. 심지어 궁핍에 빠진 사람들이 감추어 두었을지도 모르는 조금밖에 안 되는 최후의 양식을 빼앗기 위하여 세력 있는 사람들은 가장 잔인한 고문을 자행했다. 그들 중에는 식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미래를 위하여 저장해 두려는 생각에서 만행을 행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무수한 사람들이 기근과 온역으로 죽었다. 혈연적인 애정은 사라진 듯하였다. 남편은 아내의 것을, 아내는 남편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늙은 부모의 입에서 음식을 빼앗는 자식들도 볼 수 있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 (사 49:15) 느냐는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답이 멸망 받을 그 도성에서 나왔다. 그것은 곧 “처녀 내 백성의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애 4:10) 는 대답이었다. 또한 1400 년 전에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예언한 경고도 이루어졌다.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 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질시하여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네 대적이 네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신 28:56, 57).

로마의 장군들은 유대인을 공포에 휩싸이게 하여 그들의 항복을 얻어내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로잡은 유대인 중 저항하는 자는 채찍으로 때리고 고문한 후에 그를 예루살렘 성벽 앞으로 끌어내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죽은 자의 수는 날마다 몇백 명에 달하였다. 이 두려운 일은 계속되어 마침내 여호사밧 골짜기와 갈바리 언덕은 온통 십자가가 난립하여 그 사이를 걸어 다니기도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 일찍이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마 27:25) 고 외치던 그 무서운 요구는 그처럼 무섭게 응답되었다.

티투스는 무슨 방법으로든지 그 비참한 광경을 빨리 끝내고 예루살렘의 완전한 파멸을 막아 보고자 하였다. 그는 골짜기에 쌓여 있는 시체들을 보고 공포로 충만하여졌다. 그는 무엇에 도취된 사람처럼 감람산 위에서 웅장한 성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돌 하나도 다치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는 그 요새를 점령하는 작전을 벌이기 전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자기가 이 거룩한 곳을 부득이 피로써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그들이 성에서 나와서 어떤 다른 곳에서 싸웠다면 로마군은 아무도 그 성전의 신성성을 깨뜨리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요세푸스 (Josephus) 는 매우 열렬한 웅변으로 그들 자신과 그들의 도성과 그들의 예배하는 성전을 건져내기 위하여 항복하라고 간원하였다. 그러나 그 같은 간청에 대하여 그들은 심한 저주로 응수할 뿐이었다. 최후의 조정자로 그들에게 파견되어 간원하는 사람에게 그들은 도리어 창들을 던졌다. 일찍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간청을 배척했었다. 이제 그 충고와 간원은 그들로 하여금 최후의 일각까지 더욱 단호하게 저항하도록 만들 뿐이었다. 티투스가 성전을 보전하기 위하여 기울인 온갖 노력은 허지로 돌아갔다. 티투스보다 더욱 위대하신 분께서 일찍이 돌 하나도 돌 위에 첩 놓이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하셨던 것이다.

유대 지도자들의 맹목적인 고집과 포위된 성 안에서 자행되는 가증한 범죄들은 로마군의 공포와 분노를 더욱 자극시켰다. 그리하여 마침내 티투스는 강습하여 성전을 점령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그는 할 수만 있으면 그 성전을 파멸에서 건져내고자 애를 썼다. 그러나 그의 명령은 무시되었다. 밤이 되어 그는 자기의 천막으로 돌아왔는데 그 때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뛰어나와서 밖에 있는 군사들을 갑자기 공격하였다. 한창 서로 싸움이 벌어졌을 때에 한 군인이 불붙인 횃불을 문 안으로 던짐으로써 성전 주위의 행랑이 갑자기 불꽃에 휩싸였다. 티투스는 장군들과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그 곳으로 달려가서 불을 끄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격분한 군인들은 성전에 붙어 있는 방들에 불을 던지고 거기에 피해 있는 많은 사람들을 칼로 죽였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층층대는 피로 물들었다. 실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가봇" (Ichabod — 영광이 떠났다) 이라고 외치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티투스는 군사들의 분노를 진정시킬 수 없음을 알고 장교 (將校) 들과 함께 몸소 성전 내부를 조사하였다. 그들은 그 성전의 장려 (壯麗) 함과 화려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직 성소까지는 불길이 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것을 구해내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노력하였다. 그리고 그는 뛰어나오면서, 불길을 막으라고 군사들을 독려하였다. 백부장 리베랄리스 (Liberalis) 는 그의 참모 장교들과 함께 그의 명령에 복종케 하려고 힘써 보았다. 그러나 로마 황제에 대한 군사들의 존경심조차도 유대인들에 대한 심한 분노, 전투의 격렬한

흥분, 그리고 탐욕스러운 약탈에의 갈망을 막을 수 없었다. 군인들은 자기들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금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타오르는 화염에 반사되어 눈이 부시도록 빛났다. 그들은 성소 안에는 헤아릴 수 없는 보화가 감춰져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드디어 한 사병이 아무도 모르게 성소의 문의 돌쩌귀들 사이로 불붙은 횃불을 던져 넣자, 온 건물은 삽시간에 화염에 싸여 버렸다. 자욱한 연기와 불길 때문에 장교들과 군사들은 부득이 물러나오게 되었고, 마침내 그 훌륭한 건물은 파멸당하고 말았다.

그것이 로마군에게 그처럼 소름끼치는 광경이 되었다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더욱 그러했겠는가! 온 성이 내려다보이는 산꼭대기 전체는 하나의 활화산 (活火山) 처럼 불타고 있었다. 건물들은 굉음과 함께 하나씩 하나씩 차례로 넘어져 불구덩이 속으로 삼켜지고 말았다. 백향목 지붕은 불붙은 종잇장들과 같았고, 도금한 첨탑 (尖塔) 들은 새빨간 쇠꼬챙이처럼 빛났고, 탑루 (塔樓) 는 높은 불과 연기 기둥이 되어 버렸다. 가까이 있는 산들은 불빛에 비취어 환하게 드러났고, 그 멸망의 과정을 공포에 질린 채 염려하면서 주시하고 있는 낙담한 무리들이 불빛에 드러났다. 그리고 성벽 위에와 성 중 높은 곳들은 사람들로 번잡을 이루었는데 그 중에는 절망적인 고민으로 새파랗게 질린 사람들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무익한 복수심으로 얼굴을 찌푸린 사람들도 있었다. 뛰어다니는 로마 병정들의 함성, 불에 타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애처로운 부르짖음이 불붙는 소리와 건물의 재목들이 무너져 내려앉는 큰 소리와 뒤섞여 들렸다. 그리고 그 소리들은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와 합하여 산울림이 되어 돌아왔다가는 다시 돌아갔다. 성벽 위에도 비명과 통곡의 소리가 뒤섞였으며, 주려서 거의 죽게 된 사람들도 그들의 남은 기운을 다하여 고민과 비탄의 부르짖음을 발하고 있었다.

성내의 살육은 성 밖의 그것보다도 더욱 비참하였다. 남자나, 여자나, 늙은이나 젊은이, 폭도나 제사장, 싸우는 자나 자비를 구하는 자나 무차별하게 학살을 당하였다. 죽임을 당한 자들의 수효는 죽이는 자들의 수효보다 훨씬 더 많았다. 로마 군인들은 도륙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주검의 무더기를 기어 올라가야 했다 (Milman, The History of the Jews, book 16). 성전이 파괴된 후에 온 성은 곧 로마군의 수중에 들어가고 말았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하던 그들의 보루 (堡壘) 를 내어버리고 달아났으므로 티투스가 거기 이르렀을 때에는 오직 적막뿐이었다. 그는 그 보루들을 보고 놀랐으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자기에게 주셨다고 말하였다. 왜냐하면 아무리 강력한 적군일지라도 능히 이와 같이 거대한 보루들을 대항하여 점령할 수 없는 까닭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도성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그 거룩한 성전의 터는 "밭같이 경작함을 당하였다" (렘 26:18). 그 성의 포위와 뒤이은 학살 때문에 목숨을 잃은 자들은 수백만에 달하였고, 남은 자들은 포로가 되어 갔거나 종으로 팔려 가게 되었으며, 승리자의 개선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로마로 끌려가서 원형극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혹은 유랑의 백성이 되어 사방으로 유리하는 자가 되기도 하였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찰 차꼬를 스스로 만들었고, 그들이 마실 복수의 잔을 스스로 채웠다. 그들이 국가적으로 당한 완전한 멸망이나, 그들의 방황하는 처지에서 받은 저주는 그들 자신의 손으로 뿌린 것을 거두는 데 불과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호 13:9, 14:1) 고 말하였다. 그들이 당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징벌로 흔히들 이야기한다. 대기만자는 이와 같이 하여 자기가 행한 일을 숨기려고 애쓴다. 하나님의 자비를 완강하게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가게 하였으며 사단은 그들을 마음대로 주관하도록 허락받았던 것이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나타난 무섭고 잔혹한 모든 사건들은 자신을 사단의 지배에 맡기는 자들에게 사단이 얼마나 무서운 마력 (魔力) 을 휘두르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이다.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안전에 대하여 그리스도께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사람들을 사단의 지배에 완전히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능력이다. 불순종하고 배은망덕한 자일지라도 악한 자의 잔인하고 사악한 세력을 막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에 대하여 감사하여야 할 큰 이유가 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그와 같은 견제 (牽制) 는 제거된다. 하나님께서는 범죄에 대한 판결을 집행하시는 분으로 죄인 앞에 서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당신의 자비를 거절하는 자들을 버려 두시사 그들 스스로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신다. 모든 진리의 빛을 거절한 것, 모든 경고를 멸시하고 유의하지 아니한 것, 온갖 정욕에 빠진 것,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 등은 틀림없이 뿌린 대로 수확하게 될 씨이다. 하나님의 신은 완고하게 거절하는 죄인에게서 마침내 떠나신다. 그렇게 될 때, 영혼의 악한 정욕을 제어할 능력이 없어지고 사단의 원한과 적의 (敵意) 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자비의 호소를 거스르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두렵고도 엄숙한 경고이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와 죄인이 받을 분명한 형벌에 대하여 이보다 더 결정적인 증언을 주신 때는 일찍이 없었다.

예루살렘의 징벌에 대한 주님의 예언은 아직도 하나 더 성취되어야 한다. 예루살렘의 파멸은 장차 올 것과 비교하면 아주 희미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도성의 멸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르고 그분의 율법을 짓밟는 세상의 운명을 볼 수 있다. 죄악으로 점철된 몇천 년간의 처참한 인류의 기록은 암담한 것뿐이다. 생각만 해도 마음 아프고 기절할 정도이다. 또한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른 결과는 두려운 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계시에는 이보다 더욱 암담한 일이 나타나 있다. 과거의 기록, 곧 소란, 투쟁, 혁명,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 (사 9:5) 등에 관한 오랫동안의 역사도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신이 악한 자를 떠나고 인간의 욕망과 사단의 분노를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날에 있을 두려움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그날에는 사단의 통치의 결과가 숨김없이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와 같이 그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 곧 "생존한 자 중 녹명된 모든 사람" (사 4:3) 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충성된 백성을 모으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겠다고 밝히 말씀하셨다.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 24:30, 31). 그 때에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그분의 입의 기운으로 죽임을 당하고 그분의 강림하시는 영광으로 멸망당할 것이다 (살후 2:8). 옛날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악한 자들은 자신들의 불의로 말미암아 넘어진다. 죄의 생애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과 조화되지 못하고, 그들의 본성이 악으로 타락되어 버렸으므로 예수님의 강림하시는 영광이 그들에게는 소멸시키는 불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교훈을 등한히 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분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제자들에게 경고하시고 그 멸망이 가까워 오는 데 대한 징조를 알려 주심으로 그들이 도망할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그분께서는 세상의 마지막 멸망을 경고하시고 그날이 가까워 옴을 알려 주는 징조를 주셔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날에 임할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일월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곤고하리라"고 말씀하신다 (눅 21:25; 마 24:29; 막 13:24~26; 계 6:12~17). 그분의 강림의 전조를 보는 사람들은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마 24:33) 을 알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막 13:35) 고 경고하신다.

그 경고에 유의하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버려둠을 받지 않을 것이요, 알지 못하는 때에 그날이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깨어 있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게 될 것이다 (살전 5:2~5 참조). 오늘날의 세상은 일찍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관한 경고에 대하여 취한 태도와 마찬가지의 태도로 현대의 기별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때가 이르리니, 여호와의 날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생각지 아니한 중에 이를 것이다. 일상생활이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향락에 도취되고, 사업과 장사와 돈 버는 일에 몰두하고, 종교인들은 세속적 발전과 문화를 찬양하고, 백성들은 거짓된 안전 속에 속아 있을 그 때에, 마치 도둑이 문들을 단속하지 아니한 집으로 숨어 들어오는 것처럼 부주의하고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갑작스런 멸망이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단코 피하지 못" (살전 5:2, 3) 할 것이다.

2 장 — 박해의 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운명과 재림의 광경을 알려 주실 때 당신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신 후부터 권능과 영광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러 다시 오시기까지 당신의 백성들이 당할 경험에 대하여서도 미리 말씀해 주셨다. 구주께서는 감람산 위에서 사도 시대의 교회에 밀려올 폭풍을 보셨다. 그분께서는 또한 먼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장차 올 암흑과 박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칠 맹렬한 폭풍을 보셨다. 그리고 지극히 의미심장하고 분명한 말씀으로 이 세상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어떠한 일을 할지에 대해서도 예언하셨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동일한 굴욕과 비난과 고난의 길을 가야만 한다. 그리고 세상의 구주를 향하여 쏟아졌던 증오는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구주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입증하였다. 세상과 음부 (陰府) 의 권세는 전력을 다하여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함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다. 이교 (異教) 는 만일 복음이 승리를 얻는다면 그들의 신전 (神殿) 과 제단은 일소 (一掃) 되리라는 것을 예견하였다. 그러므로 이교는 그리스도교를 박멸하고자 전력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박해의 불길이 타올랐다. 그리스도인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집에서 내어 쫓겼다. 그들은 "고난의 큰 싸움에 참"고,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 (히 10:32, 11:36) 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증거를 그들의 피로써 인 쳤다. 빈부와 귀천과 학식의 유무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하였다.

바울이 순교당한 당시의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된 박해는 그 정도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 후 몇 세기 동안 계속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무서운 죄목으로 거짓 고소를 받았고 기근, 질병, 지진 등의 재난도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생긴다는 원망을 들었다. 그들이 일반 사회의 미움과 의심의 대상이 되자 밀고자들은 이 (利) 를 얻기 위하여 무죄한 사람들을 무고 (誣告) 하였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반역자, 종교의 적, 사회에 해를 끼치는 자로 정죄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원형 극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였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거나 짐승의 가죽을 씌워서 투기장 (鬪技場) 에 던져짐으로 개에게 찢겨 죽은 자들도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처형은 축제 때 자주 오락거리로 삼아졌다.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와서 그 광경을 보고 매우 즐거워하였고, 그들의 죽음의 고통을 보고 크게 웃고 손뼉 치며 기뻐하였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어디로 피난하든지 맹수에게 쫓기는 것처럼 추적당했다. 그들은 불가불 황량하고 인적이 없는 곳에서 은신처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 (히 11:37, 38) 다. "카타콤" (Catacombs) 은 무수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로마성 밖에 있는 언덕들 밑에 흙과 바위를 뚫고 만든 긴 굴들이 있었다. 그물 모양으로 이리저리 뚫린 굴은 성 밖 멀리 수십리의 지점에까지 뻗어 있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하의 피난처에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시체를 묻었다. 또한 그들이 의심을 받고 그들에게서 법률의 보호가 제거되었을 때 여기서 살았다. 생명의 시여자께서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을 깨우실 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많은 순교자들이 이 음산한 굴속에서 나올 것이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깨끗이 보전하였다. 그들은 온갖 편리한 것들을 다 빼앗기고 햇빛조차 볼 수 없는 어두운 땅 속에서, 그러나 부드러운 땅의 품속에서 지내는 동안, 한마디의 불평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들은 믿음과 인내와 희망이 가득한 말로 서로 격려하며 궁핍과 괴로움을 견디었다. 온갖 세상적인 축복들을 잃어버리는 것도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버리도록 만들 수 없었다. 시련과 박해는 그들이 받을 안식과 상급을 향하여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발걸음에 지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은 옛적의 하나님의 종들처럼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 (히 11:35) 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인하여 핍박을 받을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상기하였다. 그들은 진리를 위하여 고난 받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었다는 사실로 즐거워하였으며 딱딱 소리를 내며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승리의 노래를 불렀다. 그들은 믿음으로 위를 쳐다보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천사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의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기꺼이 받으시는 사실을 눈으로 보았다. 그들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계 2:10) 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음성을 들었다.

폭력으로 그리스도 교회를 멸하려던 사단의 노력은 허지로 돌아갔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명을 바친 대쟁투는, 그 충실한 기수 (旗手) 들이 자기의 담당 구역에서 싸우다 쓰러졌을 때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패배로 정복하였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죽임을 당했지만 그분의 사업은 꾸준히 발전되었다. 복음은 끊임없이 전파되었고, 믿는 자의 수효는 더욱더 증가되었다. 복음은 로마의 수리표의 군기 (eagles of Rome) 조차도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까지 침투해 들어갔다. 계속하여 박해하기를 주장하는 이방인 통치자들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은 다음과 같이 간언하였다. "당신들은 우리를 죽이고 고문하고 정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의롭지 못한 당신의 처사는 우리가 무죄하다는 증거이다. ... 당신들의 잔인성이 당신들을 이롭게 하지도 못할 것이다." 박해는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끌어 들이는 더욱 강한 초청이 될 뿐이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목 베임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수효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피는 씨다" (Tertullian, Apology, paragraph 50).

무수한 사람들이 옥에 갇히거나 살육을 당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들의 자리를 채웠다. 이와 같이 신앙의 이유로 순교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보증을 받고, 승리자로 간주되었다. 그들은 선한 싸움을 싸웠으므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이 당한 고난은 그리스도인들 상호간에 그리고 그들의 구속주께 더욱 친밀하게 만들었다. 또한 그들의 일상 생활의 모본과 임종시의 증언은 진리에 대한 끊임없는 증인이었다. 전혀 가망이 없었던 사단의 부하들이 사단을 섬기는 일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이게 되었다.

그러므로 사단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정부를 대적할 계획을 세우고, 자기의 깃발을 그리스도 교회 안에 꽂았다.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을 속여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도록만 한다면, 그들이 힘과 견인불발 (堅忍不拔) 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쉽사리 자기의 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큰 원수는 폭력을 씀으로 손해를 본 것을 계교를 써서 찾으려고 애를 썼다. 박해는 그치고, 그 대신에 세속적 번영과 세속적 명예라는 위험한 미끼가 놓이게 되었다. 우상 숭배자들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일부분은 받아들이고 중요한 다른 진리들은 거절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노라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죄를 자각하거나 회개 혹은 마음의 변화의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일치하기 위하여 먼저 양보하였은즉 그리스도교 측에서도 그만큼 양보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제 교회는 무서운 위험에 봉착했다. 투옥, 불, 칼 등은 이것과 비교할 때 축복이었다. 물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경우에도 굳건히 서서 전혀 타협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다른 어떤 이들은 자기들의 신앙의 일부를 버리거나 변개하여, 그리스도교를 부분적으로만 용인 (容認) 하는 자들과 결합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을 온전한 회개로 이끄는 수단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때가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깊은 번민의 시기였다. 그리스도교의 가면을 쓴 사단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자들의 믿음을 타락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였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마침내 그들의 표준을 낮추는 데 동의하였으며 그리스도교와 이교 사이에 연합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은 그리스도교로 개종 (改宗) 하고 교회에 입교하였다고 공언했으나 여전히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고 그 예배의 대상을 예수님의 형상과 마리아와 모든 성도들의 형상으로 바꾸는 것으로 그치고 말았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들어온 우상 숭배의 누룩은 계속적으로 해로운 일을 하였다. 불건전한 교리와 미신적 의식 (儀式) 과 우상 숭배적인 허식이 그리스도교의 신조와 예배에 혼합되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들과 타협한 결과로 그리스도 교회 안에 우상 숭배의 그릇된 사상과 좋지 못한 풍습이 수입되었고, 교회는 타락하여 순결과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이러한 기만에 넘어가지 않고, 진리의 근원되시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무리들 가운데 언제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 왔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구주의 생애를 연구하고, 자기들의 결점을 고치고 그분의 모본에 일치되고자 열심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며, 그 다른 편의 사람들은 그들의 잘못을 보여 주는

명백하고도 실제적인 진리를 피하는 사람들이다. 교회는 비록 그 형편이 가장 좋았던 시대에 있어서도 진실하고 순결하고 성실한 사람들만으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았다. 우리 구주께서는 고의적으로 죄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을 교회에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품성이 불완전한 자들로 더불어 사귀심으로 당신의 가르치심과 모본을 통하여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고칠 기회를 가지게 하셨다. 열두 제자 중에도 한 반역자가 있었다. 유다가 제자로 받아들여진 것은 그의 품성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서였다. 그가 제자들 가운데 속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교훈과 모본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품성이 어떠한 것임을 배우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거룩한 은혜를 힘입어 진리를 순종하므로 그 심령이 정결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유다는 자기에게 그토록 은혜롭게 비추어진 빛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죄에 빠짐으로 사단의 유혹을 자초 (自招) 하였다. 그의 품성의 나쁜 특성이 지배적이 되었다. 그는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암흑의 세력에 맡겼다. 그는 자기의 잘못에 대하여 책망을 받게 되자 화를 내었고, 마침내는 자기의 주님을 파는 무서운 죄를 범하기까지 되었다. 이와 같이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면서 악을 품고 있는 자들은 그들의 죄악적 행동을 지적함으로 마음의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들을 미워한다. 그들은 유다처럼 어떤 기회를 만나면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견책해 주는 사람들을 도리어 배반할 것이다.

사도들은 교회 안에서 입으로는 경건하다고 공언하면서도 불의한 것을 마음에 몰래 품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기만적인 일을 하였다. 그들은 겉으로 볼 때 하나님께 완전히 희생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탐심을 품고 재산의 일부를 그들 자신들을 위하여 감추어 두었다. 진리의 성령께서는 그 거짓된 자들의 본성을 사도들에게 드러내 주셨고, 하나님의 징벌은 그 더러운 오점을 제거하고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게 해주셨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낱낱이 가려내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교회에 나타난 현저한 증거는 모든 위선자와 악인들에게 두려움이 되었다. 그들은 습관과 품성에 있어서 항상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들과 언제까지나 같이 지낼 수는 없었다. 핍박과 시련이 이를 때에 진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기를 꺼리지 아니하는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였다. 그같이 하여 핍박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교회는 비교적 순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박해가 그치자 철저하지도 못하고, 헌신하지도 아니한 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사단의 발판 노릇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빛의 임금과 어둠의 임금 사이에는 연합이 없으며, 그들의 추종자들 간에도 연합이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교 (異教) 로부터 반쯤 개종한 자들과 연합하기를 동의하므로, 그들은 진리에서 점점 더 멀리 떨어져 가는 길을 걷게 되었다. 사단은 이처럼 그리스도의 많은 제자들을 속이는 데 성공한 것에 대하여 미칠 듯이 기뻐하였다. 그리하여 사단은 그들에게 더욱 충분한 능력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아직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게끔

충동하였다. 한 때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옹호하던 자들만큼 참된 그리스도인 신앙을 반대하는 방법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없다. 이러한 배도한 그리스도인들은 반쯤은 이교적인 신도들과 연합하여 기독론의 가장 기본적인 면들을 공격하였다.

충성스럽게 되려는 자들이 성직자의 옷으로 위장하고 교회에 들어온 기만과 가증한 것들을 굳세게 대항하는 데는 투쟁이 필요하였다. 성경은 신앙의 표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종교 자유의 교리도 이단으로 불렸으며, 그 교리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증오를 받았으며 법률의 보호에서 제외당했다. 오랫동안의 격렬한 투쟁 끝에, 충성된 적은 무리는 이 배교적인 교회가 거짓과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들과 결코 연합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분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그들의 심령에 치명적인 오류를 묵인하거나, 후손들의 신앙을 위태롭게 할 모본을 남기는 일을 차마 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 저촉되지 않는 양보라면 화평과 연합을 유지하기 위하여 할 수도 있지만 원칙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진리와 정의를 양보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연합이라면 차라리 불화와 투쟁의 편을 택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굳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고무 (鼓舞) 시킨 원칙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되살아날 수만 있다면,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얼마나 좋을까!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둥이 되는 교리들에 대한 무관심은 우려할 만한 정도이다. 결국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널리 퍼지고 있다. 이러한 타락은, 사단의 부하들의 손을 강화시켜 주고 있다. 그리하여 과거 여러 세기 동안에 충성된 사람들이 생명을 무릅쓰고 거부하고 폭로시킨 그 거짓된 이론과 치명적인 기만들이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칭하는 수많은 자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다. 초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특별한 백성들이었다. 그들의 흠 없는 행실과 견고한 믿음은 언제나 죄인의 마음을 불안하게 해주는 견책이 되었다.

그들은 수효도 적고, 재산과 지위와 명예로운 칭호도 없었지만 그들의 품성과 교훈은 어디서나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므로 마치 아벨이 경건치 못한 가인에게 미움을 받은 것처럼 그들은 악한 자들에게 미움을 받았다. 또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과 똑같은 이유로 성령의 지배를 거스른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이와 똑같은 이유에서였다. 곧 그분의 품성의 순결과 거룩함이 그들의 이기심과 타락에 대한 끊임없는 견책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사시던 때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충성된 제자들은 죄를 좋아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의 미움과 반대를 받아왔다.

그렇다면 복음이 어떻게 평화의 기별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 이사야는 메시야의 출생을 예언할 때에 그분을 "평강의 왕" (사 9:6) 이라고 불렀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출생을 목자들에게 선포할 때에 베들레헴 상공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눅 2:14) 라고 노래하였다. 이 예언적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마 10:34) 고 하신 말씀은 서로 배치되는 듯하다. 그러나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그 둘은 완전히 일치된다. 복음은 평화의 소식이다. 그리스도교는, 세상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기만 하면 세상에 평안과 조화와 행복을 전해주게 된다. 그리스도의 종교는 그 교훈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친한 형제의 관계를 이루어 준다.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고 상호간에 화목을 이루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다. 그러나 세상은 대부분 그리스도의 대적인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 복음은 그들의 습관과 욕망과는 전혀 반대되는 생활 원칙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반대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죄를 드러내어 그것을 죄라고 지적해주는 순결을 증오하며 공의롭고 성결한 복음의 요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인다. 그러므로 복음이 가져다주는 고상한 진리가 증오와 분쟁을 일으키는 일도 있다는 의미에서 복음은 검으로 불린다.

악인의 손에 의인이 핍박받는 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는 믿음이 연약한 많은 사람들에게 당혹감을 가져다 준 한 문제였다. 그리하여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몹시 악한 자들은 번영케 하시면서 선하고 순결한 사람들은 괴로움을 당하게 하신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버리려고까지 한다. 공의롭고 자비하시고 무한한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와 같은 불의와 압박을 묵인하실 수 있느냐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조금도 염려할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에게 충분한 증거를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그분의 섭리의 역사를 깨달을 수 없다고 하여 그분의 자비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 구주께서는 어두운 시련의 때에 제자들의 마음에 의혹이 생길 것을 미리 아시고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요 15:20)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 중의 어떤 사람이 악한 자의 잔인한 행위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보다 더욱 심한 고난을 받으셨다. 혹독한 형벌과 순교를 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데 지나지 않는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 (벧후 3:9) 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잊으시거나 소홀히 여기지 않으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들이 악한 자들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고자 악한 자들이 그들의 참 본성을 드러내도록 허락하신다. 또한 의인이 고난의 풀무 가운데 던져짐을 당하는

것은 그들을 정결하게 만들고, 그들의 본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과 경건의 실재 (實在) 를 보여 주고, 그들의 일관된 행동으로 불경건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가 번영하고, 그들이 당신께 대한 적의 (敵意) 를 나타내도록 허용하시는 것은 그들의 죄악의 잔이 찰 때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완전한 멸망 가운데서 그분의 공의와 자비를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의 보복의 날, 곧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한 모든 자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는 날,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에게 행한 모든 잔학하고 불의한 행위가 그리스도 자신에게 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벌을 받는 날이 신속히 다가오고 있다. 오늘날 교회가 주의해야 할 더욱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 있다. 사도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딤후 3:12) 고 말하였다.

그러면 박해의 불이 거의 꺼진 듯이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그 유일한 이유는 교회가 세속적 표준과 타협하여 별로 반대를 받을 일이 없는 까닭이다. 오늘날의 종교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이 생활하던 당시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처럼 순결하고 거룩한 성격의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교가 세상에서 인기가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죄와 타협하는 정신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진리들이 너무도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내에 활력이 넘치는 경건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초대 교회의 신앙과 능력이 되살아날 때에 박해의 정신은 다시 나타날 것이며, 핍박의 불길은 다시 타오를 것이다.

3 장 — 어두운 시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둘째 편지에서 법왕권의 확립을 초래할 큰 배도를 예언하였다. 그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 (살후 2:3, 4) 리라고 말하였다. 그는 또한 계속하여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 (살후 2:7) 다고 형제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그는 초창기에 이미 교회 안에 오류들이 몰래 들어와서 법왕권이 자라날 길이 준비되고 있는 사실을 보았다.

"불법의 비밀"은 처음에는 조금씩 조금씩 비밀리에 그리고 조용히, 그리고 나중에는 세력이 커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자 더욱 공공연하게 그의 기만적이요, 참람된 일을 진척시켰다. 이교의 관습은 거의 드러나지 않게 조금씩 조금씩 그리스도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왔다. 양보와 순응주의적 정신은 교회가 이교 아래서 견뎌낸 맹렬한 박해로 말미암아 한동안 방치되었었다. 그러나 이제 박해가 그치고 그리스도교가 왕궁 안으로 들어가게 되자, 교회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의 겸손한 단순성을 버리고 이교의 제사장이나 방백 (方伯) 들의 교만과 허식 (虛飾) 을 따르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의 이론과 유전으로 대체시켰다. 4 세기 초엽에 있었던 콘스탄티누스 (Constantine) 의 이름뿐인 개종은 큰 기쁨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실상은 세상이 의 (義) 의 형식의 탈을 쓰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그리하여 타락이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표면적으로는 이교가 정복당한 듯하였으나 실상은 승리자가 되었다. 이교의 정신이 온 교회를 지배하였다. 이교의 교리, 의식, 미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의 예배와 신앙에 혼합되었다.

이러한 이교와 그리스도교회 사이의 타협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높이리라고 예언된 죄악의 사람의 발전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거짓 종교의 거대한 조직은 사단의 능력의 걸작품, 곧 스스로 보좌에 앉아서 자기의 뜻대로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의 노력의 기념탑이다. 사단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타협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었다. 그는 시험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나타나 천하만국과 그 영화를 보이면서 만일 암흑의 왕의 최상권만 인정해 주면 그 모든 것을 그분에게 주겠노라고 제의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참람된 유혹자를 견책하시고, 그를 쫓아버리셨다. 그러나 사단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시험을 제시하여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세상의 이익과 영예를 얻기 위하여 교회는 세상의 위대한 인물들의 찬성과 지지를 구하도록 인도되었으며,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거절한 후에는 사단의 대표인 로마교의 감독에게 충성하도록 권유를 받았다.

법왕은 보편 교회 (Universal Church) 의 가시적 머리이며, 세계 각처에 있는 감독들과 목사들에 대한 최상권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로마교의 주요 교리의 하나이다. 더욱이 법왕에게는 하나님의 직함들이 주어진 바 되었다. 그는 "주 하나님이신 법왕"이라고 불리워 오고 있으며 절대 무오의 존재로 선포되어 왔다 (부록 1, 2 참조). 그는 전 인류의 숭배를 요구한다. 사단이 시험의 광야에서 주장한 것과 똑같은 주장을 그는 오늘날도 로마교를 통하여 하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숭배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교활한 원수의 유혹을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눅 4:8) 고 말씀하심으로 물리치셨듯이 이 같은 하늘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 참람된 자를 대적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 가운데 어떤 사람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암시조차 하신 일이 없다. 그러므로 법왕의 최상권에 대한 교리는 성경의 교훈과 전적으로 배치된다. 법왕은 찬탈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배할 권세를 가질 수 없다.

로마교들은 신교도들에게 이단이라는 죄목을 씌우고, 고집스럽게 참 교회에서 떠난 자들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런 비난은 오히려 그들 자신들에게 해당된다. 그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군기 (軍旗) 를 버리고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유 3) 에서 떠난 자들이다. 사단은 성경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기만을 간파하게 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권세에 대항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세상의 구주이신 주님조차도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실 때에는 성경 말씀으로 하셨다. 그분께서는 사단이 도전해 올 때마다 "기록되었으되"라는 영원한 진리를 방패로 삼아 대응하셨다. 사단의 모든 암시를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의 지혜와 능력으로 대항하셨다. 그러므로 사단이 사람들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찬탈적인 법왕권을 세우려면 반드시 사람들을 성경에 대하여 무지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었다. 성경은 하나님을 높이는 동시에 유한한 사람의 위치를 나타내 주는 것이므로, 성경의 진리를 가려 버리거나 없애 버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하여 로마교는 이와 같은 논리를 채택하였다. 수백 년 동안 성경의 보급은 금지되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읽거나 집에 간직해 둘 수도 없었다. 절조 없는 신부들과 주교들이 그들의 진위가 모호한 주장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성경의 가르침을 해석하였다. 그같이 하여 법왕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교회와 국가를 지배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것으로 일반 사람들은 시인하기에 이르렀다. 오류 (誤謬) 탐지기인 성경이 제거되자 사단은 마음 놓고 활약하였다. 예언은 법왕권이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 (단 7:25) 라고 하였다. 그 일의 실행은 지체되지 않았다. 이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를 대신할 어떤 것을 마련해 주어 그들의 명목적인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성상 (聖像) 과 유물 숭배가 그리스도인 예배에 점진적으로 도입되었다. 총회의 교령 (敎令) 은 마침내 우상 숭배의 제도를 확립시켰다 (부록 3 참조). 로마교는 신성

모독적 사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대담하게도 우상 숭배를 금지한 하나님의 둘째 계명을 삭제하고 계명의 수효를 맞추기 위하여 열째 계명을 둘로 나누었다.

이교에 양보하는 정신은 하나님의 권위를 한층 더 무시하는 길을 열었다. 사단은 헌신하지 못한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하여 넷째 계명에 손을 대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옛적부터 내려오는 안식일을 폐하고, 그 대신에 이교도들이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로 지켜온 그날을 축일로 세우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을 초기에는 공공연하게 시도하지 않았다. 처음 몇 세기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참 안식일을 지켰다.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돈독하였고, 그분의 율법의 불변성을 믿었으므로 율법의 신성성을 열렬하게 옹호하였다. 그런데 사단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대단히 교묘한 방법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일요일에 집중시키기 위하여 그날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축일로 삼았다. 그날에 종교적 행사들이 행해졌지만, 그날은 다만 오락일로 여겨졌을 뿐이며, 안식일은 여전히 신성하게 준수되고 있었다.

사단은 자기가 목적한 사업을 성취할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초림 전에 먼저 유대인으로 하여금 안식일을 가혹한 부담이 되게 하여 그날을 준수하는 일이 무거운 짐이 되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이와 같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릇된 것을 이용하여, 그것을 유대인의 제도라고 모욕하였다. 일요일을 즐거운 축일로 삼아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는 한편 그는 유대교에 대한 증오감을 보이기 위하여 안식일을 금식하는 날이요, 우울하고 슬픈 날로 삼도록 그들을 이끌었다. 4 세기 초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칙령을 내려 일요일을 로마 제국 전체의 공적인 축일로 삼았다 (부록 4 참조). 태양의 날은 이교도들이 존중하고 있는 동시에 그리스도인들도 존중하고 있었다. 이교와 그리스도교 사이의 충돌하는 이해 (利害) 를 연합시키는 것이 황제의 정책이었다. 그리스도교와 이교도가 같은 날을 지킨다면 이교도들이 명목상으로라도 그리스도교를 채택하는 일이 촉진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교회의 권세와 영광이 더할 것을 깨달은, 야망과 권력욕에 고무된 교회의 감독들이 황제에게 그렇게 하도록 촉구하였다. 그러나 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이 어느 정도 신성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안식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날로 주장하였고, 넷째 계명에 따라 그날을 지키고 있었다.

대기만자는 그의 일을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도교 세계를 자기의 깃발 아래 모으고, 자기의 대리자, 곧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주장하는 거만한 대감독을 통하여 자기의 권세를 발휘하고자 결심하였다. 그는 완전히 회개하지 않은 이교도들과 야심이 가득한 감독들과 세속적 욕망을 가진 교직자들을 통하여 자기의 목적을 이루었다. 때때로 대규모 종교 회의들을 경영하여, 온 세계에서 교회의 고위 성직자들을 소집하였다. 거의 모든 회의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은 조금씩 가치를 저하시키는 동시에 일요일은 조금씩 높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교의 축제일은 신성한 제도인 듯이 높임을 받게 된 반면 성경상 안식일은 유대교의 유물이라는 선고를 받고, 그날을 지키는 자는 저주를 받을 자로 공포되었다.

이리하여 이 큰 배도자는 마침내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살후 2:4) 게 스스로를 높이는 데 성공하였다. 그는 대담하게도 모든 인류에게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율법의 유일한 계명을 변경하려고 시도하였다. 넷째 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창조주로서 계시되었으며 그런 까닭에 다른 거짓 신들과 구별되신다. 그리고 제칠일이 인류의 안식일로 거룩히 구별된 것은 한편으로 창조 사업을 기념하는 동시에, 또한 인류의 마음에 살아 계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며 존경과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을 언제나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그분의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사단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지적해 주는 계명을 특별히 공격하고자 애쓰고 있다.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셨으므로 그날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거기에 관한 성경상 증거는 전혀 없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은 그날을 그와 같이 높이지 않았다. 그리스도교의 제도로써 일요일을 준수하게 된 단서는 이미 바울의 시대에 활동을 시작한 "불법의 비밀" (살후 2:7) 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 이 법왕권의 소생 (所生) 을 양자로 삼으셨는가? 성경이 인정하지 않는 이와 같은 변경에 대하여 어떠한 타당한 이유를 댈 수 있겠는가?

6 세기에 법왕권은 확고하게 확립되었다. 그의 권좌는 로마에 위치하게 되었고, 로마의 감독은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공포되었다. 이교는 그의 지위를 법왕에게 넘겨주었다. 곧 용이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 (계 13:2) 를 주었다 (부록 5 참조). 이리하여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한 1260 년간의 법왕권의 박해가 시작되었다 (단 7:25; 계 13:5~7 참조).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절개를 버리고 법왕교의 의식과 예배를 받아들이든지, 지하 감옥에 갇히거나 고문대 (拷問臺) 와 화형 (火刑) 과 참형 (斬刑) 집행자의 칼에 생명을 빼앗기든지, 그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 (눅 21:16, 17)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박해는 전에 없이 한층 더 격렬하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임하였으므로 세상은 하나의 큰 전쟁터가 되어 버렸다. 그 후 수백 년간 그리스도교회는 인가가 없는 궁벽한 곳에서 피난처를 찾았다. 선지자는 이 일에 대하여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 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계 12:6) 고 예언하고 있다.

로마교회가 권세를 잡게 되므로 이른바 암흑시대가 시작되었다. 그 권세가 더해 갈 적마다 암흑은 더욱 짙어졌다. 믿음은 진정한 기초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로마 법왕에게로 옮기어 갔다.

사람들은 죄의 사유와 영원한 구원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의뢰하는 대신에 법왕과 법왕에게서 권세를 받은 신부나 주교에게 구하게 되었다. 법왕은 세상에 있는 그들의 중보자이며, 그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법왕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치에 서 있으므로 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들은 배웠다. 그러므로 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심신에 엄한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오류가 많고 잔인한 사람들, 아니 그보다도 그들을 통하여 자기의 권력을 행사하는 암흑의 임금에게로 향하게 되었다. 죄는 신성 (神聖) 이라는 가면을 쓰게 되었다. 그런즉 성경이 금지를 당하고, 사람이 자기를 지극히 높은 자라고 할 때 우리는 거짓과 속임과 불법에 대하여 경계해야 한다. 사람의 법과 전설이 높임을 받을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함으로 생기는 타락이 나타났다.

이때는 그리스도교회가 위기에 놓인 시대였다. 충성된 기수 (旗手) 는 참으로 적었다.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지마는 오류와 미신이 완전히 승리하고 진정한 종교는 세상에서 제거될 것처럼 보였다. 복음은 잊혀진 바 되었고 종교의 형식은 증가되었으며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가혹한 요구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 그들은 법왕을 그들의 중보자로 우러러보고,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그분의 은총을 얻기 위하여 먼 길의 순례 여행, 고행, 유물 예배 (遺物禮拜), 교회당과 제단과 수도원의 건립 (建立), 많은 돈의 헌납 (獻納), 그와 유사한 그 밖의 일들을 행하라는 명령이 주어졌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사소한 일로 진노하시고, 예물이나 고행으로 그 진노를 거두시는 분이시기나 한 것처럼. 비행 (非行) 은 온 사회에 퍼지되 심지어 로마교회의 지도자들에게까지도 파급되었지만 그 교회의 세력은 꾸준히 증가되는 듯하였다. 8 세기의 말엽에 법왕교도들은 초대의 교회에서도 로마의 감독들은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신령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의 확실성을 공고히 하고 그것을 더욱 권위 있게 하기 위하여 무슨 방법이 사용되어야만 하였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로 말미암아 이러한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암시가 이미 주어져 있었다. 승려들은 고서 (古書) 들을 위조하였다. 초기부터 법왕은 전반적인 최상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을 세우기 위하여 그 당시까지 전혀 듣지 못한 종교 회의의 결의문들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진리를 배반한 교회는 이 기만을 즐겨 받아들였다 (부록 6 참조).

참된 기초 위에서 일을 하던 소수의 신실한 건축가들은 거짓 교리가 자기들의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혼란과 어려움을 느꼈다. 마치 느헤미야 당시에 예루살렘 성을 쌓던 사람들처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부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느 4:10) 고 말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다. 그들은 공사의 진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자행되는 박해, 기만, 불법, 그 밖에 사단이 고안해 낼 수 있는 온갖 장애물과의 끊임없는 싸움으로 피곤하여져서, 충성된 건축가들이었던 자들 중 더러는 낙담해 버렸다. 그들은 마침내 생명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참된 기초에서 물러갔다. 그러나 원수들의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 (느 4:14) 라고 용감하게 외치면서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진리를 미워하고 반대하는 동일한 정신이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원수들을 충동시켜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경계와 충성이 요구되어 왔다. 그리스도께서 최초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말세에 사는 그분의 제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막 13:37) 고 말씀하신다. 암흑은 점점 더 짙어지는 듯이 보였다. 우상 숭배는 더욱더 보편화되었다. 우상 앞에서 촛불을 켜고 기도를 올렸다. 가장 불합리하고 미신적인 풍습들이 널리 보급되었다. 사람들의 정신은 완전히 미신에 사로잡혀서 이성 (理性) 은 그 기능을 잃은 듯하였다. 신부와 주교 자신들이 향락을 즐기고, 육욕적이며 타락에 빠져 있었으므로 그들을 지도자로 우러러보는 사람들이 무지와 악덕에 빠지지 않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법왕의 참람된 행위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11 세기에 법왕 그레고리우스 7 세 (Gregory Ⅶ) 는 로마교회가 완전하다고 선포하였다. 그의 주장 중의 하나는 성경에 의하면 교회는 한 번도 그릇된 일을 한 적이 없고, 또 장래에도 잘못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을 지지해 주는 성경상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거만한 법왕은 또한 황제들을 폐위시킬 권세가 자기에게 있노라고 주장하고, 자기가 선포한 선고는 아무도 이를 폐기 (廢棄) 할 수 없지만 자기에게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결정을 변경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부록 7 참조).

절대 무류 (絶對無謬) 를 주장하는 법왕의 포악한 특성을 보여준 현저한 실례는 독일 황제 하인리히 4 세 (Heinrich IV) 에게 행한 조치였다. 하인리히는 법왕의 권위를 감히 무시하였기 때문에 파문 (破門) 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폐위의 선고까지 받았다. 하인리히 4 세는 법왕의 명령에 의하여 자기를 배반하도록 촉구 받은 자기의 제후 (諸侯) 들의 배척과 협박에 두려움을 느끼고 법왕과 화해해야 할 필요를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법왕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자 황후와 충실한 한 시종을 데리고 한겨울에 험한 알프스 산을 넘어갔다. 그리하여 당시 그레고리우스 법왕이 유하고 있는 성에 도착하자 호위병 하나 없이 궁전의 외원 (外苑) 에 이끌려 나가, 머리에는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몸에는 변변치 못한 옷을 입은 채 맨발로 추위에 떨면서 법왕의 면회가 허락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3 일 동안의 금식과 자복이 있은 후에야 법왕은 그를 사면하였다. 그것도 왕권을 나타내는 휘장 (徽章) 을 달거나 왕의 권리를 행사하게 될 때에는 먼저 법왕의 윤허 (允許) 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이에 그레고리우스는 의기양양하여 군주들의 교만을 꺾어 주는 것이 자기의 의무라고 자랑하였다.

이처럼 오만 불손한 법왕의 태도를 마음 문 밖에 서서 문을 열어 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리스도, 제자들에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 20:27) 고 가르치신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태도와 비교해 보면 얼마나 대조적인가! 세기가 지나갈수록 그릇된 교리가 로마로부터 끊임없이 나왔다. 법왕권이 확립되기 전에 이미 이교의 철학자들의 가르침이 주목을 받았으며, 교회 내에 영향을 미쳐왔다. 개종했노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들의 이교적 철학설을 주장하며 스스로 그것을 계속 연구할 뿐만 아니라 이교도들과 접촉하는 수단이 된다는 구실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것을 강요하는 자가 있었다. 이리하여 심각한 오류가 그리스도교 신앙 안으로 들어왔다. 사람은 본래 불사 불멸 (不死不滅) 의 본성을 가졌으므로 죽은 후에도 의식 (意識) 이 있다는 설은 그와 같은 오류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다. 로마교회가 확립한 성도의 중보, 동정녀 마리아 숭배 같은 것이 다 이러한 교리를 기초로 생겼다. 또한 일찍부터 법왕교 신앙에 통합된 교리로서 끝끝내 믿지 않는 자는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것이란 이단설도 역시 이와 같은 교리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하여 이교에서 꾸며낸 또 다른 이단설이 들어올 길이 준비되었다. 로마는 그것을 연옥으로 명명하였으며, 쉽사리 믿는 미신적인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였다. 이 이단설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정도까지 이르지 아니한 영혼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아야 할 곳, 그리고 거기서 모든 부정한 것이 씻겨졌을 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될 고통의 장소가 있다는 것이 긍정되었다 (부록 8 참조). 그 신자들의 공포심과 악행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을 로마로 가능케 하기 위하여 또 다른 날조가 필요되었다. 그것은 곧 면죄 (免罪) 에 관한 교리였다. 법왕군 (法王軍) 에 속하여 그 영토를 넓히고, 교회의 적 (適) 을 징벌하고, 법왕의 영적 최상권을 부인하는 자들을 박멸하는 자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의 사유를 받고, 마땅히 받아야 할 고통과 형벌에서 면죄된다고 약속되었다. 그리고 교회에 돈을 내면 죄에서 해방되고, 또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현재 죽어서 연옥의 불에 빠져 있는 사별한 영혼까지도 구원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이러한 수단으로 로마교는 금고를 채우게 되었고,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신 이를 대표한다는 자의 호사 (豪奢) 와 악행을 지탱해 주었다 (부록 9 참조).

성경상 의식 (儀式) 인 주의 만찬도 미사라는 우상 숭배적 제도로 대치되었다. 로마교의 사제들은 그들의 무의미한 야단스런 의식을 통하여 단순한 떡과 포도주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 (Cardinal Wiseman, The Real Presence of the Body and Blood of Our Lord Jesus Christ in the Blessed Eucharist Proved From Scripture, Lecture 8, sec1, par16) 로 바뀌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들은 그와 같이 하나님을 모독 (冒瀆) 하는 참람된 언행으로 그들이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창조할 권능이 있음을 공공연하게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위협 아래서 하늘을 모독하는 끔찍한 이단을 믿노라고 고백하도록 요구받았다. 이를 거부한 많은 사람들은 화형을 받았다 (부록 10 참조).

13 세기에 법왕의 모든 도구 중에서 가장 무서운 제도 즉 종교 재판소가 설립되었다. 흑암의 왕이 법왕교의 지도자들과 함께 일하였다. 그들의 비밀회의에서 사단과 그의 부하들은 악인들의 마음을 지배하였다. 그와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의 죄악적인 명령의 놀라운 것들을 기록하고 사람의 눈으로 차마 볼 수 없는 무서운 행위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였다. "큰 성 바벨론"은 "성도들의 피에 취"하였다. 여러 토막으로 잘리워진 수백만의 순교자들은 그 배교적 세력에 대하여 신원 (伸寃)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법왕은 전세계의 독재 군주가 되었다. 왕들과 황제들은 로마 법왕의 명령에 복종하였다. 인류의 운명은 현세와 내세를 막론하고 모두 그의 관리 아래 있는 것처럼 보였다. 수백 년 동안 로마교의 교리들은 광범위하게 그리고 절대적인 것으로 널리 인정되고, 그 의식들은 엄숙히 거행되고, 그 축제일들은 널리 준수되었다. 승려들도 존경을 받고, 풍족하게 살게 되었다. 아마 이 때처럼 로마교가 위엄과 세력을 편 시대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법왕교의 대낮은 바로 세상의 한밤중이었다" (J.A.Wylie, The History of Protestantism, b.I, ch1).

성경은 일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신부들에게까지도 거의 알려지지 못하였다. 옛날의 바리새인들처럼 로마교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죄악을 폭로시켜 줄 빛을 싫어하였다. 의의 표준인 하나님의 율법이 제거되자 그들은 권세를 한량없이 부리고, 온당치 않은 행동을 거침없이 하였다. 사기, 탐욕, 방탕이 세상에 두루 퍼졌다. 사람들은 재물과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범죄라도 서슴지 않았다. 법왕과 주교들의 저택들은 극히 비열한 죄악의 장소가 되었다. 어떤 현직 법왕과 주교들은 너무나 지나치게 비인도적인 죄를 범하였으므로 세상의 통치자들도 차마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그들을 극악무도한 사람으로 보고 교회의 높은 지위에서 떨어뜨리고자 노력한 일까지 있었다. 수세기 동안 유럽에서는 학문, 예술, 문화의 각 방면에 있어서 아무런 진보도 볼 수 없었다. 그리스도교국은 도덕적, 지적으로 마비 상태에 빠졌다. 로마교의 권세 아래 있는 세계의 상태는 선지자 호세아의 말이 분명히 성취된 사실을 실증하였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 버리리라",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호 4:6, 1, 2).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는 이러하였다.

4 장 — 특별 대사

법왕교가 장기간에 걸쳐서 최상권을 잡고 있는 동안 이 세상은 암흑으로 덮여 있었지만, 진리의 빛은 아주 소멸되지 아니하였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증인들,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의 중보자이심을 확실히 믿고, 성경을 인생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고, 참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는 증인들이 있었다. 세상이 그들에게 얼마만큼의 은혜를 입었는지에 대하여 후세의 사람들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이단자로 낙인이 찍히고, 그들의 동기는 비난을 받고, 그들의 품성은 중상을 받고, 그들의 저서들은 압수당하고 오전 (誤傳) 되고 삭제당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굳게 서서 오는 세대를 위한 신성한 유업으로써 그들의 순결한 믿음을 대대로 물려가며 간직하였다.

로마교가 최상권을 쥐고 있던 암흑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당한 역사는 모두 하늘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람의 손으로 기록된 것은 너무도 적다. 그들을 박해한 자들의 비난 이외에는 그 사적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 없다. 법왕교의 교리와 명령에 반대하는 자들의 흔적과 영향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로마교의 정책이었다. 로마교는 이단적인 것은 사람이든지 서적이든지 간에 박멸하고자 하였다. 법왕교의 교리의 권위에 대하여 의혹이나 의문을 품는 사람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생명을 빼앗기기에 충분한 조건이었다. 로마교는 또한 그들의 교회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행한 잔인한 행동에 대한 모든 기록을 말살해 버리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법왕이 주최한 종교 회의들은 이러한 종류의 기사를 포함한 서적들을 다 태워 버리도록 결의하였다. 인쇄 기계가 발명되기 전에는 서적들의 수가 적었을 뿐만 아니라 그 형태도 보존하기에 극히 불편하였으므로 로마교도들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방해받는 일이 거의 없었다. 로마교의 관할 아래 있는 교회는 언제까지든지 양심의 자유를 누리면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지낼 수 없었다. 법왕권은 권세를 쥐자마자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억누르고자 마수를 뻗쳤다. 그리고 교회들은 하나씩 하나씩 차례로 그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

영국에는 매우 일찍부터 순수한 그리스도교가 뿌리를 내렸다. 최초의 수세기 동안에 영국인들이 받아들인 복음은 로마교의 배교로 부패되지 않은 복음이었다. 영국의 최초의 교회들이 로마로부터 받은 유일의 선물은 멀리 떨어진 해안에까지 미친 이교 황제들의 박해뿐이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영국에서의 핍박을 피하여 스코틀랜드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진리는 마침내 아일랜드에까지 퍼져갔는데, 그 나라들은 모두 이 진리를 환영하였다. 색슨족이 영국을 침략하게 되자, 이교도들이 지배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정복자들은 그들이 정복한 피정복민에게서 배우기를 좋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산과 광야로 피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빛은 한동안 가려졌으나, 계속 타고

있었다. 일세기 후에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 나라에까지 퍼져간 빛은 스코틀랜드에서 밝히 빛났다. 아일랜드로부터 경건한 콜룸바 (Columba) 와 그의 동역자들이 와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신도들을 적막한 아이오나 섬으로 모았다. 그리하여 그 섬은 그들의 선교 사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 전도자들 중에 성경상 안식일을 준수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리하여 이 진리가 사람들에게 소개되었다. 아이오나 섬에 한 학교가 설립되었으며 그 곳에서부터 스코틀랜드와 영국은 물론이요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에까지 선교사들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로마는 영국을 주시하고, 그것을 자기의 패권 아래 넣으려고 결심하였다. 6 세기에 법왕교의 선교사들은 이교도인 색슨족을 개종시키고자 하였다. 그들은 교만한 야만인들의 환심을 사서 수천 명을 로마교의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였다. 이처럼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나갈 때 법왕교의 승려들과 개종자들은 순수한 그리스도인들과 마주치게 되었다. 그 양자 간에는 현저한 대조가 나타났다. 전자는 법왕교의 미신과 허세와 교만을 나타내는 반면에 후자는 단순하고 겸손하며, 품성과 신조와 행동 등이 모두 성경과 부합됨을 보여 주었다. 법왕의 사절들은 이 그리스도교회들에게 법왕의 최상권을 인정하라고 강요하였다.

그러나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한 태도로, 그들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기를 열망하고 있지만 법왕이 교회에서 최상권을 가질 자격이 없으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피차에 대하는 것과 같은 겸손으로 그에게 대할 뿐이라고 대답하였다. 사절들은 로마의 법왕에게 충성을 표시하게 하고자 계속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은 거만한 사절들의 태도에 놀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주를 인정할 수 없노라고 확고하게 대답하였다. 그러자 법왕교의 정체는 나타났다. 로마교의 지도자는 "너희가 평화를 가져오는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희는 필경 전쟁을 가져오는 원수를 맞이하고야 말 것이다. 너희가 색슨족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는 일에 우리와 연합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결국 그들에게서 죽음의 매를 맞고야 말 것이다" (J.H.Merle D'Aubigne, History of the Reformation of the Sixteenth Century, b17, ch1) 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근거 없는 위협이 아니었다. 전쟁과 음모와 기만 등의 온갖 수단이 성경상 신앙을 가진 그 증인들에 대하여 사용되었다. 마침내 영국의 교회들은 파괴되거나 법왕권에 굴복당하고 말았다.

로마의 관할 밖에 있는 나라들에는 여러 세기 동안 법왕교의 부패에 전혀 감염되지 아니한 그리스도인 단체들이 있었다. 그들은 이교도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으므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러한 오류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신앙의 유일한 표준으로 생각하고 성경에 있는 진리의 대부분을 고수해 왔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을 믿고 십계명 중의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지켰다. 이러한 믿음과 생활을 유지해 온 교회들이 중앙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아르메니아 족속들 사이에도 있었다. 법왕권의 침입을 저항한 자들 중에서 "왈덴스" (Waldenses) 인들이 최선봉에 섰다. 그들은 법왕의 지위가 확립되어 있는 바로 그 나라에

살면서도 그 허위와 부패에 꿋꿋이 저항하였다. 수세기 동안에 피에몽 (Piedmonte) 의 교회들은 독립을 유지해 왔으나 마침내 로마가 그들에게 복종을 강요할 때가 다가왔다. 로마의 압제에 대하여 무력한 저항을 해본 후에 마침내 그 여러 교회의 지도자들은 거의 온 세계가 존중하는 듯한 법왕의 최상권을 마지못해 인정하였다.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은 법왕과 주교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그들의 믿음의 순결을 그대로 보존하고자 결심하였다. 마침내 그들은 서로 갈라졌다. 여전히 과거의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 중의 어떤 이들은 이제 고향인 알프스를 뒤에 두고 외국으로 가서 진리의 깃발을 꽂게 되었으며, 어떤 이들은 깊은 산골짜기나 험준한 산 속으로 피해 가서 거기서 자유로이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왈덴스" 교도들이 몇 세기 동안 가르쳐 온 신앙은 로마로부터 나온 허위의 교리와 현저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들의 종교적 신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그리스도인의 참 제도에 기초되었다. 세상과 차단된 궁벽한 곳에서 날마다 양떼를 치며 포도원을 가꾸는 매일의 고역에 시달리고 있는 비천한 그 농부들은 배교한 교회의 교리와 이설 (異設) 에 반대되는 진리를 자기들 스스로가 발견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믿음은 새롭게 받은 믿음이 아니었다. 그들의 종교적 신조는 그들의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다. 그들은 사도 교회의 신앙 곧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유 3) 로써 만족하였다. 세계의 대도시에 거만하게 자리잡고 있는 교권 교회가 아닌 이 "광야 교회"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나누어 주라고 당신의 백성에게 맡기신 진리의 보화 (寶貨) 를 잘 간수하고 있던 그리스도의 참 교회였다.

참된 교회가 로마교로부터 분리된 주요한 이유의 하나는 성경상 안식일에 대한 로마교의 증오감 때문이었다. 예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법왕권은 진리를 땅에 내어 던졌다. 사람의 유전과 관습이 높임을 받는 반면에 하나님의 율법은 짓밟힘을 당했다. 법왕권의 지배 아래 속한 교회들은 초기부터 일요일을 거룩한 날로 존중하도록 강요되었다. 오류 (誤謬) 와 미신이 성행하는 중에 많은 사람들, 심지어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안식일을 준수하는 한편 일요일에 일을 쉬었다. 그러나 법왕교의 지도자들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일요일을 거룩히 여기고 안식일을 더럽히도록 강요하였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아주 과격한 말로 비난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편안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로마의 세력권 밖으로 도망해 나가는 길밖에 없었다.

왈덴스인들은 유럽의 여러 백성들 중에서 최초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 중의 하나였다 (부록 11 참조). 그들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수백년 전에 벌써 자국어로 필사 (筆寫) 한 성경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더욱 증오와 박해의 표적이 되었다. 그들은 로마교회를 요한계시록에 있는 타락한 바벨론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결정적인 태도로 로마교의 타락에 저항하였다. 오랫동안 계속된 박해로 인하여 더러는 신앙적인 타협을 하여 그 분명한 원칙을 차츰 버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진리에 더욱 굳게 섰다. 암흑과 배교의 전 기간을

통하여 로마교의 최상권을 부인하고 성상 (聖像) 숭배를 우상 숭배로 보고 거부하고 참 안식일을 지킨 왈덴스인들이 있었다 (부록 12 참조). 그들은 가장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유지하였다. 비록 사보이 (Savoyard) 사람들의 창에 찔리고 로마의 화형주 (火刑柱) 에 타죽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두려움 없이 굳게 섰다.

첩첩이 싸인 산악들의 높은 성채들은 여러 세기를 통하여 박해를 받고 압박을 받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왈덴스인들은 거기서 은신처를 얻었다. 이곳에서 중세기의 암흑을 뚫고 진리의 횃불이 계속하여 타올랐다. 이곳에서 천여 년 동안 진리의 증인들은 옛적부터 물려받은 믿음을 지켜왔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위탁하신 위대한 진리에 걸맞은 장엄한 한 성소를 마련해 주셨다. 그 신실한 유랑인들에게는 산들이 여호와의 변하지 아니하는 의에 대한 표상이 되었다. 그들은 그들 머리 위에 높이 솟아 불변의 위엄을 지니고 있는 산들을 자녀들에게 가리키면서 언제나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또는 그 말씀이 영구히 서 있는 멧부리처럼 영원하신 이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산들을 제자리에 세우시고 위대한 능력으로 그것들을 붙드셨다. 무한한 능력 밖에는 어떤 힘도 능히 그것들을 그 자리에서 옮길 수 없다. 똑같은 방법으로 그분께서는 천지를 통치하시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당신의 율법도 굳게 세우셨다. 사람의 힘은 사람들 사이에서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산들을 그 뿌리째 뽑아서 바다에 던지는 일은 쉽게 할 수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은 일점일획이라도 변할 수 없으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신 그분의 허락은 하나도 허지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분의 율법에 성실하기를 마치 변함이 없는 산들과 같이 확고해야 한다.

그들이 사는 낮은 골짜기를 두르고 있는 산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그분의 보호에 대한 끊임없는 증거였다. 그 순례자들은 여호와의 임재에 대한 그 무언의 상징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들은 고생스러운 그들의 운명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았고, 궁벽한 산중에 외로이 있으면서도 결코 외롭지 않았다. 그들은 사람들의 분노와 강포를 피할 수 있는 한 피난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유롭게 경배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하였다. 때때로 원수들의 추격을 받았지만 험준한 그 산들이 견고한 산성이 되었다. 그들은 높은 절벽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으나 로마의 군대들은 그들의 감사의 찬미를 침묵시킬 수 없었다.

순결, 단순, 열성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사람들의 경건한 생애에 나타났다. 그들은 진리의 원칙을 집이나 토지나 친구나 친척이나, 심지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그뿐만 아니라 그 원칙들을 젊은이의 마음에 철저히 새겨 주기 위하여 열성을 다하였다. 젊은이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으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을 신성하게 여기도록 교육을 받았다. 당시에는 성경의 사본이 매우 귀하였으므로 그들은 그 가운데 있는 귀중한

말씀들을 외우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신구약 성경의 여러 곳을 반복하여 암송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 대한 고상한 생각은 천연계의 아름다운 경치와 함께 단순하고도 축복 받은 그들의 일상생활에 관련되어 있었다. 어린아이들은 온갖 은총과 모든 안위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부모들은 인정 있고 자애로우면서도 매우 지혜로웠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을 지나치게 사랑함으로 그들이 방종의 나쁜 버릇을 가지지 않게끔 하였다. 그들의 앞길에는 시련과 고난, 심지어는 순교자의 죽음이 가로놓여 있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환난을 견디고, 통제에 복종하고, 스스로 생각하여 행동하도록 교육을 받았다. 아주 어려서부터 그들은 책임을 지는 것과 말을 삼가는 것과 침묵의 지혜를 이해하는 것을 배웠다. 한 마디의 경솔한 말이라도 원수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그 말을 한 개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많은 동료들의 생명 또한 위험하게 될 것이었다. 왜냐하면 진리의 원수가 마치 이리가 먹이를 사냥하듯이 신앙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찾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왈덴스인들은 진리를 위하여 세속적 번영과 유익을 다 버리고 꾸준한 인내로써 자기의 양식을 얻기에 수고하였다. 깊은 산골짜기에서도 경작할 만한 토지를 발견하면 즉시 그것을 잘 개간하였으므로 드디어 골짜기와 언덕의 사면 (斜面) 들은 많은 수확을 내는 농토로 변했다. 검소와 엄격한 극기의 정신은 그 자녀들에게 유일한 유산으로써 교육의 일부가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애를 훈련시키려는 뜻이 무엇이라는 것과 그들의 궁핍은 모두 각자의 수고와 생각과 주의와 신앙으로만 보충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들의 생애는 실로 수고롭고 고달픈 것이었으나 그것은 건전한 것이었다. 즉 하나님께서 훈련과 발전을 위하여 제공하신 학교로서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다. 젊은이들은 수고와 고난에 단련되어 있었으나 정신과 지능의 계발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더욱 발달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는 가르침을 받았다.

보우도봐 [보우도봐는 스위스의 한 지방 이름으로, 여기서는 거기 살던 왈덴스교도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 역자 주] 인들의 모든 교회는 순결하고 단순한 점에서 사도 시대의 교회와 비슷하였다. 그들은 법왕과 주교들의 최상권을 부인하고, 성경만이 가장 높고 틀림없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의 목사들은 거만한 로마교의 승려들과는 달리,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신 주님의 모본을 따랐다. 그들은 하나님의 양떼를 푸른 풀밭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샘터로 인도하여 먹였다. 그들은 인간의 허영과 화려한 교만을 나타내는 거대한 교회당이나 굉장한 수도원 대신에 멀리 뻗은 산줄기의 기슭에나 알프스의 깊은 골짜기에 모였으며, 위험이 있을 때는 큰 바위와 절벽으로 둘러싸인 요새에 모여서 그리스도의 종들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목사들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병자를

위문하고, 아이들에게 문답식으로 교리를 가르치고, 잘못하는 자를 견책하고, 다툼을 해결하여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화합하도록 노력하였다. 그들은 평화로운 때에는 사람들이 자원하여 드리는 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어려울 때에는 천막을 만들던 바울처럼 자기의 생계를 자기가 유지할 수 있도록 장사나 그 밖의 어떤 직업을 배워 두었다.

젊은이들은 자기들의 목사에게서 교육을 받았다. 그들은 일반적인 학문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중요한 과목으로 배웠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대부분의 사도들의 편지서들과 함께 암기하였다. 그들은 또한 성경을 복사하여 기록하는 일도 하였다. 어떤 이들은 전부를 베끼고, 어떤 이들은 그 일부분을 뽑아낸 것에 성경 해석자의 간단한 설명이 첨가되어 있는 것을 베꼈다. 그같이 하여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로 말미암아 오래 숨기워졌던 진리의 보배가 드디어 드러나게 되었다. 그들은 불굴의 노력으로, 때로는 어둡고 깊은 동굴 속에서 횃불의 희미한 불빛 아래 한 절 두 절, 또 한 장 두 장 성경을 베끼어 나아갔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은 진행되었고, 하나님의 계시된 뜻은 순금과 같이 빛났다. 시련을 견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얼마만큼이나 밝고 분명하고 능력 있게 되었는지 실제로 그 사업에 참가한 사람 이외에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천사들은 이처럼 충성된 일꾼들 주위를 에워싸고 있었다.

사단은 오류와 이단과 미신의 쓰레기 아래 진리의 말씀을 묻어 버리기 위하여 법왕교의 승려와 주교들을 독려하였다. 그러나 암흑시대의 전 기간을 통하여 성경은 가장 기이한 방법으로 손상되지 않은 채로 보전되었다. 성경은 사람의 인을 맞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 사람들은 성경의 명백하고 확실한 의미를 흐려 버리기 위하여 성경 자체의 증거들을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고자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큰 파도의 깊은 물 속에 뜬 방주처럼 그를 파멸시키고자 하는 폭풍을 헤치고 나아갔다. 마치 금과 같은 풍부한 광맥들이 땅속에 숨겨져 있을 때 그 귀중한 광석들을 파내야 하는 것처럼 성경도 열심 있고 겸손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찾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진리의 보배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유년 시대에나 청년 시대에나 장년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연구하는 교과서로 삼고자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당신 자신의 품성에 대한 계시로 사람들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새로운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성경의 저자되신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잘 알게 되어 있다. 성경 연구는 인류로 하여금 창조주와 더욱 밀접히 연합하게 해주고 그분의 거룩한 뜻에 관하여 더욱 명확한 지식을 얻게 해준다. 그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에 있어서 중개의 역할을 해준다.

왈덴스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지식의 근본으로 여기는 동시에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고, 정신력을 넓히고 지각을 예민하게 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실생활에 관한 지식을 얻는 일의 요긴함을 알고 있었다. 어떤 청년들은 그 산간의 학교로부터

그들이 살고 있는 알프스에 비하여 공부하고 연구하고 관찰하기에 더욱 유리한 지역인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도시들에 있는 교육 기관으로 파견되었다. 이렇게 파견된 청년들은 유혹을 받고, 부도덕한 일을 목격하고, 가장 교활한 이단설과 위험성이 많은 기만으로 접근하는 사단의 교활한 대리자들과 접촉하기도 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받은 그들의 교육은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능히 이길 만한 품성을 이루어 놓았다.

그들은 어느 학교로 가든지 함부로 비밀을 드러내는 그런 벗을 사귀지 아니하였다. 그들의 의복은 가장 귀중한 보물인 성경 사본 (聖經寫本) 을 감출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다. 그들은 여러 해 동안 수고하여 필기한 성경 사본을 가지고 다니면서 기회가 있는 대로 의심을 받지 않을 만큼 주의하면서 진리를 갈망하는 자로 인정되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부분을 보여주었다. 왈덴스인의 젊은이들은 어머니의 슬하에서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훈육을 받았으므로 그들은 그들의 사업을 이해하고 그것을 성실하게 이행하였다. 참된 신앙으로 회개한 사람들이 이러한 학교 안에 생겨났으므로 이따금 믿음의 원칙이 온 학교에 보급되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법왕교의 지도자들이 아무리 세밀하게 조사를 할지라도 소위 부패케 하는 이단의 근원 (根源) 은 도저히 찾아낼 수가 없었다.

그리스도의 정신은 전도의 정신이다. 거듭난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기는 충동은 다른 사람들 또한 구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충동이다. 그것은 보우도봐의 그리스도인들이 품은 정신이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들의 교회 안에서 순결한 진리를 보전하는 것 이상을 요구하신다는 것, 즉 암흑 가운데 앉아 있는 자들에게도 빛을 비추어 줄 엄숙한 책임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힘을 가지고 로마교회가 사람들에게 메워 준 무거운 멍에를 끊어 버리고자 힘썼다. 보우도봐의 목사들은 누구나 다 선교사로서의 훈련을 받았다. 성직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먼저 전도자의 경험을 쌓아야 하였다. 고향에 있는 교회의 책임을 맡기 전에 어떤 선교 지역에서 3 년 동안 봉사하여야 하였다. 이러한 봉사는 무엇보다도 극기와 희생을 요구하였으며, 사람들의 마음이 시련을 겪고 있던 그런 시대에 있어서 목사를 지망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입문 (入門) 이 되었다. 이와 같이 하여 성직에 나아간 청년들은 그 앞길에 세속적 이익과 번영을 바라지 아니하고 고생과 위험의 생활, 때에 따라서는 순교자의 운명까지도 각오하고 있었다. 이 선교사들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내어 보내신 때처럼 두 사람씩 파견되었다. 그리하여 젊은이들은 일반적으로 나이 많고 경험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하였다. 그들은 자기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교훈해 줄 책임을 진 동반자의 지도에 복종하였다. 그 동역자들은 언제나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 자주 기도하고 협의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피차에 신앙을 강화시켰다.

그들은 자기들이 맡은 사명의 목적이 남에게 알려지게 되면 그 사업을 망치고 말 것이 분명하였으므로 그들의 참된 성격을 조심성 있게 숨겼다. 모든 목사들은 제각기 일종의

기술이나 직업을 가지고 표면적으로는 어떤 세속적 직업에 종사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실제로는 전도 사업을 계속하였다. 흔히 그들은 장사꾼이나 행상인의 직업을 택하였다. "그들은 그 당시에 먼 곳에 있는 시장에 가지 않으면 쉽사리 얻을 수 없는 비단과 보석과 그 밖의 물품들을 가지고 다녔는데, 선교사로서 가면 추방당할 곳이라도 행상인으로 갔으므로 환영을 받았다" (Wylie, b1, ch1). 그들의 마음은 황금이나 보석보다도 더 귀한 보배를 전하기 위한 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나 열려 있었다. 그들은 세밀히 성경을 필사한 전부 혹은 일부분을 가지고 다니면서 기회를 얻을 때는 언제나 그것을 끄집어내어 그들의 고객들에게 보여 주었다. 그리하여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하는 흥미가 일깨워졌으며 성경의 사본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의 어떤 부분을 즐거운 마음으로 주었다.

이러한 선교사들의 활동이 초기에는 그들이 거주하는 산기슭에 있는 평원과 골짜기에서만 이루어졌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범위를 넘어서 아주 멀리 떨어진 지방에까지 나아갔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바와 같이 여로 (旅路) 에 더러워진 초라한 옷을 입고 맨발로 큰 도시들을 지나다녔고, 멀리 떨어진 지방까지도 빼놓지 않고 침투하여 들어갔다. 그들은 어디에서나 귀중한 종자를 뿌렸다. 그리하여 그들이 지나간 곳에는 교회가 생기고, 순교자들의 피가 진리를 증거하였다. 여호와의 큰 날에 신실한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풍부한 수확이 나타날 것이다. 은밀하고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교국들을 통하여 사람들의 가정과 심령 속으로 영접되었다.

왈덴스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지나간 시대의 사람들을 취급하신 기록과 현재의 책임이나 의무에 대한 계시일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을 위험과 영광을 나타내주는 기록이었다. 그들은 만물의 마지막이 머지않았다고 믿었다. 그리고 기도와 눈물로써 성경을 연구할 때, 그들은 그 귀중한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고, 구원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 줄 책임을 깊이 느꼈다. 그리고 구원의 계획이 거룩한 말씀 속에 분명히 나타난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위로와 소망과 평안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빛이 그들의 이해력에 비추어져서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줄 때 그들은 그 빛을 로마교의 오류의 암흑에 묻혀 있는 자들에게 비추어 주고자 열망하게 되었다.

그들은 법왕과 신부들의 지도 아래 있는 무리들이 그들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함으로 심중의 죄를 용서받고자 애쓰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자기들의 선행을 의지하도록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들의 죄 많은 상태와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자신들을 보고 심신 (心身) 을 괴롭게 하였으나 마음의 평안은 얻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양심적인 사람들은 로마교의 교리에 얽매이게 되었다. 무수한 사람들이 친구와 친척들을 버리고 수도원에서 생애를 보내었다. 자주 반복되는 금식, 잔혹한 태장, 밤중의 기도, 쓸쓸하고 차갑고 습기찬 돌 위에 몸을 굽힌 채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 먼 길의 순례 여행,

굴욕적인 고행, 무서운 고통을 통하여 무수한 사람들이 양심의 평안을 얻으려고 헛되이 노력하였다. 그들은 죄의식으로 압박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지나 않을까 하는 공포감으로 번뇌하고 고민하였으며 마침내 기력이 쇠잔하기까지 되었으나 한 줄기의 빛이나 희망조차 없이 무덤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왈덴스인들은 이처럼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평안의 기쁨을 알려 주고, 그들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고자 갈망하였다. 그들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과를 속할 수 있다고 하는 교리가 거짓에 기초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사람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추천할 만한 어떤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희생 제물로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기초가 된다. 그리스도께 대한 사람의 의존은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가 그 줄기에 붙어 있고 사람의 지체가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참으로 사실이며, 그분과의 연결은 그처럼 밀접해야 한다.

법왕과 신부들의 가르침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성, 심지어 그리스도의 품성까지도 가혹하고 음울하고 가까이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구주께서는 타락한 인류에게 신부나 성자들의 중보가 필요하리 만큼 동정심이 전혀 없으신 분처럼 표현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신령한 눈이 열린 사람들은 이처럼 방황하는 영혼들에 대하여 자비의 팔을 펴시고 자기들의 죄와 근심과 염려의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당신께로 오라고 부르고 계시는 사랑과 동정이 많으신 구주를 소개하고자 간절히 바랐다. 그리고 사단이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볼 수 없도록 쌓아놓은 장애물을 제거하여 버림으로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 죄를 자복하고 용서와 평안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보우도봐의 선교사들은 열심으로 뜻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복음의 귀중한 진리를 밝히 나타내 주었다. 그들은 매우 조심성 있게 손으로 베낀 성경을 내어 놓았다. 하나님을 마치 보복만 하시는 분으로 알고 엄격한 심판을 기다리면서 죄짐에 눌려 있는 양심적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었다. 떨리는 입술과 눈물 어린 눈으로, 때로는 무릎을 꿇고, 그들은 동포들에게 죄인의 유일한 소망을 나타내 주는 하나님의 귀중한 약속을 읽어 주었다. 이리하여 진리의 빛은 암흑에 싸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추어지고, 어두운 구름은 사라져 버리고, 마침내 치료하는 광선을 가진 의의 태양이 그들의 마음에 떠오르게 되었다. 때로는 성경의 어떤 부분을 되풀이해서 읽어 주었는데, 그 이유는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올바르게 들었는지 확인할 뜻으로 반복해서 읽어 주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 특별히 다시 읽어주기를 간청한 성경 구절들은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일 1:7) 라는 말씀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4, 15) 고 한 부분들이었다.

많은 사람이 로마교의 주장이 그릇된 것임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들은 죄인을 위하여 사람이나 천사의 중보가 참으로 무익하다는 것을 알았다. 참 빛이 그들의 마음에 비취게 되자 그들은 너무나 기뻐서 그리스도는 나의 제사장이시요, 그분의 피는 나의 제물이요, 그분의 제단은 나의 참회실이라고 부르짖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공로에 자기 자신들을 온전히 맡기고 "믿음이 없은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 11:6 구역),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행 4:12) 는 말씀을 되풀이하였다. 구주의 사랑의 보증은 이와 같이 가련하고 번민에 사로잡혀 있는 심령들이 깨달을 수 없으리 만큼 풍성한 것처럼 보였다. 그것이 그들에게 그처럼 큰 안도감을 가져다주고 그처럼 넘쳐흐르는 밝은 빛을 받게 되었으므로 마치 천국으로 옮겨진 듯이 생각되었다. 그들의 손은 신뢰하는 태도로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 있었고, 그들의 발은 만세 반석 위에 서 있었다.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들은 이제 그들의 구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감옥이나 화형주도 달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읽혀졌다. 어떤 때에는 오직 한 사람에게, 또 어떤 때에는 빛과 진리를 사모하는 적은 무리에게 읽혀졌다. 때로는 밤을 새워가면서 성경을 읽어 주었다. 듣는 사람들은 너무나 감탄하고 놀랐기 때문에 구원의 기별을 깨달을 때까지 자비의 사자들이 낭독하는 일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하였다. 그리하여 종종 하나님께서 나의 예물을 받아 주실까, 과연 내게 대하여 미소를 지으실까, 그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까 하는 말들을 하였다. 그러면 그 대답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28) 는 말씀을 읽어 주었다. 그들은 믿음의 손으로 약속을 붙잡고, 기쁨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되었다. "이제는 먼 길의 순례가 쓸데없다. 이 이상 더 거룩한 성전을 찾아서 고통스러운 여행을 할 필요가 없다. 나는 죄 많고 불결한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겠다. 그분께서는 통회하는 사람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실 것이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아! 그분께서는 나의 죄, 나의 죄까지도 사하여 주신다." 거룩한 기쁨의 물결이 마음을 채우고, 찬미와 감사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된다. 기쁨으로 충만해진 그들은 진리와 생명의 길 되신 예수님을 찾은 새로운 체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받은바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기 위하여 집으로 돌아갔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말하는 이상하고도 엄숙한 힘이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으며, 듣는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가져다주었다.

그런 후에 진리의 사자는 가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그의 겸손한 태도와 그의 성실성과 그의 열성과 깊은 인상을 남겨 주는 호감은 자주 사람들의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다. 그들은 처음에 너무나 경탄하게 되고 다음에는 기쁨으로 감격하여져서 압도당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다. 그들이 자기들의 집으로 가자고 강권하게 되면, 그 진리의 사자는 잃어버린 양떼를 찾아가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사람들은 그가 혹시 천사가 아니었던가 하고 의심하기도 하였다. 많은 경우에 사자는 한 번 보이고는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그는 다른 나라로 갔거나, 어떤 미지의 감옥에서 고생을 하고 있거나 자기가 진리를 증거한 그 곳에서 이미 백골만을 남겨놓은 신세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가 남겨 놓고 간 말씀은 멸절될 수 없었다. 그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었다. 그 복된 결과는 오직 심판의 날에 이르러서야 완전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

왈덴스인 선교사들이 사단의 왕국을 공격하고 있었으므로 암흑의 세력도 일어나서 크게 경성하게 되었다. 죄악의 왕자는 진리를 진척시키려는 모든 활동을 지켜보았다. 그는 그의 대리자들의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법왕교의 지도자들은 이런 검소한 행상인들의 활동이 그들의 사업에 위험의 전조가 되는 것을 깨달았다. 진리의 빛이 아무런 장애 없이 비추어지도록 허용된다면 그것이 백성들을 에워싸고 있는 오류의 짙은 구름을 헤쳐 버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이끌게 할 것이므로 마침내 로마교의 최상권은 무너질 것이었다. 초대 교회의 신조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로마교의 배도를 언제나 입증하였으므로 그들의 가장 심한 미움과 박해를 일으켰다. 특히 성경을 버리라는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로마교가 용납할 수 없는 범법이었다. 그리하여 로마교는 그들을 이 지상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였다. 이에 산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토벌하기 위하여 무서운 십자군이 파견되었다. 또한 종교 재판관들이 그들과 함께 파견되어 죄 없는 아벨이 잔인한 가인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광경이 자주자주 되풀이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의 비옥한 땅은 거듭거듭 황폐되었으며, 그들이 살던 집과 예배당은 자취조차 없어졌으므로 한 때 곡식이 무르익었던 밭들과 흠 없고 부지런한 백성들이 살던 곳은 거친 황무지가 되어 버렸다. 마치 굶주린 맹수가 피 맛을 보고 더욱 사나워지는 것처럼 법왕교도들의 분노는 그들의 희생물들의 고난으로 더욱 격렬해졌다. 순결한 믿음의 증인들 중의 많은 사람들은 추격당하고, 골짜기에서도 숨을 곳을 찾지 못하여 깊은 산림 속과 절벽 위에서 피난처를 찾았다. 인권을 박탈당한 그 사람들의 도덕적 품성에는 아무런 책잡을 것이 없었다. 그들의 원수들까지도 그들을 온유하고 조용하고 경건한 백성들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의 큰 죄목은 법왕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 죄의 대가로 사람이나 악마가 고안해 낼 수 있는 온갖 굴욕과 모욕과 가혹한 형벌이 그들에게 과하여졌다.

한 번은 로마교가 그 미워하는 종파를 근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여 살육에 내어 준다는 포고 (布告) 가 법왕으로 말미암아 고시 (告示) 되었다 (부록 13

참조). 그들은 게으르거나 부정직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한다는 죄로 고소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외모로는 경건하고 성결한 체하면서 실상은 "참된 양우리의 양을 속이는 자들"이라고 정죄되었다. 그러므로 법왕은 그 유해하고 흉악하여 증오할 만한 종파가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기를 거절한다면 "독사처럼 짓이겨 죽이라" (Wylie, b16, ch1) 고 명령하였다. 이 거만한 권력자가 자기가 한 말을 다시 생각할 때가 올 것이라고 예기하였을까? 그 말들이 하늘 책에 기록되고, 심판 날에 죄증 (罪證) 으로 그의 앞에 제시되리라는 것을 알았을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 25:40) 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이 포고는 교회의 모든 교인들에게 이단을 토벌하는 십자군에 참가하도록 요구하였다. 이 잔인한 일에 가담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특권이 제시되었다. "십자군에 참가한 자들은 일반적이거나 특수한 것을 막론하고 온갖 종교적 형벌에서 면죄되고, 마땅히 행하기로 선서한 것들도 면제되고, 비합법적으로 얻은 어떤 재산도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이단자들을 죽이는 그 일에 가담함으로 모든 죄에서 사유함을 받는다고 보증되었다. 그것은 보우도봐인들에게 유리하도록 체결된 모든 계약을 취소케 하고, 그들의 종이 되었던 자들은 그 상전의 집을 나가게 하고, 누구든지 그들을 도와주는 일을 금지하였고, 아무나 그들의 소유물을 빼앗을 수 있게 허락하였다" (Wylie, b16, ch1). 이 기록은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자가 누구임을 분명히 나타내 준다. 그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고 분노한 용의 부르짖음이다.

법왕교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품성을 하나님의 율법의 큰 표준에 맞추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다른 표준을 만들었으며 로마교가 하고자 하는 대로 모든 사람들도 그 표준에 맞추어야 한다고 강요하였다. 이로 인하여 가장 무서운 비극이 연출되었다. 타락하고 참람된 신부들과 법왕들은 사단이 그들에게 지정해 준 그 일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품성 가운데는 자비가 용납될 틈이 없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제자들을 살육한 바로 그 정신, 그리고 피에 굶주린 네로가 그 당시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냈던 바로 그 정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을 이 지상에서 제거해 버리는 일에 나타났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그들에게 미친 여러 세기의 박해를 그들의 구원의 주를 영화롭게 한 인내와 성실로 견디었다. 그들은 토벌을 당하여 비인도적인 학살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진리를 선포하기 위하여 전도자를 파견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잡혀서 죽임을 당하였으나 도리어 그들의 피는 이미 뿌린 씨에 물을 주게 되어 결실을 가져다주었다. 이와 같이 왈덴스인들은 루터가 나기 수세기 전에 하나님을 위하여 증거하였다. 여러 나라로 흩어진 그들은 위클리프 시대에 시작된 종교개혁의 씨를 뿌렸는데, 그 운동은 루터 시대에 이르러 한층 더 깊고 넓게 자라났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계 1:9) 모든 고난을 즐거움으로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까지 계속하여 진행될 것이다.

5 장 — 진실의 전사

종교개혁 이전에는 극히 적은 부수의 성경밖에 없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완전히 없어지도록 허락지 아니하셨다. 성경의 진리가 영원히 숨겨지지는 않을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감옥의 문과 철문을 열어서 당신의 종들을 쉽게 해방시켜 주실 수 있었던 것처럼 그분께서는 생명의 말씀도 쉽게 해방시킬 수 있으셨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진리를 탐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성령의 지도를 받고, 비상한 흥미를 가지고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였다. 그들은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빛을 받고자 하였다. 그들은 모든 것을 분명히 깨닫지는 못했지만 오래 묻혀 있었던 많은 진리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은 하늘의 사자들로 파견되어, 오류와 미신의 쇠사슬을 끊어 버리고, 오랫동안 속박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얻으라고 부르짖었다.

왈덴스인들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유식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언어로 여러 시대 동안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성경이 번역되어 모든 사람들이 자국어로 된 성경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세상은 깊은 밤중을 지냈다. 흑암의 시대는 지나가고, 많은 나라들에서는 날이 새는 징조들이 나타났다. 14 세기에 영국에서 종교개혁의 샛별이 나타났다. 존 위클리프 (John Wycliffe) 는 영국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교국을 위한 개혁의 선구자였다. 그가 허락을 받아 로마교에 제기한 큰 항의는 결코 침묵시킬 수 없을 것이었다. 그 항의는 마침내 개인과 교회와 국가의 해방을 초래하게 될 투쟁을 빚어냈다.

위클리프는 고등 교육을 받았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었다. 그는 대학 시절에 이미 놀라운 재능과 학식뿐만 아니라 그의 열성 있는 신앙으로 명성이 높았다. 지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 그는 모든 방면의 학문에 통달하고자 애를 썼다. 그는 스콜라 철학을 공부하는 동시에 교회법과 국법, 특히 자기 나라의 법률을 공부하였다. 이와 같이 닦은 청년 시대의 교육이 후년에 가서 그 가치를 크게 드러내었다. 그는 당시의 사변 철학 (思辨哲學) 에 정통하였으므로 그 오류를 지적할 수가 있었고, 국법과 교회법을 공부하였으므로 국가와 종교의 자유를 위하여 크게 활약할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지적 훈련을 쌓았기 때문에 학자들의 수법 (手法) 도 알고 있었다. 그의 천부 (天賦) 의 재능과 깊고 넓은 지식은 동료들과 원수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의 지지자들은 그들의 투사가 당시의 국내의 지도자들 가운데서 첫째가는 사람인 것을 만족하게 여기고 있었고, 그의 원수들은 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무지와 약점을 폭로함으로 감히 개혁 사업을 멸시하려고 하지 못하였다.

위클리프는 대학에 있을 때 성경 연구를 시작하였다. 초기인 당시에는 성경이 고어 (古語) 로만 되어 있었으므로 학자들은 진리의 근원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나 무식한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 길이 막혀 있었다. 그와 같이 개혁자로서의 위클리프의 장래의 사업에 대한 길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학식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 그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큰 진리를 발견하였다. 그 진리를 가르침으로, 그들은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였고, 다른 사람들을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도록 인도하였다. 위클리프는 성경 연구에 뜻을 두고 학교에서 학과를 공부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그것을 연구하였다. 그는 지금까지 스콜라 철학이나 교회의 가르침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항상 부족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전에 얻지 못했던 것을 찾아내었다. 거기서 그는 구원의 계획을 깨달았고,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업에 바치고 자기가 발견한 진리를 전파하기로 결심하였다.

위클리프는 후세의 다른 개혁자들처럼 그의 사업의 초기에는 자기가 어디로 인도될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 그는 고의적으로 로마교에 반대하고자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진리에 투신하게 되자 그는 필연적으로 거짓과 싸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법왕권의 오류가 분명해지면 질수록 더욱 열렬하게 성경의 교훈을 설명하였다. 그는 로마교가 사람의 유전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을 보고 성경을 저버린 신부들을 담대하게 질책하고 성경을 백성들에게 돌려줄 것과 성경의 권위를 교회 안에서 다시 한 번 확립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그는 재간 있고 열성 있는 교사요 웅변적인 설교자였으며, 자기가 전한 진리를 자기의 일상 생활로써 실증했다. 성경 지식, 그의 논증의 설득력, 그의 깨끗한 생애, 그의 변함없는 용기와 성실성 등은 일반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얻었다. 그러므로 로마교에 편만한 불법을 눈으로 목격한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종래의 신앙에 불만을 가졌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감출 수 없는 기쁨으로 위클리프가 밝히 제시한 진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법왕교의 지도자들은 그 개혁자가 그들 자신들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고 심히 분노하였다.

위클리프는 오류를 발견하는 데 예민한 사람이었으므로 로마교의 권위로 승인한 여러 가지 악폐에 대하여 기탄없이 공격하였다. 그는 국왕의 왕실 목사로 재직할 당시에 법왕이 영국 국왕에게 요구하는 조공에 대하여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에 섰으며, 법왕이 세속적 통치자를 지배하는 권위를 가지는 것은 이성과 계시에 어긋나는 일임을 보여 주었다. 법왕의 요구는 심한 의분을 일으켰었다. 위클리프의 가르침은 그 나라의 지도층 인사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그리하여 왕과 귀족들은 속권에 대한 법왕의 요구를 부인하고 조공의 지불을 거절하는 일에 결속하였다. 이와 같이 영국에서는 법왕 최상권에 효과적인 타격을 입혔다. 이 개혁자가 오랜 시일을 두고 단호한 투쟁의 대상으로 삼아 온 또 하나의 악폐는 탁발승단 (托鉢僧團) 제도였다.

이 탁발승들은 영국 안에 너무 많이 있었으므로 국가의 번영에 큰 장애가 되고 있었다. 산업, 교육, 도덕이 모두 그 쇠퇴의 영향을 입고 있었다. 승려들의 게으른 생활과 구걸은 사람들에게 재정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주었을 뿐 아니라 유용한 노동을 멸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청년들은 부도덕하고 타락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탁발승의 영향으로 수도원에 들어가서 은둔 생활 (隱遁生活) 에 몸을 바치도록 권유를 받았다. 그들은 부모와 합의하지도 않고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들의 명령을 거스르고 은둔 생활에 들어갔다. 초대 로마교의 어떤 교부 (教父) 는 자녀로서의 사랑이나 의무에 대한 의리보다도 수도 생활 (修道生活) 이 더욱 중요함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비록 너의 아버지가 너의 문 앞에 누워서 울고 슬퍼할지라도, 너의 어머니가 너를 낳았던 몸과 너를 젖먹이던 가슴을 보일지라도, 너는 그들을 발로 짓밟아 버리고 그리스도에게로 곧장 달려가야 한다."

후일에 루터는 이에 대하여 이런 "무서운 비인도적 행위는 그리스도인과 사람의 행위라기보다는 차라리 이리나 폭군의 행위" (Barnas Sears, The Life of Luther, pp10, 69) 로 생각된다고 말하였다. 이런 일들이 자녀들의 마음을 부모에 대하여 무정하게 만들었다. 이리하여 법왕교의 지도자들은 옛날 바리새교인들처럼 그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가정들은 황폐되었으며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심지어 대학교의 학생들까지도 승려들의 거짓된 말에 속아서 그들의 대열에 가담하게 되었다. 그런 후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애를 해롭게 하고 부모에게 슬픔을 안겨준 것을 알고 후회하게 되었으나 일단 올무에 단단히 걸린 다음에는 다시 자유를 찾을 수 없었다. 많은 부모들은 승려들의 영향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아들들을 대학으로 보내지 않았다. 그리하여 학문의 위대한 중심지에 모여드는 학생 수는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었다. 학교들은 쇠퇴하여 갔고 무지 (無知) 는 편만하게 되었다.

법왕은 승려들에게 사람들의 자복을 듣고 용서해 주는 권세를 주었다. 이것이 또한 죄악의 큰 원인이 되었다. 승려들은 그들의 사복을 채우기 위하여 사람들이 어떠한 죄악을 고백하든지 곧 사면하여 주므로 그 결과로 가장 악한 죄악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병자와 가난한 자들은 돌아보지 않으면서 마땅히 그들의 궁핍을 제거하는 일에 쓰여져야 할 선물들은 승려들에게로 넘어갔다. 승려들은 위협으로 사람들의 시여 (施與) 를 강요하였고, 그 일을 거절하여 기부하지 않는 자에게는 불온한 말을 하며 비난하였다. 표면상으로는 빈곤하다고 말하지만, 승려들의 재산은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그들의 훌륭한 저택과 사치스러운 식탁은 백성들의 빈곤을 더욱 심하게 해주었다. 그들 자신은 향락과 사치에 빠져 시간을 보내면서, 기괴한 이야기와 옛 전설과 백성들을 경박하게 만들어 주는 농담들밖에 할 수 없는 무지한 사람들을 그들 대신 보내어 사람들을 더욱 완전히 승려들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신적인 일반 사람들은 그러한 승려들을 지지하고, 법왕의 절대권을 인정하고, 성도를 숭배하고, 승려들에게

선물을 드리므로 종교적 의무를 완전히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함으로 천국에 들어가기에 넉넉한 자격을 얻게 된다고 믿었다.

학식 있고 경건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탁발승의 제도를 개혁하고자 수차 시도하였으나 헛수고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예민한 통찰력을 가진 위클리프는 그 제도 자체가 거짓된 것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선포하면서 악의 뿌리를 공격하였다. 토론과 의문이 사방에서 일어났다. 승려들이 법왕의 면죄부 (免罪符) 를 팔면서 각처로 돌아다니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 과연 돈으로 죄사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의심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로마 법왕에게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하여야 할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탁발승 (托鉢僧) 들의 탐욕에 놀랐다. 그들은 "로마의 승려와 신부들이 암 (癌) 처럼 우리를 좀먹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백성들은 멸망할 것이다" (D'Aubigne, b17, ch1) 라고 말하였다. 구걸하면서 다니는 그 승려들은 자기들의 탐욕을 감추기 위하여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백성들의 자선에 의하여 생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그들은 구주의 모본을 따라가고 있노라고 하였다. 그와 같은 주장은 그들의 사업에 해로운 결과를 가져왔다. 왜냐하면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배우기 위하여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것은 어떤 일보다 로마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바로 로마교가 숨기고자 하는 진리의 근원을 찾아 나아가게 되었다.

위클리프는 탁발승단을 반대하는 소책자를 저술하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은 그들과 논쟁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을 성경과 그 저자 되시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법왕의 사면하거나 파문하는 권세가 보통 신부 이상의 권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정죄의 선고를 받지 않는 한 아무도 참으로 파문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이 일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몸을 속박하기 위하여 법왕이 제정한 영적 및 세속적인 거대한 조직체를 파괴하는 데 있어서 더할 수 없이 효과적인 방법이 되었다.

위클리프는 로마 법왕의 침략적 세력에 대항하여 영국 국왕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다시 부름을 입었다. 그는 국왕의 사신이 되어 네덜란드에서 2 년 동안 지내면서 법왕의 사절들과 회의를 하였다. 거기서 그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의 승려들과 교제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그들의 이면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영국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 거기서 그는 장래 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많이 배웠다. 이 법왕권의 대표자들을 통하여 그는 그 교직 정치 (教職政治) 의 참된 성격과 목적을 알았다. 영국에 돌아간 후에 그는 종래의 가르침을 더욱 담대하게 되풀이하였고, 더욱 큰 열성으로 탐욕과 교만과 기만이 로마교의 신 (神) 이라고 공언하였다.

그는 자기가 저술한 소책자에서 법왕과 법왕의 모금자 (募金者)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들은 우리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비를 빼앗고, 해마다 수천 마르크의 돈을 성직 매매의 저주받은 이단에 불과한 성물과 신령한 행사를 위하여 빼앗아 가며, 모든 그리스도국으로 하여금 그 이단을 찬동하고 지지하도록 만든다. 참으로 우리나라에는 금으로 된 거대한 산이 있는데 지금껏, 그것을 가져가는 자가 없었으나, 오직 저 교만하고 세속적인 신부라는 모금자가 가져가고 있으므로 세월이 지남에 따라 그 산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나라에서 돈은 가져가고 성직 매매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저주만을 남겨 놓기 때문이다" (John Lewis, History of the Life and Sufferings of J.Wycliffe, p17). 위클리프가 영국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그는 칙명 (勅命) 으로 루터워드의 교구장 (教區長) 이 되었다. 이 사실은 적어도 국왕이 그의 솔직한 말을 불쾌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증해 주는 일이었다. 위클리프의 감화는 긍정의 태도를 결정하고 국민들의 신념을 형성하는 일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곧 법왕의 진노와 위협이 그에게 다가왔다. 대학과 국왕과 감독들에게 보내는 세 가지 교서가 영국으로 급히 전달되었다. 그 내용은 모두 그 이단의 교사를 침묵시키기 위하여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이었다 (부록 14 참조) (Augustus Neander, General History of the Christian Religion and Church, period 6, sec1, pt1, par.참조). 이 교서가 하달되기 전에 이미 감독들은 격분한 나머지 위클리프를 법정으로 소환했었다. 그러나 국내에서 가장 세력 있는 두 왕족이 그를 동반하여 법정에 임석하였고, 군중들이 법정 밖을 에워싸고 마침내 법정 안으로 뛰어 들어가려는 소동까지 일으켰으므로, 재판을 진행하던 법관들도 이를 두려워하여 심문을 잠깐 중지하고 그를 놓아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감독들이 나이 많은 에드워드 3 세로 하여금 그 개혁자를 배척하도록 하고자 꾀하였으나 얼마 후에 그 왕은 죽고, 전에 위클리프를 보호하던 이가 섭정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교서가 도착되자 이단자를 체포하여 옥에 가두라는 엄한 명령이 온 영국에 선포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분명히 화형주 (火刑柱) 를 의미하였다. 위클리프는 오래지 않아서 반드시 로마의 보복의 희생 제물이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옛날의 노독 중의 한 사람에게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라" (창 15:1) 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손을 펴사 당신의 종을 보호하셨다. 죽음이 다가왔으나 그 죽음은 개혁자에게가 아니고 도리어 개혁자에게 죽음을 선고한 법왕 자신에게 다가왔다. 그레고리우스 Ⅱ세는 죽었다. 그러므로 위클리프를 심문하기 위하여 모였던 교직자 (教職者) 들은 부득이 산회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여러 사건을 지배하여 개혁 사업이 발전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레고리우스 법왕이 죽은 후에 두 법왕이 대립하여 선출되었는데, 그들은 각각 자기가 절대로 무류하다고 공언하고 사람들의 복종을 요구하였다 (부록 15 참조. 또한 부록 2 를

보라). 두 사람은 각각 자기에게 충성하는 자들을 소집하여 상대편에게 도전하게 하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심한 저주를 하는 한편, 자기를 지지하는 자에게는 하늘에서 보상을 받을 것을 약속함으로 자기를 지지해 주기를 강요하였다. 이러한 사태로 말미암아 법왕권의 세력은 현저하게 약화되었다. 두 파는 각각 있는 힘을 다하여 상대방을 공격하였으므로, 그 틈을 타서 위클리프는 얼마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서로 저주하고 비난하는 투쟁이 두 법왕 사이에 전개되었고, 각자의 주장을 세우기 위하여 유혈 참극까지 벌였다. 교회 안에는 범죄와 추문이 차고 넘쳤다. 이러는 사이에 개혁자 위클리프는 루터워드에 은거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법왕들로부터 사람들의 눈을 평화의 임금이신 예수님께로 돌리고자 애를 썼다.

온갖 투쟁과 타락을 자아낸 분열은 사람들로 하여금 법왕권의 진상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어 도리어 개혁의 길을 열어 주었다. 위클리프는 자기가 저술한 "법왕의 불법"이란 소책자에서 서로 상대편을 적그리스도라고 정죄하고 있는 두 승려의 말이 참말인지 생각해 보라고 백성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악마와 같은 그들 중의 하나로만 통치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더욱 쉽게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둘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셨다" (R.Vaughan, Life and Opinions of John de Wycliffe, vol1, p1) 고 말하였다.

위클리프는 그의 주님처럼 빈곤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그는 루터워드의 교구 안에 있는 비천한 백성들에게만 빛을 전하는 것으로 흡족히 여기지 않고, 영국의 각 곳에 전해야 하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는 그 목적을 위하여 진리를 사랑하며 그것을 널리 증거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는 단순하고 경건한 선교사들로 구성된 하나의 조직체를 만들었다. 그들은 어느 곳이든지 가서 시장 (市場) 에서나 대도시의 거리에서나 시골의 길가에서 설교하였다. 그들은 늙은이들과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위클리프는 옥스포드 대학교의 신학 교수로서 그 대학의 강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였다. 그는 자기에게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에게 진리를 너무도 성실하게 소개하였으므로 복음 박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러나 위클리프의 온 생애를 통하여 최대의 사업이라고 할 만한 것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었다. 그는 "성경의 진리와 의미"라는 저서에서 자기가 성경을 번역하여 영국 국민으로 하여금 모두 자국어로 하나님의 놀라운 업적을 읽을 수 있게 할 뜻이 있다는 것을 표명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활동은 중단되었다. 아직 60 세도 안 되었지만 끊임없는 수고와 연구와 원수들의 공격이 그의 기력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는 신속히 노쇠하게 되었다. 그는 위험한 병에 걸렸다. 이 소식은 탁발승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 그들은 이제야 그가 교회에 대하여 범한 악행을 깊이 뉘우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의 자복을 듣기 위하여 그가 거처하고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네 종교 단체에서 온 대표자들과 네 사람의 정부의 관리들이 임종이 가까운

것으로 생각되는 그의 주위에 모여 있었다. "그대의 죽음이 임박하였으니 이제 과거의 모든 죄과를 뉘우치고 일찍이 우리에게 손해를 주기 위하여 말한 모든 것을 우리 앞에서 취소하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 개혁자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시중드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침상에서 일어나, 신앙의 취소를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그처럼 자주 떨게 해주었던 분명하고 큰 음성으로 다음과 같이 외쳤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그리하여 다시 너희 탁발승들의 악행을 공개할 것이다" (D'Aubigne, b17, ch1). 천만 뜻밖에 질책을 받은 승려들은 그만 놀라고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서 급히 나가 버렸다.

위클리프의 말은 성취되었다. 그는 로마를 대항하는 모든 무기 중의 가장 강력한 무기, 곧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을 계몽시키고 교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성경을 자기 동포들의 손에 쥐어 주기까지 생명이 연장되었다. 그러나 그는 이 사업의 완성을 보기까지 여러 가지 큰 장애를 겪었다. 위클리프는 건강이 대단히 좋지 못하므로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불과 몇 년밖에 남지 않은 것을 알았으며, 또한 반드시 반대를 만나게 될 것을 내다보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허락으로 힘을 얻어서 그는 결코 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지금껏 왕성한 지력 (智力) 과 풍부한 체험 속에서 그의 사업 중의 가장 위대한 사업을 위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준비하여 왔다. 모든 그리스도교국이 온통 혼란 중에 빠져 있는 그 때에, 이 개혁자는 루터워드의 목사관 (牧師館) 에서 외부의 폭풍과는 상관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업에 몰두하였다.

드디어 사업이 완성되어 최초의 영어 성경이 나오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국에 공개되었다. 개혁자는 이제 감옥이든지 화형주든지 두려워할 것이 없었다. 그는 결코 꺼질 수 없는 빛을 영국 국민의 손에 쥐어 주었다. 그는 자기의 동포들에게 성경을 줌으로 무지와 죄악의 사슬을 끊어 버리는 것 이상의 것, 자기의 나라를 해방시키고 향상하도록 이끌기 위하여 전쟁터에서 빛나는 승리를 얻은 것보다 더욱 위대한 일을 성취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아직도 인쇄기가 발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성경의 부수를 증가시키려면 더디고도 번거로운 수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성경을 가지고 싶은 욕망이 너무나 많았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복사하는 일을 자원하여 담당하고자 했다. 그러나 요구되는 만큼의 부수를 공급하기는 어려웠다. 그 중에 돈이 많은 부자들은 성경전서를 사고자 욕망하였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일부분만을 샀다. 많은 경우에, 여러 가정들이 합하여 성경을 샀다. 그리하여 위클리프의 성경은 많은 사람들의 가정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이성 (理性) 에 호소한 결과, 사람들은 법왕교의 교리에 맹종하던 상태에서 각성하였다. 위클리프는 이제 개신교의 명확한 교리,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성경의 절대적인 확실성에 대하여 가르쳤다. 성경을 전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전도자들은 이 개혁자의 저서도 전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영국 국민의 약 절반이 이 새

신조를 받아들이게 되리만큼 큰 성공을 거두었다. 성경이 나오게 되자 교회의 당국자들은 당황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제 위클리프보다 더욱 강한 것, 곧 그들의 무기도 거의 소용없을 정도의 큰 힘과 대결하게 되었다. 그 당시 영국에는 자국어로 된 성경이 출판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까지 성경을 금지하는 법령이 생기지 아니하였다. 그런 법령들은 그 후에 제정되어 강력하게 시행되었다. 그러므로 승려들의 반대는 있었을지라도 얼마의 기간 동안 성경이 배포 (配布) 될 기회가 주어졌다.

법왕교의 지도자들은 개혁자의 소리를 침묵시키기 위하여 다시 음모를 꾸몄다. 개혁자는 세 번이나 심문을 받기 위하여 법정에 소환되었으나 방면되었다. 그러나 첫째로 감독들의 종교회의에서 그의 저서를 이단이라고 선고하고, 그들은 젊은 왕 리챠드 2 세를 그들 편으로 끌어들여 누구나 금지된 교리를 지지하는 자는 투옥시킬 것이라는 칙령을 반포하게 하였다.

위클리프는 종교 회의로부터 국회에 호소하였으며, 그는 국회에서 두려움 없이 교직 정치를 비난하고, 교회가 시인한 무서운 악폐들을 혁신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는 확신을 가지고 법왕측의 참람과 타락을 폭로하였다. 그의 원수들은 혼란에 빠졌다. 이미 위클리프의 친구들과 지지자들은 부득이 굴복하도록 강요되었다. 그러므로 고립무원 (孤立無援) 한 늙은 개혁자도 임금과 법왕의 연합된 권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으리라고 기대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대신에 법왕교도들은 자기들이 패배당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의회는 위클리프의 감동적인 호소에 감화를 받고, 핍박하는 칙령을 철회시켰다. 그리하여 개혁자는 다시 자유롭게 되었다. 그는 세 번째의 심문을 받게 되었는데, 국내의 최고 종교 재판소에서 받았다. 이곳은 이단자에게 아무런 유리한 판결이 내릴 수 없는 곳이다. 여기에서 로마교는 최후의 승리를 얻고, 개혁자의 활동은 정지되리라고 법왕교도들은 생각하였다. 무슨 방법으로든지 그들의 목적을 성취할 수만 있다면 위클리프는 하는 수 없이 자기의 교리를 버리든지 화형의 선고를 받고 법정을 떠나가든지 할 것이었다.

그러나 위클리프는 자기의 교리를 철회하지도 않고 숨기지도 않았다. 그는 두려움 없이 자기가 가르치는 바를 주장하고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의 비난을 반박하였다. 그는 자기 자신과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환경을 다 잊어버리고, 그의 청중들을 하나님의 심판정에 세워 놓고, 그들의 궤변과 기만을 영원한 진리의 저울로 달았다. 성령의 권능이 그 법정 안에 충만하였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상한 힘이 청중들에게 임하였다.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갈 힘이 없는 듯이 보였다. 개혁자의 말은 마치 하나님의 전통 (箭筒) 에서 나온 화살처럼 듣는 이들의 마음을 찔렀다. 그를 이단이라고 비난했던 그들의 고소를 그는 설복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되돌렸다. 어찌하여 그들이 자기들의 오류를 퍼뜨리고자 하였는가라고 그는 부르짖었다. "이 (利) 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상품화하고자?"

그는 또 마지막으로, "그대들은 누구와 더불어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무덤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늙은이와 더불어 싸우고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대들은 진리, 곧 그대들보다 더욱 강하며 마침내 그대들을 이기고야 말 진리와 더불어 싸우고 있는 것이다" (Wylie, b1, ch13) 라고 말하였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는 법정을 나왔으나 그의 원수들 중에서 한 사람도 그를 막는 자가 없었다. 위클리프의 사업은 거의 마쳐졌다. 오랫동안 쥐고 있던 진리의 깃발은 곧 그의 손에서 떠날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다시 한 번 복음을 위하여 증거할 것이었다. 그 진리는 바로 오류의 왕국의 본거지에서 선포되어야 할 것이었다.

위클리프는 심문을 받기 위하여 너무도 자주 성도들의 피를 앗아간 로마법왕의 재판정에 호출되었다. 그는 자기를 위협하고 있는 위험을 알고 있었지만 그 소환에 응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마침 그 때 그는 중풍으로 여행을 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육성으로는 로마에서 말할 수 없었을지라도 편지로는 말할 수 있었으므로, 그는 결국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자기의 목사관에서 법왕에게 보낼 편지를 썼다. 그 편지에는 예의바른 언사와 그리스도인적 정신이 나타나 있었으나 법왕청의 허식과 교만을 날카롭게 견책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모든 사람, 특히 로마 주교 (법왕) 에게 공개하여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나는 이 신앙이 건전하고 참된 줄로 믿기 때문에 그는 가장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주장하는 신앙에 동의할 줄로 믿으며, 만일 그 신앙이 잘못된 것이라면 역시 교정하여 줄 줄로 믿는다. 나는 첫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율법의 전부라고 믿는다. ...로마 감독이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면, 그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복음의 율법에 결속되어 있어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서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세속적 위엄이나 명예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의 태도에 가깝게, 또한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는 점에서 그러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셨을 당시의 생애는 가장 빈곤하고, 모든 세속적 권력과 명예에서 떠난 생애였다.

어떤 신실한 사람도 법왕이나 어떤 성인을 따라갈 때, 그들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그 점에 있어서만 그를 따라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들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대신에 세속적 명예를 사모함으로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와 같은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 법왕은 자기의 모든 영토와 통치권을 세속적 권력에게 마땅히 넘겨주고, 또한 자기에게 속한 모든 교직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고, 특별히 그분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점들에 있어서 내게 잘못이 있으면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를 정정 (訂正) 할 것이며, 만일 필요하다면 죽음이라도 사양치 아니할 것이다. 내 자신의 뜻과 소원대로 한다면, 나는 틀림없이 로마 감독 앞으로 달려 나아갔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와 반대로 다른 일이 내게 생기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사람을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가르쳐 주셨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 편지를 마쳤다. "우리 하나님께서 법왕 어반 6 세의 마음을 감동하사 그가 친히 본을 보여 그의 교직자들과 함께 그 생활과 태도에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또한 그들이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쳐서 그들과 마찬가지로 신실히 주님을 따르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바이다" (John Foxe, Acts and Monu-ments, vol1, pp19, 50). 이와 같이 위클리프는 법왕과 그의 추기경들에게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나타내 주었고 이들이 대표하고 있노라고 공언하는 주님과 그들 자신과의 현저한 차이를 그들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교국에 나타내 보여 주었다.

위클리프는 자기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충성한다면 자기의 생명이 희생당할 것이라고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 왕과 법왕과 감독들이 모두 힘을 합하여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그는 늦어도 수개월 후에는 틀림없이 화형에 처하게 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의 용기는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순교자의 면류관을 멀리서 찾고 있노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 교만한 주교들에게 전하라. 그리하면 순교는 틀림없이 오고 말 것이다. 살아서 침묵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고? 결단코 안 될 말이다. 탄압하려거든 해보라. 나는 그 일이 있기를 기다리고 있다" (D'Aubigne, b17, ch1).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당신의 종을 보호하였다. 자기의 온 생애를 통하여 날마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담대히 진리를 옹호하고 있는 이 사람은 원수들의 증오의 희생물로 쓰러질 것이 아니었다. 위클리프는 전혀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지 아니하였지만 주님께서 그의 보호자가 되셨다. 바야흐로 그의 원수들이 틀림없이 그를 희생 제물로 삼을 수 있다고 느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은 그들의 손이 미치지 못할 곳으로 그를 옮기셨다. 그는 루터워드에 있는 자기의 교회에서 성찬식을 집례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중풍병으로 쓰러졌는데 그 얼마 후에 사망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위클리프에게 그의 사업을 지정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에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백성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자 그의 신변을 지키셨다. 그리하여 개혁의 위대한 사업을 위한 기초가 놓일 때까지 그의 생명은 보호되고, 그의 활동은 연장되었다. 위클리프는 암흑시대의 흑암 속에서 나타났다. 그와 같이 개혁 사업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그 전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침례 요한과 같이 그는 특수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어난 새 시대의 선구자였다. 그러나 그가 밝혀낸 진리의 체계는 그 후의 개혁자들이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어떤 것들은 그 후 백년이 지나서도 미칠 수 없을 만큼 통일성과 완전성이 있었다. 그 기초는 넓고 깊으며, 그 구조는 튼튼하고 완전하므로 그 후에 나타난 사람들이 그것을 재건할 필요가 없었다.

위클리프가 착수한 위대한 운동, 곧 양심과 지성을 해방시켜 주고, 질곡 (桎梏) 에 속박되어 있던 여러 나라들에게 자유를 준 운동의 근원은 성경이다. 14 세기 이래 각 시대를 통하여 마치 생명수처럼 흘러내린 축복의 근원은 바로 성경이었다. 위클리프는 단순한 마음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영감의 계시요, 믿음과 행실의 완전한 표준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일찍이 로마교회를 거룩하고 절대 무류의 권위를 가진 교회로 여기고, 천여 년 동안에 걸쳐서 확립된 그 교리와 관습을 절대적인 존경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로부터 돌아섰다. 이 거룩한 말씀은 그가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자 역설한 권위의 말씀이었다. 유일의 참 권위는 법왕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는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의 완전한 계시인 동시에, 성령께서 성경의 유일한 해석자이므로 모든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연구하여 스스로 자기의 본분을 깨달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렇게 하여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법왕과 로마교회로부터 성경 말씀으로 돌이켰다. 위클리프는 가장 위대한 개혁자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의 해박한 지식, 명석한 사고력, 진리를 주장할 때 보여준 확신, 그리고 진리를 옹호하기 위한 담력 등은 그보다 후에 나타난 사람들 중에서도 그와 필적할 사람이 별로 없다. 그가 살던 시대에는 지적으로 몽매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시대였지만, 이 최초의 개혁자의 봉사는 생애의 순결, 연구와 활동에 있어서의 근면, 매수되지 않는 청렴, 사업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과 충성 등으로 특징을 이루었다.

이와 같은 위클리프의 인격은 성경이 사람을 교육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해 주는 좋은 예증이 된다. 과연 성경이 그로 하여금 그러한 인물이 되게 하였다. 계시에 나타난 위대한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노력은 모든 기능에 새로움과 활기를 준다. 그것은 마음을 넓혀 주고, 이해력을 예민하게 해주고, 판단력을 성숙하게 해준다. 성경 연구는 어떤 연구보다도 사상과 감정과 욕망을 더욱 정화 (淨化) 시켜 줄 것이다. 그것은 견인불발의 정신과 인내와 용기와 굳센 마음을 가져다준다. 그것은 품성을 세련시켜 주고, 심령을 거룩하게 만들어준다. 성경을 존중하고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의 마음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직접 접촉하게 되므로, 어떠한 인간적인 철학이 가져다주는 가장 훌륭한 결과보다 더욱 고상한 원칙은 물론이요, 더욱 강하고 적극적인 지성을 갖춘 인물이 되게 해줄 것이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취어 깨닫게 하나이다" (시 119:130) 고 말하고 있다.

위클리프가 가르친 교리는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널리 전해졌다. 그를 따르는 자들, 곧 위클리프 교도와 롤라드 교도라고 불리는 무리들은 영국에 복음의 지식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외국에까지도 그것을 가지고 나아갔다. 이제 지도자는 없어졌으나 그 전도자들은 전보다도 더욱 큰 열성으로 일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듣기 위하여 모여들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 중에는 귀족도 있고 왕비도 있었다. 많은 곳에서 사람들의 생활 상태가 현저하게 개혁되었고, 로마교의 우상적 상징은 교회에서 제거되었다. 그러나 무자비한 박해의 폭풍이 성경을 그들의 지도자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곧 몰려왔다. 영국의 국왕들은 로마 법왕의 지지를 얻어 자기들의 권세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개혁자들을 희생시키는 일을 주저하지 아니하였다. 영국 역사상 최초로 복음의 사도들에 대하여 화형의 선고가 내렸다. 순교자가 계속하여 뒤를 이었다. 법률의 보호를 박탈당하고 고문에 시달리는 진리의 옹호자들은 만군의 여호와께 부르짖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었다. 그들은 교회의 원수요 국가의 반역자로 누명을 쓰고 추격을 받으면서도 몰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빈궁한 자들의 집을 그들의 가장 좋은 은신처로 삼았고, 때때로 굴 속을 그들의 피난처로 삼기도 하였다.

격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타락한 종교의 세력을 대항하여 전개한 조용하고, 경건하고, 열렬하고, 꾸준한 반항은 여러 세기 동안 계속되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에 관한 지식을 일부분밖에 알지 못하였다. 마치 사도 시대의 제자들과 같이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하여 세상의 재물을 희생하였다. 다행히 가정에서 살도록 허락 받은 사람들은 추방당한 형제들을 기꺼이 숨겨 주었고, 그들 역시 추방을 당해야 할 경우에는 즐거이 그 운명을 받아들였다. 물론 그 중에는 박해자들의 분노를 두려워하여 신앙을 희생하여 자유를 얻고, 참회자의 옷을 입고 감옥에서 나와 신앙의 취소를 선언한 자들도 수천 명이 있었다. 그러나 감옥과 롤라드탑 (塔) 에 갇히든지, 심지어는 고문과 화형을 받을지라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진리를 위하여 증거한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았다. 그들 중에는 빈궁하고 비천한 사람들도 있었으나 귀족 출신의 사람들도 있었다.

법왕교도들은 위클리프가 살아 있을 동안에 그들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몸이 무덤에서 조용히 쉬고 있을 동안에도 그들의 증오심은 충족되지 못하였다. 그가 죽은 지 40 여 년 후에 열린 콘스탄스 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그의 유골을 다시 파내어 공중 앞에서 불태우고, 그 재를 그 근처에 흐르고 있는 시냇물에 던져 버렸다. 그 사실에 대하여 옛날의 한 저술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시냇물은 그 재를 아본 시내로, 아본 시내는 세버언 강으로, 세버언 강은 영국 해협으로, 영국 해협은 대양으로 옮겨 주었다. 그리하여 위클리프의 재는 오늘날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그의 교리를 상징하고 있다” (T.Fuller, Church History of Britain, b1, sec1, par14). 그의 원수들은 자신들의 악의에 찬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거의 깨닫지 못하였다. 보헤미아의 얀 후스 (John Huss) 가 로마교의 많은 오류를 버리고 개혁 사업을 착수한 것은 위클리프의 저서를 통해서였다. 그 두 나라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진리의 씨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뿌려졌다. 그 사업은 보헤미아에서 다른 나라로 확장되어 나갔다. 사람들의

마음은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하나님의 손이 위대한 종교개혁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

6 장 — 두 영웅

복음이 보헤미아에 전파되기는 이미 9 세기의 일이었다. 성경이 번역되고 백성들은 자국어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러나 법왕권의 세력이 확장됨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은 가리워졌다. 평소에 왕들의 권세를 꺾어 버릴 뿐 아니라 백성들을 노예의 상태로 만들고자 꾀해 오던 그레고리우스 7 세는 예외 없이 보헤미아어로 공중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교서를 내렸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 이 법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악과 이단이 생기게 되었다" (Wylie, b1, ch1) 고 법왕은 선언하였다. 그와 같이 로마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꺼버리고 백성들을 암흑 가운데 가두어 두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기구를 통하여 교회를 보존하시고자 계획하셨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박해를 만나 쫓겨난 많은 왈덴스와 알비젠스 (Albigenses) 인들이 보헤미아로 피난하였다. 비록 그들은 그 곳에서 공공연하게 전도하지 못하였으나 은밀한 가운데서 열심히 활동하였다. 그리하여 참된 신앙이 여러 세기를 통하여 보존되어 왔다.

후스가 태어나기 전에 보헤미아에는 이미 교회의 부패와 백성들의 비행을 공공연하게 규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의 활동은 많은 사람들의 주의와 관심을 끌었다. 그러므로 승려 계급은 두려움을 느끼고 복음 사도들에게 박해를 가하였다. 그들은 숲 속과 산으로 쫓겨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군사들은 그들을 찾아내어 많은 사람들을 살육하였다. 얼마 후에 로마교의 예배에서 벗어나는 자는 화형에 처한다는 명령이 내렸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들의 사업의 승리를 확신하고 눈을 감았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가르친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고 죽었다. "진리의 원수의 분노는 오늘날 우리들을 이기고 있지만 영원히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평민 가운데서 한 사람이 권세와 검을 쥐지 않고 일어날 것인데, 그들은 그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Wylie, b1, ch1) 루터의 시대는 아직 먼 미래에 속하였다. 그러나 이제 로마를 공격하는 그의 증언으로 모든 나라를 일깨우게 할 한 사람이 일어나는 중에 있었다.

후스의 어린 시절부터 대학 총장이 되기까지 얀 후스 (John Huss) 는 비천한 계급에서 태어났으며, 어렸을 때에 그의 아버지를 여의었다. 그러나 그의 경건한 어머니는 교육시키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재산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그러한 유업을 그 자식에게 남겨 주고자 애를 썼다. 후스는 처음에 시골에 있는 학교에서 공부하였으나 그 후에 프라하 대학의 자선 장학금으로 공부하도록 허락을 받았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프라하를 향한 여로에 올랐다. 과부로서 가난에 시달리는 그의 어머니는 그 아들게 줄 만한 세상 재물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그 큰 도시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아버지 없는 자기의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를 위하여 하늘 아버지께 복을 빌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자기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 것인지에 대하여 거의 깨닫지 못하였다.

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안, 후스는 부지런한 공부와 신속한 학업의 향상으로 이름을 떨쳤으며, 그의 깨끗한 생애와 온유하고 쾌활한 성격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다. 그는 또한 로마교를 열렬히 신봉하는 사람이었으므로, 교회가 수여한다고 공언하는 영적 축복을 매우 갈망하였다. 그는 어떤 큰 성회에 참석하였을 때 참회하러 나아가 호주머니 속에 남아 있는 돈을 다 털어 바치고 사면 (赦免) 을 얻기 위하여 행렬 가운데 참례한 일도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자 그는 신부의 직분을 얻었으며, 그 후 신속히 승진하여 왕실 전속의 승정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모교의 교수가 되고, 그 후에 그 대학의 총장까지 되었다. 그리하여 불과 수년 만에 구호금의 장학금을 받던 비천한 일개 학생이 보헤미아의 자랑이 되고, 그 명성을 온 구라파에 떨치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다른 한 분야에서 개혁 사업을 착수하였다. 성직에 나간 지 수년 후에 그는 베들레헴 회당의 설교자로 임명되었다. 그런데 그 회당의 설립자는 성경을 자국어로 설교하는 일을 참으로 중요한 일로 주장하는 사람이었다. 그 일은 로마에서 반대하는 일이었으나 보헤미아에 있어서는 완전히 중지되지는 않았다. 그 당시에 성경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무지는 실로 컸으며, 모든 계급의 사람들에게 가장 악한 일들이 편만해 있었다. 후스는 이러한 죄악들을 기탄없이 견책하고, 자기가 설명한 진리의 원칙과 순결을 역설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곡히 호소하였다. 후에 후스의 절친한 친우가 된 프라하 출신의 제롬 (Jerome) 이 영국으로부터 귀국하면서 위클리프의 저서를 가지고 돌아왔다. 위클리프의 가르침으로 개종한 영국 왕후는 원래 보헤미아의 공주였으므로, 그의 감화로 말미암아 보헤미아에는 개혁자의 저술이 널리 유포되었다. 후스는 그러한 저술들을 흥미 있게 읽었다. 그는 그 저자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었으며 위클리프가 주장하는 개혁주의에 찬동하게 되었다. 비록 후스 자신은 깨닫지 못하였으나 이때에 그는 그를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인도할 길에 들어섰던 것이다.

그 때에 프라하에 영국으로부터 학식 있는 두 사람이 왔다. 그들은 진리의 밝은 빛을 받았는데,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먼 지방까지 찾아왔던 것이다. 그들은 처음부터 법왕의 최상권을 공공연하게 공격하였으므로 즉시 당국으로부터 발언을 금지당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의 목적을 버릴 수 없었으므로 한 가지의 계책을 세웠다. 그들은 본래 설교자인 동시에 화가였으므로 그들의 기술을 발휘하게 되었다. 그들은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두 장의 그림을 그렸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광경이었는데, 그분께서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마 21:5) 타셨다. 제자들은 여행으로 더러워진 헌 옷을 입고 맨발로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한 장은 법왕의 행렬을 그린

것인데, 법왕은 화려한 옷을 입고 머리에 삼층 면류관을 쓰고 아름답게 장식한 말을 타고 있으며, 그 앞에는 나팔수들이 가고 있었고, 뒤에는 추기경들과 주교들이 따라가고 있었다.

그것은 참으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의 주목을 끈 무언의 설교였다. 군중들이 몰려와서 그 두 장의 그림을 주목하여 보았다. 그 그림의 뜻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없었다. 많은 사람들은 주되시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 그리고 그분의 종이라고 자칭하는 법왕의 자고와 교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프라하에는 큰 동요가 생겼다. 그러자 그 두 사람은 신변의 안전을 위하여 얼마 후에 그 곳을 떠나갔다. 그러나 그들이 가르친 교훈은 잊히지 않았다. 특별히 그 그림은 후스의 마음에 커다란 감동과 인상을 주었으므로 그는 성경과 위클리프의 저서를 더욱 세밀히 연구하게 되었다. 그는 아직 위클리프의 개혁설을 모두 받아들일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법왕교의 진상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으므로 타는 듯한 열성으로 교권의 부패와 교만과 야심을 규탄하였다.

진리의 빛은 보헤미아에서 독일로 전파되었다. 왜냐하면 프라하 대학의 소동으로 수백 명의 독일 학생들이 고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이었다. 그들 중의 많은 학생들이 후스에게서 처음으로 성경의 지식을 배웠는데, 그들은 돌아가서 각자 자기 나라의 여러 곳에 복음을 전파하였다. 프라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소식이 로마에 전해지자 후스는 곧 법왕의 소환 명령을 받았다. 그 명령에 응하는 것은 자기의 몸을 죽음에 내어 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보헤미아의 왕과 왕후와 대학과 귀족과 정부의 고관들이 연합하여 후스는 프라하에 머물러 있게 하고, 대리자를 로마에 파견시켜 대답하도록 허락해 달라고 법왕에게 애소하였다. 그러나 법왕은 그 요구를 수락하는 대신에 도리어 후스에게 대하여는 심문 선고를 내리고 프라하 시를 파문 (破門) 에 처한다고 선포하였다.

그 당시에 있어서 이와 같은 선고는 언제나 큰 공포를 일으켰다. 거기에 따르는 의식들은 법왕을 하나님의 대표자로 존경하고, 그를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영적 심판은 물론이요, 세속적 심판까지 행할 권능을 가진 자로 알고 있는 백성들을 공포에 질리게 할 수 있도록 잘 꾸며졌다. 파문의 선고를 받은 지방에는 하늘의 문이 닫혀지므로 법왕이 그것을 열기까지는 죽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처럼 두려운 재난의 증거로서 온갖 종교적 의식은 정지되고, 교회는 폐쇄되고, 결혼식은 교회당의 뜰 앞에서 거행되고, 죽은 자는 성별된 묘지에 매장되지 못하고 장례식 없이 도랑이나 벌판에 매장되었다. 로마는 사람의 상상력에 자극을 주는 이런 종류의 처사를 통하여 사람의 양심을 지배하고자 하였다.

프라하에는 큰 소동이 일어났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재난을 만난 것은 오로지 후스 때문이라고 그를 규탄하였다. 그리고 로마의 징벌에 신속히 넘기라고 요구하였다. 소동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후스는 잠시 동안 고향으로 돌아가 있었다. 프라하에 남겨 놓고 온

친구들에게 그는 다음과 같이 편지를 보냈다. "내가 그대들을 떠나온 것은 나쁜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영원한 죄의 선고를 자취하지 않도록 하고,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박해가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교훈과 모본을 따라서 행한 것뿐이다. 그리고 나는 경건치 않은 신부들이 그대들 가운데서 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금지할지도 모른다고 염려한 나머지 잠시 동안 물러나온 것뿐이다. 나는 거룩한 진리를 거절하므로 그대들을 떠나온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리를 위하여서는 죽음도 사양치 아니한다" (Bonnechose, The Refor-mers Before the Reformation, vol1, p17). 그러나 후스는 자기의 활동을 그치지 아니하고 각지로 다니며 진리를 갈급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법왕이 복음을 감추어 버리고자 취한 조치는 도리어 그것을 더 널리 전파하는 방편이 되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 (고후 13:8) 다.

"그 당시의 후스의 마음에는 일종의 번민이 있었을 것이다. 비록 교회는 위협으로 그를 억누르고자 했지만, 그는 아직까지 교회의 권위를 부인하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서 로마 교회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배우자요, 법왕은 하나님의 대표자요 대리자였다. 후스가 싸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권위의 악용이었지 원칙 그 자체는 아니었다. 이 사실은 그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그의 양심의 주장 사이에 무서운 갈등을 일으켰다. 자기가 그렇다고 믿은 대로 로마교의 권위가 정당하고 그릇됨이 없는 것이라면 어찌하여 거기에 불순종해야 한다고 느껴지는가? 그는 복종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런데 어찌하여 소위 흠이 없는 교회에 복종하는 것이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것이 바로 그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고, 그를 언제나 번민하게 하는 의문이었다. 그가 궁리해 낼 수 있었던 가장 가능한 해답은 일찍이 구주 당시에 그랬었던 것처럼 교회의 제사장들이 악한 사람들로 바뀌어져서 그들의 합법적인 권위를 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해답은 후스로 하여금, 깨달음을 통하여 전달된 성경의 교훈들이 양심을 지배해야 한다는 좌우명을 자신의 지도를 위한 지침으로 채택하고 다른 이들도 그들의 지침으로 삼도록 가르치도록 이끌었다. 즉 그릇됨이 없는 지도자는 신부를 통하여 말하는 교회가 아니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었다" (Wylie, b1, ch1).

얼마 후에 프라하의 소동이 진정되자, 후스는 자기가 맡은 베들레헴의 회당으로 돌아가서 더욱 큰 열심과 용기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전하였다. 그의 원수들은 활발하고 강력하였지만, 왕후와 많은 귀족들이 그의 친구가 되었고, 많은 백성들이 그를 지지하였다. 그의 순결하고 고상한 교훈과 경건한 생애를 로마 교도들이 전하는 타락한 교리와 그들의 탐욕적이고도 방탕한 행동과 비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후스의 편에 가담하는 것을 명예로운 일로 여겼다. 지금까지 후스는 단독으로 활동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 영국에 체류해 있는 동안 위클리프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제롬이 개혁 사업에 참가하였다. 그 후로부터 그 두 사람은

완전히 연합된 생활을 하였으며, 사망도 그들을 헤어지게 할 수 없었다. 대중의 인기를 끄는 재간을 가진 제롬은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고, 말을 잘하고, 학식이 뛰어났다. 그러나 참된 인격을 형성하는 자질 (資質) 을 구비한 점에 있어서는 후스가 한층 더 탁월하였다. 그의 냉정한 판단력이 제롬의 충동적인 정신을 제어해 주는 역할을 잘하였다. 한편 제롬은 참으로 겸손하게 후스의 진가 (眞價) 를 인정하고 그의 권면을 잘 받아들였다. 그들의 연합적 활동으로 개혁 사업은 한층 더 신속히 확장되어 나갔다.

하나님께서 택함을 입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 큰 빛을 주셨으므로 그들은 로마의 여러 가지 오류들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전해 주어야 할 빛을 남김없이 다 받은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로마교의 흑암에서 나오도록 인도하고 계셨다. 그러나 그들은 온갖 큰 장애를 만나야 할 것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을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인도하여 내셨다. 그들은 모든 빛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정오의 햇빛과 같이 눈부시게 밝은 빛이 주어졌었더라면, 암흑 속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사람들처럼 그들은 돌아서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에게 사람들이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조금씩 빛을 나타내 주셨다. 시대가 지나감에 따라 충성된 일꾼들이 차례로 일어나서 사람들을 차츰 깊은 개혁의 길로 인도하였던 것이다.

교회 내의 분열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세 사람의 법왕이 제각기 최상권을 장악코자 다투고 있었으므로 그리스도교국은 범죄와 소동으로 충만하여졌다. 그들은 피차에 저주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세속적 무력에 호소하였다. 그리하여 각각 무기를 구입하고 군대를 모집하기 위하여 애썼다. 물론 돈이 필요하였다. 그러므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위 교회에 속한 은사, 지위, 축복 등이 돈으로 매매되었다. 신부들도 역시 그들의 위에 있는 성직자들의 본을 받아 성직을 매매하고 자기의 상대자를 넘어뜨리고 자기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싸웠다. 이러한 철면피한 행동들이 날마다 증가되어감으로 후스는 소위 종교라는 이름으로 용인되는 가증한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비난하였다. 또한 백성들도 로마교의 지도자들이 그리스도교국을 비참하게 만드는 자들이라고 공공연하게 비난하였다. 그리고 프라하에는 바야흐로 유혈의 참극이 일어날 것처럼 보였다. 옛날에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왕상 18:17) 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 도시는 두 번째로 파문을 선고받았고, 후스는 시골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갔다. 드디어 사랑하는 베들레헴 회당에서 행하던 그의 충성된 증언은 그쳤다. 이제 그는 진리의 증인으로서 그의 생명을 바치기 전에 더욱 넓은 무대에서 온 그리스도교국을 향하여 말할 것이었다.

온 유럽을 혼란에 빠지게 한 화근을 제거하기 위하여 콘스탄스에서 총회가 소집되었다. 이 회의는 시기스문트 (sigismund) 황제의 희망에 따라 세 경쟁자 중의 하나인 요한 23 세가

소집한 것이었다. 법왕 요한은 원래 회의를 소집하는 것을 환영하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인격과 정책에 있어서 당시의 교인들에게서뿐 아니라 타락한 주교들로부터도 힐책과 비난을 받을 정도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감히 시기스문트의 뜻을 반대할 수가 없었다 (부록 16 참조). 회의에서 달성되어야 할 주요한 목표는 교회의 내분을 화해시키고, 이단을 뿌리 뽑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의 참칭 (僭稱) 법왕과 새로운 주장을 퍼뜨리는 주동자로 지목된 얀 후스가 그 회의에 소환되었다. 그 참칭 법왕들은 모두 자기들의 신변의 안전을 위하여 직접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그들의 대표자들을 참석시켰다. 법왕 요한은 표면상으로 그 회의의 소집자였지만, 황제가 자기를 폐하려는 은밀한 목적이나 없는지, 또는 자기가 삼층관을 얻기 위하여 자행한 범죄와 그 삼층관을 욕되게 한 행위에 대하여 문책당하지나 않을지 하는 여러 가지 불안과 의구심 (疑懼心) 을 가지고 회의에 임하였다. 그러나 그는 교회의 높은 직분을 가진 사람들과 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위풍당당하게 콘스탄스 성으로 들어갔다. 시 (市) 의 고관들과 성직자들은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그를 환영하였다. 그의 머리 위에는 황금으로 만든 천개 (天蓋) 가 덮이었고, 그것을 그 지방 장관 네 사람이 붙들고 있었다. 성체 (聖體) 는 그의 앞에서 운반되어 가고, 추기경들의 화려한 복장들은 사람들의 눈을 부시게 하였다.

그 때에 또 다른 여행자가 콘스탄스 성으로 가까이 오고 있었다. 후스는 자기를 위협하고 있는 위험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그 길을 마치 영원한 이별의 길인 것처럼 느끼고 친구들에게 작별을 고하였다. 그리고 그는 차츰 화형주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처럼 느끼면서 여행을 계속하였다. 그는 보헤미아의 왕으로부터 그의 신변의 안전을 보장하는 통행권을 받았고, 또한 시기스문트 황제가 보증해주는 여행 도중의 안전을 위한 통행권까지도 받았지만 도저히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고 모든 일을 다 처리하고 갔다.

프라하에 있는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형제들이여...나는 왕의 통행권을 가지고 나의 많은 대적들을 만나고자 떠나가고 있다. ...나는 나의 구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내가 능히 저들을 대항할 수 있도록 나의 입에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신중하신 정신을 넣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그대들의 열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나는 믿는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진리로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주시고, 시련이나 감옥이나 필요하면 잔인한 죽음까지라도 용기 있게 당하게 하실 줄로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일에 참을 수 있도록 본을 보여 주셨으니 이 어찌 놀라운 일이 아닌가. 그분께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다. 그분께서는 주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종들이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비천한 인간들이다. 그렇지만 그분께서는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더욱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정결해지는데 어찌 우리가 고통을 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즉 사랑하는 친구여, 만일 나의 죽음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면, 그날이 하루 속히 이르도록, 그리고 내가 당하게 될 모든 고난에 그분께서 항상 나를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하라. 만일 내가 그대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더욱 좋은 일이라면 나로 하여금 오점(汚點) 없이 돌아가게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 곧 나의 형제들에게 훌륭한 본을 남겨 나를 따라오게 하도록 복음의 진리의 일점 일획이라도 숨기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기도하라. 아마도 프라하에서 그대들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로 하여금 돌아가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그 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지식과 사랑으로 마음을 더욱 굳게 하여 전진하여야 할 것이다" (Bonnechose, vol1, pp147, 148).

후스는 복음의 사도가 된 어떤 신부에게 보내는 또 한 장의 다른 편지에서, 과거에 화려한 의복을 입기를 좋아하고 천박한 일로 시간을 낭비한다고 그를 비난하였던 자기의 과오를 충심으로 사과하였다. 그리고 그는 아래와 같이 감동적인 권고를 덧붙였다. "직록 (職祿) 이나 재산에 마음을 팔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의 구원으로 그대의 마음을 채우라. 그대의 마음보다도 집을 더 꾸미지 말고, 영적 집을 세우는 데 관심을 쏟으라. 가난한 사람들을 친절하고 겸손하게 대하며, 그대의 물질을 열락하는 일로 낭비하지 말라. 그대가 만일 그대의 생애를 고치고 사치스러운 생애를 끊어 버리지 아니하면, 내가 지금 심하게 징계를 받고 있는 바로 그 징계가 그대에게 미칠까 염려된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나의 교훈을 받았으므로 나의 교훈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 이상 더 쓸 필요가 없는 줄로 안다. 그대가 아는 바와 같이 한 때 내가 빠졌던 어떠한 허영에도 그대는 빠지지 말기를 나는 주의 자비를 힘입어 그대에게 간원한다." 그리고 그 겉봉에는 "나의 친구여, 그대는 내가 죽은 것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이 봉투를 뜯지 말라" (Bonnechose, vol1, pp148, 149) 고 써 있었다.

후스는 그 여행 중에서 자기의 교리가 도처에 전파된 것과 자기의 전도 사업이 환영을 받고 있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은 그의 곁으로 몰려왔으며, 어떤 고을에서는 지방 장관이 그를 따라 거리를 같이 걷기도 하였다. 콘스탄스 성에 도착하자, 후스에게는 완전한 자유가 허락되었다. 황제의 통행권에는 다시 법왕의 개인적인 보증이 첨부되었다. 그러나 이 엄숙하게 반복된 보증도 무시되고, 얼마 후에 그 개혁자는 법왕과 추기경들의 명령으로 체포되었다. 그는 곧 불결하고 음침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 후에 그는 라인 강 건너편에 있는 튼튼한 성안으로 이송되어 죄수로 수감되었다. 이러한 법왕의 배반은 법왕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하였으며, 오래지 아니하여 그 법왕도 또한 그 동일한 장소에 갇히게 되었다 (Bonnechose, vol1, pp147). 그는 회의석상에서 살인, 성직 매매, 간음, 그 외에도 말할 수 없이 더러운 죄악을 범한 것이 밝혀졌다. 그리하여 그는 회의의 선고로 삼층 면류관을 박탈당하고, 동시에 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리고 참칭 법왕들도 폐위당하고 새로운 법왕이 선정되었다.

후스가 개혁을 요구하며 신부들을 비난해 왔던 죄들보다 더 큰 죄를 법왕 자신이 범했지만, 법왕을 파면시킨 바로 그 동일한 회의는 이제 이 개혁자를 처치해 버리기로 하였다. 후스의 투옥은 보헤미아 사람들의 큰 분노를 일으켰다. 유력한 귀족들이 대회의 석상에서 이러한 횡포한 행위에 대하여 이의 (異議) 를 제기하였다. 자기가 발행한 통행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황제는 후스에 대한 조치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개혁자의 원수들은 악독하고 완고하였다. 그들은 황제의 편견과 그의 공포심과 교회에 대한 그의 열성 등을 들어 황제에게 호소하였다. 그들은 "비록 황제나 국왕으로부터 통행권을 받은 자일지라도 그가 이단이거나 이단의 혐의를 받은 자일 경우에는 그로 더불어 맺은 약속이 이행될 수 없다" (Jacques Lenfant, His-tory of the Council of Constance, vol1, p116) 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장황한 이론을 펴놓았다. 그리하여 그들이 득의했다.

감방의 습기와 불결한 공기 때문에 열병에 걸려서 거의 죽음 직전에 놓여 있었지만 마침내 후스는 대회의에 끌려나왔다. 그는 무거운 쇠사슬에 매인 채로 황제 앞에 섰다. 이 황제는 일찍이 자기의 명예와 훌륭한 신앙으로 후스를 보호해 주기로 서약한 바로 그 사람이었다. 긴 심문을 통하여 후스는 확고부동하게 진리를 주장하였다. 그는 이제 그 곳에 열석한 교회와 정부의 고관들 앞에서 거리낌 없이 교권의 부패를 규탄하였다. 자기의 교리를 취소하든지 죽음을 택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그는 순교자의 운명을 수락하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었다. 그가 최후의 선고를 받기 전에 있은 고난의 몇 주일 동안에 그에게는 하늘의 평화가 마음에 충만하여졌다. 그는 한 친구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하였다. "나는 옥중에서 내일 사형 선고가 내릴 것을 기다리면서 쇠사슬에 매인 손으로 이 편지를 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내세의 귀한 화평 중에서 다시 만나게 될 때, 그대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느 정도의 자비를 베푸신 것과 내가 당한 시험과 시련 중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나를 도우셨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Bonnechose, vol1, p17).

음산한 옥중에서 그는 참된 신앙의 승리를 미리 보았다. 꿈 가운데 그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던 프라하의 교회당으로 돌아가서 그가 벽에 그렸던 그리스도의 그림들을 법왕과 주교들이 지워 버리는 것을 보았다. "이 광경은 그를 괴롭게 하였다. 그러나 그 다음날에 그는 더욱 많은 화가들이 더욱 찬란한 채색으로 더욱 많은 그림들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일을 마치자마자 그 화가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자 이제는 법왕이든지 감독이든지 와 보라. 그들이 더 이상 다시는 이 그림들을 지우지 못할 것이다'고 부르짖었다. 개혁자는 그가 꾼 꿈에 관하여 '나는 그리스도의 상 (像) 을 결단코 지워 버릴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들은 그것을 소멸시켜 버리고자 했지만 나보다 훨씬 더 유력한 전도자들로 말미암아 그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새롭게 그려질 것이다'고 말하였다" (D'Aubigne, b1, ch1).

후스는 마지막으로 큰 회의에 소환되었다. 그것은 실로 규모가 크고도 엄숙한 집회였다. 황제와 왕공과 사신과 추기경들과 감독과 신부들이 열석하고, 밖에는 허다한 방청자가 모여 있었다. 그들은 양심의 자유를 얻기 위한 긴 투쟁에서 최초의 큰 희생자를 목격하고자 그리스도교국의 각 곳에서 모인 사람들이었다. 후스는 최후의 결심을 표명하도록 요구받았을 때, 자기의 견해를 철회하기를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그는 약속한 바를 아무런 가책 없이 깨뜨려버린 황제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나는 여기 임석한 황제의 신의 (信義) 와 공공연한 보호 아래 내 자신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대회의에 출석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Bonnechose, vol1, p14) 라고 언명하였다. 그러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황제에게 집중되었으며, 시기스문트는 얼굴을 붉혔다. 선고가 언도되고, 지위를 박탈하는 의식이 시작되었다. 감독들은 그 죄수에게 승려와 같은 옷을 입혔다. 후스는 승복을 손에 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치욕을 받으실 때에 흰옷을 입으시고 헤롯에게서 빌라도에게로 호송되셨다" (Bon-nechose, vol1, p16) 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의 주장을 취소하라는 권고를 다시 받게 되자 그는 군중을 향하여 돌아서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내가 무슨 면목으로 하늘을 쳐다볼 수 있겠는가? 내가 지금까지 순결한 복음을 전한 저 사람들을 무슨 면목으로 쳐다볼 수 있겠는가? 나는 그들의 구원을 이제 죽기로 작정된 불쌍한 나의 몸 이상으로 귀중하게 여긴다." 그의 제복 (祭服) 은 하나씩 차례로 벗겨졌는데, 그럴 때마다 의식을 행하고, 열석한 감독들은 차례대로 저주를 선언하였다. 드디어 그의 머리 위에는 모자 곧 피라미드 모양으로 만든 종이 고깔이 씌워졌는데, 거기에는 악마의 무서운 형상이 그려져 있고 대이단자라는 글자가 그 앞면에 뚜렷하게 쓰여 있었다. 후스는 '주 예수여 이 종은 더할 수 없는 기쁨으로 당신을 위하여 치욕의 관을 쓰나이다. 나를 위하여 가시관을 쓰신 주 예수여!' 하고 부르짖었다.

이런 의식을 행한 후에 "주교는 '네 영혼을 마귀에게 주노라'고 말하였다. 그 때에 얀 후스는 하늘을 우러러, '오, 주 예수여! 당신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는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기나이다'고 말하였다" (Wylie, b1, ch1). 그 후에 그는 세속적 권세에 맡겨져 처형장으로 끌려나갔다. 그의 뒤에는 많은 군중, 몇백 명의 무장한 사람들, 아름다운 의복을 입은 신부와 주교들, 콘스탄스 성의 주민들이 따랐다. 그가 화형주에 결박되고 불을 붙일 수 있는 준비가 다 갖추어졌을 때에 그 순교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다시 한 번 그의 오류를 취소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무슨 오류를 취소하라고 하는가? 나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저술한 것과 전파한 것은 모두 사람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증거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저술하고 전파한 진리를 나의 피로써 확인하기를 매우 기뻐한다" (Wylie, b1, ch1). 이윽고 불을 붙이매

그는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찬미를 그의 목소리가 영영히 그쳐질 때까지 불렀다.

심지어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의 영웅적인 태도에 감동을 받았다. 열광적인 법왕당의 한 사람은 후스와 그 후에 있은 제롬의 순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두 사람은 다같이 최후의 순간까지 변함없이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화형을 받기 위하여 나아가기를 마치 혼인 잔치에 나아가는 것과 같이 하였다. 그들은 아무런 고통의 부르짖음도 발하지 않았다. 불길이 일어날 때에 그들은 찬미를 부르기 시작하였는데, 그 불길의 기세도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그치게 할 수 없는 듯하였다" (Wylie, b1, ch1). 후스의 몸이 다 타버린 다음에 그들은 그 재와 흙을 모아서 라인 강에 던져 대해로 흘러가게 하였다. 그의 핍박자들은 그가 전한 진리를 근절한 것처럼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날에 던져진 재가 대해로 흘러가서 각 나라에 씨를 뿌리고,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나라에서까지 진리를 증거하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것을 그들은 거의 생각지 못하였다. 콘스탄스의 회의장에서 부르짖은 그의 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그 후 각 시대를 통하여 쉼없이 울려 퍼질 것이었다. 후스는 이미 가고 없으나 그가 생명을 바쳐서까지 옹호한 그 진리는 결코 멸절될 수 없었다. 그의 신앙과 충성의 모본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고문과 사망을 당하면서도 진리를 위하여 굳게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그리고 그의 처형 (處刑) 은 횡포한 로마의 잔인성을 전 세계에 드러내 보이는 일이 되었다. 진리의 원수들은 자기들이 없애 버리려고 한 그 사업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오히려 발전시키는 결과를 빚어내게 되었다.

이제 또 하나의 화형주가 콘스탄스 성에 세워질 것이었다. 또 한 사람의 증인의 피가 진리를 위하여 증거하여야 할 것이었다. 제롬은 후스가 대회의에 나아갈 때에 그와 작별하면서 그에게 용기와 확고한 태도를 가지라고 권면하고 만일 그에게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도와주겠노라고 하였다. 개혁자의 투옥 (投獄) 소식을 듣자 충실한 그 제자는 곧 약속을 이행하려 하였다. 그는 통행권도 가지지 않고 한 동료를 데리고, 콘스탄스 성을 향하여 떠났다. 그는 그 곳에 도착하자, 후스를 구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 성에서 피하였다. 그러나 돌아가는 길에 그는 붙잡히어 쇠사슬에 매여 일단의 군인들에 의하여 호송되었다. 그가 처음으로 대회의에 끌려나와 그에 대한 소송에 답변을 하고자 했을 때 그는 "화형에 처하라, 화형에 처하라"는 부르짖음을 듣게 되었다 (Bonnechose, vol1, p134). 그는 큰 고통을 느끼도록 쇠사슬에 결박된 채로 투옥되어 있었는데, 먹을 것이라고는 물과 빵뿐이었다. 옥중에서 너무나 가혹한 대우를 받았으므로 제롬은 병에 걸려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의 원수들은 그가 그대로 죽을 것을 염려하여 약간 관대하게 대우하였다. 그러나 그는 약 1 년간 옥중에 그대로 갇히어 있었다.

후스의 죽음은 법왕당에게 있어서 기대한 것만큼의 효과가 없었다. 후스의 통행권에 대한 침해가 심한 분노와 물의를 일으켰으므로, 더 안전한 방법으로, 대회의는 제롬을 화형에 처하는 대신에 할 수 있는 대로 그를 강요하여 그의 주장을 취소하게 하고자 결정하였다. 그는 회의장에 끌려나와 오류를 취소하든가, 화형으로 죽든가 둘 중의 하나를 택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그가 당한 무서운 고난을 생각해 보면 수감 초기에 죽는 것이 도리어 그에게는 동정 깊은 처사라고 할 수 있었을 것이었다. 이제 옥중에서 당한 고통으로 얻은 질병 때문에 기력이 쇠하여졌고, 근심과 불안에서 오는 괴로움, 친구들과의 이별, 후스의 죽음으로 인한 낙심 등과 같은 일들로 말미암아 제롬의 용기는 꺾이어 마침내 그는 회의에 굴복하였다. 그는 가톨릭의 신앙을 굳게 지킬 것을 서약하고, 위클리프와 후스가 가르친 교리 중 소위 "신성한 진리" (Bonnechose, vol1, p141) 이외의 것을 정죄한 회의의 결의를 수락하였다.

이와 같은 임기응변의 수단으로 제롬은 양심의 소리를 침묵시키고 절박해 오는 죽음을 면해 보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감방의 적막 속에서 그는 자기가 한 일이 무엇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는 후스의 충성과 용기에 대하여 생각하였다. 그것과 비교해서 진리를 거부한 자기의 무가치한 행동을 숙고하였다. 그는 자기가 섬기기로 서약한 거룩하신 주님,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까지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였다. 신앙을 취소하기 전에는 온갖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확증으로 말미암는 위로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의 마음속에 오직 후회와 의혹과 고민만이 남아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로마교와 화해하려면 아직도 여러 번 신앙의 취소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나아가는 길은 완전한 배도로 끝날 것이었다. 그는 잠깐 동안의 고난을 면하기 위하여 자기의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곧 그는 다시 회의에 끌려나왔다. 그의 재판관들은 그의 굴복으로 만족하지 못하였다. 피에 목마른 저들은 후스의 죽음으로 자극을 받아 새로운 희생자를 요구하게 되었다. 제롬은 진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제롬은 그 신앙을 고백하는 동시에 자기의 형제 순교자의 뒤를 따라 화형을 당하기로 굳게 결심하였다.

그는 지난번의 말을 취소하고, 죽음을 각오한 사람으로서 변명할 기회를 달라고 엄숙히 요구하였다. 그의 말이 끼치게 될 영향을 두려워한 주교들은 그에게 대한 고소에 대해서만 가부간에 대답하라고 강요하였다. 제롬은 이와 같이 잔혹하고 불의한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의하였다. "너희들은 나를 무서운 감옥, 불결하고 악취가 코를 찌르는 곳에서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주지 않은 채 3, 40 일간 구금하였다. 그리고 나를 너희 앞에 끌어내어 나를 죽이려는 원수들의 말은 들어 주면서 나의 증언에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만일 너희들이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들이고 전 세계의 광명이라 자처한다면 정의에 대하여 범죄치 않도록 조심하라. 나는 다만 하나의 연약한 인간이다. 나의 생명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내가 불의한 선고를 하지

않도록 너희들에게 권고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하여 하는 것보다 너희들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Bonnechose, vol1, p146, 147).

그의 요구는 마침내 수락되었다. 제롬은 재판관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성령이 자기의 생각과 말을 제어해 주심으로써 주님을 욕되게 하거나 한 마디라도 진리에 어그러지는 말을 하지 않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이날에 그에게는 초대 교회의 사도들에게 주신바 언약, 곧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마 10:18~20) 고 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

제롬의 말은 그의 원수들까지도 경탄케 하고 놀라게 했다. 그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번민 속에서 1 년 동안 감옥에 갇힌 채로 보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그의 말은 마치 그가 아무런 박해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처럼 분명하고 능력이 있었다. 그는 청중들에게 불의한 재판관들에 의하여 정죄의 선고를 받았던 성도들을 일일이 열거하였다. 그는 어떠한 시대에든지 그 시대의 백성들을 계몽하려고 힘쓴 자들이 비난을 받고 배척을 당하였으나 후에는 영광을 받은 것과 그리스도 자신도 불의한 법관에게 악인으로 정죄를 받으신 사실을 지적하였다. 신앙을 취소하였을 때 제롬은 후스가 정죄를 받은 것을 당연하다고 동의했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신의 회개를 선포하였으며 그 순교자의 무죄와 성결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나는 그를 어렸을 때부터 알았다. 그는 의롭고 거룩하며 가장 탁월한 사람이었다. 그는 아무 죄 없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나 역시 죽음을 각오하고 있다. 언젠가는 아무도 속일 수 없는 크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기만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될 나의 원수들과 거짓 증인들이 마련해 놓은 고통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Bonnechose, vol1, p151).

그는 자기가 진리를 부인한 사실에 자책감을 느끼면서 계속해서 말하였다. "청년 시대 이후로 내가 범한 모든 죄악 중에서 나의 마음을 가장 괴롭게 한 것은 내가 이 흉악한 장소에서 범한 죄이다. 이곳에서 나는 나의 스승이요 친구인 거룩한 순교자 얀 후스와 위클리프에 대하여 내린 간악한 선고를 시인하였다. 그러나 나는 충심으로 그 일을 참회한다. 나는 불명예스럽게도 죽음을 두려워하여 두 사람의 교리를 부인한 것을 고백한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여러 가지 죄를 용서해 주시되, 가증한 이 죄를 사해 주시기를 간원하는 바이다." 그리고 그는 재판관들을 가리키면서 엄숙하게 말하였다. "너희들은 위클리프와 얀 후스에게 정죄의 선고를 내렸는데, 그들이 교회의 교리를 침해한 연고에서가 아니고, 그들이 성직자들의 비행과 추문, 곧 그들의 허식과 교만, 주교와 신부들의 온갖 죄악들을 적발하여 공격하였기

때문이었다. 위클리프와 후스가 말한 반박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하여 나 역시 너희들을 규탄하는 바이다."

그의 말은 저지되었다. 주교들은 격분하여 떨면서 "이 이상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한가?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가장 완고한 이단자를 직접 목격하고 있다"고 부르짖었다. 제롬은 소란한 중에서도 확고한 태도로 말하였다. "너희들은 내가 죽음을 두려워할 줄로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과거 1 년 동안 죽음보다 더욱 참혹하고 무서운 감옥 속에 나를 가두었다. 너희들은 나를 터키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이교도들보다 더욱 잔혹하게 취급하였으므로 나의 살이 사실상 썩어서 나의 뼈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러나 나는 불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탄식은 마음과 정신을 병약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한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그처럼 심한 만행 (蠻行) 을 감행하는 데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Bonnechose, vol1, p151~153).

다시 소동이 일어났으므로 제롬은 급히 감옥으로 이송되었다. 그러나 그 때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는 그의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고, 그의 생명을 구원하려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 제롬은 교회의 권력자들의 방문을 받고, 대회의의 결정에 복종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로마교에 대한 반대를 취소한다면, 그 보상으로 그의 앞에 가장 밝은 전망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세상의 영화가 주어지자 제롬은 그의 주님처럼 그것을 확고하게 물리쳤다. "성경으로 나의 오류를 지적해 준다면, 나는 그것을 거리낌 없이 버리겠다"고 그는 단언하였다. "성경이라고? 그렇다면 만사를 다 그것으로만 판단해야 된단 말이냐?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지 아니하면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고 그를 유혹하는 자들 중의 한 사람은 부르짖었다. 이에 대하여 제롬은 대답하였다. "우리 구주의 복음보다도 사람의 유전이 신앙상으로 더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느냐? 바울은 자기의 편지를 받을 사람들에게 사람의 유전을 들으라고 권하지 않고, 도리어 '성경을 상고하라'고 말하였다."

"이단이다"라는 부르짖음이 일어났다. "지금까지 너를 위하여 그처럼 오랫동안 애원한 것을 나는 후회한다. 네가 악마의 충동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Wylie, b1, ch10). 드디어 그는 정죄의 선고를 받았다. 그는 후스가 죽임을 당한 바로 그 장소로 끌려 나갔다. 그는 노래를 부르면서 나갔는데, 그의 얼굴은 평화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있었으므로 그에게는 죽음의 두려움이 없었다. 사형 집행자가 불을 붙이려고 그의 뒤로 돌아가자, 그 순교자는 "꺼릴 것 없이 앞으로 나와서 나의 눈앞에서 불을 붙여라. 내가 두려워했다면 여기에 오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부르짖었다.

화염이 그를 둘러싸자 그는 최후의 기도를 드렸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언제나 당신의 진리를 사랑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Bon-nechose, vol1, p168) 고 그는 외쳤다. 마침내 그의 소리는 그쳤으나 기도하는 그의 입술은

그치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다. 불길이 그치자 그 순교자의 재는 거기에 남아 있는 흙과 함께 후스의 재처럼 라인 강에 던져졌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들은 죽임을 당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전파한 진리의 빛, 그들의 영웅적인 모본으로 남긴 광채는 소멸될 수 없었다. 바야흐로 세상에 다가오고 있는 여명 (黎明) 을 막으려는 것은 마치 사람이 태양을 돌아가는 궤도에서 역전 (逆轉) 시키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모한 것이었다.

후스의 처형 (處刑) 은 보헤미아에 분노와 공포의 불길을 일으켰다. 온 국민들은 후스가 승려들의 적의 (敵意) 와 황제의 배신으로 희생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충성된 진리의 교사였음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며 그에게 사형 언도를 내린 대회의는 살인죄를 범하였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의 교리는 어느 때보다 더욱 큰 관심을 끌었다. 법왕은 위클리프의 저서들을 정죄하고 불태워 버리라는 조서를 내렸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그 저서들 중에서 소멸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들을 그것들이 숨겨져 있던 곳에서 가져와 성경전서나 혹은 사람이 구할 수 있는 성경 중의 어떤 일부분과 대조하여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개혁자들의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후스를 죽인 자들은 그의 운동이 승리하는 것을 조용히 보고만 있지 않았다. 법왕과 황제가 연합하여 이 운동을 진압하려 하였으며, 시기스문트의 군대는 보헤미아를 향하여 몰려왔다. 그런데 이때에 한 구원자가 나타났다. 그는 개전 직후에 두 눈을 다 잃어버린 지스카 (Ziska) 로서 당시에 가장 훌륭한 장군 중의 한 사람으로서 보헤미아군의 지휘관이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들의 사업의 정당성을 신뢰하면서 사람들은 침공해 오는 가장 강력한 군대와 맞서 싸웠다. 황제는 여러 번 거듭하여 새로운 군대를 보내어 보헤미아를 공격하였으나 굴욕적이게도 격퇴를 당할 뿐이었다. 후스의 신봉자들은 죽음의 두려움을 초월한 사람들이었으므로 아무도 그들을 대적할 수 없었다. 개전 후 불과 수년 만에 그 용감한 장군 지스카는 죽었다. 그러나 그와 마찬가지로 용감한, 아니 어떤 점으로는 그보다도 더욱 훌륭한 장군인 프로코피우스 (Procopius) 가 그의 자리를 대신하였다.

보헤미아인의 원수들은 그 눈먼 용사의 죽음을 알게 되자, 그들이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줄로 믿었다. 법왕은 후스의 신봉자들을 공격하기 위하여 십자군을 보낼 것을 포고하였다. 그리하여 다시 급히 많은 군대를 보헤미아로 투입시켰으나 결국은 엄청난 패배를 당할 뿐이었다. 또다시 십자군의 파견이 선포되었다. 유럽에서 법왕을 지지하는 모든 나라들로부터 전쟁을 위하여 사람과 자금과 군수품들을 모았다. 허다한 무리들이 법왕의 깃발 아래 모여서 마침내 후스의 신봉자들인 이단을 멸절시키겠노라고 약속하였다. 필승의 신념으로 많은 군사들이 보헤미아로 쳐들어갔다. 보헤미아의 백성들도 그들을 격퇴시키기 위하여 집결하였다. 두 군대가 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 (對峙) 하였다. "십자군은 월등하게 우세한 군대였으며, 후스의 신봉자들을 토벌하기 위하여 참으로 먼 거리에서부터 왔기에 그 시내를

건너서 급히 돌진하거나, 그들과 접전하기보다는 조용히 서서 상대방의 전사들을 주목하여 바라보기만 하였다" (Wylie, b1, ch17). 그 때에 그들은 갑자기 기이한 공포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에 의하여 쫓겨 가듯이 한 번 공격해 보지도 못하고, 그 대군은 깨어지고 흩어졌다. 무수한 군사들이 도망하다가 그들을 쫓아간 보헤미아군에게 살육을 당하고, 막대한 전리품이 승리자들의 손에 돌아갔다. 그리하여 그 전쟁은 보헤미아 사람들을 곤궁에 빠뜨리기는커녕 오히려 부요하게 해주었다.

수년 후에 다른 법왕이 십자군을 다시 일으켰다. 전과 같이 군대와 자금이 법왕권 하에 있는 온 유럽 각국에서 징집되었다. 이 위험한 일에 가담시키고자 권유하는 운동이 크게 전개되었다. 십자군에 참가하는 자는 누구든지 아무리 가증한 죄를 범하여도 완전히 용서받는다는 것이 보증되었다. 전쟁에서 죽는 자들은 하늘에서의 큰 상이 약속되었고 살아남는 자들은 그 전쟁터에서 명예와 재물을 얻게 될 것이라고 보증되었다. 다시금 대군이 징모되어 국경을 넘어 보헤미아로 쳐들어왔다. 후스의 신봉자들은 그 대군 앞에서 퇴각하여 침략자들을 국내로 깊숙이 유인하여 들이고, 그들로 하여금 이미 승리한 줄로 생각하게 하였다. 드디어 프로코피우스의 군대는 퇴각을 정지하고, 원수들을 향하여 돌아서서 그들에게 싸움을 걸었다. 십자군은 그제야 그들의 실책을 깨닫고, 군대를 멈추고 그 자리에서 적군이 공격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십자군들은 적군이 접근해오는 소리를 듣자 후스파의 군대를 보기도 전에 다시 공포에 휩싸였다. 왕족들과 장군들과 일반 군사들은 그들의 무기를 내어 버리고 사방으로 도망하였다. 침략군의 총지휘자인 법왕의 사절은 공포감에 눌려 흩어진 군사들을 모으고자 애를 썼지만 헛수고였다. 그는 온갖 노력을 다 하였지만 마침내 그 자신도 도망하는 무리들에게 휩쓸려가고 있었다. 침략군은 완전히 패배당하였고, 막대한 전리품이 다시 승리자의 손에 들어갔다.

이리하여 유럽의 가장 강력한 나라들로부터 파견된 용감하고 호전적이며, 전쟁을 위하여 훈련받고 무장한 무리로 이루어진 두 번째의 대군은 한 번 싸워 보지도 못한 채 한 연약한 국민으로 편성된 소수의 방위군 앞에서 궤멸되고 말았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침략군은 초자연적인 공포감에 사로잡혔던 것이다.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를 궤멸시키고 기드온과 삼백 명의 용사 앞에서 미디안 군대를 도망하게 하시며, 하룻밤 사이에 교만한 앗시리아 군대를 쳐부수신 하나님께서 억압자의 세력을 꺾으시기 위하여 당신의 손을 다시 한 번 펴셨던 것이었다.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하여 진 친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신 고로 네가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였도다" (시 53:5).

법왕교의 지도자들은 무력으로 정복하는 일을 단념하고, 드디어 권모술수 (權謀術數) 를 쓰게 되었다. 표면으로는 보헤미아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허락하노라고 공언하면서 실지로는

그들을 로마의 권력에 넘겨주는 타협책을 쓰게 되었다. 보헤미아 사람들은 로마와 화해하는 조건으로 다음의 네 가지 점을 분명히 밝혔다. 성경을 강론하는 자유, 모든 교인들이 성만찬 예식에 참석하여 떡과 포도즙을 나눌 수 있고 예배 시간에 각각 자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성직자가 모든 세속적인 직위와 권력에서 제외되는 일,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법정의 사법권이 성직자나 일반인을 막론하고 동일하게 취급하는 일 등이었다. 드디어 법왕측은 "후스의 신봉자들이 제출한 네 가지 조건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그 조문의 명확한 의미를 결정하는 해석권은 종교 회의 즉 법왕과 황제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Wylie, b1, ch18). 이러한 조건 아래 조약은 맺어지고, 로마는 투쟁으로 얻지 못한 것을 허위와 사기로 얻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후스의 신봉자들이 제시한 조건들에 대하여서도 성경에 대해서 그러했던 것처럼 저들이 독자적인 해석을 내림으로써 그들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그 조문들의 의미를 왜곡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부분의 보헤미아인들은 그 조약이 그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그것에 동의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불화와 분열이 생기고 나중에는 투쟁과 유혈 사태까지 빚어졌다. 이 내란으로 인하여 고상한 프로코피우스 장군은 죽고, 보헤미아인의 자유는 없어졌다. 후스와 제롬을 배반한 시기스문트가 보헤미아의 왕이 되었으며, 그는 보헤미아인의 권리를 옹호하겠노라고 한 자신의 서약에도 불구하고 법왕권의 확립에 진력하였다. 그러나 그가 로마를 추종하므로 얻은 것은 별로 없었다. 20 년간의 그의 생애는 수고와 위험으로 충만하였다. 오랫동안의 쓸데없는 전투로 그의 군대는 쇠잔하여졌고, 그의 재물은 고갈되었다. 그는 1 년을 통치한 후에 국가를 내란 일보 직전에 버려둔 채 불명예로 낙인찍힌 이름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면서 죽었다. 소란과 쟁투와 유혈 사태가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외국의 군대가 다시 보헤미아에 침입하였고, 국내의 내분 (內紛) 은 계속적으로 나라를 혼란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형편에서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충성한 사람들은 지독한 박해를 당하였다.

그들의 옛날의 형제들이 로마교와 조약을 맺어 그 오류의 영향을 받고 있을 때, 초기의 신앙을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은 "연합된 형제들"이라는 이름으로 특수한 교회를 조직하였다. 이로 인하여 그들은 각층 사람들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그러나 그들의 확고한 태도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산림과 동굴 속에서 피난처를 찾을 수밖에 없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기 위하여 함께 모였다. 그들은 비밀리에 여러 나라에 사람들을 파견하여 여기저기에 진리를 아는 자가 있는 것과, 그들은 비록 소수이지만 여러 읍과 촌에 흩어져 있으면서 그들처럼 박해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것과, 또한 알프스 산 중에는 성경을 기초로 하여 세워진 교회가 있으며 그 곳에서 우상 숭배로 부패된 로마를 대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Wylie, b1, ch19). 이러한 정보는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으며, 그들은 왈덴스인들과 교통하게 되었다.

보헤미아인들은 복음을 굳게 지키면서 박해의 어두운 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그들은 가장 어두운 시간에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멀리 지평선 저쪽을 주목하여 보았다. "그들은 실로 어려운 시대에 살았다. ...그러나 그들은 후스에게서 처음으로 듣고, 제롬에게서 다시 반복하여 들은 말, 곧 새벽이 오려면 한 백년은 지나야 한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그 말은 후스의 신봉자들에게 있어서 마치 애굽에 속박되어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요셉의 유언, 곧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사 허락하신 땅에 돌아가게 하시리라'고 한 유언과 같았다" (Wylie, b1, ch19). "15 세기 말엽이 되자 '연합된 형제들'의 교회는 더디기는 하였으나 확실히 발전하였다. 그들은 고난을 면한 것은 아니었으나 비교적 평화를 누렸다. 16 세기 초엽에는 보헤미아와 모라비아에 그들의 교회가 약 200 곳 정도 있었다" (Ezra Hall Gillett, Life and Times of John Huss, vol1, p170). "그러므로 불과 검의 멸망과 분노에서 벗어난 남은 자로서 후스가 예언한 그대로 새벽을 맞이한 사람들은 상당히 많았다" (Wylie, b1, ch19).

7 장 — 혁명이 시작된다.

법왕교의 암흑에서 교회를 순수한 신앙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선봉에 섰던 사람은 마틴 루터 (Martin Luther) 였다. 그는 열성 있고 경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성경 이외에는 아무것도 신앙의 기초로 삼지 아니한 그 당시의 시대적 인물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교회의 개혁과 세상의 계몽을 위한 위대한 사업을 성취시키셨다.

초창기의 복음 사자들처럼 루터는 빈궁한 계층에서 태어났다. 그는 유년 시대를 독일의 한 빈천한 노동자의 가정에서 보냈다. 광부인 그의 아버지는 매일 고된 노동으로 그의 교육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루터를 법률가로 만들 생각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지나간 여러 세기 동안에 지연되고 있는 위대한 성전을 세우는 건축자로 삼고자 계획하셨다. 그리하여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먼저 고난과 궁핍과 엄격한 훈련을 통하여 루터로 하여금 그의 평생의 중대한 사업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셨다. 루터의 아버지는 강직하고 적극적인 마음과 훌륭한 품성을 지니고 정직하고 과단성 있고 솔직한 사람이었다. 그는 책임감이 강하였으므로 결과의 여하를 막론하고 자기의 소신을 관철시키는 사람이었다. 그는 건전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승원 제도 (僧院制度) 를 불신하게 되었다. 루터가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승원에 들어가게 되자 그는 매우 언짢게 생각하였다. 그 후 이태가 지나서야 부자간에 화해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의 의견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

루터의 부모는 자녀들의 교육에 대하여 매우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리스도인의 덕성을 길러 주기에 힘썼다. 자주 그의 아버지는 루터가 듣는 데서 자기의 아들이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장차 진리를 전파하는 사업에 유용한 인물이 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드렸다. 그 부모는 자녀들의 도덕적·지적 발달을 위하여서는 어떠한 고생도 달게 받았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경건하고 유용한 생애를 준비시켜 주기 위하여 열렬히 그리고 꾸준히 노력하였다. 그 부모는 확고하고 강직한 품성 때문에 때때로 너무나 가혹한 면을 드러냈다. 그러나 루터는 그 부모의 잘못을 개의치 아니하고 이러한 훈계에 대하여 불평하기보다는 달게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였다.

루터는 어린 시절에 다니던 학교에서 매우 엄격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난폭하다고 할 만한 취급을 받았다. 집안이 너무 가난하였으므로 이웃 마을에 있는 학교에 다니면서 한 때는 집집을 찾아다니며 노래를 불러 주고 음식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굶기도 하였다. 당시에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음침하고 미신적인 종교 관념 때문에 그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차 있었다. 그는 슬픔으로 밤을 지내고, 암담한 장래에 대하여 공포를 느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인자하신

아버지라기보다는 냉혹하고 무정한 심판관이나 잔학하고 무자비한 폭군과 같이 생각되었다. 루터는 여러 가지로 극심한 실망을 당하면서도 그 마음에 매력을 주고 있는 지적, 도덕적 두 가지 면의 높은 표준을 향하여 달려 나아갔다. 그는 지식을 갈망하고 있었다. 열성적이고 실제적인 그의 마음은 외형적이거나 천박한 것보다는 검소하고 실속 있는 것을 좋아하였다.

그가 18 세에 에르푸르트 대학에 입학하였을 때 그의 처지는 비교적 순탄하고 유년 시절보다는 훨씬 유리했으며 그의 미래의 전망은 더 밝았다. 그의 부모는 근검절약하여 상당한 재산을 모았으므로 그에게 필요한 것을 대어 주기에 지장이 없었다. 그리고 한편으로 좋은 동무들의 감화로 그는 일찍이 받은 교육의 음울한 감화를 어느 정도 경감시킬 수 있었다. 그는 또한 일류대가 (一流大家) 들의 저서들을 연구하는 일에 몰두하였으며, 그들의 가장 중요한 사상들을 모았으며 현인들의 지혜를 그의 것으로 만들었다. 유년 시대의 교사들로부터 엄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신뢰할 만한 우수한 인물로 자라갔고, 좋은 상태에 놓여 있는 그의 정신은 신속히 발달하였다. 그리고 그에게는 강한 기억력, 투철한 상상력, 명확한 판단력, 지칠 줄 모르는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곧 학우 가운데서 수위 (首位) 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의 지적 훈련은 그의 이해력을 발달시켜 주었고 그의 생애의 투쟁을 위하여 그를 준비시키고 있었던 정신력과 예민한 지각을 일깨워 주었다.

루터의 마음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각은 그로 하여금 확고한 목적을 갖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였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의 필요를 느끼고, 매일 기도로써 일을 시작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지도와 도우심을 간구하였다. 그는 자주 "기도를 잘하는 것은 공부의 반 이상을 한 것이다" (D'Aubigne, b1, ch1) 고 말하였다. 어느 날 루터는 대학 도서관에서 서적을 조사하다가 라틴어 성경을 발견하였다. 그는 이러한 책을 본 적도 없었고, 그런 책이 있는 것도 알지 못하였다. 그는 예배 시간에 회중에게 복음서와 편지서의 일부를 읽어 주는 것을 들어왔는데, 그것이 성경의 전부인 줄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이때에 처음으로 그는 성경의 전부를 보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두렵고 놀라운 마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맥박이 빨라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읽어 가다가는 때때로 멈추고서 "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책을 주셨으면!" (D'Aubigne, b1, ch1) 하고 부르짖었다. 하늘 천사들이 그의 곁에 있었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비치는 빛이 진리의 보배를 그에게 알려 주었다. 그는 지금껏 하나님께 불쾌히 여김을 받고 있지나 않은지 두려워하고 있었으나 이번처럼 죄인으로서의 자신의 상태를 깊이 깨달은 적은 없었다.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자 열렬히 소원한 나머지 그는 마침내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자의 생활에 전념하였다. 수도원에서는 그에게 극히 비천한 일이 맡겨졌으며 문전걸식을 요구받았다. 그는 이미 자존심이 강한 연령에 달하였으므로 그처럼

비천한 일은 그의 타고난 감정에 심한 굴욕감을 주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죄를 위해서는 이러한 일도 필요한 것이라고 믿고 이러한 굴욕을 견뎠다.

그는 조그만 틈이라도 있으면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으며, 잠자는 시간과 식사하는 시간까지도 매우 아끼었다. 그는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데서 기쁨을 누렸다. 그는 성경 한 권이 수도원 한 쪽 벽 쇠사슬에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주 그 곳으로 나아갔다. 또한 죄에 대한 자각이 더욱 깊어짐에 따라 그는 자기의 행위로 용서와 평안을 얻고자 애썼다. 그는 가장 엄격한 생활을 하고, 금식과 철야를 하고, 모든 악한 성격을 극복하려고 자기 자신을 채찍으로 때려 보았으나, 이러한 수도원 생활이 그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지 못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의 순결을 얻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도 겁내지 아니하였다. 후일에 그는 당시의 일을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다. "실로 나는 경건한 수도승이었다. 나는 지금 내가 입으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엄격한 규칙들을 지켰다. 만일 수도승이 이러한 수도로써 천국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나는 분명히 그러한 자격을 얻었을 것이다. 그 일을 조금 더 계속 하였다면, 나는 반드시 고행의 결과로 죽고 말았을 것이다" (D'Au-bigne, b1, ch1). 이러한 고통스러운 훈련의 결과로 그는 기력을 잃고, 경련으로 고생하게 되었는데 후일에 가서도 그 상태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였다. 그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의 짐은 조금도 경감되지 않았다. 그는 마침내 절망 직전에 이르렀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친구인 한 사람의 조력자를 그에게 보내 주셨다. 경건한 슈타우피츠 (Staupitz) 는 루터에게 성경 말씀을 보여 주며, 자기 자신을 보지 말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므로 받는 영원한 형벌을 생각지 말고, 오직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였다. "그대의 죄로 인하여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대신에 구주의 팔에 그대 자신을 맡기라.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의 생애에 나타난 의와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속죄를 신뢰하라.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들으라.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그대에게 보증해 주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다", "그대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분을 사랑하라" (D'Aubigne, b1, ch1) 고 긍휼의 사자는 말하였다. 그의 말은 루터의 마음에 깊은 감명을 주었다. 오랫동안 오류에 붙잡혀서 투쟁하고 있던 그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번민하던 그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다.

루터는 신부로 임명되어 수도원에서 나와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로 부름을 입었다. 그는 여기서 원어 (原語) 로 된 성경을 연구하였다. 그는 성경의 강의를 시작하였다. 시편과 복음서와 편지서들에 관한 공개 강의를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듣고 깨닫게 되었다. 그의 친구요 수도원장인 스타우피츠는 그에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권유하였다. 그러나 루터는 자기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백성을 가르칠 자격이 없음을 자각하고, 그 일을 주저하였다. 그는 오랫동안 고심한 끝에 그 친구들의 간청을 받아들였다. 그는 이미 성경 지식에

능한 사람이 되어 있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임해 있었다. 그의 웅변은 청중들을 사로잡았다. 그는 진리를 아주 명료하고 힘 있게 제시하였으므로 듣는 자에게 확신을 주었으며, 또 그의 열정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그러나 루터는 여전히 법왕 교회의 참된 아들이었으며, 그는 그 외에 다른 생각을 조금도 가지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로 로마를 방문하게 되었다. 그는 도보로 여행하면서 도중에 있는 수도원들에서 숙박하였다. 이탈리아에 있는 한 수도원에서 그는 너무나 부요하고 화려하고 사치한 것을 목격하고 심히 놀랐다. 그 승려들은 마치 왕후 (王侯) 들과 같은 수입으로 화려한 집에 살고, 매우 값진 의복을 입고, 진수성찬을 먹었다. 루터는 괴로울 정도로 불안한 마음으로 그 광경들을 자기의 사생활의 극기와 고난과 대조하여 보았다. 그의 마음은 번민하기 시작하였다.

드디어 그는 멀리 일곱 멧부리의 도성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 때 깊은 감동을 받고 땅에 엎드려서 “거룩한 성 로마여! 나는 네게 경의를 표하노라” (D’Aubigne, b1, ch1) 고 부르짖었다. 그는 로마 도성으로 들어가서 여러 교회를 방문하고, 신부와 승려들이 늘어놓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온갖 의식을 행하였다. 보는 것마다 그에게 놀라움과 두려움을 주지 않는 것이 없었다. 그는 각 계급의 승려들 가운데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주교의 입에서까지 야비한 농담을 듣게 되었고, 무서운 불경, 심지어 미사를 드리는 때에도 그런 일이 나타남을 보고 오직 전율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승려와 시민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그들이 방탕하고 주색에 빠져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는 신성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까지 감행되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로마에서 감행되는 모든 죄악과 파렴치한 행동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다. 그것은 실제로 가서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세상에 지옥이라는 것이 있다면 로마는 필시 그 위에 건설되었을 것이다. 그 곳은 온갖 죄악이 생겨나는 무한 지옥이다’는 말까지 있는 것이다” (D’Aubigne, b1, ch1). 당시에 법왕의 한 교령이 반포되었는데, 그것은 소위 빌라도의 층계라는 것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자는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그 층계는 예수께서 로마인의 재판정을 나오실 때에 내려오신 층계로서 그것이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옮겨오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루터는 경건한 마음으로 그 층계를 하나씩 하나씩 오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롬 1:17) 는 말씀이 우레처럼 들리는 듯하였다. 그는 두렵고 부끄러운 생각이 나서 급히 그 곳에서 일어나서 나왔다. 그 성경 구절이 그의 심령에 주는 능력은 결코 소멸되지 않았다. 그 때부터 그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사람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과 그리스도의 공로를 항상 믿어야 할 필요성을 과거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히 깨달았다. 그의 눈은 열린 바 되었으며, 다시는 법왕교의 미혹으로 가려지지 아니할 것이었다. 그가

로마에서 얼굴을 돌리게 되자, 그의 마음도 또한 로마에서 떠났다. 그 후로 로마와의 간격은 점점 벌어져서 마침내 법왕 교회와 모든 관계를 끊어 버렸다.

로마에서 귀국한 후에 루터는 비텐베르크 (Wit-tenberg) 대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제 그는 과거 어느 때보다 그가 사랑하는 성경 연구에 더욱 몰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법왕의 교리와 그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동안 주의 깊이 연구하고 충성스럽게 전파하기로 엄숙히 맹세하였다. 그 후로 그는 단순한 승려나 교수가 아니라 공인된 성경의 전도자가 되었다. 그는 진리를 찾고자 주리고 목말라하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는 단연히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권위에 기초되지 않은 어떤 교리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확고하게 언명하였다. 이 말은 바로 법왕의 최상권의 기초를 공격하였다. 이 말 속에 종교개혁의 근본 원칙이 포함되어 있었다. 루터는 사람의 이론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욱 존중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두려움 없이 학자들의 사변적 무신론 (思辨的 無神論) 을 공격하고,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여 지배해 온 철학과 신학에 반대하였다. 그는 이와 같은 연구에 몰두하는 것이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해가 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청중들의 마음을 철학자나 신학자의 궤변에서 돌이켜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말한 영원한 진리로 돌아오게 하고자 노력하였다. 그가 증거한 기별은 그의 말을 열심으로 듣는 무리에게 귀중한 것이었다. 그들은 이전에 이러한 가르침을 받은 일이 결코 없었다. 구주의 사랑에 관한 기쁜 소식, 그분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사유와 평안을 얻게 된다는 보증은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불멸의 소망을 고무시켜 주었다. 온 세계를 두루 비추어 줄 광명한 빛이 비텐베르크에서 밝혀졌으며 이 빛은 말세가 될수록 더욱 밝게 빛날 것이었다.

그러나 암흑과 광명은 조화될 수 없다. 진리와 오류 사이에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다. 그 중의 하나를 지지하고 옹호하기 위하여서는 다른 하나를 공격하고 넘어뜨려야 한다. 우리 구주께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마 10:34) 고 친히 말씀하셨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얼마 후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앞으로 나가도록 떠미신다. 그분께서는 나로 하여금 넋을 잃게 하신다. 나는 나 자신의 주인이 아니다. 나는 평안히 살기를 갈망하지만 소동과 개혁의 와중에 던져져 있다" (D'Aubigne, b1, ch1). 그는 이 때 투쟁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도록 강요당하고 있었다.

로마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품으로 삼았다. 소위 환전대 (換錢臺) 라는 것이 제단 곁에 생기고 거기서 매매하는 자들의 떠드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교회당의 건축 자금을 모금한다는 명목 아래 면죄부가 법왕의 권위에 의하여 공공연하게 발매되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당이 죄의 값으로 건설되고, 그 모퉁이의 주춧돌이 불의의 값으로 놓이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로마의 세력 확장을 위하여 취하여진 이와 같은 수단들이

오히려 그 세력과 영광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져다주는 큰 원인이 되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가장 결정적이고 성공적인 법왕교의 원수들이 일어나서 법왕의 보좌를 흔들고, 그 머리 위에 있는 삼층 면류관을 요동하게 하는 투쟁을 일으켰다.

독일에서 면죄부를 팔도록 택함을 받은 테첼 (Tetze1) 이라는 사람은 사회적으로나 하나님의 율법상으로 볼 때 가장 누추한 죄를 범한 사람이었다. 그는 당연히 자기의 죄에 따라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었으나 법왕의 재정을 확보해 주고 그의 무모한 계획을 성취시킬 자로 선택되어 형벌을 면하게 되었다. 그는 파렴치하게도 전혀 근거 없는 말을 하며, 무지하고 어리석고 미신적인 백성들에게 기괴하고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렇게 속지 않았을 것이다. 성경은 당시에 야심적인 로마 지도자들의 권세와 재물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법왕권의 통제 아래 사장 (死藏) 되어 있었고, 그들이 가지도록 용납되지 않았다 (John C.Gieseler, A Compendium of Ecclesiastical History, per1, sec1, par1 참조).

테첼이 성에 도착하자 그보다 먼저 간 한 사자는 “하나님과 성부의 은혜가 너희 문에 있을지어다” (D’Aubigne, b1, ch1) 고 선포하였다. 사람들은 참람된 그 사기꾼을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을 친히 맞이하는 것처럼 환영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가증한 매매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 테첼은 강단에 올라가 사죄권을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선물이라고 격찬하였다. 그는 그 사죄권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사는 자에게는 그 후에 범하는 죄까지도 회개할 필요 없이 사유된다고 주장하였다 (D’Aubigne, b1, ch1).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청중들에게 “이 사죄권은 현재 살아 있는 자뿐 아니라 이미 죽은 자도 구원할 효능이 있으며, 돈이 궤 밑에 떨어져 소리를 내는 그 즉시 위하여 속전을 낸 그 사람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된다”고 보증하였다 (K.R.Hagenbach, History of the Reformation, vol, p16.참조).

마술사 시몬이 돈으로 사도들에게서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사려고 할 때, 베드로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행 8:20) 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테첼의 선물을 많은 열성적인 무리들이 사게 되었다. 금과 은은 그의 금고로 흘러 들어갔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구원은 회개와 믿음과 죄를 대항하여 싸우는 끈덕진 노력으로 얻는 구원보다 더욱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 면죄부의 교리는 로마교 안에 있는 경건하고 학식 있는 사람들로부터 반대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성 (理性) 과 계시 (啓示), 어느 편으로 보나 크게 배치되는 그와 같은 주장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어떤 주교도 그 부정한 매매에 대하여 반대하는 말을 감히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혼란하고 불안해 가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무슨 방법을 쓰시지는 아니하실지 물었다.

루터는 여전히 법왕교의 충실한 한 사람이었으나 사죄권 발매자의 망령되고 참람된 행위를 보게 되자 전율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시무하는 교회의 신자들 가운데도 사죄권을 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들은 루터에게 와서 여러 가지 죄를 고백하고 사면을 구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생애로 들어가려는 희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면죄부를 샀으므로 면죄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루터는 단연히 이를 물리치고 그들이 회개하여 생애의 변화를 일으키지 아니하면 그 죄로 인하여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였다. 난처한 지경에 빠진 그들은 테첼에게로 가서 그들의 참회 청문승 (懺悔聽聞僧) 인 루터가 그들의 고백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돈을 도로 돌려 달라고 담대히 요구하였다. 그러자 그 승려는 격노하였다. 그는 가장 무서운 저주를 하고, 거리 모퉁이에 불을 피우고, "나는 이 신성한 면죄부를 반대하는 모든 이단자를 화형에 처하라는 명령을 법왕으로부터 받았다"고 소리질렀다 (D'Aubigne, b1, ch1).

이제 루터는 진리의 투사로서 자기의 사업에 담대히 착수하였다. 그는 강단에서 소리 높여 열렬하고도 엄숙하게 경고하였다. 그는 청중에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임을 밝혀 주는 동시에 사람이 자력으로 죄악을 추호라도 경감시키거나 제거할 수 없고, 그 형벌을 면할 수도 없다고 가르쳤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 밖에는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없고 다만 값없이 받는 선물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사죄권을 사지 말고 믿음으로 십자가의 구주를 쳐다보라고 권면하였다. 그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굴욕과 고난으로 헛되이 노력한 자기의 쓰라린 경험을 말하고, 자신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으므로 평안과 기쁨을 얻었다는 사실을 청중들에게 보증하였다. 테첼이 속죄부의 매매와 불경한 언동을 계속하고 있었으므로, 루터는 거기에 대하여 한층 더 효과적인 항의 (抗議) 를 하려고 결심하였다. 마침 기회가 왔다. 비텐베르크 성 교회에는 여러 가지 유물들이 보관되어 있었으며, 특정한 축제일들에는 그것들을 일반에게 공개하였다. 그리고 그날에 교회에 와서 참회하는 자는 죄의 용서를 완전히 받은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그 축일에는 수많은 사람이 그 곳으로 모여들었다. 때마침 그 축제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성제 (諸聖祭) 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 전날에 루터는 회당으로 모여드는 군중들과 함께 가서 면죄부의 교리에 항의하는 95 개조의 논제를 기록한 종이를 그 성전의 출입문에 붙여 놓았다. 그리고 그는 그 논제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튿날 대학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노라고 발표하였다.

그의 논제는 일반의 주의를 끌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읽고 또 읽은 다음에 그것을 사방에 전하였다. 대학 안에와 온 성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 이 논제로 말미암아 죄를 사유해 주고 죄의 형벌을 면하게 해주는 권세가 법왕이나 어떤 다른 사람에게도 위임된 적이 결코 없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그러한 계획은 미신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여 금전을

사취하려는 사기적 술책, 곧 사단이 그 거짓된 일을 의뢰하는 모든 자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취한 수단에 불과하였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교회 안에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보배이며,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은 믿음과 회개로써 그것을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이 또한 분명히 밝혀졌다. 루터의 논제는 토론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도 거기에 응하는 자가 없었다. 그가 제시한 문제들은 수일 내에 온 독일에 퍼지고, 몇 주일 안에 각 그리스도교국들에 전파되었다. 교회 안에서 퍼져가고 있는 무서운 죄악을 보고 탄식하면서도 그 기세를 꺾을 방법을 알지 못하던 많은 경건한 로마교도들은 큰 기쁨으로 이 논제들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속에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들은 법왕청에서 흘러나오는 타락의 조류를 막기 위하여 주님께서 자비하게도 당신의 손을 펴시는 줄로 알았다. 왕후 (王侯) 들과 지방 장관들은 한 번 결정한 일이면 아무도 탄원할 수 없는 그 교만한 권력을 쳐부수게 된 것을 속으로 은근히 기뻐하였다.

그러나 죄를 사랑하는 미신적인 사람들은 자기들의 두려움을 진정시켜주던 궤변이 사라져 버렸으므로 놀랐다. 범죄를 인가해 주는 그들의 사업이 방해를 받고, 그들의 이득에 위협을 느끼게 된 교활한 승려들은 격분하였으며,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결속하였다. 이에 개혁자는 혹독한 무고 (誣告) 를 당하게 되었다. 어떤 자들은 그가 충동으로 조급한 행동을 하였다고 비난하였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를 참람된 자라고 욕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고 건방진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루터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사람이 어떤 새 의견을 주장하게 될 때 교만해 보이지 않거나 싸움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그런 일을 한 경우가 드물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는가? 그리스도와 모든 순교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은 그 당시의 지혜를 멸시하는 교만한 사람들처럼 보였던 연고이며, 그들이 옛날부터 전해 오는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갔던 까닭이다.”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판단력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할 것이다. 만일 그 일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면 누가 그것을 방해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누가 능히 그 일을 진전시킬 수 있겠는가? 이것은 내 뜻이 아니요 그들의 뜻도 아니며 또 우리의 뜻도 아니요,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바로 당신의 뜻이니이다” (D’Aubigne, b1, ch1). 루터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일을 시작하였으나, 그 사업을 전진시키려면 무서운 투쟁을 면할 수 없었다. 원수들의 비난과 그의 목적에 대한 그들의 오해와 그의 동기와 인격에 대한 신랄하고 온당치 않은 비난 등이 거센 홍수처럼 엄습해 왔다. 그는 교회와 학교 안에 있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즐거이 개혁 사업에 참여하고 그와 연합해 줄 것을 굳게 믿었다. 그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격려의 말을 듣고, 기쁨과 희망으로 고무되었다. 그는 이미 선견지명을 가지고 교회 안에 더욱 광명한 새벽이 밝아 오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격려가 비난과 정죄로 돌변하였다. 정부와 교회의 많은 고관들은 그의 이론의 정당성을 확신하였으나, 그 진리들을 승인하게 되면 미구에 큰 변혁이 초래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백성들이 계몽되어 개혁을 일으키게 되면, 사실상 로마의 권위를 해치고, 그 금고로 흘러 들어가는 무수한 보화의 물줄기를 멈추게 하여 법왕교의 지도자들의 낭비와 사치를 크게 줄어지게 할 것이었다. 그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을 제각기 분별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가르쳐서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쳐다보게 한다면, 법왕의 보좌는 전복되고, 필경에는 그들 자신들의 권위도 상실될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몽시키기 위하여 보낸 사람을 반대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진리를 다같이 배반하는 행동을 취하였다.

루터는 자기 자신, 곧 지상의 가장 큰 세력을 대항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전율하였다. 어떤 때에는 그가 과연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서 법왕교의 권위에 대항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기도 하였다. 그는 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지상의 군왕들과 온 세계가 두려워하고 떠는 법왕권을 대항하여 일어선 나는 대체 무엇이냐! 처음 2 년간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의 고민을 하였으며 실망과 낙담을 겪었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 (D'Aubigne, b1, ch1). 그러나 그는 완전히 실망하도록 버려지지 아니하였다. 그는 사람의 도움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만을 앙망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 때에 절대로 안전하다는 것을 배웠다.

개혁 사업을 후원하는 한 친구에게 루터는 다음과 같이 편지하였다. "우리는 연구와 지력 (智力) 으로 성경을 깨달을 수 없다. 그대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이다. 하나님께서 크신 자비를 그대에게 허락하셔서 그대가 성경의 참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간구하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이신 하나님 외에는 그분의 말씀을 해석할 자가 없다. 자기의 이해력 (理解力) 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성령의 감화력만 의지하기 바란다. 그리고 그 사실을 체험하고 있는 한 사람의 말을 믿어라" (D'Aubigne, b1, ch1). 여기에는 이 시대를 위한 엄숙한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 이러한 진리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전설이나 이야기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단의 적개심을 일으킬 것이다. 악의 세력과 투쟁할 때는 사람의 지력 (智力) 과 지혜 이상의 무엇이 있어야 한다.

원수들이 관례나 유전이나 법왕의 권위나 주장을 가지고 대항해 올 때, 루터는 성경, 오직 성경으로써 그것들을 대항하였다. 성경에는 그들이 대답할 수 없는 논증이 있었다. 그러므로 형식과 미신의 종이 된 그들은 마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달라고 소동했던 것처럼 루터의 피를 달라고 소동하였다. 로마교의 열성분자들은 "그는 이단자이다"라고 부르짖었다.

“그와 같이 무서운 이단자를 잠시라도 살려두는 것은 교회에 대한 큰 반역이다. 그를 죽일 교수대를 세우자” (D’Aubigne, b1, ch1). 그러나 루터는 그들의 분노의 제물이 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하실 일이 아직 있었으므로 그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셨다. 그러나 루터로부터 귀중한 빛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사단의 분노의 표적이 되어 진리를 위하여 담대히 고문과 죽임을 당하였다.

루터의 가르침은 온 독일 안에 있는 지각 있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다. 그의 설교와 저서에서 무수한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깨우치는 빛의 광선이 나왔다. 산 믿음이 매우 오랫동안 교회가 고수해 온 죽은 형식주의를 대신하게 되었다. 백성들은 날마다 로마교의 미신에 대한 확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편견의 장벽은 제거되어 갔다. 루터가 모든 교리와 주장을 시험하는 데 사용해 온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처럼 백성들의 마음속을 뚫고 들어가고 있었다. 도처에서 영적 향상에 대한 갈망이 일깨워지고 있었다. 전에 없던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이 도처에서 일어났다. 오랫동안 인간의 의식 (儀式) 과 지상 (地上) 의 중보자들만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의 눈이 이제는 회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바라보게 되었다. 이처럼 일반 사람들의 관심이 퍼져감에 따라 법왕의 권력은 한층 더 위협을 받게 되었다. 루터는 이단을 주장하는 자라는 고소에 답변하기 위하여 로마로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명령은 그의 친구들에게 공포감을 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이미 취한 타락한 로마에 루터를 보내는 것은 그를 위험 속에 빠뜨리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들은 루터가 로마에 가는 것을 반대하고, 그가 독일에서 심문을 받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주선은 마침내 효력을 거두게 되어 법왕의 사절이 그 소송을 심리하게 되었다. 법왕이 그 사절에게 전달한 내용에 의하면, 이미 루터는 이단자로 선고를 받고 있다. 그러므로 법왕의 사절에게는 “지체하지 않고 구형할 의무”가 주어져 있었다. 그런데 만일 그가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고 법왕의 사절이 그를 체포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절은 “독일 전국에서 그의 인권을 박탈하고, 그를 추방하고, 저주하며, 그에게 동조한 모든 사람들을 파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附與) 받고 있었다” (D’Aubigne, b1, ch1). 그뿐만 아니라 법왕은 그의 사절에게 그 지독한 이단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하여 황제 이외에는 국가와 교회의 어떤 고관이든지 간에 루터와 그의 지지자들을 체포하여 로마의 복수의 손에 넘겨주는 일을 등한히 하는 자는 모두 파문하라고 지시하였다.

여기에 로마교의 참 정신이 나타났다. 그 문서 전부를 볼 때 거기는 그리스도인의 원칙은 고사하고 통속적인 정의 (正義) 의 흔적조차도 찾아볼 수 없다. 루터는 로마에서 매우 먼 곳에 있었으므로 그는 자기의 입장을 설명하거나 변호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더욱이 소송에 대하여 심문도 받기 전에 즉결 처분으로 그는 이단자라는 선고를 받았고, 그 같은 날에 권고와 고소 (告訴) 와 심판과 판결을 받게 되었다. 이 모든 일이 소위 나라와 교회의 유일한 최고의

절대 권위자요 거룩한 아버지로 자처하는 자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루터에게 진실한 친구의 동정과 조언이 가장 필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로써 멜란히톤 (Melanchthon) 을 비텐베르크로 보내셨다. 나이가 젊지만 겸손하고 내성적인 멜란히톤은 건전한 판단력과 해박한 지식과 매력적인 웅변과 순결하고 고상한 인격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일반의 칭송과 존경을 받았다. 그의 부드러운 성격은 그의 뛰어난 재능보다 더욱 훌륭하였다. 곧 그는 열렬한 복음의 사도가 되고, 루터의 가장 신임 받는 친구가 되고, 그의 귀중한 동지가 되었다. 그의 온유하고 신중하고 조심성 있는 성질은 과감하고 용감한 루터의 성질을 보완해 주기에 충분하였다. 이 두 사람이 연합하므로 개혁 사업은 한층 더 보강되었고 이것이 루터에게 큰 용기의 근원이 되었다.

심문 장소가 아우크스부르크 (Augsburg) 로 지정되었으므로 루터는 도보로 그 곳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두려운 위험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도중에서 그를 체포하여 살해하리라는 풍문까지 돌았으므로 그의 친구들은 이와 같은 위험한 모험을 하지 못하도록 그에게 간청하였다. 그들은 그로 하여금 잠시 동안 비텐베르크를 떠나서 그를 기꺼이 영접하여 보호해 줄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피하라고까지 하였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지정해주신 그 자리에서 떠나가고자 하지 않았다. 어떠한 폭풍이 그에게 불어올지라도 그는 진리를 고수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충성해야 했다. 그는 말하였다. “나는 예레미야 같이 투쟁과 싸움의 사람이다. 그들의 협박이 더하면 더할수록 나의 기쁨도 증가될 것이다. 그들은 이미 나의 명예와 명망을 꺾어 버렸다. 한 가지 남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가련한 나의 육체뿐이다. 이것마저 빼앗아 간다 해도 두렵지 않다. 그들은 내 생명을 불과 몇 시간으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영혼만은 그들이 빼앗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이든지 죽음을 각오하여야 한다” (D’Aubigne, b1, ch1).

루터가 아우크스부르크에 도착하였다는 소식은 법왕의 사절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패역무도한 이단자가 이제 로마의 권세 아래 들어온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므로 법왕의 사절은 그를 놓치지 않겠다고 결심하였다. 개혁자는 통행권을 가지지 않고 왔다. 그의 친구들은 그것이 없이 법왕의 사절 앞에 나타나지 말도록 간청하는 한편 그들 자신이 황제로부터 그것을 얻고자 교섭하였다. 법왕의 사절은 루터로 하여금 자신의 주장을 취소하게 하든지, 그것이 안 되면 그를 로마로 보내어 후스와 제롬이 당한 것과 똑같은 운명에 빠뜨리고자 계획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부하들을 시켜서 루터로 하여금 자기의 자비를 믿고 통행권 없이 출두하게 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개혁자는 그렇게 하는 일을 단연코 거절하였다. 그는 황제가 보호를 약속하는 문서를 주기까지 법왕의 사절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법왕 측에서는 루터를 설복시키기 위한 하나의 술책으로 부드러운 태도를 취하고자 작정하였다. 법왕의 사절은 그와 회견하면서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그는

루터에게 무조건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고 어떤 점에서든지 이론과 의문을 제기하지 말고 굴복하기를 요구하였다. 그는 자기가 취급하고 있는 사람의 성격을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루터는 교회에 대한 자기의 관심과 진리에 대한 욕망과 자기의 가르침에 대하여 제기하는 온갖 반대에 즐거이 답변할 마음과 어떤 특별한 대학에서 자기의 교리를 검토하겠다면 쾌히 응할 의사가 있다는 것 등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그는 오류에 대한 판명이 나기도 전에 신앙의 취소만을 요구하는 법왕의 사절의 태도에는 반대하였다.

법왕 측의 반응은 오로지 "취소하라, 취소하라"는 말뿐이었다. 루터는 자기의 주장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므로 진리를 부인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언명하였다. 루터의 이론에 대답할 수 없게 된 법왕의 사절은 비난과 욕설과 책망을 쏟아 놓음으로 위압하고, 교부 (敎父) 들의 말과 전설을 여기저기서 인용하여 늘어놓음으로써 루터에게 더 이상 말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 그런 상태로 회의를 계속하면 결국 헛수고만 하게 될 것을 안 루터는 드디어 그의 답변을 문서로써 제출하라는, 마지못한 허락을 받아냈다. 그는 한 친구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하였다. "그렇게 하므로 압박을 받는 자는 이중의 이익을 얻는다. 첫째는 그 기록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판단에 호소할 수 있고, 둘째는 자기의 교만한 말로 지나치게 위압적인 태도로 방자하게 함부로 말하는 폭군에게, 그 양심에는 호소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에게 공포감을 갖게 하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다" (Martyn, The Life and Times of Luther, pp171, 272). 그리고 둘째 번의 회견에서, 루터는 성경에서 인용한 많은 구절들로 이루어진 명료하고 간결하고 힘 있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설명문을 제출하였다. 그는 그것을 큰소리로 낭독한 후에 추기경에게 넘겨주었다. 그러자 그는 그것을 다만 쓸데없는 말을 기록한 불경하기 짝이 없는 인용구 (引用句) 의 수집에 불과한 것이라고 외치면서 멸시하는 태도로 내어던져 버렸다. 이에 루터는 담대히 일어나서 횡포 무례한 법왕 사절의 논법을 이용 (利用) 하여 전설과 교회의 구전 (口傳) 과 가르침을 여지없이 전복시켰다.

법왕의 사절은 루터의 변론에 도무지 대답할 수 없음을 알자, 자제력 (自制力) 을 잃고 맹렬한 불과같이 노하였다. "취소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로마로 보내겠다. 거기서 너는 너의 소송 사건을 담당한 재판관들 앞에 서야 한다. 나는 너와 너희 일당을 파문한다. 또 어떠한 경우에든지 너를 돕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교회에서 내어 쫓겠다"고 그는 부르짖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교활하고 분노한 음조로 "취소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다시 이곳에 돌아오지 말라" (D'Aubigne, London ed., b1, ch1) 고 단언하였다. 루터는 지체하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즉시 그 곳에서 퇴장함으로 취소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었다. 그것은 법왕의 사절이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일이었다. 그는 위협으로 루터에게 공포감을 줌으로 그를 굴복시킬 수 있으리라고 믿었었다. 그는 이제 자기의 지지자들과만 남게 되었으므로 둘러앉은 사람들을 차례로 돌아보며 자기의 계책이 뜻밖에 실패한 것을 분하게

생각하였다. 이때의 루터의 활약은 좋은 결과를 거두었다. 그 곳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을 비교해 보고, 그들이 나타낸 정신들을 스스로 판단해 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제시한 이론의 설득력과 진실성을 비교해 보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것들은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개혁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순하고, 겸손하고, 굳센 태도로 진리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법왕의 사절은 으스대며, 거만하고, 횡포하고, 비합리적인 태도로 한 구절의 성경 말씀도 인용하지 않은 채 화를 내면서 "취소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로마에 보내어 처벌하겠다"고 부르짖을 뿐이었다.

루터가 통행권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법왕당들은 그를 체포하여 투옥시킬 음모를 꾸몄다. 루터의 친구들은 그가 더 이상 체류하는 것이 무익한 일임을 알고 그에게 즉시 비텐베르크로 돌아갈 것과 그 계획에 대하여 비밀을 철저히 지키므로 남에게 눈치 채이지 않게 하도록 권유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지방 장관이 보내준 한 사람의 안내자를 따라 새벽에 말을 타고 아우크스부르크를 떠났다. 앞길에 가로놓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예상하면서, 고요하고 어두운 시가지를 몰래 빠져나왔다. 잔인한 원수들은 방심하지 않고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를 잡으려고 펴 놓은 함정을 그가 피해나갈 수 있을까? 진실로 이 때야말로 매우 염려되는 때요, 열렬한 기도가 필요한 때이었다. 그 도시의 성벽 (城壁) 에 있는 작은 문에 당도하였다. 문은 그에게 열리어지고, 그는 아무런 장애 없이 안내자와 함께 문밖으로 빠져나왔다. 일단 문밖으로 무사히 빠져 나오자 그들은 길을 재촉하였다. 그리하여 루터는 법왕의 사절이 그의 탈출을 알기 전에 박해자의 손이 미치지 못할 곳까지 가버렸다. 사단과 그의 부하들은 패배하였다. 그들의 손아귀에 잡혀 있는 줄로 생각했던 그 사람은 마치 한 마리의 새가 새 사냥꾼의 그물을 벗어나듯이 그들의 수중에서 벗어났다.

루터가 도망하였다는 소식을 듣자 법왕의 사절은 매우 놀라고 분개하였다. 그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를 처단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지혜와 단호한 결단력을 나타내므로 큰 명예를 얻을 것을 은근히 바라고 있었는데, 이제 그 희망이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작센 (Saxony) 의 선후 (選侯) 프리드리히 (Frederick) 에게 보내는 편지에 나타냈다. 그는 그 편지에서 루터를 신랄히 비난하고 프리드리히로 하여금 그를 로마로 보내든가 작센에서 추방하든가 해주기를 요구하였다. 루터는 자신의 주장을 변호하면서 법왕이나 법왕의 사절에게 성경상으로 자기의 오류 (誤謬) 를 지적해 주기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그는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잘못을 지적해 준다면 단연히 자기의 주장을 취소하겠노라고 가장 엄숙한 태도로 맹세하였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이처럼 거룩한 사업을 위하여 고난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헤아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 당시 선후 (選侯) 는 아직 개혁설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는 루터의 공정하고, 분명하고, 힘 있는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개혁자의 오류가 입증되지

않는 한, 프리드리히는 그의 옹호자가 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법왕의 사절에게 보내는 회답에서 다음과 같이 편지하였다. "'귀하는 아우크스부르크에서 마틴 박사와 회견하였으므로 만족하였음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귀하가 그의 오류를 확신시켜 주지 않고 신앙을 취소하게 하고자 노력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 마틴 박사의 교리가 불경하고, 비그리스도인적이며, 이단적이라고 말해 주는 이 나라의 학자들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선후는 루터를 로마로 보내거나 자기 나라에서 추방하기를 거절하였다" (D'Aubigne, b1, ch10).

선후 (選侯) 는 사회의 도덕적 억제력이 전체적으로 무너져 있는 것을 알았다. 위대한 개혁 사업이 필요하였다. 사람이 하나님의 요구와 계발된 양심의 명령을 인정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범죄를 억제하고 처벌하기 위하여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없을 것이었다. 그는 루터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 일하고 있음을 알고, 그 사업이 교회 안에 좋은 감화를 끼치고 있는 것을 은근히 기뻐하였다. 그는 또 루터가 대학 교수로서 놀랄 만한 공적을 남긴 사실을 알았다. 개혁자가 교회의 문에 그의 논제를 제시한 지 겨우 1 년밖에 되지 아니하였지만 제성제 (諸聖祭) 축제 때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수는 현저히 감소되었다. 로마의 예배자들과 연금 액수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그들의 자리는 비텐베르크를 찾아온 다른 계급의 사람들로 채워졌는데, 그들은 유물 예배 (遺物禮拜) 를 위하여 온 순례자들이 아니고, 대학의 교실을 채우는 학생들이었다. 루터의 저서는 각처에서 성경에 대한 새로운 흥미를 일으켜 주었으므로 독일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서까지 수많은 학생들이 몰려왔다. 비텐베르크를 처음으로 바라보는 청년들은 "손을 들고 마치 옛날에 시온에서 했던 것처럼 이 성에서 진리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까지 그 빛을 전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D'Aubigne, b1, ch10).

루터는 아직도 로마의 오류에서 부분적으로 돌아선 데 불과하였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성경을 법왕의 교서와 법전 (法典) 에 비교해 볼 때 그의 마음은 놀라움으로 충만해졌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나는 법왕의 교서를 읽고 있다. 그러나...나는 법왕이 적그리스도인지 그분의 사도인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의 교서에서 그리스도를 너무도 잘못 나타내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 (D'Aubigne, b1, ch1). 그 당시에 루터는 여전히 로마교의 지지자였으며, 교회와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생각조차 아니하였다.

루터의 저서와 교리는 모든 그리스도교국으로 퍼져갔다. 개혁의 사업은 스위스와 네덜란드에서도 일어났다. 그의 저서들은 프랑스와 스페인에도 전해졌다. 영국에서는 그의 교훈이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다. 벨기에와 이탈리아에도 진리가 전파되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은 듯한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서 신앙생활의 희망과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 루터의 공격으로 로마는 더욱더 격노하게 되었으며, 그를 반대하는 광신적인 어떤 사람들, 심지어

가톨릭 대학교의 박사들까지도 그 반역적인 승려를 죽이는 자는 범죄하는 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하루는 어떤 수상한 자가 권총을 외투 속에 감추고 그 개혁자에게 가까이 와서, 어찌하여 그대는 혼자 다니느냐고 물었다. 루터는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그분은 나의 힘이요 방패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고 대답하였다 (D'Au-bigne, b1, ch1). 이 말을 듣고 그 수상한 자는 얼굴빛이 창백하게 되었으며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피하듯이 도망하여 버렸다. 로마는 루터를 없애 버리기 위하여 애를 썼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방패가 되셨다. 그의 교리는 "민가와 수도원과…귀족의 저택과 대학과 왕의 궁전 등으로 전하여져서 도처로 퍼졌다" (D'Au-bigne, b1, ch1). 귀족들은 그의 운동을 원조하기 위하여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바로 그 즈음 루터는 후스의 저서를 읽고, 자신이 주장하고 가르치고자 하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큰 진리가 벌써 보헤미아의 개혁자로 말미암아 주장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루터는 "바울과 아우구스티누스와 나 자신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모두 후스의 신봉자가 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는 또 계속해서 "일세기 전에 전파된 진리를 불태워 버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받고야 말 것이다" (Wylie, b1, ch1) 고 말하였다. 루터는 그리스도교의 개혁을 위하여 독일의 황제와 귀족들에게 보내는 호소의 편지에서 법왕에 관하여 기록하였다. "스스로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어떠한 황제도 미치지 못할 만큼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는 것은 놀랄 만한 일입니다. 과연 그것이 가난한 예수님과 비천한 베드로의 생활과 유사하겠습니까? 그를 가리켜 세계의 주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법왕이 그분의 대리자 됨을 자랑하는 그리스도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대리자의 영토가 자기 주인의 것보다 더 커서야 되겠습니까?" (D'Aubigne, b1, ch1).

또 그는 각 대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나는 각 대학이 만일 열렬히 성경을 설명하고, 그것을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인상시켜 주지 못한다면, 지옥의 문이 될까 두려워하는 바이다. 나는 누구든지 성경을 으뜸으로 삼지 않는 학교에 자녀를 보내지 말도록 권면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없는 교육 기관은 모두 틀림없이 타락하고야 만다" (D'Aubigne, b1, ch1). 이 호소는 독일 전국에 신속히 전달되어 각 사람들에게 강력한 감화를 끼쳤다. 온 나라는 분발하고, 군중들은 궐기하여 개혁의 깃발 아래로 모여들었다. 루터를 반대하는 자들은 보복할 생각이 불 일듯 일어나서, 그에게 대하여 단호한 태도를 취해 주기를 법왕에게 간청하였다. 그의 교리들은 즉시 정죄의 선고를 받아야 한다고 공고되었다. 그 개혁자와 그의 지지자들에게는 60 일간의 유예 기간이 허락되었으며, 그 기간 안에 신앙을 취소하지 않으면 모두 파문당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것은 종교개혁에 있어서 무서운 위기였다. 지나간 수세기 동안 로마의 파문은 강력한 황제들에게 공포감을 안겨 주었다. 그것은 막강한 제국 (帝國) 에 불행과 황폐를 가져다주었다.

일단 파문의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일반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의 동료들과의 교제도 끊어지고,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수색당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다. 루터는 자기에게 엄습해 오고 있는 폭풍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굳게 서서 자기를 지탱해 주고 방패의 역할을 해주실 그리스도를 신뢰하였다. 순교자의 믿음과 용기로써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날는지 나는 알지 못하며 구태여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강풍이 몰아치려면 쳐보라.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의 나뭇잎도 우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그분의 종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을 것인가? 육신으로 나타나셨던 말씀도 돌아가셨거든 그 말씀을 위하여 죽는 것은 별로 중대한 일이 아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분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감으로 우리는 그분이 계신 곳으로 가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D'Aubigne, (3rd London ed., Walther, 1840) b1, ch.

마침내 법왕의 교서가 루터에게 전달되자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그것을 불경하고 거짓된 것으로 멸시하고 배격한다. ...그것으로 정죄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그 사업을 위하여 이와 같이 고생당하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나는 이미 마음속으로 더욱 큰 자유를 느끼고 있다. 나는 법왕이 적그리스도이며, 그의 보좌는 곧 사단의 위 (位) 인 것을 드디어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D'Aubigne, b1, ch1). 그러나 로마의 교서가 효과가 없지는 않았다. 감옥, 고문, 검 (劒) 등은 복종을 강요하는 힘있는 무기들이었다. 연약하고 미신적인 사람은 법왕의 명령 앞에서 떨었다. 루터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동정은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개혁 사업 때문에 생명을 버리는 것이 너무도 큰 희생이라고 생각했다. 모든 점으로 보아서 개혁자의 사업은 끝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루터는 여전히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로마는 그에게 저주의 말을 퍼부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가 죽임을 당하든지 항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는 놀라운 능력으로 정죄의 선고를 로마로 돌려보내고 로마교에서 영원히 떠나겠다는 결심을 공중 앞에서 표명하였다. 학생들, 박사들, 각 계급의 시민들로 이루어진 군중 앞에서 루터는 교회의 법규들과 훈령들과 법왕권을 지지하는 특별한 저서들과 함께 법왕의 교서를 태워버렸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의 원수들은 나의 저서들을 불태움으로 일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진리의 사업을 손상시키고, 그들의 영혼을 파멸시켰다. 그러므로 나는 거기에 따라 그들의 책들을 불태웠다. 바야흐로 엄숙한 투쟁은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나는 법왕으로 더불어 경기 (競技) 를 한 데 불과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사업을 착수하였다. 그러므로 그 사업은 내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쳐질 것이다" (D'Aubigne, b1, ch10).

루터는 그의 사업이 미약하다고 조소하는 원수들의 비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누가 알며, 그들이 나를 멸시하므로 하나님 자신을 멸시하는 일이 될까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누가 알겠는가?

모세는 애굽을 떠날 때에 홀로 있었다. 엘리야도 아합의 통치 때에 홀로 있었다. 이사야도 예루살렘에 홀로 있었고, 에스겔도 바벨론에 홀로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나 어떤 위대한 사람을 선지자로 택하지 않으시고, 일반적으로 지위가 낮고 멸시받는 사람들 중에서 택하셨다. 그분께서는 목자 아모스를 선지자로 택하신 적도 있었다. 각 시대를 통하여 성도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대한 사람들과 왕들과 제후들과 제사장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을 책망하였다. ...나는 내 자신을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홀로 있고 그들은 다수이기 때문에 그들이 마땅히 두려워해야 한다고 나는 말하는 바이다. 나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 (D'Aubigne, b1, ch10).

그럴지라도 루터가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떠나고자 결심하기까지는 무서운 갈등이 없지 않았다. 그 즈음에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나는 사람이 유년 시대에 받아들인 것을 내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날마다 더욱더 느끼고 있다. 비록 나는 나를 지지해 주는 성경을 가지고 나 혼자서 법왕을 대항하고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언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내 자신으로는 수긍했을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가져다주었다. 내 마음속의 번민은 단순하지 않았다. 나는 법왕교도들의 입술에서 그처럼 자주 반복된 다음의 질문에 대하여 괴로운 마음으로 얼마나 여러 번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던가? '너 혼자만 현명한가? 너 외의 다른 사람들은 모두 틀렸는가? 만일 네 자신이 틀렸고, 많은 사람들이 너의 오류를 받아들인 결과로 영원히 멸망 받게 된다면, 결국 어떻게 되겠는가?' 나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흠없는 말씀으로 이와 같은 의혹을 대항하게끔 나의 마음을 강화시켜 주기까지 내 자신과 사단으로 더불어 싸웠다" (Martyn, pp172, 373). 법왕은 루터가 신앙을 취소하지 않으면 파문시키겠다고 위협하였는데, 이제 그 위협이 실현되었다. 개혁자가 로마 교회와 최종적으로 결별하였음을 선포하고, 그를 하늘의 저주를 받은 자로 탄핵하고 그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도 같은 정죄가 임한다는 내용으로 된 새 교서가 내렸다. 큰 투쟁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시대에 적합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모든 사람은 반대를 당하게 되어 있다. 루터의 시대에는 그 시대에 특별히 요긴한 현대 진리가 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회에도 현대 진리가 있다. 모든 것을 당신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양한 환경 아래 두시고, 그들이 생활하는 시대와 그들이 처한 상황에 적합한 의무들을 수행하기를 바라신다. 만일 그들이 받은바 진리를 존중할 것 같으면, 더욱 넓은 진리의 시야가 그들 앞에 열려질 것이다. 그러나 진리는 법왕교도들이 루터를 반대했던 것처럼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도 옛날처럼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람들의 이론과 전설을 받아들이는 동일한 경향이 있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은 초기의 개혁자들보다 더 큰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진리와 오류,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대쟁투는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 격렬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요 15:19, 20) 고 말씀하셨다. 또 한편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눅 6:26) 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옛날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시대도 이 세상의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과 일치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파하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그 당시보다 더 큰 환영을 받을 수는 없다. 진리를 반대하는 양태가 바뀌어지고 더욱 교묘해진 나머지 적의 (敵意) 가 공공연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동일한 적개심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마지막 때까지 나타나게 될 것이다.

8 장 — 법원 앞에서

새 황제 카알 5 세가 독일 황제로 등극하게 되자, 로마의 사자들은 신속히 축하의 뜻을 표하고 그 황제에게 권력으로 개혁 사업을 반대해 달라고 권하였다. 한편으로, 카알이 왕관을 얻는 일에 크게 공헌을 한 작센의 선후 (選侯) 는 루터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전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말기를 카알에게 간청하였다. 그러므로 황제는 매우 난처하고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법왕당들은 루터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칙령으로만 만족할 것이었다. 그러나 선후는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주장하였다. "황제나 그 밖의 어떤 사람도 루터의 저서들이 반박을 당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루터 박사에게 통행권을 주어 학식 있고, 경건하고, 공정한 재판관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D'Aubigne, b1, ch11).

이제 모든 당파의 주목은 카알이 황제로 즉위한 지 얼마 후에 보름스 (Worms) 에서 열린 독일의 의회로 쏠리게 되었다. 독일의 영주들이 젊은 황제와 처음으로 심의회에서 만나게 되었으므로 이 국회에는 토의해야 할 중요한 정치적인 문제들과 안건들이 있었다. 국내의 각 지방에서 교회와 국가의 고관들이 모여들었다. 귀족 출신으로 세력 있고 세습적 권리를 자랑하는 영주들, 계급과 권력의 우월감에 도취된 성직자들, 기품 있는 기사 (騎士) 들과 무장을 한 그 부하들, 낯선 먼 나라들로부터 파견된 대사들, 그 모든 사람들이 보름스로 모였다. 그러나 그처럼 많은 사람이 모인 중에서 가장 큰 흥미를 일으킨 것은 작센의 개혁자에 관한 사건이었다.

카알은 이미 선후에게 루터를 데리고 의회에 올 것을 지시하고, 그의 보호를 보증하고, 논의할 문제에 관하여 자격을 갖춘 사람들과 자유로운 토론을 허락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루터는 황제 앞에 나가기를 열망하였다. 그는 당시에 건강이 매우 나빴지만, 선후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다. "만일 내가 건강한 상태로 보름스에 갈 수 없다면, 나는 앓는 그대로 운반되어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황제께서 나를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는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내게 대하여 폭력을 쓰기를 원한다면, 또한 그렇게 할 가능성은 매우 많을지라도, 나는 그 문제를 주님의 손에 맡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의 출두를 명한 것은 내게서 교훈을 받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 젊은이들을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서 지켜 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계셔서 통치하십니다. 그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나의 생명은 별반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음이 악한 자들의 조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피를 흘립시다. 겁을 내면 그들이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사는 것이 좋으냐, 죽는 것이 좋으냐 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전하 (殿下) 께서는 내가 도망하는 일과 믿음을

취소하는 일 이외에는 나에게서 어떤 것이든지 기대해도 좋습니다. 나는 도망할 수 없으며, 믿음을 취소할 수는 더욱 없습니다" (D'Aubigne, b1, ch1).

루터가 의회에 출두한다는 소식이 보름스에 전해지자, 일반 사람들은 흥분하게 되었다. 이번 사건을 특별히 위임받은 법왕의 사절 알리안더 (Aleander) 는 놀라고 분노하였다. 그는 그 결과가 법왕 측에 불리할 것을 알았다. 법왕이 이미 정죄의 선고를 내린 사건을 심리한다는 것은 가장 높은 법왕의 권위를 모욕하는 일이었다. 더욱이 그는 이 사람의 웅변과 유력한 이론이 많은 영주들을 법왕의 사업으로부터 떠나가게 할 것을 염려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루터가 보름스에 나타나지 못하게 해달라고 카알에게 호소하였다. 때마침 루터의 파문을 선고하는 조서가 공포되었고, 법왕의 사절의 제안도 있었으므로 황제는 진심으로 그 일을 수락하였다. 황제는 선후에게 루터가 신앙의 취소를 원하지 않는다면 비텐베르크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편지하였다.

알리안더는 이 승리로써 만족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온 힘과 간계를 다하여 루터를 정죄하고자 애를 썼다. 그는 비상한 집념 아래 제후들과 주교들과 그 밖의 다른 의원들에게 그 문제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개혁자를 "선동, 반역, 불경건, 참람" 등의 죄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법왕의 사절이 나타낸 격정과 분노는 그가 어떤 정신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너무도 명백하게 드러내었다. "그는 열성과 경건으로보다는 증오와 복수심으로 지배되었다" (D'Aubigne, b1, ch1) 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었다. 의회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느 때보다도 더욱 루터의 사업에 호감을 갖게 되었다.

알리안더는 다시 배가된 열성으로 황제에게 법왕의 칙령을 실행할 의무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그러나 독일의 법률상으로 이 일을 제후들의 찬동 없이는 할 수 없었다. 그러나 황제는 마침내 그 사절의 집요한 요구에 못 이겨서 그의 소송 사건을 의회에 제출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날은 교황 사절에게 있어서는 자랑스러운 날이었다. 회중도 대단하였지마는 소송 사건은 더욱더 대단하였다. 알리안더는 모든 교회의 어머니이며 주인인 로마를 위하여 변호할 것이었다." 그는 거기에 모인 그리스도교국의 원로들 앞에서 베드로의 권위를 변호할 것이었다. "알리안더는 웅변의 재간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처럼 중대한 시기를 위하여 선 사람이었다. 로마가 비난을 받기 전에 가장 유능한 웅변가가 그렇듯 엄숙한 법정에 나타나서 고소를 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Wylie, b1, ch1). 루터에게 호감을 가진 의원들은 알리안더의 변론의 결과에 대하여 어느 정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작센의 선후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자기의 고문과 몇 사람을 참석시켜 법왕의 사절의 연설을 필기하게 하였다. 알리안더는 학문과 웅변의 힘을 모두 발휘하여 진리를 전복시키고자 진력하였다. 그는 루터를 교회와 국가, 산 자와 죽은 자, 성직자와 평신자, 그리스도의 교회와 개인의 원수라고 거듭거듭 고발하였다. "루터의 오류에는 십만 명의 이단을 화형시킬 만한 재료가 넉넉히 있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그는 개혁주의의 신앙을 고수하는 사람들을 모욕하고자 노력하였다. “루터당이란 무엇인가? 오만한 교사들, 타락한 신부들, 방탕한 승려들, 무지한 변호자들, 부패한 귀족들, 잘못 지도되어 비뚤어진 일반 백성들의 집단들이다. 그러나 가톨릭 당은 수와 능력과 권력 면에서 그들보다 얼마나 우세한가! 이 유명한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무지한 자를 계몽하고, 교만한 자를 경고하고, 요동하는 자를 안정시키고, 약한 자에게 힘을 줄 것이다” (D’Aubigne, b1, ch1).

어떠한 시대에서나 진리의 옹호자들은 이와 같은 무기에 의하여 공격을 받아왔다. 그와 똑같은 논조 (論調) 가 오늘날에도 이미 확립된 오류에 반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명백하고 솔직한 교훈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항하여 제기되고 있다. 인기 있는 종교를 원하는 사람들은 “새 교리를 전파하는 자들이 누구인가”라고 부르짖는다. 그들은 무식하고 가난한 소수의 무리가 아닌가? 그러면서도 그들은 진리를 가졌노라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무지하고 미혹한 자들이다. 우리 교회는 수효와 영향력에 있어서 얼마나 우세한가! 우리에게는 위대하고 유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편의 세력은 과연 얼마나 큰가!”라고 그들은 말한다. 이러한 논조는 세상에 유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것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그 개혁자의 당시와 마찬가지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종교개혁은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루터의 시대에 마쳐지지 않았다. 그것은 세상 역사의 종말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루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추어 주신 빛을 다른 사람에게 반사함으로 큰 일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장차 이 세상에 비추어 주어야 할 빛을 모두 다 받은 것은 아니었다. 그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새 빛은 계속적으로 성경에서 나오고 있고, 새 진리는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법왕 사절의 연설은 의회에 비상한 자극을 주었다. 거기에는 성경의 명료하고 감명적인 진리를 가지고 법왕의 투사를 쳐부술 루터도 없었고, 개혁자를 옹호하고자 하는 노력도 없었다. 거기에는 루터와 그가 가르친 교리를 정죄할 뿐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이단자를 근절해야 한다는 의향까지 대두되었다. 로마교는 자기편을 변호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를 가졌다. 그러므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말은 다하였다. 그러나 외관상으로 승리한 듯한 그것은 패배의 신호였다. 왜냐하면 진리와 오류가 공개적으로 실전 (實戰) 을 하면, 그 두 가지는 더욱 분명하게 대조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 로마교는 다시 평안하게 지낼 시기를 얻을 수 없었다.

의원들 중의 대부분은 루터를 로마의 보복의 손에 넘겨주기를 주저하지 않을 의향이었으나, 그 중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 내에 있는 부당한 행위를 알고, 성직 정치의 부패와 탐욕으로 말미암아 독일 국민이 입는 해독을 제거하기를 희망하였다. 법왕의 사절은 법왕권의 제도 (制度) 를 가장 유리하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을 감동시키자 법왕교의 횡포의 결과로 생긴 진상을 폭로하게 하셨다. 그 때에 결단성 있는 작센의 죠지 공작

(Duke George) 은 둘러앉은 귀인들 앞에 일어서서 법왕교의 기만과 가증한 죄와 그 두려운 결과에 대하여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지적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을 마치었다. "이것들은 로마가 끼친 해독의 일부분이다. 수치나 평판이 문제가 아니다. 그들의 유일의 목적은 돈, 돈, 돈이다. 그러므로 진리를 가르쳐야 할 전도자들은 다만 거짓을 말하였고, 그것이 또한 묵인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상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들의 거짓이 크면 클수록 그들의 이득은 더욱 컸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더러운 물이 흘러내리는 것은 그 샘의 근원이 더러워져 있기 때문이다. 방탕은 탐욕을 향하여 손을 뻗고 있다. ...슬프다. 이것이야말로 승려가 가져온 악덕이며, 그로 인하여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영원한 멸망으로 빠져가고 있다. 마땅히 일대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 (D'Au-bigne, b1, ch1).

비록 루터 자신이 거기에 있었더라도 로마교의 악폐에 대하여 이처럼 적극적이고 강력한 공격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연사는 개혁자의 강력한 원수였으므로 그의 말은 한층 더 큰 효과를 내었다. 만일 이 때에 회중의 눈이 열리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 중에 서서 오류의 암흑을 물리쳐 버리고 광명한 빛을 보내어 사람들의 마음을 진리를 맞아들이도록 열어 주는 광경을 보았을 것이다. 개혁 사업의 반대자들까지도 지배하여, 바야흐로 성취되려는 대사업의 길을 예비한 것은 진리와 지혜의 근원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마틴 루터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나 루터보다 더욱 위대하신 하나님의 소리가 그 회의장에 들렸던 것이다.

의회는 법왕교가 독일 국민에게 과한 막중한 억압 상황을 조사할 의원들을 즉시 임명하였다. 백 한 가지의 조목으로 된 명세서가 그 악폐를 즉시 교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류와 함께 황제에게 제출되었다. 그 탄원자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그리스도교국의 영적 머리가 그처럼 추문 가운데 묻혀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에 얼마나 큰 손실이며 침해입니까! 우리 민족의 파멸과 치욕을 방지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폐하께서 전반적인 개혁을 명령해 주시고, 그 이행을 보증하여 주시기를 가장 겸손하고 간절하게 탄원하는 바입니다" (D'Aubigne, b1, ch1). 의회는 이제 루터에게 그들 앞에 출두하라고 요구하였다. 알리안더의 탄원과 반대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황제는 거기에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루터는 의회에 출두하도록 소환되었다. 그리고 루터는 소환 명령을 받는 동시에 안전한 장소로 돌아가는 일을 보증해 주는 통행권도 받았다. 이 통행권은 그를 보름스로 데리고 올 사명을 받은 전령관을 통하여 비텐베르크에 전달되었다.

루터의 친구들은 매우 놀라고 고민하게 되었다. 그들은 루터가 편견과 적의 (敵意) 를 받고 있는 것을 알므로 비록 그가 통행권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시당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그에게 생명을 위태롭게 하지 말라고 간원하였다. 그러자 그는 대답하였다. "법왕당이 바라는 것은 내가 보름스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죄와 나의 죽음이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내게 주셔서 그 오류의 사자들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나는 나의 일생을 통하여 그들을 멸시한다. 나는 죽음으로써 그들에게 승리할 것이다. 그들은 보름스에서 내게 신앙의 취소를 강요하기 위하여 광분하고 있다. 나의 취소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나는 전에 법왕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말하였지만 이제부터 나는 법왕은 우리 주님의 대적이요, 마귀의 사도라고 주장한다" (D'Aubigne, b1, ch1).

루터는 혼자서 그 위험한 여행을 하지는 않게 될 것이었다. 황제의 전령관 외에 진실한 세 친구가 그와 동행하기로 결심하였다. 멜란히톤도 일행에 참가하기를 열망하였다. 그의 마음은 루터의 마음과 결합되어 있었으므로 그는 루터와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랐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옥에 갇히거나 죽는 것까지도 감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의 간청은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루터가 죽으면 개혁 사업의 희망은 그의 젊은 동역자에게 달려 있었다. 루터도 멜란히톤과 작별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일 나의 원수들이 나를 죽이므로 내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지라도, 그대는 계속해서 진리를 설명하고, 진리에 굳게 서야 한다. 나를 대신하여 일해 주게. ...그대가 살아 있기만 하면, 나의 죽음은 별반 대수롭지 못한 것이 될 것이다" (D'Aubigne, b1, ch1). 루터가 떠나는 것을 보기 위하여 모였던 학생들과 시민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동된 무수한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와 작별 인사를 하였다. 이리하여 개혁자와 그의 일행은 비텐베르크를 떠났다.

여행 중에 그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우울한 예감으로 눌려 있는 것을 보았다. 어떤 도시들에서는 그들에게 아무런 경의도 표하지 않았다. 그들이 밤을 새우기 위하여 한 곳에 머물렀을 때 친절한 한 신부는 순교당한 한 이태리 개혁자의 초상을 루터에게 내보이면서 자기의 염려를 피력하였다. 그 다음날 그들은 루터의 저서가 보름스에서 정죄당한 것을 알게 되었다. 황제의 사자들은 그 칙령을 포고하고, 백성들에게 그 금지된 서적들을 지방 장관들에게로 가져가도록 명령하였다. 동행하는 전령관은 루터가 의회에서 안전할 것인지 염려하는 한편, 그의 결심에도 동요가 생겼을 것으로 생각하여, 계속하여 앞으로 전진하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지나는 도시마다 방해를 할지라도 나는 계속하여 전진하겠다"고 대답하였다.

에르푸르트 (Erfurt) 에서는 루터가 존경을 받았다. 그를 존경하는 많은 군중에게 둘러싸인 채 자신이 전에 탁발승으로서 동냥하며 지나다녔던 그 길거리를 지나갔다. 그는 자기가 있던 승원 (僧院) 을 찾아보고, 오늘날은 독일 전역에 퍼져 있는 빛이지만 그 빛이 일찍이 자기에게 처음으로 비치던 때에 당한 고민을 추억하였다. 거기서 그는 설교하여 달라는 간청을 받았다. 그에게는 설교하는 일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동행하던 전령관이 허락하였으므로 이 승원에서 천한 일에 종사했었던 한낱 탁발승이 이제 설교단으로 나아갔다. 그는 모인 무리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을 시작하였다. "철학자들, 박사들, 저술가들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는 길을 가르쳐 주고자 노력하였지마는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분,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으로 하여금 죽음을 멸하게 하시고, 죄를 근절시키시고, 지옥의 문을 닫아 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사업이며...그리스도께서 정복하신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공로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손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곧 사람들이여 보라, 너희의 죄를 없이하고 너희를 속량한 사람은 나, 곧 나뿐이다. 이제 너희는 평안함을 누릴지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는 계속하여 참된 신앙은 거룩한 생애로 나타나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우리는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행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요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위하여 공급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가난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부요한 사람들에게 가납될 만한 봉사를 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 자신에게만 유익을 준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공언하지만 거짓말이 되고 맙니다" (D'Aubigne, b1, ch1). 사람들은 마치 도취된 것처럼 그 설교를 들었다. 생명의 떡은 주린 영혼들에게 나누어졌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앞에 법왕이나 법왕의 사절이나 왕들보다도 더욱 높이 들리워졌다. 루터는 자기 자신의 위급한 상태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생각과 동정의 대상으로 만들고자 하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도를 주목한 나머지 자기 자신을 잊어버렸다. 그는 갈바리의 사람 뒤에 숨어서 예수님을 죄인의 구속자로 나타내기 위하여 힘썼다.

개혁자가 여행을 계속하는 동안, 그는 도처에서 큰 관심으로 영접을 받았다. 열심 있는 많은 무리들은 그에게 몰려와서 그에게 대한 로마교의 목적이 무엇인지 친절하게 알려 주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은 얀 후스에게 한 것과 같이 당신을 화형시켜 당신의 몸을 재로 만들려고 합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루터는 대답하였다. "그들이 보름스로부터 비텐베르크에 이르는 길에 불을 질러 그 불꽃이 하늘에 닿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 가운데를 통과하여 그들 앞에 설 것입니다. 나는 그 맹수의 입안으로 들어가서 그 이를 부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렵니다" (D'Aubigne, b1, ch1). 루터가 보름스로 가까이 오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자 큰 소동이 일어났다. 그의 친구들은 그의 안전을 위하여 염려하고, 그의 원수들은 그들의 사업의 성공에 대하여 두려워하였다. 그가 성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열성껏 애쓰는 사람들도 있었다. 법왕당의 사주 아래 그는 한 친절한 기사 (騎士) 의 저택으로 가자는 간청을 받고, 그 곳에서는 모든 어려움이 우호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말도 듣게 되었다. 친구들은

그를 위협하고 있는 위험들을 말해 줌으로 그의 공포심을 자극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노력은 실패하였다. 루터는 흔들리지 않고, "보름스 시내의 악마가 비록 지붕 위의 기왓장처럼 많을지라도 나는 반드시 들어가리라" (D'Aubigne, b1, ch1) 고 단언하였다.

그가 보름스에 도착하자 많은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자 성문에 모여 있었다. 황제 자신을 영접하기 위해서도 그처럼 많은 무리가 모이지 않았었다. 흥분은 심하였으며, 무리들 가운데는 루터에게 그를 기다리고 있는 운명을 경고하기 위하여 장례식에 부르는 만가 (輓歌) 를 비감한 목소리로 부르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마차에서 내려서면서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다"고 말하였다. 법왕당은 루터가 위험을 무릅쓰고 보름스에 나타날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었다. 그가 보름스에 도착하였으므로 그들은 놀랐다. 황제는 즉시 의원들을 소집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협의하였다. 법왕당의 완고한 주교 중의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이미 오랫동안 의논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폐하께서는 그 사람을 즉시 처치해 버리십시오. 이미 시기스문트 황제께서도 얀 후스를 화형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단자의 통행권에 구애될 필요가 없습니다." 황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D'Aubigne, b1, ch1) 고 대답하였다. 그리하여 개혁자의 말을 듣도록 한다는 결정이 내렸다.

온 도성은 이 놀라운 사람을 보기 위하여 열광하였고, 그의 숙소는 방문객으로 차고 넘쳤다. 루터는 최근에 앓아오던 병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였으며, 두 주일이나 계속된 여행에 지쳐 있었고, 내일의 중대 사건을 위하여 준비도 해야 되었으므로 안정과 휴식이 필요하였다. 그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망 때문에 그는 두어 시간밖에 수면을 취하지 못하였는데, 그 때에 귀족들과 기사 (騎士) 들과 신부들과 시민들이 열광적으로 또 모여들었다. 그 중에는 교회의 악폐를 개혁할 것을 황제에게 담대히 진언한 귀족들도 많이 있었다. 루터는 그들에 대하여 "내가 전한 복음으로 그들은 다 자유를 얻었다" (Martyn, p19) 고 말하였다. 친구들은 물론이요 원수들도 이 대담하고 굴할 줄 모르는 승려를 보기 위하여 왔다. 그는 그들을 차분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맞이하였고, 모든 말에 대하여 권위와 지혜를 가지고 대답하였다. 그의 태도는 확고하고 용감하였다. 그의 창백하고 파리한 얼굴에는 수고와 질병의 흔적이 있었으나 오히려 친절하고 즐거운 표정이었다. 엄숙하고 열렬한 그의 말은 그에게 권능을 주었으며, 그의 원수들은 그 권능을 저항할 수 없었다. 친구들과 원수들은 다 같이 매우 놀랐다. 어떤 사람들은 거룩한 힘이 그에게 임하였다고 확신하였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옛날 바리새 교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말한 것처럼 사귀가 들렸다고 하였다.

이튿날 루터는 의회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황실의 한 관리가 그를 의회로 인도하였는데, 그는 그 장소까지 가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모든 길은 로마의 권위를 용감하게 대항한 이 승려를 보기 위하여 열광하는 군중들로 차고 넘쳤다. 루터가 재판관 앞에 서려고 할

그 때에 많은 전쟁에서 용맹을 떨친 한 늙은 장군이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였다. "가련한 승려여! 가련한 승려여! 그대는 지금 나와 나 외의 어떤 장군들이 가장 격렬한 전쟁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더욱 고상한 투쟁을 직면하고 있다. 만일 그대가 하는 일이 바르고, 거기에 대하여 그대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라. 그리고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그대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D'Aubigne, b1, ch1). 드디어 루터는 회의장에 섰다. 황제는 보좌에 앉고, 국내의 가장 고귀한 인물들이 그 주위에 열석했다. 마틴 루터가 그의 신앙을 변호하기 위하여 의회에 출석하였던 그 때처럼 장엄한 의회는 일찍이 없었다.

"그 광경 자체가 법왕교에 대한 루터의 분명한 승리를 보여 주었다. 이미 법왕은 그를 정죄하였지만 정죄당한 그 사람은 지금 재판정에 서 있다. 이 사실은 의회가 법왕권 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법왕은 그를 파문하여 모든 인간 사회에서 끊어 버렸지마는, 존경하는 말로 소환당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의회의 영접을 받았다. 법왕은 그에게 영원히 침묵을 지키도록 선고하였지만, 그는 이제 멀리 떨어진 그리스도교국의 여러 곳에서 모여든 열렬하고 무수한 청중 앞에 서서 말을 하려고 한다. 이미 놀랄 만한 개혁이 루터라는 도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때에 이미 로마는 그 보좌로부터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다. 로마를 이러한 상태에 빠뜨린 것은 일개 승려의 음성이었다" (D'Aubigne, b1, ch1). 이처럼 유력하고 유명한 의회 앞에 서게 되자 비천한 계급의 출신인 개혁자는 두려워하고 당황하는 듯이 보였다. 몇 사람의 영주 (領主) 들은 그의 태도를 보고 가까이 와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 10:28) 고 속삭였다. 또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마 10:18~20) 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을 통하여 시련 중에 있는 그분의 종을 격려하였다.

루터는 황제의 보좌 바로 앞에 서게 되었다. 침묵이 온 회의장을 엄습하였다. 황실의 관리가 일어서서 곁에 쌓아 놓은 루터의 저서들을 가리키면서 루터에게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라고 요구하였다. 그 모든 저서들을 자기의 것으로 시인하느냐는 질문과 그 저서들 속에서 나타낸 주장들을 취소하겠느냐는 질문이었다. 차례로 저서들의 이름이 불리워지자, 루터는 첫째 질문에 대하여 그 저서들이 다 자기의 것임을 시인하였다. 그러나 둘째 질문에 대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것은 믿음과 영혼의 구원에 관한 것이며 더욱이 하늘과 땅에서 가장 위대하고 귀중한 보배인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나는 깊이 생각한 뒤에 신중하게 대답하겠습니다. 진리가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고 환경에 따라 행동하므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마

10:33) 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저촉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되지 않고 대답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전하께서 잠시 유예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원하나이다" (D'Aubigne, b1, ch1).

이렇게 요구함으로, 루터는 지혜롭게 처신하였다. 그의 행위는 거기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감정이나 일시적 충동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였다. 그와 같은 침착성과 자제력은 대담하고 비타협적인 그에게서 전혀 기대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것이 그에게 힘을 더하여 나중에는 그로 하여금 신중하고 과단성 있고, 지혜롭고, 권위 있게 대답할 수 있게 하였으며, 원수들도 놀라고 실망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오만하고 불순한 태도를 견책 받게 되었다. 이튿날 그는 최후의 답변을 하기 위하여 회의장에 나아가야 했다. 잠시 동안 그는 진리를 대항하여 연합된 세력을 생각해 볼 때, 마음속에서부터 용기가 꺾였다. 그의 신앙은 흔들렸고, 두려워 떨었으며, 그는 공포에 억눌리게 되었다. 여러 가지 위험이 그의 앞에 나타났고, 원수들이 승리하고, 암흑의 권위가 이길 것처럼 보였다. 검은 구름이 그를 둘러쌌고,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는 듯하였다. 그 때에 그는 만유의 주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보증을 얻고자 갈망하였다. 그는 마음의 괴로움을 안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부르짖음,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르짖음을 토로하였다.

"오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여!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상은 입을 벌리고 이 종을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이 종이 당신을 믿는 믿음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만일 이 종이 신뢰할 것이 이 세상의 힘뿐이라면,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 종의 최후의 시간은 다가왔습니다. 이미 종은 정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 오오! 하나님이시여! 세상의 온갖 지혜를 대항하고 있는 이 종을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당신만이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의 분이십니다. 이것은 종의 사업이 아니요 당신의 사업입니다. 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다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당신의 사업이며 의롭고 영원한 사업입니다. 오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진실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여! 종은 이제 어떠한 사람이라도 신뢰하지 않겠나이다. 사람에게 속한 것은 모두 정함이 없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은 모두 무너지고 맙니다. ...당신께서 이 사업을 위하여 나를 택하셨나이다. ...나의 곁에 서 주옵소서.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망대이신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D'Aubigne, b1, ch1).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섭리는 루터에게 자신의 위험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로 하여금 자기의 힘을 의뢰하지 않게 하시므로 무모하게 위험 속으로 뛰어들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나 그가 공포에 눌리게 된 것은 즉시로 다가올 것처럼 보이는 자신의 고난과 고문과 죽음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위기를 당면하여서 그것을 대항하는 데 자기의 힘이 너무도 미약한 것을 느꼈던 것이다.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진리의 사업이 패배당할까 두려워한

것이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승리를 위하여 그는 하나님과 씨름하였다. 밤중에 쓸쓸한 시냇가에서 투쟁할 때 이스라엘이 느꼈던 것과 같은 고민과 갈등이 그의 마음속에 충만하였다. 이스라엘처럼 그도 하나님을 이겼다.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 그는 믿음으로 전능하신 구원자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었다. 그의 마음은 그가 단독으로 의회에 출두하지 않는다는 보증으로 굳세어졌다. 그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깃들었으며, 그는 고관들과 제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높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것을 기뻐하게 되었다.

루터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면서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투쟁을 위하여 준비하였다. 그는 대답할 계획을 생각하고, 자기의 저서들에 있는 구절들을 검토하고, 성경에서 그의 주장을 입증하고 지지할 만한 적당한 구절들을 뽑았다. 그 후에 그는 자기 앞에 펼쳐져 있는 성경 위에 왼손을 얹고, 오른손을 높이 쳐들어 "비록 증거를 위하여 나의 피를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나의 신앙을 거리낌 없이 고백하겠노라" (D'Aubigne, b1, ch1) 고 맹세하였다. 그가 두 번째 의회에 섰을 때에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공포와 난처한 기색이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는 조용하고, 평화롭고, 그러면서도 극히 용감하고 의기양양하게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지상의 세도 있는 고관들 앞에 섰다. 그 때에 황실의 관리는 그에게 자기의 주장을 취소하고자 결정했는지 물어 보았다. 루터는 침착하고, 겸손하고, 아무런 격렬한 감정이 섞이지 아니한 어조로 대답하였다. 그의 태도는 겸손하고 존경할 만하였다. 그러나 그는 의회가 놀라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기쁨을 나타냈다. "지극히 존엄하신 폐하여! 고귀하신 왕후 (王侯) 들과 인자하신 영주 (領主) 들이여! 오늘 본인이 여기 출정 (出廷) 하게 된 것은 어제 분부하신 명령에 따라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본인은 존엄하신 폐하와 여기 열석하신 전하 제위께서 본인이 의롭고 진실하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변호하는 말을 특별하신 사랑으로 들어주시기를 간원하나이다. 그리고 본인의 무지로 인하여 궁정의 관례나 예법을 범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기를 탄원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승원에 묻히어 있었을 뿐이며 궁정에 나아가 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D'Aubigne, b1, ch1).

이와 같이 말한 다음에 그는 질문에 관하여, 자기의 저서들은 모두가 동일한 부류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첫째 부류는 신앙과 선행에 대하여 기록한 것으로, 이것은 그의 원수들까지도 해로운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익한 것들로 취급하였다. 이런 저서들을 취소하는 것은 만인이 인정하는 진리를 부인하는 일이 될 것이었다. 둘째 부류의 것은 법왕교의 부패와 나쁜 폐단을 폭로하는 저서들로 이루어졌다. 이런 저서들을 폐기 (廢棄) 하는 것은 로마의 포악을 한층 더 조장 (助長) 하여 더욱 심한 불경건을 맞이하기 위하여 문을 넓게 여는 것이 될 것이었다. 셋째 부류의 저서에서 그는 현존한 악폐 (惡幣) 를 옹호한 개인들을 공격하였다. 그런 부류의 저서에 관하여 그는 그 내용이 과격한 점이 있으며, 잘못된 점이 전연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을 솔직히 고백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런 종류의 저서들도 취소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만일 그렇게 하면, 진리의 원수들은 한층 더 완강하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더욱 잔인하게 취급할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계속하여 말하였다. “그렇지만 나는 다만 한 사람의 인간이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나의 말이 만일 악하면 그 악한 사실을 증거해 달라고 내 자신을 변호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 나는 지존하신 황제와 인자하신 왕후(王侯) 들과 모든 고관 제위에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글로써 본인의 잘못을 지적하여 달라고 간원하는 바입니다. 그와 같이 하여 본인의 잘못을 깨닫게 되면 나의 모든 오류를 즉시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진해서 저의 저서들을 불 가운데 던져 버리겠습니다. 본인이 지금 명백히 진술한 것은 본인 자신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위험에 대하여 조심성 있게 헤아려 보고 생각한 연후에 진술한 것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인은 오늘날 복음이 옛날과 마찬가지로 물의 (物議) 와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기쁘게 여기는 바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특성으로 볼 때 필연적인 일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마 10:34) 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고도 두려운 권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분쟁을 멈추려고 함으로 도리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핍박하게 되고, 우리 자신에게 견딜 수 없는 위험과 현세의 불행과 영원한 멸망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할까 경계해야겠습니다.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많은 실례를 들 수 있습니다. 바로와 바벨론의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임금들이 그들의 나라를 외관상으로 가장 지혜롭고 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권면을 따라 노력하였을 때보다 더욱 그들 자신의 멸망을 효과적으로 초래했던 적은 없었다는 것을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들을 옮기실지라도 산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D’Aubigne, b1, ch1).

루터는 독일어로 말하였다. 그는 다시 라틴어로 같은 말을 반복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는 너무 애를 썼기 때문에 기진맥진하였지만, 그 요구대로 다시 첫 번과 같이 열렬하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일을 지도하였다. 여러 제후들의 마음은 오류와 미신으로 어두워져 있었으므로 첫 번째 진술에서는 루터의 논증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두 번째 반복하므로 그들은 루터가 역설하는 요지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완고하게도 눈을 감아 빛을 보지 아니하고 진리를 깨닫지 않고자 작정한 자들은 루터의 힘 있는 말에 대하여 분격하였다. 그의 진술이 끝나자 의회의 대변인은 화를 내어 말하였다. “너는 주어진 질문에 대하여는 대답하지 않았다. …너는 분명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야 한다. 너는 취소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취소하지 않겠느냐?”

개혁자는 대답하였다. "지존하신 폐하와 고귀하신 왕후 (王侯) 제위께서 본인에게 간단하고, 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제 본인은 대답하겠습니다. 본인은 본인의 신앙을 법왕이나 의회에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둘은 누차 잘못을 범하였으며 피차간에 모순되었다는 것이 분명히 밝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증언과 가장 분명한 논리로써 본인을 설복시킬 수 없는 한, 또한 본인이 인용한 성경 구절에 대하여 본인을 설복시킬 수 없는 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인의 양심을 승복 (承服) 시킬 수 없는 한 본인은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양심을 거슬러 말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는 그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D'Aubigne, b1, ch1).

이와 같이 그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한 기초 위에 서 있었다. 하늘의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의 위대하고 결백한 인격, 그의 마음의 화평과 기쁨은 그가 오류의 세력을 대항하여 증언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탁월성을 입증하였을 때 모든 사람에게 보였다. 잠시 동안 온 회중은 경탄한 나머지 조용해졌다. 첫 번째 대답에서 루터는 공손하고, 거의 굴욕적인 태도를 취하여 아주 낮은 음성으로 말하였다. 로마교도들은 그것을 그의 용기가 꺾이고 있는 증거라고 보았다. 또한 그들은 루터가 유예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은 그의 신앙을 취소할 전조라고 보았다. 카알 자신도 그 승려의 지친 모습, 그의 허술한 의복, 그의 꾸밈없는 진술들을 보고, 반쯤 멸시하는 태도로 "이 승려가 나를 이단자로 만들지는 못할 것이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이제 그의 힘 있고 분명한 이론은 물론이요 그가 나타낸 용기와 견인불발의 태도는 장내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황제도 감격하여 "이 승려는 참으로 대단한 담력과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말한다"고 하였다. 독일의 제후들은 자기들의 나라를 대표하여 주는 그의 태도에 대하여 일종의 자랑과 기쁨을 느끼었다.

로마교도들은 패배하여 형세가 가장 불리한 처지에 놓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자 그들은 성경에 의하지 않고 로마의 상투 수단인 위협으로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의회의 대변인은 "만일 네가 취소하지 않는다면 황제와 모든 연방은 이처럼 완고한 이단자를 어떻게 처치할 것인지 의논할 것이다"라고 선언하였다. 루터의 훌륭한 변호를 큰 기쁨으로 듣고 있던 루터의 친구들은 그 선언을 듣고 두려워 떨게 되었다. 그러나 루터는 아주 침착하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나는 결코 취소할 수 없다" (D'Aubigne, b1, ch1) 고 말하였다. 그는 의원들이 협의하는 동안, 퇴장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어떤 큰 위기가 다가온 것을 느끼게 되었다. 루터가 최후까지 굴복하지 않고 굳게 선 것은 여러 시대를 통하여 교회의 역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그에게 취소할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결정되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의회에 출두하게 되었다. 그의 주장을 부인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시 질문이 주어졌다. 그는 "본인은 이미 대답하였으므로 그 이상 다른 대답을 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아무리 권유하고 위협할지라도 로마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법왕측의 지도자들은 국왕과 귀족들까지도 두려워 떨게 했던 그들의 권력이 일개 비천한 승려에게 이처럼 무시당한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그들은 고문으로 그의 생명을 빼앗음으로 그에게 대한 그들의 분노를 알려주고자 갈망하였다. 루터는 이러한 위험을 깨닫고 위엄 있고 침착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로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그의 말에는 교만과 격렬한 감정과 허위가 조금도 없었다. 그는 자기 자신이나 자기 주위에 높은 인물들이 있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다만 그가 법왕이나 주교나 왕이나 황제보다도 더욱 초월하신 분 앞에 있는 사실을 깨달았다. 루터의 증거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엄숙하고 힘 있게 말씀하셨으므로 친구들과 원수들이 다 같이 경탄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의회에 나타나서 나라의 중신(重臣) 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셨다. 여러 명의 영주들이 루터의 주장을 공정하다고 기탄없이 말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확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오래지 아니하여 그 확신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자기가 받은 감명을 당장에 표시하지는 않았으나 스스로 성경을 연구한 후에, 장차 개혁 운동의 유력한 후원자들이 된 사람도 있었다.

선후 프리드리히는 루터가 회의장에 나타나는 것을 초조히 기다렸다. 그리고 그는 그의 진술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기쁨과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루터의 용기와 침착성과 확고부동한 태도를 바라보고, 그를 옹호할 결심을 더욱 굳게 하였다. 그는 논쟁할 때 두 편을 대조하여 보고, 법왕과 왕들과 주교들의 지혜도 진리의 능력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때에 법왕교는 그 후 각 시대를 통하여 여러 나라에 영향을 끼칠 만큼 분명한 패배를 당하였다. 법왕의 사절은 루터의 진술로 말미암아 나타난 영향을 깨닫고, 전에 없이 두려워하였고, 로마의 세력을 보존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그 개혁자를 멸망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자기의 독특한 웅변과 뛰어난 외교적 수완을 발휘하여, 한 미천한 승려 때문에 세력 있는 법왕청의 우의와 지지를 희생하는 일은 우매하고도 위험한 일이라고 젊은 황제에게 역설하였다.

그의 말은 효과를 거두었다. 루터의 답변이 있은 다음날, 카알은 선조 (先祖) 들의 정책에 따라 가톨릭을 지지하고 옹호할 결심을 알리는 자신의 교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루터가 자기의 오류에 대한 취소를 거절하였으므로, 그와 그가 가르친 이단설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조치가 취하여질 것이었다.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릇 인도된 일개 승려가 그리스도교국의 신앙을 대항하여 일어섰다. 그런 불경건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나는 나의 영토와 나의 재정과 나의 친구와 나의 육체와 나의 피와 나의 영혼과 나의 생명을 희생할 것이다. 나는 먼저 아우구스티누스 교단의 루터를 추방하여 나라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도록 포고한 후, 그와 그의 지지자들을 완고한 이단으로 규정하여 파문함으로 그들의 사업을 중단시킬 뿐 아니라

온갖 방법을 다하여 그들을 없애버리고자 한다. 나는 모든 의원들이 충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D'Aubigne, b1, ch1). 그렇지마는 황제는 루터의 통행권은 반드시 존중히 여겨져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처분이 시행되기 전에 그가 안전하게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허락되어야 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제 의원들 가운데서는 전연 반대되는 두 가지 주장이 대두되었다. 사절과 법왕측의 대표자들은 루터의 통행권이 무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마치 백 년 전의 "얀 후스처럼 그의 몸을 태운 재를 라인강에 뿌려야 한다" (D'Aubigne, b1, ch1) 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런데 독일의 제후 (諸侯) 들은 비록 법왕당이요 루터를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지마는, 이와 같은 조치가 나라의 명예를 수치스럽게 하는 일이라 하여 그처럼 공중의 신의를 무시하는 일을 반대하였다. 그들은 후스가 죽은 후에 계속하여 일어난 재난들을 지적하고, 이와 같은 두려운 재난이 독일 나라와 그들의 연소한 황제에게 반복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카알 자신도 그 졸렬 (拙劣) 한 제의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하였다. "비록 온 세계에서 신의와 명예가 그 그림자조차 없어졌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는 왕후 (王侯) 와 영주들의 심중에서 피난처를 찾아야 할 것이다" (D'Aubigne, b1, ch1). 루터의 강경한 원수들인 법왕 측에서는 시기스문트가 후스에게 행한 것처럼 루터를 처치하도록 교회의 처사에 일임해주기를 황제에게 여전히 강청하였다. 그러나 카알 5 세는 후스가 공중 앞에서 자기를 결박한 사슬을 가리키면서 황제에게 신임할 수 없는 그의 처사를 생각나게 했던 광경을 상상하고, "나는 시기스문트처럼 얼굴이 붉어지기를 원치 않는다" (Lenfant, vol1, p122) 고 언명하였다.

그러나 카알은 루터가 제시해 준 진리를 고의적으로 거절하였다. 그리고 그는 "나는 선조들의 모본을 따르기로 굳게 결심하노라" (D'Aubigne, b1, ch1) 고 기록하였다. 그는 종래에 행하여 오던 관습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기를 원치 않을 뿐 아니라, 진리와 정의의 길을 따르는 데 있어서까지도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그의 선조들이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비록 법왕교가 잔인하고 부패하였더라도 그것을 응원할 결심을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선조들이 받아들인 것보다 한 걸음 더 앞서서 빛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들이 행하지 않은 어떤 의무를 행하지도 않겠다는 태도를 취하였다.

오늘날도 그와 같이 선조들의 관습과 전통을 굳게 지키는 자들이 많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더욱 광명한 빛을 비춰주실 때에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그들은 그들의 선조들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그렇게 한다. 우리는 그러한 선조들의 처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우리들의 의무와 책임은 그들의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 탐구해 보지 않고 오로지 그 선조들의 모본에 의하여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려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을 수가 없다. 우리들의 의무와 책임은 선조들의

것보다 한층 더 중하다. 우리는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빛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지만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취고 있는 더욱 밝은 빛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요 15:22) 고 말씀하셨다. 그 같은 거룩한 능력은 루터를 통하여 독일의 황제와 제후들에게도 전하여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비추게 되자 성령께서는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탄원하셨다. 마치 빌라도가 천여 년 전에 자기의 자존심을 유지하고 인망을 얻기 위하여 마음의 문을 닫고 구주의 말씀을 저버린 것처럼, 벨릭스가 두려워 떨면서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행 24:25) 고 진리의 사자에게 말한 것처럼, 교만한 아그립바가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행 26:28) 고 고백하면서 하늘이 보낸 기별을 배척한 것처럼, 카알 5 세도 세속적 자존심과 정책상 필요에 따라 진리의 빛을 거부하기로 작정하였다.

루터를 해치기 위한 계획이 세워져 있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자 온 시중에는 큰 흥분이 일어났다. 개혁자에게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로마교가 그의 부패한 형편을 폭로시키는 일에 용감한 모든 사람들에게 행한 잔인무도한 일들을 알고 있으므로 그를 희생시킬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작정하였다. 수백 명의 귀족들이 그를 보호하겠다고 맹세하였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로마의 권력에 굴복할 의사를 표시한 황제의 포고를 공공연하게 비난하였다. 사가 (私家) 의 대문들과 공적인 장소들에는 루터를 정죄하거나 그를 옹호하는 광고들이 붙게 되었다. 그중에는 솔로몬의 의미심장한 말,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여 화가 있도다" (전 10:16) 는 문구가 쓰여 있기도 하였다. 독일 전국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보급되어 있는 루터에 대한 호감은, 만일 그에게 어떤 불공평한 처사가 이루어진다면 독일 제국의 평화는 물론이요, 그 보좌의 안전까지도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황제와 의회는 깨닫게 되었다.

작센의 프리드리히 선후는 냉정한 태도로 개혁자에게 대한 자기의 진정한 감정을 조심성 있게 감추고 있었으나, 그는 동시에 끈기 있는 경계로 그를 지키고 그의 모든 행동과 그의 원수들의 모든 일을 주목하고 있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루터에 대한 그의 동정심을 감추려고 하지 아니하였다. 루터는 제후들과, 백작 (伯爵), 남작 (男爵) 들과, 성직자와 평신자들 중의 많은 존귀한 사람들의 방문을 받았다. 스팔라틴 (Spalatin) 은 "박사의 작은 방은 찾아오는 손님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었다" (Martyn, vol1, p104) 고 기록하였다. 사람들은 그를 마치 인간을 초월한 존재인 것처럼 바라보았다. 비록 그의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자기의 양심을 거스르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달게 받고자 하는 그 고결한 정신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루터로 하여금 로마와 타협하는 일에 동의하게 하려는 매우 열렬한 운동이 일어났다. 귀족들과 선후들은 그가 이 이상 더 자기 자신의 견해를 고집하고 교리와 의회를 대항한다면

결국은 이 나라에서 추방될 것이며,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은 호소에 대하여 루터는 대답하였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공격을 받지 않고 전파될 수 없다. ...그럴진대 어떻게 그와 같은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 때문에 내가 어찌 주님께로부터, 또한 유일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날 수 있겠는가? 아니다. 나는 차라리 내 육체, 내 피, 내 생명을 버릴 것이다" (D'Aubigne, b1, ch10).

그는 다시 황제의 의견에 복종하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면 그는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었다. 그러자 그는 대답하였다. "황제와 제후들과, 아니 가장 연약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들이 나의 저서들을 시험하고 검토해 보는 데 대하여 나는 충심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 필요한 한 가지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순종하는 일이다. 성경 말씀으로 매여지고 얽혀져 있는 나의 양심을 깨뜨리고자 하지 말라" (D'Aubigne, b1, ch10). 또 다른 권고를 받고 그는 말하였다. "나는 나의 통행권을 포기하는 데 동의한다. 나는 나의 몸과 나의 생명을 황제의 손에 맡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맡길 수 없다. 결단코 맡길 수 없다" (D'Aubigne, b1, ch10). 그는 의회의 결정에 쾌히 순종하기로 뜻을 나타냈으나 의회가 성경에 의거하여 결정한다는 조건 하에서였다. 그는 계속하여 "비록 법왕이 백만의 의원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에 관해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법왕이 가진 것과 동일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 (Martyn, vol1, p110) 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친구와 원수들은 이 이상 화해를 위하여 노력할지라도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다.

만일 개혁자가 단 한 가지 점에서라도 타협하였더라면 사단과 그의 부하들은 승리를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확고부동한 태도는 교회를 해방하는 방편이 되었고 새롭고 더욱 좋은 하나의 기원 (紀元) 을 이루어 놓았다. 신앙 문제에 관하여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믿는 바를 꺼림이 없이 그대로 실천한 이 한 사람의 감화는 그 시대의 교회와 세계에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후일의 모든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의 확고하고 충성된 태도는 마지막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와 동일한 경험을 갖게 될 모든 사람에게 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은 사람의 의견이나 사단의 위력을 훨씬 초월한다. 얼마 후 루터는 황제의 권위에 의하여 집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는 이러한 통고가 있은 후 즉시 정죄의 선고가 내릴 것을 미리 알았다. 그의 앞길에 캄캄한 구름이 덮여 있었으나, 그는 보름스를 출발할 때 찬미와 기쁨으로 마음이 충만해졌다. 그는 "악마 자신이 법왕의 성채 (城砦) 를 보호하였지만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한 돌파구 (突破口) 를 만들어 주셨으므로, 사단은 주께서 자기보다 더욱 위력이 있음을 마침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D'Aubigne, b1, ch11) 고 말하였다.

루터는 보름스를 떠난 후에, 자기의 확고한 태도가 반역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황제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이 종은 사람이 의지하여 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생사와 영욕 (榮辱) 을 물론하고 온갖 일에 가장 열심으로 폐하를 순종하는 사람인 것은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증거하실 것입니다. 현세의 모든 일에 있어서는 종의 충성에 아무런 동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얻는 것과 잃어버리는 것은 구원에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문제에 관하여서는 사람이 사람에게 굴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적 문제에 있어서 굴종하는 것은 사실상 예배 행위이므로, 그것은 온전히 창조주에게만 돌려야 할 것입니다" (D'Aubigne, b1, ch11). 보름스에서 돌아갈 때 루터에게 나타낸 일반 사람들의 존경은 그가 올 때보다 훨씬 더 지대하였다. 고귀한 성직자들이 파문당한 그 승려를 환영하고, 높은 관직에 있는 관리들이 황제의 견책을 받은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다. 그는 설교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었으나 사람들의 간청에 못 이겨 설교단에 올라갔다. 그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어 두겠다고 맹세한 적이 결코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Martyn, vol1, p120) 라고 말하였다.

그가 보름스를 떠나간 지 얼마 있지 아니하여 법왕교도들은 황제를 설득시켜 루터를 반대하는 포고를 내리도록 하였다. 그 포고는 루터를 가리켜, "사단이 승려의 복장을 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D'Aubigne, b1, ch11) 고까지 비난하였다. 그리고 그의 통행권의 기한이 만료되는 즉시로 그의 사업을 종식시킬 조처를 취하도록 명령이 하달되어 있었다. 어떤 사람도 그를 보호하거나, 음식물을 주거나, 공사 (公私) 를 불문하고 말로나 행동으로 그를 응원하거나 도와주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었다. 그를 발견하는 대로 체포하여 관헌의 손에 넘겨주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옥에 가두고, 그들의 재산은 몰수당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저서들은 없애 버리도록 되어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이 포고를 위반하는 자는 모두 위에 기록한 바와 동일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고시 (告示) 되었다. 작센의 선후와 루터에게 호감을 가진 여러 제후들은 그가 출발한 후에 곧 보름스를 떠났으므로, 황제의 이 고시는 의회의 찬동을 얻었다. 법왕교도들은 개가를 불렀다. 그들은 개혁 사업의 운명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위급한 시기에 당신의 종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 루터의 운동에 대하여 일각도 방심하지 않고, 그를 구원하려고 결심한 진실하고 고결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있었다. 로마는 루터를 죽이기 전에는 결코 만족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였으므로 그를 사자의 밥이 되지 않게 하려면 숨길 수밖에 별도리가 없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작센의 프리드리히 후에게 개혁자를 보호할 계획을 세우도록 지혜를 주셨다. 성실한 친구들의 협력 아래, 선후 (選侯) 의 계획은 실행되었다. 그리하여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루터는 원수들과 친구들로부터 숨겨져 버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체포되어, 동행자들과 분리되었고, 급히 산림을 통과하여 인가에서 떨어져 있는 산성 바르트부르크 (Wartburg) 로 끌려갔다. 그의

체포와 은닉 (隱匿) 은 너무도 비밀리에 실행되었으므로, 프리드리히 후까지도 오랫동안 그 일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선후 (選侯) 자신까지도 알지 못하도록 된 것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다.

선후가 루터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한 그 일을 누설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선후는 개혁자가 반드시 안전히 숨겨 있을 줄만 알고 그것으로 만족하였다. 봄, 여름, 가을이 지나가고 드디어 겨울이 왔다. 그러나 루터는 여전히 사로잡힌 몸으로 남아 있었다. 알리안더와 그 일당은 복음의 빛이 벌써 거의 소멸되었다고 기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반대로 개혁자는 진리의 창고에서 등에 기름을 채우고 있었다. 그러므로 등불은 더욱더 밝히 비추어질 것이었다. 루터는 바르트부르크의 조용하고 안전한 분위기 속에서, 잠시 동안 싸움의 소요와 열화 (熱火) 에서 벗어나 휴식을 즐길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조용하고 평안한 처지에서 오랫동안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활동적 생애와 격렬한 투쟁 (鬪爭) 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으므로 활동하지 않고 지내기란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다. 이처럼 고독한 세월을 지내는 동안에 교회의 형편이 그의 앞에 나타났다. 그리하여 그는 “아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끝 날에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성벽이 되어 줄 것인가!” (D’Aubigne, b1, ch1) 라고 탄식하였다.

그리고 투쟁의 장소에서 몸을 피하여 있는 자신을 반성해 보고, 비겁한 자라는 비난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였다. 그는 자기 자신이 하는 일 없이 게으른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스스로를 책망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한 사람이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분량의 일을 날마다 하고 있었다. 그의 붓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한동안 그의 원수들은 루터를 침묵케 하였다고 기뻐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확실한 증거를 보고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많은 소책자가 그로 말미암아 저술되어 독일 전국에 살포되었다. 그리고 그는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함으로 자기 나라의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봉사를 하였다. 그는 거의 1 년 동안 바위투성이인 그의 “밧모섬”에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선포함과 동시에 그 시대의 오류와 죄악을 견책하였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공생애의 무대에서 물러나게 하신 것은 루터로 하여금 원수들의 분노를 피하게 하시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으며, 또한 그에게 그처럼 중대한 사업을 맡기시기 위하여 조용한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한 것만도 아니었다. 거기에는 거두어야 할 더욱 귀중한 결과가 있었다. 한적하고 격리된 산장 (山莊) 에 있으므로 루터는 세상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사람들의 칭찬에서 끊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성공에 흔히 따르는 자부심과 교만으로부터 구제되었다. 이리하여 그는 고난과 겸비를 통하여, 그가 갑자기 높임을 받으므로 현기증이 날 만큼 높은 곳에서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게끔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진리가

전해짐으로 자유를 경험하게 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류와 미신의 쇠사슬을 끊어 버리기 위하여 사용하신 그 인물들을 찬탄하는 경향을 가지기 쉽다.

사단은 사람들의 사상과 애정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켜, 사람을 바라보게 함으로 도구에 불과한 사람들을 높이 우러러보도록 유혹한다. 그리고 온갖 사건의 배후에서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무시해 버리도록 한다. 이런 경우에 흔히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의지하게 된다. 그 결과로 사람들은 지도를 받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탐구하지 않고, 지도자들을 바라보게 되며,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생각과 양심을 지배하고자 애쓰게 된다. 개혁 사업의 지지자들이 이와 같은 정신에 사로잡히게 되면, 개혁 사업은 방해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험에서 개혁 사업을 보호하고자 원하셨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은 그 사업이 사람의 사업이 아니고 당신의 사업임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려 하신 것이었다. 사람들의 눈이 루터를 진리의 해석자로 주목하게 되었으므로, 그들의 눈을 진리의 영원한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하여 그를 사람들에게서 떠나 있도록 옮기셨다.

9 장 — 스위스에서의 개혁 운동

교회의 개혁을 위하여 인물을 선택하는 데도 교회를 설립할 때와 똑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 보인다. 하늘의 교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지위 있고 부요하고 백성의 지도자로 자격을 갖춘 그러한 큰 인물들을 사용하지 아니하셨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우월감 때문에 교만하고 자부심이 강하였으므로 자기 동포들에게 동정심을 나타내거나 겸손하신 나사렛 사람과 함께 협력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무식하고, 수고하기를 좋아하는 갈릴리의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 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 4:19) 는 부르심이 주어졌다. 그 제자들은 겸손하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 사람들은 당시에 횡행하던 거짓 교훈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은 사람들이었으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저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훈련시킬 수 있으셨던 것이다. 그 사실은 위대한 종교개혁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도적 역할을 한 개혁자들은 비천한 가문의 출신들로서, 당시에 계급의식에서 오는 교만과 미신적 감화와 성직자의 이기적 책략에서 오는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은 사람들이었다. 큰 공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비천한 인재를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므로 영광은 사람들에게 돌릴 것이 아니고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기쁘신 뜻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질 것이었다.

루터가 작센의 한 광부의 집에서 태어난 지 몇 주일 후에, 울리히 츠빙글리 (Ulrich Zwingli) 가 알프스 산중에 있는 한 목자의 오막살이에서 출생하였다. 유년 시대의 츠빙글리의 환경과 교육은 그가 장래의 사명을 위하여 준비하는 데 매우 적당하였다. 그는 웅장하고, 아름답고, 숭엄 (崇嚴) 한 천연계의 품속에서 자라났다. 그러므로 그의 마음은 일찍부터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과 위대하심에 대하여 깊은 인상을 받았다. 특히 그의 고향인 산중에서 조상들이 성취한 업적과 용감한 행위에 대한 역사는 그의 젊은 욕망을 불타게 해주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을 독실히 믿는 그의 조모 곁에서 교회의 많은 전설과 고담 (古談) 에 간혹 나타나는 귀중한 성경 말씀을 들었다. 그는 흥미진진한 마음으로, 부조들과 선지자들의 위대한 업적, 팔레스틴 산촌에서 양무리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한 것, 베들레헴의 아기, 갈바리의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었다.

마틴 루터와 마찬가지로 츠빙글리의 부친도 자식의 교육에 대하여 크게 유의한 나머지, 일찍부터 그를 고향에서 내어보냈다. 츠빙글리의 지능은 너무 빨리 계발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적당한 교사를 발견하기조차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는 13 세 때, 당시 스위스에서 가장 우수한 학교가 있는 베른 (Bern) 으로 보내어졌다. 그런데 거기서 그의 전도유망한 앞길을 위협하는 위험한 사건이 생겼다. 그것은 승려들이 그를 승원으로 끌어들이고자 단호한 노력을 하였기 때문이었다. 당시에 도미니크회 (Dominican) 와 프란체스코 수도회 (Franciscan) 는 피차 더 큰

인기를 얻고자 경쟁하고 있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은 각각 그들의 교회들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화려한 의식들을 행하고, 유명한 유물 (遺物) 들과 소위 이적을 행한다는 조각한 형상들로 인기를 얻고자 애쓰고 있었다.

베른에 있는 도미니크회 승려들은 이 재간 많은 젊은 학생을 소유할 수만 있으면 그들에게 큰 명예와 이익이 있을 줄로 생각했다. 아직 나이가 어릴지라도, 말과 문필에 재간이 특출할 뿐 아니라 음악이나 시에 있어서도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는 그는 그들이 외관상으로 나타내는 화려한 모든 시위보다는 사람들을 그들의 예배에 이끌어 들여 그들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일에 더욱 효과적인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기만과 아첨으로 츠빙글리를 그들의 승원으로 이끌어 들이고자 애를 썼다. 루터는 학생 시대에 수도원의 방에 파묻혀 있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그를 해방시켜 주지 않았다면, 그는 세상에서 잃어버린 바 되었을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츠빙글리에게 그와 똑같은 위험을 당하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그의 아버지는 그 탁발승들의 계획을 먼저 알게 되었다. 그는 자기의 아들이 게으르고 무가치한 승려의 생활을 살도록 허락할 의사가 없었다. 그는 아들의 전도유망한 장래가 위태로운 것을 알고, 지체 말고 집으로 돌아오도록 지시하였다.

그는 부친의 명령을 순종하였으나, 나이 어린 그에게 고향의 산골은 만족을 줄 수 없었다. 오래지 아니하여 그는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바젤 (Basel) 로 갔다. 츠빙글리는 거기에서 비로소 값없이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게 되었다. 고어학 (古語學) 의 교사이던 비템바하 (Wittembach) 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연구하던 중 성경을 깨닫게 되고, 그의 문하에서 연구에 종사하는 학생들의 심중에까지도 하늘로부터 오는 빛을 비추어 주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학자와 철학자가 가르친 이론보다 더욱 오래되고 무한히 위대한 가치를 가진 진리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하였다. 그 오랜 진리란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인의 유일한 구속 (救贖) 이 된다는 진리였다. 이 진리는 츠빙글리에게 있어서 밝아오는 새벽의 첫 광선과 같았다. 얼마 후에 츠빙글리는 바젤에서 떠나 필생 (畢生) 의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다. 맨 처음의 일터는 고향의 산골에서 과히 멀지 아니한 알프스의 교구였다. 그는 신부로 서품을 받고, "그의 온 마음을 다하여 성경의 진리를 탐구하는 데 전념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가 맡은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치는 데는 성경을 밝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Wylie, b1, ch1).

고 동료 개혁자의 한 사람은 말하였다. 성경을 탐구하면 할수록 성경은 진리라는 것과, 로마교는 이단이라는 것이 더욱 분명하게 대조되어 나타났다. 마침내 그는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단 하나의 완전하고 오류 없는 표준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는 또한 성경은 오직 성경으로써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성경을 가지고 자기의 선입견이 되어 있는 이론이나 교리를 지지하는 설명의 도구로 삼지 아니하고 성경 자체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배울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성경의 의미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였다. 그는 성령께서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참뜻을 드러내 주신다고 말하였다.

츠빙글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착오가 없다. 그것은 진실로 광명한 것이며, 교훈 자체이며, 계시 자체이다. 그것은 구원과 은혜로써 사람의 마음을 비추어주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겸손하게 하며, 마침내 온전히 자기를 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 말의 참뜻을 츠빙글리 자신은 실제로 체험하였다. 그는 그 당시의 체험을 후일에 이렇게 기록하였다. "내가 온전히 내 자신을 성경 말씀에 바치고자 했을 때 철학과 신학 (스콜라 철학적인) 에서 오는 연상 (聯想) 이 나에게 갈등을 일으켜 주었다. 그리하여 나는 마침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너는 이러한 모든 거짓 것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단순한 말씀에 나타난 참뜻을 배워야 한다.' 그 후에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의 빛을 구하게 되었는데 그 때부터 나는 더욱 쉽게 성경을 이해하게 되었다" (Wylie, b1, ch1). 츠빙글리가 전한 교리는 루터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것이었다. 그 스위스의 개혁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루터가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면, 그는 나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루터가 그리스도에게 인도한 사람들은 내가 인도한 사람보다 그 수효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 이외에 어떠한 이름도 증거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그분의 군사이며 오직 그분만이 나의 대장이시다. 나는 단 한 구절도 루터에게 써 보낸 일이 없었고, 루터 역시 나에게 그러하였다. 그렇다면 얼마나 신기한 일인가?…우리 두 사람이 한 번도 같이 의논한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교리를 그처럼 일률적으로 말하게 된 것은 신기한 일이 아닌가? 이 사실 자체는 성령의 조화가 어떠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D'Aubigne, b1, ch1).

츠빙글리는 1516 년에 아인지델른 (Einsideln) 수도원의 설교자로 초청을 받았다. 그는 그 곳에서 로마의 부패를 더욱 잘 볼 수 있었고, 개혁자로서의 감화를 고향 알프스 지역을 넘어 멀리까지 발휘하게 되었다. 아인지델른의 명물은 동정녀 마리아의 상 (像) 이었는데, 그것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다는 소문까지 나 있었다. 수도원 입구에는 "이 곳에서 완전한 속죄를 얻을 수 있다" (D'Aubigne, b1, ch1) 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이 마리아 상이 안치되어 있는 전각에는 언제나 순례자가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연중의 대절기의 기간이 되면 스위스의 국내에는 말할 것도 없고 멀리 프랑스와 독일에서까지 많은 군중이 모여 왔다. 츠빙글리는 이러한 광경을 보고 매우 고통스럽게 느꼈으나, 그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 미신의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은 자유를 전파하게 되었다.

그는 말하였다. "다른 아무 곳보다도 이 성전에 특별히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대들이 거주하는 나라가 어디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의 주위에 계시며, 그대들의 소원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 ...그대들은 고행 (苦行), 먼 길의 순례, 헌물, 성상 (聖像), 동정녀 마리아와 성도들의 기도 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긴 기도에 어떤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번쩍번쩍하는 두건 (頭巾), 반반하게 민 머리, 치렁치렁 끌리는 옷, 금박으로 아로새긴 덧신,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가?...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분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영원히 보상하신 희생 제물이 되신다" (D'Au-bigne, b1, ch1).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설교는 환영을 받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괴로운 여행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말을 듣고 크게 실망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값없이 제공된 죄의 사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로마교가 지시해준 그대로 천국에 가는 옛길을 따라가는 일을 만족하게 여기었다. 그들은 그보다 더 좋은 길을 찾는 것을 번거롭게 여기고 싫어하였다. 마음의 정결을 구하는 것보다 법왕과 신부에게 그들의 구원을 의탁하는 것이 더욱 쉬웠다. 그러나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을 얻는다는 소식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로마교의 의식들을 지킴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은 믿음으로 구주의 피를 그들의 죄를 사유하기 위하여 흘리신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받은 귀중한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었다. 그리하여 진리는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 고을에서 저 고을로 퍼졌으며, 그 결과 마리아의 전당 (殿堂) 을 찾아가는 순례자들의 수는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따라서 예물의 액수도 감소되었으며 거기서 지출되는 츠빙글리의 봉급도 감소되었다. 그러나 광신 (狂信) 과 미신의 세력이 깨어지는 것을 볼 때, 그것은 그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뿐이었다.

교회의 당국자들은 츠빙글리가 하고 있는 일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얼마 동안은 간섭하기를 피했다. 그들은 그를 그들의 편에 머물러 두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첨하는 말로써 그의 마음을 사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진리는 더욱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아인지델른에서의 츠빙글리의 활동은 넓은 분야의 사업을 위하여 그를 준비시켜 주었다. 오래지 않아서 그는 그 일에 착수할 것이었다. 3 년 후에 그는 취리히 (Zurich) 대성당의 설교자로 임명되었다. 취리히는 그 당시 스위스 연방 (聯邦) 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으므로 여기에서 나타내는 영향력은 멀리까지 미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를 취리히로 초대한 교직 (敎職) 들은 혁신적인 교리가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므로 츠빙글리의 의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시를 하였다. "그대는 가장 적은 액수의 연금이라도 이를 등한히 여기지 말고 교회의 수입으로 삼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대는 강단에서나

참회소에서나 신도들에게 그들의 십일조와 그밖의 회비를 드리도록 장려함으로 연금으로써 그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도록 하라. 그대는 병자들이 드리는 연금이나 미사와 여러 가지 의식을 행할 때에 드리는 모든 연금으로써 수입을 증가시키는 일에 열심을 다하라. 의식을 행하는 것과 설교를 하는 것, 교인들을 돌보는 것 등은 목사의 직무이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그 일을 전담한 목사의 의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그런 일들은 그에게 맡기되, 특히 설교 같은 것은 대리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좋다. 그대는 다만 지위와 명망이 있는 자들에게만 의식을 집행하되, 의뢰할 때에만 이를 행하고 아무에게나 차별 없이 해서는 안 된다" (D'Aubigne, b1, ch1).

츠빙글리는 잠잠히 자기의 책무에 대하여 들은 후에, 먼저 이러한 중요한 위치에 부름을 받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뜻으로 감사의 말을 하고, 다음에 그가 취할 방침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매우 오랫동안 사람들에게서 감추어졌다. 그러므로 나는 마태복음을 전부 설교의 재료로 삼되...거룩한 말씀의 샘에서 온전히 이를 길어내고, 그 깊이를 측정하면서 절들을 서로 비교하여 이해하기 위하여 항상 열심으로 기도할 생각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독생자를 찬양하고, 영혼들의 참된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저들의 참 신앙 안에 굳게 서도록 해주기 위하여 나는 성직에 헌신할 것이다" (D'Aubigne, b1, ch1). 비록 성직자들 중의 어떤 사람들은 그의 계획을 인정하지 않고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강권하였지만, 츠빙글리는 단호하게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어떤 새로운 방침을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고 보다 순결하던 초창기의 교회에서 이미 실천했던 옛 방침을 따르는 데 불과하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벌써 그가 가르친 진리에 대한 흥미가 생겼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 몰려왔다. 청중들 가운데는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않던 사람들도 있었다. 그는 복음서를 펴고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과 죽음에 대한 영감적인 이야기를 읽어 주고 설명해 주는 것으로 봉사를 시작하였다. 그는 아인지델른에서 한 것과 같이 여기에서도 성경 말씀만이 그릇됨이 없는 유일한 권위의 말씀이며,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완전한 희생이라고 강조하였다. "나는 그대들을 참된 구원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께로만 인도하는 일을 원한다" (D'Aubigne, b1, ch1) 고 그는 말하였다. 그 설교자의 주위에는 정치가들과 학자들로부터 기술자와 농부들에 이르기까지 온갖 계급의 사람들이 모였다. 그들은 깊은 흥미를 가지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값없이 받을 수 있는 구원을 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죄악과 부패에 대하여 기탄없이 견책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성당에서 돌아갔다. 그들은 "그 사람이야말로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애굽의 암흑에서 인도해 낼 우리의 모세가 될 것이다" (D'Aubigne, b1, ch1) 고 말하였다.

처음에는 그의 활동이 크게 환영을 받았으나, 얼마 후에는 반대가 일어났다. 승려들은 그의 사업을 방해하고 그의 교훈을 정죄하기로 작정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조소와 비난으로 그를 공격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무례한 말과 협박으로 그를 대하였다. 그러나 츠빙글리는 모든 일을 인내하면서 "우리가 악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려면 여러 가지 일에 눈을 감지 않으면 안 된다" (D'Aubigne, b1, ch1) 고 말하였다. 그 즈음에 개혁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한 사람이 들어 왔다. 바젤에 있는 개혁 신앙을 가진 한 친구에 의하여 루시안 (Lucian) 의 한 사람이 루터의 저서 몇 권을 가지고 취리히로 파송되었다. 그를 보낸 친구는 그 책들을 파는 것이 복음의 빛을 전하는 데 유력한 방편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츠빙글리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하였다. "이 사람의 신중하고 슬기로운 마음에 대하여는 제가 보증합니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견해가 저와 같다면 그로 하여금 루터의 저서를 가지고 온 스위스 나라의 도시와 읍과 촌락을 방문하되, 집집마다 빠짐없이 방문하게 하고, 책은 특별히 일반 백성들을 위하여 저술한 '주의 기도문의 주해'가 적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더 많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들은 더욱 많이 사게 될 것입니다" (D'Aubigne, b1, ch1). 하나님께서 무지와 미신의 속박을 깨뜨리고자 준비하고 계시는 바로 그 때에, 사단은 사람들을 암흑 가운데 묻어 두고, 그들의 속박을 더욱 굳게 하기 위하여 더욱 큰 힘으로 일하였다. 사람들이 여러 같지 아니한 곳에서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사유와 칭의를 얻는다고 가르치고 있을 때 로마교는 모든 그리스도교국에서 새로운 능력으로 거래소를 열고, 면죄부를 팔기 시작하였다.

모든 죄는 그 값이 정해져 있었으며, 교회의 금고만 채워진다면 사람들은 자유롭게 범죄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두 가지 운동이 전개되었다. 하나는 돈을 받고 죄를 용서하여 준다는 운동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용서해 준다는 운동이었다. 로마교는 죄를 인허해 줌으로 자기들의 재원 (財源) 이 늘어났고, 개혁자들은 죄를 견책함으로 그리스도를 속죄주와 구주로 지적하였다. 독일에서는 면죄부의 판매가 도미니크회 승려들에게 위탁되어 테첼 (Tetzel) 이라는 평판 나쁜 사람으로 말미암아 행해졌다. 그러나 스위스에서는 그 일을 이탈리아의 승려 삼손 (Samson) 이라는 자의 지휘 아래 프란체스코 수도회에서 주관하였다. 삼손은 독일과 스위스에서 막대한 금품을 모집하여 법왕의 금고를 채워 줌으로써 교회를 위하여 이미 큰 공적을 나타낸 사람이었다. 그는 스위스를 순회하면서 많은 군중을 모았는데, 빈궁한 농민들로부터는 애써 벌어놓은 적은 돈을 빼앗았고, 부요한 계급의 사람들로부터는 거액의 금전을 착취하였다. 비록 종교 개혁의 영향이 이러한 부당한 매매를 정지시키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벌써 그 수입을 적지 않게 감소시켰다. 츠빙글리가 아직 아인지델른에 있을 때에 삼손은 스위스로 들어왔으며, 그는 곧 면죄부를 가지고 이웃 고을까지 접근해 왔다. 그 소문을 듣고, 개혁자는 그 일을 반대하기 위하여 곧 떠났다. 그 때에

두 사람이 만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그 승려의 거짓을 폭로하여 그로 하여금 다른 지방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함으로 츠빙글리는 성공을 거두었다.

츠빙글리는 취리히에서 면죄부의 판매인을 반대하여 열렬하게 설교하였다. 삼손이 읍 가까운 곳까지 왔을 때에 의회에서 한 사자를 보내어 그가 물러가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는 모략을 써서 마침내 그 곳에 들어오기는 하였으나 한 장의 면죄부도 팔지 못하고 퇴거당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곧 스위스를 떠나갔다. 1519 년에 스위스의 전국을 휩쓴 큰 역병은 개혁 사업을 촉진 (促進) 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사람들이 이러한 두려운 질병에 직면하게 되자, 그들은 얼마 전에 저들이 사 둔 면죄부가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 실제로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더욱 확실한 신앙의 토대를 갈망하게 되었다. 취리히에서 츠빙글리는 병에 걸려 거의 회복될 가망이 없을 만큼 위독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가 죽었다는 소문까지 퍼지게 되었다.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츠빙글리는 희망과 용기를 조금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는 믿음으로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보았으며, 죄의 값을 완전히 갚아 주실 것을 신뢰하였다. 사경 (死境) 에서 회복되자 그는 전에 없던 열성으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의 말에는 비상한 능력이 있었다. 존경하는 목자가 거의 죽을 뻔하였다가 회복되었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기쁨으로 맞이하였다. 그들은 병자들을 간호하거나 죽은 자들의 곁에 서 있기도 하였으므로, 이전보다 복음의 가치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다.

이미 츠빙글리는 복음의 진리를 한층 더 분명히 이해하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능력을 스스로 완전히 체험하였다. 그리하여 인류의 타락과 구속의 계획은 그가 몰두하여 연구하는 제목이 되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모두 죽었고, 타락과 정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었다” (Wylie, b1, ch1). “그리스도께서는 그 영원한 속량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분의 수난은...영원한 희생이요...또한 우리를 고쳐 주시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그것은 굳게 서서 움직이지 않는 믿음으로 그분을 의뢰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영원히 충족시켜 준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죄를 계속적으로 범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 가르쳤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는 반드시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도록 강권하고 강요하는 열심이 있다” (D’Aubigne, b1, ch1).

츠빙글리의 설교는 매우 흥미로웠으므로 그의 설교를 들으러 오는 무리들로 그 큰 성당은 언제나 가득하였다. 그는 청중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조금씩 조금씩 진리를 가르쳐 주었다. 그는 처음부터 그들을 놀라게 하거나 편견을 일으킬 점을 가르치지 않기 위하여 조심하였다. 그의 일은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교훈 가운데로 이끌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그리스도의 모본을 저들 앞에 보여 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복음의 원칙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가졌던 미신적인 신앙을 자연히 내어 버리도록 해주는 일이었다.

한 걸음 한 걸음 개혁 사업은 취리히에서 발전되었다. 원수들은 놀라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 일 년 전에 비텐베르크의 한 승려는 보름스에서 황제와 법왕에게 "아니라"는 말을 하였는데, 이제 취리히에서도 모든 일에 있어서 법왕의 주장에 반대하는 듯한 경향이 생기게 되었다. 츠빙글리를 향하여 공격이 거듭되었다. 법왕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지방에서는 때때로 복음의 사도가 화형에 처해졌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들은 이단의 교사를 침묵시켜야만 했다. 마침 그 때에 콘스탄스의 감독은 세 사람의 사절을 취리히의 의회에 파견시켜 츠빙글리가 교회의 법규를 범하도록 사람들을 가르침으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고소하였다. 그는 만일 교회의 권위가 무시되면, 무정부 상태가 초래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그러나 츠빙글리는 그가 과거 4 년간 취리히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는데, "취리히는 그 연합국 안의 어떤 다른 도시보다 조용하고 평안하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그는 계속하여 "그러므로 그리스도교는 일반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가장 잘 보존해 주지 않느냐" (Wylie, b1, ch11) 고 말하였다.

사절들은 취리히의 의원들에게 교회에 머물러 있도록 권고하고,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자 츠빙글리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그대들은 이러한 고소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를 충실히 증거한 베드로에게 이름을 주신 바로 그 반석되신 그리스도이시다. 어떠한 나라에서든지 참 마음으로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납해 주신다. 진실로 여기에 교회가 있으니, 이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D'Aubigne, London ed., b1, ch11). 그 회의의 결과로 감독의 사절들 중의 한 사람이 개혁파의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 회의는 츠빙글리에 대한 조처를 취하기를 거절하였으므로 로마는 새로운 공격을 하고자 준비하였다. 그 개혁자는 원수들의 음모를 깨닫고 부르짖었다. "쳐들어오려면 오너라. 마치 파도가 끊임없이 절벽 아래로 밀려올지라도 그 절벽은 우뚝 솟아있는 것처럼 나는 그들로 인하여 요동하지 아니할 것이다" (Wylie, b1, ch11). 그리하여 교회의 지도자들의 노력은 오히려 그들이 박멸하고자 하는 복음 사업을 도리어 발전시키는 결과를 내었다. 진리는 계속적으로 확장되었다. 독일에서 개혁 사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루터의 행방불명으로 한 때 낙담하였으나, 스위스에서 복음 사업이 발전되는 것을 보고 그들은 다시 기운을 회복하게 되었다. 취리히에서 개혁 사업이 확립됨에 따라서 범죄 행위는 자취를 감추게 되고 질서와 조화가 촉진되므로 개혁 사업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츠빙글리는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실로 우리 도시는 평안하다. 다툼도 없고, 위선도 없고, 시기도 없고, 투쟁도 없다. 무엇이 이와 같은 연합을

가져올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화평과 경건으로 가득 채워 주는 우리 주님과 우리의 교회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다" (Wylie, b1, ch15).

개혁 사업이 점점 승리를 얻어 감에 따라 법왕당은 이를 박멸하려고 더욱 결심을 굳게 하였다. 박해가 독일에서 진행되는 루터의 운동을 진압하는 데 별반 효과가 없는 것을 보았으므로 그들은 개혁파의 무기를 가지고 개혁파를 대항하고자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츠빙글리와 토론을 하기로 작정하고, 그 일을 주선함에 있어서도 토론할 장소뿐만 아니라 토론자들을 판정할 심판자들까지도 자기들 스스로 선택함으로 분명히 승리를 확증하고자 했다. 그들은 츠빙글리가 일단 그들의 손에 들어오기만 하면 기어이 놓치지 않겠다고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지도자만 침묵시키면, 그 운동이 곧 탄압될 줄로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 목적은 조심스럽게 감추어졌다. 토론은 바덴 (Baden) 에서 하도록 결정되었다. 그러나 츠빙글리는 거기에 참석하지 않았다. 취리히의 의회는 법왕당의 계획을 의심하게 되었고, 또한 믿노라고 고백한 사람들에 대하여 법왕의 교구에서 화형에 처한다는 경고를 받았으므로 그들의 목사를 이와 같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금하였다. 취리히에서는 로마에서 파견된 아무리 당파심이 강한 사람과도 만날 준비가 그에게는 되어 있었다. 그러나 진리를 위하여 흘린 순교자의 피가 아직도 마르지 아니한 바덴으로 가는 것은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마침내 에콜람파디우스 (Ecolampadius) 와 할러 (Haller) 가 개혁파를 대표하여 출석하게 되었고, 한편으로 많은 유식한 박사들과 주교들의 지지를 받는 에크 (Eck) 박사가 로마측의 대표로 서게 되었다.

비록 츠빙글리가 그 곳에 출석하지는 않았으나 그의 위력은 회의석까지 미쳤다. 서기는 전부 법왕당에 의하여 선출되었고, 그 이외의 사람은 필기를 못하도록 금지되어서 이를 범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기로 되었다. 그럴지라도 츠빙글리는 매일 바덴에서 어떠한 것이 토론되었는지에 대하여 상세한 보고를 받았다. 토론장에 출석한 한 학생은 매일 저녁 그날에 있었던 토론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는 다시 다른 두 학생으로 말미암아 에콜람파디우스의 편지와 함께 날마다 취리히에 있는 츠빙글리에게 전달되었다. 동시에 츠빙글리는 거기에 대한 회답으로 적당한 조언 (助言) 과 권고를 보내었다. 그의 글은 밤에 기록되었는데, 연락하는 학생들은 그것을 가지고 이튿날 아침 바덴으로 돌아왔다. 도시의 문을 지키는 파수꾼을 피하기 위하여 그 심부름꾼들은 가금 (家禽) 을 넣은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들어갔으므로 아무런 지장이 없이 잘 통과되었다. 츠빙글리는 이러한 방법으로 교활한 대적과 싸울 수 있었다. 뮈코니우스 (Myconius) 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는 명상과 철야와 바덴으로 보낸 조언 (助言) 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직접 원수들의 진중에서 토론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일을 하였다" (D'Aubigne, b11, ch13).

법왕당의 사람들은 예상된 승리에 들떠서 찬란한 보석과 주옥 (珠玉) 으로 장식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의기양양하게 바덴으로 왔다. 그들의 식탁 위에는 극히 값진 술과 온갖 진미가 차려져 있었다. 그들은 이러한 주연과 환락으로 성직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경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개혁파들은 사람들에게 걸인의 무리와도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보였으며, 그 식사도 너무나 보잘것없었으므로 식탁에 오래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었다. 에콜람파디우스의 여관집 주인은 언제 보든지 그가 자기 방에서 연구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는 것을 발견하고, 참으로 이상하게 여겼으며, 무의식중에 그 이단자는 매우 "근엄하고 경건하다"고 말하게 되었다.

회의장에서 "에크는 거만하게 강단으로 올라갔으나, 겸손한 에콜람파디우스는 검소한 의복을 입고 에크의 앞에 있는 변변치 않은 걸상에 앉았다." (D'Aubigne, b11, ch13). 에크는 소리를 지르면서 오만 불손한 태도를 계속하였다. 에크는 로마의 신앙을 옹호하는 데 성공하면 막대한 상을 받기로 약속되어 있었으므로, 그의 열성은 그 명예욕과 금전욕에 자극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토론에 실패하게 되면, 그는 조롱과 모멸 (侮 蔑) 을 퍼붓고 저주까지 하였다. 에콜람파디우스는 신중한 태도로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논쟁을 피하였다. 그리고 그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어떠한 심판의 표준도 시인할 수 없다" (D'Aubigne, b11, ch13) 는 엄숙한 말로 토론에 들어갔다. 비록 에콜람파디우스는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를 가졌지만, 그는 유능하고 굴하지 않는다는 것이 스스로 입증되었다. 로마 교도들은 그들의 상투 수단으로 교회의 권위와 관련에 의하여 호소하였으나 개혁자는 성경을 굳게 고수하였다. "우리 스위스에서는 헌법에 일치되지 않는 한 관습은 아무런 힘이 없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성경이 우리의 헌법이다" (D'Aubigne, b11, ch13) 라고 그는 말하였다.

두 토론자의 대조적인 모습은 효과가 없지는 않았다. 신중하고 온유한 태도로 순순히 말하는 개혁자의 분명하고 조용한 논조는 에크의 거만하고 시끄러운 억설에 혐오감을 가졌던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었다. 그 토론은 18 일간 계속되었다. 그 토론이 마칠 때 법왕당은 그들이 승리한 것으로 확신하고 그 사실을 주장했다. 토론자들의 대부분은 로마 편이었다. 의회는 개혁파의 패배를 선언함과 동시에 개혁파의 무리는 그들의 지도자 츠빙글리와 함께 교회에서 끊어졌다고 포고하였다. 그러나 회의의 결과는 어느 편이 유리하였는지 보여 주었다. 그 토론의 결과로 개신교의 사업이 더욱 강해져서 미구에 베른과 바젤 두 주요한 도시가 개혁 사업을 지지한다고 선언하였다.

10 장 — 독일에서의 개혁 운동의 발전

루터의 이해할 수 없는 실종은 독일 전역을 경악시켰다. 어디를 가든지 그에 대한 의문이 화제에 올랐다. 기괴한 소문들이 퍼져 나갔고, 많은 사람들은 그가 살해되었다고 믿었다. 표면에 나선 친구들뿐 아니라 지금까지 개혁 운동에 공공연하게 가담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까지도 크게 슬퍼하여 탄식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죽음에 대하여 복수를 하고야 말겠다는 맹세로써 스스로를 속박시켰다.

로마교의 지도자들은 그들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이 어느 정도 악화되었는지를 알고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루터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처음에는 기뻐하였지마는, 이제는 사람들의 분노를 피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루터의 원수들은 루터가 그들 가운데서 아무리 대담한 행동을 하였을 때에라도 그가 종적을 감추게 된 지금처럼 곤란을 당하지 않았다. 격분한 나머지 용감한 개혁자를 죽여 버리려고까지 꾀하던 그들도 그 개혁자가 자유롭지 못한 몸이 되어 있는 지금에는 큰 공포를 느끼었다.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횃불을 켜 가지고 온 세상을 뒤져서라도 루터를 찾아내어, 그를 찾고 있는 나라에 돌려주는 일이다” (D’Aubigne, b1, ch1) 고 말하기까지 되었다. 황제의 칙령도 그 위력이 땅에 떨어진 것처럼 보였다. 법왕의 사절들은 사람들의 관심이 황제의 칙령에보다는 루터의 운명에 더욱 강하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였다.

그가 포로의 몸으로 있을지라도 안전하게 있다는 소식을 듣자, 사람들의 염려는 진정되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열성은 한층 더 높아졌다. 그의 저서는 전보다 더욱 큰 열심으로 읽혀졌다. 그처럼 두려운 공격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옹호하여 온 그 영웅 편에 가담하는 사람들의 수는 날로 증가되어 가고 있었다. 개혁 운동은 점차로 세력을 얻어 가고 있었다. 루터가 뿌린 씨는 각 곳에서 싹이 났다. 그가 있을 때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이 그가 없는 동안에 완성되었다. 다른 동역자들은 그들의 위대한 지도자가 없어진 지금에 새로운 책임감을 느꼈다. 그들은 새로운 신앙과 열심으로 이미 시작된 고귀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그들의 온 힘을 다하여 추진해 나갔다.

그러나 사단도 결코 가만히 서서 보고 있지는 않았다. 그는 이제 온갖 개혁 사업에서 시험해 본 것을 사용하고자 하였다. 그는 참된 개혁 사업 대신으로 거짓 것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속이고 멸망시키고자 했다. 마치 그리스도교회의 제 1 세기에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났던 것처럼 16 세기에도 허다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다. 종교계에 일어난 동요로 깊은 감동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루터가 미약하게 시작한 개혁 사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임명을 받았노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그들은 루터가 이루어 놓은 바로 그 사업을 헐어 버리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행위의 완전한 표준이 된다는 개혁 사업의 바로 기초가 되는 위대한 원칙을 부인하고, 그러한 과오 없는 지도 원칙 대신에 그들의 변하기 쉽고 확실성이 없는 감정과 생각을 따랐다. 그리고 이처럼 오류와 기만을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해 버리는 행동에 의하여 사단이 마음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 중의 한 사람은 자기가 천사 가브리엘의 가르침을 받았노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와 연합한 한 학생은 공부하던 것도 내버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노라고 주장하였다. 원래부터 광신적 경향을 가진 여러 사람들은 그들과 연합하였다. 이와 같은 광신자들의 행동은 큰 물의를 일으켰다. 루터의 설교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각 곳에서 개혁의 필요를 크게 자각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정직한 몇 사람들이 그 새로운 선지자들의 속임에 미혹되었다.

그리고 그 운동의 지도자들은 비텐베르크로 가서 멜란히톤과 그의 동지들에게 자기들의 주장을 강요하였다. 그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백성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담화를 나누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도요 선지자들이다. 그러므로 루터 박사에게 호소하고자 한다" (D'Aubigne, b1, ch1).

개혁자들은 놀라고 당황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은 처음으로 당하는 일이었으므로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멜란히톤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 사람들에게는 실로 비상한 신들이 역사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무슨 신들인가?...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할까 주의하는 한편 사단의 영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D'Au-bigne, b1, ch1). 새 교리의 열매는 오래지 않아 나타났다. 사람들은 성경을 등한히 여기거나 완전히 버리도록 지도되었다. 학교들은 혼란 가운데 빠졌다. 학생들은 모든 규칙을 무시하고 공부를 팽개치고, 대학들을 버리고 나오게 되었다. 개혁 사업을 부흥시키고 지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은 그 사업을 파멸로 인도하는 데 성공하였을 뿐이었다. 법왕당들은 이제 신임을 다시 얻게 되었으므로, 매우 기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싸우면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된다" (D'Aubigne, b1, ch1) 고 부르짖었다. 루터는 바르트부르크에서 일의 전후 사정을 듣고 크게 염려하였다. "나는 사단이 이와 같은 재난을 가져올 것을 미리부터 예기하고 있었다" (D'Au-bigne, b1, ch1) 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거짓 선지자들의 진상을 깨닫고, 그것이 진리의 사업을 위협할 위험을 보았다. 법왕과 황제의 반대도 그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보다 더 크지 않았다. 소위 개혁 사업의 동지라고 공언하는 자들 가운데서 가장 악한 원수가 일어났다. 그에게 그처럼 큰 기쁨과 위로를 가져다주었던 바로 그 진리가 교회 안에서 투쟁을 일으키고 혼란을 빚어내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다.

개혁 사업에서 루터는 하나님의 성령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되었지만, 사사로운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 그는 그가 얻은 위치를 의도적으로 취한 것이 아니었고, 그처럼 갑작스런 변화를 거의 예상한 적도 없었다. 그는 다만 무한하신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사업의 결과 때문에 간혹 떨었다. 그는 한 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가르친 교리는 그 자체가 복음이므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일 그 교리가 단 한 사람이라도, 비록 아무리 비천한 한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손해를 주었다면 나는 그것을 취소하겠다. 만일 그렇게 못한다면 나는 열 번이라도 죽겠다" (D'Aubigne, b1, ch1). 그런데 개혁 사업의 중심지인 비텐베르크는 바야흐로 광신과 불법의 세력 아래 들어가고 있었다. 이처럼 두려운 사태는 루터의 교훈의 결과가 아니었지만 독일 전국에서 그의 원수들은 그 책임을 그에게 돌리고 있었다. 마음의 고통을 안고 그는 "이 위대한 개혁 사업의 결과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D'Aubigne, b1, ch1) 라고 이따금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 보았다. 그리고 그가 기도로써 다시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평안한 마음을 얻었다. "이 사업은 나의 사업이 아니고 당신의 사업입니다. 당신은 미신과 광신으로 이 사업이 더럽혀지도록 허락하셔서는 안 됩니다"라고 그는 기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를 당하여 투쟁에서 물러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 그는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비텐베르크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지체하지 않고 위험한 여행을 떠났다. 그는 황제로부터 파문을 선고 받고 있었다. 원수들은 마음대로 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었고, 친구들은 그를 도와주거나 보호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정부는 그의 동지들에게 특별히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복음 사업이 위기에 빠진 것을 알고, 대담하게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진리를 위한 싸움에 출전하였다. 루터는 선후 (選侯) 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르트부르크를 떠나는 이유를 밝힌 다음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전하여, 내가 비텐베르크에 나가는 것은 군주 (君主) 와 선후들보다 더욱 높으신 이의 보호를 받고 나간다는 사실을 알아주십시오. 나는 전하의 지지를 간청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전하의 보호를 바라는 것은 더욱 아니며 오히려 전하를 보호해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만일 전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면 나는 비텐베르크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 사업은 검으로 진전될 사업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의 도움과 협력 없이 홀로 그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가장 큰 신앙을 가진 사람은 가장 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D'Aubigne, b1, ch1).

비텐베르크를 향하여 가는 도중에 기록한 두 번째 편지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전하의 비위를 거스르고 온 세상의 분노를 받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텐베르크의 주민은 나의 양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도 나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그들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겠습니까? 그 외에, 나는 독일에서 어떤 무서운 소요가 일어나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멸하실까 두려워합니다"

(D'Aubigne, b1, ch1). 극히 신중하고 겸손한 태도로, 그러면서도 단호하고 확고한 태도로 그는 일을 시작하였다. 그는 말하였다. "폭력으로 세워진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뜨리고 파괴해야 한다. 나는 미신적이거나 불신적인 사람들에 대하여 폭력을 쓰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 신앙의 근본 요소는 자유이다" (-D'Aubigne, b1, ch1). 루터가 돌아와서 설교를 한다는 말이 비텐베르크에 즉시 퍼졌다. 그리하여 군중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어 교회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졌다. 그는 강단에 올라가서 매우 지혜롭고 부드럽게 교훈하고, 권면하고, 훈계하였다. 어떤 사람들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미사를 폐지하고자 했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미사는 부당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대하십니다. 그것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나는 온 세계에서 복음이 가르친 성만찬 예식을 미사 대신으로 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폭력으로 폐지하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 일을 행할 것이지 우리가 행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고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도공 (陶工) 이 진흙을 가지고 마음대로 무엇을 만드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지배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우리는 말할 권리를 가졌으나 행할 권리는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다만 말로 전하는 것뿐이며, 그 밖의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만일 내가 폭력을 사용하였다면 무엇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찡그린 얼굴, 형식, 억지로 따라 하는 일, 인위적인 제도, 위선뿐일 것입니다. 거기에는 성실한 마음도, 믿음도, 사랑도 없을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결핍되면 모든 것이 결핍됩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쓸데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와 온 세상이 연합하여 발휘하는 힘보다 더욱 큰 힘을 당신의 말씀만으로도 발휘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붙잡으시는데, 사람의 마음이 그분에게 붙잡히게 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

나는 설교하고, 토의하고, 저술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강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의 자발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 온 일을 보십시오. 나는 법왕과 면죄부와 법왕당을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그러나 폭력이나 폭동으로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설교하고, 저술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내가 전한 그 말씀이 법왕교를 전복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선후 (選侯) 나 황제일지라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아무 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다하였습니다. 만일 내가 폭력에 호소하고자 했다면, 온 독일은 피로써 홍수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그 결과가 어떠하였겠습니까? 육체와 영혼을 모두 파멸과 폐허 속으로 몰아넣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 세상에 전해지도록 하였을 뿐입니다" (D'Aubigne, b1, ch1).

루터는 1 주일 동안 날마다 열성 있는 그 청중들을 향하여 설교를 계속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광신적인 흥분을 가라앉혔다. 복음의 위력이 미혹에 빠진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하였다. 루터는 본래, 그처럼 큰 악을 빚어낸 광신도들과 대결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들은 건전치 못한 판단력과 세련되지 못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므로 비록 그들이 하늘로부터 특별한 빛을 받았노라고 주장하지만, 지극히 작은 반박이나 더없이 친절한 경책과 권고에도 견디지 못하는 자들임을 그는 잘 알았다. 그들은 그들에게 최상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아무런 의심 없이 그들의 주장을 시인하기를 요구한다. 그런데 그들이 루터와 만나고자 요청하였으므로 그는 그들과 만나기로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루터가 그들의 거짓을 성공적으로 폭로시켰기 때문에 그 사기꾼들은 즉시 비텐베르크를 떠났다. 광신주의는 한동안 저지되었다. 그러나 몇 년 후에 그것은 더욱 큰 세력으로 나타나서 무서운 결과를 빚어냈다. 그 운동의 지도자들에 관하여 루터는 말하였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죽은 글에 불과하므로 그들은 모두 '성령, 성령'이라고 부르짖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영이 그들을 인도하는 곳으로 결코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나를 자칭 성도들만이 있는 그 교회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바란다. 나는, 죄를 인정하고 두려워하면서 항상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얻고자 신음하고 부르짖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든 자들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 (D'Aubigne, b10, ch10).

광신자들 중에서 가장 활동적인 토마스 뮌처 (Thomas Munzer) 는 상당히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다. 바른 지도를 받았다면 그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참 종교의 근본 원칙들을 배우지 못하였다. "그는 세상을 개혁할 열망을 가졌으나, 일반적으로 모든 광신자들처럼, 개혁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D'Aubigne, b1, ch1). 그는 지위와 세력을 얻기를 열망한 나머지 심지어 루터에게까지라도 뒤떨어지기를 싫어하였다. 그는 개혁자들이 법왕권 대신에 성경의 권위를 세우는 것은 일종의 다른 형식의 법왕권을 수립하는 데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자기 자신을 참 개혁을 일으키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임명받은 자라고 주장하였다. 뮌처는 "개혁의 정신을 가진 자는 비록 일생 동안에 성경을 결코 보지 아니할지라도 참된 신앙을 가지게 된다" (D'Aubigne, b10, ch10) 고 말하였다.

이와 같은 광신적인 교사들은 그들 자신을 완전히 감정의 지배 아래 두고 모든 생각과 충동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심히 극단적으로 나갔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태워버리면서 "의문 (儀文) 은 죽이지만 성령은 살린다"고 외치기까지 하였다. 뮌처의 가르침은 놀라울 정도로 사람의 욕망에 호소하는 힘이 있었다. 한편으로 그것은 사람의 사상과 의견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욱 높은 위치에 놓게 함으로 그들의 자부심을 만족시켜 주었다. 무수한 사람들이 그의 교리를 받아들였다. 오래지 아니하여 그는 공중 예배의 모든 질서를 비난하고, 제후 (諸侯) 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과 벨리알을 동시에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법왕권의 멍에에서 벗어나고 있었으며 또한 국권의 속박에 견딜 수 없게 되어 있었다. 뮌처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혁명적인 교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온갖 억제와 구속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들의 편견과 감정에 사로잡히게 하였다. 그리하여 가장 무서운 소란과 투쟁이 뒤를 이었고, 독일의 땅들은 피로써 적시어졌다.

루터는 광신의 결과로 개혁 운동이 비난을 받는 것을 보았을 때, 오래 전에 그가 에르푸르트에서 당한 마음의 번민보다 배나 더 심하게 받게 되었다. 법왕당의 제후들은 그 반란이 루터의 교리가 가져온 필연적 결과라고 주장하였고, 많은 사람들도 그들의 진술을 믿으려고 하였다. 비록 이와 같은 비난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었지마는 개혁자의 마음에는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었다. 진리의 사업이 가장 비열한 광신주의와 동일하게 보일 만큼 가치가 떨어져야 한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로 생각되었다. 다른 편으로, 그 운동의 지도자들은 루터가 그들의 교리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노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국가의 권위에 대하여 반역하는 자라고 선언한 까닭으로 그를 미워하였다.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그들은 루터를 비열한 사기꾼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는 마치 제후들과 백성들 모두로부터 증오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로마교도들은 개혁 사업이 신속히 몰락될 것을 예기하고 크게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루터가 교정시키기 위하여 가장 열렬히 노력해 왔던 오류에 대한 책임을 그에게 덮어씌웠다. 광신적인 무리들은 자기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거짓된 선전을 함으로써 많은 백성들의 동정을 사는 데 성공하였다. 잘못된 상황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순교자처럼 여겨지는 예가 흔히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도 그 사실이 부합되었다. 그리하여 개혁 사업을 반대하는 일에 진력하고 있는 무리들이 마치 잔학과 억압의 희생자처럼 동정과 칭찬을 받았다. 이것은 사단의 일이었고, 하늘에서 처음에 나타났던 것과 동일한 모반의 정신에서 생겨난 일이었다.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속이고자 애쓰고 있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의로, 의를 죄로 부르도록 이끌고 있다. 그의 일은 얼마나 성공을 거두어 왔던가!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은 진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담대히 서기 때문에 얼마나 자주 비난과 질책을 받는가!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응당 존경을 받고 지지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고립되고, 의심과 불신을 받는 반면에, 사단의 대리자에 불과한 사람들은 칭찬과 영광을 얻고 순교자들처럼 추앙을 받기도 한다. 거짓된 성결, 곧 위장된 성화는 오늘날도 여전히 속이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그것은 루터 당시와 똑같은 정신을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냄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성경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따르도록 이끌고 있다.

이것은 진리와 순결이 비난을 받도록 하고자 사단이 고안해 낸 가장 성공적인 것 중의 하나이다. 루터는 각 방면에서 밀려오는 공격으로부터 용감하게 복음을 옹호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전투에서나 강력한 무기로 판명되었다. 그는 그 말씀을 가지고 법왕의 참람된

권력과 학자들의 이론적인 철학을 대항하여 싸웠고, 한편으로 종교개혁과 연합하려고 접근하는 광신주의에 대항하여 반석처럼 굳게 섰다. 그 모든 반대자들은 성경을 버리고 사람의 지혜를 종교적 진리와 지식의 근원으로 높였다. 합리주의 (合理主義) 는 이성을 우상화하고, 그것을 종교의 기준으로 삼는다. 로마교는 최상권을 가진 법왕이 사도들로부터 끊임없이 계통을 따라 각 시대를 통하여 변함없이 내려온 영감을 가지고 있노라고 주장함으로, 여러 가지 방종과 부패가 사도의 직권이라는 신성한 이름 아래 숨어 있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준다. 뮌처와 그 동료들이 받았노라고 주장한 소위 영감은 그 근원이 망상적인 공상에 불과하였고, 그 영향으로 인간과 하나님의 모든 권위가 파괴되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적인 진리의 위대한 보고 (寶庫) 요 모든 영감에 대한 시금석으로 받아들인다.

루터는 바르트부르크에서 돌아오자 신약 성경의 번역을 완성하여, 독일 국민으로 하여금 자국어로 된 복음서를 가질 수 있게 하였다. 이 번역은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 의하여 큰 기쁨으로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전설과 사람의 계명을 택한 사람들로부터 심한 배척을 받았다. 신부들은 일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들과 토론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그들의 무지가 폭로될까 두려워서 겁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의 인간적인 이론의 무기는 성령의 검을 대항하기에는 무력하였다. 로마는 성경의 보급을 방해하기 위하여 온 권력을 다 동원하였다. 그러나 칙령과 파문과 고문은 다 허지로 돌아갔다. 성경을 비난하고 금지하면 할수록 성경의 참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심은 더욱 증가되었다.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게 되었다.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을 읽고 또 읽었으며, 마침내 성경의 대부분을 암송하고서야 만족하였다. 신약 성경이 크게 환영을 받는 것을 본 루터는 즉시 구약 성경의 번역에도 착수하여 번역되는 대로 그것을 몇 권으로 나누어 출판하였다.

루터의 저서는 도시와 시골에서 모두 큰 환영을 받았다. "루터와 그의 친구들이 저작한 것을 다른 사람들은 널리 보급하였다. 승원 제도의 불합리함을 깨달은 승려들은 이전과 같이 하는 일 없이 게으르게 지내던 생활을 바꾸어서 활동적인 생활을 하고자 희망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해석하기에 너무나 무지하였기 때문에 각 지방의 촌락들을 찾아다니면서 루터와 그의 동료들이 저술한 서적들을 판매하는 일을 하였다. 순식간에 독일은 이와 같이 용감한 권서원들의 모습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게 되었다" (D'Aubigne, b1, ch11). 이러한 저서들을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강한 흥미를 가지고 연구하게 되었다. 시골 학교의 교사들은 밤에 난롯가에 모여 앉은 적은 수의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성경을 읽어 주었다. 그리고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취어 깨닫게 하나이다" (시 119:130) 고 한 성경 말씀이 입증되었다.

성경 연구로 인하여 백성들의 마음과 심령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법왕교의 규칙은 그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쇠멍에를 메어서 무지와 타락으로 빠뜨렸다. 그리고 미신적인 의식을 엄격하게 지키게 하였다. 그러나 그 모든 의식에 있어서 마음과 정신은 거의 감동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성경의 명백한 진리를 해석하는 루터의 설교와 일반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 있는 성경 그 자체는 그들의 잠자는 기능을 일깨워 주었고, 영성 (靈性) 을 정화시키고 향상시켜 주었을 뿐 아니라, 지능에도 새로운 활기와 생기를 주었다.

각 계급의 사람들은 성경을 손에 들고 종교개혁의 교리를 옹호하게 되었다. 성경 연구를 신부와 승려들에게만 의탁하였던 법왕당은 이러한 새로운 가르침을 반박해 달라고 그들에게 요구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과 성경에 대하여 전연 무지한 신부와 탁발승들은 그들이 무지한 이단이라고 공격하던 그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패배를 당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 가톨릭의 저술가는 "불행히도 루터는 성경 이외의 어떤 계시도 믿지 말라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일러두었다" (D'Aubigne, b1, ch11) 고 기록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별반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변호하는 진리의 말씀, 학식이 많고 능변적인 신학자들과 그들이 토론하는 말을 듣기 위하여 모여들곤 하였다. 이 위대한 사람들이 성경의 단순한 교리에 의하여 논박을 받을 때에 그들의 무지가 탄로 났다. 노동자들과 군인들과 부인들과 어린아이들이 신부들과 박식한 박사들보다 성경의 교훈을 더욱 잘 알았다.

복음의 제자들과 법왕교의 미신을 지지하는 자들과의 현격한 차이는 학자 계급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 사이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어학 연구와 문학의 소양을 등한히 하는 교권 (教權) 의 늙은 전사 (戰士) 들을 대항하여 일어선 사람들 가운데는 고결한 마음을 가진 청년들이 있었으며,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기에 힘쓰고, 고전에 속한 명작들을 잘 알고 있었다. 예민한 두뇌와 고상한 심령과 용감한 투지력을 가진 그 청년들은 아무도 당해 낼 수 없을 만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개혁 사업을 지지하는 젊은이들은 어느 회합에서나 로마교의 학자들을 만나게 되면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용이하게 공격하여 진리에 무식한 그들을 낭패케 하고, 뭇사람들의 경멸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D'Aubigne, b1, ch11).

법왕당의 성직자들은 교인들의 수가 갑자기 줄어짐을 보았으므로 관헌의 힘에 호소하였고, 온갖 수단을 다하여 그들의 교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자 힘썼다. 그러나 새로운 교리에 그들의 심령의 결핍을 채워 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다년간 미신적인 의례 (儀禮) 나 전설 같은 무가치한 껍질만으로 그들을 먹여 주던 사람들을 버리고 떠나갔다. 진리의 교사들에 대하여 박해의 불길이 일어나자, 그들은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마 10:23) 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였다. 그러므로 빛은 각 곳으로 전파되었다. 유랑자들은 어디에서나 그들을 영접해 주는 사람들을 발견하여 그들의 집에서 유하였다. 그들은

때때로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전하였고, 만일 교회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사가 (私家) 에서, 혹은 옥외에서 전하였다. 어디에서나 듣는 자만 있으면 그 곳이 그들에게는 거룩한 성전이었다. 이처럼 확신을 가지고 열심으로 전하였으므로 진리는 저항할 수 없는 권능으로 널리 전파되었다. 교회와 국가가 그 이단을 박멸하려고 한결같이 노력했지만 헛수고가 되고 말았다. 투옥, 고문, 화형, 검 등으로 처단하였지마는, 모두가 쓸데없는 일이었다. 무수한 신자들은 자기들의 피로써 그들의 신앙을 인 쳤다. 그럴지라도 그 사업은 계속해서 발전하였다. 박해는 진리를 보급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이다. 사단이 진리와 합류시키고자 노력한 광신은 사단의 사업과 하나님의 사업과를 더욱더 분명하게 구별 지어 주었을 뿐이었다.

11 장 — 제후들의 항의

개혁 사업을 위한 가장 고귀한 증언 중의 하나는 1529 년 스파이얼스 (Spires) 회의에서 독일의 그리스도인 귀족들이 제출한 항의서였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신앙과 용기와 견인불발은 그 후 여러 시대를 위하여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쟁취했다. 그들의 항의 때문에 "프로테스탄트" (Protestant) 라는 명칭이 개혁 교회에 주어졌다. 그 원칙이 "프로테스탄트의 본질" (D'Aubigne, b13, ch1) 이다.

사업에 암담하고 두려운 시대가 다가왔다. 보름스의 칙령으로 루터는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그의 교리를 가르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안에서는 종교 자유가 널리 보급되어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로 진리를 반대하는 세력이 억제되어 있었다. 카알 5 세는 종교개혁을 박멸하고자 손을 펴보았지만, 그 때마다 불가불 그 손을 거두어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여러 번 거듭해서 로마에 항거하는 자들을 모두 즉시 멸절시킬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러한 위기일발의 순간이 될 때마다 투르크군이 동부의 국경에 나타나거나 프랑스 왕과의 분쟁, 혹은 법왕과 황제와의 세력 다툼 등의 일이 생겼다. 이와 같이 나라가 어지럽고 분요 (紛擾) 한 중에 개혁 사업은 힘을 얻고 발전되어 나갔다.

그런데 마침내 법왕의 군주들은 내부의 분쟁을 그치고, 힘을 합하여 개혁자들을 대항하게 되었다. 1526 년에 개최된 스파이얼스 회의는 총회를 열기 전까지는 종교적 문제들을 각 주의 자유에 맡기기로 결의하였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양보를 하게 만들었던 위험이 지나가자 황제는 이단을 박멸할 목적으로 1529 년 스파이얼스에서 두 번째의 회의를 소집하였다. 황제는 될 수 있는 대로 온건한 방법으로 모든 귀족들을 개혁 운동을 반대하는 측으로 이끌고자 하였고, 만일 실패하는 경우에는 무력으로 해결하고자 결심하였다. 법왕당은 기뻐하였다. 그들은 무리를 지어 스파이얼스로 모여들었으며 노골적으로 개혁자들과 그들에게 호감을 가지는 모든 사람들을 대적할 의사를 나타내었다. 멜란히톤은 "우리는 이제 세상의 저주와 쓸어버림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가련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보호하실 것이 틀림없다" (D'Aubigne, b13, ch1) 고 말하였다. 그 회의에 참석한 개혁주의를 믿는 제후들은 자기들의 거처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스파이얼스의 시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한 나머지 금지당한 일을 무시하고 작센 선후의 대강당에 모여들었다.

이 일로 인하여 위기가 한층 더 빨리 닥쳐왔다. 황제는 회의석에서 종내에 종교 자유를 허락한 결과로 큰 무질서가 생겼으므로 그것의 철폐를 요구한다고 공포하였다. 이러한 전횡적인 행위는 개혁파의 의분 (義憤) 과 경악을 자아냈다. 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가야바와 빌라도의 손에 넘어갔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로마교도들은 더욱 맹렬한 위세를 나타내었다. 완고한 법왕당의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투르크인들은 루터의

무리보다 낫다. 투르크인들은 금식일을 지키지만 루터의 무리들은 그것을 위반한다. 만일 우리가 성경과 교회의 낡은 오류 (誤謬) 중 어느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차라리 먼저 것을 버려야 한다." 멜란히톤은 말하기를 "파베르 (Faber) 는 의회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날마다 일종의 새 돌을 던졌다" (D'Aubigne, b13, ch1) 고 하였다.

신교의 자유는 법률상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개혁 운동을 옹호하는 주 (州) 에서는 그들의 권리의 침해를 반대하는 결의를 하였다. 루터는 보름스 회의의 칙령에 의하여 파문을 당하고 있었으므로, 스파이얼스 회의에 출석하는 일을 허락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위급한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을 옹호하기 위하여 일으켜 주신 제후들과 동역자들이 루터를 대신하여 일을 하였다. 전에 루터의 옹호자로 일하던 작센의 프리드리히 후는 이미 죽었다. 그러나 그의 후계자인 그의 아우 요한 후 또한 개혁 사업을 환영하였었다. 그는 평화의 애호자로서 신앙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많은 노력과 큰 용기를 나타내었다. 신부들은 개혁 사업을 용인 (容認) 한 주들이 로마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기를 요구하였다. 반면에 개혁파는 이미 허락된 자유를 주장하였다. 그들은 큰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여러 주들을 로마교가 다시 그들의 지배 아래 두고자 하는 일에 결코 동의하지 않았다. 아직 개혁 사업이 확립되지 아니한 여러 주에는 보름스의 칙령을 강력하게 이행시킬 것, "이 칙령에 복종치 아니하는 주, 곧 이 칙령을 강제하는 경우에 반란이 일어날 위험이 있는 주는 최소한 어떤 새로운 개혁도 일으키지 말 것, 논쟁을 일으킬 점에 부딪히거나 미사의 거행에 반대하지 말 것, 어떤 로마교도에게도 루터파의 사상을 넣어 주지 말 것" (D'Aubigne, b13, ch1) 등의 타협안이 제출되었다. 이 법안은 의회를 통과하였으며 법왕측의 신부들과 주교들은 크게 만족하였다.

이러한 칙령이 시행된다면, "개혁 사업은 미개척의 지방으로 확대될 수 없거니와 이미 전파된 지방에서도 확고한 기초를 세울 수가 없었다" (D'Aubigne, b13, ch1). 언론의 자유가 없어지고, 개종 (改宗) 도 허락되지 않을 것이었다. 개혁 사업의 동지들은 이러한 제한과 금지 사항을 즉시 수락하도록 강요당하였다. 이제 세상의 소망은 거의 사라져가는 듯하였다. "로마교의 교권 정치의 재확립은 필연적으로 옛날의 악폐를 부활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었다." 이미 광신과 분열로 인하여 "크게 흔들리게 된 개혁 사업도 바야흐로 전멸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것 같았다" (D'Aubigne, b13, ch1).

복음주의자들의 협의회가 열리게 되자 그들은 난처한 얼굴빛으로 서로 쳐다보기만 했다. 그들은 "어찌하면 좋을까" 하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세계의 중대한 문제가 위기에 놓여있었다. "개혁파의 지도자들이 칙령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복종할 것인가?" 개혁자들은 이처럼 정말로 놀라운 위기를 당하여 논쟁하다가 스스로 그릇된 길로 빠지기가 얼마나 쉬웠었던가! 그들은 항복하기에 적당한 구실과 이유를 참으로 많이 발견할 수가 있었다. 루터파의 제후들에게는 신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었다. 똑같은 특전이 그들의 시민 중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이미 그 개혁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주어져 있었다. 우리는 이 안 (案) 에 만족해야 할 것이 아닌가? 복종하기를 거부할 때 얼마나 많은 위험이 따를 것인가? 반대하면 장차 얼마나 큰 위험과 투쟁이 올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장차 어떤 좋은 기회가 올지 누가 알겠는가? 평화를 받아들이자. 로마가 내미는 감람나무의 가지를 붙잡고 독일의 상처를 싸매도록 하자. 이와 같은 논증으로 개혁자들은 오래지 않아서 그들의 사업을 분명히 파멸시켜 버릴 결과를 가져올 길을 택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의 태도를 정당화시킬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다행히 그들은 이러한 타협안의 저변에 무엇이 깔려 있는지를 간파하고 믿음을 따라 행동하였다. 그 저변에 가로놓인 원칙이란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로마가 사람들의 양심을 억제하고 자유로운 연구를 금지할 권리를 가졌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들 자신과 개혁주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단 말인가? 과연 그러했다. 그들은 정당한 권리가 아니고, 다만 특별히 할애되는 은혜로서의 자유가 고작이었다. 이러한 특별 조치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위 위대한 권위의 원칙으로 지배를 받아야만 하였다. 그러한 경우에 양심은 전연 무시되고, 로마는 여전히 그릇됨이 없는 심판자가 되고, 거기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타협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앙의 자유가 이미 개혁주의를 용인한 작센에만 적용되어야 하고 그 밖의 다른 그리스도교국에서는 자유롭게 연구하거나 개혁주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죄가 되며, 반드시 옥에 갇히거나 화형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사실상 승인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종교의 자유를 제한시키는 일에 동의할 수 있을까? 그것을 수락함으로 개혁 사업은 더 이상 신자를 얻지 못하고 제한된 범위 안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선포되게 할 수 있을까? 그리하여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곳은 어디에나 그 통치권이 영속될 수밖에 없게 해야 할까? 개혁자들이 이 협정을 이행함으로 법왕권 아래 속한 지방에서 생명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될 무수한 사람들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다고 변명할 수 있을까? 이러한 행동을 취하는 것은 그처럼 중대한 시기에 그리스도교국의 복음과 자유의 사업을 반역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었다" (Wylie, b1, ch15). 그러므로 그들은 차라리 즐겨 "모든 것을 희생하되 자기들의 영토와 지위와 생명까지도 희생하고자 하였다" (D'Au-bigne, b13, ch1).

"우리는 이 법령을 부인하기로 하자. 적어도 양심 문제에 관하여서는 다수가 권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후들은 말하였다. 그리고 대의원 (代議員) 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우리가 국가의 평화를 누리는 것은 1526 년의 칙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를 폐지하는 것은 온 독일을 분쟁과 혼란 가운데 빠뜨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는 전체 회의가 열리기까지는 신교의 자유를 보존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D'Aubigne, b13, ch1). 양심의 자유를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그러나 종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그 권한이 제한되어 있다. 모든 정부가 국가의 권위로써 종교의 의식을 규정하거나 강요하려고 하는 것은 복음파 그리스도인들이 그처럼 고귀하게 투쟁해서 지키려고 한 바로 그 원칙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법왕당은 그들이 소위 "대담한 고집"이라고 이름을 붙인 사람들을 멸절시키기로 결심하였다. 그들은 먼저 개혁 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고자 노력하고, 다음에는 아직 공공연하게 개혁파의 호의를 보이지 아니한 사람들을 협박하였다. 각 자유시의 대표들은 마침내 국회에 호출되어 그 법령의 조건들에 순종 여부를 나타내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들은 시간의 여유를 달라고 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다. 그들에게 시험이 제시되자 거의 반수가량은 개혁자의 편에 가담하였다. 그 사람들은 양심의 자유와 각 개인이 스스로 판단하는 권리를 희생하기를 거절함으로 장차 비난과 정죄와 박해의 표적 (標的) 이 될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대의원 중의 한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화형을 받든지 둘 중 하나를 취하고야 말 것이다" (D'Aubigne, b13, ch1) 고 말하였다.

황제의 대표자로 회의에 임석한 페르디난트 (Ferdinand) 왕은 제후들이 법령을 승인하고 지지하는 데 가담하지 않는다면 심상치 않은 분열이 일어날 것을 알았다. 그러나 폭력을 사용하면 그들의 결심을 한층 더 굳게 해줄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그들을 설득시키고자 하였다. 그는 "제후들이 법령을 승인해 주기를 빌면서 황제가 그들을 참으로 기뻐할 것이라고 보증하였다." 그러나 그 충성된 제후들은 세상 통치자들이 가진 권위 이상의 권위를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영광과 평화를 유지하게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황제의 명령에 복종하겠습니다" (D'Aubigne, b13, ch1) 고 조용히 대답하였다. 의회에서, 왕은 마침내 선후와 그의 동료들을 향하여 이 포고는 "황제의 칙령의 형식을 취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오직 한 가지의 길은 중의 (衆議) 에 복종하는 것밖에 없다"고 선언하였다. 그는 말을 마치자 개혁자들에게 고려할 기회나 대답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아니하고 퇴장하였다. 뜻밖의 일이었으므로, 그들은 몇 사람의 사자를 보내어 왕이 다시 회의장으로 돌아오도록 간청하였다. 그들의 간청에 대하여 그는 "그것은 이미 해결된 문제이다. 이제 남은 것은 복종하는 것뿐이다" (D'Au-bigne, b13, ch1) 고 대답하였다.

황제측에서는 그리스도인 제후들이 사람의 교리 (教理) 와 사람의 요구보다 성경을 주장하여 굳게 지킬 것을 알았고, 또한 이 원칙이 인정되는 곳은 어디에서나 법왕교가 마침내 무너지고 말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 시대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은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았으므로, 황제와 법왕의 사업은 강하고 개혁자의 사업은 약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만하였다. 개혁자들이 사람들의 힘만을 의지하였다면 법왕당이 생각했던 바와 같이 그들은 무력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수는 적고 로마와도 불화한 사이였을지라도 그들은 그들대로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이 의회의 결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카알 황제보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D'Aubigne, b13, ch1) 더욱 신뢰하였다.

페르디난트 왕이 그들의 양심에서 비롯된 확신을 무시하였으므로, 제후들은 그의 퇴장을 개의치 않고 항의서를 국회에 즉시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엄숙한 선언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다. "우리는 유일한 창조주시요 유지 (維持) 자시며 속죄주시요 구주시며 오래지 않아 우리의 심판자가 되실 하나님 앞과 온 인류와 온 피조물 앞에서 항의서를 제출하나이다. 우리는 개인으로서 또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장차 반포될 칙령에 있어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그분의 거룩한 말씀과 우리의 정당한 양심과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위배되는 점은 절대로 승인할 수 없나이다."

"어찌 우리가 이러한 칙령을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식을 사람에게 계시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합당치 못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는 교리보다 더욱 확실한 교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금하십니다. ...성경 구절은 성경 구절로써 해석하여 밝혀야 합니다. ...이 거룩한 책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모든 점에 필요하고 이해하기 쉽고 어둠을 물리치기에 적합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전혀 순수한 성경, 곧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여기에 위배되는 것은 어떠한 것이든지 더하지 아니할 결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유일한 진리이며 그것은 참으로 모든 교리와 행위의 확실한 표준으로서 결코 실패하거나 우리를 속이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초 위에 서는 사람은 어떠한 음부의 세력과 장차 없어질 사람의 영화에 대하여서도 저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지워진 멍에를 이제 거부하는 바입니다." "동시에 황제 폐하께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임금처럼 우리를 대우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황제 폐하와 왕공 제위에게 모든 존경과 순종으로써 우리의 당연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언명하는 바입니다" (D'Aubigne, b13, ch1). 의회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의자측의 담대함에 놀라게 되었다. 그들의 미래에는 파란과 불안이 있었다. 분열과 피 흘림과 투쟁이 불가피하게 보였다. 그러나 개혁자들은 그들의 길이 정당함을 확신하였으며 전능하신 분의 거룩한 팔을 의지하면서 "늠름한 기상으로 확고부동하게" 나아갔다.

"이 유명한 항의서가 담고 있는 모든 원칙은 프로테스탄트 (Protestant) 의 본질을 이루고 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의 의미는 '항의자'이다 — 역자 주]. 이 항의서는 신앙의 문제에서 사람의 두 가지 악폐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그 하나는 위정자의 강요이며, 또 하나는 교권의 남용이다. 이러한 악폐 대신에 프로테스탄트주의는 정권 위에 양심의 힘을 보이는 지상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놓았다. 첫째로 프로테스탄트주의는 신령한 사물에 있어서 세속적 권세를 거부하고 선지자와 사도들처럼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행 5:29)

고 말한다. 그것은 카알 5 세의 왕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관을 높이고 있다. 그것은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그것은 사람의 온갖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속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해 준다" (D'Aubigne, b13, ch1). 그뿐 아니라 그 항의자들은 진리라고 확신하는 바를 자유롭게 이야기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밝혀진 바를 믿고 순종할 뿐 아니라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승려나 정권이 이를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 하였다. 스파이얼스의 항의는 종교적 자유를 억압하는 데 대한 엄숙한 반증 (反證) 인 동시에 온 인류는 자기의 양심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을 경배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 선언은 반포되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졌고, 사람의 힘으로 결코 지워 버릴 수 없는 하늘의 책에도 기록되었다. 독일의 모든 복음 신도들은 그 항의서를 신앙 고백으로 채택하였다. 각 곳에서 사람들은 이 선언에서 더욱 훌륭한 새 시대의 약속을 바라보았다. 제후들 가운데 한 사람은 스파이얼스의 프로테스탄트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대들로 하여금 이처럼 대담하고, 자유롭고, 씩씩하게 믿음을 고백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그대들을 확고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도록 보존해 주시기를 바라노라" (D'Aubigne, b13, ch1).

만일 개혁 사업이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둔 후에 세속적 영광을 얻기 위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는 일에 동의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동시에 개혁 그 자체에도 어긋나는 것이 되어 마침내 자멸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처럼 고결한 개혁자들의 경험은 그 후 각 시대의 백성들에게 한 가지 교훈을 남겨 주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사단의 공격 방법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오늘날에도 16 세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인생의 지침으로 삼는 일을 반대하고 있다. 오늘날은 개혁자들의 교훈과 모본에서 멀리 떠나 있다. 그러므로 오직 성경만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았던 위대한 프로테스탄트의 원칙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사단은 오늘날도 여전히 신앙의 자유를 파괴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온갖 수단을 다 사용하고 있다. 스파이얼스 항의자들이 배척한 반그리스도교의 세력은 오늘날 새로운 힘으로 잃어버렸던 최상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개혁 사업이 위기에 놓였을 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집착하는 것, 그것만이 오늘날의 개혁 사업의 유일한 희망이다.

프로테스탄트파에게 위험의 징조가 나타나게 되자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고 당신의 충실한 백성들을 보호하신 증거가 또한 나타났다. 바로 그 무렵의 일이었다. "멜란히톤은 아주 황급하게 그의 친구 시몬 그뤼내우스 (Simon Grynaeus) 를 데리고 스파이얼스 시가를 빠져 나와 라인 강가에 이르러 그에게 즉시 강을 건너라고 강권하였다. 그 때에 시몬은 그렇게 조급히 구는 데 대하여 놀랐다. 그러자 멜란히톤은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장대하고 위엄있는 풍채를 가진 한 노인이 내게 나타나서 '잠시 후에 재판소의 관리가 페르디난트 왕으로부터 파견을 받아

그뤼내우스를 체포하러 올 것이다'고 일러 주었다"라고 말하였다. 그날 그뤼내우스는 법왕당의 한 지도 계급의 학자 파베르의 설교에 분개하여 마침내 "참으로 가증한 오류"를 변호하는 자라고 항변 (抗辯) 하였다. 파베르는 자기의 분노를 감추기는 했지만 즉시 왕에게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그 끈기 있는 교수에 대한 체포 영장을 내리도록 요청하였다. 멜란히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들 중의 하나를 보내시사 자기에게 미리 경고해 주심으로 그의 친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다. "라인 강 언덕에 조용히 서서 그는 그 강물이 그뤼내우스를 그의 핍박자들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멜란히톤은 강 건너편 언덕에 그의 친구가 도착하는 것을 보고서야 마침내 그는 무죄한 사람의 피에 목마른 자들의 잔인한 이빨을 면했다고 부르짖었다. 집에 돌아온 멜란히톤은 관리들이 그뤼내우스를 찾기 위하여 그의 집을 샅샅이 수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D'Aubigne, b13, ch1).

개혁 사업은 세상의 고관들 앞에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될 것이었다. 복음주의 제후들의 호소가 페르디난트 왕으로 말미암아 과거에는 거부되었지마는 지금은 황제를 비롯하여 국가와 교회의 고관들이 열석한 자리에서 그들의 사업을 진술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제국을 괴롭힌 분쟁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스파이얼스의 항의가 있었던 이듬해에 카알 5 세는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의회를 소집하였다. 또한 그가 친히 그 의회를 주재할 것이라는 그의 의향도 발표되었다. 거기에 개혁파의 지도자들도 소집되었다.

큰 위험들이 개혁 사업을 위협하였으나 그 사업의 옹호자들은 그들의 사업을 여전히 하나님께 의탁하고 복음에 대한 저들의 태도를 굳게 할 것을 스스로 맹세하였다. 작센의 선후는 그의 고문관들로부터 의회에 나가지 말라는 간곡한 부탁을 받았다. 그들은 황제가 제후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참석하기를 요구하였다고 말하였다. "강력한 원수의 소굴로 일부러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닌가?"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제후들로 하여금 오로지 용기를 가지고 처신하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사업은 반드시 구조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므로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D'Aubigne, b14, ch1) 고 루터는 말하였다. 선후는 그의 수행원을 데리고 아우크스부르크로 떠났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위협하고 있는 위험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많은 사람들은 침울한 얼굴과 근심스러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코베르크까지 동행했던 루터는 그 여행에서 지은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노래로 그들의 침체되어 가는 믿음에 활기를 북돋아 주었다. 영감적인 그 노랫소리에 장차 다가올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는 사라지고, 무겁던 마음이 가벼워졌다.

개혁파의 제후들은 그들의 견해를 성경으로 입증하여 체계적인 진술서를 의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하고, 그것의 작성을 루터와 멜란히톤과 그의 동료들에게 위탁하였다. 개혁파의 사람들은 이 신앙 고백서를 그들의 믿음의 해명서로 수락하였다. 그들은 모여서 그 중요한 서류에 각기 서명하였다. 참으로 그것은 엄숙하고도 신중한 순간이었다. 개혁자들은 그들의

운동이 정치 문제와 혼동되지나 않을까 염려하였다. 그들은 종교개혁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감화 이외에는 어떠한 세력에도 동요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개혁파의 제후들이 이 신앙 고백서에 서명하려고 나오자 멜란히톤은 그 일을 저지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것은 신학자와 목사들이 제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 있는 사람들의 권력은 다른 일을 위하여 보류하여 두고 싶습니다." 그러나 작센의 요한 후는 그 말에 대답하였다. "내가 거기에 참가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나는 나의 지위에 상관없이 정당한 일이라면 해야 한다고 결심하고 있다. 나도 주 여호와를 믿는 마음을 고백하고자 한다. 선후로서의 나의 지위를 나타내는 모자와 의복은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귀중한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말을 마치고, 그는 서명하였다. 또 다른 제후 한 사람은 붓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한 일이라면 나는 나의 재산과 생명까지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였다. 또 계속하여 "나는 이 고백서에 나타나 있는 교리 이외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신분을 포기하고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국토도 버리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조국에서 쫓겨나는 길을 택하겠다" (D'Aubigne, b14, ch1) 고 말하였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믿음과 용기를 나타내었다.

마침내 황제를 뵙기로 지정된 시간이 왔다. 보좌에 앉은 카알 5 세는 각 선후와 귀족들에게 둘러싸여 "프로테스탄트"에 속한 개혁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개혁자들의 신앙 고백서가 낭독되었다. 그 엄숙한 집회에서 복음의 진리는 밝혀지고 로마 교회의 오류들은 지적되었다. 이날을 "개혁 사업의 가장 큰 날, 그리스도교와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날" (D'Aubigne, b14, ch1) 이라고 일컫게 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비텐베르크의 승려 (루터를 가리키는 말임-역자 주) 가 보름스의 국회 앞에 홀로 섰던 때로부터 불과 몇 년이 지났을 뿐이었다. 지금은 그를 대신하여 그 나라의 가장 귀하고 유력한 제후들이 서 있었다. 루터는 아우크스부르크에 출두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말과 기도로써 거기 참석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나는 그처럼 유명한 신앙 고백자들과 영광스러운 집회에서 그리스도께서 공공연하게 높임을 받은 이 시간까지 살아 있는 것을 넘치는 기쁨으로 생각한다" (D'Aubigne, b14, ch1). 그리하여 "또 열왕 앞에 주의 증거를 말할" (시 119:46) 것이라는 성경 말씀이 성취되었다.

바울의 시대에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옥에 갇히기까지 하였지만 그 복음이 로마 제국의 제후들과 귀족들 앞에 제시되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황제의 명령으로 강단에서는 설교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었으나 왕궁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종들조차 듣기에 부적합하다고 여겨 오던 것을 국가의 군주들과 고관들이 경탄하면서 귀를 기울였다. 왕들과 위대한 사람들이 청중이 되고, 권위 있는 제후들이 설교자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설교하였다. “사도 시대 이래로 이보다 더 위대한 사업과 이보다 더 훌륭한 신앙 고백이 있었던 적은 없다” (D’Aubigne, b14, ch1) 고 어떤 저술가는 기록하였다.

“루터파에서 말한 것은 모두 옳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법왕당의 한 감독은 말하였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에크 박사에게 “선후 (選侯) 와 그의 동료들이 작성한 신앙 고백서에 대하여 건전한 논리를 가지고 반박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글을 가지고는 할 수 없으나 교부 (敎父) 들과 회의의 기록을 가지고는 할 수 있다” (D’Aubigne, b14, ch1) 고 대답하였다. 그 질문을 한 사람은 “그러면 당신의 견해에 의하면 루터파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말인 줄 알겠다”고 대답하였다. 독일의 제후 중 몇 사람들이 개혁파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황제도 개혁파의 신조들이 진리인 것을 친히 선언하였다. 그 신앙 고백서는 각국의 말로 번역되어 전 구라파에 보급되었다. 그 후 여러 시대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들의 신앙으로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홀로 수고하지 않았다. “정사 (政事) 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연합하여 그들을 대항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만일 그들의 눈이 열릴 수 있었더라면 그들은 옛날의 한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도우심의 분명한 증거를 보았을 것이다. 엘리사의 종이 그의 주인에게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적군들과 도망할 모든 기회가 끊어진 것을 지적했을 때 그 선지자는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왕하 6:17) 라고 기도하였다. 그 때에 그 산은 불말과 불병거로 가득 차 있었고 하늘의 군사가 하나님의 사람을 둘러 진 쳐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천사들은 개혁 사업에 종사하는 역군들을 지키셨다.

루터가 굳게 고수해 온 원칙들 중의 하나는 개혁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속적 권력에 호소하거나 그 사업을 옹호하기 위하여 무력에 호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는 국내의 귀족들이 복음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것을 기뻐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 옹호 연맹과 같은 것을 조직하고자 제안하자 그는 분명히 말하였다. “복음의 교리는 하나님 한 분을 통하여서만 옹호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거룩한 사업에 적게 간섭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욱 많이 그 사업에 관여하시는 것이다. 어떠한 정책적인 묘안을 사용할지라도 그것은 쓸데없는 공포와 죄악적 불신을 조장할 뿐이다” (D’Aubigne, b10, ch14). 강력한 원수들이 온 힘을 합하여 개혁파의 신앙을 뒤집어엎으려 하고, 무수한 칼이 칼집에서 뽑혀지려 할 때에 루터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사단은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 경건치 않은 승려들은 공모하고 있으며, 우리는 전쟁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과 기도로써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사람들을 권할 것이다. 그리하면 원수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복되어 잠잠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급한 것은 기도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지금 사단의 칼날 아래 있다는 것과 사단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 기도하게 할 것이다" (D'Aubigne, b10, ch14).

그 후에 개혁파의 선후들이 연맹을 조직하려 하였을 때에 다시 루터는 이 싸움에 사용되어야 할 무기는 오직 "성령의 검"뿐이라고 밝히 말하였다. 그는 작센의 선후에게 편지하였다. "우리는 양심상으로 연맹에 대한 제안에 찬동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복음 때문에 한 방울의 피라도 흘려야 하는 일을 보기보다는 차라리 열 번이라도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우리가 담당해야 할 일은 사지로 끌려가는 어린양과 같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선후 전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기도로써, 우리의 원수들이 자랑하는 것보다 더욱 큰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의 피로써 전하의 손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만일 황제께서 우리를 그의 법정에 넘겨주도록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출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하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 줄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위기를 당하면 자기의 믿음은 자기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D'Aubigne, b14, ch1).

온 세계를 동요시킨 위대한 종교개혁의 큰 능력은 밀실 (密室) 의 기도에서 나왔다. 하나님의 종들은 은밀한 곳에서 그분의 언약의 반석 위에 튼튼히 섰다. 아우크스부르크의 투쟁의 때에도 루터는 "적어도 하루 세 시간 기도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리고 그것도 연구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을 그렇게 하였다." 은밀한 그의 방에서 "존경 (尊敬) 과 두려움과 희망에 넘치는 말로써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로하는 음성을 사람들은 듣게 되었다. "당신은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 하나님이시므로 당신의 자녀의 핍박자들을 흩어버리실 줄을 이 종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도 우리와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은 아버지의 사업입니다. 우리는 다만 아버지의 강권에 못 이겨 그 사업에 일하게 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여,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D'Aubigne, b14, ch1).

멜란히톤이 번민과 공포의 짐에 눌려 있을 때에 루터는 다음과 같이 편지하였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그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는 그대가 당하고 있는 심한 염려를 몹시 싫어합니다. 만일 이 사업이 정당하지 못하거든 그것을 버리십시오. 만일 그 사업이 정당하다면 어찌하여 우리에게 염려 말고 자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허락을 믿지 않습니까?...그리스도께서는 공의와 진리의 사업에 궁핍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살아나시고, 그분께서는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해야 합니까?" (D'Aubigne, b14, ch1).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분께서는 귀족들과 목사들에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대항하여 진리를 지탱할 은혜와 용기를 주셨다. 주님께서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벧전 2:6) 고 말씀하셨다. 프로테스탄트의 개혁자들은 그리스도 위에 견고히 섰다.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그들을 이길 수 없었다.

12 장 — 프랑스에서의 종교개혁

독일의 종교개혁의 승리를 나타냈던 스파이얼스의 항의와 아우크스부르크의 신앙 고백에 뒤이어 여러 해 동안 투쟁과 암흑이 계속되었다. 내부의 분열로 말미암아 약하여졌을 뿐 아니라 강력한 적의 끈질긴 공격에 시달린 프로테스탄트주의는 완전히 넘어질 운명에 처한 듯이 보였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피로써 그들의 증거를 인쳤다. 내란이 일어나고, 개혁 운동은 그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배반을 당하였다. 개혁파측의 가장 존귀한 제후들이 황제의 손에 넘어가서 포로로서 이 성에서 저 성으로 끌려 다녔다. 그러나 승리한 듯이 보였던 그 순간에 황제는 패배를 당하였다. 그는 사로잡아 놓은 포로들이 그의 손에서 빠져 나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가 일생의 욕망으로 삼고 멸절시키고자 한 그 교리를 마침내 묵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이른바 이단을 박멸하기 위하여 자기의 나라, 재산, 생명까지도 걸었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군인들은 전쟁으로 피로해졌고 국고는 바닥이 났고, 국내 각처는 반란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반면, 그가 진압하고자 헛되이 노력하고 있던 개혁주의는 각처에서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카알 5 세는 절대자의 권능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황제는 암흑을 깨뜨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이다. 그의 목적은 달성되지 못하였다. 여러 해 동안의 전쟁으로 피로해진 조로 (早老) 한 황제는 퇴위하여 수도원에 묻혀 살게 되었다.

스위스에도 독일에서와 같이 종교개혁에 암흑 시대가 왔다. 많은 주 (州) 들은 개혁주의를 받아들였으나, 그렇지 아니한 주들은 맹목적으로 로마교의 신조를 고수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갈망한 사람들에 대한 핍박으로 드디어 내란이 일어났다. 츠빙글리 (Zwingli) 와 종교개혁에 그와 함께 연합했던 많은 동지들이 카펠 (Cappel) 의 혈전에서 전사하였다. 이 두려운 재난에 압도당한 에콜람파디우스 (Ecolampadius) 도 얼마 후에 죽었다. 로마는 승리자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일찍이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영원 전부터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업과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손을 드셨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에서 개혁 사업을 추진할 일꾼들을 일으키셨다.

루터가 개혁자로서 일반에게 알려지기 전에 프랑스에서는 이미 날이 밝아 오기 시작했다. 빛을 깨달은 최초의 사람은 파리 대학의 박식한 교수 러페브르 (Lefevre) 였는데, 그는 나이 많은 사람으로서 열성이 있고 진실한 법왕교도였다. 그는 고대 문학을 연구하는 중에 성경에 마음이 끌렸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소개하였다. 러페브르는 열심 있는 성도 숭배자였으며, 그는 성도와 순교자들의 역사를 편집해서 교회의 성도전 (聖徒傳) 을 만들고자 계획하였다. 그 일은 엄청난 노력이 드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 일이 상당히 진척되었을 때에, 성경에서 유력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나서 그는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성경에서 많은 성도들을 찾아볼 수 있었으나 물론 로마교의 성도의 목록에 기록된 사람들은 아니었다. 하늘의 빛은 홍수처럼 그의 마음에 넘쳐흘렀다. 그는 놀람과 혐오감에 사로잡혀서 종래에 하던 일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몰두하였다. 그는 거기서 찾은 귀중한 진리를 즉시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1512 년, 아직도 루터나 츠빙글리가 개혁 사업에 손을 대기 전에 러페브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의, 곧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의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Wylie, b13, ch1) 라고 기록하였다. 그는 또 구원의 오묘한 이치를 깨닫고 다음과 같이 부르짖었다. "아아, 이 얼마나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교환이냐? 무죄한 분이 죄인으로 선고를 받고, 죄인이 자유의 몸을 얻게 된다. 축복받은 분이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은 자가 축복을 받는다. 생명의 임금이 죽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영광의 주께서 암흑 속에 잠기시고 허물과 치욕밖에 알지 못하는 자가 그 얼굴에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 (D'Aubigne, Lundon ed., b12, ch1).

구원의 영광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한편 그는 또한 순종의 의무가 사람에게 지워져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교인이라면, 그대는 그분의 몸의 한 지체이다. 만일 그대가 그분의 몸의 지체라면 그대는 하나님의 품성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아, 사람들이 만일 이 특권을 이해하게 된다면, 그들은 얼마나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 것인가!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있는 영광, 곧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광에 비하여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참으로 하잘것없는 것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D'Aubigne, b12, ch1). 러페브르의 문하생들 가운데는 그의 말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는 약간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러페브르가 죽은 후 그의 뒤를 이어 진리를 계속해서 전할 것이었다. 윌리암 파렐 (William Farel) 은 그들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경건한 부모의 아들로서 교회의 가르침을 전심으로 받아들이도록 교육을 받아 왔다. 그는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를 가리켜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좇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행 26:5) 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열렬한 로마교도로서 교리를 반대하는 자는 모두 멸절시켜 버려야 한다는 열성으로 불타 있었다. 그는 후년에 당시의 자기의 생애에 대하여 "법왕을 반대하는 말을 들을 때에 나는 마치 사나운 이리처럼 이를 갈았다" (Wylie, b13, ch1) 고 말하였다. 그는 또한 성도를 숭배하는 일에 매우 열렬하였으므로 러페브르와 함께 파리의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각 교회의 제단에서 예배하고, 예물을 드려 성당들을 장식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행위가 그의 마음에 화평을 줄 수 없었다. 그에게 붙어다니는 죄 의식 (意識) 은 그가 실천한 고행으로 제거해 버릴 수 없었다. 그 때 개혁자의 다음과 같은 말들은 그에게 하늘에서 오는 음성처럼 들렸다.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얻는다." "무죄한 분은 정죄를 받고, 죄인은 놓임을

받는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고, 음부의 문을 닫아 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Wylie, b13, ch1). 파렐은 기쁜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였다. 바울의 회개처럼 회개함으로, 그는 유전의 멍에를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유에 들어갔다. 그는 "법왕에게서 온전히 마음을 돌이켜서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침으로 부르짖는 이리와 같이 살기등등한 마음은 사라지고 흠 없고 유순한 어린양과 같이 되었다" (D'Aubigne, b12, ch1) 라고 말하였다.

러페브르는 그의 제자들에게만 빛을 전하였지마는 파렐은 법왕의 사업에 열렬했던 것과 똑같은 열성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업에 열성을 다하였고, 그는 나아가 진리를 공중에게 전파하였다. 얼마 후에 교회의 한 고위 성직자인 모오 (Meaux) 의 감독이 그들과 연합하였다. 재간과 학식으로 높임을 받고 있는 교수들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합세하였다. 그리하여 위로는 궁전에서부터 아래로는 노동자와 농부의 가정에 이르기까지 각 계급의 사람들이 복음의 옹호자가 되었다. 당시에 왕으로 통치하고 있던 프란시스 1 세의 누이까지도 개혁 신앙을 받아들였다. 또한 왕 자신도 모후 (母后) 와 함께 한 때는 거기에 호의를 보였으므로 개혁자들은 큰 희망을 가지고 프랑스가 복음화 (福音化) 될 때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희망은 실현되지 않았다. 시련과 박해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롭게도 그들의 눈에 숨기어져 있었다. 폭풍에 대응할 만한 힘을 그들에게 육성시켜 주기 위하여 평화로운 한 때가 허락되었던 것이다. 그 동안에 개혁 사업은 신속히 발전하였다. 모오의 감독은 성직자와 백성을 가르치기 위하여 자기의 교구 안에서 열심히 활동하였다. 그 결과로 무지하고 부도덕한 승려들은 제거되고, 지식이 있고 경건한 사람들로 대치되었다. 그 감독은 사람들이 자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그 일이 곧 성취되었다. 러페브르는 신약 성경의 번역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루터의 독일어 성경이 비텐베르크에서 발견되던 바로 그 때에 프랑스어 신약 성경도 모오에서 출판되었다. 그 감독은 노력과 비용을 아끼지 않고 자기의 교구 (敎區) 안에 그 성경을 보급시켰으므로 드디어 모오의 농부들까지도 성경을 가지게 되었다. 마치 갈증으로 죽어 가는 나그네가 생명의 샘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영혼들은 하늘의 기별을 받아들였다. 들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과 작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를 이야기함으로 날마다 즐거이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들은 밤이면 술집에 가는 대신에 이웃끼리 한 집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찬미를 불렀다. 곧 그들의 지역 사회에 하나의 큰 변화가 일어났다. 비록 비천한 계급에 속하는 무식하고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농부들이었지만 그들의 생활에는 개혁과 향상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능력이 나타났다. 그들은 겸손, 성결, 사랑의 증거자로서 복음을 충심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어떠한 일을 이루어 주는지를 입증해 주었다.

모오에서 밝혀진 빛은 멀리까지 비치었다. 회개하는 사람의 수는 매일 증가되어 갔다. 승려들의 완고한 고집을 싫어한 왕 때문에 성직자단의 분노 (忿怒) 는 한 때 견제되었다. 그러나

마침내 법왕측의 지도자들이 세력을 얻었다. 이제 화형주가 세워졌다. 모오의 감독은 화형을 받든지 신앙을 취소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강요를 받게 되었다. 그는 보다 안락한 길을 택하였다. 이와 같이 지도자가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확고하게 남아 있었다. 많은 사람이 화형주의 불꽃 가운데서 진리를 증거하였다. 이러한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은 화형주에서까지 충성과 용기를 잃지 않으므로 평안할 때에 그들의 증거를 결코 들어보지 못했던 무수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고난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들은 비천하고 가난한 계급의 사람들뿐만이 아니었다. 왕궁과 훌륭한 저택 가운데도 재물과 지위와 심지어는 생명까지라도 진리에 비하면 경하다고 생각하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다. 감독의 예복을 입고 감독의 관을 쓴 자보다도 왕의 갑옷을 입은 자들이 한층 더 고상하고 고결하고 확고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루이 드 베르캥 (Louis de Berquin) 은 귀족 출신이었다. 그는 용감하고 예의바른 기사였고, 학구열이 투철하고, 세련된 행동과 흠이 없는 도덕적 표준을 고수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법왕 제도의 신봉자요 미사에 참석하고 설교를 열심으로 듣는 자였으며,...그에게는 무엇보다도 루터파를 미워하는 생각이 더욱 많았다"고 한 저자는 기록하였다. 그러나 그도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성경을 연구하게 되었다. 그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로마교의 교리가 아니라 루터의 교리인 것을 깨닫고" (Wylie, b13, ch1) 놀랐다. 그는 그 뒤로부터 온전히 복음 사업에 헌신하게 되었다.

"프랑스 귀족 가운데서 최대의 학자"인 그는 그의 천품 (天稟) 과 웅변적 재능, 백절불굴의 용기와 열심, 임금에게 총애를 받는 사람으로서 궁전에서의 영향력 등으로 보아서 천성적으로 프랑스 개혁자로 태어난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베자 (Beza) 는 "만일 프란시스 1 세가 제 2 의 선후 (選侯) 였었더라면 베르캥은 분명히 제 2 의 루터가 되었을 것이다"고 말하였다. 법왕교도들은 그를 "루터보다 더욱 나쁜 사람이다" (Wylie, b13, ch1) 고 부르짖었다. 그는 프랑스의 로마교도들에게는 정말로 루터보다 더욱 두려운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그를 이단자로 투옥하였다. 그러나 프란시스 왕은 그를 석방시켜 주었다. 그 후로 여러 해 동안 투쟁이 계속되었다. 로마교와 개혁파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프란시스 왕은 승려 측의 가혹한 열성을 묵인하는 듯하다가도 때로는 그것을 견제하였다. 베르캥은 법왕교의 당국자들에 의하여 세 번이나 투옥당하였다. 그러나 언제나 그의 천재적 재질과 고결한 인격을 찬탄해 오던 왕은 그를 교권의 술책에 희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그를 석방시켜 주었다.

베르캥은 프랑스에서 그를 위협하는 위험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고를 받고, 또는 자진해서 망명하므로 안전하게 된 사람들의 본을 따르라는 권고를 자주 들었다. 모든 학문의 높은 경지에 이르고서도 진리를 위하여 생명과 명예를 버릴 기백이 없는 비겁한 기회주의자인 에라스무스 (Erasmus) 는 베르캥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어떤 외국의 대사로 파견되기를 요청하여

독일로 가도록 하십시오. 그대는 베다 (Beda) 를 알 것입니다. 그는 널리 사방으로 독소 (毒素) 를 퍼뜨리는 수천의 머리를 가진 괴물입니다. 그대의 원수는 참으로 많소이다. 그대의 사업이 그리스도의 사업보다 더욱 훌륭할지라도 그들은 그대를 잔혹한 죽음에 처하기 전에는 결코 가만있지 않을 것입니다. 왕의 보호에 지나치게 의뢰하지 마십시오. 하여간 신학부의 교사들과 나에게 누가 미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Wylie, b13, ch1).

그러나 위험이 증가될수록 베르캥의 열심은 더욱 더 강해졌다. 그는 에라스무스의 정책적이요, 기회주의적인 권고에 복종하기는커녕 도리어 한층 더 대담한 수단을 쓰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진리를 옹호할 뿐만 아니라 오류를 공격할 것이었다. 그는 로마교가 자기에게 씌우고자 하는 이단이라는 비난을 도리어 그들에게 돌려주고자 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적극적이요, 무서운 반대자는 파리 시와 불란서 전국을 통하여 종교상 최고의 권위로 인정받고 있는 파리 대학 신학부의 박사들과 승려들이었다. 그런데 베르캥은 그 박사들의 저서 중에서 12 개의 조목을 뽑아서 "성경에 위배되고 이단적인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주장하였다. 그는 왕에게 그 논쟁의 심판자가 되어 주기를 호소하였다.

왕은 서로 반대되는 투사들 간에 힘과 지혜를 대조적으로 나타낼 기회를 회피하지 않고, 거만한 승려들의 자고심을 꺾어 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로마 교도들에게 대하여 성경으로 그들의 주장을 옹호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별반 유익이 없을 것을 알았다. 그들은 투옥, 고문, 화형과 같은 일에 익숙해져 있었다. 이제 형세가 역전되어 베르캥을 빠뜨리기 위하여 판 함정에 그들이 빠진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놀라서 다른 방면으로 피할 길을 찾고자 하였다. "마침 당시에 어느 길거리에 세운 성모 마리아의 상이 파손되었다." 시중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그 곳에 모여서 슬픔과 분노의 음성으로 부르짖었다. 왕의 마음도 심히 흔들렸다. 승려들은 그들에게 유리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용하였다. 승려들은 "그것이 베르캥의 가르침의 결과이며, 그 루터당은 모든 것, 곧 종교와 법률과 왕위 자체까지 전복시키고자 하고 있다" (Wylie, b13, ch1) 고 부르짖었다.

베르캥은 다시 체포되었다. 그러나 왕은 파리를 떠나 부재중이었으므로 승려들은 저희들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게 되었다. 개혁자 베르캥은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 프란시스 왕이 그를 구원해 낼 수 없도록 하고자 그 선고는 언도를 받은 그날로 집행되었다. 정오에 베르캥은 사형장으로 끌려 나갔다. 사람들은 그 사건을 목격하기 위하여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경악과 의혹으로 많은 사람들은 프랑스에서 가장 용감하고 고귀한 귀족 출신의 그 희생자를 주목하였다. 경악, 의분, 조소, 강한 증오심이 그 주위에 몰려드는 사람들의 얼굴을 어둡게 하였으나 오직 한 사람의 얼굴에는 아무런 그늘도 없었다. 그 순교자의 생각은 이 소동에서 멀리 떠나 있었다. 그는 자기의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심을 의식하였다.

그를 태운 보잘것없는 작은 수레, 박해자들의 험상궂은 얼굴, 곧 그가 당해야 할 무서운 죽음, 그 모든 것들을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살아 계신 그리스도,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셔서 영원히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곁에 계셨다. 베르캥의 용모는 하늘의 빛과 화평으로 빛나고 있었다. 베르캥의 복장은 훌륭하였다. 그는 "우단 외투와 교직 조끼를 입고 금빛 양말" (D'Aubigne.History of the reformation in the Time of Calvin, b1, ch16) 을 신고 있었다. 그는 이제 만왕의 왕과 온 우주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의 믿음에 대하여 증거할 것이었다. 그의 얼굴의 어떤 슬픈 흔적도 그의 기쁨을 어그러지게 하지 못했다.

행렬이, 군중으로 들끓는 거리를 천천히 지나갈 때 사람들은 그의 풍채와 태도와 티끌만큼도 흐린 점이 없는 화평과 승리의 기쁨을 보고 놀랐다. "이 사람은 성전 안에 앉아서 거룩한 사물을 조용히 명상하는 사람과 같다" (Wylie, b13, ch1) 고 그들은 말하였다. 베르캥은 화형대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약간의 말을 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두려워한 승려들의 부르짖음과 군인들이 무기를 부딪치는 소리와 떠드는 소리로 인하여 순교자의 음성은 사라지고 말았다. 이리하여 1529 년에 개화된 파리에서 학문과 신학의 최고 권위자들이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말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으로 1793 년의 혁명 시대의 민중에게 가장 악한 모본을 남겼다" (Wylie, b13, ch1).

베르캥은 교수형을 당하였고, 그의 시체는 불태워졌다. 그의 죽음의 소식은 프랑스 전국의 개혁파의 동지들을 슬프게 하였다. 그러나 그의 모본은 허지로 돌아가지 않았다. "우리들도 장차 받을 미래의 생명을 바라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D'Aubigne.History of the refo-rmation in the Time of Calvin, b1, ch16) 고 진리의 증인들은 말하였다. 모오에서 박해가 일어나자 개혁파의 교사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박탈당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지방을 향하여 떠나갔다. 러페브르는 얼마 후에 독일로 갔고, 파렐은 동프랑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고향에서 빛을 전하였다. 사람들은 이미 모오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하여 소식을 들었으므로 그가 두려움 없이 열심으로 진리를 설명할 때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당국자들은 곧 그를 침묵시키기 위하여 일어나서 그를 읍에서 추방시켰다. 비록 그는 공공연하게 전도할 수 없었으나 촌락을 두루 다니면서 민가 (民家) 와, 격리된 목장에서 교리를 설명하고 숲 속과 소년 시절에 자주 다니던 바위로 된 동굴에서 피난처를 찾았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환난을 위하여 그를 준비시켰다. 그는 말하였다. "내가 미리 경고를 받은 십자가와 박해와 사단의 음모 등은 내 힘에 만만치 않은 것들이었다. 그것들은 힘으로 견디기에는 너무 심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시다. 그분께서는 내가 필요한 힘을 지금까지 주셨고, 장래에도 언제나 주실 것이다" (D'Aubigne.b12, ch1).

사도 시대와 마찬가지로 박해는 “도리어 복음의 진보” (빌 1:12) 를 가져왔다. 파리와 모오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 (행 8:4) 하였다. 그리하여 빛은 프랑스의 궁벽한 먼 지방에까지 퍼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전히 일꾼들을 준비시키고 계셨다. 파리의 어느 학교에 사려 깊고 침착한 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이미 강력하고 예민한 정신력을 소유한 증거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지적 열성과 신앙적 헌신뿐만 아니라 고결한 생애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의 천재적 지능과 근면은 곧 그 대학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존 칼빈은 교회의 가장 유력하고 존경할 만한 옹호자가 될 것이 확실시되었다. 그러나 하늘의 빛이, 칼빈을 둘러싸고 있던 스콜라 철학과 미신의 장벽을 뚫고 그의 마음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새로운 교리에 대하여 듣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 교리를 선포하는 이단자들이 화형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전혀 예기치 않게 그 이단설과 접하게 되었으므로 개혁파의 교리를 대항하기 위하여서는 로마교의 신학의 능력을 시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개혁파에 가담한 칼빈의 사촌 한 사람이 파리에 살고 있었다. 그 두 사람은 때때로 만나서 당시 그리스도교국을 혼란케 하고 있는 문제들을 함께 토론하였다. 프로테스탄트인 올리베탄 (Olivetan) 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교밖에 없다. 그 중의 한 가지 종교는 사람이 고안해 낸 것으로서, 그것은 의식 (儀式) 과 선한 행실을 통하여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다. 또 다른 종교는 성경에 밝히 계시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만이 주어지는 구원을 바라보도록 사람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칼빈은 “나는 그대의 새 교리를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대는 내가 지금까지 오류 가운데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가” (Wylie, b13, ch1) 라고 부르짖었다. 그러나 칼빈의 심중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라 자기의 의지로는 도저히 그것들을 물리칠 수가 없었다. 그는 홀로 자기의 방에서 사촌의 말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죄의 자각이 그에게 떠나지 않았다. 그는 중보자 없이 성결하고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보았다. 성도의 중보, 선행, 교회의 의식, 그 모든 것들이 죄를 속하는 데는 무력하였다. 앞길은 암담하여 오직 영원한 절망이 있을 뿐이었다. 교회의 학자들은 그의 근심을 해결해 주고자 노력하였으나 허사였다. 고해 성사와 고행도 신뢰할 만한 것이 못되었다. 그것들은 심령을 하나님과 화목시켜 줄 수 없었다.

이와 같이 무익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을 동안, 칼빈은 어느 날 우연히 큰 광장에 나가서 소위 이단자를 화형시키고 있는 광경을 보았다. 그는 순교자의 얼굴에 화평의 빛이 빛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한 충격을 받았다. 무서운 죽음의 고통 속에서, 그보다 더욱 무서운 교회의 정죄의 선고를 받고서도 순교자는 믿음과 용기를 나타내었다. 그 때에 청년 칼빈은 그러한 믿음과

용기를 가진 순교자와, 가장 엄격하게 교회에 순종하는 생애를 하면서도 오히려 절망과 암흑 속에서 헤매고 있는 자기 자신을 괴로운 마음으로 비교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이단자들이 그들의 믿음을 성경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성경을 연구하여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의 기쁨의 비밀을 찾아내고자 결심하였다.

그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그는 부르짖었다. "오, 아버지! 그분의 희생은 당신의 진노를 그치게 하였고, 그분의 피는 나의 많은 허물을 씻어 버렸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나의 저주를 대신 졌고, 그분의 죽음은 나를 속량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아무 소용없는 어리석은 것들을 많이 고안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말씀을 횃불처럼 내 앞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마음을 감동하사,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공로 이외에는 아무것이나 다 싫어하게끔 하셨습니다" (Martyn, vol1, ch13). 칼빈은 성직자가 되기 위하여 교육을 받아 왔다. 그는 겨우 열두 살이 되었을 때, 어떤 작은 교회의 설교자로 임명되었으며, 그의 머리는 교회의 규정에 따라 감독의 손으로 짧게 깎여 있었다. 그는 아직 안수를 받지 않았고, 신부로서의 직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성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직분에 대한 칭호를 가지고 있었고, 그 직무에 대한 보수도 받고 있었다.

이제 그는 신부가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얼마 동안 법률 공부로 방향을 돌렸다. 그러나 마침내 그는 이 목적도 버리고 자기의 생애를 복음을 위하여 바치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그는 공공연하게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일을 주저하였다. 선천적으로 수줍음이 많은 그는 그 지위에 따르는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여전히 연구에 전념하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친구들의 끈덕진 권유는 마침내 그의 동의를 얻었다. "이처럼 미천한 출신의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직분을 받아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Wylie, b13, ch1) 고 그는 말하였다. 칼빈은 그의 사업을 조용히 착수하였다. 그의 말은 마치 땅을 적시는 이슬과 같았다. 그는 파리를 떠나서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의 역군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힘을 다하고 있던 마가레트 여왕의 보호 아래 있는 지방의 한 작은 도시에 이제 거하게 되었다. 칼빈은 여전히 온유하고 자긍할 줄 모르는 청년이었다. 그의 사업은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가족들을 모아 놓고 성경을 읽고, 구원의 진리를 깨우쳐 주었다. 복음의 기별을 들은 사람들은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었으므로 그는 오래지 않아 그 곳을 떠나 멀리 있는 촌락과 도시를 찾아갔다. 그는 귀족들의 큰 집과 가난한 사람의 오막살이를 가리지 않고 들어가서 용감한 진리의 증인들을 만들어 낼 교회의 기초를 놓으면서 전진하였다.

몇 달 후에 그는 다시 파리에 왔다. 파리에는 흔히 볼 수 없는 동요가 유식한 부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다. 고대의 언어를 연구함으로 사람들은 성경을 주목하게 되었고, 성경의 진리로 마음이 아직 사로잡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하여 열렬히 토론하고, 로마교의 지지자들을 대항하여 투쟁까지 전개하고 있었다. 칼빈은 비록 신학적 논쟁에서는 유능한

투사였지마는, 그 학자들과 소란스런 논쟁을 하는 것 이상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의 마음은 흥분 상태에 놓여 있었고, 이제는 그들의 마음에 진리를 보여 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 대학의 강당이 신학적인 논쟁으로 시끄러울 동안, 칼빈은 집집을 방문하여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 주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말해 주었다. 하나님의 섭리로, 파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또 다른 초청을 받게 될 것이었다. 러페브르와 파렐의 호소는 거절당하였다. 그러나 다시 그 기별은 이 큰 도시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할 것이었다. 프란시스 왕은 정치적 영향 때문에 아직 개혁주의를 대항하여 로마의 편에 완전히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황제의 누이 마가레트는 개혁주의가 프랑스에서 승리를 얻어야 한다는 희망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었다. 그는 개혁주의를 파리에 선포하여야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왕의 부재시에, 그는 개혁파의 한 목사에게 파리의 여러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하였다. 이와 같은 일이 법왕의 당국자들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것을 알고 그는 왕궁을 공개하였다. 그는 그 일부를 개조 (改造) 하여 강당을 만들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설교를 하도록 하고, 계급과 지위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참석하도록 광고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에 참석했다. 강당뿐 아니라 그 근방의 방들까지도 사람들로 꽉 찼다. 매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거기에는 귀족, 정치가, 법률가, 상인, 직공들까지도 있었다. 왕은 이와 같은 집회를 금지하는 대신에 파리 시내의 두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집회를 열도록 명령하였다. 시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일찍이 받아보지 못한 감동을 받았다. 하늘에서 온 생명의 기운이 사람들에게 들어간 것 같았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투쟁과 게으름이 절제와 순결과 질서와 근면으로 바뀌어졌다.

그러나 성직자 계급에서는 가만있지 않았다. 왕은 여전히 복음 전도를 중단시키는 일에 간섭하기를 거부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대중에게로 방향을 돌렸다. 무지하고 미신적인 많은 무리에게 공포와 편견과 광신을 일으키기 위하여 어떠한 수단도 가리지 않고 사용하였다. 거짓 교사들에게 맹종한 파리는 옛날의 예루살렘과 같이 그들의 심판의 날도 알지 못하였고, 평강에 속한 일도 알지 못하였다. 2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파리에서 전파되었다. 그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나, 백성들 중의 대다수는 거절하였다. 프란시스 왕은 단순히 자기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개혁주의를 허용하였으므로, 법왕측이 다시 권세를 회복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리하여 교회는 다시 폐쇄되고, 화형주가 세워졌다.

칼빈은 여전히 파리에서 연구와 명상과 기도로써 장래의 사업을 위한 준비를 갖추는 한편 진리를 계속 전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그는 의심을 받게 되었다. 당국자들은 그를 화형에 처하고자 결심하였다. 그는 안전하게 숨어 있었으므로 그의 신변이 그처럼 위험한 줄은 생각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날 친구들이 그에게로 급히 달려와서 그를 체포하기 위하여 관리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알려주었다. 바로 그 때에 대문을 두드리는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일각도

지체할 때가 아니었다. 그의 친구들 중의 몇 사람이 문에 서서 관리들을 지체시키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급히 그 개혁자를 창문으로 달아 내렸다. 그는 재빨리 시가를 빠져나갔다. 그는 개혁주의에 호의를 가지고 있는 한 노동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주인의 의복을 얻어 입고, 괭이를 어깨에 메고, 길을 떠났다. 그는 남쪽으로 가서 마가레트 영 (領) 에서 다시금 피난처를 찾았다 (D'Aubigne, b1, ch10 참조).

유력한 친구들의 보호 아래 거기서 몇 개월 동안 안전하게 체류하면서 그는 여전히 연구에 몰두하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프랑스의 복음화에 있었으므로, 그는 오랫동안 하는 일없이 지낼 수 없었다. 박해의 폭풍이 잔잔해지자마자 그는 포티어 (Poitiers) 에서 새로운 일터를 발견하였다. 거기에는 대학도 있었고, 복음주의가 호평을 받고 있었다. 모든 계급의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공적인 설교는 하지 못하였지마는 칼빈은 고관의 집에서나 그의 숙소에서나 때로는 공원에서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들려주었다. 얼마 후에 청중이 늘어감에 따라 도시의 밖에서 모이는 것이 더욱 안전한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리하여 깊고 좁은 산골짜기에 있는 동굴을 집회소로 택하였는데, 그 곳은 수목과 암석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더욱 안전한 피난처가 되었다. 적은 무리들을 이루어 각각 다른 길로 시가를 벗어나 이곳으로 모였다. 그는 그 격리된 장소에서 성경을 읽고 설명하였다. 프랑스의 개신교도가 처음으로 성만찬 예식을 한 곳이 바로 이 곳이었다. 이 작은 교회에서 몇 사람의 충실한 복음 전도자들이 외부로 파견되었다.

칼빈은 다시 파리로 돌아왔다. 그는 한 국가로서의 프랑스가 종교개혁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희망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사업의 문호가 거의 닫히게 된 것을 알았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화형주로 직행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독일로 가고자 작정하였다. 그가 프랑스에서 몰래 탈출하자마자 심한 폭풍우가 그 나라의 개혁파에게 엄습하였다. 그가 프랑스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그는 분명히 죽음을 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프랑스의 종교 개혁자들은 자기들의 나라가 독일이나 스위스와 보조를 맞추어 나가는 것을 보고자 열망한 나머지 온 국민을 각성시키기 위하여 로마교의 미신을 공격하여야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래서 미사를 공격하는 격문을 하룻밤 사이에 전국에 붙였다. 그러나 분별없이 열성만으로 행한 그 일은 개혁 사업을 전진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그 선동자들뿐만 아니라 프랑스 전역의 개혁 신앙의 동지들에게까지 파멸을 초래하고 말았다. 그 일은 로마교도들이 오랫동안 소원하던 것, 곧 이단자들을 국가의 안녕 (安寧) 과 왕위의 확립을 위태롭게 하는 선동자들로 몰아 그들의 완전한 박멸을 요구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 주게 되었다.

누구의 소행인지는 몰라도, 혹 분별력 없는 동지가 한 일인지, 교활한 원수가 한 일인지 전혀 분명치 않았으나, 한 장의 격문이 왕의 거실 (居室) 의 출입문에 붙어 있었다. 왕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 한 장의 종이 가운데는 다년간 존경을 받아 오던 미신을 무참하게 공격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처럼 기탄없는 놀라운 문구가 왕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그의 격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너무도 놀란 왕은 얼마 동안 말없이 떨고 있었다. 이윽고 그는 분노에 사로잡힌 채 무서운 말을 터뜨렸다. "루터당이라고 의심되는 자는 차별 없이 체포하라. 나는 그들을 모두 박멸할 것이다" (D'Aubigne, b1, ch10).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왕은 로마의 편에 완전히 가담하기로 결심하였다.

파리 시에서도 루터 파를 모두 체포하는 조치가 즉시 취해졌다. 개혁파의 한 사람으로서 비밀 집회에 신자들을 모으는 일에 능숙했던 빈곤한 한 직공이 체포되었다. 그는 즉시 화형에 처한다는 위협 하에, 법왕측의 사자들을 시내에 있는 모든 개신교도들의 집으로 인도해 주도록 명령을 받았다. 그는 전율하면서 그런 비열한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회피하였지만 마침내 타오르는 화염을 보고 공포를 느낀 나머지 형제들을 배반하였다. 성병 (聖餠) 을 가진 자가 선두에 서고, 많은 신부들, 향로를 든 자들, 승려들, 군인들이 그를 에워싸고 나갔는데 왕실의 비밀 탐정인 모린 (Morin) 이 그 배반자를 데리고 가만가만히 시가를 빠져나갔다. 이 행렬은 미사를 더럽힌 개혁 교도들을 위하여 죄의 용서를 받게 하는 것이라고 함이 표면상 이유였다. 그러나 사실상 그 이면에는 무서운 목적이 감추어져 있었다. 어떤 루터교도의 집 맞은편에 이르자 그 배반자는 소리 내지 않고 어떤 암호를 하였다. 그러자 행렬은 정지되고 사람들이 그 집으로 달려 들어가 가족을 끌어내어 포박하고 다시 새로운 포획물을 찾아서 그 무서운 행렬은 움직였다. 그들은 "큰 집이나 작은 집을 막론하고 어떤 집이든지 그냥 지나지 않았다. 파리 대학과 같은 교육 기관까지도 엄습하였다. 그리하여 탐정 모린은 전 시중을 전율시켰다. ...그것은 공포 시대였다" (D'Aubigne, b1, ch10). 그 희생자들은 잔인한 고문 끝에 죽임을 당하였는데, 화형을 집행할 때 그들의 고통을 더욱 연장시키기 위하여 그 화력을 약하게 하라는 특별한 지시가 주어졌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승리자들처럼 죽었다. 그들의 지조는 변함이 없었고, 그들의 평화에는 그늘이 없었다. 박해자들은 그들의 확고부동한 태도에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 자신들이 패배한 것을 느끼었다. "단두대는 파리의 모든 거리에 세워지고 화형은 날마다 계속 집행되었는데, 이렇게 사형의 집행을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 이단에 대한 공포심을 갖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그러나 마침내 복음이 최후의 승리를 얻었다. 파리의 모든 시민들은 이 새로운 주의가 어떠한 종류의 사람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었다. 순교자를 화형시키기 위하여 쌓아올린 장작더미처럼 좋은 설교단은 다시없었다.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갈 때, 그 사람들의 얼굴에 나타난 조용한 기쁨, 심한 불길 속에 서 있는 그들의 영웅적 태도, 모욕에 대한 그들의 온유하고 관대한 용서 등은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동정으로, 증오를 사랑으로 바꾸어 주었고, 저항할 수 없는 웅변으로 복음을 옹호하는 방편이 되었다" (Wylie, b13, ch10).

신부들은 대중의 분노를 절정에 이르게 하고자 노력하였고, 프로테스탄트에 대하여 극도의 무서운 비난을 퍼부었다. 그들은 가톨릭교도를 학살하려고 음모하고, 정부를

전복시키고자 하고, 왕의 암살을 도모하였다는 등의 정죄를 받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주장들은 전혀 근거 없는 것들이었다. 그런데 그처럼 무서운 무고는 하나의 예언으로 성취될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프로테스탄트로 말미암아서가 아니고 전혀 다른 입장과 환경에 있는 자로 말미암아 전연 다른 원인에서 감행될 것이었다. 가톨릭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프로테스탄트에게 가해진 만행은 그 보응의 무게를 더하였다. 그리고 후세에 이르러 이때에 그들이 왕에게 대하여, 정부에 대하여, 신하들에 대하여 예언한 것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그 일은 무신론자들로 말미암아, 그리고 법왕교도 자신들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 3 백년 후에 프랑스에 그처럼 비참한 재난이 초래된 것은 개혁주의의 수립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가톨릭측이 개혁주의를 핍박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제 의심과 불신과 공포가 사회의 모든 계층에 편만해졌다. 이러한 공포의 도가니 속에서 교양 있고, 세력 있고, 품성이 고결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루터파의 교리가 얼마나 깊이 스며들고 있었는지 나타났다. 신임과 명예를 받고 있던 자리들이 갑자기 비게 되었다. 직공, 인쇄인, 학자, 대학 교수, 저술가, 심지어 왕궁에서 시종 드는 사람들까지도 모습을 감추었다. 이리하여 허다한 사람이 파리를 버리고, 국외로 피신하여 감으로써 복음파의 신앙에 대하여 호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처음으로 나타내었다. 법왕교도들은 그들과 같이 지내면서 의심을 받지 않고 지내온 이단자들을 생각하고 새삼스럽게 경이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리하여 그들의 분노는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 있는 보다 비천한 다수의 복음 교도들에게 쏟아졌다. 감옥은 차고 넘쳤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징벌하는 화형의 연기로 하늘이 어두워지는 것처럼 보였다.

프란시스 1 세는 16 세기 초엽에 일어난 문예부흥 운동의 지도자로서의 영예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학자들을 각 나라에서 자기의 궁전으로 모으기를 좋아하였다. 그가 종교 개혁파에 어느 정도 신앙의 자유를 허용한 것은 그가 학문을 사랑하고, 승려들의 무지와 미신을 경멸히 여긴 것이 그 동기의 일부가 되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학문을 숭상하던 그 사람도 일단 이단 박멸의 열정에 사로잡히자 드디어 프랑스 전국에 출판을 금지하는 칙령을 내렸다. 프란시스 1 세는 지적 교양이 종교적 편견과 핍박을 방어해 주는 보호의 수단이 안 된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많은 실례 중의 하나를 보여 준다. 프랑스는 엄숙하고 공공연한 의식을 통하여 프로테스탄트주의를 박멸하기에 전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신부들은 개혁파들이 미사를 정죄함으로 높으신 하나님을 모욕한 것을 피로써 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는 왕이 국민을 대신하여 이러한 전율할 행위를 공중 앞에서 재가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드디어 1535 년 1 월 21 일에 그 무서운 의식이 집행되도록 정해졌다. 미신적인 공포와 융통성 없는 증오심이 온 국민의 마음속에서 일어났다. 파리는 부근의 각 읍에서 몰려온 군중들로 가득 찼다. 당일에는 당당한 일대 행진을 거행할 예정이었다. "행렬이 지나가는

집들에는 상장 (喪章) 이 내어 걸리고 곳곳에 제단이 설치되었다." 모든 집 문 앞에는 거룩한 의식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횃불이 세워져 있었다. 날이 새기 전에 왕궁에서 행진의 대열이 형성되었다. "선두에는 각 교구의 깃발들과 십자가들이 서고, 그 다음에는 시민들이 두 사람씩 짝을 지어 횃불을 들고 따라갔다." 그 뒤에는 네 계급의 교단승 (敎團僧) 이 각자 독특한 승의 (僧衣) 를 입고 따라가고 있었다. 그리고 가지각색의 거룩한 유물들을 가지고 갔고, 자색과 홍색 옷을 입고 보석으로 단장한 위풍당당한 성직자들이 따랐다. "성병 (聖餠) 은 파리의 감독이 가지고 갔는데, 네 사람의 왕족이 화려한 일산 (日傘) 으로 그 위를 가리고 있었다. 왕은 그 성병의 뒤를 따랐다. 프란시스 1 세는 그날에 왕관과 왕복을 착용하지 아니하였다.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땅을 내려다보고, 손에 작은 촛불을 들고 가는 프란시스 왕은 참회자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었다" (Wylie, b13, ch11). 그는 제단 앞에 이를 때마다 몸을 굽혀 꿇어 엎드렸는데, 이는 그의 마음을 더럽힌 죄악이나, 그의 손을 더럽힌 무죄한 자의 피 때문에서가 아니고 대담하게도 미사를 정죄한 자기의 신하들의 무서운 죄 때문에서였다. 왕비와 국가의 고관들은 두 사람씩 나란히 서서 각각 횃불을 손에 들고 그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그날의 행사의 하나로서 왕은 감독의 저택의 넓은 방에서 국내의 고관들에게 일장 연설을 하였다. 그는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그들의 앞에 나타나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웅변으로 그 나라에 다가온 "범죄와 모독과 슬픔과 치욕의 날"에 대하여 깊이 탄식하였다. 그리고 그는 프랑스를 멸망시키고자 위협하고 있는 그 파괴적인 이단을 박멸하는 데 있어서 모든 충성된 신하들에게 조력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의 임금됨이 사실인 것처럼, 만일 나의 사지 중의 하나가 이 더럽고 추악한 이단설로 더러워졌거나 썩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 같으면 나는 그것을 꺾어버리도록 여러분들에게 내어 맡기리라. ...또한 그뿐 아니라 나의 자녀 중의 하나가 그와 같은 병에 감염된 것을 발견한다면 나는 그를 결단코 아끼지 아니하리라. ...나는 직접 그를 잡아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리리라"고 그는 말하였다. 눈물이 왕의 말문을 막았다. 그러자 온 회중은 감격하여 울면서 다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가톨릭교를 위하여 살고 가톨릭교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D'Aubigne, b1, ch12) 고 외쳤다.

진리의 빛을 거부한 그 나라의 암흑은 두려운 형편에까지 이르렀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가 이미 나타났었지만 프랑스는 그 은혜의 권능과 거룩함을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온 미덕에 이끌리고 각 도시와 촌락이 그 빛으로 교화된 것을 목격하면서도 그것을 거절하고 빛보다 어둠을 택하였다. 하늘에서 온 선물이 제공되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절하였다. 그들은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여 마침내 스스로 자아기만의 포로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그러므로 지금은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의 백성을 박해하고 있다고 믿고 있을지라도, 그러한 실정이 그들을 무죄하다고 해줄 수는 없었다. 그들은 기만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고, 그들의 영혼을 피흘린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빛을 고의로 거절하였다.

이단을 박멸하겠다는 엄숙한 맹세가 큰 전당에서 이루어졌는데, 바로 그 장소에서 약 삼백년 후에 살아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에 의하여 "이성 (理性) 의 여신"이 경배를 받을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행렬이 정돈되었으므로 프랑스를 대표하는 여러 사람들은 그들이 맹세한 그 일에 착수하였다. "가까운 거리에 몇 사람의 프로테스탄트들을 산 채로 화형시킬 화형주들이 세워져 있었다. 왕이 가까이 접근하는 순간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고 행렬이 정지되어 그 처형의 모습을 쳐다보도록 준비가 되어 있었다" (Wylie, b13, ch11). 그 때에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당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끔찍한 것이었으나 그들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다. 신앙을 취소하라는 권면을 받게 되자, 그 중의 한 사람은 "나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이미 전한 것과 모든 성도들이 믿는 것만을 믿는다. 나의 믿음은 음부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D'Aubigne, b1, ch12) 고 대답하였다. 여러 번 행렬은 처형당하는 장소들에서 멈추었다. 그들이 처음 출발했던 왕궁에 도착하자 군중은 해산되고, 왕과 주교들은 그날의 행사에 매우 만족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피차에 축하를 나누며 지금 시작한 이단 박멸 작업을 끝까지 계속하기로 하였다.

프랑스에서 거절한 평화의 복음은 분명히 뿌리까지 뽑혔지마는 그 결과는 또한 무서운 것이 될 것이었다. 프랑스가 개혁자들을 완전히 박해하기로 한 바로 그날부터 258 년이 지난 1793 년 1 월 21 일에는 전연 다른 목적으로 또 하나의 다른 행렬이 파리 시를 통과하였다. "다시 왕이 주요한 인물로 등장하였고, 다시 소동과 부르짖음이 일어났고, 다시 더욱 많은 희생자들을 요구하는 소리가 들렸고, 다시 검은 단두대가 서게 되었다. 다시금 그날의 활극은 무서운 사형 집행으로 끝을 맺었다. 루이 16 세는 간수와 사형 집행자들 사이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단두대 앞으로 끌려가서 도끼가 내려오기까지 붙들려 있었다. 마침내 잘려진 그의 머리는 단두대 위에서 굴렀다" (Wylie, b13, ch11). 피의 희생 제물이 된 것은 왕만이 아니었다. 피비린내나는 공포 시대 동안에 바로 그 근방에서 단두대에 의하여 처형된 사람은 2 천 8 백 명이나 되었다.

종교개혁은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을 펴서 보여 주고, 하나님의 율법을 공개하고, 그 요구를 사람들의 양심에 호소하였다.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법규와 원칙을 공개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신 4:6) 고 말씀하셨다. 프랑스는 하늘로부터 온 선물을 거절함으로 무정부 상태와 멸망의 씨를 뿌렸고, 그 필연적인 결과로 혁명과 공포 시대를 거두었다.

벽보 사건으로 박해의 불이 아직 일어나기 오래 전에 용감하고 열렬한 파렐은 불가불 자기의 고향을 피해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스위스로 가서 츠빙글리의 사업을 원조하여 개혁 사업을 유리하게 호전시키고 있었다. 그는 그의 여생을 거기서 보낼 작정이었지만 프랑스에서 진행되는 종교개혁의 사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하였다. 그의 망명

생활의 초기에는 특히 자기의 고국에 복음을 전파하고자 애를 썼다. 그는 상당한 기간 동안 국경 지역에 사는 고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언제나 끊임없이 경계하면서 고국의 분쟁을 주시하고, 격려와 권고의 말로써 저들을 도와주었다. 그는 다른 망명자들의 도움을 얻어서 독일 개혁자들의 저서들을 프랑스어로 번역하고, 프랑스어 성경도 동시에 많이 출판하였다. 그 저서들은 문서 전도자들을 통하여 프랑스 국내에 널리 전해졌다. 그런데 문서 전도자들은 그 저서들을 싼 값으로 공급받았으므로 그들은 그 이득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다.

파렐은 스위스에서 한 사람의 교사로서 일을 시작하였다. 그는 한적한 한 교구로 가서 아동 교육에 몰두하였다. 그는 학문을 가르치는 한편, 신중하게 성경의 진리를 소개함으로 아동을 통하여 그 부모들에게 진리를 전하고자 희망하였다. 그리하여 믿는 사람들이 몇 사람 생겼다. 그러나 신부들이 와서 그 사업을 방해하게 되자 미신적인 시골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사업을 반대하게 되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될 수 없는 것은 그것을 전파함으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다. 전쟁이 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Wylie, b14, ch1) 고 신부들은 주장하였다. 그는 초기의 제자들처럼, 이 성읍에서 박해를 만나면 저 성읍으로 피하여 다녔다. 그는 추위와 피곤을 무릅쓰고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 성 저 성으로 걸어 다녔는데 어디를 가든지 그의 생명은 위협을 받고 있었다. 그는 시장에서, 교회에서 때로는 성전의 설교단에서 진리를 전하였다. 어떤 때에는 청중이 한 사람도 없을 때도 있었고, 어떤 때에는 설교하는 중에 고함 소리와 조롱으로 방해를 받은 적도 있었으며, 심지어는 설교단에서 난폭하게 끌려 내려오는 봉변도 당하였다. 여러 번 폭도들의 공격을 받아 거의 죽을 정도로 매를 맞은 일도 있었다. 그럴지라도 그는 앞으로 전진하였다. 때때로 배척을 당하였을지라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공격에 대항하여 가는 동안에 점차로 법왕교의 요새로 되어 있던 성읍들이 복음에 대하여 그들의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다. 처음에 그가 활동하였던 작은 교구는 오래지 않아서 개신교의 신앙을 받아들였다. 모라 (Morat), 뉴사텔 (Neuchatel) 등의 도시들도 로마교의 의식들을 버리고 우상을 제거해 버렸다.

파렐은 제네바에 개신교의 깃발을 꽂고자 오랫동안 열망해 왔다. 그 곳에 진리가 전파되면, 그 곳은 프랑스와 스위스와 이태리를 위한 종교개혁의 중심지가 될 것이었다. 그는 그 목적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 결과로 그 주위의 많은 도시들과 작은 마을들을 얻게 되었다. 그 후에 그는 한 사람의 동료만을 데리고 제네바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는 두 번 밖에는 설교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신부들은 정부의 권위를 가지고 그를 정죄코자 하였으나 그 일이 허지로 돌아가게 되자, 그를 성직자들의 회의에 불러 놓고 무기를 감추고 가서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 회의장 밖에는 격노한 폭도들이 곤봉과 검을 가지고 대기하고 있었으며, 만일 그가 회의 장소에서 피하여 나오게 되면 그를 살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는 지사 (知事) 와 무장한

군대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 이튿날 아침 일찍 그는 자기의 동료와 함께 호수 건너편의 안전지대로 안내되었다. 그리하여 제네바를 복음화시키고자 한 그의 첫 번째 활동은 끝났다.

그 다음에 택함을 입은 사람은 더욱 비천한 사람이었다. 그 젊은이는 너무도 볼품이 없었기 때문에 개혁 사업의 동료들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에게마저도 냉담한 취급을 받았다. 파렐도 거절을 당한 그 성읍에서 그런 인물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가장 강하고 가장 용감한 사람도 피해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성읍에서 용기로나 경험으로나 빈약한 그와 같은 인물이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슥 4:6).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전 1:27, 25).

프로멘트 (Froment) 는 교사로서 일을 시작하였다. 그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친 진리를 아이들은 집에서 다시 이야기하였다. 얼마 후 학부형들이 성경의 강해 (講解) 를 들으러 오게 되었는데 열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로 교실이 마침내 차고 넘쳤다. 신약 성경과 전도용 소책자들이 많이 배부되었으며, 그것들은 새 교리를 공공연하게 들으러 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의 손에 들어갔다. 얼마 후에 그 전도자 역시 피해 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가 가르친 진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박혀 있었다. 개혁 사업의 씨는 뿌려졌고, 계속해서 튼튼하게 확장되어 갔다. 전도자들은 돌아왔으며, 그들의 노력을 통하여 개신교의 사업은 마침내 제네바에서 견고해졌다. 제네바가 이미 개혁 사업을 선언한 후에야 칼빈은 각처로 유랑하여 여러 가지 경험을 겪고 그 성읍에 들어왔다. 그는 자기가 출생한 고향을 마지막으로 방문하고 바젤 (Basel) 로 가는 도중이었다. 그런데 고향으로 가는 직로가 카알 5 세의 군대에게 점령당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그는 불가불 제네바를 거쳐서 돌아가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방문은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파렐은 인정하였다. 비록 제네바가 개혁주의의 신앙을 받아들이기는 하였지만 그 곳에는 아직도 성취되어야 할 큰 사업이 남아 있었다.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며 단체적으로 되는 일은 아니다. 중생 (重生) 의 사업은 회의의 명령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마음과 양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네바의 주민들은 로마교의 권력에서는 벗어났지만 로마교의 통치 하에 만연되어 있는 악은 쉽사리 버리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그곳에 복음의 순결한 원칙을 확립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시는 직위를 훌륭하게 감당하는 일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파렐은 칼빈이 그 사업을 위하여 자기와 협력할 수 있는 사람임을 확신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청년 전도자에게 그 곳에 머물러 일하라고 정중히 간청하였다. 그러나 칼빈은 두려운 마음으로 그 일을 사양하였다. 겁이 많고 평화를 사랑하는 그는 용감하고

독립심이 강하고 과격한 성질을 가진 제네바 사람들과 접촉하기를 두려워하였다. 천성적으로 연구에 몰두하기를 좋아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강도 좋지 못하였으므로 그는 조용한 곳을 찾아가게 되었다. 그는 글로써 개혁 사업에 최선껏 봉사할 수 있으리라고 믿은 나머지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서 인쇄물을 통하여 교회를 가르치고 세워 나가고자 희망하였다. 그러나 파렐의 엄숙한 권고는 하늘에서 온 소명처럼 느껴졌으므로 그는 감히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손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자기를 붙들고 자기가 피하여 가려는 그 장소에 억지로 주저앉게 한 것" (D'Aubigne, b1, ch17) 처럼 느꼈다고 말하였다. 이때에 개혁 사업은 큰 위기를 맞이하였다. 법왕은 제네바에 대하여 파문의 선고를 내렸고, 강국들은 제네바를 멸망시키겠다고 위협하였다. 흔히 왕들과 황제들까지도 강제로 굴복시키던 그 강력한 교직 정치를 이 작은 도시가 어찌 능히 대항할 수 있으며, 그것이 세상을 정복한 큰 군대들을 어떻게 저항할 수 있을까?

모든 그리스도교국에서 개신교는 흉악한 원수들에게 위협을 당하였다. 개혁 사업의 최초의 승리는 지나갔다. 로마교는 개혁 사업을 진멸시키기 위하여 새 세력들을 구축하였다. 이때에 법왕교의 투사들 가운데 가장 잔인하고, 무법하고, 강력한 제수이트당이 조직되었다. 그들은 혈연적 관계와 인간적 사리도 무시하고, 인정의 요구와 이성 (理性) 과 양심에도 무감각하여 그것들을 완전히 배척해 버리고, 규율과 유대 관계도 무시하고, 오직 저들의 규칙에 의지하여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하는 데만 진력하였다 (부록 17 참조).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것을 고수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위험을 무릅쓰고 고난을 참게하고, 추위와 주림과 수고와 빈곤도 겁내지 않게 하고, 고문대와 감옥과 화형주 앞에서도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게 하여 주었다. 그런데 이 세력을 대항하기 위하여 제수이트당은 그 추종자들에게 광신을 불러일으켜서 온갖 위험들을 견딜 수 있게 하고, 각종 기만의 무기들로 진리의 세력을 반대하게 하였다. 그들은 아무리 큰 죄라도 범할 수 있었고, 아무리 저급한 거짓도 행할 수 있었고, 어떤 가장 (假裝) 도 어려움 없이 꾸밀 수 있었다. 항구적인 빈곤과 검소한 생활을 맹세하였지만, 그들의 목적은 부와 권력을 얻고, 개신교를 전복시키고, 법왕의 최상권을 재기시키는 데 있었다.

그들의 단체에 속한 당원의 입장에 설 때에, 그들은 거룩한 의복을 입었고, 그들은 감옥과 병원을 방문하면서 병자와 불쌍한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세상을 버렸노라고 공언하였고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노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외모로는 아무런 흠도 없이 보이는 그들이 때때로 가장 죄악적이요, 치명적인 목적을 감추고 있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킨다는 것이 그 단체의 근본 원칙이었다. 이 원칙에 의하여 거짓말, 도적질, 거짓 증거, 암살 같은 것도 그것이 교회를 이롭게 하는 일일 때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칭찬받을 만한 일이 되었다. 제수이트 당원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장하여 나라의 공직자들이 되고 왕의 고문관들의 지위에도 올라가서 나라의 정책을

세우는 일들을 하였다. 그들은 정탐꾼 노릇을 하기 위하여 남의 종도 되었다. 그들은 왕족들과 귀족들을 위한 대학들과 평민들을 위한 학교들을 세워서 개신교도들의 자녀들로 하여금 법왕교의 의례 (儀禮) 를 지키도록 하였다. 외관상으로 화려하고 찬란해 보이는 로마교의 의식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고 상상력을 현혹시켰다. 그러므로 조상들이 수고하고 피 흘려 얻은 자유를 그 자녀들은 배반하였다. 제수이트당은 급격히 온 유럽에 퍼졌다. 그리하여 그들이 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법왕교의 부흥이 뒤따랐다.

그들에게 더욱 큰 권력을 주기 위하여 종교 재판소를 다시 세우라는 교서가 내렸다 (부록 18 참조). 일반 사람들이 가증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천주교 국가들에서까지도 부당하게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서운 재판소가 법왕교의 위정자들로 말미암아 설치되고, 백주에는 너무 무서워서 차마 볼 수 없는 고문이 아무도 볼 수 없는 옥중에서 반복하여 감행되었다. 많은 나라에서 국가의 꽃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 순결하고 고상한 사람들, 가장 지성적이고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 경건하고 헌신적인 목사들, 부지런하고 애국적인 시민들, 탁월한 학자들, 천재적인 예술가들, 기술 있는 직공들이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이 죽임을 당하거나 다른 나라로 망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로마교는 종교개혁의 빛을 꺼버리고, 인류에게서 성경을 빼앗고, 암흑시대의 무지와 미신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방책들을 강구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께서 루터를 이어서 일으켜 주신 고귀한 사람들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개신교는 전복되지 아니하였다. 개신교의 힘은 왕족들의 호의나 권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가장 작고 비천하고 무력한 나라들이 그 요새 (要塞) 가 되었다. 종교개혁의 승리를 얻은 나라들은 멸망을 도모하고 있는 강한 원수들에게 둘려 있는 작은 도시 제네바, 당시에 가장 크고 부요하였던 스페인의 학정에 항거하고 있던 네덜란드, 황량하고 메마른 스위스 등이었다. 칼빈은 약 30 년간 제네바에서 활동하였다. 거기서 처음에는 성경상 원칙을 고수하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그 다음에는 온 유럽에 종교개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활동하였다. 공적 지도자로서의 그의 행위와 그의 가르침에는 그릇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당시의 세계에 필요한 진리를 공포하고, 법왕교의 거센 물결을 거슬러서 개신교의 원칙을 지탱하고, 로마교의 교리에서 자라난 교만과 부패 대신에 단순하고 순결한 생명을 개혁 교회에 부식시켜 주는 도구가 되었다.

제네바에서부터 출판물들과 교사들이 개신교의 교리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나갔다. 거기에서 각국의 핍박자들은 교훈과 권면과 격려를 기대하였다. 칼빈의 시 (市) 제네바는 쫓겨 다니던 서유럽의 개혁자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몇 세기에 걸쳐서 계속된 무서운 폭풍을 피하여 망명자들은 제네바를 찾아왔다. 굶주리고, 상처받고, 집과 친족을 잃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따뜻한 영접을 받고 친절한 보호를 받았다. 그리하여 이곳에서 안식처를 발견한 그들은 그들의

기능과 학식과 신앙을 활용함으로 그 도시를 복되게 하였다. 그리고 여기에서 피난처를 발견했던 많은 사람들은 로마교의 학정을 저항하기 위하여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다.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개혁자 존 녹스, 영국의 많은 청교도들, 네덜란드와 스페인의 신교도들, 프랑스의 위그노교도들은 모두 암흑한 본국들을 밝히기 위하여 제네바에서 진리의 횃불을 들고 나갔다.

13 장 — 네덜란드와 스칸디나비아의 개혁 사업

네덜란드에서는 매우 초기부터 법왕의 학정에 대하여 단호한 항의를 하였다. 루터의 시대 7 백 년 전에 감독 두 사람이 로마에 사절로 파견되어 법왕청의 내용을 알게 되자 그들은 두려움 없이 다음과 같이 로마 법왕을 규탄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당신의 왕후와 배우자로 삼으시고, 교회의 가족을 위하여 존귀하고 영원한 것을 갖추어 주시되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재능과 함께 영원한 면류관과 홀 (笏) 을 주시었다. ...그런데 그대는 도둑과 같이 그대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모두 빼앗았다. 그대는 스스로 하나님이라 하여 성전에 좌정하고, 양의 목자가 되는 대신에 이리가 되었다. ...그대는 최고 감독인 것처럼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자 하나 실상은 폭군과 같이 행동한다. ...그대 스스로가 말하는 바와 같이 그대는 종의 종이 되어야 마땅한데 도리어 주의 주가 되고자 애쓰고 있다. ...그대는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하고 있다.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의 설립자는 성령이시다. 우리가 시민으로 속한 하나님의 도성은 하늘의 전역 (全域) 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은 거룩한 선지자들이 바벨론이라고 부른 도성, 곧 자기를 하나님의 도성인 것처럼 나타내고 자기로 말미암아 천국을 얻는다 하고 그 지혜가 영원한 것이라고 자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이유도 없이 거기에는 오류도 없고 과오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그 바벨론보다 훨씬 더 위대한 도성이다" (Gerard Brandt, History of the Reformation in and About the Low Countries, b1, p1).

각 시대를 통하여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와 같은 항의를 제기하였다. 각 지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알려진 그 초기의 교사들은 왈덴스인의 특징을 발휘하였고, 어디에나 전파되어 있던 복음의 지식을 네덜란드에도 보급시켰다. 그들의 교훈은 매우 신속히 확산되었다. 또 그들은 왈덴스인이 번역한 성경을 네덜란드어로 번역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성경은 매우 큰 유익을 주는 것이다. 거기에는 농담과 우화와 거짓과 천박한 말 등은 전혀 없고 다만 진리의 말씀만 있다. 물론 겉으로 보면 여기저기에 알기 어려운 것들도 있으나, 선하고 거룩한 그 골자와 아름다움은 쉽게 발견될 것이다" (Gerard Brandt, History of the Reformation in and About the Low Countries, b1, p14) 라고 말하였다. 옛날의 신앙의 친구들은 12 세기에 이렇게 기록하였던 것이다.

이제 로마교의 박해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화형과 고문이 되풀이되는 중에서 신자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되었다.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는 오직 성경만이 그릇됨이 없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사람은 믿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되며 복음 전도로 얻어야 한다" (Martyn, vol1, p17) 고 확고하게 주장되었다. 루터의 가르침은 네덜란드에서 잘 자랄 수 있는 땅을 발견하였다. 그리하여 거기서 열성 있고 충성된 사람들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일어났다. 네덜란드의 한 지방에서 메노 시몬스 (Menno Simons) 가 일어났다. 그는 원래 로마 천주교의 교육을 받고

신부로 임명을 받은 사람이었으므로 성경에 대하여는 전연 무지할 뿐 아니라, 이단에 미혹될까 두려워서 그것을 읽어 볼 마음조차 갖지 않았다. 그러므로 화체설 (化體說) 의 교리에 대하여 의혹이 생겼을 때에, 그는 그것을 사단의 유혹이라 하여 기도를 하고 고백을 함으로써 그 문제에서 놓여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헛수고에 불과했다. 그러므로 그는 방탕한 데 빠져서 양심의 소리를 소멸하려 하였으나 그것도 또한 헛수고에 불과하였다. 얼마 후에 그는 신약 성경을 연구하게 되고, 루터의 저서를 읽음으로 개혁파의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 후 오래지 아니하여 그는 가까운 촌락에서 재침례를 받은 까닭으로 참형 (斬刑) 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것이 동기가 되어 그는 유아 세례에 관하여 성경을 연구하게 되었다. 그는 성경에서 유아 세례에 대한 증거를 전혀 찾을 수 없었다. 그와 반면에 그는 어디에나 침례를 받는 조건으로 회개와 믿음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메노는 로마교를 버리고 자기가 받아들인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그의 생애를 바쳤다. 이미 독일과 네덜란드에는 광신자의 무리가 일어나 비합리적이요 선동적인 교리를 주장하여 질서와 풍기를 문란케 하고 폭동과 모반을 일으켰다. 메노는 이러한 운동이 필연적으로 일으킬 두려운 결과를 알고 광신자들의 그릇된 교리와 무모한 방법에 대하여 줄기차게 반대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광신자들에게 미혹되었다가 후에 그 유해한 교리를 버린 사람들도 많았고 또한 옛날의 그리스도인, 곧 왈덴스인들의 교훈의 열매들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다. 메노는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매우 열렬하게 일한 결과 성공을 거두었다.

그는 부인과 자녀들을 데리고 25 년간 여행을 하였다. 그 동안에 그는 심한 고난과 빈궁을 참고 견디었으며,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였다. 그는 네덜란드와 북부 독일을 두루 다니면서 주로 하류 계급을 상대로 활동하였으며 그 감화는 멀리까지 미쳤다. 제한된 교육밖에 받지 않았으나 선천적으로 웅변적이었던 그는 불굴의 성실성과 겸손한 정신과 친절한 태도와 진실하고 열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으며, 자기의 교훈을 자신의 생활로써 실증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들의 신임을 얻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각 곳으로 쫓겨나서 압박을 받았다. 그들은 뮌스터인 (Mu..nsterites) 이라는 광신자들의 무리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크게 어려움을 당하였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였다.

네덜란드처럼 개신교의 교리를 일반적으로 받아들인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또 이곳처럼 개신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무서운 박해를 당한 나라도 드물다. 독일에서는 카알 5 세가 개혁주의를 금지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처형시키고자 하였으나 제후들이 그의 학정을 막았다. 네덜란드에서는 그의 권력이 더욱 컸으며, 박해의 명령이 신속히 뒤를 이어 발해졌다. 성경을 읽는 것, 그 말씀을 듣거나 전하는 것, 심지어 그것에 대하여 말을 하는 것까지도 화형에 처할 만한 죄라고 하였다. 은밀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 또는 시편을 노래하는 것도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자기의 잘못을 버리기로 맹세한 자들도

정죄의 선고를 받았다. 그리하여 남자들인 경우는 검으로 죽이고, 여자들인 경우는 산 채로 매장하여 죽였다. 카알과 필립 2 세의 치하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한 번은 미사 때에 나오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예배하였다는 죄로 한 가족이 종교 재판관들 앞에 끌려나온 일이 있었다. 은밀히 기도한 것에 대하여 심문을 받을 때 제일 어린 아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또 왕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그의 시대가 번영하고 그의 일생이 행복해지기를 구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부의 관리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Wylie, b18, ch1). 재판관들 중의 몇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러나 그 가정의 아버지와 아들 중의 한 사람은 화형을 선고받았다.

박해가 점점 심하여짐에 따라 순교자들의 신앙도 더욱 강하여졌다. 남자뿐만 아니라 연약한 부인들과 소녀들까지도 확고한 용기를 나타냈다. “아내들은 남편들이 달려 있는 화형주 곁에 서서 불에 타고 있는 남편들에게 위안의 말을 들려주거나 시편을 노래로 불러 주기도 하였다.” “어린 처녀들은 마치 밤에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산 채로 조용히 무덤에 들어가 누웠고, 혹은 결혼식에 나아가는 신부처럼 좋은 옷을 입고 교수대나 화형장에 나아가기도 하였다” (Wylie, b18, ch1). 다신교가 복음을 박멸하고자 노력하였던 시대와 꼭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피는 씨앗이 되었다 (Tertullian, Apology, Paragraph 50 참조). 박해는 진리의 증인들의 수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다. 백성들의 정복하기 어려운 결심을 보고 광적 (狂的) 상태가 되어버린 왕은 해가 거듭될수록 잔악한 일을 더욱 심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쓸데없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오렌지 (Orange) 공 윌리엄의 지도하에 혁명이 일어나서 네덜란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를 얻었다.

피에몽의 산간, 프랑스의 평원, 네덜란드의 해변 등지에서는 복음 사업이 신자들의 피로써 이루어졌다. 그러나 북유럽의 여러 나라에는 평화롭게 복음 사업이 시작되었다. 비텐베르크의 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개혁주의를 스칸디나비아에 전하였다. 루터의 저서가 발행되자 진리의 빛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순박하고 담대한 북유럽의 사람들은 로마교의 미신과 사치와 부패에서 벗어나서 순결하고, 단순하고 생명을 주는 성경의 진리를 환영하였다. “덴마크의 개혁자” 타우젠 (Tausen) 은 농부의 아들이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강한 지력의 소유자임이 입증되었고, 교육을 받고자 갈급하였다. 그러나 부모의 환경 때문에 그 일이 용납되지 못하였으므로 그는 승원 (僧院) 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그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순결한 생애를 하였기 때문에 승원장의 총애를 입게 되었다. 시험해 본 결과 그에게는 장차 교회를 위하여 유력한 봉사를 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그를 독일이나 네덜란드의 어느 대학에 유학시키기로 결정되었다. 그 청년 학도는 비텐베르크 대학에만 가지

못한다는 조건 하에 자신이 학교를 선택할 허락을 받았다. 교회의 학자가 될 사람이 이단의 독소에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승려들의 주장이었다.

타우젠은 쾰른 (Ko..ln) 대학에 입학하였다. 그 곳은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당시에는 로마교의 큰 요새 중의 하나였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얼마 되지 아니하여 학생들의 신비설에 염증을 느끼게 되었다. 거의 같은 시기에 그는 루터의 저서들을 얻게 되었다. 그는 놀람과 기쁨으로 그 저서들을 읽고, 그 개혁자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 싶은 욕망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게 되면 그는 승원의 원장을 배반하게 되고, 자기의 생활비도 끊어지는 위험을 면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즉시 결심하고, 얼마 후에 비텐베르크 대학에 등록하게 되었다. 덴마크에 돌아가자마자 그는 다시 승원에 들어갔다. 아무도 그가 루터파가 되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비밀을 드러내지 않고, 동료들의 편견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그들을 보다 순결한 신앙과 고상한 생애로 인도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성경을 펴서 그 참뜻을 밝히 해석하고, 마침내는 죄인의 의와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전하였다. 로마교의 유력한 옹호자가 될 것을 그에게 기대해 온 승원장은 심히 노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곧 그 승원에서 다른 승원으로 옮겨졌고, 거기서 엄중한 감시 하에 홀로 자기 방에만 갇혀 있게 되었다. 그의 새로운 감시인들이 깜짝 놀라게도 그 승원에서는 몇 사람이 개신교로 전향했노라고 자발적으로 선언하였다. 독방에 갇혀 있는 타우젠이 창틈으로 동료들에게 진리의 지식을 전달하였던 것이다. 덴마크의 조상 (祖上) 들이 이단에 대한 로마교의 처리 방법을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으면 타우젠의 소리는 두 번 다시 들을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지하의 토옥 (土獄) 속에 가두어 버리는 대신에 승원에서 추방시켜 버렸다. 이제 그들은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었다. 그 이유는 마침 그 때에 그 새 교리를 가르치는 교사들을 보호하라는 왕의 명령이 내렸기 때문이다. 타우젠은 설교하기 시작하였다. 모든 교회는 그를 환영하였고,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여들었다. 또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덴마크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이 널리 보급되었다. 법왕교도들이 그 사업을 뒤집어엎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 사업은 더욱 확장되어 갔다. 그리하여 곧 덴마크는 개혁주의를 받아들였음을 선포하였다.

스웨덴에서도 비텐베르크의 생명의 샘물을 길어 온 청년들이 그 샘물을 자기 나라의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스웨덴의 종교개혁 운동의 두 큰 지도자 올라프 페트리 (Olaf Petri) 와 라우렌티우스 페트리 (Laurentius Petri) 는 오레브로 (Orebro) 의 대장장이의 아들들로서 루터와 멜란히톤의 문하에서 배우고, 그 배운 진리를 열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쳤다. 올라프도 루터처럼 열성과 웅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각성시켰고, 라우렌티우스는 멜란히톤처럼 학식이 있고, 생각이 깊고 침착한 인물이었다.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을 독실히 믿을 뿐 아니라 신학에 정통하였고 진리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확고한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

법왕교도들의 반대는 조금도 감소되지 않았다. 가톨릭의 신부들은 무지하고 미신적인 사람들을 선동하였다. 올라프 페트리는 자주 폭도들에게 피습되어 간신히 생명을 건진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그 개혁자들은 왕의 사랑과 보호를 받았다.

당시에 사람들은 로마교의 통치 하에 빈곤의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고, 압박으로 눌리어 지냈다. 그들은 성경을 가지지 못하였다. 그들은 마음에 아무런 빛을 주지 못하는 상징과 의식만으로 된 종교를 믿음으로 이교도였던 그들의 선조들이 믿던 미신적 신조와 이교적 생활로 차츰 돌아가고 있었다. 국민들은 서로 분쟁하는 당파를 지어 나누어졌고, 투쟁으로 모든 국민은 더욱 불행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왕은 국가와 교회에서 개혁을 하려고 결심하였다. 그는 로마교와 싸우기 위하여 그 힘 있는 조력자들을 환영하였다.

스웨덴의 군주 (君主) 와 지도자들 앞에서 올라프 페트리는 로마교의 지지자들을 대항하여 개혁주의의 교리를 큰 능력으로 옹호하였다. 그는 로마교의 교부들의 교훈이 성경과 일치할 때에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신앙상의 중요한 교리가 성경에 분명하고 단순하게 계시되어 있으므로 누구든지 그 교리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요 7:16) 고 하셨다. 바울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 1:8)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누가 감히 참람되이 임의로 교리들을 제정하여 그것들이 구원에 필수적인 것들이라고 하여 강제로 지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Wylie, b10, ch1) 라고 그 개혁자는 말하였다. 또한 그는 교회의 법령도 하나님의 명령과 위배될 때는 아무런 권위가 없음을 보여 주었다. 그리하여 그는 개혁주의의 대원칙, "성경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표준임을 역설하였다.

이 논쟁은 다른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규모였으나 그것은 "개혁자측에 어떠한 계층과 사람이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 주고 있다. "그들은 무식한 무리들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그들은 종파심이 강렬한 사람들도 아니었고,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아니었다. 그런 사람들과는 전연 다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사람들이었고, 성경이 공급해 주는 무기를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학문적인 면에서 그들은 시대의 선두에 서 있었다. 비텐베르크, 취리히 등과 같은 훌륭한 중심지, 혹은 루터, 멜란히톤, 츠빙글리, 에콜람파디우스 같은 인물들에만 주의를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그와 같이 주도적 역할을 한 장소나 인물들에게만 큰 능력과 수확을 기대하고 그 외의 장소나 사람들은 별반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이제 스웨덴의 무대로 눈을 돌려 올라프와 라우렌티우스 같은 미미한 이름, 곧 스승들에게서 제자들에 이르기까지 한 번 훑어보자.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는가?... 학자와 신학자, 복음의 진리의 전 체계를 완전히 이해한 사람, 궤변학파의 학자들과 로마교의 주교들을 쉽게 정복한 사람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Wylie, b10, ch1). 그

논쟁의 결과로 스웨덴의 왕은 개혁주의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얼마 후에 국회가 개혁주의에 대하여 찬성의 뜻을 선언하였다. 신약 성경은 올라프 페트리에 의하여 스웨덴어로 번역되었으며, 왕의 희망에 따라 그 두 형제는 성경 전편의 번역에 착수하였다. 이리하여 스웨덴의 국민들은 비로소 자기 나라의 말로 된 성경을 가지게 되었다. 또 국회는 성직에 있는 사람들이 국내의 어느 곳에서나 성경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성경 읽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점차적으로, 그러나 확실히 무지와 미신의 암흑은 복된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사라져 가고 있었다. 로마교의 압박에서 해방된 그 나라는 지금까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힘과 위대성을 소유하게 되었다. 스웨덴은 개신교의 한 보루가 되었다. 1 세기 후 비상한 위험이 다가왔을 때, 스웨덴은 일개의 작은 나라일지라도 30 년 전쟁의 치열한 싸움을 치르고 있는 유럽에서 독일을 구원한 유럽에서의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온 북유럽이 다시 로마교의 학정 아래 들어가는 듯하였다. 그러자 스웨덴의 군대 때문에 독일은 법왕교의 횡포를 물리치고 개혁주의를 신봉하는 루터교도와 칼빈파를 위하여 신교의 자유를 갖게 되었고, 개혁주의를 받아들인 여러 나라에도 종교 자유를 회복시켰다.

14 장 — 후기 영국의 개혁자들

루터가 봉하여진 성경을 독일 백성들에게 열어 주고 있는 동안 틴덜 (Tyndale) 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영국에서 같은 일을 하였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위클리프가 라틴어 성경에서 이미 성경을 번역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잘못 번역된 데가 많았다. 그것은 또한 인쇄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이 대단히 비싸서 부자나 귀족이 아니면 가질 수가 없었다. 그뿐 아니라 교회에서 그 성경을 엄격하게 금지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좁은 범위에 걸쳐서 보급되었다. 1516 년, 곧 루터가 95 개조를 공개하기 일 년 전에 에라스무스가 헬라어와 라틴어의 신약 성경을 발행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원어 (original tongue) 로 출판된 일이었다.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그전에 번역된 성경에서 잘못된 점이 정정되고 의미가 훨씬 더 분명하여졌다. 그리하여 교양 있는 사람들이 더욱 철저하게 진리의 지식을 소유하게 되었고, 개혁 사업에 대하여 새로운 자극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부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한 때에 자기 나라의 백성들에게 성경을 보급함으로써 위클리프의 사업을 완성시키고자 한 사람이 곧 틴덜이었다.

근면한 학도요, 열렬한 진리의 탐구자였던 그는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신약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는 깨달은 바를 두려움 없이 전파하고, 모든 교리를 성경에 비추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교회가 성경을 주었기 때문에 오직 교회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법왕교도들의 주장에 대하여 틴덜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너희는 누가 독수리에게 먹을 것을 찾도록 가르쳐 주었는지 아느냐?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굶주린 자녀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아버지를 찾아내도록 가르쳐 주신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에게 주기는커녕 우리에게서 감추고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이다.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 사람들을 화형시키는 사람들은 너희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할 수만 있으면 성경 자체까지도 불살라 버릴 것이다” (D’Aubigne, History of the Reformation of the Sixteenth Century, b18, ch1).

틴덜의 설교는 큰 흥미를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신부들도 끊임없이 경성하여 그가 전도하던 장소를 떠나기만 하면 곧 위협과 무고 (誣告) 로써 그의 사업을 무너뜨렸다. 그리하여 여러 번 그들은 그 일에 성공하였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그는 부르짖었다. “내가 한 곳에서 씨를 뿌리고 있는 동안 원수는 이미 씨를 뿌린 밭을 망가뜨려 버린다. 나는 동시에 어느 곳에나 있을 수 없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된 성경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런 궤변자들을 대항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이 없이는 일반 신자들을 진리 안에 굳게 세울 수 없다” (D’Aubigne, History of the Reformation of the Sixteenth Century, b18, ch1). 이제 새로운 목적이 그의 마음을 점령하게 되었다. 그는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시편을 송영한 것은 이스라엘

말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영국 말로 복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가?...교회는 대낮에 새벽빛보다 더 희미한 빛을 가져야 할 것인가?...그리스도인들은 신약 성경을 반드시 자국어로 읽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의 박사들과 교사들 사이에서도 서로 의견의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오직 성경으로써만 사람들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이 박사의 의견을, 다른 사람은 저 박사의 의견을 지지한다. ... 저자 (著者) 들은 피차에 의견이 합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에 우리는 누가 바르고 누가 그릇된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써이다" (D'Aubigne, History of the Reformation of the Sixteenth Century, b18, ch1).

그 일 후 오래지 않아서 학식 있는 로마교의 한 박사는 그로 더불어 논쟁하면서 "우리는 법왕의 율법을 버리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는 것이 낫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틴덜은 "나는 법왕과 그의 모든 율법을 무시한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보전하여 주신다면 오래지 아니하여 나는 밭을 갈고 있는 소년이 그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도록 할 것이다" (Anderson, Annals of the English Bible, p19) 고 대답하였다. 자기 나라의 말로 된 신약 성경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마음속에 간직하기 시작했던 틴덜의 목적은 한층 더 굳어졌다. 그리하여 그는 곧 그 사업에 몰두하였다. 그는 박해로 인하여 집에서 쫓겨나서 런던으로 갔다. 그는 얼마 동안 그 곳에서 아무런 방해 없이 그의 일에 몰두하였다. 그러나 그는 법왕교도들의 폭동으로 다시 도망할 수밖에 없었다. 온 영국이 그에 대하여 봉쇄된 듯하였으므로 그는 독일에서 피난처를 찾고자 결심하였다. 거기서 그는 영어 신약 성경의 인쇄를 시작하였다. 두 번이나 그의 사업은 정지를 당하였으나 이 도시에서 인쇄할 수 없으면 저 도시로 가고, 저 도시에서 인쇄할 수 없으면 또 다른 도시로 갔다. 마침내 그는 보름스를 향하여 갔는데, 그 곳은 몇 년 전에 국회에서 루터가 복음을 옹호한 곳이었다. 이 고대 도시에는 개혁 사업의 친구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틴덜은 더 이상의 방해를 받지 않고 그의 사업을 계속하게 되었다. 오래지 않아 3 천부의 신약 성경이 출판되었으며, 같은 해에 다시 재판까지 하게 되었다.

그는 큰 열심과 인내로써 사업을 계속하였다. 영국 당국자들이 물샐틈없이 각 항구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런던으로 몰래 건너가게 되었고, 거기서 다시 전국으로 전해지게 되었다. 법왕교도들은 진리를 억압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였지마는 모두 허사가 되었다. 한 번은 더햄 (Durham) 의 감독이 성경을 판매하는 틴덜의 동료로부터 성경을 있는 대로 다 샀다. 그는 그 성경들을 없애 버림으로 개혁 사업을 크게 방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그 감독이 낸 돈이 아니었다면 발행할 수 없었던 새롭고 더욱 좋은 신판을 낼 수 있는 재료를 살 수 있게 되었다. 그 후에 틴덜이 체포당하였을 때, 그는 성경 인쇄의 비용을 대어 준 사람의 이름을 알려 주면

석방시켜 주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욱 많은 보조를 해준 사람이 더햄의 감독이었다고 대답하였다. 그 감독이 막대한 금액으로 성경을 사들인 까닭에 틴덜은 한층 용기를 얻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틴덜은 배반자로 인하여 원수들의 손에 잡히어 여러 달 동안 감옥에서 고생을 하였다. 그는 마침내 순교로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였다. 그러나 그가 마련해준 무기는 그 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를 통하여 복음의 군병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전쟁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

래티머 (Latimer) 는 성경을 자기 나라의 말로 읽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교단에서 힘있게 주장하였다. 그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 자신이며", 성경은 그 저자의 능력과 영원성을 간직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어떤 왕이나 황제나 장관이나 통치자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순종할 의무에서 벗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우리는 곁길로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도록 하자.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이 간 길이나 행한 일을 따르거나 행하고자 할 것이 아니라 다만 그들이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을 하여야 한다" (Hugh Latimer, "First Sermon Preached Before King Edward VI"). 틴덜의 친구 반즈 (Barnes) 와 프리드 (Frith) 가 진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일어났다. 그리고 리들리즈 (Ridleys) 와 크랜머 (Cranmer) 가 또 그 뒤를 이어 일어났다. 영국의 종교개혁의 지도자들은 학식 있는 사람들이었으며, 그들 중의 대부분이 로마교에서 열성과 경건으로 크게 존경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법왕교를 반대하게 된 것은 법왕청의 잘못을 안 결과였다. 그들은 바벨론의 비밀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더욱 큰 능력으로 그것에 항거하는 증언을 하였다.

래티머는 말하였다. "나는 지금 하나의 이상한 질문을 하겠다. 온 영국에서 누가 가장 충성스러운 주교이며 감독이냐?...내가 부르는 사람의 이름을 명심해서 들어라. ...나는 말하노니 그는 악마이다. ...그는 그의 교구 밖을 결코 나가지 않는다. 언제든지 부르고 싶을 때에 그를 불러보라. 그는 항상 집에 있다. ...그는 언제나 일을 하고 있다. 그대는 그가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것을 결코 볼 수 없으리라고 나는 보증한다. ...악마가 사는 곳에서는...책을 치워 버리고 촛대를 놓고 있으며 성경을 치워 버리고 염주를 세고 있으며 복음의 빛을 버리고 대낮에도 촛불을 높이 들며,...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넘어뜨리고 돈을 빼앗는 연옥 (煉 獄) 을 세우며,...헐벗고, 가난하고, 무력한 사람들에게 옷을 입히는 대신에 여러 가지 재료와 보석으로 우상을 장식하며, 하나님의 전통과 그분의 가장 거룩한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과 율법을 높인다. ...아! 우리의 승려들도 마치 사단이 잡초와 가라지를 뿌리려고 부지런히 애쓰는 것처럼 좋은 교리의 씨를 부지런히 뿌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Hugh Latimer, "Sermon of the plough").

그 개혁자들이 주장한 위대한 원칙은 왈덴스인들과 위클리프와 얀 후스와 루터와 츠빙글리와 그들과 연합했던 동지들이 주장한 원칙들과 똑같은 것으로, 그것은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 되는 성경이 절대무류 (絶對無謬) 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원칙이었다. 그들은 법왕과

종교 회의와 교부들과 왕들이 종교 문제로 사람의 양심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였다. 그들의 권위는 성경이었으므로 그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여 모든 교리와 모든 주장을 시험하였다. 그 거룩한 사람들은 사형대의 이슬로 사라지면서도 하나님과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지탱되었다. 래티머는 그와 함께 곧 화형에 처해질 그의 동료에게 이렇게 부르짖었다. "안심하라. 내가 믿기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국에서 결단코 소멸되지 않을 촛불을 우리는 켤 것이다" (Works of Hugh Latimer, vol1, p.Xiii).

콜롬바 (Columba) 와 그의 동역자들로 말미암아 스코틀랜드에 뿌려진 진리의 씨는 완전히 멸절되지 아니하였다. 영국의 교회들이 로마 법왕에게 복종한 이후에도 수백 년 동안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자유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12 세기에 이르러 법왕교가 이 나라에 세워지게 되자 다른 어떤 나라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절대권을 휘둘렀다. 이곳처럼 암흑이 심한 곳은 다른 어떤 곳에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곳에도 빛이 비치어 가려진 암흑을 뚫고 내일을 약속해 주었다. 성경과 위클리프의 교리를 가지고 영국에서 온 롤라드인들 (Lollards) 은 복음의 지식을 보존하게 하는 일에 큰 역할을 하였다. 그 후 여러 세기 동안 복음의 증거자와 순교자를 배출해 내게 되었다. 대종교 개혁이 시작됨과 동시에 루터의 저서가 들어오고, 다시 틴덜의 영어 신약 성경이 전해졌다. 이러한 저서들은 교권의 감시를 받지 않고 조용히 산과 골짜기들을 넘어서 스코틀랜드에서 거의 꺼져가던 진리의 등불에 새로운 생기를 주었다. 그리하여 4 백 년간의 압박이 이루어 놓은 로마의 사업을 무너뜨렸다.

또한 순교자의 피가 그 운동에 새로운 자극을 주었다. 법왕교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사업이 위협을 당하게 된 것을 깨닫자, 즉시로 스코틀랜드의 가장 고귀하고 명망 있는 사람 중의 몇을 화형에 처하였다. 그런데 로마교의 당국자들은 그들에게 강단 (講壇) 을 만들어 주었으며, 거기서 나오는 죽어가는 증인들의 임종의 말이 온 나라에 울려 퍼져서 사람들의 마음에 로마의 굴레를 벗어나야겠다는 불멸의 목적을 갖게 해주었다. 해밀턴 (Hamilton) 과 위샤트 (Wishart) 두 사람은 가문도 좋고 인격도 고상한 사람들이었는데 겸손한 많은 제자들과 함께 화형주에서 그들의 생명을 마쳤다. 그러나 위샤트의 화형주로부터 불꽃으로도 침묵시킬 수 없는 사람, 곧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스코틀랜드의 법왕교를 몰락시킬 한 인물이 나타났다. 존 녹스 (John Knox) 는 로마교의 전설과 신비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동시에 그는 위샤트의 가르침을 통하여 로마교를 벗어나고자 확고하게 결심하고 박해를 받는 개혁자들에게 가담하게 되었다.

그는 동료들로부터 복음의 사자가 되라는 권고를 받았을 때에 그 책임의 중요성을 두려워하여 오랫동안 주저하였다. 그는 여러 날을 집안에 틀어박혀 생각하고 번민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단 그 일을 맡게 되자 그는 확고한 결심과 불굴의 용기로써 생명이 다할 때까지 전진하였다. 이 충성되고 열렬한 개혁자는 사람의 낯을 전연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의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박해의 불꽃은 그의 열성을 더욱 가중시키는 촉진제가 될 뿐이었다. 압제자의 도끼가 그의 머리를 위협하면서 들려 있을지라도 그는 자기의 자리에 굳게 서서, 바른손으로는 강한 타격을 주고, 왼손으로는 우상 숭배를 분쇄하였다. 스코틀랜드의 여왕을 직접 대면했을 때 개혁파의 지도자들 중에는 그들의 열성을 죽여 버린 자가 적지 않았으나 존 녹스는 진리를 위하여 확고히 증거하였다. 그는 무마책으로 매수당하지 않았고, 위협으로 위축당하지도 않았다. 여왕은 그에게 이단자라는 죄를 선고하였다. 여왕은 그가 국가에서 금지하는 종교를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을 가르쳤으며, 그로 인하여 위에 있는 자를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자 녹스는 확실하게 대답하였다.

"바른 종교는 세상 임금에게서 세력이나 권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므로 어떤 백성들도 자기들의 종교를 임금의 기호에 따라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임금들 중에는 하나님의 참 종교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보다도 한층 더 무지한 사람이 흔히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의 후손이 모두 오랫동안 속하여 있던 바로의 종교를 받아들였을 것 같으면 이 세상에는 어떠한 종교가 남아 있겠습니까? 혹은 사도 시대의 모든 사람이 로마 황제의 종교를 받아들였다면 오늘날의 세상에는 어떠한 종교가 있게 되었겠습니까? …비록 백성들은 임금들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을지라도 여왕 전하여, 신교 (信敎) 에 있어서는 백성들이 그 왕들의 종교에 매여 있지 않음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왕 메리는 말하였다. "너는 성경을 이런 의미로 해석하고, 그들 (로마교의 교사들) 은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한다. 그러면 나는 누구를 믿어야 하며, 누가 판단을 해줄 것인가?" "여왕 전하께서는 성경이 밝히 말한 하나님을 믿으시면 그만입니다. 거룩한 말씀이 여왕을 가르치는 것 이외에는 이편 말이나 저편 말이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분명합니다. 만일 애매한 점이 있는 것처럼 생각될 경우에라도 하나님과 결코 상치되지 않는 성령께서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그 점을 분명히 알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짓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무지한 데 묻히지 않는 한 의심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David Laing, The Collected Works of John Knox, vol1, pp181, 284).

그 개혁자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왕의 앞에서 그와 같은 진리를 말하였다. 그는 똑같은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목적을 향하여 나아갔고, 스코틀랜드가 법왕권으로부터 해방되는 날까지 기도하면서 거룩한 싸움을 계속하였다. 영국에서는 개신교를 국교로 한 결과 박해의 세력이 미약하여지기는 하였으나 전연 없어지지는 않았다. 로마교의 교리는 대부분 폐지되었으나 그 형식들이 적지 않게 그대로 남아 있었다. 법왕의 절대권은 부인되었으나 그 대신에 임금이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 교회의 예배는 여전히 복음의 순결성과 단순성에서 멀리 떠나 있었다. 종교 자유의 대원칙도 아직까지 이해되지 못하고 있었다. 비록 개혁주의를 신봉하는 국왕들은

로마교가 일찍이 이단에 대하여 과한 그러한 잔혹한 일은 하지 않았을지라도 각 사람이 자기의 양심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모든 사람은 국교가 정한 교리를 인정하고 그 예배 형식을 준수하도록 요구를 받고 있었다. 그리하여 국교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박해로 인하여 적지 않은 고난을 당했다.

17 세기에는 수천 명의 목사들이 해직되었다. 사람들은 교회에서 인정한 것 이외의 어떠한 종교 집회에도 참석하지 못하도록 금지당하였는데, 그 일을 범하는 때에는 중한 벌금과 투옥과 추방의 어려움을 당하였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것을 회피할 수 없었던 충성된 사람들은 어두운 뒷골목, 침침한 다락, 밤중의 수풀 속 등에서 모일 수밖에 없었다. 사방에서 박해를 받던 주님의 자녀들은 깊은 산림 속, 곧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성전에 모여 그들의 마음을 열어 놓고 기도하며 찬미를 불렀다. 그러나 그처럼 조심하였지만 많은 사람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다. 감옥은 꽉 찼고, 가족들은 헤어졌다. 또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추방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 그러므로 핍박이 그들의 증언을 침묵시킬 수 없었다. 많은 사람이 대서양 건너편 미국으로 쫓겨갔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곳에서 지금껏 그 나라의 영광과 보루로 삼아온 정치와 종교의 자유에 대한 기초를 놓았다.

사도 시대와 같이 박해는 다시금 복음의 발전을 돕는 수단이 되었다. 온갖 방탕자와 무서운 죄인들이 섞여 있는 누추한 옥중에서도 존 번연 (John Bunyan) 은 바로 천국의 분위기를 호흡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멸망의 세상에서 천국 도성에까지 이르는 순례자의 여행에 관한 위대한 이야기를 저술하였다. 그 후 2 백년이 넘도록 베드포드 (Bedford) 옥중에서 나온 그 소리는 큰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다. 번연의 두 저서 "천로역정"과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는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박스터 (Baxter), 플래블 (Flavel), 올린 (Alleine), 그 밖에 재능 있고 교양 있고 깊은 그리스도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수호하기 위하여 용감하게 일어섰다. 그 사람들이 이룬 업적은 비록 이 세상의 위정자들에게서는 배척을 받고 도외시되어도 결코 없어질 수 없다. 플래블이 저술한 "생명의 샘"과 "은혜의 역사"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심령을 그리스도께 계속적으로 바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박스터의 저서 "개혁 목사"는 하나님의 사업의 부흥을 열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으로 인정되었고, 또한 그의 저서 "성도의 영원한 안식"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남겨 둔 안식"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로부터 백년 후, 곧 영적 암흑시대에 휫필드 (Whitefield) 와 웨슬리 (Wesley) 형제는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사람들로 나타났다. 당시의 영국 사람들은 국교회 (國教會) 의 통제 아래 이교도와 거의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종교적으로 쇠퇴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 성직자는 자연 종교를 즐겨 연구하였으므로 그들의 대부분의 신학은 그런 방향으로 기울어졌다. 상류 계급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냉소하였고, 소위 그들이 광신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위에 있다고 자랑하였다. 하류 계급은 심한 무지 상태에서 부도덕에 빠져 있었다. 그와 반면에 교회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진리의 사업을 지탱할 힘이나 믿음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루터가 그렇게도 분명히 가르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는 이제 거의 볼 수 없게 되었다.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로마교의 교리가 그 대신 자리를 차지하였다. 국교회의 교인이었던 휫필드와 웨슬리 형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경건한 생활과 종교적 의식을 모두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침을 받았다.

한 번은 찰스 웨슬리 (Charles Wesley) 가 병이 들어 죽음이 다가오는 것처럼 생각되었을 때, 그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무엇에다 두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대답하였다. 그 질문을 한 친구가 그 대답에 완전히 만족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자,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다. "나의 노력이 소망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못 된다는 말인가? 나의 노력을 하나님께서 절취하신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나는 달리 신뢰할 만한 것이 없다" (John Whitehead, Life of the Rev.John Wesley, p102). 그와 같이 짙은 암흑이 교회를 덮고 있었으므로, 속죄를 가려 버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빼앗고, 사람들의 마음을 구원의 유일한 희망, 곧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의 피에서 떠나가게 하였다.

웨슬리와 그의 동료들은 참된 종교는 마음에 뿌리를 박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율법은 말과 행동에는 물론이요, 생각에까지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외부에 나타나는 행위의 바름뿐 아니라 마음의 성결이 또한 필요한 것을 확신하였으므로 새 생애에 들어가기를 힘썼다. 그들은 가장 근면하고 경건한 노력으로 그들의 육신적 마음의 사악함을 극복하고자 애를 썼다. 그들은 극기와 박애와 겸비의 생애를 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게 해주는 성결, 곧 그들의 가장 열망하는 것을 얻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방법을 매우 엄밀하고 정확하게 준행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구하는 바를 얻지 못하였다. 정죄의 상태에서 놓여나고 죄의 세력을 깨뜨리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은 허지로 돌아갔다. 그것은 바로 루터가 에르푸르트의 외로운 방에서 경험한 것과 똑같은 투쟁이었다. 그것은 그의 심령을 괴롭게 했던 문제, 곧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욥 9:2) 고 한 바로 그 문제였다.

개신교의 제단에서 거의 꺼져간 거룩한 진리의 불꽃은 보헤미아의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여러 세대 동안 전하여 내려온 고대의 횃불로부터 다시 밝혀져야 했다. 종교개혁 후에 보헤미아의 개신교는 로마의 세력에 여지없이 짓밟혔다. 그리하여 진리를 포기하기를 거절한 모든 사람들은 도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 중의 더러는 작센에서 피난처를 찾았고, 거기서 옛날의 신앙을 보전하였다. 웨슬리와 그의 동료들이 진리의 빛을 받은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후손으로부터였다.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는 목사 안수를 받은 후 선교

사업을 위하여 미국으로 파견되었다. 그들은 모라비아 교도들과 일행이 되어 배를 타게 되었다. 그들은 항해 중에 심한 폭풍우를 만나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웨슬리는 그 때에 아직 자기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의 보증을 가지고 있지 못함을 깨달았다.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자기가 맛보지 못한 신뢰와 평안을 그 독일인들은 나타냈다.

그는 말하였다. "나는 오래 전부터 그들의 진실한 태도를 관찰하였다. 그들은 다른 여객들을 위하여 영국 사람은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아니할 비천한 일들을 함으로 항상 겸손의 증거를 보여 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일에 대하여 아무런 보수도 원치 아니하였고, 그것은 자기들의 교만한 마음을 위하여 유익한 것이라고 하며 그들의 사랑하는 구주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더욱 큰 일을 행하셨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매일 어떠한 장애를 만날지라도 거기에 동요되지 않는 유순한 태도를 보여 주고 있었다. 만일 밀침을 당하든지, 매를 맞든지, 넘어뜨림을 당하게 되면 그들은 다시 일어나서 가 버릴 뿐이요, 한 마디의 불평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교만과 분노와 복수의 정신에서는 물론이요 공포심에서 놓여났는지의 여부를 시험해 볼 기회가 왔다. 그들이 언제든지 예배를 시작할 때에 시편을 송영하던 그대로 시편을 읽고 있을 때 바다가 거칠어지고, 큰 돛이 찢어지고, 파도는 배를 삼키려는 듯이 간판 위를 휩쓸었다. 이때에 영국인들 사이에서는 떠들고 부르짖는 소리가 일어났다. 그러나 그 독일인들은 조용히 송영을 계속하고 있었다. 후에 나는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당신들은 무섭지 않았습니까?'라고 물어 보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도 무섭지 않았습니다'고 대답하였다. 나는 또 '그러나 부인들과 아이들은 무서워하지 않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부드러운 어조로 '아니요, 우리의 부녀들과 아이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고 대답하였다" (John Whitehead, Life of the Rev.John Wesley, p10).

사반나 (Savannah) 에 도착한 후, 웨슬리는 얼마 동안 그 모라비아 교도들과 함께 지냈는데, 그들의 그리스도인적 행동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생명이 없는 형식적인 영국 교회와는 현저하게 다른 그들의 예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매우 단순하면서 엄숙한 그 예배는 모두 나로 하여금 1700 년의 시간적 거리를 잊어버리게 하고 형식과 의식은 없을지라도 천막 제조자 바울과 어부 베드로가 지도하였지마는 성령과 능력이 나타났던 당시의 어떤 회집에 참석한 듯한 느낌을 가지게 하였다" (John Whitehead, Life of the Rev. John Wesley, pp11, 12). 영국으로 돌아오자 웨슬리는 모라비아 교도의 전도자의 교훈 아래 성경상 신앙을 더욱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행함을 의지하던 것을 모두 버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온전히 신뢰하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런던에서 있은 모라비아 교도들의 한 집회에서 하나님의 영이 믿는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여 변화를 일으킨다는 내용으로 된 루터의 글이 낭독되었다. 그 말을 듣자 웨슬리의 마음속에는 신앙의 불이 타올랐다. 그는 말하였다.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 때에 한 가지 확증 곧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심지어 내 자신까지도 제거해 버리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여 주신 데 대한 확증을 얻었다" (John Whitehead, Life of the Rev.John Wesley, p12).

괴롭고 쓸쓸한 고투의 긴 세월, 엄격한 극기와 자책과 겸비의 긴 세월을 통하여 웨슬리는 하나님을 찾으려는 한 가지의 목적에 굳게 사로잡혀 있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을 찾았다. 그리고 그는 기도와 금식과 자선 사업과 자기희생으로 얻으려고 애쓴 은혜가 실상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임을 깨달았다. 일단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굳게 서자 그의 온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관한 지식을 어느 곳에든지 전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불탔다. 그는 "나는 온 세계를 나의 교구라고 생각한다. 어떠한 지방에서든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나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 (John Whitehead, Life of the Rev.John Wesley, p14).

그는 엄격한 극기의 생애를 계속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신앙의 근거가 아니고 결과였으며 성결의 기초가 아니고 열매였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기초이며, 그 은혜는 순종으로 나타날 것이다. 웨슬리의 생애는 그가 받은 위대한 진리, 곧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새롭게 하는 능력,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생애에 이루어지는 열매 등에 관한 진리를 전하는 일에 바쳤다. 휫필드와 웨슬리 형제는 자기들의 소망 없는 상태에 대하여 오랫동안 심각하게 느낌으로써 그들의 사업을 위한 준비를 갖추었다. 그들이 대학 시절과 전도 사업을 착수한 당시에 받은 멸시와 조롱과 박해의 격렬한 시련은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군병으로서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 하였다. 그들과 그들에게 동조했던 소수의 다른 사람들은 경건치 않은 동료 학생들로부터 메소디스트 (Methodists — 규칙 준수자) 라는 모멸적인 칭호를 받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 칭호가 영국과 미국에서 가장 세력 있는 교파의 하나로 명예로운 이름이 되었다.

그들은 영국 국교회의 교인으로서 그 교회의 예배 형식에 매우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 높은 표준을 그들에게 제시하셨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전하라고 그들을 강권하셨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권능이 그들의 활동에 함께 하였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였다. 그리하여 그 양들을 약탈하려는 이리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일이 필요하게 되었다. 웨슬리는 새로운 교파를 만들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그는 감리교 (Methodist Connection) 라는 명칭으로 한 조직을 가지게 되었다. 그 전도자들은 국교로부터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심한 반대를 받았다. 그러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국교 자체에서 개혁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셨다. 그것이 전혀 외부로부터 왔었더라면 그것은 그것을 매우 필요로 하는 내부에까지 침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부흥을 주장하는 전도자들은 교인들이었으므로, 기회만 얻으면 교회의 내부에서 일을 하였다. 그리하여 다른 방법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문들을 통하여 진리가 들어가게 되었다. 어떤 성직자들은 도덕적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서 자기들의 교구에서 열렬한 전도자가 되었다. 그리하여 형식주의로 마비되었던 교회들이 생기를 되찾았다.

웨슬리의 시대에 있어서는 각 시대의 교회 역사가가 실증하는 바와 같이 각각 같지 않은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자기들이 맡은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다.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들은 모든 점에 있어서 일치되지는 않았으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받고 있었으며,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목적으로 통일되어 있었다. 휫필드와 웨슬리 형제와의 견해 차이는 한 때 서로 분리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온유를 배웠으므로 상호간의 인내와 사랑으로 화목해졌다. 오류와 불법이 도처에 충만하고, 죄인들이 멸망으로 빠져가고 있는 동안 그들은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었다. 하나님의 종들은 험한 길을 걸었다. 세력 있고 학식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대적하는 일에 힘을 기울였다. 얼마 후에는 많은 성직자들이 분명한 적의를 나타내었고, 순결한 믿음과 그 믿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교회의 문들을 닫아 버렸다. 강단 위에서 그들을 비난하는 성직자들의 행동은 암흑과 무지와 불법을 자아내는 요소가 되었다. 여러 번 존 웨슬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이적으로 죽음을 면하였다. 격노한 폭도의 무리가 그를 습격하여 피할 길이 없는 듯이 보였을 때 사람의 모양을 한 천사가 그의 곁에 나타났다. 그러자 폭도들은 물러가고, 그리스도의 종은 그 위험한 장소에서 무사히 피해 갔다.

격노한 폭도들에게서 건짐을 받은 경우들 중의 한 가지에 대하여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가 미끄러지기 쉬운 비탈길을 통하여 걸어 내려가고 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아래로 떨어뜨리고자 애를 썼다. 만일 내가 일단 넘어졌을 것 같으면, 아마도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비틀거리거나 미끄러지지 않고 완전히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왔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나의 칼라와 옷을 붙잡고 넘어뜨리려고 애를 썼으나 그들은 결국 단단히 붙들 수 없었다. 오직 한 사람이 나의 호주머니 뚜껑을 단단히 붙잡았는데 그 부분만 그의 손에 뜯겨지고 말았다. 그리고 다른 쪽 호주머니에는 은행 수표가 들어 있었는데, 주머니 뚜껑의 절반만이 찢어지고 말았다. …바로 내 뒤에 있던 건장한 사람이 큰 참나무 몽둥이로 나를 여러 차례 때렸다. 그가 만일 그것으로 나의 뒤통수를 때렸던들 나는 그만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무슨 까닭인지는 몰라도 때릴 때마다 그 몽둥이는 빗나갔다. 나는 그 때에 좌로나 우로 몸을 움직일 수 없었었다. 또 한 사람이 군중을 헤치고 달려와서 주먹으로 나를 후려쳤다. 그러나 그의 주먹은 겨우 나의 머리를 조금 스쳤을 뿐이었다. 그는 '이 사람의 머리칼이 어찌 이렇게도 부드러울까'라고 말하였다. …바로 처음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그 시가의

깡패 두목들이며, 그들 중의 한 사람은 시끄러운 사태가 생길 때에 돈을 받고 싸우는 일을 지금껏 해오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준비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부드러운 방법을 사용하시는지! 2 년 전에는 한 개의 벽돌 조각이 나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 후 1 년이 지나서는 돌이 나의 양미간을 맞혔다. 지난달에는 한 번 매를 맞고 오늘 저녁에는 성에 들어오면서 한 번, 나가면서 한 번, 두 번을 맞았으나 모두 아무런 일이 없었다. 한 사람은 있는 힘을 다해서 나의 가슴을 쳤고, 또 다른 사람은 피가 쏟아지리 만큼 힘 있게 나의 입을 쳤다. 그러나 나는 그 어떤 것에 대하여서도 다만 볏짚으로 나를 치는 정도 이상의 아픔은 느끼지 않았다" (John Wesley, Works, Vol1, pp197, 298).

초창기의 메소디스트 교인들은 전도자들과 일반 신도들을 막론하고 국교인들과 혹은 국교인들의 무고로 말미암아 격분한 불신자들로부터 조롱과 박해를 받고 그것을 견디었다. 그들은 법정에도 이끌려 나갔는데, 당시의 법정은 유명무실하여 정당한 재판이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박해자들의 폭행으로 자주 고통을 당하였다. 폭도들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기구와 물품들을 파괴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약탈하였고, 남녀들과 어린이들을 잔인하게 취급하였다. 어떤 경우에는 메소디스트들의 집을 파괴하고 약탈하려는 자는 어느 때 어느 곳으로 모이라는 광고를 공공연하게 써 붙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공공연하게 국가의 법률과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여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아니하였다. 메소디스트들은 죄인들을 멸망의 길에서 성결의 길로 돌이키고자 힘을 썼기 때문에 이처럼 철저한 박해를 받았다. 존 웨슬리는 자기와 자기의 동료들을 비난하는 데 대하여 말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리가 허위요, 오류요, 광신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그것들이 지금까지 들어 보지 못한 새로운 교리이며, 퀘이커주의요 광신이며 법왕교라고 한다. 그 모든 구실들은 이미 그 뿌리까지 모두 뽑힌 것이다. 이 교리의 모든 부분은 우리 자신들의 교회가 해석하는 성경의 분명한 교리이다. 그러므로 만일 성경이 참된 것이라면 그 교리가 허위나 오류일 수는 없다.

또 다른 이들은 '그들의 교리가 너무 엄격하여 하늘로 가는 길을 지나치게 좁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근본적인 반대 이론이며 (오랫동안 이 문제로 공격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은연중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 많은 반대 이론의 기초가 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사도들이 만든 이상으로 하늘가는 길을 좁게 만들었는가? 과연 그들의 교리가 성경의 가르침보다도 더욱 엄격한가? 몇 구절의 명백한 성경절들을 생각해 보자. '네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이 무슨 망령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로 인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였다. 만일 그들의 교리가 이보다 더욱 엄격할 것 같으면, 그들은 책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대들은 그대들의 양심에 비추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것이다. 또한 누가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지 않고 그 엄격함을 조금이라도 늦추어 놓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맡은 어떤 청지기라도 그 거룩한 위탁물의 어떤 부분을 변경할 것 같으면 그를 충실한 청지기라고 할 수 있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 청지기는 하나도 감할 수가 없고 약화시킬 수도 없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그대들의 기호에 맞도록 성경의 표준을 낮출 수는 없다. 그대들은 반드시 그 표준에까지 올라가야 할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할 것뿐이다'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은 사랑이 없다'고 평가하는 참된 이유이다. 과연 그들은 사랑이 없는가? 그렇다면 어떤 점에 있어서 그러한가? 그들이 주린 사람들을 먹이지 않고 헐벗은 사람들을 입히지 않는가? '그것은 전혀 문제로 삼을 것이 없다. 이 점에 있어서 그들은 아무런 부족이 없다. 그러나 그들은 판단력에 있어서 너무나 냉정하다. 그들은 그들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John Wesley, Works, Vol1, pp152, 153).

웨슬리 시대 직전에 영국에 나타난 영적 쇠퇴는 대체로 율법 무용론의 교리가 빚어 낸 결과였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도덕률을 폐지하셨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킬 의무에서 벗어났고, "선을 행해야 할 책임감"에서도 해방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율법의 영원성을 인정하면서도 목사들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순종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무용한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택한 사람들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경건과 덕성을 실천하게 되고, 이와 반대로 영원히 버림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사람들은 "택함을 받은 자들은 은혜를 받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은총을 박탈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이 범하는 악행은 참된 범죄가 아니며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으로 여길 것도 아니므로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고백하거나 회개로써 그런 죄를 끊어버릴 필요도 없다" (Mclintock and Strong, Encyclopedia, art. "Antinomians") 고 하는 매우 두려운 결론을 내렸다. 그러므로 그들은 일종의 가장 비열한 죄, 곧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큰 위반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라도" 만일 택함을 입은 자가 범한 것일 때에는 "하나님께서 죄로 간주하지 아니하신다"고 역설하였다. 왜냐하면 "택함을 입은 자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거나 율법에 금지된 것은 어떤 것이나 행할 수 없는 것이 그들의 본질적이요 뚜렷한 특징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 괴상한 교리는 본질적으로 후세의 일반 교육자와 신학자의 가르침과 똑같은 것이었다. 그들은 의의 표준인 하나님의 율법이 결코 불변 (不變) 의 것이 아니라 도덕의 표준이 사회 자체의 현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항상 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모든 사상은 다 사단의 정신에서 온 것이며, 그는 죄 없는 하늘의 거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율법의 정당한 제재를 없애 버리기 위한 그의 사업을 착수하였던 것이다. 사람의 성격을 변경할 수 없도록 고정시켰다는 하나님의

선고에 대한 교리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실상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게 만들었다. 웨슬리는 그와 같은 율법 무용론자들의 그릇된 의견을 단호하게 반대하고, 율법 무용론으로 이끌어가는 교리는 성경과 배치된 것임을 증명하였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 (딛 2:11; 딤전 2:3~6).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은 값없이 주어졌다. "참 빛", 곧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취" (요 1:9) 신다. 그러므로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은 생명의 선물을 스스로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의문의 율법과 함께 십계명이 폐지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에 대하여 웨슬리는 말하였다. "십계명이 포함되어 있고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견고하여진 도덕적 율법은 주님께서 결코 폐지하지 아니하셨다. 그분께서 오신 것은 그 율법의 어떤 부분을 삭제하고자 함이 결코 아니다. 이 율법은 결코 폐할 수 없는 것이며, '충실한 증거자로서 하늘에 굳게 설 것'이다. …그 율법은 태초부터 있었는데, 그것은 '석판에 새기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인류의 자녀들이 창조자의 손에서 나올 때 그들의 마음에 모두 새겨졌다. 그리고 한 때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문자로 기록되기까지 하였지마는 오늘날에는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크게 훼손되었다. 그러나 선악에 대한 의식이 다소나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는 한 그 율법은 완전히 폐지될 수 없는 것이다. 이 율법의 모든 부분은 각 시대의 온 인류가 지켜야 할 의무로 남아 있어야 한다. 그것은 시간과 장소와 환경에 따라 좌우될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본성과 사람의 본성, 그리고 그 상호간의 변경될 수 없는 관계에 의하여 좌우되어야 한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함이로다.' 그 말의 뜻은 의심할 여지없이 다음과 같다. 나는 사람의 온갖 곡해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것을 완전케 하러 왔다. 그 속에 있는 모든 애매하고 분명치 않은 점들을 완전히 천명하러 왔다. 그 모든 부분의 진정하고 완전한 의미를 선포하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각 조목의 범위, 곧 그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각 항목에 들어있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순결과 영적 성질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 왔다" (Wes-ley's Sermon 25). 웨슬리는 율법과 복음의 완전한 조화를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그러므로 율법과 복음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율법은 끊임없이 복음을 위한 길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로 가도록 지시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복음은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율법을 더욱 정확히 성취시키도록 한다. 예컨대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성결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한다. 우리는 그와 같은 모든 요구에 대하여 부족함을 깨닫는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마는 이처럼 사랑을 주고, 겸손하고 성결케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된다. 우리는 복음, 곧 기쁜 소식을 붙들게 된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곧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다."

또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장 큰 원수 가운데는 '율법을 기탄없이 공격하고', '율법을 악한 것으로 말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깨뜨리도록 (율법에 대한 의무를 폐기하는 것) 가르치되, 율법의 가장 큰 조항이나 가장 작은 조항뿐 아니라 율법 전체를 온전히 깨뜨리도록 가르친다. ...그러나 이러한 허망한 일 가운데도 가장 놀라운 일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전복하면서도 그것을 높이는 줄로 믿고, 그분의 교훈을 폐하여 버리면서도 그분의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는 줄로 여기는 일이다. '주여 평안하니이까'라고 말하면서 입을 맞춘 유다와 같이 행동한 그들이 예수님을 과연 높이고 있는가.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네가 입맞춤으로써 인자를 파느냐'고 말씀하실 것이다. 주님의 보혈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분의 면류관을 벗기는 일과 그분의 복음 사업을 발전시키는 체 하면서 그분의 율법의 어느 부분을 삭제해 버리는 일은 입맞춤으로 그분을 배신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믿음을 전하는 자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순종하여야 할 어떤 적은 부분이라도 제해 버리려는 태도를 취하거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을 조금이라도 약하게 하거나 무효로 만드는 자는 유다에게 한 정죄의 비난을 면할 수 없다" (Wesley's Sermon 35).

"복음을 전하면 율법의 모든 목적을 다하는 것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그것을 전연 부인한다. 복음은 소위 율법의 첫째 목적, 곧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아직도 음부의 구덩이에서 그냥 잠자고 있는 자들을 깨우는 일을 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한다'고 말한다. 사람이 죄를 깨닫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진정으로 느끼지 아니한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건강한 자, 혹은 스스로 건강한 줄로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의원을 부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대들은 먼저 그들에게 그들이 병든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대들의 수고에 대하여 그들은 감사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아직 그 마음을 깨뜨리지 아니한 자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Wesley's Sermon 35).

웨슬리는 그의 주님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한편 "율법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업을 충실히 감당하였으므로 영광스러운 결과를 보게 되었다. 그는 나이 80 세가 넘은 만년에 가서, 곧 반세기 이상의 봉사의 생애를 통하여 50 만명 이상의 영혼들을 신자로 얻었다. 그리고 그의 봉사를 통하여 타락과 멸망의

구덩이에서 고상하고 순결한 생애로 들어간 무리들과 그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더욱 깊고 풍부한 체험을 얻은 사람들의 수는 구속받은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에 모일 그 때에 가서야 비로소 밝히 알려질 것이다. 그의 생애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헤아릴 수 없이 귀중한 교훈을 준다.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종의 신앙과 겸손, 불굴의 열성, 극기, 헌신은 오늘날의 교회에 그대로 반영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15 장 — 프랑스 혁명

16 세기에 이르러 종교 개혁자들은 열린 성경을 백성들에게 공개하며 이를 유럽 각국에 보급시키기를 희망하였다. 어떤 나라들은 그것을 하늘에서 온 사자로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였다. 그러나 어떤 나라들에서는 로마교가 성경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일에 큰 성공을 거두었으므로 성경의 지식에 속한 빛과 그 고귀한 감화를 거의 받지 못하였다. 한 나라에는 빛이 들어왔지만 암흑으로 인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여러 세기에 걸쳐 진리와 오류가 서로 지배권을 갖고자 다투었다. 마침내 악이 승리를 얻고, 하늘의 진리는 물러나게 되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요 3:19). 그러므로 그 나라는 자신이 택한 행위의 결과를 거둘 수밖에 없었다. 악을 제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멸시한 백성들로부터 떠나가 버렸다. 그리하여 악은 성숙해지기까지 방임되었다. 드디어 온 세계는 고의적으로 빛을 거절한 결과가 어떠함을 보게 되었다.

여러 세기 동안 프랑스에서 계속하여 온 성경에 대한 투쟁은 프랑스 혁명으로 그 절정을 이루었다. 그처럼 무서운 혁명이 일어난 것은 로마교가 성경을 억압함으로 초래된 당연한 결과에 불과했다 (부록 19 참조). 그 혁명은 법왕권의 시책이 실천된 결과를 보여 주는 가장 현저한 실례이며, 일천여 년 이상 로마교의 교훈의 경향이 무엇이었음을 보여 주는 예증이었다. 법왕이 최상권을 쥐고 있는 동안에 성경이 금지될 것에 관하여 선지자들은 이미 예언하였다. 요한계시록의 기자는 "죄악의 사람"의 통치로 말미암아 특히 프랑스에서 일어날 무서운 결과를 또한 지적하고 있다.

주님의 천사는 말하였다.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마흔두 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일천이백육십일을 예언하리라…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이니라…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삼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계 11:2~11).

여기에 기록된 "마흔두 달 동안" 혹은 "일천이백육십일"이란 말은 같은 기간을 가리키는 말로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로마교의 압박을 받을 기간을 나타낸다. 법왕권이 최상권을 쥐게 된 일천이백육십 년은 서기 538 년에 시작되어 1798 년 마치게 된다. 그 때에 프랑스 군대가 로마에 침입하여 법왕을 사로잡았는데, 그는 유배중에 죽었다. 얼마 후에 새 법왕이 선출되었으나

로마의 교권 (教權) 은 전과 같은 세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교회의 박해는 일천이백육십 년의 전 기간 계속되지는 않았다.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극렬한 시련의 시기를 단축시키셨다. 구주께서는 교회에 임할 "큰 환난"에 대하여 예언하시면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마 24:22) 고 말씀하셨다. 사실상 박해는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아 1798 년이 이르기 전에 이미 끝났다.

선지자는 두 증인에 대하여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계 11:4) 라고 하였다. 또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 119:105)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두 증인은 구약과 신약 성경을 대표한다. 구약과 신약은 다 같이 하나님의 율법의 기원과 영속성 (永續性) 을 알려 주는 중요한 증인들이다. 그 두 성경은 또한 구원의 계획을 증거해 준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표상과 희생 제도와 예언들은 모두 장차 올 구주를 지적해 준다. 그리고 신약의 사복음서와 편지서는 표상과 예언을 통하여 미리 알려 준 그대로 조금도 틀림없이 강림하신 구주를 증언하고 있다.

"저희가 일천이백육십일을 베옷을 입고 예언하리라." 그 기간의 대부분에 하나님의 증인은 모호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법왕권은 진리의 말씀을 백성들로부터 숨기고 그들 앞에 그 증언과 배치되는 거짓 증인을 세우고자 애를 썼다 (부록 20 참조). 성경이 종교와 세속의 권세에 의하여 추방되었을 때, 성경의 증거가 곡해되고, 사람들과 악마들이 성경으로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자 온갖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동안, 성경의 거룩한 진리를 대담하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수색당하고, 배신당하고, 고문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거나 깊은 산속과 땅속의 동굴에 도피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을 때, 그 충성된 증인들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일천이백육십 년의 전 기간을 통하여 증거하였다. 그들은 그처럼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열성을 다한 충성된 사람들이다. 충성된 그 종들에게는 그 전 기간에 하나님의 진리를 선언할 지혜와 능력과 권위가 부여되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계 11:5).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자들은 벌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 두려운 선고의 의미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밝혀져 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계 22:18, 19).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거나 명령하신 것은 어떠한 식으로든지 변경하지 못하도록 경계하시고자 사람들에게 주신 경고이다. 그 엄숙한 선언은 하나님의 율법을 경시하도록 영향을 끼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별로 대수롭지 않은 문제라고 경박하게 말하는 자들은 그 선고 앞에 떨고 두려워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보다도 자기 자신의 의견을 높이는 모든 자들, 자기의 편의를 도모하거나 세속과 타협하기 위하여 성경의 분명한 의미를 변개코자 하는 자들은 모두 자기 자신에게 두려운 결과를 가져오는 자들이다. 기록된 말씀, 곧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인류의 품성을 저울질하고 그 그릇됨이 없는 시험에 의하여 부족함이 드러나는 모든 자들에게 정죄의 선고를 내리게 될 것이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곧 두 증인이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해야 할 시기는 1798 년에 마쳤다. 그 두 증인이 비밀리에 그들의 사업을 마쳐 갈 때에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표상된 세력이 그들을 향하여 싸움을 하게 될 것이었다. 여러 세기 동안에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 교회와 국가를 지배한 세력들은 법왕권을 매개체로 사용한 사단에 의하여 통제되어 왔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단의 세력이 새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

로마교는 성경을 존중하노라고 공언하면서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언어로 그것을 가두어 버리고 숨겨버리는 일을 그들의 방침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로마교의 지배 아래 그 증인들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였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다른 세력, 곧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여 공공연하게 싸우고자 일어났다.

그 증인들이 죽임을 당하여 그 시체가 거리에 놓여 있는 그 큰 성은 "영적으로" 애굽이었다. 성경의 역사에 기록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애굽처럼 대담하게 살아 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부인하고 그분의 명령을 거역한 나라는 없다. 또한 애굽의 왕처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노골적이고도 오만한 태도로 반항한 임금은 없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로에게 기별을 보냈을 때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관대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출 5:2) 고 오만하게 말하였다. 그것은 무신론이다. 그러므로 애굽으로 표상된 나라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명령을 부정하는 일에 애굽과 유사한 말을 하고, 애굽과 마찬가지의 불신과 반역 정신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또 "그 큰 성"은 "영적으로" 소돔에 비유되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데 있어서의 소돔의 부패는 특별히 음란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기록을 성취시킬 나라의 뚜렷한 특성은 또한 소돔과 똑같은 죄가 있어야 할 것이었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1798 년 조금 전에 어떤 극악한 성격의 세력이 일어나 성경을 대항하여 싸우게 될 것이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두 증인이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 나라에서 바로의 무신론과 소돔의 음란이 나타날 것이었다. 이 예언은 프랑스의 역사에서 가장 정확하고 현저하게 성취되었다. 1793 년 프랑스 혁명 당시에 "문명국에서 출생하여 교육을

받고, 유럽의 나라들 가운데 가장 우수한 나라를 통치하는 권리를 가진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에서 사람의 마음에 받아들인 가장 엄숙한 진리를 이구동성으로 부인하고 만장일치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예배를 부인하는 음성을 세계는 처음으로 듣게 되었다" (Sir Walter Scott, Life of Napopeon, vol1, ch17). "우주의 창조주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반역의 손을 든 국가로서 믿을 만한 기록을 남긴 나라는 세계에서 오직 프랑스뿐이다. 영국, 독일, 스페인, 그 밖의 다른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과 무신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많이 존재해 왔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는 의회의 결의로써 무신론을 선언했고, 수도 (首都) 의 모든 인구와 그 밖의 모든 곳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남녀를 막론하고 그 결의를 수락하고, 기쁨으로 노래하며 춤을 춘 유일의 국가로서 세계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Blackwood's Magazine, November 1870).

프랑스는 특히 소돔에서 현저하게 나타났던 특징을 드러내었다. 프랑스 혁명 당시에는 옛날의 평원 (平原) 의 도시들을 멸망시켰던 것과 똑같은 도덕적 타락과 부패가 편만했다. 그리고 역사가는 예언에 기록된 그대로 프랑스의 무신론과 음란한 상태를 기록해 놓았다. "종교에 영향을 끼친 법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은 결혼의 경시였다. 사람이 맺을 수 있는 가장 신성한 계약이며 사회의 견고한 기초에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하는 결혼 제도가 당사자 두 사람이 마음대로 결합하였다가 다시 헤어질 수 있는 일시적인 성격을 띤 단순한 민간 계약으로 전락해 버렸다. ...악마들이 인류의 가정생활에 있어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고, 영구적인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파괴해 버리고, 그들이 목적한 해독을 대대로 영속시키고 성취하는 방법을 발견하려고 한다면, 결혼 제도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 것이다. ...묘한 말을 잘하기로 유명한 여배우 소피 아놀드 (Sophie Arnoult) 는 프랑스의 혁명 시대의 결혼을 '간음의 예식 (禮式) '으로 평하였다" (Scott, vol1, ch17).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는 예언은 글자 그대로 프랑스에서 성취되었다. 그리스도께 대한 적의 (敵意) 가 이 나라에서보다 더욱 현저히 나타난 나라는 없다. 진리를 이 나라에서보다 더욱 맹렬하고 잔혹하게 반대한 나라도 없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가함으로 프랑스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성도의 피는 여러 세기에 걸쳐 흘렀다. 왈덴스교도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위하여" 피에몽 산에서 그들의 생명을 버렸을 때, 프랑스에서는 그들의 형제인 알비젠스 (Albigens) 들이 진리에 대하여 동일한 증거를 하였다. 종교개혁 당시에 그 교도들은 참혹한 고문으로 죽음을 당하였다. 왕과 귀족들과 상류 계급의 부인들과 연약한 처녀들과 그 나라의 교만한 사람들과 무사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보고 즐거워하였다. 용감한 위그노 (Huguenot) 들은 사람의 양심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권위를 옹호하기 위하여 싸움을 계속하고, 많은

치열한 전쟁터에서 피를 흘렸다. 개신교도들은 법률상 보호에서 제외된 자로 인정되어 그들의 머리에는 현상금이 붙게 되었고, 그들은 들짐승들처럼 사냥의 대상이 되었다.

고대 그리스도인들 중의 소수의 후예들로서 18 세기 당시까지 프랑스의 남방 산중에 숨어서 거주하고 있던 "광야 교회"는 여전히 조상들의 신앙을 굳게 지키고 있었다. 밤을 틈타서 그들이 산중턱이나 적막한 들에서 몰래 집회를 열고자 할 때, 그들은 갑작스런 용기병 (龍騎兵) 들의 추격으로 붙잡히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노예나 죄수들이 노를 저어 다니는 갤리선 (galleys) 에서 죽는 날까지 고역을 당하게 되었다. 프랑스에서 가장 순수하고, 기품 있고, 지성적인 사람들은 강도들과 살인자들 사이에 섞여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쇠사슬에 매여 있게 되었다 (Wylie, b12, ch1 참조). 좀 더 자비로운 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아무런 무장도 없이 속절없는 형편에서 기도하고자 무릎을 꿇었을 때 참혹하게 사격을 당하였다. 수백 명의 나이 많은 남자들, 방비 없는 여자들, 천진한 어린이들이 그들의 집회 장소에서 살해되어 그대로 내버려졌다. 그들이 평소에 집회를 하던 산 중턱이나 산림 속을 지나갈 때 시체가 풀밭 사방에 흩어져 있거나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는 일은 별로 희귀한 일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그들의 나라는 "검과 도끼와 나무 (화형에 쓰는 장작) 로써 황량하여졌고, 하나의 쓸쓸하고 큰 광야로 바뀌고 말았다." "이처럼 흉악한 사건은…암흑시대에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루이 14 세의 찬란한 시대에 자행되었다. 그 당시에 과학은 발달되고 문예가 부흥되고, 궁궐과 수도에 사는 성직자들은 유식하고 말 잘하는 변사들이며, 겸손과 자비의 미덕을 사랑하는 자들로 인정받고 있었다" (Wylie, b12, ch1).

죄악의 참혹한 목록 가운데서 가장 암흑한 것, 곧 각 세기를 통하여 자행된 잔인무도한 일 중에서 가장 끔찍스런 만행은 성 바돌로매 제일 (祭日) 대학살이다. 세상은 오늘날도 여전히 그 잔인하고 비열하기 이를 데 없는 습격의 광경을 공포와 전율로써 회상하지 않을 수 없다. 프랑스의 왕은 로마교의 승려와 주교들의 강요로 그 흉악한 행위를 묵인하였다. 그리하여 사방이 고요한 한밤중의 적막을 깨뜨리고 울려 퍼진 왕궁의 큰 종소리는 학살에 대한 신호가 되었다. 수천 명의 개신교도들은 왕의 명예를 건 약속만을 신뢰하고 각자의 집에서 평안히 자고 있었는데, 그들은 아무런 경고도 없이 갑자기 끌려 나가 무참하게 살육을 당하였다.

애굽의 속박에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지도자가 되셨던 것처럼 사단은 무수한 순교자를 내는 무서운 일에 있어서 그의 부하들을 지휘하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지도자가 되었다. 학살은 파리에서 7 일간 계속되었는데, 최초의 3 일간은 특히 광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다. 그리고 그 일은 왕의 특명에 의하여 파리 시가에만 국한되지 않고, 신교도들이 거주하는 모든 도시와 촌락에까지 퍼져 나갔다. 그 일은 연령과 성별을 구별하지 않았다. 천진한 어린아이들과 백발노인도 가리지 않았다. 귀족과 농부,

노인과 청년, 어머니와 아이, 그 모든 사람들을 함께 살육하였다. 프랑스 전국에서 학살이 2 개월간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바로 국가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7 만 명이나 죽었다.

"학살의 보도가 로마에 이르자 성직자들의 기쁨은 한이 없었다. 로렌의 추기경은 그 사자에게 1 천 크라운을 상급으로 주었고, 성 안젤로에서는 축포를 쏘았고, 모든 교회의 첨탑에서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고, 축화 (祝火) 는 밤새도록 꺼지지 않았다. 법왕 그레고리우스 13 세는 추기경과 중요한 승려들을 데리고 큰 행렬을 지어 성 루이의 교당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로렌의 추기경이 테 데움 (Te Deum) 을 낭송했다. …또 이 학살을 기념하는 메달이 주조되었고, 바티칸 궁전에서는 바사리 (Vasari) 의 솜씨로 석 장의 벽화, 곧 제독 (提督) 을 습격하는 장면, 학살을 음모하는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왕, 실제로 학살을 하고 있는 장면들이 그려졌다. 그레고리우스 법왕은 카알 황제에게 황금 장미를 보냈으며,…그 학살 4 개월 후에…그는 한 프랑스 신부의 설교를 만족한 마음으로 들었다. …그 신부는 그 학살의 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날에 가장 거룩한 신부 (神父) 가 무한한 행복과 기쁨으로 보고를 받으며, 그는 위엄을 갖추고 하나님과 성 루이에게 감사를 드리고자 나아갔다.'" (Henry White, The Massacre of St.Bartholomew, ch14, Par14).

성 바돌로매 대학살을 하도록 충동한 바로 그 정신은 프랑스 혁명에도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기꾼으로 선언하고, 프랑스의 무신론자들은 소리를 높여 "염치 없는 자를 박멸하자"고 부르짖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었다. 하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대담한 모독과 가증한 악이 서로 손을 맞잡았으며, 가장 비루한 인물, 잔인하고 사악하기 더할나위 없는 자, 비인도적인 자들이 무한한 존경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모든 일에 있어서 사단에게 최고의 존경이 주어졌다. 그와 반면에 진리와 순결과 이타적 사랑으로 특징지어 있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이리라." 프랑스 혁명과 공포 시대 동안에 프랑스를 지배하고 있던 무신론의 세력은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말씀에 대하여 싸움을 벌였는데, 그것은 세계가 일찍이 목격하지 못하던 일이었다. 국회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그리고 성경을 모아다가 될 수 있는 대로 모멸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공중 앞에서 불태워 버렸다. 하나님의 율법은 유린당하고 성경에 명시된 제도들은 폐지되었다. 매주의 휴일은 경시되어 버렸고 그 대신에 10 일마다 휴식하되, 그날은 연락하고 모독적인 일을 하는 데 바쳐졌다. 침례식과 성찬 예식은 금지되었고, 묘지에는 눈에 띄게, 사망은 영원한 잠이라는 표지가 붙여졌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과는 전연 다르게 그것을 어리석음의 근본이라고 하였다. 자유와 국가를 예배하는 일 이외에는 모든 예배가 금지되었다. "파리의 한

주교는 국민의 대표들 앞에서 연출한 가장 건전치 못하고 추잡한 연극의 주역 배우로 출연하였다. ...그는 맨 앞에 나와서 회중을 향하여 선언하기를 자기가 오늘날까지 여러 해 동안 가르쳐 온 것은 어느 점으로 보든지 한갓 종교적 책략이었고 역사나 거룩한 진리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었다고 하였다. 그는 정중하고 명백한 어조로 하나님의 실존을 부인하고,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헌신하여 왔으나 장래에는 자유와 평등과 도의를 숭배하는 일에 자신을 바치겠노라고 맹세하였다. 그는 자기가 차고 있는 주교의 장식물들을 떼어서 책상 위에 놓고, 그 회를 주최한 회장과 익살스러운 포옹을 하였다. 또 몇 사람의 배교한 신부들이 그 주교의 본을 따랐다” (Scott, vol1, ch17).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무신론의 프랑스는 하나님의 두 증인의 책망하는 소리를 침묵시켜 버렸다. 진리의 거룩한 말씀은 시체가 되어 그 길거리에 넘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제재와 요구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기뻐 날뛰었다.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하늘의 왕을 모독하였다. 그들은 옛날의 죄인들처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시 73:11) 고 부르짖었다. 새로운 제도에 의하여 임명된 한 승려는 거의 믿을 수 없을 만큼 모독적인 언사로 말하였다. “하나님이여, 만일 당신이 참으로 존재하면 당신의 훼손된 이름을 위하여 복수해 보라. 나는 당신께 도전한다. 당신은 침묵을 지키고 있구려. 당신은 감히 격노치 못하는군. 이제 후로 누가 당신의 존재를 믿겠는가?” (Lacretelle, History, vol11.p109; in Sir Archivald Alison, History of Europe, vol1, ch10). 그것은 “여호와가 누구관대 내가 그 말을 들으리오 여호와는 나의 알 바 아니라”고 한 바로의 말이 그대로 반향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시 14:1).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들에 대하여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딤후 3:9) 고 말씀하신다. 프랑스는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 (사 57:15) 며 살아 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거절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소위 이성 (理性) 의 여신이라는 열등한 우상숭배로 전락하였는데, 방탕한 한 여자가 그 여신이 되었다. 그러나 그 일은 국민의 대표적 집회에서, 행정 및 입법의 최고의 권위에 의하여 결정되었던 것이다. 어느 역사가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 광란 (狂亂) 의 시대에 행한 의식 (儀式) 중의 하나는 허망한 일과 불경한 일을 혼합시킨 점에서 달리 유례를 찾을 수 없다. 음악대를 선두에 둔 도시의 관리들은 활짝 열린 의장 (議場) 의 문을 통하여 장중한 행렬을 지어 나와서 자유의 노래를 높이 부르면서 그들이 바야흐로 경배하려는 대상, 곧 그들이 이성의 여신이라고 부르는 면사포를 쓴 한 여자를 수행하였다. 그 행렬이 식장 안에 들어가자 이성의 여신은 면사포를 벗어 이것을 회장 (會長) 의 오른편에 두었다. 그 때에 여자는 오페라단의 한 무희로 밝혀졌다. ...프랑스의

국민 의회는 그 여자를 그들이 숭배하기에 가장 적합한 이성이라고 하여 그에게 공적인 경배를 하였다."

"이 불경건하고 어리석은 의식은 특수한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이성의 여신의 제막식은 전국적으로 보급되어 혁명의 모든 세력에 공명한다는 뜻을 표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그것을 재연하거나 모방해서 거행하였다" (Scott, vol1, ch17). 이성의 예배를 소개한 한 변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입법 의원 여러분, 광신은 이성 앞에 길을 양보했습니다. 그 흐린 눈으로는 빛의 광채를 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 무수한 군중이 고딕식 둥근 천장 아래 모였습니다. 그리하여 처음으로 진리를 다시 반향 (反響)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프랑스 국민은 유일의 참 예배, 곧 자유와 이성에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여기서 공화국의 군대의 성공을 위하여 기원하였습니다. 우리는 살아 있는 물체 곧 자연의 걸작품인 이성의 여신을 취하기 위하여 생기 없는 우상을 버렸습니다" (M.A.Thiers, History of the French Revolution, vol1, pp170, 371).

여신이 식장에 들어가자마자 변사는 그의 손을 잡고 회중을 향하여 말하였다. "사람들이여, 그대들의 공포심이 만들어낸 무력한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더 이상 떨지 말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성 이외는 아무것도 신으로 인정치 말라. 나는 여러분에게 이성의 가장 숭고하고 순결한 상 (像) 을 여기서 보여 준다. 만일 여러분이 반드시 우상을 가져야 한다면 이와 같은 우상에게만 제사를 드려라. 자 이성의 여신의 제막식을 자유의 의회 앞에서 거행한다." "여신은 의회장의 포옹을 받은 후 화려한 수레에 태워져, 많은 군중들 사이를 통과하여 노트르담 성당으로 인도되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여 높은 제단 위에 앉아 참석한 모든 자들의 경배를 받았다" (Alison, vol1, ch17).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공중 앞에서 성경을 불태워 버리는 일이 있었다. 어떤 회합에서는 박물관 서민 협회의 사람들이 "이성 만세"를 부르면서 시 (市) 의 공회당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막대기 끝에다가 반쯤 불타다 남은 몇 권의 책들을 꿰뚫어 메고 갔다. 그 책들 중에는 천주교의 성무일과 (聖務日課), 미사서, 신구약 성경 등이 있었는데, 의장은 그 책들에 대하여 "인류에게 온갖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하였으므로 큰 불로 보응을 받았다" (Journal of Paris, 1973, No181.Quoted in Buchez-Roux, Collection of Parliamentary History, vol10, pp100, 201) 고 말하였다.

그런데 무신론자들이 완성시키고 있었던 일을 시작한 것은 법왕권이었다. 프랑스를 급속히 멸망으로 밀어넣은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인 모든 상태는 로마교의 정책이 이루어 놓았다. 프랑스 혁명 당시의 무서운 상태를 기술한 한 저자는 왕위와 교회가 그 극단적인 행동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부록 21 참조). 엄격히 비판하면 그것들은

모두 교회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법왕교는 종교개혁을 왕위의 적이요,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하는 불화의 요소라고 말함으로써 왕들의 마음을 자극하였다. 왕위를 통하여 가장 비참하고 잔인하며 가장 견딜 수 없는 압제와 박해를 행한 것은 그와 같은 모양으로 고취된 로마의 정신에 의한 것이었다.

자유의 정신은 성경과 병행하였다. 복음을 받아들인 곳에서는 어디서나 사람들의 마음이 각성되었다. 그들은 무지와 부도덕과 미신의 노예로 속박되어 온 질곡 (桎梏) 을 깨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자유인으로 생각하고 행하기 시작하였다. 왕들은 그러한 일들을 보고 저들의 전제 정치의 장래를 염려하였다. 로마는 왕들의 질투적 공포심을 자극하는 데 게으르지 않았다. 1525 년에 법왕은 프랑스의 섭정 (攝政) 에게 말하였다. "이 종교광 (宗教狂-프로테스탄트를 가리킴) 들은 종교계를 혼란케 하고 파괴할 뿐만 아니라 나라의 통치권, 귀족 계급, 법률, 질서, 계급 등을 파괴하는 자들이다" (G.de F'elice, History of the Protestants of France, b1, ch1, Par1). 불과 몇 년 후에 법왕 사절은 황제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다. "폐하여, 속지 마십시오. 프로테스탄트들은 종교의 질서는 물론이요, 국가의 질서도 모두 전복시킬 것입니다. 왕위는 제단 (祭壇) 과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새 종교가 들어오면 새 정부가 필연적으로 들어설 것입니다" (D'Aubigne, History of the Reformation in Europe in the Time of Calvin, b1, ch16). 또한 신학자들은 프로테스탄트들에 대하여 "사람들을 유인하여 신기한 것과 어리석은 일을 하게하며, 왕으로 하여금 신하들의 충성심을 잃어버리게 하여 교회와 나라를 다 같이 파괴시키는 자들이다"고 주장함으로 백성들의 편견에 호소하였다.

이리하여 로마교는 프랑스가 종교개혁 운동을 반대하게 하는 일에 성공하였다. "프랑스에서 박해의 칼을 처음으로 든 것은 왕위를 지탱하고, 귀족을 보호하고, 법률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Wylie, b13, ch1). 프랑스 통치자들은 이 치명적인 정책의 결과를 거의 내다보지 못하였다. 성경의 교훈은 공평, 절제, 진리, 평등, 자애의 원칙들을 백성들의 마음에 심어 줄 것이었는데, 그러한 미덕들은 국가를 번영케 하는 유일한 초석이다. "의는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잠 14:34, 16:12).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사 32:17).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은 국가의 법률도 가장 성실하게 순종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온갖 권위를 행사하는 나라의 왕을 공경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프랑스는 불행히도 성경을 금지하였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파문하였다. 여러 세기에 걸쳐서 원칙과 신조에 굳센 사람들, 예민한 지력과 도덕적 능력을 갖춘 사람들, 자기의 양심을 거스르지 않고 진리를 위하여 고난 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과 용기의 사람들, 그들은 갤리선의 노예로 고역을 당하거나 화형을 당하거나 감옥 속에서 신음하였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은 먼 곳으로 피하여 간신히 안전한 곳으로 갔다. 이와 같은 상태는 종교개혁이 시작된 후 250 년간 계속되었다.

“오랜 기간 동안에 박해자들의 광적인 분노를 피하여 간 복음의 사도들이 일반적으로 현저히 뛰어난 지능, 미술, 공업, 질서 있는 생활 등을 통하여 그들이 피난 온 그 지방을 부요하게 한 사실들을 프랑스 사람들은 보지 못한 세대가 거의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이와 같이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이주하여 가는 일과 비례하여 그들의 나라에는 그런 재간 있는 사람들이 차츰 줄어 갔다. 만일 이미 가 버린 그 사람들이 모두 프랑스에 남아 있었다면, 만일 그 3 백 년 동안에 추방된 그 사람들의 공업 기술로써 프랑스 국토를 발전시켰다면, 또한 그들의 예술적 소질로써 창작에 힘썼을 것 같으면, 만일 그들의 천재적인 창작력과 분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그 문학을 발달시키고 과학을 육성시켰을 것 같으면, 만약 그들의 지혜로써 의회를 지도하고 그들의 용맹으로 싸우고, 그들의 공의로 나라의 법률을 제정하고, 성경의 종교로 백성들의 지능을 계발시키고, 양심을 다스리게 하였더라면, 오늘날 얼마나 찬란한 영광이 프랑스를 두르고 있을 것인가? 프랑스는 얼마나 위대하고, 번영되고 행복된 나라가 되었을까? 그 나라는 많은 나라들의 모본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맹목적이요,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프랑스는 모든 덕망 있는 교사들과 질서를 잘 지키는 우수한 사람들과 왕위를 충성스럽게 옹호해 주는 사람들을 나라 밖으로 몰아냈다. 그들의 나라를 세상에서 명성 있고 영광스러운 나라로 만들어 줄 사람들에게 화형이 아니면 추방을 택하라고 강요하였다. 드디어 국가의 쇠퇴는 극도에 달하여, 추방될 만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더 이상 남지 아니하였고, 화형주로 끌려갈 만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없어졌고, 나라 밖으로 추방할 만한 애국자들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 (Wylie, b13, ch10). 그리하여 마침내 무서운 혁명이 일어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위그노 교도들의 도피와 함께 일반적인 쇠퇴가 프랑스를 엄습하였다. 번화하던 생산 도시는 타락한 도시로 전락되고, 비옥하던 지방은 원시적인 황무지로 바뀌고, 이상한 진보를 보인 기간 후로 지적 부진과 도덕적 퇴폐가 계속되었다. 파리는 하나의 거대한 구빈원 (救貧院)이 되었으며, 혁명이 일어나던 당시에 약 20 만 명의 거지들이 왕의 손으로 구제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제수이트 당원들만은 쇠퇴하여 가는 나라에서 화려한 생활을 하고 교회와 학교와 감옥과 노예들이 노를 젓는 갤리선에서 무서운 독재를 행사하였다. 프랑스의 성직자들, 왕, 입법자들의 수완으로도 어쩔 수 없게 되어 마침내 온 나라가 무정부 상태와 파멸로 들어가게 만든 그 나라의 사회적, 정치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은 복음이 가져다 줄 수 있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백성들은 구주께서 가르쳐 주신 자아 희생과 무아 (無我) 의 사랑의 귀한 교훈을 잊어버렸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복리를 위하여 극기를 실행하지 않게 되었다. 부자가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여도 아무런 비난을 받지 않았고, 가난한 자들은 그들의 고역과 압박에 대하여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 부요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이기심은 더욱 극심하고

억압적으로 나타났다. 여러 세기에 걸쳐서 나타난 귀족들의 탐욕과 방탕은 농민들을 약탈하고 착취하기에 이르렀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는 부자를 미워했다.

많은 지방에서 토지들은 귀족들이 차지하였고, 노동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은 소작을 하는 데 불과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지주의 자비에 의존되었고, 그들의 지나친 요구에도 복종하지 아니하면 안 되었다. 교회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부담은 중류와 하류 계급에서 부담하였으므로, 그들에게는 집권자와 성직자들로부터 많은 세가 부과되었다. "귀족들은 쾌락을 제일로 생각하였고, 농부들이 굶어 죽는 것에는 전연 관심이 없었다. ...백성들은 언제나 그들의 지주의 전적인 이익을 도모하여 주지 않을 수 없었다. 농부들의 생활은 실로 끊임없는 수고와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생활이었다. 그들이 불평을 말하면 그것은 오만한 모욕으로 취급되었다. 법정에서는 언제나 농민들의 호소보다는 귀족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다. 일반 사회의 제도가 부패됨으로 말미암아 귀족들의 변덕스러운 주장이 법률과 같은 힘을 갖게 되었다. 평민들은 한편으로 세속적 권력자에게, 다른 한편으로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바치게 되었는데, 그 세금의 절반도 왕실이나 교회의 금고로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그 돈의 나머지 부분은 방탕한 자아 방종에 낭비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자기들의 동족들을 궁핍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납세를 면제받고, 국가의 법률과 관례에 따라 여러 가지 중직에서 권리를 행사하였다. 그와 같은 특권계급의 사람들은 약 15 만 명이나 되었는데,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절망적이며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부록 22 참조).

궁정은 사치와 방탕에 잠겼고, 백성들과 위정자들 사이에는 신임이 거의 없었다. 정부의 모든 처사는 언제나 모략적이고 이기적인 것으로 의심을 받았다. 혁명이 일어나기 전 반세기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루이 15 세가 왕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는 그처럼 악한 시대에 있어서도, 나태하고 경박하고 음란한 임금으로 유명하였다. 부패하고 잔악한 귀족 정치, 가난하고 무지한 하류 계급, 국가의 재정적 곤란과 백성들의 격분, 이 모든 것들은 선지자의 안목이 아닐지라도 무서운 사변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왕은 그의 신하들의 경고에 대하여 "내가 살아 있는 동안은 이대로 버티고 나가 보자. 내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되겠지"라고 언제나 대답하였다. 개혁의 필요를 아무리 역설하여도 소용없는 일이었다. 왕은 죄악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것을 혁신시킬 만한 용기도 능력도 없었다. 그의 나태하고 이기적인 대답, 곧 "재앙은 나의 죽은 뒤에"라는 말은 바야흐로 다가오고 있는 프랑스의 운명을 여실히 표현한 것이었다.

로마교는 왕들과 지배 계급의 질투심을 이용하여 백성들을 노예 상태로 묶어 두도록 영향을 미쳤다. 로마교는 이와 같이 하여 나라가 약화되면 백성들과 통치자들이 모두 자기의 지배 아래 들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은 선견적 정책에 의하여 로마교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노예 상태가 되게 하려면 그들의 심령을 차꼬로 채워야 한다는 것과 그들이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억제하려면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상태에 놓아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알고 있었다. 이 정책의 결과로 초래된 육체적 고통보다 천 배 이상 무서운 것은 도덕적 타락이었다. 성경은 박탈되었고, 고집과 이기적인 교훈으로 얽힌 백성들은 무지와 미신에 가려졌고, 악습에 빠져 버렸으므로 자제하기에 전연 부적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결과로 생긴 일은 로마교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달랐다. 로마교는 자기의 교리를 맹종하는 대중을 만들기는커녕 그들을 이교도와 혁명가들로 만들어 버렸다. 그들은 로마교를 성직자의 정책이라고 멸시하였다. 그들은 성직자들을 그들을 압제하는 당파로 보았다. 그들이 알았던 유일한 신은 로마교의 하나님이었고, 그들이 알았던 유일의 종교도 로마교의 교리였다. 그들은 로마교의 탐욕과 잔인성을 바로 성경에서 나온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성경을 전연 무용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로마교가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되게 나타내고 그분의 율법을 왜곡시켜 버렸으므로 이제 사람들은 성경과 성경의 저자를 동시에 거절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교리가 성경이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거기에 맹종하기를 요구하였다. 거기에 반응하여 볼테르 (Voltaire) 와 그의 동료들은 성경을 배척하고 무신론의 해독을 도처에 유포시켰다. 로마교는 그 쇠발굽으로 백성들을 짓밟았다. 그런데 이제는 대중이 타락하고 사나워져서 로마교의 학정에 대하여 반발을 일으켜 모든 속박을 끊어버렸다. 그들이 그처럼 오랫동안 공경하여 왔던 것이 찬란하게 보이는 속임수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분노한 나머지 참 것과 거짓 것을 둘 다 거절하게 되었다. 그릇된 방종을 자유로 오해하여 그들은 그들이 생각한 자유 안에서 죄악의 노예가 된 것을 기뻐하였다.

혁명 초기에 왕의 양보로 백성측의 대표자는 귀족과 성직자들의 수를 합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았다. 그리하여 세력의 균형에 있어서 백성측이 우세하였으나, 그들은 그 힘을 지혜롭고 적당하게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이 당한 비행을 고쳐 놓기에 급급한 그들은 사회의 개조를 단행하기로 결심하였다. 분노한 대중들은 학대받아 온 분노와 잊혀지지 않는 원한에 사무친 마음으로, 참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비참한 상태를 개혁하는 동시에 그들을 곤경에 빠뜨린 장본인들로 생각되는 계급에 대하여 보복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압제받던 자들은 학정 아래서 배운 교훈을 실천하여 과거에 자기들을 압박하던 자들에게 똑같이 압제하게 되었다.

불행한 프랑스는 자신이 심은 씨앗을 피로써 거두었다. 프랑스가 로마교의 지배하에 복종한 결과는 두려운 것이었다. 프랑스가 로마의 영향을 받아 종교개혁의 초기에 최초의 화형주를 세웠던 그 곳에 프랑스의 혁명당들은 최초의 단두대를 세웠다. 16 세기에 개신교의 신앙을 가진 최초의 순교자들이 화형을 받았던 바로 그 장소에서 18 세기에는 최초의

희생자들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프랑스는 자기 나라를 치료해 줄 복음을 배척하였기 때문에 무신론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열었다. 하나님의 율법의 제재를 무시해 버릴 때 인간의 법률은 인간의 정욕이라는 강력한 물결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되었다. 그리하여 프랑스는 반란과 무정부 상태로 휩쓸려 들어갔다. 성경에 대한 투쟁은 세계 역사에서 공포 시대라는 뚜렷한 한 시대를 초래하였다. 사람의 가정과 마음에서 평화와 행복이 사라졌다. 안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오늘의 승리자가 내일에는 혐의를 받고 정죄를 받았다. 포악과 음란이 극도에 달하였다.

왕과 성직자들과 귀족들은 흥분하고 미쳐서 날뛰는 군중들의 잔악무도한 행동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복수하고자 갈망하는 그들은 왕을 처형함으로 한층 더 자극되었다. 그리고 왕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자들도 오래지 않아서 왕의 뒤를 이어 단두대로 끌려갔다. 혁명을 반대하는 것으로 혐의를 받은 자들은 다 살육되었다. 감옥들은 만원이 되었는데 한 때는 20 만 명 이상의 검거자들이 수용되었다. 국내의 각 도시에 무서운 사건들이 일어났다. 혁명주의자들의 한 당이 다른 당과 싸우므로 프랑스는 드디어 하나의 커다란 수라장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서로 싸우는 군중들의 분노와 격정은 온 세상을 흔들어 놓았다. "파리에서는 소동이 뒤를 이어 일어났고, 시민들은 여러 당파로 나누어져서 피차에 서로 물고 뜯는 일밖에 아무것도 없는 듯이 보였다." 온 나라가 이와 같은 참상을 당한 외에도 구라파의 열강들을 상대로 오랫동안 황폐케 하는 전쟁에 휘말려 들었다. "나라는 거의 파멸 상태에 이르렀고, 군인들은 급료의 지불이 지연됨으로 소동하였고, 파리 시민들은 굶어 죽어갔으며, 각 지방들은 비적들로 말미암아 황폐되었고, 문화는 무정부 상태와 백성들의 방종으로 거의 사라질 지경까지 되었다."

백성들은 로마교가 반복해서 가르쳐준 잔인과 고문의 본을 너무도 잘 받았다. 보응의 날은 드디어 오고 말았다. 옥에 갇히고 화형주에 달리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오래 전에 죽임을 당하고 추방되었다. 그러나 이제 가혹한 로마교는 과거에 유혈 행위를 즐기도록 가르쳐 주었던 사람들의 무서운 세력을 느끼게 되었다. "프랑스의 로마교 성직자들이 여러 시대에 걸쳐서 실천해 온 박해가 이제는 그들 자신들에게 매우 혹독하게 보복되어 왔다. 단두대는 신부들의 피로 붉게 물들었다. 일찍이 위그노 신도들로 채워졌던 갤리선과 감옥들이 이제는 그들을 핍박하던 자들로 채워졌다. 걸상에 붙들어 매어진 채로 노를 젓는 형벌을 당하고 있는 로마교의 성직자들은 일찍이 자기들의 교회가 소위 이단이라고 부르는 온유한 사람들에게 그처럼 임의로 과했던 그 형벌을 이제 몸소 체험하게 되었다 (부록 23 참조).

"모든 법 중에서 가장 흉악한 법이 어떤 법정보다 가장 흉악한 법정에서 적용되고, 극형을 받을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이웃 사람에게 인사하거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없고, 도처에 밀정들이 잠복해 있고, 매일 단두대가 아침부터 장시간에 걸쳐 힘든 일을 하고, 노예선들이 차고

넘치는 것처럼 감옥들이 넘치고, 하수구의 도랑들이 피로 물들어 세느 (Seine) 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왔다. ...처형될 희생자들을 실은 마차들이 날마다 파리 시의 도로를 지나 그 운명의 심판정으로 가고 있는 동안에 최고 의원들이 보낸 각 지방의 총독들은 실로 수도 파리에서조차 볼 수 없는 잔인무도한 일을 행하고 있었다. 올라가고 내려가는 단두대의 칼날은 그들이 살육할 분량에 비하면 너무도 느렸다. 길게 줄지어 서 있는 죄수들은 풀을 베듯 포도탄 (葡萄彈) 에 의하여 쓰러졌다. 사람이 가득히 탄 거룻배의 밑바닥에 구멍을 뚫어서 몰살시키기도 하였다. 리용은 황무지로 변했다. 아라에서는 죄수들을 신속히 죽이지 아니하고 천천히 죽이므로 그들을 더욱 괴롭게 하였다. 소뮈르로부터 바다에 이르는 노아르 강변에서는 나체로 된 시체들을 둘씩 둘씩 흉측스럽게 포옹하게 해놓고, 까마귀와 독수리들의 큰 무리들에게 뜯어 먹히게 하였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아무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그 지긋지긋한 정치 아래 살육을 당한 17 세가량의 소년 소녀들의 수는 수백 명 단위로 세어야 하였다. 자코뱅 당원들은 젖먹이들을 그 어머니들의 젖가슴에서 떼어내어 창 끝에 꽂아 가지고 이 창에서 던지면 저 창으로 받아 꽂기까지 한 적도 있다 (부록 24 참조). 10 년의 짧은 세월에 실로 무수한 사람들이 살육되었다.

이 모든 일은 사단이 소원하던 일로서 그는 그 일을 여러 시대에 걸쳐서 계획하고 이루고자 노력하여 왔던 것이다. 그의 정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기만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의 단호한 목적은 사람들에게 저주와 불행을 가져다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파괴하고 욕되게 함으로 그분의 자비와 인애의 거룩하신 목적을 방해하여 하늘에 슬픔을 가져다주는 일이다. 그리고 그는 그의 기만적인 술책으로 사람들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처럼 느끼게 하고, 자기가 가져온 모든 비참한 일들을 창조주의 계획의 결과처럼 느끼게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단은 자기의 잔인한 세력에 의하여 타락하고 야수적으로 된 사람들이 자유를 얻을 때 그는 과격하고 흉악한 일을 하도록 그들을 충동한다. 그리고는 폭군들과 압제자들은 그 포악무도한 방종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자유가 가져온 결과가 어떠함을 보라고 한다.

그런데 사단은 한 가지 가면이 폭로되면 다시 다른 가면을 거기에다 씌우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첫 번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열광적으로 받아들인다. 사람들이 로마교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사단은 로마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도록 사람들을 이끌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종교가 거짓이며 성경은 신화 (神話) 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게끔 충동하였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걷잡을 수 없는 죄악의 구덩이로 빠져 들어갔다.

프랑스 국민들이 이와 같이 치명적인 잘못을 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위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네 평안이 강과 같았겠고 네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악인에게 평강이 없다",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사 48:18, 22; 잠 1:33). 무신론자들과 불신자들과 배교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반대하고 부인한다. 그러나 그들의 영향의 결과는 인류의 복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배우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각 나라의 역사에서 배우게 되어 있다.

사단이 로마교를 통하여 사람들을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하였을 때에도 그는 그의 일을 감추었다. 그러므로 그는 부패와 불행이 바로 범죄의 결과인 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그의 일을 아주 교묘하게 가장하였다. 그러나 그의 세력은 성령의 역사와 너무나 반대되었기 때문에 그의 목적이 완전히 성취되는 일이 방지되었다. 사람들은 원인에서 결과를 찾고자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불행의 원인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은 국민 의회에서 공공연하게 배척되었다. 그리하여 그 후에 계속된 공포 시대를 통하여 원인에서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깨닫게 되었다.

프랑스가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경을 거절하였을 때 악인들과 악령들은 그들이 오랫동안 계획하여 오던 그대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제재를 받지 아니하는 나라를 세운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악한 일에 대한 심판이 속히 이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 (전 8:11) 게 되었다. 그러나 공평하고 의로운 율법을 범하게 되면 불행과 파멸이 피할 수 없이 따라오게 된다. 비록 즉시 형벌을 당하지 않을지라도 사람의 악행은 반드시 파멸을 가져오고야 만다. 여러 세기 동안의 배신과 죄악이 심판 날의 진노를 쌓아두었다. 그리하여 그 죄악의 분량이 차면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긴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음을 늦어서야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때에는 잔인한 사단의 세력을 억제하고 무너뜨리던 하나님의 영이 거의 떠나가고 사람의 불행만을 즐겨 온 사단이 하고자 하는 대로 방치된다. 이러한 반역을 선택한 자들은 글로써 도저히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죄악이 땅에 충만하여질 때까지 그 반역으로 말미암아 생긴 결실을 거두지 않으면 안 되었다. 황폐된 지방과 폐허가 된 도시들로부터 무서운 부르짖음, 곧 가장 쓰라린 고통의 부르짖음이 들렸다. 프랑스는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흔들렸다. 종교, 법률, 사회적 질서, 가정제도, 국가, 교회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한 불의한 손에 의하여 타도되었다. 현인의 말은 진실하였다.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죄인이 백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녕히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리라" (잠 11:5; 전 8:12, 13).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잠 1:29, 31).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의 참람된 권력으로 말미암아 살해된 하나님의 충성된 두 증인은 오랫동안 잠잠하지는 않을 것이었다. "삼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계 11:11). 그리스도교를 폐하여 버리고 성경을 금지한다는 법령이 프랑스 국민 의회를 통과한 것은 1793 년이었다. 그러나 3 년 반이 지난 후 그 결의를 무효로 만들고 성경을 용납하는 의안을 동일한 그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세계는 성경을 거절한 결과로 생긴 가증한 범죄에 대하여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으며, 사람들은 덕행과 도덕의 기초로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 일임을 인정하였다. 여호와께서는 "네가 훼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니라" (사 37:23).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렘 16:21) 고 말씀하셨다.

그 두 증인에 대하여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계 11:12). 프랑스가 하나님의 두 증인에 대하여 도전하였으므로, 그 두 증인은 오히려 전에 없이 높임을 받았다. 1804 년에 영국 성서 공회가 조직되었다. 그 후로 유럽 대륙에 이와 유사한 조직체들과 지부들이 형성되었다. 또한 1816 년에는 미국 성서 공회가 창설되었다. 영국 성서 공회가 창설되었을 때에 성경은 50 개의 국어로 인쇄되어 배부되었다. 그 후 성경은 수백 가지의 언어와 방언으로 번역되었다 (부록 25 참조).

1792 년 이전의 50 년간은 외국 선교 사업에 대하여 거의 유의하지 않았다. 새로운 선교회의 조직이 거의 없었고, 이방 나라에 그리스도교를 전파하기 위하여 노력한 교회들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8 세기의 말엽이 되자 갑작스런 변화가 생겼다. 사람들은 합리주의의 결과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하나님의 계시와 체험 종교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그 때부터 외방선교 사업이 비상한 발전을 하였다 (부록 26 참조).

인쇄 기술의 발달은 성경을 보급시키는 사업에 활기를 주었다. 다른 나라들과의 교통수단의 발달은 옛날부터의 편견과 쇄국주의 (鎖國主義) 의 담을 헐어 버렸다. 그리고 로마의 법왕이 세속적 권력을 잃어버리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문호가 개방되었다. 그리하여 여러 해에 걸쳐서 로마의 거리에서도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고 성경이 판매되었으며, 오늘날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성경이 보급되고 있다.

일찍이 무신론자 볼테르는 다음과 같이 장담하였다. "12 명의 사람이 그리스도교를 세웠다는 말을 나는 지칠 정도로 반복하여 들어왔다. 그러나 이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오직 한 사람으로 넉넉하다는 것을 나는 증명할 것이다." 그가 죽은 후 여러 세대가 지나갔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성경을 대적하여 싸우는 투쟁에 가담하였다. 그러나 성경을 멸절시킬 수는 없었다. 볼테르 시대에 성경이 백권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은 1 만권, 아니 10 만권의 성경이 있는 셈이다. 초기의 어떤 종교 개혁자는 그리스도 교회에 대하여 "성경은 마치 여러 쇠망치를 낡아지게 한 모루와 같다"고 기록하였다. 여호와께서는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 (사 54:17)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사 40:8; 시 111:7, 8). 사람의 권위 위에 세워진 것은 무엇이나 전복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16 장 — 자유의 땅

영국의 종교 개혁자들은 로마교의 교리는 버렸을지라도 그 교리의 여러 가지 형식은 간직하고 있었다. 비록 로마교의 권위와 신조는 부정되었을지라도 그 관습과 의식은 영국 교회의 예배에 적지 않게 혼합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양심의 문제가 아니며, 성경에 특별히 명령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금지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원칙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라고 주장되었다. 또 그들이 그와 같은 것들을 지킴으로 로마교와 개신교와의 간격을 좁히는 동시에 로마교로 하여금 신교를 받아들이기 쉽게 만드는 것이라고도 해석되었다. 보수적이요 타협적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논증들이 확실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그와 같은 관습을 그대로 지키게 되면 "로마교와 종교 개혁파 사이에 생긴 깊은 구덩이에 다리를 놓는 것과 같은 것" (Martyn, vol1, p12) 이라는 관점에서 그것을 단연히 반대하였다. 그들은 그러한 의식들을, 거기에서 해방된 후 다시 되돌아갈 마음조차 없는 노예 제도의 휘장이라고 보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에 관한 규칙을 정하여 주셨으므로 사람들이 거기에 더하거나 감할 자유가 없다고 역설하였다. 큰 배교의 발단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교회의 권위를 첨가하려고 시도하는 데 있었다. 로마교는 하나님께서 금하지 아니한 것을 하라고 명령함으로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신 것을 금지함으로 끝을 맺었다.

많은 사람은 초대 교회의 특징이었던 순결과 단순성으로 돌아가고자 열망하였다. 그들은 영국 교회가 세운 대부분의 관습들을 우상 숭배의 유물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영국 교회의 예배에 연합할 수 없었다. 그런데 교회는 국가의 권력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교회의 의식에 반대하는 일이 용납될 수 없었다. 예배에 출석하는 일은 법률로써 요구되었으며, 허가 없이 종교적 예배를 위한 집회를 여는 일은 금지되어 있었고, 그것을 범하는 자는 투옥, 추방, 사형 등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었다. 17 세기의 초엽에 영국의 한 왕은 즉위하자마자 청교도들을 복종시키든지 괴롭혀 그 땅에서 내쫓든지 혹은 그보다 더 심한 형벌을 받게 하든지 하겠다는 자신의 단호한 결심을 표명하였다 (Georgr Bancroft,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t1, ch12, par1). 수색당하고, 추방당하고, 박해를 받은 그들은 그들의 장래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바랄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려면 "영국은 이미 영구적으로 거주할 만한 곳이 되지 못 한다" (J.G.Palfrey, History of New England, ch1, par13) 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 어떤 사람들은 마침내 네덜란드에서 피난처를 찾고자 결심하였다. 그들은 어려움과 손실과 투옥 등을 당하였다. 결국 그들의 목적은 좌절당하고, 그들은 원수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굴하지 않고 참고 견딘 결과로 마침내 그들은 네덜란드 공화국으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우호적인 영접을 받게 되었다. 도피해 갈 때, 그들은 집과 재산과 생활 수단 등을 모두 버렸다. 그들은 언어와 관습이

전혀 다른 낯선 나라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들은 생계를 위하여 새롭고 생소한 직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밭을 가는 농부로 지내왔던 중년 남자들이 이제는 기계 공업을 새로 배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일을 달게 받아들이고 불평이나 게으름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 극도의 빈궁에 빠진 때도 종종 있었으나 그들은 그들에게 허락된 축복을 감사하고 끊임없는 영적 교제에서 기쁨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이 순례자들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괘념치 않고 그들이 가장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라로 눈을 돌림으로 마음을 평안하게 가졌다" (Bancroft, pt1, ch12, par15).

망명과 고난 중에서도 그들의 믿음과 사랑은 더욱 강해졌다. 그들은 주님의 언약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필요를 따라 주님께서는 항상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다. 주님의 천사들은 그들의 곁에서 그들을 격려하고 붙들어 주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멀리 바다 저편에서 그들이 건설할 나라, 신교의 자유라는 귀중한 유업을 자손들에게 남겨 줄 땅을 가리켜 주시는 것처럼 생각되었을 때, 그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의 길을 따라 전진하였다. 그들이 이와 같은 시련을 당하도록 허락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당신의 은혜로운 목적을 이루도록 하시고자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함이었다. 교회가 그처럼 낮추어진 것은 후에 다시 높여지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증거를 세상에 보여 주시고자 당신의 능력을 교회를 위하여 바야흐로 나타내실 것이었다. 그분께서는 사단의 분노와 악인들의 간계로 말미암아 생긴 여러 가지 사건을 눌러 버림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동시에 당신의 백성을 안전한 장소로 데려가시고자 하셨다. 박해와 망명은 자유에 이르는 길을 열어 주고 있었다.

청교도들이 처음으로 영국 교회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을 때, 그들은 주님의 자유의 백성으로서 "이미 그들에게 알려졌거나 장차 알려질 하나님의 모든 길을 따라 다 함께 걸어가자" (J.Brown, The Pligrim Fathers, p14) 고 엄숙히 맹세함으로 함께 결속하였다. 여기에 개혁의 참된 정신, 곧 개신교의 중요한 원칙이 나타났다.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순례자들은 네덜란드를 떠나 신대륙으로 이주하였다. 당시에 그들의 목사였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과 동행할 수 없었던 존 로빈슨은 그 망명자들과 고별하는 설교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이제 미구에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형제들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인지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만날 기회를 주시든지 주시지 않든지 나는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형제들에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간 그 만큼 나를 따르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른 인물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실 때, 여러분은 나의 봉사를 통하여 나타내 준 진리를 받아들인 것처럼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말씀에서 계시해 주실 더욱 많은 진리와 빛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Martyn, vol1, p10).

“나 개인으로서는 개신교의 상태에 대하여 탄식해 마지않습니다. 그 교회는 한 때 신앙적이었지만 개혁 운동을 일으킨 인물들 이상으로는 한 발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한 형편입니다. 루터교도는 루터가 깨달은 것 이상은 더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칼빈파의 신도들 역시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깨달았다고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남긴 것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이 그 당시에는 밝게 비치는 빛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리의 전부를 밝히 깨닫지는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오늘날 살아 있다면 그들은 분명히 저희가 처음에 받은 빛 이상의 빛을 받고자 갈망할 것입니다” (D.Neal, History of the Puritans, vol1, p169).

“일찍이 여러분이 교회에서 한 서약, 곧 이미 알려졌거나 장차 알려질 주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기로 한 그 서약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알려지는 진리와 빛은 어떤 것이든지 받아들이겠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피차간에 맹세하고 약속한 바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경계할 것은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때는 반드시 그것을 성경의 다른 진리와 비교하고 견주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는 극히 최근에 비그리스도교적 암흑 가운데서 나왔을 뿐이므로 아주 완전한 지식이 한꺼번에 주어졌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Martyn, vol1, p10, 71).

그 순례자들을 고무시켜 긴 여행의 위험을 용감하게 뚫고 바다를 건너가게 하고, 황량한 들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위험을 견디어 내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메리카의 해변에 큰 나라의 기초를 세우게 한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갈망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하였으나 그들은 종교 자유의 위대한 원칙을 아직껏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은 자신을 위하여 많은 희생을 드려서 얻은 자유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균등하게 나누어 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였다. “17 세기의 제일가는 사상가들과 도덕가들 중에서까지도 신약 성경에서 나온 위대한 원칙, 곧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사람의 신앙을 심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한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Martyn, vol1, p197). 사람의 양심을 지배하고 이단을 정죄하여 처벌할 권한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위탁하셨다는 교리는 가장 깊이 뿌리를 박은 법왕교의 오류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개혁자들은 로마교의 신조를 부인하면서도 로마교의 비관용적 정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다. 오랫동안의 법왕교의 지배 아래 전 그리스도교국에 퍼져 있던 짙은 흑암은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이 점에 대하여 매사추세츠 만 (灣) 의 식민지에 살던 한 유명한 목사는 “이설 (異說) 에 대한 관용은 이 세상을 반 (反) 그리스도교적으로 만들었고, 이단을 징벌하는 일은 교회에 아무런 손해도 입히지 않았다” (Martyn, vol1, p135) 고 말하였다. 교회의 교인들만이 세상 정부에 대하여 발언권을 가진다는 규정이 이주민들에 의하여 채택되었다. 일종의 국교회 (國教會) 가 형성되었고, 모든 사람에게는

교직자를 부양하는 데 필요한 기부가 강요되었다. 그리고 장관들에게는 이단을 박멸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그리하여 속권이 교회의 수중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 조치의 필연적인 결과로서 오래지 아니하여 박해가 일어났다.

최초의 식민지가 개척된 지 11 년 후에 로저 윌리엄즈가 신대륙으로 왔다. 초기의 순례자들처럼 그도 역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그 곳으로 왔다. 그러나 먼저 온 사람들과는 달리 그는, 당시에 그것을 인정한 사람이 극히 드물었지마는, 신조가 아무리 다를지라도 자유는 각 사람에게 속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는 열렬한 진리의 탐구자로서 로빈슨처럼 성경에 있는 빛이 이미 다 제공되어 그 이상 더 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지 않았다. 윌리엄즈는 "근세의 그리스도교국에 양심의 자유, 곧 누구든지 법률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신조에 기초하여 민권 정치 (民權政治) 를 확립시킨 최초의 사람이었다" (Bancroft, pt1, ch15, par16). 윌리엄즈는 범죄를 그치게 하는 것이 국가 행정자의 의무이기는 하지만 양심은 결코 지배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말하였다. "일반 민중이나 장관이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있는 일은 결정지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의무를 규정하려고 하면, 그것은 월권이요 위험한 일이다. 왜냐하면 만일 장관이 그와 같은 권리를 소유하게 되면, 마치 영국에서 어떤 국왕이나 여왕이 한 것처럼, 그리고 로마교에서 어떤 법왕이나 의회가 한 것과 같이 오늘 한 가지 주장이나 신조를 세웠다가 내일 다른 주장으로 바꾸게 되어 결국 신조에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Martyn, vol1, p140).

국교의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벌금이나 투옥의 형벌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윌리엄즈는 이러한 법률을 부인하였다. 영국 법전 (法典) 의 최악의 법령은 교구내의 교회에 출석하기를 강요한 것이었다. 같지 아니한 신조를 가진 자들을 연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사람의 생득권 (生得權) 을 공공연하게 유린하는 것이라고 그는 보았다. 신앙이 없는 자들과 마음으로 원하지 않는 자들을 공중 예배에 억지로 끌고 오는 것은 위선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일이었다. '...누구든지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예배를 강요하거나 교회의 경비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그는 부언하였다. 반대자들은 그의 주장에 놀라서, '무엇이라고? 일하는 자가 그 삯을 받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냐'고 반문하였다. 그는 서슴지 않고 '그렇다. 그러나 그 삯은 일 시킨 자에게서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고 대답하였다" (Bancroft, pt1, ch15, par1). 로저 윌리엄즈는 충실하고 특이한 재능을 갖춘 목사로서 품성이 고결하고 인정이 많은 사람으로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위정자가 교회를 지배하는 권세를 단호히 거부하는 일과 신교 자유에 대한 위정자의 요구에 항거하는 일만은 양보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새로운 신조의 주장은 "국가의 정치와 기초를 위태롭게 하는 것" (Bancroft, pt1, ch15, par1) 이라고 공격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온 식민지들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게 되었으며, 마침내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추운 겨울의 눈보라 속에서 인적도 없는 산림 속으로 도망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약 14 주간 동안 혹독한 추위 가운데 이리저리 도망을 다녔는데, 나에게는 먹을 것도 잘 곳도 없었다. 그러나 거친 들에서는 까마귀가 나에게 양식을 주었고, 이따금 속이 빈 나무가 나에게 숙소를 제공해 주었다" (Martyn, vol1, pp149, 350). 그리하여 그는 길 없는 산림 속의 눈을 헤치고 다니면서 괴로운 투쟁을 계속하였다. 그는 드디어 어떤 인디언의 부락에서 피난처를 찾았는데 그 곳은 그가 일찍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자 수고하는 중에 그들의 사랑과 신임을 받던 곳이었다. 수개월 동안 여기저기 떠돌아다닌 끝에 그는 마침내 내러건세트 만 (灣) 에 도착하여 거기서 가장 완전한 의미에서, 근세의 신앙 자유의 권리를 철저하게 승인하는 최초의 주 (州) 의 기초를 놓았다. 로저 윌리엄즈의 식민지의 근본 원칙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양심의 빛을 따라 하나님을 경배할 자유를 가졌다" (Martyn, vol1, p154) 는 것이었다. 그의 작은 주 (州), 로드 아일랜드는 박해로 고난당하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 차츰 사람의 수가 증가되어 번창해졌다. 그리고 그 주의 기본 원칙, 곧 정치와 종교의 자유가 마침내 북미 공화국의 초석이 되었다.

우리의 조상들이 그들의 권리장전 (權利章典) 으로 밝힌 위대한 독립 선언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천명하였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그들에게는 조물주께로부터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가 부여되었으며, 그 권리 가운데는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자명한 진리로 주장한다." 또한 헌법에도 극히 명백한 말로써 양심은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이 보증되어 있다. "합중국은 어떤 공직 (公職) 에 대한 자격으로서 종교적인 시험을 요구하지 않는다." "미의회는 종교의 설립에 관여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활동을 금지하는 어떠한 입법도 하지 않을 것이다." "헌법을 기초한 사람들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인간의 법률 위에 있다는 것과 양심의 권리는 양도할 수 없는 것이라는 영원한 원칙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진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론을 전개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것을 마음속에 깨닫고 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순교자들은 인간의 법률을 대항할 때 고난과 화형을 견딜 수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사람의 법령보다 더욱 우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사람이 자기들의 양심을 지배할 권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느끼었다.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뿌리 뽑을 수 없는 천부 (天賦) 의 원칙이다"[Congressional Documents (U.S.A.), Serial No. 100, Document] 사람이 자기의 수고의 대가를 받고 자기의 양심의 지시대로 생활할 수 있는 나라가 있다는 소식이 유럽의 여러 나라에 전하여지자 무수한 사람이 북미 대륙으로 모여들었다. 식민지의 인구는 갑자기 늘어났다. "매사추세츠 주는 특별한 법률을 제정하여 전란과 기근과 박해자들의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 대서양을 건너오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대하여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환영하고 공금 (公金) 으로 그 일을 원조하였다." 그리하여 망명자와 압박당하는 자들이 법적으로 공화국의 손님이 되었다 (Martyn, vol1, p117). 플리머드 (Plymouth) 에 처음으로 상륙한 때로부터 20 년 후에는

수천 명의 필그림들 (Pilgrims — 순례자 즉 신앙의 자유를 찾아 바다를 건너온 자들) 이 뉴잉글랜드에 정착하였다.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검소하게 노력하여 생애함으로 겨우 호구할 수 있는 것에 만족하였다. 그들은 밭에서도 그들이 힘들인 노력에 해당되는 만큼의 수확을 구하였다. 그들은 장차 일확천금을 얻겠다는 꿈을 갖지 않았다. ...그들은 비록 속도는 느리지마는 그들의 사회 제도의 착실한 발전에 만족하였다. 그들은 인내성 있게 광야의 궁핍을 견디고, 눈물로써 자유의 나무에 물을 주고,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그것을 가꾸어 마침내 그 나무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였다."

성경은 신앙의 기초요, 지혜의 근원이며, 자유의 헌장 (憲章) 으로 존중히 여김을 받았다. 성경의 원칙을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쳤고, 그 결과로 검소, 명철, 순결, 절제 등이 나타났다. 어떤 사람이 청교도들이 거주하는 곳에 여러 해 동안 살지라도 "한 사람의 술주정뱅이를 보거나 한 마디의 욕설을 듣거나 한 사람의 거지도 만날 수 없었다" (Bancroft, pt1, ch19, par15). 그리하여 성경의 원칙은 국가를 위대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안전책이 된다는 것이 분명히 실증되었다. 미약하고 외로웠던 식민지는 강대한 합중국으로 자라났고, 세계는 "법왕 없는 교회, 왕 없는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놀라운 눈으로 보게 되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미국의 해안으로 건너오는 많은 사람들은 당초의 필그림들과는 전연 다른 목적으로 오게 되었다. 초기의 신앙과 순결이 넓은 범위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세속적 이익만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됨에 따라 본래 정신은 점점 흐려져 갔다.

오직 교회의 교인만이 투표권을 가지며 정부 기관의 공직을 얻을 수 있도록 초기의 이주민들이 채택한 규정은 가장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 법안은 주 (州) 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한 방편으로 채택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교회의 부패를 초래하였다. 신앙 고백이 참정권과 관직을 얻는 조건이 되었으므로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변화 없이 다만 세속적 정책이 동기가 되어 교회에 입교하였다. 그리하여 교회들은 상당히 넓은 범위에 걸쳐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성직자들 중에서도 교리상의 오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 그리하여 콘스탄티누스의 시대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역사에서 일반적으로 흔히 보는 나쁜 결과가 다시 나타났다. 곧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요 18:36) 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복음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권력에 호소하여 그 도움을 얻어서 교회를 세우고자 시도하였다. 교회와 국가의 연합은 결코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볼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이 외관상으로는 세상을 교회 편으로 가까이 접근시키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교회를 세상 편으로 더욱 가까이 가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

로빈슨과 로저 윌리엄즈가 훌륭하게 옹호한 위대한 원칙, 곧 진리는 점진적인 것이므로 그리스도인은 항상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빛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그들의 자손들은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리하여 미국의 개신교도들은, 유럽의 개신교도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종교개혁의 풍성한 축복을 받고 있으면서도, 개혁의 길을 따라 전진하는 일에 실패하였다. 비록 소수의 신실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새로운 진리를 선포하고 오랫동안 고집하여 오던 오류를 폭로하였으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마치 그리스도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루터 당시의 법왕교도들과 같이 그들의 조상들이 믿던 것처럼 믿고, 그들이 생활하던 것처럼 생활하는 것을 만족하게 여겼다. 그리하여 종교는 다시 형식주의로 전락해 버렸다. 그리고 만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계속해서 따라갔다면 당연히 배척할 수밖에 없는 미신과 오류를 간직하고 지키게 되었다. 이리하여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고무되었던 정신은 점차 사라져 버렸고, 마침내 루터 시대의 로마 교회처럼 개신 교회도 큰 개혁이 필요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똑같은 세속화와 영적 혼미 상태, 인간적 의견의 존중, 그리고 사람의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대신하는 일이 있었다.

19 세기 전반 (前半) 에 성경이 널리 반포되어 세계는 큰 빛을 받았으나 사람들은 계시된 진리의 지식을 따라 전진하거나 체험적 신앙을 소유하지 않았다. 전 시대처럼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감출 수 없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그것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를 경하게 여기게끔 이끌었다. 사람들은 성경 연구를 게을리 하게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거짓 해설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성경에 아무 근거도 없는 교리를 간직하게 되었다. 핍박으로 진리를 깨뜨려 버리고자 했던 자기의 노력이 실패로 끝난 것을 보고, 사단은 일찍이 로마교를 형성시켜 큰 배교를 일으켰던 타협적 방침을 다시 사용하게 되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여 그들로 하여금 다신교도는 아니지만 새겨서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름없이 이 세상 사물에 몰두된 자들과 연합하도록 만들었다. 이와 같은 연합으로 옛 시대보다 더욱 심한 해독을 끼치는 결과를 빚어내었고, 종교라는 가면 아래 교만과 사치를 마음대로 자랑하므로 교회들은 부패하여졌다. 사단은 계속하여 성경의 교리를 왜곡시켰고, 무수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한 유전들이 깊이 뿌리를 박게 하였다. 교회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투쟁하는 대신에 그 유전들을 지지하고 변호하였다. 그리하여 개혁자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세운 원칙들을 전락시켰다.

17 장 — 여명을 알리는 사자 (使者)

성경에 계시된 가장 엄숙하고 영광스러운 진리 가운데 하나는 구원의 위대한 사업을 완성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진리이다. 오랫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방황하도록 버려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버림받은 백성들을 본향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귀중하고 기쁨에 넘치는 소망을 주고 있다. 재림의 교리는 바로 성경의 근본적 주제이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슬픈 발걸음을 돌이킨 후부터 믿음의 자녀들은 파괴자의 세력을 깨뜨리고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회복시켜 줄 언약의 구주가 나타나기를 고대해 왔다. 옛날의 성도들도 그들의 희망의 성취로서 영광의 메시야가 나타나기를 고대해 왔다. 에덴 낙원에 거하던 시조로부터 불과 7 대 자손에 해당하며 3 백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오랜 후에 있을 구주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 그는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유 1:14, 15) 라고 말하였다. 또 족장 욥은 그가 고통을 당하던 밤에 자신의 확고한 신앙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욥 19:25~27).

의의 시대를 도래케 할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경의 기자들이 가장 장엄하고 숭고한 말로써 그 사건을 표현하도록 감동을 주었다. 성경에 나오는 시인들과 선지자들은 하늘의 뜨거운 불로 그 마음들이 감동되어 재림을 노래하고 말하였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의 권능과 위엄을 노래하였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시 50:2~4, 96:11, 13).

선지자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사 26:19, 25:8, 9). 하박국도 거룩한 계시를 통하여 그분의 나타나심을 보았다. "하나님이 데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주의 날으는 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셨나이다" (합 3:3~13).

구주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떠나가시고자 하셨을 때, 그들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보증하심으로 슬픔에 잠겨있는 그들을 위로하셨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 14:1~3).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 (마 25:31, 32) 리라.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감람산 위에 머물러 있던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거듭 되풀이하여 말하였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행 1:11). 사도 바울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 (살전 4:16) 라고 증언하였다. 밧모섬의 선지자 요한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계 1:7) 라고 말하였다.

그분의 재림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 (행 3:21) 의 영광이 된다. 오랫동안 계속하여 온 악의 통치가 그 때에 깨어질 것이다. 그리고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계 11:15).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사 40:5, 61:11, 28:5). 그 때에 오랫동안 기다린 평화로운 메시야의 나라가 온 우주 앞에 세워질 것이다.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뿔라라 하리니...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사 51:3, 35:2, 62:4, 5). 그리스도의 재림은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희망이 되어 왔다. 구주께서 감람산에서 이별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재림의 약속은 제자들의 미래를 밝혀 주었고, 어떤 슬픔도 빼앗아 갈 수 없고 어떤 시련도 흐리게 할 수 없는 기쁨과 희망으로 그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었다. 박해와 시련 중에서도 "크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이 "복된 소망"이 되었다.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보기를 희망하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으므로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그들의 스승인 바울은 구주의 재림시에 있을 부활을 그들에게 알려 주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살전 4:16~18).

험준한 바위들로 이루어진 밧모섬에 귀양을 간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받았다. 그는 그 말을 듣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 22:20) 라고 대답하였는데, 그 말은 오랫동안 순례 생활을 해온 교회의 간절한 기도이기도 하다. 옥중에서, 화형주에서, 교수대에서, 성도들과 순교자들이 진리를 증거한 곳에서, 그들의 믿음과 소망의 말들은 여러 세기에 걸쳐 전해지고 있다. 그들은 그들 중의 어떤 그리스도인의 말과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였고, 따라서 재림 시에 자기들도 부활할 것을 확신하였으므로,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것을 초월하게 되었다" (Daniel T.Taylor, The Reign of Christ on Earth:or, The Voice of the Church in All Ages, p13). 그들은 "부활할 것이었으므로" (Daniel T.Taylor, The Reign of Christ on Earth:or, The Voice of the Church in All Ages, p14). 즐거운 마음으로 무덤에 들어갔다. 그들은 "주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사", "거룩한 나라에 인도하여 들이실 때"를 바라보았다. 왈덴스 교도들은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Daniel T.Taylor, The Reign of Christ on Earth:or, The Voice of the Church in All Ages, pp129~132). 위클리프는 구주의 나타나심을 교회의 희망으로 바라고 사모하였다 (Daniel T.Taylor, The Reign of Christ on Earth:or, The Voice of the Church in All Ages, pp132~134).

루터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나는 심판의 날이 앞으로 3 백년이 못되어서 올 것으로 확신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악한 세상을 더 이상 오래 참지 않으실 것이며, 참을 수도 없으실 것이다." "이 가증한 나라가 전복될 큰 날이 다가오고 있다" (Daniel T.Taylor, The Reign of Christ on Earth:or, The Voice of the Church in All Ages, pp158, 134). 멜란히톤은 "이 낡은 세상은 그 끝이 멀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칼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을 모든 사건들 중에서 가장 기쁜 사건으로 주저하지 말고 고대하라"고 권면하고, "모든 충실한 가족들은 그날을 고대할 것이다"라고 역설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의 영광을 완전히 나타내시는 그 큰 날이 밝아오는 것을 볼 때까지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명상하기를 주린 것처럼 해야 한다" (Daniel T.Taylor, The Reign of Christ on Earth:or, The Voice of the Church in All Ages, pp158, 134) 고 말하였다.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녹스는 말하였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하늘로 가지 않으셨는가?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분께서 돌아오시되 속히 돌아오실 것을 믿는다." 진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린 리들리 (Ridley) 와 래티머 (Latimer) 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기다렸다. 리들리는 기록하였다. "나는 그 사실을 믿고 있으므로 말한다. 세상은 확실히 종말에 가까워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 요한처럼 충심으로 우리 구주 그리스도를 향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부르짖어야 한다" (Daniel T.Taylor, The Reign of Christ on Earth:or, The Voice of the Church in All Ages, pp151, 145). 박스터 (Baxter) 는 말하였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생각은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다" (Richard Baxter, Works, vol17, p155).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그 복된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성도들의 특성이요 믿음이다." "부활할 때에 멸망되어야 할 최후의 원수가 사망이 되어야 한다면, 우리는 사망이 완전히 정복당하게 될 그리스도의 재림을 참으로 열렬하게 바라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Richard Baxter, Works, vol17, p100). "이날은 마땅히 모든 신자들이 사모하고 바라고 기다려야 할 날이다. 왜냐하면 그날은 그들의 구속을 위한 모든 사업과 그들의 영혼의 모든 소원과 노력이 성취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오! 주여 그 복된 날이 속히 이르게 하소서" (Richard Baxter, Works, vol17, pp182, 183). 그 말은 사도 시대의 교회와 광야의 교회와 종교 개혁자들의 한결같은 소망이었다. 예언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과 광경을 말해 줄 뿐 아니라 그 사건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 주는 징조도 나타내 준다. 예수께서는 또한 "일월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눅 21:25),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 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막 13:24~26) 고 말씀하셨다. 요한계시록의 기자인 요한은 재림 전에 나타날 첫째 징조로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 (계 6:12) 라고 기록하였다.

이 징조들은 19 세기가 시작되기 전에 나타났다. 그 예언의 성취로서 1755 년에 일찍이 기록된 것 중에서 가장 무서운 지진이 일어났다. 일반적으로 리스본 대지진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범위는 유럽의 많은 부분과 아프리카와 미국에까지 확대되었다. 그것은 그린랜드와 서인도제도와 마데이라도 (島) 와 노르웨이와 스웨덴과 아일랜드에서도 감진되었다. 그것은 4 백만 평방마일의 지역에 미쳤다. 아프리카에는 유럽에서와 거의 같을 정도로 격렬한 진동이 있었다. 알지어즈는 많은 부분이 파괴되었다. 그리고 모로코에서 멀지 않은 마을, 인구 8 천 내지 1 만 미만 정도의 한 마을은 전부 함몰되고 말았다. 스페인과 아프리카 해안 일대에는 큰 해일이 일어나 많은 도시들이 휩쓸려 나갔고, 큰 파멸이 일어났다.

지진이 가장 격심했던 곳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었다. 카디즈 시에는 밀려온 파도의 높이가 60 피트나 되었다고 한다. "포르투갈의 가장 높은 산들 중의 어떤 것들은 바로 기초부터 격렬하게 흔들렸고, 어떤 산들은 산꼭대기가 터져서 놀라운 모양으로 가까운 산골짜기로 거대한 땅 덩어리가 무너져 내려왔다. 또 그런 산들로부터 불꽃이 솟구쳐 나왔다고 전해지고 있다" (Sir Charles Lyell, Principles of Geology, p195). 리스본에서는 "우레 같은 소리가 땅속에서 들려왔고, 그 후에 즉시 일어난 심한 진동으로 말미암아 그 도시의 대부분이 무너져 버렸다. 약 6 분 만에 6 만 명의 사람이 죽었다. 바다는 처음에는 물이 나가서 모래밭이 드러났으나 잠시 후에는 보통 때의 수면보다 50 피트 또는 그 이상의 높은 큰 물결이 밀려들었다." "그 큰 재난으로 리스본 시가 당한 무서운 사건들 중의 하나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새로 만든 대리석 부두가 함몰된 일이었다. 많은 군중들은 그 부두를 파멸이 미치지 않을 안전지대라고 생각하여 그 곳으로 몰려와 있었다. 그러나 그 부두는 갑자기 모든 사람들을 실은 그대로 가라앉아 버렸는데, 그 뒤에 단 한 사람의 시체도 떠오르지 않았다" (Sir Charles Lyell, Principles of Geology, p195). "지진의 진동 (震動) 이 있자 곧 이어 교회당과 수도원, 거의 모든 고층 건물들은 무너져 버렸고, 시가의 건물 4 분의 1 이상이 파괴되었다. 지진 후 약 두 시간 정도 지나게 되자 각 곳에서 화재가 일어나서 거의 3 일간 걷잡을 수 없이 맹렬한 불길을 뿜은 결과로 시가는 완전히 황폐케 되었다. 지진은 성일에 일어났으므로 교회와 승원들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들 중에서 죽음을 모면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Encyclopedia Ameri-cana, art."Lisbon," note (ed1831)].

사람들의 두려움은 말할 수 없었고, 아무도 우는 자가 없었다. 사실상 아무도 울 수가 없었다. 그들은 공포와 놀라움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자기들의 얼굴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세상 끝이 되었나이다"라고 부르짖었다. 어머니들은 아기들을 잊어버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리스도의 상 (像)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은 교회당으로 피난하여 보호를 받고자 하였으나 성찬을 취하여도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다. 가련한 영혼들은 제단을 붙들었지만 쓸데없는 일이었다. 성상 (聖像) 과 신부들과 백성들은 다 같이 파멸 속에 매몰되고 말았다. 그 무서운 날에 생명을 빼앗긴 사람은 9 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리라는 예언의 둘째 징조는 25 년 후에 일어났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일이 성취된 시기가 예언에서 지적한 것과 틀림없이 일치된다는 점이다. 구주께서는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교회가 오랜 기간의 시련기 곧, 일천이백육십 년간 법왕권의 박해를 당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환난 날을 감할 것을 약속하신 후 재림 전에 있을 몇 가지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그 첫째 사건이 언제 일어날 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 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 (막 13:24) 리라. 일천이백육십일, 곧 일천이백육십

년은 기원 1798 년에 마쳤다 (제 15 장과 제 25 장 참조). 박해는 그보다 25 년 전에 거의 다 끝났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박해가 끝난 뒤를 이어서 해가 어두워질 것이었다. 이 예언은 1780 년 5 월 19 일에 성취되었다.

"이런 종류의 모든 현상 중에서 가장 신비하고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은 1780 년 5 월 19 일의 암흑일이었는데, 그날에 미국의 뉴잉글랜드 지역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온 하늘과 공중이 전연 해석할 수 없는 암흑으로 뒤덮였다" (R.M.Devens, Our First Century, p19). 이에 대하여 매사추세츠 주의 한 목격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에는 맑고 선명하였으나 잠시 후 하늘은 어두워졌다. 구름이 점점 낮아지더니 험악해졌고 이어서 번개가 치고 우레 소리가 나고 비도 약간 내렸다. 오전 아홉 시 경이 되자 구름은 엷어졌으나 온 하늘이 구릿빛처럼 붉어졌는데, 그 이상한 빛 때문에 땅과, 바위들, 나무들, 건물들, 사람의 모양 등이 모두 완전히 변한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잠깐 후에 새까만 구름이 지평선 위에 좁다란 선 (線) 만 남기고 온 하늘을 덮어 버렸다.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여름철의 저녁 아홉 시 만큼의 어둠이 되어 버렸다. …

두려움과 염려와 무서운 생각이 차츰 사람들의 마음을 엄습하였다. 부인들은 문간에 서서 어두운 풍경을 주목하여 보았다. 농부들은 밭에서 돌아오고, 목수와 대장장이는 일손을 멈추고, 장사꾼들은 점포를 걷어치웠다. 학교들은 수업을 중단하여 하학하고, 아동들은 무서워서 집으로 뛰어왔다. 행인들은 가까운 농가로 피하여 들어갔다. '대관절 어찌된 일인가?' 모든 사람의 마음과 입에서 그런 의문들이 새어 나왔다. 마치 태풍이 땅에 몰려올 것처럼, 만물의 종말이 다가올 것처럼 보였다. 촛불을 켰다. 난로의 불들은 마치 달 없는 가을밤을 비추는 것 같았다. …닭들은 홰에 올라가 잘 준비를 하고 가축들은 목장의 한 편 구석으로 몰려서 울고 있었다. 개구리가 울고 작은 새들도 저녁 노래를 불렀으며, 박쥐들은 밖으로 나와서 날아다녔다. 아직 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사람뿐이었다. …

이때에 세일럼에 있는 태버너클 교회의 목사 나다나엘 휘테이커 박사가 예배당에서 종교 집회를 열고 있었는데, 그는 설교하는 중에 그 암흑이 초자연적 현상이라고 주장하였다. 회중들은 많은 곳에서 모여들었다. 그런데 즉석 설교를 위해 선택된 성경 구절들은 한결같이 그 암흑이 성경의 예언에 일치한다는 것을 지적해 주는 듯이 보이는 것들이었다. …그 암흑은 열한시가 조금 지나자 가장 심해졌다" (The Essex Antiquarian, April, 1899, vol1, No1, pp13, 54). "그 나라의 대부분의 지역은 한낮에 흑암이 너무도 심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촛불이 없이는 손목시계나 벽시계를 볼 수 없었고, 밥을 먹거나 집안일을 할 수도 없었다. … 그 암흑의 범위는 심히 넓었다. 동쪽으로는 팰머드까지 미치고, 서쪽으로는 코네티컷 주의 가장 먼 지역과 앨바니 시까지 미쳤다. 남쪽으로는 해안을 따른 모든 지방과 북쪽으로는 미국 지역의

최북단까지 미쳤다" (William Gordon, History of the Rise, Progress, and Establishment of the Independence of the U.S.A., vol1, p17).

낮 동안의 짙은 암흑은 줄곧 계속되었다. 그리고 저녁때의 한두 시간쯤 하늘이 얼마쯤 밝아져서 태양이 나타났다. 그러나 태양은 여전히 검고 빽빽한 안개에 가리워 희미하였다. "해가 진 후에 구름은 다시 덮여서 순식간에 암흑이 심하여졌다." "그날 밤의 어둠은 낮 동안의 어둠보다 더욱 심하였으며, 이상하고 무서운 흑암이었다. 거의 만월이었지만 등불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런 물체도 분간할 수가 없었다. 그 등불도 이웃집에서나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서 보면 애굽에 나타났던 암흑처럼 광선이 꿰뚫을 수 없는 암흑을 통하여 보는 것 같았다"[Isaiah Thomas, Massachusetts Spy;or, American Oracle of Liberty, vol10, No172 (May 25, 1780)]. 당시의 한 목격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그 때에 우주의 발광체 (發光體) 가 모두 뚫고 나올 수 없는 암흑에 싸였거나, 없어져 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처럼 암흑이 심할 수는 없었다"[Letter by Dr. Samuel Tenney, of Exeter, New Hampshire, December, 1785 (in Massachuestts Historical Society Collections, 1792, 1st Series, vol1, p17)]. 그날 밤 9 시에 달은 완전히 떠올랐으나 "이 죽음의 그늘과 같은 어둠을 전혀 제거해 버릴 수 없었다." 밤중이 되자 암흑은 사라지고, 달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마치 핏빛과 같았다. 1780 년 5 월 19 일은 역사상 암흑일로 알려져 있다. 모세 시대 이후로 그처럼 극심하고 광범위하고 장시간에 걸쳐 있었던 암흑은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암흑일을 목격한 사람들의 기록은 선지자 요엘이 이미 그 사건이 성취되기 이천오백 년 전에 기록한 성경 말씀을 되풀이한 데 불과하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 (욜 2:31) 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재림의 징조에 유의하라고 명령함과 동시에 그들의 왕이 오실 징조를 볼 때에는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봄에 나무들이 움트는 사실을 지적하시면서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눅 21:28, 30, 31) 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겸손과 헌신의 정신이 교만과 형식주의로 바뀌고 있는 동안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분의 재림에 대한 믿음은 점점 식어져 버렸다.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세속적 욕심과 향락을 구하는 일에 몰두되어 구주의 재림의 징조들에 대한 교훈에는 소경이 되어 버렸다. 재림의 교리는 등한히 여겨졌고, 재림에 관한 성경절들은 곡해로 가리워져서 마침내 그것은 거의 대부분 무시되고 잊어버린 바 되었다. 특별히 그와 같은 현실은 미국의 각 교회들에 있어서 그러하였다. 사회의 각 계급에서 누리는 자유와 안락, 부와 사치에 대한 욕망은 사람들로 돈 버는 일에 몰두하게

하고,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명예와 권력에 대한 열렬한 욕망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흥미의 중심을 이 세상의 사물에 두게 하고, 현세의 모든 사물을 파괴해 버릴 그 엄숙한 날을 아주 먼 장래의 일로 제쳐놓게 하였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다시 오심에 대한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재림 직전에 있을 타락 상태에 대하여 예언하셨다.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세속적 업무와 향락을 구하는 일, 곧 사고, 팔고, 심고, 집짓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하나님과 내세는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세대에 살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권고는 아래와 같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눅 21:34, 36). 이 시대의 교회의 상태는 요한계시록에서 구주께서 하신 말씀, 곧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계 3:1) 고 하신 말씀에 지적되어 있다. 또한 저희의 부주의하고 안일한 상태에서 각성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계 3:3) 는 엄숙한 경고가 주어졌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위험을 깨닫고 은혜의 끝과 관련된 엄숙한 사건들을 위하여 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욜 2:11) 고 말하고 있다. 누가 능히 그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 (합 1:13) 는 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 앞에 서겠는가?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가) …주를 아나이다" (호 8:2) 고 부르짖으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범하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고 죄를 마음에 감추며 불의한 길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주의 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암 5:20). "그 때에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찌끼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습 1:12).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사 13:11),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무할 것이라" (습 1:18, 13).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두려운 시기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네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렘 4:19, 20) 라고 부르짖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패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는 날이로다" (습 1:15, 16). "여호와의…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사 13:9) 라. 그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엄숙하고 감동적인 말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영적 혼수상태에서 깨어 회개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고 호소한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케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로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 (욜 2:1, 15~17, 12, 13) 도다.

하나님의 날에 설 수 있는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서는 하나의 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었다.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의 대부분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고 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써 그들을 혼수상태에서 깨워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를 갖추게 하시고자 경고의 기별을 보내실 예정이었다. 그 경고의 기별은 요한계시록 14 장에 기록되어 있다. 거기에 하늘의 천사들에 의하여 전파되는 삼중 (三重) 기별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즉시 인자가 와서 땅의 익은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경고의 첫째 기별은 심판이 임박하였다는 것을 선포한다. 선지자는 공중을 날아가는 한 천사를 보았다. 그는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계 14:6, 7). 이 기별은 영원한 복음의 한 부분으로 전파되어야 한다. 복음의 전파는 천사에게 위임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위임된 것이다. 거룩한 천사들은 복음 전파의 사업을 지도할 책임을 맡아 인류의 구원을 위한 큰 운동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그분의 말씀의 교훈을 순종한 충성된 종들은 이 경고를 세상에 전파하여야 했다. 그들은 "어두운 데 비취는 등불"과 같이 "샛별이...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벧후 1:19) 확실한 예언에 유의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식을 감추인 모든 보화보다도 더욱 값진 것으로 찾아 구하고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잠 3:14) 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위대한 일들을 보이셨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음이여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시 25:14). 재림의 진리를 이해하고 그 진리를 전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은 소위 학문적인 면에서 신학자들은 아니었다. 만일 신학자들이 열렬하고 경건하게 성경을 연구하는 충실한 파수꾼들이었다면, 그들은 어둠의 시기를 반드시 깨달았을 것이었다. 예언은 그들에게 바야흐로 일어날 사건을 알려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와 같은 위치에 서지

않았으므로 기별은 보다 비천한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예수님께서는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요 12:35) 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거절하거나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빛을 찾는 일을 등한히 하는 자는 암흑 가운데 버려진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 8:12) 고 말씀하신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고 이미 주어진 빛을 열심으로 탐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보다 큰 빛을 받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사람에게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를 인도해 줄 하늘의 광휘를 지닌 어떤 별들이 보냄을 입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초림 당시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고 있었으므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허락하신 분의 오심을 선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미가의 예언은 그분의 출생지를 알려 주었고 (미 5:2), 다니엘은 그분의 초림의 시기를 분명하게 밝혀 주었다 (단 9:25).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런 예언들을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메시야의 오심이 임박하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전하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핑계할 수는 없었다. 그들의 무지는 죄스러운 태만의 결과였다. 유대인들은 세상의 위대한 인물들에게 경의를 표함으로 사단의 종들에게 복종하는 한편 순교당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다. 그들은 세속적 지위와 권력을 쟁탈하기 위한 투쟁에 몰두하였으므로 하늘의 임금께서 주시는 거룩한 영광을 잊어버렸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심오하고 경건한 태도로 세계 역사상 최대의 사건, 곧 인류의 구속 사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장소, 시기, 환경 등에 관하여 연구를 하고 있었어야 했다.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구속자를 영접하는 최초의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고대하고 있어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먼 나사렛의 산골로부터 베들레헴까지 찾아간 두 사람의 피곤한 여행자는 그 마을의 좁은 길을 동쪽 끝까지 걸어가면서 밤 동안에 쉴 곳과 잘 곳을 찾았으나 끝내 허사가 되고 말았다. 그들을 맞아들이기 위하여 문을 열어 주는 집은 하나도 없었다. 마침내 그들은 비천한 한 외양간에 숙소를 정하였는데, 거기서 세상의 구주께서 탄생하셨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당신의 아버지와 함께 누리셨던 영광을 목격했던 천사들은 그분께서 세상에 나타나시는 일이 모든 백성에게 최대의 기쁨을 주는 사건이 될 것으로 믿고 열렬한 관심으로 바라보았다. 천사들은 그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 소식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알려 줄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가져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인성을 쓰고 오셔서 한없이 무거운 저주의 짐을 지고 당신의 영혼을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드릴 것이었다. 그러나 천사들은 비록 그분께서 굴욕을 당하실지라도 그분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그분의

속성에 알맞은 위엄과 영광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실 것으로 기대하였다. 세상의 위대한 인물들이 이스라엘의 수도에 모여서 그분의 오심을 영접할 것인가? 천사들의 무리가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분을 소개할 수 있을 것인가?

한 천사는 지상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았다. 그러나 그는 기다리고 있는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 그는 메시야가 오실 시기가 절박하다는 것을 알려 주는 찬미와 승리의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그 천사는 얼마 동안 택함을 입은 도성과 여러 시대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 있던 성전 위를 배회하였으나 거기에도 똑같은 무관심이 있을 뿐이었다. 허식과 교만으로 가득 찬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더럽혀진 제물을 드리고 있었다. 바리새인들은 큰소리로 백성들을 가르치거나 길거리에서 자랑스럽게 기도하고 있었다. 왕궁에서, 철학자들의 집회에서, 랍비들의 학교에서, 어디에서나 온 하늘의 기쁨과 찬양으로 가득 채운 놀라운 사건, 곧 인류의 구속자가 바야흐로 세상에 나타나신다는 놀라운 사건에 대하여 한결같이 무관심한 상태가 되어 있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는 증거는 보이지 않고 생명의 왕을 영접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그와 같은 상태에 놀란 천사는 그 부끄러운 소식을 가지고 하늘로 돌아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 때에 그는 한 무리의 목자들이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메시야가 세상에 오실 예언을 명상하고 세상의 구속자가 오실 일을 사모하면서 밤에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여기에 바로 하늘의 기별을 받고자 준비된 무리가 있었다. 그리하여 갑자기 주님의 사자는 나타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 하늘의 영광이 온 들판을 두루 비추었다. 마치 한 천사가 그 소식을 전하기에는 너무 부족한듯이 무수한 천사들이 나타나서 큰소리로 장차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를 그 노래를 합창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눅 2:14). 베들레헴의 그 놀라운 이야기에는 참으로 훌륭한 교훈이 있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의 불신과 오만과 자부심을 진정으로 견책해 주고 있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죄스러운 무관심 때문에 시대의 징조를 분별치 못함으로 권고 (眷顧) 하시는 날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깨우쳐 주는 경고가 되지 않는가. 천사들이 메시야의 오심을 위하여 깨어 있는 사람으로 발견한 자들은 유대 땅의 언덕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만이 아니었다. 이방 나라에도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지혜 있고 고상한 동방의 철학자들이었다. 천연계를 탐구하는 학자들인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솜씨를 통하여 하나님을 깨달았다. 히브리인의 성경에서 그들은 야곱에게서 별이 일어날 것을 알았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이방을 비취는 빛"이 되고, "땅 끝까지 구원"하실 분이 오실 것을 열렬히 사모하고 있었다 (눅 2:25, 32; 행 13:47). 그들은 빛을 찾는 사람들이었으므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빛이 그들의 앞길을 비추어 주었다. 진리의 옹호자요 해석자로 임명된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어둠에 묻혀 있는 동안, 하늘에서 보낸 그 별은 그 이방 사람들을 새로 태어난 왕에게로 인도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 (히 9:28) 실 것이다. 구주의 탄생에 대한 소식과 같이 그분의 재림에 대한 기별은 일반 백성들의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위탁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연결을 지속하지 못하고, 하늘로부터 온 빛을 거절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살전 5:4, 5) 라고 말한 무리들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시온성 위에 있는 파수꾼들은 맨 먼저 구주의 초림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분께서 가까이 오신다는 소식을 전하는 일에 그들의 음성을 높일 백성들에게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하라고 제일 먼저 경고했어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서 졸고 있는 동안, 그들은 평화와 안락을 꿈꾸면서 안일한 가운데 묻혀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잎은 매우 무성하지만 귀중한 열매는 없는 것을 아셨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에 필수적인 참된 겸비와 인내와 신앙의 정신은 결핍되어 있으면서도 종교적 형식은 자랑스럽게 준수하는 일이 거기에 있었다. 성령의 은혜 대신에 교만, 형식, 허영, 이기심, 압제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타락한 교회는 시대의 징조에 대하여 눈을 감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거나 당신의 성실하심을 그치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갔고 그분의 사랑에서 자신들을 분리시켰다. 그들이 조건들을 이행하는 일을 거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성취되지 못하였다. 그와 같은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빛과 특권을 깨닫고 이용하는 일을 등한히 한 분명한 결과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를 좇지 않고 모든 빛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제시된 모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종교는 다분히 형식화되어 버리고 생명력이 넘치는 경건의 정신은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 사실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하여 나타났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과 특권에 부합되는 믿음과 순종을 나타내도록 요구하신다. 순종은 희생을 요구하며 십자가가 수반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빛을 거절하게 되고, 옛날의 유대인들처럼 그들에게 다가오는 권고 (眷顧) 의 때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 (눅 19:44). 그 들의 교만과 불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나쳐 버리시고, 베들레헴의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처럼 그들이 이미 받은 모든 빛에 성실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진리를 계시해 주셨다.

18 장 — 근대의 종교 개혁자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하는 일을 지도하도록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윌리엄 밀러 (William Miller) 는 성경의 권위를 의심하면서도 진심으로 진리를 알고자 갈망한 착실하고 정직한 농부였다. 그는 다른 종교 개혁자들처럼 어린 시절에 가난과 싸웠으며, 그로 인하여 스스로 힘쓰고 극기하는 큰 교훈을 배웠다. 그가 출생한 가문은 자립정신과 자유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고, 열렬한 애국심과 인내력이 강한 것 등으로 특징이 지어진 집안이었는데, 그 같은 특성들은 또한 그의 성격에도 현저히 나타났다. 그의 아버지는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 한 부대장 (部隊長) 으로 있었는데, 그 격렬한 전쟁 동안의 투쟁과 고난 때문에 겪은 희생이 아마도 밀러의 어린 시절의 생활환경을 어렵게 만들었던 것 같다. 그는 건강한 육체를 가졌고, 어린 시절에 벌써 비범한 지력을 가졌다는 증거를 나타냈다. 그가 차차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그 사실은 더욱 현저해졌다. 그는 비록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누리지 못하였으나 배우기 좋아하는 그의 마음과 주의깊이 사색하는 습관과 빈틈없는 비판력 등은 그로 하여금 건전한 판단력과 풍부한 이해력을 갖춘 인물이 되게 하였다. 그는 비난할 여지없는 도덕적 품성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일반적으로 청렴하고 검소하고 관대한 인물로 존경받고 있었다. 그는 또한 부지런히 노력하고 애쓴 결과로 일찍부터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럴지라도 그는 연구하는 습관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 그는 정치와 군사 면에서도 상당한 수완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그에게는 명예와 재산을 얻을 길이 넓게 열려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참으로 경건한 부인이었으므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종교적 감화를 많이 받았다. 그러나 청년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는 무신론자들과 많이 교제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대개 선량한 시민들로서 인간미가 있고 동정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으므로 그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다. 그런데 그들은 원래 그리스도인의 분위기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들의 환경에 의하여 품성이 꼴 지어져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용을 얻은 것은 성경으로 말미암은 바가 컸던 것이다. 그러나 그 좋은 재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영향을 끼치리만큼 왜곡되었다. 밀러는 그런 사람들과 접촉하므로 그들과 같은 견해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그 당시의 성경 해석은 그에게 그 참뜻을 깨닫기 어렵도록 만들었다. 그리하여 그가 받아들인 새로운 신조는 성경을 도외시하도록 만들었을 뿐 성경을 대신할 만한 더 좋은 것을 아무것도 제공해 주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불만족한 상태로 그냥 지내왔다. 그는 이와 같은 상태로 약 20 년간의 세월을 보냈다. 그런데 그가 34 세 때에 성령께서는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마음에 강력하게 깨우쳐 주셨다. 동시에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종래의 신념은 무덤을 초월한 행복을 보증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장래는 어둡고 음울한 것뿐이었다. 후일에 그는 당시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절멸 (絶滅) 이란 실로 차갑고 냉랭한 사상이었다. 그 결과는 모든 것을 분명히 멸절시키는 것이었다. 하늘은 다만 놋쇠처럼 내 머리 위에 머물러 있었고, 땅은 마치 쇳덩이처럼 견고하게 나의 발밑에 있을 뿐이었다. 영원,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죽음, 그것은 무엇 때문에 있는가? 따져보면 볼수록, 나는 실증하기가 더욱 어려웠다. 나는 생각을 그만두려고 하였으나 마음이 정돈되지 아니하였다. 나는 참으로 가련하였다. 그러나 그 이유를 이해할 수는 없었다. 나는 원망하고 불평하였으나, 누구에게 하는 불평과 원망인지 몰랐다. 나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으나 어디서, 어떻게 옳은 것을 찾을는지 몰랐다. 나는 탄식하였지만 소망은 없었다."

그는 이같은 상태에서 몇 달을 지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갑자기 한 구주의 품성이 내 마음에 생생한 감명을 주었다.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할 인자하고 동정이 많은 구주께서 계실 것처럼 생각되었다. 나는 즉시 그분이 얼마나 다정한 분이실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그 때에 나에게는 그러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나는 성경을 제외하고는 그러한 구주께서 계시다는 것과 내세에 대하여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 나는 성경이 내게 필요한 바로 그런 구주를 보여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타락한 세계의 요구를 이처럼 완전하게 채워 주는 원칙들을 제시하는 책이 영감 (靈感) 받지 않은 책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라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성경은 내게 즐거움이 되었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한 친구를 발견하였다. 구주께서는 나에게 있어서 "만 사람에 뛰어난" (아 5:10) 분이 되셨고, 전에는 암흑과 모순투성이였던 성경이 이제는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었다. 나의 마음은 안정되고 만족해졌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생이라는 대양에서 반석이 되신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제 성경은 내게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매우 큰 기쁨으로 그것을 탐구하였노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내가 전에 들은 것은 그 절반도 못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어찌하여 이전에 성경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알지 못하였는지 의아하게 생각되었고, 내가 어찌하여 전에 그것을 거절하였는지 이상히 여기게 되었다. 나는 그것이 나의 마음에 모든 소원을 채워 주고 마음의 모든 병을 고쳐 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모든 다른 책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고자 나의 온 마음을 쏟았다" (S.Bliss, Memoirs of Wm.Miller, pp15~67). 밀러는 지금까지 그가 경멸하게 여겨온 종교에 대한 신앙을 여러 사람 앞에 고백하였다. 그러나 그의 믿지 않는 친구들은 그가 이전에 자주 성경의 권위에 대하여 힘 있게 반대하여 온 바로 그 모든 논증들을 지체 없이 제시하였다. 그 때에 그는 그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일 것 같으면 반드시 그 자체에 모순이 없어야 하고, 그것이 인류의 교훈으로 주어졌다면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을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되,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점들이 조화를 이룰 수는 없는지 연구해 보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모든 선입견 (先入見) 을 버리고자 힘쓰는 한편, 성경의 주석들을 참고하지 않고, 관주와 성구 사전 (聖句辭典) 을 이용하여 성경의 구절과 구절을 비교함으로 연구하였다. 그는 그 연구를 극히 규칙적으로, 조직적으로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성경 구절 한 절 한 절을 읽어가면서 그 의미가 분명히 이해되기 전에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그는 별로 모순이나 의문이 없이 이해할 수 있고 거기 관련되는 다른 성경 구절을 비교하여 자기의 견해와 일치되는 때에는 다음 성경 구절로 넘어갔지만 만일 분명하지 못한 점을 발견할 때에는 언제든지 그 문제에 관한 다른 모든 성경 구절을 대조 연구하였다. 그렇게 함으로 어렵게 보이던 것이 없어져 갔다. 그는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을 만나면 다른 성경 구절에서 그 해석을 찾아 발견하였다. 그가 하나님의 깨우쳐 주심을 위하여 열렬히 기도하면서 연구할 때, 이전에 이해할 수 없으리만큼 어둡게 보이던 것들이 분명해졌다. 그때에 그는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취어 깨닫게 하나이다" (시 119:130) 고 한 시인의 말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깊은 흥미를 가지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였다. 그는 그 말씀들도 다른 성경 구절들을 연구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하였는데, 거기 나타난 여러 가지 예언적 상징 (象徵) 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는 이미 성취된 예언들이 사실상 문자 그대로 성취된 사실과, 그 여러 가지 표상 (表象), 은유 (隱喩), 비유 (比喩), 직유 (直喩) 등은 모두 그 전후의 성경 구절들이 그것들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과, 거기 나타난 용어들은 다른 성경 구절로 정의 (定義) 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석할 때,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리하여 나는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된 진리의 한 큰 체계로써 누구든지, 비록 우매한 자라도 그것을 오해할 필요가 없도록 단순하고 명료하게 기록된 것에 대하여 만족하게 되었다" (S.Bliss, Memoirs of William.Miller, p 10). 그가 예언의 큰 사슬을 하나하나 풀어 가는 동안에 그의 노력에 따라 진리의 사슬이 하나씩 차례로 풀려져서 그의 노력은 보상을 받았다. 천사들은 그의 마음을 지도하여 성경 구절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열어 주었다.

과거에 여러 가지 예언들이 정확하게 성취된 방식들을 표준으로 하여 아직 장래에 속하는 모든 예언의 성취를 판단해 볼 때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에 대한 일반적 견해, 곧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 있을 이 세상에서의 복천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생긴 교리가 아님을 그는 깨닫고 납득하게 되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의와 평화의 1 천년이 있다고 가르치는 교리는 하나님의 날의 두려움을 멀리 배격해 버리게 된다. 이 교리는 듣는 자들에게 기쁨을 줄지는 몰라도, 그것은 알곡과 가라지를 세상 끝의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한다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의 교훈과는 반대된다 (마 13:30, 38~41 참조). 곧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 (딤후 3:13, 1) 까지 이르고, 암흑의 왕국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되고, 마침내 우리 주님의 입 기운으로 모두 사르어지고 그분의 오시는 영광으로 멸망당하리라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의 가르침과는 반대된다 (살후 2:8 참조).

온 세계가 다 회개하고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통치하신다는 교리는 초대 교회에 의하여 주장된 교리가 아니었다. 그 교리는 18 세기 초엽에 이르러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것은 모든 다른 오류와 마찬가지로 그 결과가 매우 유해하였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주의 재림을 아주 먼 장래에 있을 일로 생각하게 해주고, 또한 재림이 가까움을 알려 주는 징조들에 유의하지 않도록 방해하였다. 그것은 근거 없는 자신 (自信) 과 안전감을 가지게 해주었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주님을 만나는 데 필요되는 준비를 등한히 하게 하였다. 밀러는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 (살전 4:16, 17) 라. 또한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 24:30, 27). 그분께서는 하늘의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것이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마 25:31),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 24:31).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죽은 의인들은 부활하고, 살아 있는 의인들은 변화된다. 바울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전 15:51~53) 고 말한다. 그는 또한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말한 후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전 4:16, 17).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재림하시기 전에는 그분의 백성들이 그 나라를 받을 수 없다. 구주께서는 그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마 25:31~34).

우리는 인자가 오실 때에 죽은 사람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고 살아 있는 사람들은 변화할 것이라는 사실을 위의 성경절들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그 큰 변화에 의하여 그들은 그

나라를 받을 준비가 이루어진다. 바울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고전 15:50) 고 말한다. 현 상태의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현재의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불멸 (不滅) 을 주신다.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오직 그들만이 상속자들이 될 수 있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도록 그들을 부르신다. 이상의 성경절들과 그 밖의 다른 성경절들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었던 사건들, 예컨대 세계적인 평화의 통치와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은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있을 사건이라는 것을 밀러의 마음 가운데 확신시켰다. 그뿐 아니라 시대의 모든 징조들과 세상의 형편은 말세에 관한 예언적 기록들과 일치되었다. 그는 성경만을 연구함으로써 이 세상의 현재의 형편을 그대로 지속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 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밀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또 한 가지 나의 마음에 깊은 확신을 준 것은 성경의 연대기 (年代記) 였다. …나는 과거에 이미 성취된 예언적 사건들이 모두 그 예언된 시기에 성취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홍수가 내리기까지의 120 년 (창 6:3), 홍수 직전의 7 일간과 40 일간의 강우 (창 7:4),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유리표박한 4 백년간 (창 15:13),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의 3 일간 (창 40:12~20), 바로의 7 년간 (창 41:28~54), 광야의 40 년간 (민 14:30), 3 년 반 동안의 기근 (왕상 17:1), …70 년 동안의 포로 기간 (렘 25:11), 느부갓네살 왕의 일곱 때 (단 4:13~16), 또한 유대인을 위하여 지정된 7 주일과 62 주일과 1 주일, 곧 70 주일 (단 9:24~27), 그와 같이 시간적으로 한정된 사건들이 한때는 모두 예언에 지나지 않았지마는 마침내 그 예언들이 성취되었다" (S.Bliss, Memoirs of William.Miller, pp14, 75).

그리하여 그는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연대적 기간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마침내 그는 그 연대적 기간이 곧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미리 보이신 기간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모세는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 (신 29:29) 다고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하여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암 3:7) 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인류 역사에서 일어날 가장 큰 사건이 성경 가운데 분명히 밝혀져 있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발견할 수 있다.

밀러는 말하였다. "나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교육하기에 유익하' (딤후 3:16) 며, 그것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 (벧후 1:21) 이며,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 (롬 15:4) 임을 깊이 믿을 때, 나는 성경에 있는 연대적 기사들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분인 이상 성경의 다른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신중히 상고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로써 우리에게 보여 주신 것을 깨닫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그 예언적 기간들을 그냥 지나쳐 버리고 등한히 할 권리가 내게 없다는 것을 알았다" (S.Bliss, Memoirs of William.Miller, p15).

재림의 시기를 가장 분명히 계시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예언은 다니엘서 8 장 14 절이었다.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밀러는 성경 말씀 자체가 해석해 주는 법칙에 의하여, 예언상 하루는 1 년을 상징 (象徵) 하는 것임을 알았다 (민 14:34; 겔 4:6 참조). 그는 또한 2300 일, 곧 실제적인 2300 년이 유대인의 시대를 훨씬 지나는 것이므로 그것이 그 기간의 성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밀러는 그리스도교 시대에 있어서 이 세상이 성소라는 일반적인 견해를 받아들임으로 다니엘서 8 장 14 절에 예언된 성소의 정결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지구가 불로 정결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2300 일의 정확한 기산점만 발견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쉽게 확정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는 그 큰 종말의 때, 곧 "모든 교만, 권세, 사치, 허영, 사악, 억압 등이 끝나는 때, 저주가 이 땅에서 사라지고 사망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상급을 받고 세상을 멸망시키는 자들의 멸망당하는 때가 확실히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S.Bliss, Memoirs of William.Miller, p16).

밀러는 새롭고 더욱 깊은 열성을 가지고 예언을 계속해서 연구하였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엄청나게 중요한 그 연구에 몰두되어 버렸다. 그러나 그는 다니엘서 8 장에서 2300 일의 기산점에 관한 아무런 단서 (端緖) 도 발견할 수 없었다.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그 이상 (異像) 을 알려 주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그는 다니엘에게 그 일부의 해석만을 알려주었다. 교회에 엄습할 무서운 박해가 다니엘의 계시에 나타났을 때 그는 육신의 기력을 잃어버렸다. 그가 그 이상 더 견딜 수 없게 되자 천사는 얼마 동안 그에게서 떠나갔다.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일을 앓다가 일어나서...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단 8:27).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에게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단 8:16) 고 명령하셨다. 그 사명은 완수되어야 할 것이었다. 천사는 그 명령을 따라 얼마 후에 다시 다니엘에게 와서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단 9:22, 23) 고 말하였다. 다니엘서 8 장에서 해석되지 않고 남아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점은 즉, 때에 관한 것, 곧 2300 일의 기간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천사가 그 해설을 다시 할 때 그는 때에 관한 문제에 치중하게 되었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칠십 이레로 기한을 정하였나니...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육십이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육십이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 (단 9:24~27) 다. 이때에 천사는 다니엘이 8 장에서 이해하지 못한 점, 곧 때에 관한 것,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한 말씀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목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고 명한 후에 곧 이어서 한 첫말은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칠십 이레로 기한을 정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언급한 "기한을 정하였"다는 말은 "끊어 낸다"는 말이다. 천사는 칠십 주일 (칠십 이레) 곧 490 년을 특별히 유대인을 위하여 끊어내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디서 끊어 낼 것인가? 2300 일이 다니엘 8 장에서 말한 유일의 기간이므로 70 주일을 그 기간에서 끊어내야 한다. 그러므로 70 주일은 2300 일의 일부분인 동시에, 그 두 기간은 동시에 시작하여야 한다. 그런데 천사는 70 주일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릴 때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그 영이 내린 때를 알 수만 있으면, 2300 일의 기산점 (起算點) 이 확정될 것이었다. 에스라서 7 장에 이 명령이 기록되어 있다. 완성된 형태의 조서는 기원전 457 년에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내렸다 (스 7:12~26 참조). 그러나 에스라서 6 장 14 절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좇아" 건축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세 왕은 조서를 처음으로 만들고, 다시 확인하고, 완성시킴으로 2300 년의 시작을 알려 주는 예언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게 되었다. 조서가 완성된 기원전 457 년을 칙령이 내린 때로 삼을 때 70 주일에 관한 예언의 세부적인 사건들이 모두 성취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육십이 이레가 지날 것이요." 즉, 69 주일, 곧 483 년이 지난다는 뜻이다.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효력을 발생한 때는 기원전 457 년 가을이다. 그 때로부터 483 년을 지나면 서기 (西紀) 27 년이 된다. 그 때에 이 예언이 틀림없이 성취되었다. 메시야라는 말은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다. 그 해 가을에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으셨다. 사도 베드로는 이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 (행 10:38) 다고 증거하였다. 구주께서도 친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 (눅 4:18) 셨다고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신 후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막 1:14, 15) 고 하셨다.

예언의 날 = 문자 그대로의 해 [1 년]

[34]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곧 사십 일의 하루를 일 년으로 환산하여 사십 년 동안 너희가 너희 불법들을 담당할지니 이로써 내가 약속을 깨뜨린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민수기 14:34] [6] 그것들을 채우거든 다시 네 오른쪽 옆구리로 누워 사십 일 동안 유다의 집의 불법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각 날을 일 년으로 정하였느니라. [에스겔 4:6]

기원전 457 년 - AD 1844 년 = 2300 일 / 년. [14] 그가 내게 이르되, 이천삼백 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니라. (다니엘 8:14). [24] 주께서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시에게 칠십 이레를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490 일 / 년(다니엘 9:24)

기원전 457 년 -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복구하기 위해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의 명령. [25]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일곱 이레와 육십이 이레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다니엘 9:25).

기원전 457 년 – 예루살렘 재건

서기 27 년 –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메시야로서).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물세례 받을 때 성령님으로부터 기름부음을 받았다. [27]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이레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다니엘 9:27).

서기 31 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죽음 [26] 육십이 이레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27]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이레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다니엘 9:26-27).

AD 34 년 – 스데반의 돌 - 유대인의 마감 - 복음은 세상에 주어진다 [14] 이 하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이니 그제서야 세상이 끝날 것이다. [마태복음 24:14] [46]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다음과 같이 담대하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전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말씀을 거절하고 여러분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합니다.[사도행전 13:46]

서기 70 년– 예루살렘의 멸망 [1]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성전 건물을 보 이려고 하자 [2]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해 둔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 건물이 돌 하나도 제대로 얹혀 있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마태복음 24:1-2] [15]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a]멸망케 하는 흉측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21] 세상이 창조된 이후 이제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고난이 그때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4:15, 21]

서기 1844 년– 성전정화 과 성전 정결의 의미. 예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역은 메시아의 사명과 사업의 일환이었습니다. 대속죄일에 지상의 대제사장이 지상성소의 지성소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1844 년에 그리스도는 하늘 성소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다. 하늘에서 1844 년에 시작된 심판은 조사 심판이다.

서기 1810 년/ 년 – 예수 그리스도의 사업 우리 대제사하늘의 성전에서 [14]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15]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16]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14-16).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 (단 9:27) 리라. 이 1 주일은 70 주일의 마지막 1 주일이다. 그것은 특별히 유대인에게 배정된 최후의 7 년간을 의미한다. 이 기간, 곧 서기 27 년에서 34 년까지의 기간에 그리스도 자신이, 후에는 그분의 제자들이 특별히 유대인에게 복음의 초청을 하였다. 사도들이 천국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나갈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마 10:5, 6) 고 명령하셨다.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침례를 받으신 지 3 년 반이 지난 서기 31 년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갈바리에서 드리신 그 위대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과거 4000 년간 하나님의 어린양을 표상한 희생 제도는 끝났다. 모형 (模型) 은 실체와 만났고, 모든 희생 제도와 제물에 관한 의례 (儀禮) 와 의식은 끝나게 되었다.

유대인을 위하여 배당된 70 주일, 곧 490 년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서기 34 년에 끝났다. 그 때에 유대의 산헤드린이 취한 태도, 곧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함으로 복음을 거절한 것은 국가로서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일이 되었다. 그리하여 복음은 그 택함 받은 국민에게만 제한되지 않고, 온 세계에 전파되었다. 제자들은 박해 때문에 부득이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 (행 8:4, 5) 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다. 또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이사랴에 사는 백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고넬료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 주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들인 열렬한 바울은 그 기쁜 소식을 "멀리 이방인" (행 22:21) 에게 전하라는 사명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이 예언에 열거된 사건들은 놀라울 정도로 모두 성취되었다. 그리고 70 주일은 의심할 여지없이 기원전 457 년에 시작되어 서기 34 년에 끝났다. 이 사실을 근거로 2300 일의 끝을 찾아내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2300 일에서 70 주일, 곧 490 일을 떼어내면 1810 일이 남는다. 490 일 후에 계속하여 1810 일도 성취되어야 할 것이다. 서기 34 년에다 1810 년을 가하면 1844 년이 된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8 장 14 절의 2300 일은 서기 1844 년에 마치게 된다. 그런데 이 긴 예언적 기간의 끝에 "성소가 정결하"여지리라고 하나님의 천사는 증거하였다.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성취될 것으로 믿고 있는 "성소가 정결하"여지리라는 시기가 이제 확실히 드러나게 되었다.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은 처음에 2300 일이 1844 년 봄에 끝날 것으로 믿었으나, 그 예언은 그 해 가을에 마칠 것을 가리키고 있다 (부록 27 참조). 이 점에 대한 오해는 그 해 봄에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혼란과 실망을 초래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2300 일이 1844 년에 마치고,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고 한 그 큰 사건에 대한 주장을 약화시킬 수는 없었다. 밀러는 원래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연구에 착수하였으므로 그가 지금 얻은 그 결론에 이르리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는 연구의 결과를 자기 자신의 공로로 삼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성경상 증거는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하였으므로 그는 그것을 무시해 버릴 수 없었다. 그는 2 년 동안 성경 연구에 전념하였고, 1818 년에 그는 불과 25 년 이내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라는 엄숙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밀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 기쁜 앞날을 내다볼 때 나의 마음을 충만케 한 그 즐거움과 구속받은 사람들의 기쁨에 동참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의 열렬한 소망에 대해서 나는 말할 필요가 없다. 성경은 이제 나에게 하나의 새로운 책이 되었다. 성경은 정말로 논리적으로 건전한 책이었다. 지금까지 성경의 교훈을 이해할 수 없고, 신비적이고, 분명하지 못한 것으로 여겼으나, 이제는 그 거룩한 페이지에 나타난 밝은 빛 앞에 그런 것들이 모두 나의 마음에서 사라져 버렸다. 아아! 진리는 얼마나 밝고 영광스럽게 나타났던가! 종래에 모순되고 조화되지 못한 것들이 이제 다 사라졌다. 비록 이해할 수는 있었으나 만족할 만큼 이해되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거기서 많은 빛이 나와서 나의 지금까지의 어둡던 마음을 비추어 주었으므로 마침내 나는 성경 연구에서 얻으리라고 기대하지 못했던 큰 기쁨을 느끼게 되었다" (S.Bliss, Memoirs of Wm.Miller, pp16, 77).

"이처럼 중대한 사건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그것이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엄숙한 확신을 가지게 되자 나의 마음에 큰 힘으로 일어나는 의문은 이렇게 내 마음을 움직인 분명한 증거를 본 자신이 세상에 대한 의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S.Bliss, Memoirs of Wm.Miller, p11). 그는 자기가 받은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자기의 의무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반대를 받을 것을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노라고 고백한 그들의 구주를 만날 소망을 바라보고 기뻐할 것을 확신하였다. 그러나 그의 유일한 염려는 곧 성취될 영광스러운 구원을 지나치게 기뻐한 나머지 그 진리가 제시될 때 성경 말씀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그 교리 그대로 받아들이는 무리가 많지 않을까 하는 염려였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가 실수로 다른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지나 않을까 염려하여 그것을 발표하기를 주저하였다. 그는 자기가 얻은 결론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증거들을 새삼 고려해 보고, 자기가 어렵게 생각했던 모든 문제들을 세밀하게 검토해 보았다. 그는 마침내 햇빛에 사라지는 안개처럼 모든 장애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후 5 년을 지내는 동안 그는 자기의 주장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성경에 그처럼 분명히 밝혀져 있는 진리를 확신하게 된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 주어야 하겠다는 책임감이 새로운 힘으로 그에게 밀려왔다. 그 때의 일을 그는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내가 나의 사사로운 일을 하고자 하면 언제나 '가서 세상에 그 위험을 경고해 주라'는 소리가 나의 귀에 들렸다. 그리고 다음의 성경 말씀이 항상 생각났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전하리라' (겔 33:8, 9). 만일 내가 악한 자들을 충분히 경고할 것 같으면 그들 중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될 것이며, 만일 그들이 경고를 받지 못하면 그들의 피는 반드시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고 나는 느꼈다" (S.Bliss, Memoirs of William.Miller, p12).

밀러는 기회를 얻는 대로 개인적으로 자기의 견해를 피력함과 동시에 어떤 전도자가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기를 기도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이 경고할 의무가 있다는 자각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의 마음에는 "가서 이것을 세상에 고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는 말씀이 그의 마음에 끊임없이 떠올랐다. 그는 9 년 동안 기다렸다. 그러나 무거운 짐은 여전히 그의 마음을 누르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1831 년에 처음으로 공중 앞에서 자기의 믿음의 이유를 증거하게 되었다.

마치 옛날 엘리사가 그의 소를 몰고 밭가는 일을 버리고 헌신의 두루마기를 받음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받도록 부르심을 입었던 것처럼 윌리엄 밀러도 그의 쟁기를 버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오묘한 이치를 가르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사업에 착수하였고, 청중들을 차츰차츰 그 예언적 기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끌고 갔다. 그는 사람들의 흥미가 크게 일어나는 것을 봄에 따라 모든 일에 능력과 용기를 얻었다. 밀러가 자신의 견해를 일반 사람들에게 발표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은 그의 형제들의 권고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 당시에 나이 50 세로서 공중 앞에서 강연이나 설교를 해본 경험이 없었으므로, 그 사업에 적임자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큰 부담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큰 축복을 받아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의 최초의 강연은 큰 종교적 각성을 일으켜 주었으므로 열세 가정에서 두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회개하게 되었다. 그는 즉시로 다른 곳에서 말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고, 거의 모든 곳에서 그의

활동은 하나님의 사업을 부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죄인들은 회개하고, 신자들은 더욱 깊이 헌신하고, 회의론자 (懷疑論者) 와 불신자들까지도 그리스도교와 성경의 진리를 시인하게 되었다. 그의 활동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은 "다른 설교자들에게서 감화를 받지 못하던 사람들도 밀러에 의하여 감동을 받았다" (S.Bliss, Memoirs of William.Miller, p138). 고 증언하였다. 그의 설교는 일반 대중들에게 종교적 큰 사건에 대하여 각성시켰고, 그 당시의 세속적인 것과 타락의 풍조를 방지해 주었다.

거의 모든 도시에서 그의 설교의 결과로 수십 명이, 어떤 도시에서는 수백 명이 회개하였다. 많은 곳에서 개신교의 거의 모든 교파가 그 문들을 열어 놓게 되었고, 일반적으로 여러 교회의 목사들은 그를 초청하여 설교해 달라고 하였다. 그는 초청을 받지 아니한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활동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그에게 쇄도해 오는 요구의 절반도 응할 수 없다는 것을 곧 깨달았다. 재림의 분명한 시기를 정하는 그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과 긴박성을 깨달았으며, 그 큰 사건을 위하여 준비할 필요성을 확신하였다. 어떤 큰 도시들에서는 그의 사업이 놀라운 영향을 미쳤다. 주류 판매업자들이 그들의 사업을 버리고 그 주점 (酒店) 들을 집회소로 내놓았으며, 도박장은 폐쇄되고, 무신론자, 자연신교도 (自然神敎徒), 보편 구원론자, 심지어 가장 타락한 탕아들까지 생활을 개혁하였는데, 그들 중의 어떤 사람들은 여러 해 동안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않던 자들이었다. 각 교파에서는 기도회를 열되, 각 곳에서 거의 매 시간 열었고, 사업가들도 정오에는 기도하고 찬미하기 위하여 함께 모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광적 (狂的) 흥분에서가 아니고, 매우 엄숙한 생각으로 그 일을 하였다. 그의 활동은 단지 감정적으로 흥분을 일으키기보다는 초기의 종교 개혁자들처럼 냉정한 이지 (理智) 로 판단케 하고 양심을 각성시키는 일이었다.

1833 년에 밀러는 그가 속하고 있던 침례교회로부터 설교를 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받았다. 그 교파의 많은 목사들도 그의 사업을 인정하였으므로 그는 정식으로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그의 사업은 주로 뉴잉글랜드와 중부 지방에 국한되어 있었지마는 그는 끊임없이 여행하고 설교하였다. 처음 수년 동안 그는 모든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였으며, 그 후에도 그가 초청 받은 지방까지 가는 데 필요한 만큼 충분한 비용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와 같이 그의 공중 전도는 금전상의 혜택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으므로 필경 그의 재산에 무거운 부담이 되었으며, 그 사업을 하는 동안에 그의 재산은 차츰 줄어져 갔다. 그는 대가족의 가장이었는데, 그의 가족들이 모두 검소하고 근면하였으므로, 그의 농토는 그와 그의 가족이 쓰기에 족한 소출을 내주었다.

밀러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증거를 공중 앞에 알려 주기 시작한 2 년 후에 구주께서 재림의 징조로 약속해 주신 맨 마지막 징조가 나타났다. 예수님께서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리라" (마 24:29) 고 말씀하셨다. 또한 요한은 하나님의 날을 알려주는 광경을

이상 중에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이 그 사실을 기록하였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같이 땅에 떨어지" (계 6:13) 더라. 이 예언은 1833 년 11 월 13 일의 유성 (流星) 의 큰 소나기로 분명히 성취되었다. 그것은 지금껏 기록된 것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놀라운 별의 떨어짐이었다. "이 때에 온 미국의 하늘은 몇 시간 동안 찬란한 광경을 나타냈다. 이는 미국이 생긴 이래 일찍이 없었던 하늘의 현상이었으며 그것을 목격한 일부의 사람들은 매우 감탄하였고, 또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심히 두려워 경악 (驚愕) 하였다." "그 장엄하고 찬란했던 광경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아 있다. ...오늘날까지의 어떠한 유성우 (流星雨) 도 그 때와 같이 사면팔방으로 쉴 새 없이 쏟아졌던 적은 없다. 다시 말하면 온 하늘이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 광경은 실리먼 교수가 저널이라는 잡지에 기록한 바와 같이, 북미 전역 (全域) 에서 볼 수 있었다. ...두 시부터 새벽이 되기까지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는데, 찬란한 빛이 번쩍이면서 온 하늘은 기이한 광경을 이루었다" (R.M.Devens, American Progress; or, The Great Events of the Greatest Century, ch18, pars1~5).

"실로 그 장엄한 광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것을 목격하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도 그 찬란한 모습을 깨달을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온 하늘의 모든 별이 머리 위의 어떤 한 점에 모여서 갑자기 지상을 향하여 번개 같은 속력으로 일제히 내려오는 것과 같았다. 그것도 다만 한 순간으로 그친 것이 아니고 마치 그 때를 위하여 창조된 것처럼 뒤를 이어 빠른 속력으로 무수히 쏟아져 내려왔다" (F.Reed, in the Christian Advocate and Journal, Dec13, 1833). "차라리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그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함이 더욱 적절한 말이 될 것이다" ("The Old Countryman", in Portland Evening Adver-tiser, Nov16, 1883). 1833 년 11 월 14 일자의 뉴욕 상업신보 (商業新報) 는 그 놀라운 현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나는 어떤 학자나 철학자도 어제 아침에 일어난 것과 같은 사건을 예고하거나 기록한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만일 별이 떨어진다는 말이 유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한 예언자는 이미 1800 여 년 전에 그 일이 있을 것을 정확히 예언하였다. ...다만 그런 의미에서만 그 예언은 글자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마 24:33) 고 말씀하신 재림의 마지막 징조는 성취되었다. 그 징조들이 있은 뒤에 요한은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같이 떠나가고 땅이 흔들리고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악인들이 두려워 떨면서 인자 앞에서 숨는 광경들을 보았다 (계 6:12~17 참조).

별들이 떨어지는 일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다가오는 심판을 알려 주는 것, 곧 "크고 두려운 날의 무서운 모습, 확실한 전조 (前兆), 자비로운 징조" ("The Old Countryman", in Portland Evening Advertiser, Nov16, 1883) 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예언의 성취를

주목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경고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1840 년에는 또 하나의 현저한 다른 예언이 성취되어 일반의 흥미를 일으켰다. 그 사건이 있기 2 년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하는 한 유력한 목사인 조시아 리치는 오토만 제국의 몰락을 예언한 요한계시록 9 장의 해석을 책으로 펴냈다. 그의 계산에 의하면, 그 제국은 "서기 1840 년 8 월의 어느 때"에 몰락될 것이었다. 또한 그는 그 일이 성취되기 수일 전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처음 기간 곧 150 년이 투르크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데아고제스의 즉위 전에 분명히 성취되고, 391 년과 15 일이 처음 기간이 마치는 동시에 시작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1840 년 8 월 11 일이 된다. 그때에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오토만 제국의 국위 (國威) 가 몰락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나는 그 일이 분명히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다" (Josiah Litch, in Signs of the Times, and Expositor of Prophecy, Aug 1, 1840).

과연 규명한 바와 조금도 어김이 없이 바로 그 때에 투르크는 그 사절들을 통하여 유럽의 동맹 국가들의 보호를 받기로 승인함으로 기독교 열강들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 그 사건은 예언한 그대로 정확히 성취되었다 (부록 28 참조). 이 일이 일반에게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은 밀러와 그 동역자들이 인용한 예언적 해석의 원리가 정확하다는 것을 믿게 된 동시에, 재림 운동에는 놀라운 박차가 가해졌다. 그리하여 학식이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밀러의 주장을 믿고 그의 운동에 가담하여 그의 견해를 강연과 저술로 널리 전하였다. 그리하여 1840 년에서 1844 년에 이르기까지 그 운동은 신속히 확장되었다. 윌리엄 밀러는 사색 (思索) 과 연구로 닦은 강한 정신력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는 신임 받을 만한 인물로서 누구나 그를 고결한 인격을 갖춘 덕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친절과 그리스도인 겸손을 가졌을 뿐 아니라 자제력이 풍부하였으므로, 그는 누구에게나 은근하고 원만하며 다른 이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이론을 존중히 여기고자 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감정이나 흥분에 좌우되지 않고 모든 이론과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하였다. 그의 건전한 추리력 (推理力) 과 해박한 성경 지식은 오류 (誤謬) 를 논파 (論破) 하고 거짓 것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윌리엄 밀러는 심한 반대를 당하면서 그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초기의 개혁자들과 마찬가지로, 그가 제시한 진리는 일반 교직자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입장을 성경으로 뒷받침할 수 없었으므로, 조상들의 전통과 사람의 교훈에 근거를 두었다. 그러나 재림의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인정할 유일의 증거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성경, 오직 성경"이라는 말이 그들의 구호 (口號) 였다. 반대자들은 성경을 근거로 논쟁할 수 없었으므로 조소와 모멸적 태도를 취하였다. 그들은 오직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거룩한 생애를 살고자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라고 권면하는 사람들에게

악의를 나타내는 일에 시간과 금전과 재능을 다 바쳤다. 사람들의 마음을 재림의 문제에서 다른 데로 돌리고자 하는 노력이 열렬해졌다. 마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 끝에 관한 예언을 연구하는 것이 무슨 죄나 수치스러운 일이나 되는 듯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일반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훼손시켰다. 그들의 가르침은 사람들을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정욕대로 방종하게 되었다. 그러자 악의 창시자들은 그 현상을 모두 재림 신도들의 소행이라고 비난하였다.

도처에서 총명하고 민감한 많은 청중들로 집회 장소들은 비좁았지마는 조소와 비난의 재료로 사용되는 외에는 밀러의 이름이 종교 잡지에 게재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경박하고 불경건한 무리들은 그들이 가진 종교 지도자라는 지위를 빙자하여 무례한 별명과 비열하고 모독적인 야유 (揶揄) 를 써서 밀러와 그의 사업을 여지없이 모욕하였다. 안락한 가정을 떠나 자비 (自費) 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쉴 새 없이 다니면서 수고를 무릅쓰고 심판이 절박하였다는 엄숙한 경고를 하고 있는 백발이 다 된 그 사람을 도리어 광신자, 거짓말쟁이, 대 사기한 (大詐欺漢) 이라고 비난하였다. 그에게 씌운 조소, 무고, 욕설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심지어 세상의 신문까지 분개하여 항의하였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엄숙하고 두려운 결과”에 대한 문제를 경솔하고 불경건한 말로 응대하는 것은 “다만 그 기별을 전하는 자와 주장하는 자의 감정을 거스르는 일이 될 뿐 아니라 심판의 날을 조소하고 하나님 자신을 조롱하며 그 심판정 (審判廷) 의 두려움을 경멸히 여기는 것이라” (Bliss, p183) 고 말하였다.

온갖 악을 충동하는 사단은 재림기별의 효과를 말살해 버릴 뿐 아니라 그 기별을 전하는 사람 자신을 죽이고자 하였다. 밀러는 성경의 진리를 청중들의 마음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해주었고, 그들의 죄를 견책하고, 그들의 자만을 지탄 (指彈) 하고, 분명하고 바른말을 하였으므로 반대자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 그의 기별에 대하여 교인들이 나타낸 반대가 하류 계급의 사람들을 담대하게 해주었으므로 그들은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원수들은 밀러가 집회 장소에서 나올 때 그를 죽이기로 계획을 세웠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 군중들 속에 있었고, 그 천사들 중 하나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주님의 종의 손을 붙잡아 그 분노한 폭도들 가운데서 안전하게 이끌어냈다. 그의 사업이 아직 끝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단과 그의 부하들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온갖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림운동에 대한 관심은 계속하여 증가되었다. 수십 명으로부터 수백으로, 그리고 수천 명으로 회중들은 증가되었다. 여러 교회로부터 찬동자들의 수가 크게 증가되었으나 얼마 후에는 그 개심자들에 대한 반대의 정신이 나타났으며, 마침내는 밀러의 견해를 받아들이는 자를 징계 처분하는 일이 각 교회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밀러는 마침내 각 교파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만일 자기가 제시하는 교리에 잘못이 있으면 그 오류를 성경을 근거로 지적해 달라고 호소하는 글을 발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대들 자신들이 인정하는바 표준, 곧 우리의 신앙과 관습의 유일한 표준인 하나님의 말씀이 믿으라고 명령하지 않은 어떤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 강단과 출판물을 통하여 우리가 그처럼 지독한 비난을 받아야 하고, 그대들의 교회에서 우리 재림신자들이 제명 처분을 받아야 할 무슨 행동을 우리가 하였단 말인가?" "만일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이 어디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의 오류를 지적해 달라. 우리는 이미 많은 조소를 받아 왔다. 조소로써 우리의 잘못을 깨우쳐 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의견을 고쳐 줄 수 있다. 우리의 결론은 성경으로 확증하여 신중히 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검토한 결과 이루어진 것이다" (S.Bliss, Memoirs of William.Miller pp150, 252).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세상에 보내신 경고는 이와 같은 조소와 불신으로 취급되었다. 홍수 전에 세상의 죄악 때문에 세상을 홍수로 멸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당신의 목적을 알려 주셨다.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이 멸망되지 않도록 120 년간 회개의 경고가 그들의 고막을 울렸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경고를 허황된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믿지 않았다. 그들은 죄악으로 대담하여져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를 조롱하고, 그의 애원을 멸시하고, 그를 심히 참람 (僭濫) 된 자라고 비난하였다. 어떻게 그 한 사람이 온 세계의 모든 위대한 사람들을 감히 대항하고자 하는가? 노아의 기별이 참으로 진실하다면 어찌하여 온 세계가 그것을 인정하고 믿지 아니하였는가? 수천명의 지혜에 대항하는 한 사람의 주장이여! 그들은 그 경고에 유의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방주 안에서 피난처를 찾고자 하지도 아니하였다.

조롱하는 자들은 천연계의 현상, 곧 변함없이 순환하는 계절, 일찍이 한번도 비를 내려본 일이 없는 푸른 하늘, 밤에 내린 부드러운 이슬로 청청하게 푸른 들을 가리키면서 "그는 비유를 말한 것이 아닐까"라고 부르짖었다. 그들은 의의 전도자를 광신자로 선고하고, 전보다 더욱 향락을 추구하며, 더욱 심한 죄악의 길로 걸어갔다. 그러나 그들의 불신이 그 예고된 사건이 닥치지 못하도록 방지하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오래 참으시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셨다. 그러나 그 정한 때가 되자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의 자비를 거절한 자들 위에 내렸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재림의 때에도 동일한 불신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구주께서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것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 24:39) 고 하셨다.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생활하고, 그들과 어울려서 금지된 향락에 빠지고, 세상의 사치가 교회의 사치로 바뀌어지고, 결혼 예식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모든 사람들이 오랫동안의 세속적 번영을 꿈꾸고 있는 때에 마치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임같이 그들의 밝은 전망과 거짓된 희망들이 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홍수가 있을 것을 세상에 경고하기 위하여 당신의 종을 보내셨던 것처럼 그분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사자들을 통하여 최후의 심판이

가까웠음을 알려 주셨다. 그러나 마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 의의 전도자가 전하는 경고를 냉소했던 것처럼 밀러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까지도 경고의 기별을 냉소하였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교리와 설교가 일반 교회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재림이 의인에게는 희망과 기쁨이 되지마는 악인에게는 불행과 멸망이 되기 때문이다. 이 위대한 진리는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충실한 백성들에게는 위안이 되었다. 그러나 마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에게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이 된 것처럼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백성에게도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이 된 것이다. 우리 구주께서는 친히 그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 14:3) 고 약속하셨다. 동정심이 많으신 구주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의 고독하고 슬픈 심정을 생각하여 천사들에게 명하여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당신께서 승천하신 것과 같은 모양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보증을 하게 하셨다. 제자들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그들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주목하고 있을 때,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행 1:11) 는 음성을 들었다 그 천사의 말을 듣자 제자들의 희망은 새로워졌다. 제자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눅 24:52, 53). 그들은 예수님께서 저희를 떠나가셨고, 저희들만으로 세상의 고난과 시험을 대항하여 싸우게 되었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천사의 보증을 들었기 때문에 기뻐하였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기별은 옛적에 천사들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과 같이 오늘날에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구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 되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되, 초림의 때와 같이 조롱과 멸시와 거절을 당하는 모습으로가 아니라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고자 오신다는 소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선포할 때 그 소식을 환영하지 아니할 수 없다. 구주께서 오시지 않기를 원하는 자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자들이다. 그리고 교회가 하늘로부터 온 기별에 대하여 분노와 증오심을 품는 것보다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더욱더 멀리 떠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재림의 교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비하여야 할 것을 자각하였다. 그들 중의 많은 사람은 오랫동안 세상과 그리스도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으나 이제는 그들의 입장을 분명히 표명해야 할 시기가 된 것을 느꼈다. "영원한 것이 그들에게는 전에 없이 진실한 것이 되었다. 하늘은 가까워졌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각하였다" (S.Bliss, Memoirs of Wm.Miller p146).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영적 생명이

약동함을 체험하였다. 그들은 시간이 매우 짧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그들의 동포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속히 이행하여야 할 것을 절실히 느꼈다. 그들에게는 마치 땅이 없어지고 영원한 세계가 그들의 눈앞에 전개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하여 영원한 복락과 불행이 가름되는 구원 문제가 모든 것, 곧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해서 죄인들에게뿐만 아니라 그들의 형제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날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열렬히 호소할 힘을 얻었다. 그들의 일상 생애를 통하여 나타낸 무언의 증거는 형식적이요 헌신하지 아니한 신자들에게 끊임없는 견책이 되었다. 그와 같은 일이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세상의 쾌락과 돈을 모으기 위한 그들의 열성과 세속적 공명심을 흔들어 놓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므로 재림을 믿는 신앙과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적의 (敵意) 와 반감을 더욱 격발시켰다. 예언적 기간에 관하여는 도저히 반박할 여지가 없음을 알게 된 반대자들은 예언이 인봉된 것이라고 가르침으로써 그 문제를 연구하는 것조차 못하게 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개신교는 로마교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었다. 법왕 교회가 사람들의 손에서 성경을 빼앗고 있는 한편 (부록 29 참조) 개신교는 성경의 중요한 부분, 곧 우리의 시대를 위한 특별히 중요한 부분을 깨달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목사들과 일반 신도들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들의 시대에 성취될 사건에 관하여 선지자 다니엘의 말을 지적하시면서 이를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마 24:15) 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고 하는 주장은 계시록이라는 그 책의 제호와 반대되는 주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지시하신 것이라...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 1:1~3).

선지자는 "읽는...자들이 복이 있나니"라고 말하였는데 그것은 그 말씀을 읽지 않는 자도 있을 것을 의미함이며 그런 사람들은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듣는 자들과"라고 말씀하였는데, 예언에 관하여 일체 듣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경고와 교훈에 주의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들은 여기 허락된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예언의 문제들을 멸시하고, 엄숙하게 주어진 그 표상들을 냉소하고, 그들의 생애를 개혁하지 아니하고 인자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도저히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영감의 증언에 비추어볼 때, 사람이 어찌 감히 요한계시록을 한낱 신비한 것이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야말로 계시된 신비요, 공개된 글이다. 요한계시록의 연구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니엘서의 여러 가지 예언으로 이끌리게 한다. 그러므로 이 두 책은

다 같이 세상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나타내준다.

요한에게는 장차 교회가 경험할 심오하고 흥미로운 여러 가지 장면들이 전개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치, 위험, 투쟁, 최후의 구원 등을 보았다. 그는 또한 하늘 창고에 들어가기 위하여 묶이든지, 멸망의 불에 태워지기 위하여 묶이든지 간에 세상의 추수를 위한 마지막 기별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 특히 마지막 교회에 있어서 그릇된 길에서 진리의 길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겪을 투쟁과 위험에 관한 교훈들이 그에게 보여졌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장차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무지한 가운데 묻혀 있을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무지가 그처럼 편만한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의 가르침을 연구하는 일을 일반적으로 그처럼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이야말로 암흑의 왕이 자기의 거짓이 사람들에게 폭로되지 않도록 가리우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노력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계시록을 주신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요한계시록의 연구를 반대하기 위한 투쟁과 싸움이 있을 것을 미리 보시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하셨다.

19 장 — 암흑을 뚫고 비치는 빛

각 시대를 통하여 세상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업은 그것이 개혁 사업이거나 종교 운동이거나를 막론하고 뚜렷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인류를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은 언제나 동일하다. 오늘날 행하여지고 있는 중요한 운동들은 과거의 운동에서 비교해 볼 수 있으므로 지난날에 있었던 교회의 경험은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 있어서 크게 가치 있는 교훈이 된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세상에 있는 당신의 종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사업을 이루시는 큰 운동을 하신다는 사실이 어떤 다른 진리보다 더욱 명백히 나타나 있다. 사람들은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친히 쓰시는 그분의 손에 쥐어져 있는 도구들이다.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담당해야 할 몫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처한 시대에 필요한 빛을 주셔서 당신께서 맡기신 사업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러나 아무리 하늘의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대한 구원의 경륜을 완전히 깨달았다거나 자기가 사는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완전히 인식했다고는 할 수 없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업을 통하여 이루시려는 바가 무엇인지 완전히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기별이 가져올 결실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한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욥 11:7; 사 55:8, 9, 46:9, 10).

비록 성령의 특별한 감동을 받은 선지자들까지라도 그들에게 주어진 계시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 계시의 깊은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세대를 지나가는 동안 그 가운데 있는 교훈을 받아야 할 적당한 시기에 이르러 공개될 것이었다. 사도 베드로는 복음을 통하여 밝혀 드러난 구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 (벧전 1:10~12) 다.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계시된 것들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모든 빛을 얻고자 열렬히 노력했다. 그들은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리스도의 영이...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였다.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 예언들이 그분의 종들에게 주어졌던, 신약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교훈인가!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다. 그럴지라도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아니한 후세의 사람들을 위하여 주어진 그 계시들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보라. 그리고 그들의 거룩한 열성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으면서도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을 냉대하는 후세의 사람들의 끝없는 무관심과 대조해 보라. 그 성도들의 태도는 예언을 이해한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안일을 좋아하고 세속을 사랑하는 자들의 무관심에 대한 얼마나 힘 있는 견책인가!

물론 유한한 사람의 지력 (知力) 을 가지고 무한하신 분의 계획을 이해한다든가 그분의 목적의 성취되는 과정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그토록 우둔한 것은 그들의 잘못이나 게으름 때문이다. 일반 사람들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종들까지도 사람들의 견해와 유전과 거짓 교훈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밝혀주신 큰 사건들을 부분적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구주께서 세상에 계실 당시의 제자들까지라도 그러하였다. 그들은 메시야께서 이 세상의 임금으로 오시면 이스라엘 나라가 온 세계를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일반 사람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주심께서 받으실 고난과 죽음을 예언한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막 1:15) 는 기별을 주어서 제자들을 내보내셨다. 그 기별은 다니엘서 9 장에 근거한 것이었다. 천사는 69 주일 후에 "기름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리라고 선언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원대한 희망과 즐거운 기대를 가지고 메시야의 왕국이 예루살렘에 건설되어 온 세계를 지배할 날이 오기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기별을 전파하였지만 그들 자신이 그 기별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다니엘서 9 장 25 절을 근거로 기별을 전하였지마는 그 다음절에 기록된 기름부음을 받는 자가 끊어지리라는 말씀은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은 세상에 나면서부터 그 마음이 세상 나라의 영광에 고착되어 있었으므로 예언의 자세한 내용과 그리스도의 말씀까지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유대 백성들에게 자비의 초청을 함으로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서 다윗의 보좌에 오르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을 그 때에, 주님께서는 뜻밖에도 죄인으로 체포되어 매를 맞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정죄의 선고를 받아 갈바리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그들은 목격하였다. 주님께서 무덤에서 쉬고 계시는 동안, 제자들의 믿음은 얼마나 큰 실망과 번민으로 충격을 받았던가!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의 글에 예언된 바로 그 시기에, 또한 그대로의 모양으로 오셨다. 성경의 증언은 그분의 봉사를 세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말했다. 그분께서는 구원의 기별을 전파하였으며 그분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음이러라." 그분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기별이 하늘에서 온 기별임을 목격하였다. 그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사명을 입증하였다.

제자들도 그들의 사랑하는 주님에 대하여 여전히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은 불안과 의혹에 둘려 있었다. 그들은 번민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고난과 죽으심에 관하여 미리 말씀하신 바를 기억하지 못하였다. 나사렛 예수님께서 참으로 메시야이셨더라면 그들이 그처럼 비애와 실망에 빠질 수 있었겠는가? 그와 같은 의문이 그 절망적인 안식일, 곧 구주께서 돌아가신 후 부활하시기까지 무덤속에 누워 계시는 동안, 그들의 마음을 몹시 괴롭혔다. 그러나 비록 슬픔의 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둠으로 둘러쌌을지라도 그들은 버린 바 되지 아니하였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취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굽은 데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미 7:8, 9; 시 139:12, 112:4; 사 42:16).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전한 것은 세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것이었고 거기서 말한 사건들은 그 당시에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이 그들의 기별이었다. "때가" 차게 되자, 곧 다니엘서 9 장의 69 주일이 끝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야"가 올 기약이 찼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들이 가까웠다고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건설되었다. 그 나라는 그분의 제자들이 믿고 가르쳤던 바와 같이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인 바" 되고,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 (단 7:27) 할 영원한 나라, 곧 장차 세워질 불멸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을 다 같이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다. 은혜의 왕국은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분명히 찾아볼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자비하신 중보자이심을 지적한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 4:15, 16) 고 말하였다. 은혜의 보좌는 곧 은혜의 나라를 나타낸다. 왜냐하면 보좌가 있다는 것은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에서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그것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광의 보좌란 영광의 왕국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다음과 같이 인용되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마 25:31, 32) 모으리라. 그 나라는 아직 장래에 속한 나라이다. 그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비로소 건설될 것이다.

은혜의 왕국은 사람이 타락한 이후, 범죄한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계획이 세워진 직후에 건설되었다. 그 후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허락에 의하여 존재하게 되었으므로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에 비로소 확립되었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지상생애를 시작하신 후일지라도 사람들의 고집스럽고 무정한 데 염증이 나서 갈바리의 희생을 철회할 수도 있으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저주의 잔은 그분의 손에서 떨고 있었다. 그 때에라도 그분께서는 당신의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피땀을 씻어 버리고 타락한 인류를 그들의 죄 가운데서 멸망하도록 버려둘 수도 있었다. 그분께서 만일 그렇게 하셨더라면, 타락한 인류를 구속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면서 운명하심으로 구속의 경륜을 완전히 성취하셨다. 에덴동산에서 범죄한 부부에게 허락된 구속의 약속은 이제 확증되었다. 하나님의 허락으로 오래 전부터 존재해 온 은혜의 왕국이 그때에 세워졌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죽음, 곧 제자들이 저들의 희망의 최종적 파멸로 생각했던 바로 그 사건은 도리어 저희의 희망을 영원히 확증해 주었다. 그 사건은 한편으로 그들을 비참한 실망 가운데 빠뜨렸으나 그것은 또한 그들의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최고의 사건이었다. 그들에게 비탄과 실망을 가득 안겨준 그 사건은 아담의 후손에게 희망의 문을 열어주었고,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에게 미래의 생애와 영원한 행복의 중심이 되었다.

심지어 제자들의 실망을 통하여서까지라도 무한한 자비의 목적은 성취되어 가고 있었다. 그러나 저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람의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 때까지 한 사람도 없었나이다"라고 사람들이 말한 그분의 교훈의 능력을 통하여 정복되어 가면서도 예수께 대한 그들의 사랑의 순금에는 세속적 자랑과 이기적 야심으로 된 비천한 합금이 섞이게 되었다. 그들의 주님께서 겟세마네의 죽음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시려고 하는 엄숙한 순간이었던 유월절의 다락방에서까지도 저들은 "누가 크냐" (눅 22:24) 하는 다툼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침묵과 겟세마네 동산의 고민과 심판정과 갈바리의 십자가가 그들의 목전에 절박해 있을 그 때에도 그들의 눈은 보좌와 면류관과 영광 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로 하여금 당시의 거짓 교훈을 고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참 성격을 나타내 주고 당신의 고민과 죽음을 미리 가르쳐주는 구주의 말씀에 유의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은 그들의 마음의 교만과 세속적 영화에 대한 갈망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그와 같은 잘못은 시련, 곧 가혹하기는 하나 요긴한 시련을 가져다주었으며, 그것은 그들을 바로잡기 위하여 허락된 것이었다. 비록 제자들은 그들이

전하는 기별의 의미를 오해하고, 그들의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를 전파하였으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상해 주시고 그들의 순종을 귀히 여기셨다. 그리하여 부활하신 구주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모든 나라에 전하는 일이 그들에게 위탁되었다. 그들에게 그처럼 고통스럽게 보였던 경험을 그들이 당하게 된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 사업을 위하여 미리 준비시키기 위함이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엠마오로 가고 있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 (눅 24:27) 었다. 제자들의 마음은 흥분되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불타올랐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나타나시기 전부터 이미 "거듭나"서 "산 소망이 있"었다. 그들의 이해력을 밝혀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확실한 예언" 위에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 그분께서는 당신께서 친히 말씀하신 증거에서뿐만 아니라, 표상적인 율법이 가리키는 상징들과 그림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구약의 예언들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진리가 굳게 확립되기를 원하셨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자신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서도 명철한 신앙이 필요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런 지식을 주시는 첫째 단계로서 제자들의 생각을 "모세와...선지자"들에게로 향하게 하셨다. 부활하신 구주께서 구약 성경의 가치와 중요성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였다.

다시 한 번 구주의 온유하신 얼굴을 대할 때에 그 제자들의 마음에는 과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던가! (눅 24:32 참조). 그들은 전에 없이 더욱 완전한 의미에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만"나게 되었던 것이다. 불안, 고통, 실망은 완전한 보증, 구름 한 점 없는 믿음으로 바뀌어졌다. 구주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들이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한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구주의 치욕적인 죽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 제자들의 얼굴에서 슬픔과 낭패와 실망의 표정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기쁨과 승리의 표정을 보게 되었다. 그 제자들은 그들의 앞에 있는 일을 위하여 얼마나 훌륭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가! 그들은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었으며,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의기양양하게 성취되었는지를 보게 되었다. 그러므로 무엇이 능히 그들의 믿음을 꺾어 버릴 수 있으며, 그들의 불타는 사랑을 꺼버릴 수 있겠는가? 극심한 슬픔 중에서도 그들은 "큰 안위"를 얻었고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 (히 6:18, 19) 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눈으로 보았으므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들은 말하였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롬 8:37,

38, 39).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벧전 1:25).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롬 8:34).

주님께서는 “내 백성이 영영히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욜 2:26),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 30:5) 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제자들이 그들의 구주를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그들을 위하여 상처를 입으신 그분의 머리와 손과 발들을 보았을 때, 승천하시기 전에 그분께서 그들을 베다니로 데리고 가서 축복의 손을 펴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막 16:15; 마 28:20) 고 말씀하셨을 때, 오순절 날에 허락하신 보혜사가 임하사 하늘로부터 능력을 베푸시고 믿는 사람들이 승천하신 주님의 임재를 깨닫고 마음이 감동되었을 때, 그들은 비록 그들의 갈 길이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과 같이 희생과 순교의 길인 줄 알았을지라도, 그들이 제자가 되던 당시에 희망하였던 그대로 세상에 속한 영광을 버리고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한 봉사의 대가로 그분께서 오실 때에 받을 의의 면류관을 받고자 하지 않았던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서는 저들로 당신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분의 기쁨, 곧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기쁨,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말할 수 없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신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고 말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 “천국복음”을 전파한 제자들의 경험은 그분의 재림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의 경험과 훌륭한 비교가 된다. 마치 제자들이 나가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전파했던 것처럼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길고 최종적인 예언적 기간이 바야흐로 끝나려고 한다는 것과,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과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려 한다는 것을 전파하였다. 제자들이 증거한 “때”는 그 근거를 다니엘서 9 장의 70 주일에 두었다. 그런데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이 전한 기별은 70 주일이 그 일부분에 해당하는 다니엘서 8 장 14 절의 2300 일의 끝에 관한 기별이었다. 그러므로 그 두 기별은 한 개의 큰 예언적 기간에 포함된 제각기 다른 부분들의 성취에 근거를 둔 기별들이었다. 초대의 제자들처럼 윌리엄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은 그들 자신이 전하는 그 기별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다.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교회 안에 형성된 오류들 때문에 그들은 예언 가운데 있는 중요한 점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하라고 그들에게 맡기신 기별을 전하기는 하였지만 그 의미를 오해함으로 스스로 실망을 당하게 되었다.

밀러는 다니엘서 8 장 14 절의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한 말씀을 해석할 때, 당시에 일반적으로 성소를 이 세상이라고 생각하던 견해를

채택하였다. 그러므로 성소가 정결하여진다는 말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불로써 이 세상이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므로 그는 2300 주야의 끝이 분명히 예언된 것을 볼 때에 그것은 재림의 때를 알려준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와 같이 그의 잘못은 그가 성소에 관한 일반적인 견해를 받아들인 데 기인된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제사장 직분을 표상하는 구약 시대의 상징적 의식에 있어서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연중 봉사 중의 맨 마지막 것이었다. 그것은 속죄의 사업을 완성하는 일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도말하고 제거해 버리는 일이었다. 그것은 하늘의 기록책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도말하고 제거하시는 하늘의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최후의 봉사를 예표하는 것이었다. 이 봉사는 조사하는 일, 곧 심판하는 일로써 그리스도께서 권세와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일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건이 결정된 후가 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계 22:12) 고 말씀하셨다. 또한 요한계시록 14 장 7 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라"고 한 첫째 천사의 기별은 재림 직전에 있을 이 심판을 말한 것이다.

이 경고를 전한 사람들은 올바른 기별을 바로 그 기별이 요구되는 올바른 때에 선포하였다. 그러나 마치 초기의 제자들이 다니엘서 9 장을 근거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기별을 전하기는 하였지만 바로 그 성경 가운데 메시야의 죽으심에 대한 예언이 있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도 다니엘서 8 장 14 절과 요한계시록 14 장 7 절을 근거로 기별을 전하면서도 재림 전에 하여야 할 다른 기별이 그 같은 14 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제자들이 70 주일의 끝에 건설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오해했던 것처럼 재림신자들도 2300 주야가 마칠 때에 일어날 사건을 오해하고 있었다. 이 두 경우는 다 같이 진리에 대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일반적인 오류를 그냥 받아들이거나 고집하므로 생긴 일이었다.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은 다 같이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기별을 전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는 하였으나 그들은 다 같이 자기들의 기별을 오해하므로 실망을 당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에 대한 경고를 저들이 해석하는 그대로 전파하도록 버려두심으로 당신의 자비로운 목적을 이루셨다. 그 큰 날이 임박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섭리에 의하여 그들의 심중에 있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일정한 시기의 시험을 받게 되었다. 그 기별은 교회를 시험하고 정결케 하기 위하여 필요하였다. 그들은 각자의 애정이 세상으로 향하여 있는지, 그리스도와 하늘로 향하여 있는지를 스스로 알아보게 되었다. 그들은 구주를 사랑하노라고 공언하여 왔으므로 이제 그들의 사랑을 입증해야 했다. 그들은 세속적 희망과 야망을 버리고 기쁨으로 주님의 재림을 영접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가? 그 기별은 그들의 참된 영적 상태를 분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었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회개와 겸비로써 주님을 찾도록 그들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은혜로 주신 것이었다.

그 실망은 그들이 전한 기별에 대한 오해로 생긴 것이었으나 이것이 오히려 그들의 유익이 될 것이었다. 그것은 그 경고를 받아들이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마음을 시험하는 것이 될 것이었다. 그들은 실망을 당하므로 그들의 경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버려야 할 것이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예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곳을 찾아내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운 생각으로, 혹은 일시적 충동과 자극으로 동요되었던가! 반신반의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뻐하노라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의 조소와 비난을 견디어야 하고, 시기가 지연되고 실망에 빠지는 시험을 당하게 될 때 믿음을 버리지 아니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시는 일을 즉시 깨달을 수 없으므로 성경 말씀에 의하여 명백히 증명된 진리라도 그들이 버리지 않을 것인가?

이와 같은 시험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교훈과 하나님의 영의 지시라고 믿는 바를 그대로 순종해 온 사람들의 힘을 나타낼 것이었다. 그것은 그들이 성경을 성경 자체의 해석자로 삼지 아니하고 사람의 견해나 해석을 받아들이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것임을 경험을 통하여 가르쳐 줄 것이었다. 그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생긴 혼란과 슬픔은 믿음의 자녀들을 교정시켜 줄 것이었다. 그들은 예언의 말씀을 더욱 세밀히 연구할 것이었고, 그들이 가진 믿음의 기초를 더욱 엄밀히 검토해 봄으로 비록 일반 그리스도 교회가 널리 인정하는 바일지라도 그것이 성경의 진리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니면 거부할 것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될 것이었다. 그들에게는 초기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시련의 시간이 이해할 수 없는 듯이 보였을지라도 후에 가서는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었다. 그들이 만일 "주께서 나중에 어떻게 행하신 것"을 보게 된다면, 그 시련이 저들의 잘못에 기인된 것이었을지라도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은 확실하게 성취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들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며,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라고 한 성경의 말씀을 귀중한 경험을 통하여 배우게 될 것이다.

20 장 — 종교적 대각성

재림이 가까웠다는 선포와 함께 종교적 대각성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이 요한계시록 14 장의 첫째 천사의 기별에 예언되어 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계 14:6, 7). 한 천사가 이와 같은 경고를 전달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은 참으로 그 의미가 깊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사자의 순결과 영광과 능력을 통하여 그 기별로 말미암아 성취된 사업의 고상한 특성과 그 사업에 수반될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셨다. 또 한 천사가 공중에 날며 "큰 음성으로" 경고하되,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하는 것은 이 운동의 신속성과 세계적인 범위를 분명히 알려준다.

그 기별 자체는 그 운동이 일어날 시기에 대하여 빛을 비추어준다. 그 기별은 "영원한 복음"의 일부분이며, 그것은 심판의 시작을 알려준다. 각 시대에 구원의 기별은 전파되어 왔다. 그러나 이 기별은 오직 말세에만 전해질 복음 기별의 일부분이다. 왜냐하면 심판의 때는 말세가 되어야 시작되기 때문이다. 예언은 심판의 때가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다. 특별히 다니엘서가 그 사실을 말해 준다. 그러나 말세에 관련된 예언의 일부로서 다니엘은 그것을 간수하고 "마지막 때까지" (단 12:4) 봉함하여 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 때가 이르기 전에는 그 모든 예언의 성취에 기초를 둔 심판에 관한 기별은 하나도 선포될 수 없었다. 그러나 선지자 다니엘은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고 기록하였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고 교회에 경고하였다. 그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 (살후 2:3) 라고 말하였다. 큰 배도와 장기간에 걸친 "불법의 사람"의 전성시대가 그친 다음에야 비로소 주님의 재림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런데 "불법의 비밀", 멸망의 아들, "불법한 자"라는 칭호를 가진 "불법의 사람"은 예언에 기록된 바와 같이 1260 년 동안 최상권 (最上權) 을 잡은 법왕권을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1260 년의 기간은 서기 1798 년에 마쳤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 기간 이전에 있을 수 없었다. 바울은 1798 년까지의 신약시대 전체를 그의 경고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기별은 그 이후에 선포될 것이었다. 이런 기별은 과거에 전파된 일이 전혀 없다. 또한 바울도 그런 기별을 전한 일이 없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는 형제들에게 주님의 재림이 먼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가르쳤다. 개혁자들도 그 기별을 전하지 아니하였다. 마틴 루터도 심판은 그 당시부터 약 300 년

후에 있을 일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1798 년 이후로 다니엘서가 개봉되고, 예언의 지식은 증가되었으며, 많은 사람이 심판이 가까웠다는 엄숙한 기별을 전하기 시작하였다. 16 세기의 위대한 종교 개혁처럼 재림운동도 각 그리스도교국에서 동시에 일어났다. 유럽과 아메리카에서 믿음이 독실하고 기도의 생애를 사는 사람들이 예언을 연구하고, 성경을 주의 깊게 연구하는 중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세계 각처에 있는 개별적인 그리스도교 단체들이 제각기 성경 연구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큰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1821 년, 밀러가 심판의 때를 가리키는 예언의 해석을 한 지 3 년 후에 "세계의 선교사"라고 불리는 요셉 볼프가 주님의 재림이 절박함을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볼프는 히브리인의 혈통을 받은 사람으로서 독일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유대인의 랍비였다. 그는 어려서부터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받아들였다. 그는 매우 어렸을 때에, 그의 집에 경건한 히브리 사람들이 모여서 유대 민족의 희망과 기대와 오실 메시야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자세히 이야기하는 대화들을 부지런히, 그리고 열렬한 마음으로 듣게 되었다. 어느 날 나사렛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누구인지 물었다. 그는 "매우 재간 있는 한 유대인이었는데, 자칭 메시야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유대의 법정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는 대답을 듣게 되었다. 그는 다시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가 자유를 잃은 백성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는 "슬프다, 슬프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선지자를 죽였기 때문이다"고 대답하였다. 그 말을 듣자 그 소년의 마음에는 갑자기 "아마 예수님도 한 선지자였는데 유대인들이 죄 없는 그분을 죽였나보다" (Travels and Adventures of the Rev.Joseph Wolff, vol1, p1)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 생각이 너무나 깊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 교회에 출입하는 일이 금지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교회의 주위를 배회하면서 설교를 듣고자 하였다.

그가 겨우 일곱 살이었을 때 자기의 이웃에 사는 연로한 그리스도인에게 장차 메시야가 나타나게 되면 이스라엘이 승리를 얻을 것이라고 자랑을 하였다. 그러자 그 늙은이는 친절하게 말하였다. "사랑하는 아이야, 누가 참 메시야인지 내가 일러 주마. 너희 조상들이 옛적의 선지자들에게 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님이 바로 메시야시다. …집에 돌아가서 이사야서 53 장을 읽어 보아라.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될 것이다" (Travels and Adventures of the Rev.Joseph Wolff, vol1, p1). 즉시 그에게 강한 확신이 생겼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그 성경 말씀을 읽어 보고, 그것이 너무도 정확하게 나사렛 예수님에게서 성취된 것을 보고 놀랐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말이 참말이라고 믿었다. 그는 아버지께 그 예언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주 무서운 표정으로 잠자코

있었으므로 다시는 그 문제를 거론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일은 그리스도교에 대하여 더욱더 알아보고 싶은 욕망을 일으켰을 뿐이었다.

그가 얻고자 하는 지식을 이 유대인의 가정에서는 일부러 그에게서 차단시켰다. 그러나 그는 열한 살 때에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 스스로의 힘으로 교육을 받는 한편 자기의 신앙과 평생의 사업을 택하게 되었다. 그는 한 때 친척의 집에서 지냈으나 오래지 아니하여 배교자로서 축출당하였다. 그는 주머니에 돈 한 푼 없는 고독한 신세로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살 길을 개척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각처로 돌아다니면서도 부지런히 공부를 계속하였고, 히브리어를 가르쳐서 생계를 유지하였다. 그는 한 가톨릭 교사의 감화를 받아 로마교의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어 자기의 동족을 위하여 선교사가 되고자 목적을 세웠다. 몇 년 후에 그는 그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고자 로마에 있는 프로파간다 대학으로 갔다. 거기서 그는 독자적인 사상과 솔직한 말 때문에 이단자란 비난을 받게 되었다. 그는 공공연하게 교회의 여러 가지 잘못을 공격하고,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비록 처음에는 법왕교의 고승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았으나 얼마 후에는 로마에서 퇴거당하였다. 그는 교회의 감시 아래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녔다. 마침내, 그를 로마의 속박 밑에 복종시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연해졌다. 그는 마침내 교정 불가능자라는 선고를 받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도록 방임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영국으로 건너가서 개신교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성공회 (聖公會) 에 가입하였다. 2 년간의 연구를 마친 다음 1821 년에 그는 선교 사업을 시작하였다.

볼프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초림의 위대한 진리를 받아들인 한편, 예언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권능으로 재림하실 것도 분명히 깨달았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의 동족들에게 나사렛 예수님이 바로 약속된 메시야이심을 알려 주고, 그분의 초림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희생제물로서 겸비하게 되신 것임을 지적해 주는 한편 그분께서 왕으로, 또한 구원자로 재림하실 것을 가르쳤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참된 메시야이신 나사렛 예수님, 손과 발이 찔리셨고, 사지로 끌려가는 어린양 같으셨던 그분, 슬픔에 처한 자요 질고를 아는 자이셨던 그분, 홀이 유다를 떠나가고 법을 세우는 권세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난 후에 초림하셨던 그분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천사장의 나팔과 함께 재림하실 것이다" (Joseph Wolff, Researches and Missionary Labors, p12).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서시고, 창세 후에 일단 아담이 맡았으나 잃어버린 그 통치권을 (창 1:26, 3:17) 다시 받으시게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온 땅의 왕이 되실 것이다. 피조물의 슬퍼하고 탄식하는 소리는 그치고, 찬미와 감사의 노래만이 들리게 될 것이다. ... 예수께서 하늘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살전 4:16; 고전 15:23).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첫째 부활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 때에 동물계는 그

본성이 변하고 (사 2:6~9), 예수님께 순복할 것이다 (시편 8 편). 세계적 평화가 오게 될 것이다" (Journal of the Rev178, 379). "주님께서는 세상을 다시 보시고, '심히 좋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Journal of the Rev.Joseph Wolff, p194).

볼프는 재림이 박두하였다는 사실을 믿었다. 예언적 기간에 대한 그의 해석에 의하면, 그 위대한 소원이 성취되는 날은 밀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불과 몇 년밖에 안 남았다.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라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재림의 임박성에 관하여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볼프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과연 그날과 그 때를 결코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가? 주님께서는 마치 무화과나무의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마 24:32) 것처럼 우리에게 재림의 절박함을 알려 주기 위하여 때의 징조들을 주시지 아니하셨는가?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다니엘서를 읽고 그것을 이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기간은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인가? 그리고 다니엘서에서는 '마지막 때까지...이 글을 봉함하라' (그것은 그의 시대를 가리킴) 고 하였고, 그 때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시대를 관찰하고 생각하게 하는 히브리어의 한 표현 방법) '지식이 (시대에 관한) 더하리라' (단 12:4) 고 기록되어 있지 않는가? 더욱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결코 때가 가까움을 알 수 없다는 뜻이 아니고 다만 정확한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다. 노아가 방주를 준비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재림을 준비하도록 때의 징조를 알 수 있게 하시고자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Wolff, Researches and Missionary Labour, pp104, 405).

성경에 대한 통속적인 해석방법과 잘못 해석하는 폐단에 대하여 볼프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그리스도교의 대부분은 성경의 분명한 의미에서 벗어나서 불교도들의 환영적 (幻影的) 인 체계로 돌아섰다. 불교도들은 인류의 미래의 행복이 허공에 둥둥 떠다니는 것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말을 읽으면 이방인을 이해해야 하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교회로 해석한다. 또 지상 (地上) 이라고 하면 공중 (空中) 으로 알고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면 각 전도 사업 단체의 발전으로 알고, 여호와의 집, 산에 오른다고 하면 감리교인들의 큰 총회처럼 해석한다" (Journal of the Rev. Joseph Wolff, p16). 1821 년부터 1845 년까지 24 년간 볼프는 넓은 범위에 걸쳐 여행하였다. 그는 아프리카의 이집트와 아비시니아, 아시아의 팔레스틴, 시리아, 페르샤, 보카라, 인도 등의 여러 나라를 순력 (巡歷) 하였다. 그리고 그는 북미 합중국도 방문하였는데, 지나는 길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전도하였다. 그는 1837 년 8 월에 뉴욕 시에 도착하여 그 도시에서 설교하였다. 그 후에 다시 필라델피아 시와 볼티모어 시에서 설교하고, 마지막으로 워싱턴 시에까지 갔다. 거기서 그는 말하였다. "한 의회에서 전 대통령 존 퀸시 애덤즈 씨가 제의한 동의에 의하여 내가 국회 의사당에서 강연을 하도록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그리하여 나는 어느 토요일에 전체 의원과 버지니아의 감독과 성직자들과 워싱턴 시민들이 참석한 데서 강연하는 영광을 누렸다. 그와 같은 영광은 뉴저지 주와 펜실베이니아 주에서도 나에게 주어졌는데, 거기서 나는 아시아에서 한 나의 연구에 대하여 이야기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 통치에 대하여 말하였다" (Journal of the Rev.Joseph Wolff, pp198, 399). 볼프 박사는 유럽의 어떤 권위의 보호도 받지 않고 많은 고난과 온갖 위험을 당하면서 대부분의 야만 나라들을 두루 다녔다. 그는 매를 맞기도 하고, 주리기도 하고, 노예로 팔리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는 세 번이나 사형 선고를 받았다. 도적들에게 포위당한 일도 있었고, 기갈로 거의 죽을 뻔한 일도 있었다. 또 한 번은 몸에 지니고 있던 것을 모두 빼앗기고, 걸어서 산을 넘어 수백 마일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얼굴에 눈을 맞으면서 얼음으로 덮인 땅을 맨발로 걸었기 때문에 발이 감각을 잃게 된 일도 있었다.

야만인과 호전적인 종족들에게 무장을 하지 않고 가는 것이 위험하다는 경고를 받게 되자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무장하였다. 기도와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신뢰로써 무장하였다." 그는 "나는 또한 마음에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손에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 (W.H.D.Adams, In Perils Oft, p192) 고 말하였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히브리어와 영어 성경을 가지고 갔다. 그 후에 그가 여행한 한 가지 경험에 대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경을 펴 들었는데, 책 속에 힘이 있어서 그것이 나를 붙들어 주는 것 같았다" (W.H.D.Adams, In Perils Oft, p101).

이와 같이 그는 심판의 기별이 사람이 거주하는 지구상의 대부분에 전파되기까지 그의 활동을 중지하지 않았다. 유대인, 터키인 배화교도 (拜火敎徒), 힌두교도, 그 밖의 여러 종족과 민족 사이에서 그는 그 지방들의 언어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오래지 아니하여 메시야의 왕국이 건설될 것을 전파하였다. 그는 보카라를 여행하던 중에 어떤 유벽 (幽僻) 한 지방에 사는 한 부락민이 재림의 교리를 믿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예멘에 있는 아라비아 인들은 세에라 (Seera) 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께서 영광중에 통치하실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1840 년에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기하고 있었다" (Journal of the Rev. Joseph Wolff, p177).

"나는 예멘에서 레갑의 후손들과 함께 6 일간을 지냈다. 그들은 술도 마시지 않고 포도원도 재배하지 않고 곡식도 심지 않았다. 그들은 천막에 살며, 레갑의 아들 선한 여호나답을 기억한다. 나는 또한 이 족속 중에 메시야께서 속히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시기를 레갑의 자손과 함께 고대하고 있는 단 족속인 이스라엘인의 후손이 있음을 보았다" (Journal of the Rev.Joseph Wolff, p177). 어떤 다른 선교사는 그와 비슷한 신앙을 가진 자가 타타르 (Tatary) 지방에도 있음을 발견하였다. 타타르의 한 승려는 그 선교사에게 그리스도께서 어느 때쯤 재림하실 것이냐고

질문하였다. 그러자 그 선교사는 그 일에 대하여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다고 말하였더니 그 승려는 성경을 가르치노라고 공언하는 사람이 그 사건을 모른다는 것에 대하여 크게 놀라움을 나타냈다. 그리고 그는 예언을 근거로 그리스도께서 1844 년경에 재림하시리라는 자신의 소신을 말하였다.

일찍이 영국에서는 1826 년에 재림기별이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이곳의 운동은 미국과 같이 그렇게 분명한 형태를 취하지는 않았다. 재림의 정확한 시일은 일반적으로 그처럼 가르쳐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미구에 임하신다는 큰 진리가 널리 전파되었다. 그 진리는 다만 비국교도 (非國教徒) 사이에서만 전파된 것이 아니었다. 영국의 저술가 무란트 브로크는 약 700 명의 영국 국교회 성직자들도 이 "천국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연합하였다고 말하였다. 또한 1844 년을 재림의 때라고 알려 주는 기별도 대영 제국에서 전파되었다. 미국에서 건너온 재림에 대한 간행물들이 널리 배포되었으며, 영국에서도 많은 서적과 잡지들을 재발행하였다. 그리고 1842 년에는 미국에서 재림 신앙을 받아들인 로버트 윈터라는 영국인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재림을 전파하였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업에 연합하였으며, 심판에 관한 기별이 영국 각처에 전파되었다. 아직 미개한 채 로마교의 정략 (政略) 에 사로잡혀 있던 남미주에도 한 스페인인이며 예수회 회원인 라쿤자라는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경고를 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사명감을 느꼈으나 로마교의 견책이 두려워서 자기의 이름을 랍비벤 에스라라고 고쳐서 마치 개종한 유대인인 것처럼 꾸며 가지고 자기의 견해를 출판하였다. 라쿤자는 18 세기의 사람이었으나 그의 저서가 런던으로 가서 영어로 번역되기는 1825 년경의 일이었다. 이 책의 발행은 영국에 있어서 이미 재림문제에 눈을 뜬 사람들의 관심을 깊게 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하였다.

독일에서는 18 세기에 루터 교회의 한 목사요 성경학자요 평론가로 유명한 벵겔이라는 사람이 이 교리를 가르쳤다. 벵겔은 학업을 마치고 신학 연구를 시작하였는데, 그가 받은 초기의 교육과 훈련은 그의 마음에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엄숙한 생각과 종교적 기질을 깊게 하고 강하게 하였다. 그도 역시 고금을 막론하고 사고력 (思考力) 이 많은 다른 청년들처럼 종교적 의문과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 번민하였는데, 그는 감개무량한 가운데 "자기의 가련한 마음을 꿰뚫고 그 젊은 감정을 못 견디게 만들었던 허다한 화살들에 대하여 말하였다." 비텐베르크의 종교 법원 (宗教法院) 의 일원이 되자 그는 종교 자유를 부르짖었다. "그는 교회의 권리와 특권을 주장하는 한편, 양심을 위하여 교회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누릴 온갖 자유를 위하는 옹호자가 되었다" (Encyclo-pedia Britannica, 9th ed., art."Bengel"). 그와 같은 방침에서 나온 훌륭한 결과가 오늘날에도 그의 고향에 남아 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진리가 벵겔의 마음에 확신을 준 것은 그가 강림절 (降臨節) 의 일요일에 사용할 설교의 준비를 위하여 요한계시록 21 장을 연구하던 때이었다. 그는 이때에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을 과거 어느 때보다 잘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그 예언에 나타난 광경이 너무도 중대하고 영광스럽다는 생각에 압도되어 한동안 그 문제에 대한 명상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게 되자 그 생각은 다시 생생하게, 또한 능력 있게 그에게 나타났다. 그때부터 그는 예언서, 특히 요한계시록의 연구에 몰두하였는데, 오래지 아니하여 그 예언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라고 확정한 연대는 그 후에 밀러가 주장한 연대와 비교하면 매우 근소한 차이밖에 없었다. 벵겔의 저서는 그리스도교국에 널리 전하여졌다. 예언에 관한 그의 견해는 그의 고향인 비텐베르크에서 일반적으로 잘 받아들여졌으며, 또한 독일의 다른 지방에도 전해졌다. 그리하여 그 운동은 그가 죽은 후에도 계속되었는데, 재림기별은 독일에서도 다른 나라들과 같은 시기에 전파되었다. 또한 초기의 신자들 중의 몇 사람이 러시아로 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이민단을 조직하였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도 그 나라의 독일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앙을 존속시키고 있다.

빛은 프랑스와 스위스에도 비추어졌다. 일찍이 파렐과 칼빈이 종교개혁의 진리를 선포했던 제네바에서 가우센이 재림 기별을 전하였다. 학생시절에 가우센은 18 세기 말엽부터 19 세기 초엽에 이르기까지 온 유럽을 휩쓸고 있던 합리주의 사상 (合理主義思想) 과 접촉한 적이 있으며, 그가 직접 전도에 종사하게 될 때에 그는 아직 참된 신앙을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회의론 (懷疑論) 의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롤린이 저술한 "고대 역사"를 읽은 후, 그는 다니엘서 2 장의 말씀을 주목하게 되었고, 그 사가 (史家) 가 기록한 그대로 성경의 예언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히 성취된 것을 보고 감탄하였다. 실로 그것이 후년에 그가 위험 중에 처할 때 굳센 닻의 역할을 해주었고,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확신을 주었다. 드디어 그는 합리주의 사상에 만족할 수 없게 되었고, 성경을 연구함으로 더욱 분명한 빛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결국 적극적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예언을 연구하는 중에 주님의 재림이 절박하였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 위대한 진리의 엄숙하고 중대함을 절실히 느낀 그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열망하였다. 그러나 당시에 다니엘의 예언은 오묘한 것이므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기 때문에 그의 사업은 큰 장애를 만났다. 그리하여 그는 일찍이 파렐이 제네바에서 전도할 때 사용한 방법, 곧 먼저 어린이들에게 전도하여 그들을 통하여 부모들에게 관심을 끌게 하는 방법을 쓰기로 결심하였다.

훗날에 그는 당시에 사용했던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다 아는 방법으로 진리를 전하고자 작정하고 아이들에게 진리를 말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중요성이 작기

때문에서가 아니고 오히려 그 진리의 가치가 컸기 때문이었음을 이해하기 바란다. 나는 나의 말을 들어주기를 희망하였지마는 내가 처음부터 장성한 사람들을 상대로 말하지 아니한 것은 그들이 들어주지 아니할까 염려한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아주 어린아이들에게 가기로 결심하였다. 먼저 아이들을 청중으로 모으기로 하였고, 그 청중의 수효가 많아지고 또 그들이 나의 말을 듣고 기뻐하고 흥미 있게 문제를 이해하고 설명하기까지 되면, 나는 미구에 그 다음 단계의 활동 분야가 전개될 것을 확신하였다. 그 다음에는 어른들이 참석하여 연구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렇게만 되면 이 일은 성공하게 된다" (L.Gaussen, Daniel the Prophet, vol1, Preface). 그 활동은 성공하였다. 그가 아이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어른들도 들으러 왔다. 그의 교회의 좌석들은 주의 깊게 경청하는 청중들로 만원이 되었다. 그 청중 가운데는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학식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제네바를 찾아온 나그네들과 외국 사람들도 있었으므로 그들이 들은 기별은 다른 지방으로 전해졌다. 이와 같은 성공으로 용기를 얻은 가우센은 프랑스어를 말하는 교회들에게 예언서의 연구를 장려할 목적으로 그가 가르친 내용을 출판하였다. 아이들에게 들려준 교훈을 출판한 이유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구실로 이런 종류의 책들을 흔히 등한히 여기는 어른들에게 '아이들도 이해하는 것을 어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계속하여 말하였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신자들에게 예언의 지식을 가르쳐 주려고 크게 열망한다." "오늘날 예언의 연구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없다." "그것으로 우리는 절박한 환난을 위하여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다."

가우센은 프랑스어를 말하는 전도자 중 가장 유명하고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으나 얼마 후에 그는 한갓 합리주의 (合理主義) 의 교본에 불과하고 적극적 신앙이 거의 결여되어 있는 교회의 문답서를 사용하지 않고 성경을 가지고 청년들을 가르쳤다는 죄목으로 교역직에서 면직되었다. 그 후에 그는 신학교의 교사가 되었는데, 일요일에는 전도자로서 활동을 계속하여 아이들을 상대로 성경을 가르쳤다. 그가 저술한 예언에 관한 서적은 사람들의 마음에 많은 흥미를 일으켰다. 그는 교수의 위치에서 또는 인쇄물을 통하여, 혹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교사로서 여러 해 동안 계속적으로 넓은 범위에 걸쳐 큰 감화를 끼쳤다. 동시에 그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알려주는 예언의 연구에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재림기별은 스칸디나비아에도 전파되어 큰 흥미를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은 경박한 상태에서 각성하여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였다. 그러나 국교회 (國教會) 의 성직자들은 이 운동을 반대하였다. 그들의 영향으로 기별을 전하던 몇 사람들이 투옥당하였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재림기별을 전하던 사람들이 침묵하게 된 여러 곳에서 어린이들을 통하여 기적적으로 기별을 전하게 하셨다. 그들은 미성년자이므로 국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말할 수 있었다.

그 운동은 주로 하층 계급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진척되었는데 경고의 기별을 듣기 위하여 사람들이 모인 장소는 대개 노동자의 비천한 가정들이었다. 그리고 그 어린이 전도자들도 주로 가난한 집안의 자녀들이었다. 그들 가운데는 6 세 내지 8 세의 어린이들도 있었다. 그들은 생활을 통하여 그들이 구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순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였는데,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나타내는 지혜와 재능에 있어서는 같은 나이의 다른 아이들과 별다름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일단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이상의 힘이 그들을 감동시키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났다. 그 음성과 태도가 바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라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심판의 경고를 할 때에는 엄숙한 능력으로 하였다. 또한 그들은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부도덕과 범죄를 정죄할 뿐 아니라, 세속적인 것과 배도한 일을 꾸짖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에서 신속히 피하도록 준비하라고 청중들에게 엄숙히 경고하였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떨었다.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심령에 말씀하셨다.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깊은 흥미를 가지고 성경연구를 다시 하게 되었고, 방탕하고 부절제한 사람들이 생활을 개혁하였다. 또한 다른 사람들은 부정직한 행동을 고치는 한편 너무나 뚜렷한 업적들이 생기게 됨으로 국교회의 성직자일지라도 어찌할 수 없이 이 운동에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다는 것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 구주의 재림기별을 스칸디나비아 여러 나라에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의 소리가 잠잠하게 되자, 당신의 사업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어린아이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일하게 하셨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당신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성을 올리는 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셨을 때 질투심이 많은 바리새인들은 그분에게 그들을 잠잠하게 하라고 요구하였다.

그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이 예언의 성취이므로 만일 그들이 잠잠할 것 같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고 대답하셨다. 백성들은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위협에 눌려서 예루살렘의 성문에 이르자 그들이 즐겁게 외치던 소리를 그쳤다. 그 때에 그 성전 뜰에 있던 어린아이들이 바로 어른들이 멈추었던 그 노래를 부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호산나" (마 21:8~10) 라고 부르짖었다. 그때에 바리새인들은 매우 노하여 예수님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라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고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초림 시에 어린아이들을 통하여 일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재림의 기별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어린아이들을 통하여 일하셨다. 구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기별이 모든 나라와 지방과 백성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

윌리엄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에게 미국에서 경고의 기별을 전하도록 사명이 주어졌다. 그리하여 그 나라는 위대한 재림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여기에서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예언이 가장 직접적으로 성취되었다.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의 저서는 널리 먼 지방에까지 전해졌다. 온 세계의 어느 곳이나 선교사들이 나간 곳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였다는 기쁜 소식이 전하여졌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라는 영원한 복음의 기별은 멀리, 그리고 널리 전파되었다. 1844 년 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으로 지적해 주는 듯이 보였던 예언의 증거는 백성들의 마음에 깊은 감명을 주었다. 그 기별은 이 주 (州) 에서 저 주로 전파됨에 따라 어디서나 큰 흥미를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은 그 예언적 기간에 대한 논증 (論證) 이 정확함을 확신하여 자기들의 교만한 의견들을 버리고 기꺼이 그 진리를 받아들였다. 어떤 목사들은 그들의 종파적 견해와 감정을 버리고, 봉급도 교회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전파하는 일에 연합하였다. 그러나 성직자들 중에서 기별을 받은 사람은 비교적 소수였으므로 기별을 전하는 일은 주로 평신도들에게 맡겨졌다. 농부들은 그들의 농장을, 직공은 그들의 도구들을, 상인은 그들의 상품을,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직무를 버리고 이 일에 가담하였다. 그러나 성취되어야 할 일의 분량에 비하면, 일꾼의 수효는 너무 적었다. 불경건한 교회와 죄악 중에서 자고 있는 이 세상 형편은 참된 파수꾼의 직분을 행하는 사람들의 짐을 무겁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을 회개시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참았다. 사단의 반대를 받을지라도 그 사업은 꾸준히 앞으로 나아갔고, 무수한 사람들이 재림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도처에서 엄숙한 증거의 소리가 들렸고, 죄인들을 경고하고, 세상 사람들과 교인들에게 다 같이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는 경고가 주어졌다. 전도자들은 그리스도의 선구자 (先驅者) 침례 요한처럼 나무뿌리에 도끼를 놓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권고하였다. 그들의 감동적인 호소는 일반 강단에서 전해지는 평화와 안전을 보증하는 설교와는 현저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리하여 복음을 전한 곳에서는 어디서나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 단순하고 직접적인 성경 말씀의 증언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졌고, 도저히 항거할 수 없는 확신을 가져다주었다. 신앙인이라고 공언하던 사람들이 거짓된 안일 상태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타락, 속화 (俗化), 불신, 자존심, 이기심들을 깨달았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다. 그들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세상에 두었던 애정을 하늘에 두게 되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으며, 그들은 부드럽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기별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였다.

죄인들은 울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라고 질문하였다. 부정직한 생애를 하여 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입힌 손해를 보상하고자 열망하였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였다. 부모의 마음은 그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은 그 부모에게로 돌아갔다. 자존심과 장벽은 없어졌다.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였고, 가족들은 모두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따금 가장 열렬하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다. 어디서나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탄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확증을 얻기 위하여, 또한 그들의 친척과 이웃 사람들을 회개시키고자 밤을 새우면서 기도의 씨름을 하였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재림신도의 회집에 모여 왔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여러 가지 동기에서 각기 재림에 대한 교리를 듣고자 갈망하였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그들의 신앙의 이유를 설명하는 동안 반대의 정신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셨다. 때때로 사용되는 도구는 연약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의 진리에 권능을 더하셨다. 그런 집회에서는 천사들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으며, 신자들이 날마다 많이 증가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속히 재림하실 것에 대한 증거가 반복 설명될 때에 많은 군중들은 숨소리를 죽이고 그 엄숙한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하늘과 땅이 가까워진 것처럼 느껴졌다. 하나님의 권능을 청년과 중년과 노년들이 모두 느끼게 되었다. 사람들은 입으로 찬송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그 기쁜 소리는 조용한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그런 회집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그 감명 깊은 광경을 영원히 잊을 수 없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분명한 날짜를 선포하게 되자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들로부터 가장 무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에 이르기까지 각 계층의 많은 사람들의 큰 반대를 불러일으켰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좇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벧후 3:3, 4) 고 한 예언의 말씀이 여기에서 성취되었다. 구주를 사랑하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재림의 교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일정한 날을 정하는 일을 반대할 뿐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아셨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의로써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듣고 싫어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불충실한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심사에 통과될 수 없을 것을 알므로 주님을 만나기를 두려워한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초림 시의 유대인들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명백한 증언들을 듣지 아니할 뿐 아니라, 도리어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을 조소하였다. 사단과 그의 사자들은 기뻐 날뛰면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소위 그리스도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분의 나타나심을 원하지도 아니한다고 조롱하였다.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는 말씀은 재림신앙을 거절하는 자들이 가장 흔히 제기한 논증이었다. 그 성경절은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 24:36) 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성경절을 명백하고 조리 있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고 이를 그릇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반대자들임이 분명히 나타났다. 그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마지막으로 작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잊을 수 없는 담화를 나누실 때에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 24:3) 라고 물었다. 그 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의 징조를 말씀하시고,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마 24:33) 고 하셨다. 구주께서 하신 한 가지 말씀이 다른 말씀을 없이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비록 그분께서 오시는 날과 시를 아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날과 시가 가까이 이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가르침과 요구를 받고 있다.

더욱이 우리가 그분의 경고를 멸시하고 그분의 재림이 가까움을 알기를 거절하거나 게을리하게 되면 홍수가 다가오는 것에 무관심했던 노아 당시의 사람들처럼 그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는 사실도 배웠다. 또한 그같은 장 (章) 에 충성된 종과 충성되지 않은 종을 대조하여 말씀하시고, 심중에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한 종에게 파멸의 선고를 내린 비유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오심을 대망하고 깨어 있는 자와 그 일을 거부하는 자를 구별하여 각각 어떻게 갚아 주실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마 24:42, 46)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계 3:3) 고 말씀하신다.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갑자기 맞이할 부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앎이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는 다시 구주의 경고에 유의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살전 5:2~5) 라고 말하였다. 성경 말씀 가운데 사람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움에 대하여 무지해도 좋다는 보증이 조금도 없다는 사실이 그와 같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진리를 부인할 구실만을 찾고자 하는 자들은 그와 같은 설명에 귀를 막고 있다. 그리하여 대담한 조롱자들은 물론이요 심지어 그리스도교의 성직에 있는 자들까지도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말에 뇌동 (雷同) 하게 되었다. 백성들이 각성하여 구원의 길을 찾기 시작하자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과 진리의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함으로 그들의 공포감을

가라앉히고자 하였다. 충실하지 않은 파수꾼들은 대기만자 사단의 사업에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평안하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때에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부르짖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시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싫어하고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막았다. 그들의 피는 마침내 그들의 손에서 찾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겸손하고 헌신적인 사람들이 먼저 기별을 받았다. 성경을 스스로 연구한 사람들은 예언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가 성경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 어디서나 일반 성직자들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곳에서는, 그리고 어디에서나 성경 말씀을 스스로의 힘으로 연구한 곳에서는 재림의 교리가 하나님의 권위 위에 세워진 교리임을 성경절들을 비교 검토함으로 알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 없는 형제들에게 박해를 받았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의 지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들의 신앙을 말하지 않은 자도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진리를 숨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고 고백한 이유만으로 교회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적지 아니하였다. 자기의 신앙을 위하여 시련을 받는 사람들에게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사 66:5) 고 한 선지자의 말씀은 매우 귀중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경고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었다. 천사들은 그 기별이 모든 교회로부터 일반적으로 거절을 당할 때에 슬픈 마음으로 물러갔다. 그러나 재림의 진리를 아직 맛보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남편, 아내, 부모, 혹은 자녀들에게 미혹되어 재림신도들의 가르침, 소위 이단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도 벌써 죄를 범하는 일인 것처럼 믿게 되었다. 천사들은 그런 사람들을 성실하게 주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또 다른 빛이 나와서 그들을 비추일 것이었기 때문이다.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소망으로 구주의 재림을 기다렸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것으로 기대했던 그 시간은 눈앞에 박두하였다. 그들은 매우 엄숙하게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간격 없는 교통을 하면서 그들 앞에 놓인 광명한 미래로 마음이 평안하였다.

그 희망과 신뢰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당시의 그 귀중한 기다림의 시간을 도무지 잊어버릴 수 없었다. 그날을 몇 주일 앞두고 그들은 대부분 세속적인 사업을 그쳤다. 진실한 신자들은 마치 죽는 사람이 임종 시에 몇 시간 동안 세상 사물을 초월하여 명상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마음속의 생각과 감정을 살펴보았다. 승천 예복은 전혀 만들지 않았다 (부록 30 참조). 그러나 구주를 영접할 준비가 되었다는 내적 증거의 필요성, 곧 그들의 심령의 순결을 나타내는 흰옷, 그리스도의 속죄하시는 피로 죄에서 깨끗하게 된 품성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지금도 그 때와 같이 스스로를 살피고, 열렬하고, 확고한 신앙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만일 그들이 오늘날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탄원한다면 그들은 지금 그들이 가진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한 경험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오늘날에는 기도하는 일이 너무도 적고, 충심으로 죄를 깨닫는 일이 너무 적다. 산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구주께서 풍성히 주시는 은혜를 부족하게 받고 만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시기로 계획하셨다. 주님의 손이 예언적 기간의 계산에서 생긴 착오를 덮어 주셨다. 그리하여 재림신도들은 물론이요 가장 학식이 많은 반대파의 학자들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 학자들은 말하였다. "그대들의 예언적 기간에 대한 계산은 옳다. 무슨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밀러가 예언한 일과 같은 것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세상의 회개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니다" (부록 31 참조). 기대했던 시간은 지나갔으나 그리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진실한 신앙과 사랑으로 구주를 바라보던 사람들은 쓰디쓴 실망을 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소위 재림을 기다리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하고 계셨다. 그들 중의 많은 사람은 공포 이외의 아무 다른 동기가 없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은 그들 자신의 마음에나 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기대했던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되자 그들은 실망하지 않노라고 말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리라고 믿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참 신자들의 슬픔을 조롱하는 첫째 무리에 속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과 모든 천군들은 시련을 당하였으나 충실한 자들, 실망을 당하여 고민하는 자들을 사랑과 동정심을 가지고 주목하셨다. 만일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리우고 있는 휘장을 걷어 버릴 수 있었다면 천사들이 굳게 선 이 무리들에게 가까이 가서 사단의 화살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광경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21 장 — 경고의 거절

윌리엄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은 재림 교리를 전파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각성시키는 그 한 가지 목적을 향하여 일해 왔다. 그들은 신자들에게 교회의 참된 희망과 깊은 그리스도인 경험의 필요성을 자각시켜 주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또한 아직까지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즉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고자 힘썼다.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종교 단체나 종파에 개종시키려고 시도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든 단체와 종파들 사이에서 그들의 조직이나 규율에 저촉됨이 없이 일하였다."

밀러는 말하였다. "나는 기성 교파들로부터 분리된 별개의 교파를 만들거나 어떤 교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교파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욕망이나 생각은 전혀 없었다. 나는 모든 교파에게 유익을 주고자 생각하였다. 나는 그리스도인 누구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즐거워할 것이며 비록 나처럼 깨닫지 못하였을지라도 그들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기뻐하리라고 생각하고 어떤 별개의 회중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나의 목적은 오로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장차 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나의 동족들에게 하나님을 편안하게 뵈올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데 있었다. 그리하여 나의 활동으로 회개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러 기성 교회에 속하였다" (S.Bliss, Memoirs of Wm.Miller, p128).

그의 사업이 교회들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얼마 동안은 좋은 대접을 받았다. 그러나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재림교리를 배척하기로 결의하고 그 문제에 관하여 일체의 토의를 하지 못하도록 한 후부터 그들은 강단에서 그 문제를 반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교인들이 재림을 전하는 집회에 참석하는 일까지도 금하고, 심지어 교회의 기도회 같은 데서 그들의 소망을 말하는 일까지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교인들은 그들이 큰 시련과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교회를 사랑하였고, 거기서 떠나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압박을 당하고, 예언을 연구하는 그들의 권리가 박탈당한 것을 깨닫게 되자, 그들은 그 사람들의 말에 복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여야 할 것을 느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막으려는 자들을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구성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본래 속해 있던 교회에서 떠나는 일을 정당하다고 생각하였다. 1844 년 여름에 5 만 명의 교인들이 여러 교회에서 나왔다.

이 무렵에 전 미국 안에 있는 대다수의 교회들에서 하나의 뚜렷한 변화가 생겼다. 이미 여러 해에 걸쳐 세속적 습관과 행동을 따르는 자들의 수가 점진적이면서도 꾸준하게 증가되는

한편 참된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의 수는 감소되어 가고 있었다. 그해에 와서 그 나라의 거의 모든 교회에서 갑자기 뚜렷한 타락상이 나타났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힐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나 그 사실 자체만은 일반적으로 주목의 대상이 되어 강단과 인쇄물을 통하여 널리 논의되었다.

필라델피아의 어떤 장로교회의 회집에서 유명한 성경 주해서의 저자요 그 도시 굴지의 교회의 목사인 반즈는 말하였다. "그는 과거 20 년 동안에 목회 사업에 종사하면서 지금까지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얼마의 새 교인을 교회에 받아들이지 못했던 때는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아무런 각성도 회개도 볼 수 없고, 신자들에게서 어떤 은혜의 자라남도 나타나지 않고, 그들의 구원에 대하여 연구하거나 이야기하러 오는 사람도 없다. 사업의 증가와 상공업에 대한 장래가 밝아질수록 세속적 정신도 증가되어 간다. 이와 같은 경향은 각 교파에 있어서 동일하다" (Congregational Journal, May 23, 1844).

같은 해 2 월에 오벌린 대학의 피니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개신교회가 일반적으로 이 시대의 모든 도덕적 개혁에 전혀 냉담하고 있든지 적대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다소의 예외는 있으나 이것이 일반적 경향임에는 틀림없다. 우리는 또한 다른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아는데, 그것은 교회에서 신앙 부흥의 감화가 거의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영적 무관심은 거의 모든 교회에 편만하고 두려울 만큼 심각하므로 전국의 종교 잡지는 그 사실을 잘 증거하고 있다. …교인들은 유행을 좇는 일에 열중한 나머지 춤과 연회로 쾌락을 즐기는 집회들 같은 데서 불경건한 자들과 손을 잡는 일이 너무도 보편화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마음 아픈 문제를 길게 늘어놓을 필요는 없다. 교회들이 개탄할 만큼 타락하고 있는 사실을 보여 주는 증거들은 일일이 들어 말할 수 없으리 만큼 우리 앞에 쌓여 있다. 그들은 주님께로부터 매우 멀리 떠나 있고, 주님께서도 저들을 떠나 계신다."

릴리져스 텔리스코프 (Religious Telescope) 잡지에서 한 저자는 증언하였다. "우리는 종교가 현재와 같이 일반적으로 타락한 일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다. 교회는 마땅히 각성하여 이와 같이 된 원인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적어도 시온을 사랑하는 자들은 현 상태를 비운으로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참으로 회개하는 자가 얼마나 적으며 죄인이 얼마나 완악하고 고집스러운지 생각할 때에 부지중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라고 부르짖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태는 교회 자체에 어떤 원인이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일이다. 국가와 교회와 개인에게 있는 영적 암흑은 하나님 편에서 은혜의 근원을 철회하심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 편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빛을 등한히 하거나 거절함으로 생기는 일이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 뚜렷한 실례는 그리스도 당시의 유대인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세속적 사물에 열중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잊어버림으로 그들의 이해력이 둔하여지고 그들의 마음이 세속적이요

육욕적으로 바뀌어졌다. 그리하여 그들은 메시야의 초림에 대하여 무지하여지고, 교만과 불신으로 구주를 거절하였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축복을 알고, 거기에 참여하는 특권에서 그들을 제외시키지 않으셨다. 그러나 진리를 거절한 자들은 하늘의 선물을 받고자 하는 모든 욕망을 잃어버렸다. 그들은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기를 그들에게 있는 광명이 흑암으로 변하여질 때까지 하였으니 그 흑암의 상태가 얼마나 심하였을까!

사람이 종교의 생명인 경건한 정신은 없이 종교의 외적 형태만 갖는 것은 사단의 계책에 부합된다. 복음을 거절한 후에도 유대인들은 옛적부터 내려오는 의식들을 계속적으로 고수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였고, 그들의 민족적 특성을 엄격히 보존하여 왔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미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니엘의 예언이 명백하게 메시야의 오실 시기를 지적하였고 그분의 죽으심을 매우 솔직하게 예언하였으므로 그들은 그 예언을 감히 연구하지 못하였고, 마침내 랍비들은 메시야의 때를 계산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저주를 선언하였다. 이리하여 눈멀고 완고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은혜로운 선물을 무관심하게 대하고, 복음의 축복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늘에서 오는 빛을 거절하는 일의 위험성에 대한 엄숙하고 두려운 경고들에 유의하지 아니한 채 1800 년의 세월을 보냈다.

원인이 있는 곳에는 결과가 따른다. 의무에 대한 각성이 자기의 성미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고의적으로 짓밟아 버리면, 마침내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해력은 둔하여지고, 양심은 무감각하여지고, 마음은 굳어지고, 심령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된다. 거룩한 진리의 기별이 배척되고 멸시받는 곳에는 교회가 흑암에 싸이게 되고, 믿음과 사랑이 식어지고, 분리와 불화가 들어오게 된다. 교인들은 그들의 관심과 정력을 세속적인 목적에 쏟게 되고, 죄인들은 더욱 완악하여진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알려 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라는 요한계시록 14 장의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부패한 감화에서 떠나게 하고, 세속화되고 타락한 그들의 참 상태를 보도록 그들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주어진 기별이었다. 이 기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한 경고를 주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였던 그 악을 교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만일 그들이 하늘로부터 온 그 기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였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이 반드시 그들 위에 나타났을 것이다. 그리하였을 것 같으면 교회는 사도 시대의 신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던 당시의 연합과 믿음과 사랑의 복된 상태에 다시 한 번 도달하였을 것이다 (행 4:32, 31, 2:47).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들에게 비치는 그 빛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것 같으면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고 사도가 기록한 그대로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그 연합을 이루었을 것이다. 그는 다시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엡 4:3~5) 라고 말하였다.

재림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러한 복스러운 결과를 체험하였다. 그들은 각각 다른 교파에서 나왔으나 그들의 교파적 장벽은 무너지고, 모순되는 신조들은 산산이 부서졌다. 복천년이 세상에 온다는 비성서적인 소망은 사라졌고, 재림에 대한 그릇된 견해는 교정되었다. 세속을 따르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은 없어지고, 모든 잘못은 바르게 고쳐지고, 각 사람의 마음은 따뜻한 우정으로 연합되고, 사랑과 기쁨이 그들을 지배하였다. 그 교리를 받아들인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결과가 생겼다는 사실은 만일 모든 사람이 그 교리를 받아들였을 것 같으면 그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결과가 생겼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러나 교회들은 일반적으로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예수께서 오실 징조를 먼저 분별해야 할 목사들이 선지자들의 증언이나 때의 징조에서 그 사실을 알아내지 못하였다. 세속적 희망과 야심이 마음을 채웠으므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식어졌다. 그리하여 재림의 교리가 그들에게 제시되자 그것은 다 그들의 편견과 불신을 일으킬 뿐이었다. 그 기별이 대체로 일반 평신도들에 의하여 전파되었다는 사실이 그 기별에 대하여 논란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옛적에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증언은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는 질문으로 응대 받았다. 그리고 예언적 기간들에서 이끌어 낸 논증을 도저히 반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많은 사람들은 예언서의 연구를 단념케 하고, 예언서가 봉해진 책이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목사들을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그 경고를 듣지 않기로 하였으며, 그밖의 사람들은 비록 진리를 깨닫기는 하였을지라도, 출교를 당할까 염려하여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였다. 교회를 시험하고 정결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도 분명히 드러내 주었다. 그들을 세상에 붙들어 매어 놓은 띠는 하늘을 향한 애착보다 더 강하였다. 그들은 마음을 살피는 진리의 기별에서 돌아서서 세속적 지혜의 소리를 듣는 기별을 택하였다.

첫째 천사의 경고를 거절함으로 그들은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길을 거절하였다. 그들은 그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한 악을 교정하여 줄 수 있는 은혜로운 사자를 배척하고 더욱 큰 열성을 가지고 세상과의 친교를 구하였다. 1844 년에 교회 안에 존재했던 세속화와 배교와 영적 죽음 등의 무서운 상태에 대한 원인은 여기에 있었다. 요한계시록 14 장에는 첫째 천사의 뒤를 이어 둘째 천사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계 14:8) 라고 선포한다. 바벨론이라는 말은 바벨 (Babel) 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혼잡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 말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모양의 허위적이요 배교적인 종교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 요한계시록 17 장에는 바벨론이 여인으로 표상되었는데, 성경상으로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되, 정숙 (貞淑) 한 여인은 순결한 교회를, 음란한 여인은 배교한 교회를 상징한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사이에 존재하는 신성하고 영속적인 특성이 결혼의 연합으로 대표되어 있다. 주님께서는 엄숙한 언약으로 친히 당신의 백성과 결합하셨는데, 그분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하셨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동시에 하나님께만 봉사할 것을 맹세하였다. 주님께서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호 2:19),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렘 3:14) 고 말씀하셨다. 또한 사도 바울도 신약에서 그와 동일한 표상을 사용하여,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고후 11:2) 고 말하였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대한 신뢰와 애정을 버리고 세속적 사물에 대한 사랑으로 그 마음을 채우므로 그리스도께 성실하지 못한 것은 결혼 서약을 깨뜨리는 것으로 비유되어 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간 죄와 그들이 거절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문구로 묘사되어 있다.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네가...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네 화려함을 인하여 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네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그 지아비 대신에 외인과 사통하"였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정녕히 나를 속였느니라" (겔 16:8, 13~15, 32). 신약 성경도 그와 유사한 말로 하나님의 은혜보다 세상과 짝하려는 이름만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사도 야고보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고 말한다.

요한계시록 17 장의 여자 (바벨론) 는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선지자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고 말한다. 또한 바벨론은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계 17:4~6, 18) 고 선포되어 있다. 그리스도교국의 모든 왕들에 대하여 여러 세기 동안 전제적 세력을 휘둘러온 세력은 로마이다. 그 자주빛과 붉은 빛이며, 금과 보석과 진주는 거만한 로마 법왕에 의하여 취해진 존귀와 일반 임금들보다 뛰어난 위세를 여실히 묘사해 준다. 또한

"성도들의...피에 취한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교를 매우 잔혹하게 박해한 로마교 이외에는 그런 세력으로 인정받을 만한 세력이 없다. 바벨론은 또한 "땅의 임금들"로 더불어 불법적 관계를 맺는 데 대하여 비난을 받고 있다. 일찍이 유대교는 주님을 떠나 이교도로 더불어 동맹을 맺음으로 음녀가 되었는데, 로마교도 그와 마찬가지로 세속적 권력의 지지를 받기 위하여 스스로 타락함으로 그와 동일한 죄의 선고를 받게 된 것이다.

바벨론은 "음녀들...의 어미"라고 불리고 있다. 그러면 그 음녀의 딸들은 그 음녀의 교리와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그 음녀의 모본을 따라 세상과의 불법적 인연을 맺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그분께서 인정하시는 바를 희생하는 그러한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포하는 요한계시록 14 장의 기별은 전에는 순결하였으나 그 후에 타락한 종교 단체들에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 기별은 심판의 경고 다음에 주어지는 기별이므로 그것은 분명히 말세에 선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로마교에만 적용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로마교는 이미 여러 세기 동안 무너진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요한계시록 18 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호소를 듣고 있다. 이 성경절에 의하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대부분이 어떠한 종교 단체에 속해 있는가? 의심할 여지없이 그들은 개신교의 신앙을 가진 여러 종류의 교회에 속하여 있다. 그 교회들이 일어나던 당시에는 그들이 하나님과 진리를 위하여 고상한 기초 위에 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까지도 복음의 원칙을 받아들임으로 얻는 은혜로운 결과에 대하여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네 화려함을 인하여 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네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겔 16:14, 15) 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을 저주와 멸망으로 인도한 그 욕망, 곧 불경건한 자들의 습관을 본받고 그들과 사귀고자 한 그 욕망 때문에 무너졌다. 그것에 대하여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라고 기록되어 있다.

많은 개신교회들은 로마교가 "땅의 임금들"과 불의의 관계를 맺은 그 본을 따르고 있는데, 국교들은 나라의 정부와 손을 마주잡고, 그밖에 다른 교파들은 세상의 총애를 받고자 애쓰고 있다. 그리하여 바벨론, 곧 혼잡이라는 말은 그런 모든 단체들, 다시 말하면 그들의 교리가 성경에서 나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말할 수 없이 많은 수효의 교파로 나뉘고 각각 서로 용납할 수 없는 신조와 이론을 가진 그 여러 단체들에게 작용되기에 꼭 알맞다. 소위 로마교에서 분리되어 나왔다는 교회들이 오히려 세상으로 더불어 죄악적인 결합을 계속할 뿐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로마교의 다른 특성들을 나타내고 있다. 로마교의 한 저서는 "만일 로마교가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였다고 할 것 같으면, 열 개의 교회를 마리아에게 바치고 한 개의 교회를 그리스도께 바친 로마교의 딸, 영국 교회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 (Richard Challoner, The Catholic Christian Instructed, Preface, pp 21, 22) 고 주장한다. 또한 홉킨즈 박사는 천년기에 대한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로마교만 적그리스도의 정신과 행동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할 이유는 조금도 없다. 개신교도들도 적그리스도적 요소를 그들 자체 안에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이 부패와 죄악에서...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Samuel Hopkins, Works, vol, 2, p128). 장로교가 로마교에서 분리된 데 대하여 거드리 박사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300 년 전에 우리 교회는 펼쳐진 성경을 군기로 삼고, '성경을 탐구하라'는 표어를 내걸고 로마교의 문에서부터 행군하여 나왔다." 그 다음에 그는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에서부터 완전히 나왔는가?" (Thomas Guthrie, The Gospel in Ezekiel, p, 237) 하는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였다.

스펄전은 말하였다. "영국 교회는 철두철미하게 형식주의에 빠져들어 간 듯이 보인다. 그러나 비국교파도 그에 못지않게 철학적 불신앙 투성이인 것같이 보인다. 우리가 좋게 생각했던 그들이 계속하여 하나씩 하나씩 신앙의 기초에서 떠나가고 있다. 오늘날 영국의 중심부는 강단에서 설교를 함으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가증한 불신자들의 소굴이 되어있다고 나는 단정하는 바이다." 그러면 큰 배교의 발단은 무엇인가? 어떻게 교회가 복음의 순수성에서 떠나가게 되었는가? 그것은 다신교의 습관을 따름으로 이교도로 하여금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기 쉽도록 만든 데 그 원인이 있다. 사도 바울은 벌써 그의 시대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 (살후 2:7) 다고 말하였다. 물론 사도들이 생존하여 있던 당시의 교회는 비교적 순결을 보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 2 세기의 말엽에 이르러 대다수의 교회들은 새로운 형식을 받아들임으로 초창기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리고 사도들이 무덤에 들어가 쉬게 되자 그 후손들이 새로 회개하는 사람들로 더불어 교회의 갈 길을 새로운 형태로 바꾸어 버리게 되었다" (Robert Robinson, Ecclesiastical Researches, ch1, par17, p11). 새 신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인 신앙의 높은 표준을 낮추어버린 결과로 "이교가 홍수처럼 교회 안으로 밀려들어와 그 풍속, 습관, 우상 등이 반입되었다" (Gavazzi, Lectures, p178). 그리스도 교회가 세속적 위정자들의 호의와 지지를 획득함으로 표면상으로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외견상으로 그리스도인처럼 보였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사실상 이교도로서 은밀히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처지에 머물러 있었다" (Gavazzi, Lectures, p178).

개신교회라고 자칭하는 거의 모든 교회에서도 똑같은 과정이 반복되고 있지 않는가? 진정한 개혁 정신을 가졌던 개신교의 창설자들이 죽은 후에 그 후계자들이 나와서 "그 사업을 새 형태의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 그들은 선조들의 신조들을 고집하면서도 실상은 개혁자들이 깨달은 진리에서 조금도 진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선조들이 남긴 겸손, 극기, 세상을 포기하는 일에 대한 모본에서는 멀리 떠나 있다. 그리하여 "초기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세속적인 홍수가 범람하여 "그 습관, 행동, 우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세상과 교제하는 정신이 오늘날 얼마나 놀라울 정도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 자칭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가! 그리스도교국의 일반 교회들이 겸손, 극기, 단순, 경건 등에 대한 성경상 표준에서 얼마나 멀리 떠나가 있는가! 존 웨슬리는 돈을 올바르게 사용할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나치게 값이 비싼 의복이나 쓸데없는 장신구 등으로 단순히 눈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매우 귀중한 달란트의 어떤 부분이라도 낭비하지 말라. 자기의 주택들을 치장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값이 비싼 가구를 사들이거나 고가의 서화를 걸거나 도금하는 일 등에 금전의 일부를 낭비하지 말라. ...사람의 자부심을 만족시키거나 사람들의 찬탄을 얻기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말 것이다. ...'그대가 자신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할 때 사람들은 좋은 사람으로 말할 것이다.' '홍포와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은 그대의 취미가 고상하고 그대의 행위가 관대하고 친절하다고 칭찬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런 값비싼 칭찬을 돈으로 살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으로 만족할 것이다" (Wesley, Works, Sermon 50).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이런 종류의 교훈을 무시하고 있다.

신앙을 고백하는 일은 세상에서 인기를 얻는 일로 바뀌어졌다. 위정자, 정치가, 법률가, 학자, 실업가들은 사회의 존경과 신뢰를 얻고 자기의 세속적 사업의 번영을 꾀하는 한 가지 수단으로 교회에 들어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리스도교를 믿는다는 신앙을 고백함으로 그들의 부정한 거래들을 가려 버리고자 노력한다. 소위 세례를 받은 속인들의 부력 (富力) 과 세력의 후원을 받는 여러 종교 단체들은 인기와 후원을 더 많이 얻고자 노력한다. 가장 사치한 방법으로 꾸며진 훌륭한 교회들이 번화한 큰 길거리에 세워진다. 예배자들은 비싸고 유행에 맞는 옷을 입고 모여든다. 사람들을 잘 다루고 이끄는 재간 있는 목사에게는 높은 액수의 봉급이 지불된다. 그의 설교는 보편화된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유행을 따르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유행을 따르는 죄인들은 교회명부에 등록되고, 유행을 따라 생기는 죄들은 믿는다는 가면 아래 감추어진다.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의 현실적인 태도에 대하여 한 유력한 잡지는 "교회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시대의 정신을 따르게 되고, 그 예배 형식도 시대의 요구에 순응하게 되었다"고 논평하고 있다. 또한 "교회는 종교를 매력 있게 만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이제는 그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뉴욕의 인디펜던트지의 한 기자는 감리교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경건한 자와 불경건한 자를 나누는 경계선은 마치 그림자 속에 들어간 것처럼 애매하며 양편의 열성자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와 향락의 상태에 존재하는 온갖 차이점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다." "종교의 일반화는 종교적 의무는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이익만 추구하는 자들의 수효를 더욱 증가시켰다."

하워드 크로스비는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날 그리스도 교회가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의 계획을 거의 성취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는바 이것은 깊이 우려해야 할 문제이다. 마치 옛적 유대인들이 우상숭배자들과 교제함으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던 것처럼...오늘날의 예수님의 교회는 믿지 않는 세상과 거짓된 교제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생활 방법을 버리고, 그리스도가 없는 사회의 그럴 듯하게 보이면서도 해로운 습관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시와는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은혜 가운데 자라나는 일과는 전혀 반대되는 논증을 사용하고 그런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The Healthy Christian : An Appeal to the Church, pp141, 142). 세속적인 것과 향락 추구의 풍조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극기와 자아희생은 거의 완전히 상실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남녀들 중 더러는 어린 시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 희생하여야 할 것을 배운 사람들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자금이 필요하게 되면 아무도 바치고자 하지 않는다. 그 대신 그들은 자선시 (慈善市), 연극, 모의재판 (模擬裁判), 골동품 감상회 (骨董品鑑賞會), 무슨 시식회 (試食會) 등과 같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회집을 열게 된다."

위스콘신 주의 워시번 지사는 1873 년 1 월 9 일 그의 연두 교서에서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노름꾼을 만드는 학교는 폐쇄해야 한다는 어떤 법률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일은 도처에 있다. 교회에서도 (모르는 중에 하는 일이겠지만) 때로는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 소위 자선 음악회, 자선흥행, 추첨하는 것들이 종교 혹은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수도 있다. 그러나 복권 (福券) 이라든지 현상 추첨 같은 것들이 쓸데없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다. 그것들은 아무 유익도 없고 다만 돈을 벌려는 계책에 불과하다. 일하지 아니하고 돈이나 재산을 얻는 것처럼 특히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마비시키는 것은 없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그런 투기적인 사업에 빠져들면서 돈을 좋은 목적에 사용한다는 구실로 그들의 양심을 스스로 달래고 있는 것을 볼 때 미국의 청년들이 너무도 흔히 도박성을 자극하는 습관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정신이 온 그리스도교계를 통하여 교회들 안으로 침입하고 있다. 로버트 애트킨즈 씨는 런던에서 한 그의 설교에서 영국에 편만한 영적 쇠퇴의 어두운 면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참된 공의는 세상에서 사라졌고, 이를 마음에 간직한 사람은 찾아볼 수 없다. 오늘날 각 교회의 신자라고 자칭하는 자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육신의 편안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갈망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지마는 비난을 받는 일에는 꽁무니를 빼고 있다...배교, 배교, 배교가 각 교회의 바로 정면에 새겨져 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알고 느낀다면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들은 '우리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외친다" (Second Advent Library tract No19).

바벨론에게 선고된 큰 죄는 그가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인 죄이다. 그가 세상에 주어 취하게 한 포도주는 그가 세상의 세력 있는 자들과 맺은 불법적인 관계로 얻은 거짓 교리들을 의미한다. 그는 세상과 짝하므로 그의 믿음은 타락되고 그 다음에는 성경의 가장 명백한 말씀에 반대되는 교리를 가르침으로 세상에 부패한 감화를 미치고 있다. 로마교는 사람들에게서 성경을 거두어 버리고 그 대신 그 교회의 교리를 받아들이도록 전 인류에게 요구하였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종교 개혁의 사업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모든 교회는 성경보다 교회의 신조와 교리에 신앙을 두도록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 아닌가? 찰즈 비처 씨는 개신교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마치 교부들이 그들이 장려해 온 성도 숭배와 신조에 대하여 공격을 받을 때에 싫어했던 것처럼 오늘날 개신교도들은 그들이 받들고 있는 신조에 대하여 무례한 말을 하는 것을 싫어한다. …개신교의 모든 복음 교파들은 자기 교단과 남의 교단을 물론하고 피차에 손을 붙들어 매어 놓고 성경 이외의 어떤 다른 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도, 또 어디서나 전도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오늘날 신경 (信經) 의 능력이 비록 교활한 방법이기는 하지마는 일찍이 로마가 한 것과 똑같이 성경을 방해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말 가운데 결코 상상적인 것이 없다" (Sermon on "The Bibble a Sufficient Creed," delivered at Fort Wayne, Indiana, Feb, 22, 1846).

충실한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면, 그 명백한 교리를 이단이라고 비난함으로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면서도 성경을 아노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목사들과 학자들이 일어나고 있다. 만일 바벨론의 술로 취하게 하는 절망적인 일이 세상에 없었을 것 같으면 명백하고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종교적 신조에 여러 가지 혼란과 상호간에 모순이 있었으므로 사람들은 어떤 것을 진리로 믿어야 할지 모르게 되었다. 세상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죄는 교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 요한계시록 14 장의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 년 여름에 처음으로 전파되었다. 그런데 그 기별은 그 심판의 경고가 제일 널리 전파되고, 제일 보편적으로 거절당하고, 또한 교회가 가장 급속도로 타락하게 된 북미 합중국의 교회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 년에 완전히 성취되지 못하였다. 당시의 교회들이 재림기별의 빛을 거절한 결과로 도덕적 타락을 경험하였으나 그 타락은 극도에 달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 시대의 특수한 진리를 거절함으로 더욱더 깊이 타락하게 되었다. 그러나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고 하리 만큼 되지는 않았다. 그는 아직은 모든 나라를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다. 세상과 타협하고 이 시대를 위한 진리에 무관심한 정신은 각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교국을 통하여 개신교의 모든 교회들 안에 잠재하여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 그 교회들은 둘째 천사의

엄숙하고 두려운 선고를 받아야 할 교회들이다. 그러나 그들의 배교는 아직 절정에 달해 있지 않았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사단이 "모든 거짓 권능과 징조와 이적과 불의한 모든 속임으로" 활동할 것인데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할 자들은 "미혹하는 마음이 발동"하여 "거짓 것을 믿게" (살후 2:9~11)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한 상태가 이루어지고 모든 그리스도교국의 각 교회들이 세상과 완전히 연합할 때 바벨론의 타락은 절정에 이를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요한계시록 14 장 8 절의 완전한 성취는 아직 장래에 속한 일이다.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교회들 내에 존재하는 영적 암흑과 하나님께로부터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단체 안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큰 무리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들 중에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기별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또한 많은 사람은 그들의 현 상태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욱 밝은 빛을 갈망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이 속해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찾고자 헛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단체들이 진리에서 점점 멀리 떠나가게 되고, 동시에 세상과 더욱 밀접히 결합됨에 따라 두 계급의 차이는 더욱 커져서 마침내 완전히 분리되고 말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과 더 이상 관련을 맺을 수 없게 될 때가 올 것이다.

요한계시록 18 장은 요한계시록 14 장 6 절로 12 절의 삼중 경고를 거절한 결과로 교회가 둘째 천사가 예언한 상태에 빠졌을 때, 아직도 바벨론 가운데 남아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그 가운데서 나오라는 초청이 주어질 시기를 지적하고 있다. 그 기별은 이 세상에 전해질 최후의 기별이며, 그것으로써 그 사업이 마쳐질 것이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 (살후 2:12) 들이 속임을 받아 거짓을 믿도록 방임되어 있을 때 진리의 빛은 그것을 받고자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들을 비추어 줄 것이며,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 (계 18:4) 오라는 호소에 유의하게 될 것이다.

22 장 — 성취된 예언들

처음에 주님께서 오시리라고 기대했던 1844 년 봄이 지나가 버리자, 믿음으로 그분의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한동안 의심과 불안에 잠겨 있었다. 그들은 세상에서 완전히 실패한 자들로 인정되고, 미혹당한 자로 취급되었지마는 그들의 위로의 근원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계속하여 성경을 탐구하고, 그들의 믿음의 증거를 새롭게 검토해보고, 더욱 큰 빛을 얻고자 예언을 주의 깊게 연구하였다. 그들의 주장을 지지해 주는 성경의 증언은 명백하고 결정적인 것처럼 보였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지적해 주는 징조들은 틀림이 없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등,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있었던 사실은 그 기별이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신자들은 비록 그들이 당한 실망에 대하여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그들이 겪을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들은 재림의 시기에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했던 예언들 중에 그들의 불안과 의심의 상태가 특별히 취급되어 있는 것을 보고 비록 지금은 알 수 없을지라도 때가 되면 명백히 깨닫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끈기 있게 기다려야 할 것을 배웠다. 그 예언들 중의 하나는 하박국 2 장 1 절로 4 절에 있는 말씀이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예언 중에 "이 묵시를...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말씀은 일찍이 1842 년에 찰즈 피치에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이상 (異像) 을 설명하는 예언의 도표를 만들어야겠다는 암시를 주게 되었다. 그는 그 도표의 출판을 하박국을 통하여 주신 명령의 성취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 묵시의 성취가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곧 지체하는 시기가 있을 것이 그 예언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에 유의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실망 후에 그 성경절은 매우 의미 깊은 말씀으로 나타났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에스겔의 예언의 일부도 신자들에게 힘과 위로의 근원이 되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험이 없다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찜이뇨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의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하는도다...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겔 12:21~25, 27, 28).

기다리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아시는 분께서 멀리 각 시대를 내다보시고 그들이 실망할 것을 미리 아셨으므로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믿고 즐거워하였다. 만일 인내하여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확신을 굳게 잡으라는 그런 부분의 성경 구절이 없었다면 그들은 그런 시련기에 그들의 신앙이 실패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것이었다. 마태복음 25 장의 열 처녀의 비유 역시 재림신도들의 경험을 잘 설명해준다. 마태복음 24 장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재림과 세상 끝에 있을 징조에 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당신의 초림에서 재림에 이르기까지 교회와 세계의 역사에서 일어날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지적하셨다. 그분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 이교 로마와 법왕 로마의 핍박 아래 당할 교회의 큰 환난,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지는 사건들을 말씀하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당신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두 부류의 종들을 묘사하는 비유를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5 장은 "그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는 말씀으로 시작된다. 그것은 마태복음 24 장의 마지막에 기록된 것과 똑같이 마지막 시대에 존재할 교회를 묘사한 것이다. 이 비유에는 그들의 경험이 동방에 흔히 있는 혼인의 풍습에 의하여 설명되어 있다.

"그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더라. 첫째 천사의 기별에 의하여 선포된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랑이 오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이해되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다는 선포 아래 널리 보급된 개혁 운동은 처녀들이 마중 나가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 비유에는 마태복음 24 장에서처럼 두 부류가 제시되어 있다. 두 부류는 모두 등, 곧 성경을 가지고 그 빛을 의지하여 신랑을 맞으러 나아갔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나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후자의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곧 거듭나게 해주고 심령을 깨우쳐 주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는데,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에 등이 되게 하고 길에 빛이 되게 해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중에 그들은 진리를 배우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였고, 생애와 심령의 순결을 얻기 위하여 열렬하게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실망이나 지체로 압도당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개인의 생애에서 체험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다만 충동에 의하여 움직였다. 그들은 그 엄숙한 기별을 듣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러나 그들은 형제들의 신앙에 의존하였고, 진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마음속에 은혜의 진실한 역사가 없이 위태롭게 흔들거리는 감정의 불빛에 만족하였다. 그러한 사람들이 보상을 즉시 받으려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러 나갔다. 그러나 그들은 지체하는 일과 실망을 견딜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하여 시련이 닥치자 그들의 믿음은 약하여지고 그들의 빛은 어두워졌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잤다. 신랑이 더디 온다는 것은 주님께서 오실 것으로 예기했던 시일이 지나갈 때 실망과 지체되는 듯이 보이는 일이 있을 것을 나타낸다. 이 불안한 시기에 피상적이고 반신반의의 사람들의 마음은 곧 동요되기 시작하고 그들의 활동은 힘을 잃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개인적 지식을 기초로 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실망의 파도가 휩쓸어 갈 수 없는 반석 위에 서 있었다. "다 졸며" 잤다. 한 편의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단념하는 태도를 가지는 반면에, 다른 편의 사람들은 인내함으로 더욱 밝은 빛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시련의 밤이 깊어짐에 따라 그 후자에 속한 사람들도 열심과 헌신의 정신이 어느 정도 약하여지는 듯이 보였다. 반신반의하고 피상적인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의 형제들의 믿음에 의존할 수 없었다. 마침내 각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서든지 넘어지든지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무렵에 광신 (狂信) 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일찍이 기별을 열렬하게 믿었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릇됨이 없는 지침이 된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스스로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그들의 감정, 기분, 상상에 내어 맡기게 되었다. 또한 맹목적이요 완고한 열성을 나타내면서 그들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자들도 있었다. 그들의 광신적 사상과 행동은 대부분의 재림신자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였다. 또한 그들은 진리의 사업이 비난을 받게 하였다. 사단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반대하고 파괴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재림운동으로 말미암아 크게 감동되었으며 비록 지체하는 시기에도 무수한 죄인들이 회개하였고, 충성된 사람들은 진리를 전하는 사업에 헌신하였다. 악의 왕은 자기의 부하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사업에 비난을 초래케 하기 위하여 신앙을 고백한 몇 사람들을 기만하여 극단으로 나가게 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자기의 부하들로 하여금 그들의 모든 잘못, 모든 실패, 모든 건전치 못한 행동들을 찾아내게 하여 그것들을 가장 크게 과장하여 그것이 바로 재림신도들의 믿음이 좋지 못한 증거라고 사람들 앞에 주장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재림을 믿노라고 공언하면서 사단의 세력 아래 마음이 지배되고 있는 자들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사람들을 전체 재림신도들의 대표자로 사람들이 인정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킴으로 그는 더욱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사단은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이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의 잘못과 결점을 관찰하게 하고, 그것들을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하는 반면에 그들의 좋은 행위는 말없이 지나쳐 버리도록 하려는 것이 그의 정신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 동안 언제나 활동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올 때에 사단도 또한 거기 함께 참여한다. 모든 신앙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그는 그 가운데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정신이 건전치 못한 자들이 들어오게 한다. 그런 사람들이 진리의 어떤 일부를 받아들이고 신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사단은 즉시 그들을 통하여 경성치 못한 자들을 속일 수 있는 이론들을 제기하도록 만든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동료가 되고 예배하는 집에 같이 있고, 주님의 상에 같이 앉는다고 해서 그를 반드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사단은 흔히 자기 부하로 이용할 수 있는 자들의 모양을 가장하여 가장 엄숙한 자리에 참석하게 된다.

악의 왕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 도성을 향하여 여행을 계속하는 동안 철두철미하게 싸움을 건다. 전반적인 교회 역사를 통하여 개혁 운동이 격렬한 장애를 만나지 않고 진행된 일이 없다. 바울의 시대에도 역시 그러하였다. 그가 교회를 세운 곳에는 어디에나 믿노라고 공언하면서도 이단설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만일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필연적으로 진리에 대한 사랑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루터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다고 주장하면서 자기들의 사상이나 의견을 성경의 증언보다 더 높이는 광신적인 사람들 때문에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였다. 신앙과 경험이 부족하면서도 자부심이 강하고 어떤 새로운 것을 듣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와 같은 새 교사들의 주장에 속아 하나님께서 루터를 통하여 세우고자 하셨던 사업을 파괴하는 사단의 부하가 되고 말았다. 또한 감화와 믿음으로 세상을 복되게 한 웨슬리 형제와 그 밖의 다른 사람들도 그들이 나아가는 매 걸음마다 과격하고 불안정하고 거룩하지 않은 자들을 각종 광신자로 만드는 그런 사단의 간계 때문에 방해를 받았다.

윌리엄 밀러는 사람을 광신으로 이끄는 그런 세력에 조금도 동조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루터와 같이 모든 영 (靈) 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밀러는 말하였다. "마귀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큰 세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이 가진 영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대답한다. ... 세상에는 많은 영들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들을 시험해보라는 명령을 받았다. 세상에서 우리를 참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해주지 않는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다. 나는 사단이 이런 난폭한 운동을 통하여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다. ...우리 중에는 완전히 성화 (聖化) 된 듯이 보이면서도 사람의 유전을 따르고 그런 모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진리에 대하여 무지한 자들이 많다" (S.Bliss, Memoirs of Wm.Miller, pp136, 237). "오류 (誤謬) 의 영은 우리를 진리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다. 그러나 그대들은 말하리라. 사람이 오류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는 진리를 가진 줄로 생각할 수 있으리라고. 그런 경우에는 어찌 될까? 우리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일치된다고 대답하는 바이다. 사람이 만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검토해 보고 그 모든 말씀과 완전히 부합될 것 같으면 그는 그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한다. 만일 그를 인도하는 영이 하나님의 율법과 성경의 주제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는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성 있게 걸어가야 한다"[The Advent Herald and Signs of the Times Reporter, vol1, No13 (Jan15, 1845)]. "나는 가끔 그리스도교계의 요란한 소리에서보다도 빛나는 눈, 눈물에 젖은 볼, 목메어 말을 이루지 못하는 음성에서 사람의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경건의 증거를 본다" (Bliss, p182).

종교 개혁 시대에 원수들은 광신자들이 만들어 놓은 온갖 악에 대한 책임을 광신자들을 가장 열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웠다. 이와 같은 일은 재림운동을 반대하는 자들을 통하여 다시 나타났다. 그리하여 그들은 극단자들과 광신자들의 그릇된 점들을 과장하거나 변조 (變造) 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전혀 근거도 없는 좋지 못한 말들을 만들어서 전하였다. 그 사람들은 편견과 증오로 자극되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문 앞에 이르렀다는 기별에 불안해졌다. 그들은 재림의 기별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나 하고 두려워하였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랐다. 그러므로 그들은 재림신도들과 그들의 믿음을 대항하여 싸우게 되었다.

바울이나 루터의 시대에 교회 안에 광신자와 기만자가 있었다고 하여 그들의 사업을 정죄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소수의 광신자가 재림신도들 가운데 들어와서 활동하였다고 하여 그 운동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이유는 전혀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잠에서 깨어나서 열심으로 회개하고 개혁하게 하라. 그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진리를 배우기 위하여 성경을 탐구하게 하라. 그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게 하라. 그리하면 사단이 여전히 깨어 활동하고 있는 증거가 여실히 나타날 것이다. 사단은 할 수 있는 온갖 기만 수단을 다하여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자기의 권세 아래 있는 모든 타락한 천사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다. 광신과 분열이 일어난 것은 재림기별이 전파되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이런 일들이 나타난 것은 1844 년 여름, 곧 재림신자들이 그들의 참된 입장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방황하던 그 때였다. 첫째 천사의 기별과 "밤중 소리"의 선포는 신자들 사이의 광신과 알력을 직접적으로 진압하는 일을 하였다. 이 엄숙한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서로 마음을 일치하였으며, 그들이 장차 뵈옵기를 기대하는 예수님과 그들 상호간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여졌다. 하나의 믿음, 하나의 복된 소망은 그들을 어떤 인간의 감화를 받는 것보다 훌륭하게 만들어 주었고, 사단의 공격에 대한 방패가 되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 1844 년

여름, 곧 재림신자들이 처음에 2300 주야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때로부터 그 다음에 다시 연장된 것으로 깨닫게 된 때까지의 중간 기간에 이 기별은 성경 말씀 그대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말로 전파되었다. 이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은 2300 주야의 기점 (起點) 이 되는 예루살렘을 회복하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이 효력을 발생한 것이 기원전 457 년 가을이며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 해 초가 아닌 사실이 판명되었기 때문이었다. 기원전 457 년 가을부터 계산하면 2300 주야는 바로 1844 년 가을에 마치게 된다 (부록 27 참조).

예언의 날 = 문자 그대로의 해 [1 년]

[34]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곧 사십 일의 하루를 일 년으로 환산하여 사십 년 동안 너희가 너희 불법들을 담당할지니 이로써 내가 약속을 깨뜨린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민수기 14:34] [6] 그것들을 채우거든 다시 네 오른쪽 옆구리로 누워 사십 일 동안 유다의 집의 불법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각 날을 일 년으로 정하였느니라. [에스겔 4:6]

기원전 457 년 - AD 1844 년 = 2300 일 / 년. [14] 그가 내게 이르되, 이천삼백 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니라. (다니엘 8:14). [24] 주께서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시에게

칠십 이레를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490 일 / 년(다니엘 9:24)

기원전 457 년 -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복구하기 위해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의 명령. [25]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일곱 이레와 육십이 이레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다니엘 9:25).

기원전 457 년 – 예루살렘 재건

서기 27 년 –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메시야로서).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물세례 받을 때 성령님으로부터 기름부음을 받았다. [27]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이레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다니엘 9:27).

서기 31 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죽음 [26] 육십이 이레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27]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이레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다니엘 9:26-27).

AD 34 년 – 스데반의 돌 - 유대인의 마감 - 복음은 세상에 주어진다 [14] 이 하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이니 그제서야 세상이 끝날 것이다. [마태복음 24:14] [46]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다음과 같이 담대하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전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말씀을 거절하고 여러분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합니다.[사도행전 13:46]

서기 70 년– 예루살렘의 멸망 [1]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성전 건물을 보 이려고 하자 [2]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해 둔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 건물이 돌 하나도 제대로 얹혀 있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마태복음 24:1-2] [15]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a]멸망케 하는 흉측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21] 세상이 창조된 이후 이제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고난이 그때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4:15, 21]

서기 1844 년– 성전정화 과 성전 정결의 의미. 예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역은 메시아의 사명과 사업의 일환이었습니다. 대속죄일에 지상의 대제사장이 지상성소의 지성소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1844 년에 그리스도는 하늘 성소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다. 하늘에서 1844 년에 시작된 심판은 조사 심판이다.

서기 1810 년/ 년 – 예수 그리스도의 사업 우리 대제사하늘의 성전에서 [14]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15]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16]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14-16).

구약 시대의 표상적 의식 (表象的儀式) 을 검토해 보면 "성소가 정결하여지는 것"으로 표상된 사건은 가을에 일어날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표상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유의해 봄으로 매우 명백해졌다. 유월절 양을 잡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표상하는 것이었다. 바울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고전 5:17) 고 말한다. 유월절에 여호와 앞에 흔들어 드린 처음 익은 곡식단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표상하였다. 바울은 주님의 부활과 그분의 백성들의 부활을 말하면서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 (고전 15:23) 라고 한다. 추수하기 전에 거두어 요제 (搖祭) 로 드려진 처음 익은 곡식단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부활의 때에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게 될 구속받은 자들의 영원한 추수에 있어서 처음 익은 곡식이시다. 이 표상은 사건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그 시기에 있어서도 성취되었다. 유대력의 첫째 달 14 일, 곧 1500 년간의 장구한 세월에 걸쳐 유월절 양을 잡아오던 바로 그 달 그날에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잔치를 잡수신 후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당신의 죽음을 기념하는 그 의식을 제정하셨다. 바로 그날 밤에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하여 악한 자들의 손에 붙잡히셨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요제의 곡식단이 표상한 실체 (實體) 로서 제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고전 15:20), 곧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 (빌 3:21) 실 분으로서, 또한 모든 의인들의 모본으로 부활하셨다.

이와 마찬가지로 재림에 관한 표상도 그 상징적 봉사가 지적한 시기가 되면 성취되고야 말 것이었다. 모세의 규례에 있어서 성소를 정결케 하는 대속죄일은 유대력으로 7 월 10 일이었는데, 그날에 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들의 죄를 성소에서 제하여 버린 후에 나와서 백성들을 위하여 복을 빌었다 (레 16:9~34 참조). 그와 같이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도 세상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나타나사 죄와 죄인들을 멸하여 버린

후에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영생으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다. 7 월 10 일, 곧 성소를 정결케 하는 대속죄일은 1844 년 10 월 22 일에 해당되었으므로 그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로 간주되었다. 이것은 2300 주야가 그 해 가을에 마쳐진다고 이미 말한 증거와 일치되므로 그 결론은 움직일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마태복음 25 장의 비유에는 기다리는 시기와 조는 일이 있은 후에 신랑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것 역시 이미 열거한 예언과 표상에 의한 증거와 일치되었다. 그들은 그 확실성에 대하여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으며, 마침내 무수한 신자들이 "밤중 소리"를 외치게 되었다. 이 운동은 조수와 같이 각 곳으로 퍼져갔다.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그것은 멀리 떨어진 벽촌에 이르기까지 퍼져 가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깨우쳤다. 떠오르는 햇빛 앞에 사라지는 이른 아침의 서리와 같이 광신자들도 그와 같은 선포 앞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신자들은 그들의 의심과 의혹이 사라진 것을 깨달았으며, 희망과 용기로 마음에 활기가 넘쳤다. 이 운동은 흔히 경험하는 바와 같이 흥분적인 것에만 의존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통제력이 없음으로 생기는 극단적인 일은 전혀 아니었다. 그것은 옛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견책의 기별을 받았을 때 즉시 마음을 겸비하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간 일들과 유사한 성격의 것이었다. 거기에는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구별해 주는 특징들이 있었다. 거기에는 열광적인 기쁨은 별로 없고, 오히려 마음을 깊이 살피고, 죄를 고백하고, 세상을 버리는 일들이 있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는 그들의 번민하는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부담이었다. 그들은 끈기 있는 기도와 확고한 헌신을 주께 드렸다.

밀러는 당시의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열광적인 환희는 없었다. 그런 일은 미래에 속한 것으로 하늘과 땅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충만하여질 그 때를 위하여 남겨 두었다. 또한 즐거운 환호성 (歡呼聲) 도 없었다. 그것 역시 하늘에서 환호성을 올릴 때를 위하여 남겨 두었기 때문이었다. 노래하는 사람들도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늘의 찬양대, 곧 천사들의 무리와 연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의견의 충돌이 없었고,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뭉쳐있었다" (S.Bliss, Me-moirs of Wm.Miller., pp170, 271). 그 운동에 참가했던 또 다른 사람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였다. "그 운동은 각 곳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깊이 살피는 일과 심령을 겸비하게 하는 일을 일으켰다. 그 운동은 세속적 사물에 대한 애착을 버리게 하였고, 다툼과 원한을 화해하고,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와 가납하심을 얻기 위하여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탄원하게 하였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겸비와 완전한 순종을 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하여 여호와의 큰 날이 절박해 오는 때를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었으며, 금식하고 통회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스가랴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마음을 부어 주셨다. 그들은 그들이 찌른 주님을 우러러보았으므로 온 땅에는 크게 통곡하는 일이 있었다. ...그리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였다"[Bliss in Advent Shield and Review, vol 1, p171 (Jan., 1845)].

사도 시대 이래로 모든 위대한 종교운동들 중에서 1844 년 가을의 재림운동만큼 인간적 결함과 사단의 간계에서 벗어난 운동은 없었다. 그 후 여러 해를 지낸 오늘날에 있어서까지도 그 당시의 운동에 참가하여 진리의 토대 위에 굳게 섰던 사람들은 누구나 당시의 그 복된 사업에 나타났던 거룩한 감화력을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운동이었음을 여전히 느끼고 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부르짖음을 듣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였다. 그들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열렬한 흥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였다. 천사들은 실망한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 기별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게 하고자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그 사업은 사람의 지혜나 학식으로 지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 이 부르심을 처음으로 듣고 순종한 사람들은 가장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겸비하고 헌신적인 사람들이었다. 농부들은 추수할 곡식들을 밭에 세워둔 채, 직공들은 그들의 도구를 버려둔 채, 눈물과 기쁨으로 그 경고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나아갔다. 그런데 전에는 무슨 일에나 앞장을 서던 사람들이 이 운동에는 맨 뒤에 서 있었다. 교회들은 일반적으로 그 기별에 대하여 문을 닫았으므로 그 기별을 받아들인 많은 무리들은 그들의 교파에서 나왔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 기별의 선포가 둘째 천사의 기별과 연합되어 그 사업에 큰 힘을 더하게 되었다.

"보라 신랑이로다"는 기별은 성경적인 증거가 분명하고 결정적이었지만 그것은 논증의 문제는 아니었다. 그 기별에는 심령을 움직이는 압도적인 능력이 함께 하였다. 거기에는 아무 의심도, 질문도 없었다. 일찍이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실 때 유월절을 지키러 각 곳에서 온 사람들이 감람산으로 모였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수행하고 있는 군중들과 합세하였는데, 그들은 그 분위기의 영감에 사로잡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이 있을지어다" (마 21:9) 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재림신자들의 집회에 참석했던 불신자들이 더러는 호기심에서, 더러는 조롱하기 위하여 모였지마는 그들 역시 "보라 신랑이로다"는 그 기별이 가진 감동적인 능력을 느꼈다. 그 당시에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믿음, 반드시 보상을 받는 믿음이 있었다. 마치 메마른 땅에 소나기가 내리는 것처럼 열심으로 찾아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의 영이 임하였다. 오래지 않아서 그들의 구주를 대면하여 만날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말할 수 없이 엄숙한 기쁨을 느꼈다. 하나님의 축복이 충성되고 경건한 무리들 위에 풍성히 주어질 때 성령의 부드럽게 하고 순종케 하는 능력이 마음들을 녹였다.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주의 깊고 엄숙하게 그들의 주님을 영접할 것으로 기대했던 시기를 바라보게 되었다. 그들은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가납해 주신 증거를 얻는 것을 그들의 첫째 되는 의무로 여겼다. 그들의 마음은 밀접히 연합되었으며, 그들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들은 때때로 한적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과 교통하였는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소리가 들과 숲 사이에서 하늘로 상달되었다. 구주께서 인정해 주시는 확증이 그들에게는 날마다의 양식보다 더욱 필요하였다. 그러므로 만일 그들의 마음에 어두운 구름이 덮이는 때에는 그것이 사라지기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였다. 그리하여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증거를 느끼게 될 때에 그들은 자기들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구주께서 나타나기를 사모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금 실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다. 기대했던 시간은 지나갔으나 그들의 구주께서는 나타나지 않으셨다. 그들은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재림을 기다렸으므로, 그들은 일찍이 구주의 무덤에 가서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요 20:13) 고 울며 부르짖는 마리아가 느꼈던 것과 같은 슬픔을 경험했다.

그 기별이 혹시 진실할는지도 모른다는 공포감 (恐怖感) 은 잠시 동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제 (自制) 하는 마음을 주었다. 그 공포의 감정은 기대했던 시간이 지난 후에도 즉시 사라지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들이 실망한 사람들 앞에서 승리한 것처럼 감히 기뻐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표가 나타나지 않자 그들은 전일의 대담한 마음을 회복하여 다시 비난과 조소를 시작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속히 재림하실 것을 믿노라고 공언한 많은 무리들은 그들의 신앙을 버렸다. 대단히 큰 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고 마치 세상에서 내어 쫓긴 것처럼 느꼈다. 그들은 요나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기를 원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의 기초를 두지 않고 사람의 의견에 신앙의 기초를 두었던 사람들은 이때에 즉시 그들의 견해를 바꾸었다. 의지가 박약하고 겁이 많은 자들은 조롱하는 자들과 합세하여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재림을 기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시기는 경과하였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오시지 않았으며, 세상은 지나간 수천년 동안과 마찬가지로 변함이 없었다.

열성 있고 진실한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전보다 그리스도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갔다. 그들은 그들이 확신한 그대로 세상에 최후의 경고를 하였다. 그들은 미구에 그들이 주님과 하늘의 천사들에게 영접되리라고 기대하면서 경고의 기별을 받지 않은 자들과의 교제에서 거의 떠나 있었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시지 아니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시 생애의 염려와 수고의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조롱하는 세상의 모욕과 조소를 견디는 일은 믿음과 인내가 요망되는 무서운 시련이었다.

그러나 이때의 실망은 그리스도의 초림 당시에 제자들이 경험한 것만큼 큰 것은 아니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당당하게 입성을 하신 때에 제자들은 주님께서 미구에 다윗의 보좌에 즉위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자들의 손에서 구원해 내실 것으로 믿었다. 그들은 희망과 영광스러운 기대를 가지고 서로 다투어 그 왕께 경의를 표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의복을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에 깔고, 무성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들은 열렬한 기쁨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고 외쳤다. 이와 같은 기쁨의 표현을 보고 화가 나고 난처해진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꾸짖어 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눅 19:40) 고 대답하셨다. 예언은 성취될 수밖에 없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있었지만 그들 앞에는 쓰라린 실망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간 후 그들은 구주께서 고통의 죽음을 당하시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기대는 단 하나도 실현되지 못하고, 그들의 희망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사라졌다. 그들은 구주께서 무덤을 정복하고 부활하시자 비로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 (행 17:3) 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오백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슥 9:9). 만일 제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심문을 받고 돌아가실 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결코 이 예언을 성취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그와 똑같이 밀러와 그 동역자들은 예언을 성취시켰고, 세상에 전해지도록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기별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도 만일 그들의 실망을 가르쳐 주고 재림 전에 또 다른 한 기별이 전파될 것을 알려 주는 예언을 미리 완전히 이해했었더라면, 결코 그 예언을 성취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적시에 전파되었고, 하나님께서 기별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계획하신 사업은 성취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예정했던 때가 지나간 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아니하면 재림운동의 모든 조직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주목하고 있었다. 그러나 혹독한 시련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릴지라도 확고하게 서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재림운동의 결실로써 겸손하고 마음을 살피는 정신이 있었고, 세속적 정신을 버리고 생애를 개혁하는 일이 그 사업에 따른 것은 이 운동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증명하였다. 그들은 재림기별을 전파하는 데 나타난 성령의 능력을 감히 부인하지 못하였고, 그들이 예언적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아무런 잘못을 발견할 수 없었다. 가장 재간 있는 그들의 반대자들이라도 그들의 예언해석을 뒤집어 버릴 수는 없었다. 그들은 성경상 증거가 없이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빛을 받은 정신과, 성령의 산 권능으로 불타는 마음으로 열렬하고 경건하게 성경을 연구하여 얻은 결론, 일반 종교가들과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의 가장 맹렬한 반대와 비판을 견뎌낸 그들의 주장, 학식과 웅변을 겸한 자들의 공격과 존귀하거나 비천하거나 간에 한 가지로 쏟아 놓는 냉소와 조롱에도 동요되지 않고 굳게 견디어 온 그 주장을 결단코 버릴 수 없었다.

예기했던 사건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실망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그 실망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흔들 수는 없었다. 일찍이 요나가 니느웨의 거리에서 40 일 안에 그 성이 멸망하리라고 선포하자 니느웨 사람들이 겸비하고 회개함으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은혜의 시기를 연장시키셨다. 그러나 그 때의 요나의 기별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었고,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시련을 받은 것이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재림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사 심판의 경고를 전파하게 하신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 기별은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을 시험하였으며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마음을 일으키든가, 싫어하는 마음, 비록 그 정도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싫어하는 생각을 일으키든가 하였다. 그리하여 두 편의 한계가 분명해졌다. …자기들의 마음을 살피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실 때 어느 편에 서게 될는지,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고 부르짖게 될는지, 혹은 산과 바위를 불러 가로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하게 될는지 분간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알기에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그 시련의 시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뜻을 버리고 뒤로 물러가는지 알고자 하셨다. 곧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의지하는 여부를 알아보신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The Advent Herald and Signs of the Times Reporter, vol1, No14 (Nov13, 1844)].

또한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여전히 믿고 있던 당시의 신자들의 생각을 윌리엄 밀러는 다음과 같은 말로 나타내고 있다. "그 당시에 내가 가졌던 것과 똑같은 증거를 가지고 내가 다시 한 번 산다면 나는 그 당시에 했던 그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되고자 애쓰게 될 것이다." "나는 나의 옷이 사람들의 피와 관계없이 깨끗하기를 바란다. 나는 나의 행한 일로써 저들의 정죄에 아무런 상관도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나는 두 번이나 실망을 당하였으나 아직 절망하는 데 이르지는 않았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희망은 전과 같이 강하다. 나는 다만 여러 해를 두고 엄숙히 생각한 후에 그 일이 마땅히 해야 할 엄숙한 의무인 줄 깨닫고 한 것뿐이다. 혹시 내가 잘못했다면 그것은 나의 동포들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본분을 확신하게 된 일이다." "내가 확실히 아는 한 가지 사실은 나는 믿는 것만을 전파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고, 그분의 권능이 이 사업에 나타나서 많은 좋은 결과를 냈다는 것이다." "재림의 시기를 알려 줌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 (Bliss in Advent Shield and Review, vol1, pp156, 255, 277, 280, 281). "나는 교만한 자에게 아첨한 일도 없고 사람들의 푸대접으로 움츠러들지도 않았다. 나는 지금도 미래에도 그들의 호의를 사기 위하여 애쓰거나 나의 분수를 넘어감으로 그들의 미움을 사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생명을 그들의 손에서 찾거나 그들이 두려워서 피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의 섭리라면 죽음이라도 사양하지 않을 것이다" (J.White, Life of Wm.Miller, p115).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성령께서는 받은 빛을 부인하지 않고 재림운동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과 여전히 함께 하셨다. 히브리서에는 이러한 위기에 처하여 시련 중에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면과 경고의 말씀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 10:35~39).

이 권고의 말씀이 마지막 때의 교회에 주어진 것이 분명한 이유는 그 말씀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가리킨 말이기 때문이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런데 이 말씀에는 지체하는 일, 곧 주님께서 지체하시는 듯이 보이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뜻이 분명히 함축되어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 말한 교훈은 특별히 그 당시의 재림신자들의 경험에 적용된다. 여기에 지적된 사람들은 믿음의 파선 (破船) 을 당하는 위험에 처하였다. 그들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들은 과거의 경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앞길도 분별하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들을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하여 의심하는 시험을 당하였다. 그와 같은 때에 있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매우 적절한 말씀이었다. "밤중 소리"의 빛이 그들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어주고, 그들이 예언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재림이 가까움을 알리는 징조들이 신속히 성취되고 있음을 볼 때에 그들은 재림이 바로 눈앞에 이른 것을 알고 빛을 따랐다. 그러나 이제 그 기대는 헛되어 실망으로 주저앉은 그들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너희들은 속았다. 너희들은 신앙을 버리고 재림운동이 사단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말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하였다. 그들이 그들의 믿음을 버리고 그 기별에 주어졌던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게 되면 그들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것이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한 바울의

말로 그들은 용기를 얻고 확고 부동하게 섰다. 그들의 유일의 안전책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빛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굳게 붙잡고,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함으로 더욱 많은 빛을 받기 위하여 오래 참아 기다리고 깨어 있는 길이었다.

23 장 — 하나님의 성소

성경에서 어떤 말씀보다 재림신앙의 기초가 되고 중요한 기둥이 되어온 것은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단 8:14) 고 한 말씀이었다. 그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실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숙한 말씀이 되어 왔다. 이 예언은 무수한 사람들의 입술에서 믿음의 표어처럼 되풀이되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에 예언된 사건에 그들의 영광스러운 기대와 희망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그 예언적 기간이 1844 년 가을로 마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림신자들 역시 다른 일반 그리스도인들처럼 성소가 이 세상 혹은 세상의 어떤 지역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성소의 정결이란 마지막 큰 날에 이 세상이 불로 정결하여지는 것을 말하고, 그 일은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1844 년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으로 돌아오실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런데 지정된 시기가 지나갔으나 주님께서는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착오가 없으므로 그들의 예언 해석에 반드시 잘못이 있을 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그 잘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경솔하게도 1844 년에 이천삼백 주야가 끝난다는 사실을 부인함으로 이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둘렀다. 그들이 그렇게 하고자 한 유일의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기대한 시기에 오시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만일 이 예언의 기간이 1844 년에 끝났으면 그리스도께서 당연히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고자 곧, 이 세상을 불로 정결하게 하시기 위하여 돌아오셨을 것인데 그분께서 재림하시지 아니한 것을 보면 그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결론을 받아들임으로 그들은 일찍이 그들이 산출한 2300 주야에 대한 예언의 기간을 부인하게 되었다. 이천삼백 주야는 기원전 457 년 가을에 효력이 나타난 바사 왕 아닥사스다의 예루살렘 중건 (重建) 명령으로 시작되었다. 그것을 기점으로 계산하면 다니엘서 9 장 25 절로 27 절까지 예언된 모든 사건들의 설명은 완전히 들어맞는다. 이천삼백 년의 첫 부분인 483 년, 곧 69 주일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야의 시대까지 미칠 것이었다. 그런데 기원후 27 년에 그리스도께서 침례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그 예언은 분명히 성취되었다. 또한 70 주일의 중간에 메시야는 끊어질 것이었다. 과연 그리스도께서 침례 받으신 후 3 년 반 만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 때는 서기 31 년 봄이었다. 70 주 곧 490 년은 특별히 유대인에게 속한 것이었다. 그 기간의 끝에 유대 민족이 제자들을 핍박함으로 마침내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되었고, 그 때로부터 사도들은 이방인에게로 가게 되었는데, 그 때가 서기 34 년이었다. 이로써 2300 년의 첫째 부분인 490 년이 지나갔으므로 1810 년이 남게 된다. 서기 34 년에서 1810 년을 연장하면 1844 년이 된다. 천사는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하였다. 그 예언

중에 밝히 기록된 모든 사건은 지정된 때에 의심할 여지없이 다 성취되었다. 이 계산에 의하면, 1844 년에 이루어진 성소의 정결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밝히 알 수 없는 것 외에는 모든 점이 다 명백하고 잘 조화되었다. 그런데 1844 년에 이천삼백 주야에 관한 예언의 기간이 끝난다는 사실을 부인하게 되면 모든 문제는 혼란에 빠지고 이미 예언의 성취로 확인된 증거까지도 무시되어 버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큰 재림운동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셨으며 그분의 권능과 영광이 이 운동에 같이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운동이 거짓된 광신 소동으로 조롱과 모욕을 받고 암흑과 실망으로 끝을 맺도록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의심과 불확실한 상태에 묻혀 있게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천삼백 주야의 예언의 기간에 대한 계산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기초로 한 재림 운동의 확실성을 의심하였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성경과 하나님의 성령의 증거로 지지된 신앙적 근거와 체험을 버리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그들이 예언 연구에 있어서 건전한 해석 원칙을 적용했다고 믿고 이미 얻은바 진리를 굳게 잡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열렬한 기도로써 그들의 견해를 다시 검토해보고 그들의 잘못을 발견하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였다. 그들이 예언의 기간을 계산하는 일에 아무런 착오가 없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들은 성소 문제를 한층 더 세밀하게 연구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연구를 통하여 성경에는 이 세상이 곧 성소라고 하는 일반적 견해를 지지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성경에는 성소 문제에 관한 설명, 곧 그 본질과 위치와 봉사 등에 관한 설명이 너무도 충분하고 명백하게 성경 기자들로 말미암아 증가되어 있으므로 그 문제는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도 바울은 성소에 대하여 히브리서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싹 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히 9:1~5).

바울이 여기 말한 성소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하실 곳으로 이 세상에 지은 성막이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출 25:8) 지으라는 말은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산에 있을 때에 받은 명령이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여행하고 있었으므로 성소는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이동할 수 있게 지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장엄하고 화려한 구조물이었다. 그 벽은 금으로 두껍게 싼 견고한 판목으로 만들어 은받침 위에 세웠다. 그 지붕은 장막, 곧 포장들로 되었는데, 겉은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고 안의 천장은 그룹의 형상을 아름답게 수놓아 짠 베로 만들었다. 번제단이 있는

바깥 뜰 이외에, 성막은 화려한 휘장으로 칸을 막아, 앞칸을 성소, 뒤칸을 지성소라고 부르는 두 칸으로 되어 있었다.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도 그와 같은 휘장으로 가리어져 있었다. 성소의 남쪽에 촛대가 있었는데, 그 일곱 등대에 주야로 불을 켜서 성소를 밝혔다. 또 북쪽에는 떡을 진설하는 상이 있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은 휘장 앞에는 금향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매일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와 함께 향연이 하나님 앞으로 상달되고 있었다.

지성소에는 값진 목재로 제조하고 그 안팎을 금으로 싼 법궤가 있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비가 들어 있었다. 그 법궤 위에는 법궤의 뚜껑이 되는 속죄소가 있고, 순금으로 정교하게 만든 두 그룹이 마주 서 있었다.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그룹 사이의 영광의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다. 히브리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자, 솔로몬의 성전이 성막을 대신하게 되었다. 그 건축은 영구적이고 그 규모도 굉장하였으나 각 부분은 성막과 같은 비례로 지었고, 그 안에는 같은 기구들을 두었다. 그리하여 성소는 다니엘의 시대에 한 번 파괴된 일 외에 서기 70 년에 로마군에게 파괴되기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상은 성경이 말해 주는 지상에 존재한 유일의 성소이다. 그것을 바울은 첫 언약의 성소라고 말하였다. 그러면 새 언약의 성소는 어떠한 것인가? 진리를 연구하는 자들이 히브리서를 다시 펴보았을 때 그들은 둘째 언약 곧 새 언약의 성소가 암시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에도"라는 말을 쓴 것은 바울이 이 성소에 대하여 이미 말했음을 암시해 준다. 그 전장 (前章) 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히 8:1, 2).

여기 새 언약의 성소가 나타나 있다. 첫 언약의 성소는 사람이 치고 모세가 세운 것이었으나 이 성소는 사람이 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다. 먼저 있던 성소에서는 이 세상의 제사장들이 봉사하였으나 나중 성소에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봉사하고 계신다. 먼저 것은 세상에 있었고, 나중 것은 하늘에 있다. 더욱이 모세가 세운 장막은 식양 (式樣) 을 따라 지은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출 25:9, 40) 고 지시하셨다. 그리고 다시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고 명령하셨다. 바울은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고 하였다" (히 9:9, 23, 8:5, 9:24).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하늘에 있는 성소는 큰 실체 (實體) 이며, 모세가 지은 성소는 그것을 모방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성소를 짓는 자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주셨다. 그리하여 그 구조에 나타난 공교한 기술은 모두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낸 것이었다. 벽은 하나의 큰 금덩이처럼 보이고 황금 등대의 일곱 등잔에서 발하는 빛은 성막의 내부를 사방으로 비추었다. 진설한 떡상과 향단은 마치 연마한 정금처럼 찬란하게 빛났고 천장은 청색 실과 자색 실과 홍색 실로 천사들의 형상을 수놓은 화려한 천으로 덮였었다. 둘째 휘장 안에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 곧 거룩한 쉐키나가 있었다. 그 앞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서 생명을 부지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찬란한 지상의 성막은 우리 앞서 가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시는 하늘 성소를 인류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을, 수종하는 자가 천천이요 시위하는 자가 만만이나 되는 만왕의 왕이 거하시는 곳 (단 7:10 참조), 그 시위하는 영화로운 스랍들이 경배하고 머리를 숙이는, 영원한 보좌가 있는, 영광으로 충만한 하늘 성소와 비교하면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장엄한 건물일지라도, 그 무한한 영광과 웅장함에 대한 극히 희미하고 미약한 반영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는 지상의 성소와 그 봉사를 통하여 하늘 성소에 관한 중요한 진리와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거기서 진행되는 주님의 봉사를 배우게 되었다.

하늘 성소는 지상 성소를 통하여 두 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사도 요한이 계시 중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전을 보도록 허락되었을 때 그는 거기서 "일곱 등불 켠 것" (계 4:5) 을 보았다. 그는 또한 한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고...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계 8:3) 놓는 것을 보았다 여기에서 선지자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첫째 칸을 보도록 허락되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일곱 등불 켠 것"과 향단을 보았는데, 그것들은 지상 성소에서 금등대와 향단으로 표시된 것들이었다. 요한은 또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 (계 11:19) 는 광경을 보았다. 그는 그 때에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를 보았다. 그리고 그는 지상 성소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넣어두기 위하여 모세가 만든 거룩한 법궤로 대표된 언약궤를 보았다.

이와 같이 그 문제를 연구하고 있던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성소의 존재에 대하여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다. 모세는 자기에게 보인 식양 (式樣) 을 따라 지상 성소를 지었다. 바울은 그 식양이 하늘에 있는 참 성소라고 가르쳐 준다. 그리고 요한은 하늘에 있는 성소를 보았다고 증거한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 궁전의 보좌는 의와 공평이 그 기초가 되어 있다. 지성소에는 위대한 의의 원칙, 곧 전 인류의 심판의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 율법의 돌판을 넣어둔 법궤는 속죄소로 덮여 있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앞에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증인을 위하여 탄원하고 계신다. 이와 같이 인류의 구속의 계획에는 공의와 자비가 결합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결합은 오직 무한한 지혜만이 고안해 낼 수 있고, 무한한

능력만이 성취시킬 수 있다. 그것은 하늘을 경탄과 경외감으로 충만케 하는 결합이다. 지상 성소에 있는 천사들이 존경하는 태도로 속죄소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은 속죄 사업에 대한 하늘 천사들의 관심과 흥미를 보여준다. 이것은 천사들이 알기를 원하는 자비의 오묘이다. 그 오묘는 하나님께서 회개한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당신이 의롭게 되시는 것, 타락한 인류로 더불어 다시금 교제를 새롭게 하시면서 동시에 그분께서 의로우실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구원하시려고 강림하시는 것, 그들에게 흠이 없는 당신의 의의 옷을 입히시고, 일찍이 타락한 일이 없는 천사들과 연합시키사 당신 앞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 등이다.

인류의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업은 "순 (나무의 싹) 이라 이름하는 사람"에 대하여 말한 스가랴의 아름다운 예언에 나타나 있다. 그는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아버지의) 위 (位) 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슥 6:12, 13) 고 말한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당신의 희생과 중보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와 건축가가 되신다. 사도 바울은 그분을 "모퉁잇돌"이라고 지적하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말한다. 또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엡 2:20~22) 고 한다.

"영광도 얻"으리라.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신 영광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다.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영원무궁토록 부를 노래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계 1:5, 6) 는 노래가 될 것이다.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라. 아직 영광의 나라가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그 영광의 위에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의 봉사를 마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실 것인데" 그것은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한 그 나라이다 (눅 1:32, 33).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으로서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신다 (계 3:21 참조). 영원하시고 자존하신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므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분이시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사 53:4; 히 4:15, 2:18; 요일 2:1). 그분께서는 당신의 무죄하신 생애와 상하고 찔림을 받은 몸을 가지고 중보하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상하신 손과 찔림을 받으신 옆구리와 상처 난 발을 가지고 죄에 빠진 인류를 위하여 탄원하신다. 그들의 구속은 그처럼 무한한 값을 치르고 이루어졌다.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성자 (聖子) 의 사랑보다 약하지 않은 아버지의 사랑이 타락한 인류의 구원의 기초가 된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가시기 전에 그들에게 “내게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요 16:26, 27) 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 (고후 5:19) 셨다. 하늘 성소의 봉사로써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을 이루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성소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성경은 분명한 해답을 준다.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소라는 말은 첫째, 하늘 성소의 식양을 따라 모세가 지은 장막을 가리키고 둘째, 지상의 성소가 가리키는 하늘에 있는 참 성소를 말한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형적 봉사는 끝났다. 하늘에 있는 참 성소가 새 언약의 성소이다. 그런데 다니엘 8 장 14 절의 예언은 현대에 성취될 예언이므로 거기 말한 성소는 새 언약의 성소가 되어야 한다. 2300 주야가 끝나는 1844 년에는 여러 세기 전부터 지상에 이미 성소가 없었다. 그러므로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한 예언이 하늘에 있는 성소를 가리키는 것임은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성소의 정결이 무엇이냐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의문이 해답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다. 구약 성경은 지상 성소와 관련하여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봉사가 있었던 것을 말한다. 그런데 하늘 성소에도 정결케 할 무엇이 있을까? 히브리서 9 장에는 지상 성소와 하늘 성소의 정결에 대하여 분명히 가르쳐 준다.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써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히 9:22, 23). 좋은 제물은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모형과 실체에 있어서, 둘 다 정결하게 하는 일은 피로써 하는데, 먼저 것은 짐승의 피로 할 것이요 나중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정결하게 하는 일을 피로써 해야 할 이유를 말하면서 피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한다. 사유하는 일, 곧 죄를 없이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그런데 죄가 어떻게 하늘 성소와 지상 성소에 관련하여 존재할 수 있었는가? 그 사실은 표상적인 봉사에서 배울 수 있다. 왜냐하면 지상에서 그 직분을 행한 제사장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히 8:5) 에서 봉사하였기 때문이다.

지상 성소의 봉사에는 두 가지가 있다. 제사장들은 매일 성소에서 봉사하였고, 대제사장은 매년 한 번씩 성소의 정결을 위하여 지성소에서 특별한 속죄의 봉사를 행하였다. 죄를 뉘우치는 죄인은 날마다 그의 제물을 성막의 문으로 가지고 와서 희생 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고, 그의 죄를 고백함으로 그 죄는 상징적으로 자기 자신에게서 흠없는 희생제물에게로

옮겨졌다. 그런 다음에 그 짐승은 죽임을 당하였다. 사도 바울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한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레 17:11). 하나님의 율법은 범죄자의 생명을 요구하였다. 죄인의 빼앗긴 생명을 나타내는 피, 곧 죄인의 생명을 대신하는 그 희생 제물의 피는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성소로 옮겨져서 그 휘장 앞에 뿌려졌는데, 그 휘장 너머에는 그 죄인이 범한 율법을 넣어둔 법궤가 있었다. 이러한 의식을 통하여 죄는 피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성소에 옮겨졌다. 또 어떤 경우에는 피를 성소로 가져가지 않았다. 그러나 모세가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레 10:17) 고 한 지시대로 제사장이 그 고기만 먹었다. 그 의식들은 다 같이 죄가 회개한 자에게서 성소로 옮겨지는 것을 상징하였다.

그와 같은 일은 일 년 내내 매일 진행된 사업이었다. 이스라엘의 죄는 성소로 옮겨졌는데, 그 죄를 도말하기 위하여 특별한 봉사가 필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라고 명령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또한 단을 위하여도 속죄가 이루어져야 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라고 하였다 (레 16:16, 19).

대제사장은 일 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지성소로 들어갔다. 이 봉사로 말미암아 일 년간 매일 행한 봉사가 완결되는 것이었다. 이 속죄일에 두 마리의 염소 새끼를 성막 문으로 끌고 와서 그 둘을 제비 뽑아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 (레 16:8) 게 하였다. 그리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뽑힌 염소는 백성을 위한 속죄물로 죽임을 당해야 하였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져가서 속죄소 앞과 그 위에 뿌렸다. 또한 그 피는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 위에도 뿌려져야 하였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레 16:21, 22). 아사셀은 다시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오지 못하였고, 그것을 끌고 간 사람은 그 의복을 빨고 목욕한 후에야 장막으로 돌아왔다.

그 모든 의식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주님께서 죄를 가증히 여기심을 깊이 깨닫게 해줄 뿐 아니라 또한 죄와 접촉하면 반드시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 이 속죄의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각 사람은 통회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여야 하였다. 그날에 모든 사람은 일을 전폐하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마음을 깊이 살피는 가운데 지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속죄에 관한 중요한 진리가 이 모형적 의식을 통하여 알려졌다. 죄인의 대속물이 죄인을 대신하여 열납되었으나 죄는 그 희생 제물의 피로 없어지지 않았다. 다만 어떤 수단에 의하여 죄가 성소로 옮겨졌을 뿐이었다. 죄인은 피를 드림으로써 그가 율법의 권위를 시인하고 자기가 범한 죄를 고백하고 장차 오실 구속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용서를 바라고 있다는 자신의 소원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가 율법의 선고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회중에게서 받은 제물을 취하여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바로 율법을 넣어둔 법궤의 뚜껑에 해당되는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뿌려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켰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중보자의 자격으로 모든 죄를 자기가 지고 성소에서 그 죄를 옮겼다. 그는 그의 손을 염소의 머리 위에 얹어 그 모든 죄를 고백함으로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 죄를 자기 자신에게서 염소에게로 옮겼다. 그 후에 그 염소는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것으로써 죄가 영원히 백성에게서 분리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상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으로 행한 의식이었다. 그런데 지상 성소에서 모형으로 행한 일은 하늘 성소의 봉사에서 실제적으로 행해진다.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신 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당신의 사업을 시작하셨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히 9:24) 라 말한다.

성소와 성막 뜰을 갈라놓고 문의 역할을 했던 "휘장 안", 곧 성소의 첫째 칸에서 일 년 내내 행한 제사장의 봉사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행하신 봉사 사업을 나타낸다.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의 피를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도와 함께 올라간 향을 피우는 것은 매일의 봉사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당신의 피를 가지시고 아버지께 탄원하며, 회개한 신자들의 기도를 당신의 귀중한 의의 향기와 함께 그분 앞에 드리신다. 그와 같은 것이 하늘 성소의 첫째 칸에서 행하는 봉사 사업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갔다. 그들은 그들의 소망을 거기 집중시켰다. 그 소망에 대하여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 6:19, 20, 9:12).

약 1800 년 동안 성소의 첫째 칸에서 이 봉사 사업이 계속되었다. 회개한 죄인들은 그들을 위하여 애소하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얻고 아버지께 가납되었으나 그들의 죄는 여전히 기록 책에 남아 있었다. 모형적 봉사에서 일 년의 마지막에 속죄 사업이 있었던 것처럼, 인류의 구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업이 마치기 전에 성소에서 죄를 도말하기 위한 속죄

사업이 있게 된다. 그것은 2300 주야가 끝났을 때 시작된 사업이다.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바와 같이 그때에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가장 엄숙한 부분인 최후의 봉사, 곧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을 수행하고 계신다. 구약 시대에 백성들의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 제물에게로 옮겨지고 그 제물의 피를 통하여 죄는 상징적으로 다시 성소로 옮겨졌던 것처럼 새 언약에는 회개한 자의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실제적인 하늘 성소로 옮기셨다. 그런데 마치 모형적 지상 성소의 정결이 그것을 더럽혀 왔던 죄를 도말함으로 되었던 것처럼 하늘 성소의 실제적인 정결도 거기에 기록된 죄를 도말하거나 제거해 버림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누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속죄의 혜택들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록책을 조사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소의 정결에는 조사하는 일, 곧 심판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실 상급을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계 22:12 참조).

예언의 말씀의 빛을 따른 사람들이 깨달은 바와 같이 2300 주야가 마치는 1844 년에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재림의 준비로 속죄 사업을 마치기 위하여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동시에 속죄 제물은 희생 제물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가리켰고, 대제사장은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대표하였고, 아사셀은 참으로 회개한 자들의 죄를 마침내 지게 될 죄의 창시자, 사단을 나타냈다.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의 피의 공로를 통하여 성소에서 죄를 도말했을 때, 그는 그것을 아사셀에게 씌워 주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봉사를 마치실 때에 당신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하늘 성소에서 도말해 버리실 때 그분께서는 그 죄를 최후의 형벌을 마땅히 받아야 할 사단 위에 두실 것이다. 또한 아사셀에 해당되는 염소가 무인지경으로 쫓겨나서 다시 이스라엘 회중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처럼 사단도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앞에서 영원히 쫓겨나고 죄와 죄인들이 최후에 멸망할 때 그 존재가 사라질 것이다.

24 장 — 가장 거룩한 곳

성소 문제는 1844 년의 실망의 신비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큰 재림운동을 지도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와 현재의 의무를 가르쳐 줌으로 진리의 전체적인 체계가 상호 연결되고 조화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 보여 주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민과 실망의 밤을 지낸 후 "주를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재림을 바라보았던 사람들도 이제는 기뻐하게 되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상을 주시기 위하여 영광중에 나타나실 것을 고대하고 있었다. 그들의 소망이 깨어졌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고, 그들은 무덤에서 마리아와 함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고 부르짖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다시 지성소 안에서 주님, 곧 미구에 왕과 구주로 다시 오실 자비로운 대제사장을 뵈옵게 되었다. 성소에서 나온 빛은 과거, 현재, 미래를 환하게 비추어 주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착오 없는 섭리로써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사실을 알았다. 초대의 제자들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기별을 비록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하였으나 그 기별을 모든 면에서 정확하게 전하였다. 그 기별을 전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수고는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았다. 다시 "산 소망"이 생겨서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였다.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한 다니엘서 8 장 14 절의 예언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라고 한 첫째 천사의 기별은 다 같이 지성소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 곧 조사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지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악인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재림하시는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다. 착오는 예언적 기간의 계산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2300 주야의 끝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오해에 있었다. 그와 같은 오해 때문에 신자들은 실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예언으로 미리 알려진 모든 것과 성경 중에서 그들이 받을 모든 보증은 다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그들이 바라던 것이 수포로 돌아감으로 슬퍼하고 낙담하던 바로 그 때에 주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 나타나시기 전에 성취되어야 할 사건, 곧 기별을 통하여 미리 예고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임하셨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바와 같이 지상에 임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모형으로 표상된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지성소에 임하셨다. 그 사실을 선지자 다니엘은 그분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앞에 나아왔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는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는 세상으로 온 것을 말하지 않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매" (단 7:13) 라고 하였다. 말라기 선지자 역시 이때의 오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다.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홀연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말 3:1).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도 갑작스럽고도 예기치 못했던 사건이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리로 가시는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주 예수께서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 (살후 1:7, 8) 기 위하여 세상에 나타나시기만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백성들은 아직도 그들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이루어야 할 준비의 과업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게 하는 빛을 받아야 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거기서 봉사하시는 대제사장을 따라감으로 그들에게는 새로운 의무가 밝혀질 것이었다. 또한 교회는 또 하나의 다른 경고의 기별과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이었다.

선지자는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케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케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말 3:2, 3) 고 말한다. 하늘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이 그치게 될 때 세상에 살아 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그들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그들의 품성은 피 뿌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악과의 투쟁에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요한계시록 14 장의 기별에 이 사업이 더욱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일이 완성될 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그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말 3:4) 될 것이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당신의 것으로 받으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 (엡 5:27) 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 때에 교회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벌인 군대같이 엄위" (아 6:10) 가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당신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일 외에, 또한 그분의 재림, 곧 심판을 행하기 위하여 오시는 일을 말라기는 다음과 같이 예언한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삯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말 3:5). 유다도 같은 사건에 대하여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퍅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유 14, 15) 고 말한다. 이러한 임하심과 주님께서 당신의 성전에 임하시는 일은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이다.

다니엘서 8 장 14 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것과 다니엘서 7 장 13 절에 묘사된 대로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앞에 나아가시는 것과 말라기가 예언한 것처럼 주님께서 홀연히 그 전에 임하시는 것 등의 세 가지는 모두 같은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5 장의 열 처녀의 비유에서 직접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랑이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사건이다.

1844 년 여름과 가을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기별이 선포되었다. 그 때에 슬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났다. 곧 한 부류의 사람들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부지런히 준비하는 자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두려운 생각을 가지고 일시적 충동으로 행동하여 진리의 이론에만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결핍되어 있는 자들이었다. 비유에 의하면, 신랑이 올 때에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여기에서 신랑이 오는 것은 잔치보다 먼저 있는 일임을 알려 준다. 그리고 혼인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라를 받으시는 것을 의미한다. 거룩한 성, 곧 그 나라의 수도요 대표인 새 예루살렘은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라고 불리워진다. 천사는 요한에게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계 21:9) 고 말하였다. 선지자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계 21:10) 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신부란 거룩한 성을 대표하며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처녀들은 분명히 교회를 상징한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손님들로 불리고 있다 (계 19:9 참조). 손님이 된 자가 동시에 신부로 대표될 수는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 다니엘이 기록한 대로 하늘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께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실 것인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 (단 7:14; 계 21:2) 은 당신의 나라의 수도, 새 예루살렘을 받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 나라를 받으신 후에 그 나라에서 당신의 상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앉" (마 8:11; 눅 22:30) 아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영광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1844 년 여름에 선포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기별은 무수한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즉시로 오실 것으로 기대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지정된 시기에는 백성들이 기대했던 대로 신랑이 이 세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혼인 예식을 위하여 하늘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로, 곧 당신의 나라를 받으시기 위하여 나아가시었다.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백성들은 직접 그 혼인 예식에 참여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 살고 있는 반면에, 그 혼인은 하늘에서 행해졌기 때문이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 (눅 12:36) 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이 혼인 잔치에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다.

비유에 의하면 혼인 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은 등뿐만 아니라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었다. 성경에서 진리의 지식을 얻은 사람들은 또한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캄캄한 시련의 괴로운 밤에도 참고 기다린 사람들은 더욱 광명한 빛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였고, 그들은 하늘 성소에 관한 진리와 구주의 봉사의 변동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그분을 따라갔다. 또한 성경의 증거를 통하여 같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중보의 일을 필하고 그의 나라를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실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로 표상되어 있다.

마태복음 22 장의 비유에도 결혼에 대한 동일한 상징이 소개되었는데, 거기서도 조사 심판이 혼인 예식보다 먼저 진행될 것을 분명히 나타낸다. 혼인 예식이 있기 전에 왕이 먼저 와서 모든 사람이 다 예복, 곧 어린양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된 흠없는 품성의 옷을 입고 있는지 알기 위하여 손님들을 살펴보게 된다 (마 22:11; 계 7:14 참조). 부족한 것이 발견되는 자는 밖으로 내어 쫓김을 당하지마는 검사한 결과 혼인 예복을 입은 것이 인정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가납하심을 받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 그분의 보좌에 앉을 자격을 얻게 된다. 이와같이 품성을 검사하는 일, 곧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 결정하는 것이 곧 조사 심판이요, 하늘 성소에서 하는 마지막 사업이다.

조사 심판의 사업이 마치고 각 시대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판결이 결정되면, 바로 그 때에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자비의 문은 닫혀질 것이다.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마 25:10) 고 한 간단한 구절에는 구주의 마지막 봉사에서 인류를 위한 구원의 큰 사업이 완성되기까지의 모든 사실이 다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이미 연구한 바와 같이 지상성소의 봉사는 하늘 성소의 모형인데,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의 첫째 칸의 봉사는 마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 (레 16:17) 라고 명령하셨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마지막 봉사를 행하시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셨을 때 첫째 칸의 봉사는 마쳐졌다. 곧 첫째 칸의 봉사가 그쳤을 때 둘째 칸의 봉사가 시작되었다. 모형적 봉사에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성소를 떠나갔을 때 그는 충심으로 죄를 회개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히

제물의 피를 드리고자 하나님 앞으로 들어갔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중보자로서의 첫째 단계의 봉사만을 마치시고 그 사업의 다른 분야에 들어가서 죄인들을 위하여 흘리신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도 탄원하고 계신다.

이 문제가 1844 년의 재림 신도들에게는 이해되지 못하였다. 구주께서 오실 것으로 기대되었던 시기가 지났을지라도 그들은 그분의 재림이 임박한 줄로 여전히 믿고 있었고, 그들은 중대 위기가 이르렀다는 사실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는 인간을 위한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업이 마쳐졌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실제로 오시기 직전에 사람을 위한 은혜의 시기가 마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사람이 은혜의 문 앞에서 두드리고 찾고 부르짖으나 열리지 아니할 시기를 가리켜 주는 성경절들을 볼 때 분명한 것 같았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지금까지 그들이 재림의 때로 알고 기대했던 그 시기가 과연 재림 직전에 있을 시기의 시작이 아닌지가 문제였다. 심판이 가깝다는 경고를 증거하였으므로 그들은 세상에 대한 그들의 할 일을 다한 듯한 느낌을 가졌고, 죄인들의 구원에 대한 마음의 무거운 짐을 벗어 버렸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경건치 않은 자들의 대담하고 모독적인 조롱은 마치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은혜를 저버린 자들에게서 물러간 또 다른 증거인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리하여 이 모든 것들이 저들로 하여금 은혜의 시기가 마쳤다는 것, 곧 그들이 당시에 표현한 대로 "은혜의 문은 닫혔다"는 믿음을 굳게 하였다.

그러나 성소 문제를 연구함으로 더욱 밝은 빛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1844 년에 있은 2300 주야의 끝이 중대한 위기를 특징지었다는 사실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틀림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사람이 과거 1800 년 동안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 그 희망과 은혜의 문이 닫혀진 것은 사실이나 한 다른 문이 열리어 지성소에서 행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을 통하여 죄의 용서가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그리스도의 한 가지 봉사가 마쳐진 것은 또 하나의 다른 봉사를 행하기 위한 일이었을 뿐이었다. 아직도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열린 문"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 오늘날의 교회에 준 말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계 3:7, 8) 고 한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업을 통하여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위대한 속죄사업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뿐이다. 그와 반면에 이 중보 사업이 밝히 가르쳐 주는 빛을 거절하는 자들은 그분께서 중보하시는 혜택을 얻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초림시에 주어진 빛을 거절하고 그분을 구주로 믿지 아니한 유대인들은 그분께서 주시는 용서를 얻을 수 없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당신의 중보 사업의 축복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당신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성소에 들어가셨을 때에도 유대인들은 완전한 암흑 속에 묻힌 채 여전히 무익한 희생 제물과 그 밖의 제물들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었다. 모형과 그림자에 속한 봉사는 이미 끝났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하여 이전에 사용하던 문은 이미 닫혔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의 길, 곧 하늘 성소의 봉사를 통한 길을 거절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을 향해 열려 있던 문은 닫혀졌다. 그들은 참된 희생 제물이시며 하나님 앞에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분의 중보 사업을 통한 축복을 받을 수 없었다. 믿지 아니한 유대인들의 상태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면서도 경솔하고 불신적이며, 우리의 자비하신 대제사장의 사업을 고의적으로 알지 아니하고자 하는 자들의 상태를 예증해 준다. 모형적 봉사에 있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면 온 이스라엘 족속은 성소 주위에 모여서 죄사함을 받고 회중에게서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 지극히 엄숙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하게 하도록 요구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적인 대속죄일에 있어서 우리의 대제사장의 사업을 이해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깨닫는 일이 얼마나 긴요한 일인가!

인류는 하나님께서 자비로써 보내주시는 경고를 거절하고서도 무사할 수는 없다. 노아 시대에는 하늘로부터 한 기별이 이 세상에 주어졌는데, 그 기별을 취급한 태도 여하로 사람의 구원이 좌우되었다. 경고를 거절하였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죄 많은 인류에게서 떠나고, 그들은 마침내 홍수로 멸망을 당하였다. 아브라함 당시에도 은혜는 소돔의 흉악한 주민들을 위하여 더 이상 간원하지 못하였으므로 롯과 그 아내와 두 딸 외에는 모든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멸망되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시대에도 그러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당시의 믿지 않는 유대인에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마 23:38) 고 선언하였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께서는 마지막 시대를 내다보시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할 자들에 대하여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살후 2:10~12) 고 선언하신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거두어 버리시고, 그들을 그들이 좋아하는 기만 가운데 버려두신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므로 빛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빛이 주어질 것이다. 처음에는 재림신자들이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 그들의 참된 입장을 명확히 드러내 주는 성경 구절들이 그들 앞에 전개됨에 따라 그것이 분명하여졌다. 1844 년의 시기가 지나감에 따라 재림의 신앙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큰 시련을 당하였다. 그들의 진정한 입장을 분명히 확인해 주는 일에 관한 한 그들에게 위안과 안도감을 주는 유일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하늘의 성소로 이끌어준 빛이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언적 계산에 대한 이전의 믿음을 버리고 재림운동에 수반되었던 성령의 큰 능력을 인간 혹은 사단의 능력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 무리들은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사실을 굳게 믿고 요동치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다리고 깨어 있어 기도한 결과 마침내 그들의 대제사장께서 다른 단계의 봉사 사업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믿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갔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분명히 이해했으며, 요한계시록 14 장의 셋째 천사의 엄숙한 경고를 받아 온 세계에 전할 준비가 갖추어졌다.

25 장 —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계 11:19). 이 언약궤는 성전의 둘째 칸, 곧 지성소에 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인 지상 성막의 봉사에 있어서, 지성소는 오직 대속죄일에만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열리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였다는 말은 1844 년에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마지막 사업을 하시기 위하여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실 때에 그 지성소가 열린 것을 말한다. 주님께서 지성소의 봉사를 위하여 그 곳으로 들어가실 때 믿음으로 그들의 대제사장을 따라간 자들은 언약궤를 보았다. 성소 문제를 연구함에 따라 그들은 구주의 봉사가 변경된 것을 알게 되었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봉사하시되 당신의 피를 가지고 죄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지상 성막에 있는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 있었다. 언약궤는 율법의 돌판을 넣어두는 궤짝에 불과하였으나 돌판에 새긴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궤는 귀중하고 신성하였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을 때 언약궤가 보였다. 하늘에 있는 성전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의 우레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당신의 손으로 친히 돌판 위에 기록하신 그 십계명이 거룩하게 보관되어 있다.

하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은 원본이며, 돌판에 새겨지고, 모세를 통하여 그의 오경에 기록된 것은 그 원본을 정확하게 옮긴 사본이었다. 이 중대한 점을 이해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하고 변함없는 본질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 5:18) 고 하신 구주의 말씀의 뜻을 전에 없이 강하게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의 계시요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하나님의 율법은 "궁창의 확실한 증인"으로서 영원히 존속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 명령의 하나도 무효가 될 수 없고 그 일점일획이라도 변경될 수 없었다. 시편기자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시 119:89, 111:7, 8). 십계명의 바로 중심에는 그것이 맨 처음 반포될 당시와 마찬가지로 넷째 계명이 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칠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 20:8~11).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창조주의 안식일을 무시하므로 넷째

계명을 범하여 온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을 지키지 않고 어찌하여 주일 중 첫째 날을 지키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십계명 중 넷째 계명이 폐해지고 안식일이 변경되었다는 증거를 성경에서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처음에 제칠일을 거룩하게 한 축복은 그 후에 도무지 바뀌어진 일이 없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고자 정직하게 노력해 왔으므로 그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임을 깨닫게 되자 매우 슬퍼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심을 나타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들의 믿음을 전복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의 과격한 일들이 생겼다. 지상 성소가 하늘 성소의 모형이라면 지상의 언약궤에 넣었던 율법은 하늘에 있는 언약궤 속에 있는 율법의 사본 (寫本) 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한 하늘 성소에 관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율법도 당연히 시인하고 넷째 계명의 안식일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었다. 바로 이것이 하늘 성소에서 행하는 그리스도의 봉사를 나타내 주는 성경 구절에 대한 바른 해석에 대하여 가혹하고 결정적인 반대를 일으키게 한 근본 요인이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열어 주신 문을 닫고, 하나님께서 닫으신 것을 열고자 하였다. 그러나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계 3:7) 그리스도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계 3:8) 고 선언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지성소의 문, 곧 지성소의 봉사를 열어 보여주심으로 하늘 성소의 열린 문으로부터 빛이 흘러나와 넷째 계명이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 율법의 한 부분임이 보여진 바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사람이 넘어뜨릴 수 없었다.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과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성에 관한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것들이 요한계시록 14 장에 제시된 진리임을 발견하였다. 그 장 (章) 의 기별은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지상의 거민들을 준비시키게 될 삼중으로 된 경고의 기별이다 (부록 32 참조).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기별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마지막 봉사를 가르쳐 준다. 그것은 구주의 중보 사업이 마치고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데리러 세상으로 돌아오시기까지 선포되어야 할 진리를 말해 준다. 1844 년에 시작된 심판은 모든 사람, 곧 산 자와 죽은 자의 판결이 끝날 때까지 인류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기가 마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심판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이 기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그들에게 명한다. 이 기별을 받아들인 결과가 다음의 말씀에 주어져 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여기 있나니. 심판에 설 준비를 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 계명은 심판의 때에 품성의 표준이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곧...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 (롬 2:12~16) 라고 말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믿음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 11:6), "범사에 믿음으로 아니하는 것은 죄" (롬 14:23) 이기 때문이다.

인류는 첫째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사람이 이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 12:13) 고 말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떤 예배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요일 5:3),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잠 28:9).

하나님을 경배할 의무는 그분께서 창조주가 되시며 만물이 그분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둔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방의 신들보다 나으며 존경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기록할 때마다 반드시 그분의 창조력의 증거를 들어 말한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시 96:5).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사 40:25, 26),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사 45:18). 또한 시편 기자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시 100:3),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시 95:6) 고 말한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무리들도 하나님께 존경을 표해야 할 당연한 이유에 대하여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계 4:11) 고 말한다.

요한계시록 14 장은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인류에게 요구함과 동시에 그 예언은 삼중 기별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한 단체를 보여 준다. 그 계명 중의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직접적으로 알려 준다. 넷째 계명은 "제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칠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 20:10, 11) 고 말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관하여 "이것이...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겔 20:20) 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칠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출 31:17) 고 한다.

"창조의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의 중요성은 그날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항상 가르쳐 주는 데 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기초가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위대한 진리를 가장 감명적으로 가르쳐 주고 그 밖의 다른 제도는 이와 같이 가르쳐 주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제칠일의 예배뿐 아니라 모든 예배의 진정한 기초는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하는 데서 나타나게 된다. 이 큰 진리는 결코 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잊어버려서도 안 된다" (J.N.Andrews, History of the Sabbath, Chap17).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이 진리를 항상 사람들의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자 함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시므로, 우리가 그분을 경배해야 한다는 진리가 존속하는 한 안식일도 또한 그 증거와 기념으로 존속되어야 한다. 만일 인류가 오늘날까지 안식일을 지켜 왔을 것 같으면 그들의 생각과 애정이 창조주께 집중되어 주님께서는 존경과 예배의 대상이 되셨을 것이며 우상숭배와 무신론자와 회의론자가 결코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안식일 준수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참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표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기별은 인류에게 특별히 넷째 계명을 지키라는 요구가 될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과 대조되는 다른 무리들을 지적하여 그들의 잘못을 다음과 같이 엄숙하고 무섭게 경고한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 (계 14:9, 10) 라. 이 기별을 이해하려면 여기에 사용된 표상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요긴한 일이다. 짐승, 우상, 표 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여러 표상들에 관한 예언은 요한계시록 12 장에서 그리스도를 탄생 즉시 죽이려고 한 용으로부터 시작된다. 용은 사단이라고 불리고 있다 (계 12:9 참조). 사단은 구주를 죽이기 위하여 헤롯의 마음을 충동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최초의 몇 세기 동안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들에게 도전한 사단의 주된 대리자는 로마 제국이었으며, 이교가 그 나라에서 압도적 세력을 가진 종교였다. 그러므로 용은 원래 사단을 대표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또한 2 차적인 의미에서 이교 로마를 상징한다.

13 장 1~10 절에는 또 다른 짐승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것은 "표범과 비슷하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표상은 많은 개신교도들이 믿는 바와 같이 일찍이 고대 로마 제국이 잡고 있던 그 능력과 위와 권세를 계승한 법왕권을 대표한다. 표범과 비슷한 이 짐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하는 입을 받고...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훼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훼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라. 다니엘서 7 장에 기록된 작은 뿔의 기사와 거의 같은 이 예언은 틀림없이 법왕권을 가리키고 있다.

"또 마흔두 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리고 선지자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라고 말한다. 그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라고 하였다. 마흔두 달은 다니엘서 7 장에 있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곧 삼년 반, 1260 일과 같은 기간으로서 그것은 법왕권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기간이다. 그 기간은 전장 (前章) 들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법왕권이 최상권을 잡은 서기 538 년부터 1798 년까지의 기간이다. 1798 년에 법왕이 프랑스군에게 사로잡혀 법왕권은 치명상을 입었으므로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었다.

여기에서 또 다른 상징이 소개되고 있다. 선지자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 (계 13:11) 다고 말한다. 그 짐승의 모양과 나타나는 상황을 볼 때 그것이 표상하는 나라는 이미 나타났던 상징들이 대표한 세력들과는 같지 않다. 세계를 지배한 강국들은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 (단 7:2) 때에 올라오는 맹수들로 선지자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요한계시록 17 장에서 한 천사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계 17:15) 고 설명하였다. 바람은 전쟁을 표상한다. 그리고 네 바람이 바다에 크게 몰려 부는 것은 모든 나라에서 세력을 잡기 위하여 일어나는 정복과 혁명의 무서운 장면을 표상한다. 그러나 새끼양과 같이 두 뿔을 가진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다. 이와 같은 모양으로 표상된 나라는 자기 스스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른 세력을 넘어뜨리는 대신, 일찍이 아무에게도 점령된 일이 없는 지역에서 일어나서 점진적으로 또한 평화롭게 자라난 나라이어야 한다. 그것은 인구가 많고 전란이 그칠 사이 없는 구대륙의 나라들, 곧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로 이루어진 거친 바다에서 일어나는 나라는 될 수 없다. 그 나라는 서반구의 대륙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1798 년에 어떠한 나라가 신대륙에서 위대한 미래를 예상시키면서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가운데 일어났는가? 이 표상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매우 명백하다. 이 예언과 모든 점에 있어서 부합되는 한 나라, 오직 한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곧 북미 합중국이다. 역사가와 평론가들은 이 나라의 기원과 성장을 묘사할 때 무의식중에 이 성경 기자의 사상을 거의 그대로 되풀이해서 사용하였다.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다고 되어 있는데, 해석자들이 여기에서 사용한 말을 풀이한 데 의하면 이 "올라온다"는 말은 글자 그대로 "식물이 자라나거나 움터 올라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나라는 일찍이 어떤 다른 나라로 말미암아 점령된 일이 없는 지역에서 일어나야 한다. 어떤 유명한 저술가는 북미합중국의 기원을 기술하면서 "빈터에서 일어난 이 나라의 신비"라고 말하고, 또한 "우리는 소리 없는 종자와 같이 자라나서 큰 나라가 되었다" (G.A.Townsend, The New World Compared With the Old, p162) 고 말한다. 1850 년에 유럽의 한 잡지는 합중국을 위대한 제국이라고 말하고, 그것은 "땅의 침묵 속에서 나와서 날마다 세력과 힘을 첨가시키고 있다" (The Dublin

Nation) 고 하였다. 에드워드 에베레트는 그 나라의 설립자들인 필그림에 대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은 라이든의 작은 교회가 양심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곳, 한적한 장소, 남이 모르는 궁벽한 곳, 멀리 떨어져서 안전한 곳을 찾았던 것이 아닌가? 보라, 평화롭게 정복한 그 광대한 지역을, 그들은 거기다가 십자가의 깃발을 세웠던 것이다" (Speech delivered at Plymouth, Massachu-setts, Dec12, 1824, p11).

"새끼양 같이 두 뿔이 있고." 그 두 뿔 가진 새끼양 같은 짐승은 어리고 순진하고 온순한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선지자가 "올라"오리라고 말한 그대로 1798 년에 나타난 합중국의 성격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다. 아메리카로 피하여 와서 거기서 왕의 압박과 신부들의 박해에서 피난처를 얻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정치와 종교의 자유를 큰 기초로 삼는 정부를 세우기로 결심한 자들이 많았다. 그들의 견해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큰 진리를 밝혀 주는 독립 선언서에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헌법은 자치의 권리를 국민에게 보증하고 일반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들이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신앙의 자유가 인정되어 각 사람은 자기 양심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허용되었다. 공화 정체 (共和政體) 와 개신교의 원칙이 국가의 기본 원칙이 되었다. 그 원칙들이 능력과 번영의 비결이 된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교국에서 압박과 억압을 당하던 사람들이 동경과 희망을 가지고 이 나라로 이주하여 왔다. 수백만명이 이 나라에 상륙하여 합중국은 세상의 가장 강력한 나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새끼양과 같은 뿔이 있는 짐승이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계 13:11~14) 고 한다. 새끼양과 같은 뿔과 용과 같이 말하는 소리는 그 표상하는 나라가 공언하는 바와 실제적 행동이 놀라울 만큼 모순됨을 가리킨다. 한 국가가 "말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입법과 사법상 권위를 행사함을 의미한다. 그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그 나라가 일찍이 국시 (國是) 로 공포한 자유와 평화의 원칙이 허위임을 증명한다. "용처럼 말"하고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쓴다는 예언은 그 나라가 일찍이 용과 표범과 같은 짐승으로 표상된 나라들이 나타낸 편협한 정신과 박해의 정신을 드러낼 것을 명백히 예언하고 있다. 그리고 이 두 뿔 가진 짐승이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고 한 말은 이 나라가 법왕권에게 경의를 표하게 할 어떤 도를 강요하는 일에 그 권위를 행사할 것을 나타낸다.

그와 같은 행동은 그 정부의 원칙과 자유 제도의 정신과 또한 엄숙하고 명백한 독립 선언과 헌법에 배치되는 일이다. 미국의 건국자들은 교회의 일에 세속적 권력을 사용할 때 필연적으로

초래되는 편협과 박해를 일으키지 않기 위하여 현명하게 노력하였다. 그 나라의 헌법에는 "국회는 종교의 설립이나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지 못하며", "합중국의 어떤 공직의 관리에 속한 자격으로 종교적 조건을 요구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어떠한 경우에든지 국권으로 종교의 신봉을 강요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에 대한 안전책을 무시하고 유린하는 데 불과하다. 그러나 그 표상에 있어서는 가장 큰 모순이 나타나 있다. 이 새끼양 같이 두 뿔을 가진 짐승, 곧 순결하고 온순하고 해를 끼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 짐승이 실상은 용처럼 말한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기에 입법권이 국민에게 있는 정부의 형태가 분명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그것은 북미 합중국이 예언에 나타난 바로 그 나라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

그러면 "짐승의 우상"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그것은 두 뿔 가진 짐승이 만들게 되며, 처음 짐승에 대한 우상이 된다. 그것은 또한 "짐승의 우상"이라고 불린다. 그런데 이 우상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그 짐승 자체, 곧 법왕권의 특징에 대하여 연구하여야 한다. 초대 교회가 복음의 단순함에서 떠나 이교의 의식과 풍습을 받아들임으로 부패하여지자 그 교회는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되자 그 교회는 사람의 양심을 지배하기 위하여 세속적 권력의 도움을 구하였다. 그 결과로 국권을 지배함과 동시에 그 권력을 자기의 목적, 곧 이른바 이단 박멸을 위하여 사용한 교회인 법왕권이 설립되었다. 합중국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면 반드시 종교적 세력이 정부를 지배하고 교회가 그 자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국가의 권력을 또한 사용하게 되어야 한다.

교회가 세속적 권세를 잡을 때에는 언제나 그 권세를 자기 교리를 반대하는 자를 처벌하는 데 사용하였다. 세상의 권력과 야합하여 로마교가 간 길을 따라간 개신교회들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유사한 욕망을 나타내 왔다. 영국 국교회가 오랫동안 계속하여 자기 교회를 반대하는 자들을 박해한 것은 그것에 대한 한 가지 실례가 된다. 실로 16, 17 세기 동안에 국교도가 아닌 무수한 전도자들은 그들의 소속 교회를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목사나 일반 신도를 막론하고 과료, 투옥, 고문, 순교를 당하게 되었다. 초대 교회가 세상 정부의 도움을 구한 것은 배교였으며 그것이 짐승, 곧 법왕권이 발전되는 길을 마련하였다. 바울은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 (살후 2:3) 라고 말하였다. 그와 같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배도가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1 세기에 나타났던 것과 똑같은 교회의 타락 상태가 주님의 재림 전에 나타날 것을 말한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훼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딤후 3:1~5) 라.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딤전 4:1). 사단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는 모든 자는 "거짓 것을 믿게 하"는 미혹에 빠지도록 버려둔 바 될 것이다 (살후 2:9~11). 이와 같이 불경건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1 세기에 나타났던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개신교 각 교회 간에 존재하는 신조의 큰 차이야말로 강요된 통일성을 이룩하려는 노력이 결코 경주될 수 없으리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았다. 그러나 지나간 여러 해 동안 개신교 각 교회에서는 공통적인 교리를 근거로 한 일치 연합을 원하는 여론이 강하게 자라났다. 그와 같은 연합을 이루려면, 그것이 설혹 성경상 관점에서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한 문제들에 관한 토의는 필연적으로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찰스 비처는 1846 년에 한 설교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신교 각 교파의 성직자들은 인간적 두려움에 속한 심한 압력에 눌려 있을 뿐 아니라 완전히 부패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움직이고, 숨 쉬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언제나 그들의 온갖 비열한 성질에 끌려서 진리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배교의 세력에게는 무릎을 꿇어 절하고 있다. 이것이 로마교회가 간 길이 아니었던가? 우리는 그의 간 길을 다시 걷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바로 앞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것은 전체적 회의요, 세계적 대회의 개최이다! 선교 동맹이요, 일반적인 신조의 제정이다" (Sermon on "The Bibble a Sufficient Creed", delivered at Fort Wayne, Indiana, Feb12, 1846). 이 일이 성취되면, 완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한 단계로서 취할 유일한 방법은 강제 수단이다.

합중국의 주요한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교리에 의하여 서로 연합하여 그 국가로 하여금 자기들의 교령 (敎令) 을 강제로 실시하게 하고, 그들의 제도를 강압적으로 유지하려는 때가 이르면, 그 때에 개신교 미국은 로마교적 교권 정치의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 필연적 결과로서 이에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법률적 형벌을 과하게 될 것이다. 그 두 뿔 가진 짐승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계 13:16, 17) 한다. 그런데 셋째 천사의 기별은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 기별에서 말한 짐승, 곧 두 뿔 가진 짐승이 경배하라고 강요하는 그 짐승은 요한계시록 13 장의 첫째 짐승, 곧 표범같은 짐승인 법왕권이다.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를 나타낸다. "짐승의 표"는 해명되어야 할 여지가 여전히 있다.

예언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경고한 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를 대조적으로 기록한 것을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와 짐승을 경배하는 자의 구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범하는 데 있는 것이 분명하다. 짐승의 특징과, 동시에 그 우상의 특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는 것이다. 다니엘은 작은 뿔 곧 법왕권에 대하여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라" (단 7:25) 고 말한다. 바울은 그 동일한 세력을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고자 한 "불법의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 두 예언은 서로 보완해 준다. 법왕권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킴으로써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일 수 있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와 같이 변경된 율법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준수하는 자는 그 율법을 변경시킨 자에게 최상의 영광을 돌리는 셈이다. 이와 같이 법왕권의 율법을 순종하는 행위는 하나님 대신에 법왕에게 순종하는 표가 되는 것이다.

법왕권은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키고자 하였다. 우상 예배를 금지하는 둘째 계명은 율법에서 제하여 버리고,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제칠일 대신에 제일일의 준수를 인정하는 것처럼 고쳐 버렸다. 그러나 법왕교도들은 둘째 계명을 삭제한 이유에 대하여 그것이 첫째 계명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하다는 것과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해시키고자 원하시는 그대로 율법을 마련해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것은 선지자가 예언한 변경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계획적이요 고의적으로 변경하는 일이 있을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라. 넷째 계명의 변경은 바로 이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이다. 이러한 변경에 대하여 그들이 주장하는 유일의 권위는 교회의 권위이다. 이 점에서 법왕의 권세는 그 자신을 하나님보다 공공연하게 더 높이고 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창조력의 표징이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존경과 경배를 요구하시는 증거가 되는 넷째 계명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로써 그들의 특징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반면에,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은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짓밟고 로마교가 만든 제도를 높이고자 노력함으로 그 특징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법왕이 처음으로 자기의 그 거만한 주장을 하게 된 것은 일요일을 위함이었고 (부록 33 참조), 또한 국가의 권력에 의뢰한 것도 사실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도록 강요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성경에 주일이라고 한 것은 제칠일을 가리킨 것이요, 제일일을 가리킨 것이 결코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고 말씀하셨다. 넷째 계명에는 "제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그날을 "내 성일"이라고 하신다 (막 2:28; 사 58:3).

안식일을 그리스도께서 변경하신 것처럼 흔히 주장하는데, 그러한 주장의 그릇됨은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으로 증명된다. 주 그리스도께서는 산상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 5:17~19).

안식일의 변경에 관하여 성경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은 개신교도들이 일반적으로 시인하는 사실이다. 미국 전도 문서 협회와 미국 주일 학교 연맹에서 발행한 출판물들에는 그 사실이 분명히 밝혀져 있다. 그 중의 한 책은 "신약 성경에는 안식일 [일요일, 주일 중 첫째 날]에 대하여 아무런 분명한 명령이 없고, 그날을 지키는 일에 대하여 확실한 규정도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 (George Elliott, The Abiding Sabbath, p184) 고 말하였다. 또 다른 한 책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기까지는 그날 (안식일을 가리킴) 에 관하여 아무런 변경도 없었다. 또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사도들이 제칠일 안식일을 폐지하고, 그 대신에 주일 중 첫째 날을 지키라고 명령한 아무 확실한 말도 한 일이 없다" (A.E.Waffle, The Lord's Day, pp186~188).

로마 천주교는 그들의 교회가 안식일을 변경시켰다는 사실을 시인하며, 개신교가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그들의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천주교 교리 문답" (Catholic Catechism of Christian Religion) 은 넷째 계명에 따라 지켜야 할 날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구약 시대에는 토요일이 성별된 날이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고 성령의 지도를 따른 교회는 일요일로 토요일을 대신하게 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제칠 일이 아닌 제일 일을 성별한다. 지금은 일요일이 주의 날을 의미한다." 천주교회의 저술가들도 그 교회의 권위의 표로 "안식일을 개신교도들도 시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요일로 변경한 그 사실"을 들어서 말하며, "개신교도들도 일요일을 지킴으로써 교회가 모든 축제일을 제정하고, 사람들을 정죄할 권세가 있음을 시인하는 것이라" (Henry Tuberville, An Abridgment of the Christian Doctrine, p18) 고 말한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변경이야말로 로마교회의 권위의 표, 곧 짐승의 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로마교회는 아직까지 자신의 최상권에 대한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다. 그리고 세상 사람과 개신교회들은 성경상 안식일을 부인하는 한편 로마교가 제정한 안식일을 받아들임으로 사실상

이 주장을 시인하고 있다. 그들은 이와 같은 변경을 전통의 힘이나 교부들의 능력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결국 로마교와 그들을 분리시키는 바로 그 원칙, 곧 "성경, 오직 성경만이" 개신교의 신앙이라는 원칙을 무시하게 된다. 법왕교도들은 개신교도들이 이 사실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눈을 감고 스스로 속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일요일을 강요하는 운동이 세력을 얻게 되면 개신교 전체가 로마교의 깃발 아래 서게 될 것을 확신함으로 법왕교는 매우 기뻐한다.

로마교도들은 "개신교도들의 일요일 준수는 그들이 어떠한 말을 하든지간에 교회 (천주교)의 권위에 존경을 표하는 일이다" (Mgr.Segur, Plain Talk About the Protestantism of Today, p113) 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개신교측의 일요일 준수의 강요는 법왕권, 곧 짐승에 대한 경배를 강요하는 일이다. 넷째 계명의 요구를 알면서 참 안식일 대신에 거짓 것을 지키기로 선택하는 자들은 그 거짓 것을 지키도록 명령한 권위에 경배하는 셈이다. 그러나 세속적 권력을 가지고 종교적 의무를 강요하는 바로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교회들은 스스로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북미 합중국이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것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일이 된다.

그러나 지난 여러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성경상 안식일을 지키는 줄로 믿고 일요일을 지켰다. 그리고 오늘날도 로마 천주교를 포함한 각 교회에는 일요일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인 줄 진심으로 믿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진실한 마음과 또한 당신 앞에 나타내는 그들의 성실성을 인정하신다. 그러나 법률로써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고 진정한 안식일 준수에 관한 사실이 온 세계에 밝혀질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로마교의 명령과 다름이 없는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로써 하나님보다 법왕을 높이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로마교에 복종하고 로마교가 제정한 제도를 강제로 시행하는 권세에 복종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의 표가 된다고 선언하신 제도를 버리고 그 대신에 로마교가 자기의 최상권의 표로 택한 것을 높일 때에 그것으로써 그들은 로마교에 복종하는 표, 곧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이제 문제는 극히 분명해졌으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느냐 사람의 계명을 순종하느냐 하는 문제 중 어느 한 편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해서 범하는 자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인류에게 지금껏 주어진 가장 두려운 경고가 셋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되어 있다. 자비가 섞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것은 무서운 죄임에 틀림없다. 이처럼 중대한 문제에 관하여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죄악에 관한 경고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온 세계에 전파되어 모든 사람들이 어찌하여 저희가 형벌을 받아야 하는지, 또 어찌하면 그것을 피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어야 한다. 예언은 첫째 천사가 그 기별을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것이라고 한다. 삼중 기별의 한 부분인 셋째 천사의 기별 역시 그것과 같은 범위로 전파되어야 한다. 예언에는 공중에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전파할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반드시 세계의 주목을 끌게 될 것이다. 쟁투의 결과로 온 그리스도교국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은 자들의 두 종류로 나뉠 것이다. 비록 교회와 국가가 그들의 권력을 연합시켜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 (계 13:16) 에게 강제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그것을 받지 않을 것이다. 밧모 섬의 선지자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 (계 15:2, 3) 를 부르는 것을 보았다.

26 장 — 개혁 사업

마지막 시대에 성취될 안식일 개혁 사업이 이사야서에 다음과 같이 예언되어 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였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 (사 56:1, 2, 6, 7) 라. 이 말씀이 신약 시대에 적용된다는 것은 그 글의 전후 관계를 보면 분명하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사 56:8). 여기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모이게 될 것이 예시되어 있다. 그리고 안식일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선포되어 있다. 그와 같이 넷째 계명을 지킬 의무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 만민에게 복음의 기별을 전하는 때에도 여전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동일한 선지자를 통하여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사 8:16) 고 명하신다. 하나님의 율법의 인은 넷째 계명에서 발견된다. 십계명 중 넷째 계명만이 율법을 주신 분의 이름과 직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 넷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심을 선포하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존경과 예배를 받을 권리가 그분에게 있음을 보여 준다. 넷째 계명 외에는 누구의 권위로 이 율법이 반포되었는지 십계명에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법왕권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이 변경되자 율법에서 인 (印) 이 제거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넷째 계명을 창조주의 기념 혹은 그분의 권위의 표로 올바른 위치에 회복시키라는 부름을 받고 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온 세계에 서로 용납될 수 없는 교리와 일들이 많은 때에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의견과 교리와 이론을 검토하는 데 사용되는 착오 없는 하나의 표준이다. 선지자는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히 아침빛을 보지 못하" (사 8:20) 리라고 말한다. "또한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는 명령이 주어져 있다. 허물에 대하여 견책을 받아야 할 자들은 사악한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하기를 즐겨" (사 58:1, 2) 한다고 말씀하신다. 여기에 자신들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특별한 흥미를 나타내는 것 같은 한 단체가 보인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 당신의 계명을 유린하고 있는 자라고 단호하고도 엄숙한 견책을 하신다.

선지자는 또한 오랫동안 버려두었던 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치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사 58:12~14). 이 예언은 또한 우리 시대에도 적용된다. 로마교의 권위로 말미암아 안식일이 변경됨으로 하나님의 율법에는 무너진 데가 생겼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가 회복되어야 할 때가 왔다. 무너진 데는 수보되고 역대의 기초는 복구되어야 한다.

창조주께서 쉬시고 축복하심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안식일은 거룩한 에덴에서 죄 없이 살던 아담이 지켰고, 낙원에서 쫓겨난 아담이 타락한 상태에서 회개한 후에도 준수하였다. 아벨로부터 의로운 노아, 아브라함, 야곱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조상들이 그날을 지켰다. 택한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주위에 편만한 우상숭배의 풍조에 휩쓸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구원하여 내실 때 그분께서는 집결되어 있는 무리들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 주고 영원히 당신을 두려워하며 순종하게 하시고자 놀라운 영광 가운데서 당신의 율법을 선포하셨다. 그 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지식은 이 세상에 보존되어 왔고, 넷째 계명의 안식일은 지켜져 왔다. 비록 "죄악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일을 유린하는 데 성공하였을지라도 그의 최상권의 시대에 있어서까지도 은밀한 장소에 숨어서 성일을 거룩히 지킨 충실한 사람들이 있었다. 종교 개혁 시대 이래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날을 지키는 어느 정도의 무리가 반드시 있었다. 때때로 박해와 조소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과 창조의 안식일에 대한 신성한 의무가 항상 증거되어 왔다.

"영원한 복음"과 관련하여 요한계시록 14 장에 제시된 이 진리들은 재림시대의 그리스도 교회의 특징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삼중 기별이 전파된 결과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선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재림 전에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기별이다. 그 기별이 전파된 후에 인자가 이 세상의 추수를 위하여 영광 중에 오실 것이 선지자에게 보여졌다. 성소와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에 관한 빛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이해하게 된 그 진리의 체계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보고 경탄하고 기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에게 그처럼 귀중하게 보였던 빛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열망하였다. 그들은 그것이 즐거이 받아들여질 것을 확신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세상과 반대되는 입장에 서게 하는 그 진리를 환영하지 아니하였다. 십계명의 넷째 계명을 순종하면 희생이 요구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돌아섰다.

안식일에 대한 의무가 제시되면 많은 사람들은 세속적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언제나 일요일을 지켜왔다. 우리의 조상들도 그날을 지켰다. 경건하고 선량한 많은 사람들이 그날을 지키다가 행복하게 죽었다. 그것이 그들에게 옳은 일이었다면 우리에게도 옳은 일이다. 그런데 이 새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필연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조화가 깨어져 그들에게 아무런 감화도 줄 수 없게 될 것이다. 제칠일을 지키는 하나의 작은 단체가 일요일을 지키고 있는 온 세계를 대항하여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은 논법으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일을 정당화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가납하심을 받았는데 그 자손들이 그와 동일한 길을 따름으로 구원을 얻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루터 당시의 법왕교도들은 참 그리스도인들이 천주교의 신앙을 가지고 죽었으므로 그 신앙이야말로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그와 같은 이론은 종교적 신앙과 행위의 발달을 효과적으로 방해하는 것임이 입증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여러 세기 동안에 확립된 교회 전반의 관습이요 교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안식일과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더욱 오래된 일이요 더욱 널리 보급되었던 일이며, 세상 그 자체만큼 오래된 것이요 하나님과 천사들이 다같이 인정한 것이다. 세상의 기초가 놓이고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할 그 때에 안식일의 기초도 놓였다 (욥 38:6, 7; 창 2:1~3 참조).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제도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것은 사람의 권위로 제정되거나 사람의 전통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그분의 영원한 말씀으로 명령되었다.

사람들의 주의가 안식일 개혁 문제로 쏠리게 되자 일반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의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잘 진정시키는 방향으로 성경의 증언을 해석하였다. 그러자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맞는 그 결론을 받아들이는 데 만족해 버렸다. 많은 사람들은 이론, 궤변, 교부들의 유전, 교회의 권위 등으로 그 진리를 뒤집어 버리고자 애를 썼다. 그러나 안식일 진리를 옹호하는 자들은 오직 성경만으로 넷째 계명의 진실성을 수호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비천한 사람들이었으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학자들의 공격을 대항하였다. 그런데 학자들은 그들의 웅변적인 궤변을 가지고서는 학계의 교묘한 이론보다는 성경에 정통한 그 사람들의 솔직하고 기탄없는 논증에 대항할 힘이 없음을

깨닫고 화를 내면서도 한편으로 경탄해 마지아니하였다. 그들에게 유리한 성경의 증언이 없음을 깨닫자 많은 사람들은 일찍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에게 똑같은 논법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잊어버리고 완고한 태도로 다음과 같이 부르짖었다. “왜 우리 편의 큰 인물들이 이 안식일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가? 너희와 같이 믿는 자는 극히 소수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바르고 세상의 모든 학자들이 다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와 같은 말을 반박하는 데는 성경의 교훈과 주님께서 각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취급하신 역사를 언급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필요하다면 세상이 싫어하는 진리라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세상에 보편화되어 있는 죄악을 견책하기를 꺼리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신다. 흔히 하나님께서 학자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를 개혁 운동의 지도자로 택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저희의 신조와 이론과 신학적 체계 등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오직 지혜의 근원되시는 하나님과 개인적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만이 성경을 이해하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 그다지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자가 때때로 진리를 전파할 사명을 받는 것은 그들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겸비하게 하여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쁘게 받은 연고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게 되므로 그들의 겸손과 순종이 그들을 위대하게 만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리의 지식을 그들에게 맡길 때 그들에게 영광을 주셔서 세상의 어떠한 명예와 인간적 위대함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해주신다.

그런데 재림신자들의 대다수는 성소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진리를 거절하였으며,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재림운동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버리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예언에 대하여 근거가 불충분할 뿐 아니라 모순되는 견해를 받아들였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일을 거듭해서 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이제 성소 문제를 비추어 주고 있는 빛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미치는 예언적 기간은 전혀 없으며 이 사건에 관한 정확한 시일도 예언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 주었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빛에서 돌아서서 주님의 오시는 날을 계속해서 정하였으며 그 때마다 그들은 거듭거듭 실망을 당하였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그릇된 견해를 받아들였을 때 사도 바울은 그들의 희망과 기대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엄밀히 검토하라고 권고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사건들을 알려 주는 예언들을 인용하여 그들의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밝히 알려 주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살후 2:3) 는 말씀이 그의 경고였다. 만일 그들이 성경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한다면 그들의 행동은 그릇된 데로 이끌려가게 되고, 실망으로 불신자들의 조소를 사게 되고 낙담하는 위험에 빠져 결국에는 그들의 구원에 필수적인 진리까지도 의심하도록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준 사도의 권고에는

말세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중요한 교훈이 포함되어 있다. 많은 재림신자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분명한 시간에 그들의 신앙을 두지 아니하면 준비하는 일에 열렬해지거나 부지런해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의 희망이 아무리 여러 번 생겨날지라도 그 때마다 그것이 무너져 버린다면 그들의 믿음은 결국 예언의 큰 진리를 거의 깨달을 수 없으리 만큼 타격을 받게 된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면서 심판에 대한 분명한 시기를 전파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었다.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근거가 되는 예언적 기간의 계산, 곧 1844 년 가을에 2300 주야가 마친다는 사실은 아무 의심 없이 입증된다. 그러나 예언적 기간의 시작과 끝에 관한 새로운 날짜를 발견하고자 거듭거듭 노력하고 그와 같은 입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부당한 이론을 세우는 일은 사람들의 마음을 현대 진리에서 떠나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예언의 해석을 위하여 기울인 모든 노력을 모독하는 일이다. 재림에 대한 분명한 시간을 정하는 일은 하면 할수록 또한 그와 같은 가르침이 널리 보급되면 될수록 더욱 사단의 목적에 잘 부합될 뿐이다. 그 시기가 지나가자 사단은 재림을 주장하던 사람들을 조롱하고 모독하도록 자극하여 1843 년과 1844 년에 있은 큰 재림운동에 치욕을 끼친다. 그리하여 그 오류를 고집하던 사람들은 마침내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나치게 먼 장래에 속한 일로 결정할 것이다. 그들은 그릇된 안일에 빠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은 기회가 다 지나갈지라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는 재림신도들의 과거의 경험을 설명해 주는 좋은 실례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처럼 재림운동에 있어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큰 실망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은 옛날 홍해에서 히브리 사람들처럼 시험을 당하였다. 과거의 경험에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을 신뢰했었더라면 그들은 정녕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을 것이다. 1844 년의 운동에 일치 합력하여 활동했던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전파하였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노력을 통하여 크게 역사하셨을 것이다. 빛이 흘러나와서 온 세계를 환하게 비췄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벌써 여러 해 전에 지상 거민들에게 대한 경고는 끝나고 마지막 사업은 완성되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 년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똑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거기서 그들이 거룩하고 행복한 백성으로 정착하게 하시고자 바라셨다. 그러나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 (히 3:19) 하였다. 배반하고 배교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죽고 그 대신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서 허락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처럼 지체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슬픔의 세상에 그처럼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나 불신은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일을 거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들이 그 기별을 전파하기 위하여 일으킴을 받았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대한 자비로써 죄인들에게 경고를 받을 기회를 주어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기 전에 당신 앞에서 피할 곳을 찾게 하시고자 당신의 오심을 지연시키신다.

지나간 시대에서처럼 오늘날도 이 시대의 죄와 오류를 책망하는 진리를 증거하면 반대를 당할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요 3:20). 사람들이 성경으로 그들의 입장을 지탱할 수 없음을 알게 되자 많은 사람들은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것을 지탱하기로 결심하고 인기가 없는 진리를 옹호하는 자들에 대하여 악의로써 그 인격과 동기를 공격한다. 이러한 일은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있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는 말을 들었고 예레미야는 배반자라는 욕을 들었고 바울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는 무고를 당하였다. 그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진리에 충성하는 자들은 치안을 문란케 하는 자, 이단자, 분열을 좋아하는 자라는 등의 비난을 받아왔다. 예언의 확실한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유행을 따르는 죄를 담대하게 책망하는 자들에게 대한 비난과 공격을 의심 없이 믿어 버린다. 이런 정신은 더욱더 증가될 것이다. 성경은 장차 국가의 법령과 하나님의 율법이 서로 상치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는 자는 누구든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비난받고 벌을 받을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밝히 알려 주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진리를 전하는 자의 의무가 무엇인가? 진리를 전하는 결과로 사람들이 그 진리의 명령을 거절하거나 회피하게 할 뿐이므로 차라리 전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것인가? 아니다. 우리가 초기의 개혁자들이 당한 것과 같은 반대나 그 이상의 반대를 당한다 할지라도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중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성도와 순교자들이 한 신앙 고백은 후세를 위하여 기록되었다. 성결과 확고한 충성의 산 모본들은 오늘날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용기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전해 내려왔다. 그들은 저희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온 세상에 밝혀 주기 위하여 은혜와 진리를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의 종들에게도 빛을 주셨는가? 그렇다면 빛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 빛을 이 세상에 비추어야 할 것이다.

옛적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기별을 전한 사람에게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퍅하여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겔 3:7) 고 선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겔 2:7) 고 말씀하였다. 오늘날 하나님의 종에게는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는 명령이 주어져 있다. 진리의 빛을 받은 모든 사람은 기회가

있는 대로 이스라엘의 선지자와 같이 엄숙하고 두려운 책임을 지고 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주님의 명령을 받고 있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전하리라" (겔 33:7~9).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전파하는 데 다 같이 큰 장애가 있는 까닭은 진리는 불리한 것과 조롱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진리의 옹호자들이 결코 논박할 수 없었던 진리에 대한 유일한 반대 논증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도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을 결코 방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진리가 인기를 얻기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그들의 의무를 깨닫게 되면 그들은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고후 4:17) 하는 줄로 여기게 된다. 그리고 성도와 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히 11:26) 여기게 된다.

신앙적 문제에 있어서 원칙보다 지략 (智略) 으로 일을 하는 자들은 그들이 무엇이라고 공언할지라도 이 세상을 섬기는 자들에 불과하다. 우리는 옳은 일이기 때문에 바른 길을 택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세상의 위대한 개혁들은 원칙적이고, 믿음 있고 용기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오늘날 개혁 사업도 그와 같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진척되어야 한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훼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사 51:7, 8).

27 장 — 진정한 변화

하나님의 말씀이 충실히 전해진 곳은 어디에서나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증명하는 결과들이 뒤따랐다. 하나님의 영이 그분의 종들이 전하는 기별과 함께 하였으므로 그 말씀에 권능이 있었다. 죄인들은 그들의 양심이 각성됨을 깨달았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취는” 참 빛이 그들의 마음의 비밀을 비추고 어두운 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었다. 그들의 정신과 마음에 깊은 확신이 생겼다. 그들은 죄와 의와 장차 올 심판을 깨달았다. 그들은 여호와의 의를 깨달음과 동시에 그들의 죄와 부정 가운데서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들은 번민 중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부르짖었다.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무한한 희생을 지불한 갈바리의 십자가가 분명히 나타나자 그들은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그들의 죄를 충분히 속 (贖) 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믿음과 겸손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받아들였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을 받았다.

그 사람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 그들은 믿고 침례를 받았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 생애를 하기 위하여 일어났다. 그들은 전에 행하던 그들의 정욕을 따라 자기 자신들을 꼴 짓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주님의 품성을 반사하며,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들 자신을 깨끗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전에 미워하던 것을 이제는 사랑하고, 전에 사랑하던 것을 이제는 미워하게 되었다. 교만하고 자기 주장만 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었다. 허영적이고 교만한 사람들이 착실하고 조심성 있게 되었다. 불경 (不敬) 한 자가 경건해지고 술주정뱅이가 술을 끊고, 방탕하던 자가 순결해졌다. 세상의 허영은 버려졌다. 그리스도인들은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벧전 3:3, 4) 는 권면을 따르고자 노력했다.

신앙 부흥은 마음을 깊이 살피는 일과 겸비한 정신을 주었다. 그 부흥들은 죄인에 대한 엄숙하고 열렬한 호소로 또한 그리스도의 피로 산 영혼들에 대한 애절한 동정으로 특징지어졌다. 남녀들은 기도하고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과 씨름하였다. 그와 같은 신앙 부흥의 결과로 극기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비난과 시련 받는 것을 합당히 여기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생애에 나타난 변화를 바라보았다. 지역 사회는 그들의 감화로 유익을 얻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모이고 성령으로 씨를 뿌리고 영생을 거두었다.

그들은 "근심함으로 회개"한 자들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고후 7:9~11).

그것은 하나님의 영께서 역사하신 결과이다. 개혁이 따르지 않으면 참된 회개가 아니다. 죄인이 서약한 것을 이행하고, 도둑질한 것을 돌려주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료 인간을 사랑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과 화친한 증거를 보인 셈이다. 이전에 있었던 종교적 각성에 뒤따랐던 결과들은 이러하였다. 그들이 맺은 열매로써 그들은 사람을 구원하고 인류를 향상시키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로 알려졌다. 그러나 근래에 행하여지는 신앙 부흥은 하나님의 종들의 활동에 수반되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과는 아주 현격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광범위하게 흥미가 고조되고, 많은 사람이 회심을 고백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많아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참된 영적 생명이 그만큼 향상된 것을 보증할 만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타오르는 불길은 오래지 않아 꺼져 버리고 흑암은 오히려 전보다 더욱 심해진다.

인기 있는 신앙 부흥은 너무도 흔히 사람의 상상력에 호소하고 감정을 자극하며 새롭고 놀랄 만한 것에 대한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상황에서 회개한 자들은 성경의 진리에 별반 귀를 기울이고자 아니하고 선지자와 사도들의 증언에 별 흥미를 느끼지 아니한다. 종교 집회에 감정을 자극하는 어떤 특성이 없으면 그들은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 냉철한 이성에 호소하는 기별은 그들에게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못한다. 그들의 영원한 유익과 직접 관련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에도 그들은 유의하지 않는다.

참으로 회개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사물에 대한 관계는 인생의 큰 주제가 된다. 그러나 오늘날 인기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정신이 있는가? 회심하였노라고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교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들은 회개하기 전과 다름없이 자기를 이기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 종교인으로 자처하면서도 그 원칙에 대하여 무지한 자들 때문에 종교는 무신론자들과 회의론자들의 놀림감이 되어 버렸다. 경건의 능력은 많은 교회에서 거의 떠나갔다. 야유회, 연극, 자선시 (慈善市), 굉장한 건축, 개인들의 사치 등이 하나님께 대한 생각을 제거해 버렸다. 토지와 재산과 세속적 직업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영원한 이익에 속한 사물을 거의 주목해 볼 수 없다.

믿음과 경건의 보편적인 퇴보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를 진실히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세상에 내리기 전에 주님의 백성 중에는 사도 시대 이래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이 그분의 자녀들 위에 부어질 것이다. 그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대신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들에서 분리되어 나올 것이다. 목사들과 신자들을 막론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재림을 위하여 백성을 준비시키고자 이 시대에 전파되고 있는 큰 진리를 즐거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원수는 이 일을 방해하려고 이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가짜 운동을 꾸며 냄으로써 이를 막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의 기만의 세력 아래 모이는 교회들 가운데는 마치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내린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신앙적 큰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도록 나타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실상은 전혀 다른 영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놀라운 정도로 역사하고 계신다고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단은 종교의 가면을 쓰고 자기의 세력을 모든 그리스도교계에 확장하기에 진력할 것이다.

과거 반세기 동안에 일어난 신앙 부흥의 대부분에는 다소간 그와 같은 영향이 활동해 왔던바 장래에는 더욱 광범위한 운동들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진리와 허위가 혼합된 감정적 흥분이 있으며 그것은 오도되기 쉽게 만들었다. 그러나 아무도 속임을 받을 필요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보면 그런 운동의 내용을 분별하기가 결코 어렵지 않다. 무릇 사람이 성경의 증거를 등한히 하고, 극기하고 세속을 버리도록 요구하는 분명하고 심령을 살피게 하는 진리에서 돌아설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마 7:16) 라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신 법칙에 의하면 이런 종류의 운동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이 분명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통하여 당신 자신에 관한 계시를 주셨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두 사단의 속임수에서 보호를 받는다. 오늘날 일반 종교계에 널리 퍼져 있는 악이 들어오도록 문이 열린 것은 진리들을 등한히 한 결과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의 특성과 중요성은 대부분 상실되었다. 하나님의 율법의 성격과 영속성과 그 의무에 대한 그릇된 개념이 회개와 성화의 관계에 대한 오류를 가져왔고 그 결과로 교회내의 경건의 표준이 낮아졌다. 우리 시대의 신앙 부흥 가운데 하나님의 영과 권능이 결핍된 원인이 여기에 있다.

오늘날 각 교파에서 경건한 신자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개탄하고 있다. 에드워드 에이 파크 교수는 종교계가 당면한 위기를 보고 이렇게 말한다. "위험의 한 가지 원인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하는 일을 게을리 하는 것이다. 옛날에는 강단이 양심의 소리가 메아리치는 곳이었다. ...우리의 가장 유명한 설교자들은 주님의 본을 따라 강단에서 율법과 그 교훈과 그 엄숙한 명령을 명백히 가르쳐 줌으로써 언제나 놀랄 만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항상 두 가지 큰 원리를 반복하여 말하였으니 곧 율법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는 사본이며 율법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복음도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두 가지의 큰 원리를 반복하였다. 왜냐하면 율법은 복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참 품성을 반사하는 하나의 거울이기 때문이다. 이 율법을 사랑하지 않는 위험은 죄의 흉악성, 죄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 죄의 결점들을 과소평가하는 위험을 가져온다. 율법을 거역함으로 조성되는 악은 그 율법이 지닌 의에 비례된다. ...

이미 언급한 위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과소평가하는 위험이다. 오늘날 강단에서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경향은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자비와 분리시키고 그 자비를 원칙으로 높이지 않고 하나의 감정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이른바 신신학 (新神學) 은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놓은 것을 산산조각으로 해체시켜 버렸다. 하나님의 율법은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물론 선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의도 선한 것이다. 왜냐하면 공의는 율법을 집행하게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 인간의 불순종과 죄의 범위를 과소평가하는 습관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속하기 위하여 마련된 은혜도 과소평가하는 습관을 이루기 쉽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서 복음의 가치와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미구에 성경 자체까지도 내어버리게 된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음으로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사람이 율법의 요구에서 해방되었다고 주장한다. 그 중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마치 무거운 멍에처럼 나타내고 율법의 속박과 복음 아래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대조적으로 말한다.

그러나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다윗은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오며" (시 119:45) 라 하였다. 사도 야고보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에 십계명을 "최고한 법" 또한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하였다 (약 2:8, 1:25). 또한 요한계시록의 기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반세기 후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 (영어 흠정역 성경에는 '계명을 지키는 자'로 번역되었음) 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함이로다" (계 22:14) 고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음으로써 하늘 아버지의 율법을 폐하셨다는 주장은 아무 근거가 없다. 만일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되거나 폐지될 수 있었다면 사람을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율법을 폐지하기는커녕 율법의 불변성을 증명해 준다. 하나님의 아들은 "율법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 (사 42:21 난외 주석) 기 위하여 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율법 (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 5:17, 18) 고 말씀하셨다. 또한 그분께서는 당신 자신에 대하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시 40:8) 고 언명하신다.

하나님의 율법은 바로 그 본질상으로 불변이다. 그것은 율법의 창시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품성을 나타낸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므로 그분의 율법도 사랑이다. 율법의 두 가지 큰 원칙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롬 13:10) 다. 하나님의 품성은 의며 진리이다. 그의 율법의 본질도 마찬가지이다.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 (시 119:142, 172) 니이다고 말한다. 또한 사도 바울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롬 7:12) 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의 표현이므로 그 창시자와 같이 영구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사람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되게 해줌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해주는 것이 회개와 성화의 사업이다. 태초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본성에 완전히 조화를 이루었다. 의의 원칙이 그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죄가 창조주와 사람을 분리시켰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할 수 없게 되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반대되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롬 8:7).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므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창조주와의 조화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져야 하고 위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이와같은 변화는 새로 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첫째 계단은 죄를 깨닫는 것이다. "죄는 불법이라" (요일 3:4),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롬 3:20). 죄인이 죄를 깨달으려면 먼저 자기의 품성을 하나님의 위대한 의의 표준에 비추어서 살펴보아야 한다. 그것은 의로운 품성의 완전함을 보여 주는 거울로서 죄인에게 그의 결함을 분별하게 해준다.

율법이 사람에게 그의 죄를 나타내 보여 주기는 하지만 죄를 치료해주지는 못한다. 율법은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을 약속해 주는 반면에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죽음임을 선고한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죄의 선고와 더러움에서 사람을 해방시킬 수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으므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그의 속죄 제물로 믿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사람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용서를 받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양자의 영을 받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된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여도 무방한가? 바울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롬 3:31),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롬 6:2) 라고 말한다.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일 5:3) 고 하였다. 새로 남으로써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됨과 동시에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이 위대한 변화가 죄인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면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성결로, 범죄와 반역에서 순종과 충성으로 옮겨지게 된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옛 생애는 끝나고 믿음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생애가 시작된다. 그리하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롬 8:4) 한다. 그 때에 심령에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시 119:97) 고 외치게 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시 19:7) 한다. 율법이 없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성성과 순결,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죄와 불결에 대하여 올바른 관념을 가질 수 없다. 그들은 죄에 대하여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로서의 그들의 속절없는 상태를 알지 못하고 속죄하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함을 인정하지도 않는다.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도, 생애의 개혁도 없이 구원의 소망을 받아들인다. 그리하여 피상적인 회개가 보편화되고 결코 그리스도와 연합한 경험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등한히 하고 부인하는 데서 생기는 그릇된 성화에 대한 이론들이 오늘날의 종교 운동에서 현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이론은 교리상으로 거짓될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있어서도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고 그런 것이 일반에게 환영을 받는 사실을 볼 때 이 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명백히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요긴한 일임을 깨닫게 된다.

참된 성화는 성경상 교리이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살전 4:3) 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살전 5:23) 고 기도하였다. 성경은 성결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가르쳐 준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위하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 17:17) 고 기도하셨다. 바울은 신자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 (롬 15:16) 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요 16:13)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고 말하였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구현되어 있는 의의 큰 원칙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진다.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며, 완전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주므로 그런 율법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품성도 또한 거룩하여진다.

그리스도는 그런 품성의 완전한 모본이시다. 그분께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 (요 15:10, 8:29)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과 같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원칙과 일치한 품성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성화이다.

이 일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의 내재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서만 성취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신자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 2:12, 13) 라고 권고하였다. 그리스도인은 죄의 유혹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그것을 대항하여 싸울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하다. 사람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될 때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 (고전 15:57) 라고 부르짖게 된다.

성경은 성화의 과업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짐을 분명히 알려 준다. 죄인이 회개하여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질 때부터 그리스도인 생애가 시작된다. 이때부터 그는 "완전한 데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한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 (빌 3:13, 14) 고 말하였다. 그리고 베드로도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성화를 얻는 계단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그는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벧후 1:5~10) 고 말하였다.

성경상 성화를 체험한 사람은 겸손한 정신을 나타낼 것이다. 성결의 두려운 위엄을 목격한 사람들은 모세처럼, 무한하신 하나님의 순결하심과 완전하심에 비하여 그들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된다. 선지자 다니엘은 참된 성화의 모본이었다. 그의 긴 일생은 그의 주님을 위하여 바친 고상한 봉사로 가득 차있었다. 그는 하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단 10:11) 이었다. 그러나 이 존경받는 선지자는 자신의 순결과 성결을 주장하는 대신에 자신을 죄 많은 이스라엘의 한 사람으로 간주하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탄원하였다.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는 다시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나이다고 하였다.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교훈을 주셨을 때에 그는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고 하였다 (단 9:18, 15, 20, 10:8).

욥도 폭풍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 42:6) 고 부르짖었다. 또 이사야는 스랍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고 창화하는 소리를 듣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사 6:3, 5) 고 크게 외쳤다. 바울은 셋째 하늘로 이끌려가서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은 후 자기 자신을 가리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고후 12:2; 엡 3:8) 라고 말하였다.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사랑을 받은 요한은 그분의 영광을 보고 천사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것같이 되었다 (계 1:17 참조).

갈바리 십자가의 그늘 밑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자고하거나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으스대는 주장을 할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킨 고뇌의 원인이 자기들의 죄였다는 것을 느끼며, 그런 생각이 그들을 스스로 겸비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이 생애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죄악과 약점을 가장 분명히 깨닫고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오늘날의 종교계에서 성화를 두드러지게 논의하고 있지만 자아를 높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정신과 병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의 종교와는 거리가 먼 상태에 놓여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은 성화가 순간적인 것이며 오직 믿음으로만 완전한 성결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그들은 "믿기만 하면 축복은 네 것이다"고 말한다. 받는 자 편에서는 그 이상의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듯이 생각한다.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를 부인하고 그들이 계명을 지켜야 할 의무에서 해방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일이 됨과 동시에 그분의 품성과 뜻의 표현이 되는 원칙에 조화되지 않으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품성과 뜻에 일치하는 성결을 이룰 수 있겠는가?

아무런 투쟁도, 극기도, 세속적인 어리석음도 버리는 일을 요구하지 않는 안이한 종교를 믿고자 하는 욕망이 필경 믿음만으로 이루어진 교리, 곧 통속적인 믿음의 교리를 만들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사도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약 2:14~24).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은 이와 같이 사람을 유혹에 빠뜨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의 교리를 반대한다. 은혜를 받는 데 필요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참람된 억측이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성경의 약속과 법도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요구 중 한 가지를 고의적으로 범하면서 거룩해질 수 있다는 신조를 가지고 스스로 속지 말라. 죄인 줄 알면서 범하게 되면 깨우쳐 주는 성령의 음성을 침묵케 하고 자신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한다. "죄는 불법이며"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 (요일 3:4, 6) 다. 요한은 그의 편지서들을 통하여 사랑을 충분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생애를 하면서도 거룩하게 될 수 있노라고 주장하는 부류에 속한 사람들의 참 모습을 나타내기에 주저하지 아니한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 (요일 2:4, 5) 느니라. 여기에 모든 사람의 신앙 고백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서 성결의 표준으로 정해 주신 유일의 척도로 재어 보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도 성결하다고 할 수 없다. 도덕적 율법의 가치를 느끼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소홀히 하거나 등한히 여기는 자들,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범하고 또 그렇게 남을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눈에 존중히 여겨질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주장이 근거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죄가 없노라고 주장하는 그 자체가 성결에서 참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증거가 된다. 사람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순결과 성결에 대한 진정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품성과 일치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 또한 예수님의 순결과 고상한 모습, 그리고 사악하고 지독한 죄의 성질에 대하여 진정한 개념을 깨닫지 못할 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성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사람이 자기와 그리스도와의 거리를 멀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요구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자신이 자기 자신의 눈에 의롭게 보인다.

성경에서 설명한 성화는 전인, 곧 영과 혼과 몸을 다 포함한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살전 5:23) 고 기도하였다. 그는 또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롬 12:1) 고 편지하였다.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희생 제물들은 모두 엄밀히 검사되었다. 만일 제물로 드려진 짐승에게서 어떤 결점이 발견되면 그것은 거절당하였다. 왜냐하면 제물은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능력들을 최선껏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마음과 몸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모든 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창조주를 위한 봉사에 부적당하게 만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이 아닌 것을 드릴 때에 기뻐하실까? 그리스도께서는 "네 마음을…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생애로써 하나님께 최선의 봉사를 하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을 촉진시켜 줄 율법과 조화되고자 그들의 모든 역량을 다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그들은 정욕이나 식욕에 빠짐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제물을 약화시키거나 더럽히지 아니할 것이다.

베드로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벧전 2:11) 고 말한다. 죄악적인 갈망을 만족시킬 때마다 신체의 기능이 마비되고 영적·지적 감각력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 혹은 성령의 감화는 마음에 빈약한 인상을 끼칠 수밖에 없게 된다.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케 하자" (고후 7:1) 고 말했다. 그는 또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갈 5:22, 23) 와 같은 성령의 열매에 "절제"를 부가시켰다.

영감으로 된 이런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유행을 따르기에 급급한 나머지 그들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또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탐식과 음주와 금지된 쾌락을 통하여 그들의 고상한 인간성을 타락시키고 있다. 그리고 교회는 이를 견책하는 대신에 오히려 식욕을 돋우어 주고 물욕과 연락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공급할 수 없는 교회의 자금을 보충하기 위하여 너무도 흔히 악을 권장한다. 만일 예수님께서 오늘날의 교회에 오셔서 종교라는 미명 아래 행해지고 있는 연회와 부정한 거래들을 보신다면 그분께서는 일찍이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자들을 내쫓지 아니하시겠는가?

사도 야고보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고 말한다. 만일 그분께서 담배로 더러워진 입술로써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을 부르는 자, 담배의 악취로 그 입김과 전신이 더러워져 있는 자, 하늘의 공기를 더럽히고 그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독기를 마시게 하는 자들을 만나신다면, 곧 복음의 순결성과 전연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자들과 만나신다면, 그들을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견책하지 아니하시겠는가? 담배의 종이 되어 있으면서도 완전한 성화의 축복을 받았노라고 주장하며 하늘의 소망을 가졌노라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 (계 21:27) 한다고 주장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전 6:19, 20).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된 사람은 해로운 습관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의 능력은 피로써 값을 지불하고 그를 사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그의 소유물도 주님의 것이다. 그런 사람이 자기에게 맡겨진 자본을 낭비할 때 어찌 죄가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막대한 금액을 쓸데없고 해로운 일들에 낭비하고 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얻지 못하여 멸망해 가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십일조와 헌금을 도둑질하는 한편,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거나 복음사업을 유지하는 일보다 더욱 많은 것을 그들을 멸망시키는 정욕의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버린다. 만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성화되었을 것 같으면 그들의 재물은 쓸데없고 해로운 방종에 낭비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보고로 돌아가게 되었을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절제와 극기와 자아 희생의 모본을 보이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세상의 빛이 되었을 것이다.

세상은 자아 방종에 빠져 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고상한 부르심을 받고 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의하면, 세속적 만족과 죄악적 습관을 완전히 내어 버리지 않으면 성화가 진실한 것이 될 수 없다는 우리의 주장이 정당함이 입증된다.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조건에 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고후 6:17, 18) 고 약속하신다. 하나님께 속한 일에 풍부하고 풍성한 경험을 가지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요 의무이다. 예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 8:12) 고 말씀하셨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 (잠 4:18) 른다. 믿음과 순종의 길은 매 걸음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세상의 빛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해준다. 의의 태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비칠 때 그들은 그분의 빛을 반사하게 된다. 마치 별들이 하늘에 큰 빛이 있어서 그 영광으로 저들이 빛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우주의 보좌에 찬양과 모본의 대상이 되기에 합당한 품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좌정해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야 한다. 하나님의 영의 은혜와 그분의 품성의 순결과 성결은 그분의 증인들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될 것이다.

바울은 골로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풍성한 축복을 밝혔다. "우리도...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하시기를 원하노라” (골 1:9~11).

그는 또한 에베소 교회의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깨닫기를 바라는 편지를 보냈다. 그는 그들에게 가장 의미 깊은 말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유할 놀라운 능력과 지식을 열어서 보여 준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그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기도함으로 그 사도의 간구는 절정에 이르게 된다 (엡 3:16~19).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도달할 수 있는 높은 표준이 여기에 밝혀져 있다. 그리고 그 표준에 도달할 때 우리는 그분의 요구를 이루게 된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느뇨” (롬 8:32).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셨으므로 우리들도 그 영으로 충만함을 입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눅 11:13).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 14:14).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 16:24). 그리스도인 생애는 겸손으로 특징지어져야 하지만 슬픔과 자아 열시 (自我劣視) 같은 것으로 특색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생애를 누리는 것이 각 사람의 특권이다. 우리가 언제나 죄의식과 흑암 아래 지내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머리는 숙이고 심중은 자아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해 있으면 참된 겸손의 증거가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 깨끗하게 되고 율법 앞에 부끄러움과 가책 없이 설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 (롬 8:1) 느니라.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 (히 2:11) 하신다. 그리스도인 생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승리와 기쁨의 생애가 되어야 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믿음이니라” (요일 5:4). 하나님의 종 느헤미야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 8:10) 고 한 말은 진실한 말이다. 바울은 말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

4:4),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살전 5:16~18).

그와 같은 일들이 성경상 회개와 성화의 열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밝혀진 의의 큰 원칙을 일반 그리스도교계에서 매우 등한히 여기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결과는 아주 드물게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일찍이 신앙 부흥의 특징이 되었던 하나님의 성령의 심오하고 영속적인 역사를 거의 볼 수 없는 이유이다. 우리는 바라봄으로써 변화된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품성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을 사람들에게 밝히 보여주신 거룩한 원칙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의 교훈과 이론에 집착할 때 교회 안에서 산 경건성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초래되는 일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주님께서는 “내 백성이…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렘 2:13) 고 말씀하셨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 1:1~3). 하나님의 율법이 다시 그 정당한 위치를 회복할 때에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초대 교회가 가졌던 믿음과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렘 6:16).

28 장 — 하늘에서 행하는 조사 심판

선지자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단 7:9, 10). 사람들의 생애와 품성이 온 세계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펼쳐져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보응을 받게 될 그 엄숙하고 큰 날의 광경이 그와 같이 선지자의 계시에 나타났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시편 기자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시 90:2) 고 말한다. 심판을 주재하시는 분은 만물의 근원이시며, 모든 법칙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천천만만"의 거룩한 천사들이 수종하는 자와 증인들로서 그 큰 법정에 열석하게 된다.

"내가...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폐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단 7:13, 14). 여기 묘사된 그분의 오심은 이 세상에 재림하심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중보자로서의 당신의 봉사를 마치실 때 당신께 주어질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받으시기 위하여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신다. 예언 중에 2300 주야의 끝이 되는 1844 년에 일어날 것으로 미리 알려져 있는 것도 이때의 오심을 가리키는 것이요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 때에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하늘 천사들의 시위 아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인류를 위한 마지막 봉사를 하시게 된다. 곧 주님께서 이때에 조사 심판을 하시고 속죄의 은사를 입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하시게 된다.

상징적 의식에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곧 그들의 죄가 속죄 제물의 피를 통하여 성소로 옮겨진 자들만이 대속죄일의 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대속죄와 조사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사건만을 다루게 된다. 악인들의 심판은 완전히 구별되어 있으며 그것은 그 후에 집행된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 (벧전 4:17) 할 것인가. 또한 하늘에는 사람들의 이름과 그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의하여 심판의 판결이 결정된다. 다니엘은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고 말한다. 요한은 그 같은 광경을 묘사하면서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 20:12) 라고 말한다.

생명책에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겨온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눅 10:20) 고 말씀하셨다. 바울은 그의 성실한 동역자들에 대하여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빌 4:3) 고 말한다. 다니엘은 “개국 이래로 그 때까지 없던” 환난의 때를 미리 보면서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단 12:1) 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얻을 것을 말한다. 그리고 요한은 그 이름이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계 21:27) 만이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 앞에는 “기념책”이 있으며, 거기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 (말 3:16) 들의 선한 행실이 기록되어 있다. 믿음에서 나온 그들의 말, 사랑의 행위가 다 하늘에 기록된다. 이에 대하여 느헤미야가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 13:14) 라고 말할 때 그는 이 사실에 대하여 언급한다.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의로운 행위가 빠짐이 없이 영원히 기록된다. 거기에는 유혹을 물리친 것, 악을 이긴 것, 부드러운 자비로 표현한 말이 모두 자세히 기록된다. 그리고 모든 희생적 행위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고난과 슬픔이 모두 기록된다. 시편 기자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시 56:8) 라고 말한다.

거기에는 또한 사람들의 죄악을 기록하는 책이 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 12:14). 구주께서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 12:36, 37) 고 말씀하신다. 은밀한 목적과 동기도 실수함이 없는 기록에는 빠질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 (고전 4:5) 기 때문이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너희의 죄악과 너희 열조의 죄악을 함께 하리” (사 65:6, 7) 라.

각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심사되어 성실한 것과 불성실한 것들이 기록된다. 하늘의 책들에는 각 사람의 이름 아래 온갖 악한 말, 모든 이기적 행위, 온갖 의무 태만, 모든 은밀한 죄, 모든 기만 등이 무섭게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하늘의 경고와 견책을 등한히 한 것, 시간을 낭비한 것, 기회를 놓친 것, 선악간의 감화와 그 결과가 멀리까지 미친 일이 모두 기록하는 천사에 의하여 기록된다. 하나님의 율법은 심판 때에 사람의 품성과 생애를 측정하는 표준이다. 현인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전 12:13, 14) 고 말한다. 야고보는 그의 형제들에게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약 2:12) 고 권면한다.

심판에서 "합당히 여김을 입은" 사람들은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눅 20:35, 36) 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또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나오리라" (요 5:29) 고 말씀하신다. 곧 죽은 의인들은 심판 때에 생명의 부활에 합당한 자라는 선고를 받고서야 비로소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에 대한 기록이 심판정에 제출되어 조사를 받아 결정될 때에 개인적으로 그 자리에 출두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중보자로서 그들을 위하여 탄원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타나실 것이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일 2:1).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히 9:24, 7:25).

심판 때에 기록한 책들을 펼치면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우리의 대언자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처음 생존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살아 있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사건을 제시하신다. 각 사람의 이름이 불리워지고, 모든 사건이 세밀히 검토된다. 어떤 이름들은 가납되고, 어떤 이름들은 거절된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기록책에 죄를 남겨두고 있으면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그들의 선행의 기록도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지워질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출 32:33) 고 선언하셨다. 선지자 에스겔은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면...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 (겔 18:24) 라고 말한다.

그러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 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책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그들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사 43:25) 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계 3:5).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마 10:32, 33).

세상 법정의 공판에 대하여 사람들이 나타내는 가장 깊은 흥미도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 온 세상의 심판장되신 하나님 앞에서 심사되는 하늘 법정에 기울이는 흥미에 비하면 다만 희미한 것에 불과하다. 중보자 되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를 얻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에덴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님과 함께 "이전…나라" (미 4:8) 의 후사가 되어 주기를 간청하신다. 사단은 인류를 속이고 유혹함으로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인류가 마치 타락한 일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이 계획이 실행되기를 간구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완전하고 충분한 용서와 의를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당신의 영광에 동참하고 당신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기를 구하신다.

예수께서 당신의 은혜의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동안, 사단은 그들을 범죄자로 하나님 앞에 고소한다. 사단은 그들을 의혹에 빠뜨리고, 하나님을 믿는 확신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그분의 율법을 범하게 하고자 진력해 왔다. 이제 그는 그들의 생애의 기록을 지적하고, 그들의 품성의 결함과 그들이 그리스도와 같지 아니한 점, 곧 그들이 구속주의 영광을 더럽힌 것과, 바로 그 자신이 그들로 범죄케 한 점들을 지적한다. 그리고 그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백성이라고 주장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와 믿음을 보여 주시고 그들이 용서받은 것을 주장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상한 손을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 드시고 "내가 저희 이름을 압니다. 내 손바닥에 저희 이름을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시 51:17).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고소하는 자를 향하여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가 아니냐" (슥 3:2) 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아버지께 충성된 백성들을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기 위하여 당신의 의의 옷을 입히실 것이다 (엡 5:27).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계 3:4) 고 그들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다. 그리하여 새 언약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렘 31:34), "그날 그 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임이니라" (렘 50:20).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자 중 녹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 (사 4:2, 3) 라.

조사 심판과 죄의 도말은 주님의 재림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죽은 자들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하므로 그들의 사건이 심리 (審理) 되는 조사 심판이 마치기 전에는 그들의 죄가 도말될 수 없다. 사도 베드로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행 3:19, 20) 라고 말함으로 예수께서 보내심을 받는 때에 믿는 사람들의 죄가 도말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그리고 조사 심판이 마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때에 모든 사람에게 행위대로 갚아 주실 것이다.

표상적 봉사에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속죄를 마치면 뜰로 나와서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였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중보자로서의 봉사를 마치시면 기다리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영생으로 축복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히 9:28) 나타나실 것이다. 또한 제사장이 성소에서 죄를 옮길 때에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머리 위에 그 죄들을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죄를 죄악의 창시자요 선동자인 사단에게 씌울 것이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지고 "무인 지경" (레 16:22) 으로 쫓겨난 것처럼 사단 역시 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범하게 한 죄를 지고 천년 동안 세상에 감금될 것이다. 그 동안 세상은 황폐하고 한 사람의 주민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악인들을 모두 멸망시킬 불로써 죄의 벌을 완전히 받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죄가 최종적으로 근절되고 진심으로 악을 버린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음으로써 위대한 구속의 계획이 성취될 것이다.

심판을 위하여 정해진 때, 곧 2300 주야가 마치는 1844 년에 조사 심판과 죄를 도말하는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온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엄숙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이 다 같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하고 기록한 책들에서 도말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큰 날에 그 죄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하게 될 것이다. 그 악행은 백주에 행한 것이나 밤의 어둠속에서 행한 것이 나를 막론하고 우리를 취급하시는 하나님 앞에 공공연하게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모든 죄를 목격하고 절대로 잘못이 없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있다. 죄는 그 부모 앞에나 처자와 친구들 앞에는 숨길 수도 있다. 또한 그 범행자 외에는 그 악을 추호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이들 앞에는 그것이 분명히 나타난다. 가장 어두운 밤이나 가장 교묘한 속임수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단 하나의 생각까지도 숨겨 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공정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아니한 행위와 생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경건한 모양에 결코 속지

않으신다. 주께서는 사람의 품성을 평가하시는 데 결코 실수가 없으시다. 사람은 마음이 부패한 자에게 속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짓을 꿰뚫어 보시고 마음속의 본성을 다 아신다.

영원한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날마다 하늘의 책들에 기록의 양 (量) 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엄숙한 일인가! 한 번 입에서 나온 말, 한 번 나타낸 행위는 결단코 돌이킬 수 없다. 천사들은 선악간의 행위를 다 기록하여 둔다. 세상의 가장 강한 정복자도 단 하루의 기록을 취소할 수 없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말, 심지어 가장 은밀한 동기까지도 모두 행복과 불행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역할을 한다. 비록 우리가 그것들을 잊어버렸을지라도 그것들은 의롭다는 판결을 받느냐 정죄의 선고를 받느냐 하는 문제에서 증거가 될 것이다. 예술가의 광택 낸 감광판에 얼굴의 모양이 틀림없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처럼 사람의 품성도 하늘의 모든 기록에 충실하게 묘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거룩한 존재들에게 보이지 않을 수 없는 그 기록에 대하여 염려하는 일이 얼마나 드문가. 만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구분해 놓은 휘장을 제거해버림으로 사람들이 심판날에 다시 목격하게 될 모든 말과 행동을 기록하고 있는 천사를 볼 수 있다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하는 말을 그치고 많은 행동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심판 때에는 각종 재능을 사용한 데 대하여 세밀한 조사를 받을 것이다. 우리는 하늘에서 빌려 준 자본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는 당신의 것을 이자와 함께 받지 않으실 것인가? 우리는 우리에게 위탁된 능력을 손과 마음과 정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에 이용하였는가? 우리의 시간, 우리의 붓, 우리의 음성, 우리의 돈, 우리의 감화력을 어떻게 사용하였는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한 자와 병자와 고아와 과부들에게 어떤 일을 하였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말씀의 보관자로 삼으셨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빛과 진리로써 사람들에게 구원 얻는 지혜를 주기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가?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고백하는 일만으로는 가치가 없다. 오직 행위에 나타나는 사랑만이 참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하늘의 안목에서 볼 때는 사랑만이 가치 있는 행동이다. 무엇이나 사랑으로 한 일은 비록 그것이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아무리 작은 것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그것이 가납되고 보상을 받는다.

사람들의 감추어진 이기주의가 하늘 책들에는 나타나게 된다. 거기는 동료인간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 그리스도의 요구를 등한히 한 것 등에 대한 기록이 있다. 거기에서 그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시간과 생각과 능력을 얼마나 자주 사단에게 주었는지에 대하여 보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하늘로 가져가는 기록은 참으로 슬픈 기록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공언하는 현명한 사람들이 세속적 재산을 얻고 세속적 향락을 즐기기에 몰두하고 있다. 돈과

시간과 힘이 몸차림과 방종에 희생된다. 기도와 성경 연구와 심령의 겸비와 죄의 고백에는 거의 시간을 바치지 않는다.

사단은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할 일들을 생각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자 무수한 간계를 고안한다. 그 기만자의 괴수는 속죄의 희생 제물과 전능하신 중보자를 밝히 보여 주는 위대한 진리를 싫어한다. 그는 그에게 있어서 만사는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과 그분의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일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안다. 구주의 중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완전한 성결에 이르기 위한 그들의 의무를 그 어떤 것도 방해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귀중한 시간을 쾌락과 몸치장과 돈을 버는 데 허비하는 대신에 열렬하고 경건하게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바쳐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크신 대제사장의 위치와 사업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알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그들은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을 활용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차지하기를 바라시는 그 위치를 채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각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든지 잃어버리든지 할 것이다. 각 사람은 하나님의 법정에 계류되어 있는 소송 사건이 있다. 각 사람은 크신 재판장을 직접 대면하여 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심판이 시작되어 책들이 펴질 것과 마지막 날에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에 서야 할 엄숙한 광경에 대하여 각 사람은 다니엘과 같이 자주 심사숙고하는 것이 참으로 긴요하다.

그런 문제에 대한 빛을 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위대한 진리를 증거해야 한다. 하늘에 있는 성소는 사람을 위하여 행하는 그리스도의 사업의 바로 중심이 된다. 그것은 세상에 사는 모든 영혼들과 관계가 된다. 그것은 구속의 계획을 밝히 보여 주고, 시대의 제일 마지막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서 의와 죄 사이의 투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나타내 보여 준다. 모든 사람이 이 문제를 충분히 연구하여 그들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능히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늘 성소에서 사람을 위하여 진행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은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십자가상에서의 그분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긴요하다. 그분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여 하늘에서 완성하실 일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우리를 위하여 들어가" (히 6:20) 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거기는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나온 빛이 비치고 있다. 우리는 거기서 구속의 오묘를 더욱 밝히 살펴볼 수 있다. 인류의 구원은 하늘에서 무한한 값을 치르고 완성된다. 거기에 치러지는 희생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데 대한 최대한의 요구에 해당되는 것이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 주셨으므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의 진정한 소망도 그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 28:13). 만일 자기의 결점을 숨기거나 핑계하는 자들이 사단이 그들에 대하여 얼마나 기뻐하며 그리스도와 거룩한 천사들을 조롱하는지 볼 수 있다면 그들은 속히 죄를 자복하고 버리게 될 것이다. 사단은 사람의 품성의 결함을 발판으로 온 마음을 사로잡고자 활동한다. 사단은 사람이 만일 그 결합들을 고집하고 버리지 아니하면 자신이 성공할 것을 안다. 그러므로 사단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치명적인 궤변으로 그들을 속이려고 항상 힘쓰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찔림을 받은 당신의 손과 상함을 입은 몸으로 인류를 위하여 탄원하시며,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고후 12:9).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 11:28~30). 그러므로 아무도 자기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길 믿음과 은혜를 주신다.

오늘날 우리는 대속죄일에 살고 있다. 표상적 의식에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봉사를 하는 동안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태도로써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었다. 그와 같이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은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아니한 오늘날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한다. 그들은 심각하고 철저하게 마음을 살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허 (浮虛) 하고 경박한 정신은 반드시 버려져야 한다. 지배권을 장악하고자 일어나는 악한 경향들을 이기고자 하는 모든 사람 앞에는 반드시 격렬한 투쟁이 있다. 준비하는 일은 개인적으로 할 일이다. 우리는 단체적으로 구원을 얻지 않는다. 사람의 순결과 헌신이 다른 사람의 그런 특성의 결함을 보충해 줄 수 없다. 비록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의 사건을 조사하시기를 마치 세상에 그 한 사람밖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세밀히 하실 것이다. 모든 사람이 조사를 받되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한다.

속죄의 봉사가 마칠 무렵의 광경은 실로 엄숙하다. 거기에 관련된 관심은 참으로 심각하다. 심판은 오늘날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 신속히, 얼마나 신속히 오늘날 살아 있는 자들의 사건이 취급될지 아무도 모른다. 엄숙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생애가 드러날 것이다. 이 시점에서 각 사람이 구주의 권고에 유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긴하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막 13:33).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계 3:3).

조사 심판의 사업이 마치게 되면 모든 사람의 운명은 생사간에 결정될 것이다. 은혜의 시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조금 전에 마쳐진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때의 일을 미리 내다보시고 요한계시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계 22:11, 12). 의인과 악인은 그들의 생활 상태 그대로 여전히 세상에 살면서 하늘 성소에서 철회할 수 없는 마지막 결정이 내린 것도 모르고 밭 갈고 집짓고 먹고 마시고 할 것이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후 하나님께서는 그를 배 안에 두고 경건치 못한 자들은 배 밖에 두신 채 문을 닫으셨다. 7 일 동안 사람들은 그들의 운명이 결정된 것을 모르고 경솔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생활을 계속하였다. 그들은 또한 임박한 심판에 관한 경고를 조롱하였다. 구주께서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 24:39) 고 말씀하셨다. 각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고 범죄한 인류에 대한 은혜의 초청이 철회되는 마지막 시간은 밤중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가만히 눈에 띄지 않게 올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막 13:35, 36). 깨어 있기를 소홀히 하고 세상의 매력을 향하여 마음을 돌리는 자들의 상태는 참으로 위험하다. 사업가가 이득에 마음을 빼앗기고, 향락을 즐기는 자가 방종을 구하고, 유행을 따르는 자가 몸을 단장하기에 겨를이 없을 바로 그때, 온 세상의 심판관 되신 예수님께서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뵈었다" (단 5:27) 라고 선고하실 것이다.

29 장 — 악의 근원

죄의 시작과 그 존재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수수께끼가 되어 있다. 그들은 악의 소위(所爲) 와 그 무서운 결과로 생기는 불행과 파멸을 목격한다. 그리고 그들은 무한한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런 일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의심한다. 여기에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가 있다. 불신과 의심에 싸여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 있고 구원에 필수적인 진리에 대하여 눈이 멀어 있다. 죄의 존재에 관하여 질문하면서 하나님께서 결코 계시하지 않으신 것까지 알아내고자 노력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이 가진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한다. 의심하고 트집 잡기를 좋아하는 기질에 의하여 행동하는 자들은 그것을 구실로 성경의 말씀을 거절해 버린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유전과 그릇된 해석이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정부의 성격과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하는 원칙 등에 관한 성경의 교훈을 모호하게 만들어 버린 까닭에 악에 관한 큰 문제에 대하여 만족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죄악의 시작은 그 존재 이유와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죄의 시작과 죄의 최종적인 처분, 악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완전히 나타나게 되는 것에 대하여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성경에 무엇보다 분명히 알려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온 것에 대하여 전혀 책임이 없으시다는 것, 하나님의 정부에는 반역을 일으킬 조건이 될 만한 아무런 결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강제적으로 거두어 버린 일이 없다는 것 등이다. 죄는 하나의 무단 침입자이다. 그것이 나타나게 된 데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 죄는 오묘한 것이며,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그것을 옹호하는 것이다. 만일 죄의 원인과 그 존재 이유를 밝힐 수 있으면 죄는 죄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죄에 대한 유일의 정의는 "죄는 불법이라" (요일 3:4) 는 말이다. 죄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위대한 사랑의 율법에 대항하여 싸우려는 정신의 표현이다.

악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주에 평화와 기쁨이 있었다. 모든 것은 창조주의 뜻에 완전히 조화되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최상의 것이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도 공정하였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는 그 본질과 품성과 목적에 있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일체였고, 온 우주에서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고 계획하시는 유일의 분이셨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 (골 1:16) 다. 그러므로 온 하늘은 하늘 아버지께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한다. 사랑의 율법이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므로 모든 피조물들은 그 큰 원칙에 완전히

일치함으로써 행복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이 사랑의 봉사, 곧 주님의 성품을 이지적 (理智的) 으로 이해하므로 생기는 경배를 드리기를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인 충성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셔서 그들이 주님께 자발적 봉사를 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유를 왜곡시키기로 작정한 자가 있었다. 죄는 그리스도 다음으로 하나님께 가장 큰 특권을 받고 하늘 주민들 중에서 최고의 권위와 영광을 가진 자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루스벨은 타락하기 전에 거룩하고 순결한 덮는 "그룹"들 중 으뜸이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였"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겔 28:12~15).

루스벨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고 온 하늘 군대의 존경을 받으며 자기의 고상한 능력을 활용하여 다른 이를 복되게 하고 창조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선지자는 "네가 아름다우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우므로 네 지혜를 더럽혔" (겔 28:17) 도다라고 말한다. 루스벨은 차츰차츰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을 품게 되었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하였으니" (겔 28:6),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사 14:13, 14). 루스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의 사랑과 충성의 첫째 자리를 차지하시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에 그들의 봉사와 경배를 자기가 받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그 천사들의 군주 루스벨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주신 영예를 탐한 나머지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행사할 수 있는 큰 권세를 동경하였다.

온 하늘은 창조주의 영광을 반영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기뻐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존경을 받으시는 동안 모든 것이 평안하고 기뻤다. 그런데 이제 한 분쟁의 음성이 나타나서 하늘의 조화를 깨뜨렸다. 창조주의 계획에 반대되는 자기 찬양, 자기 봉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여기는 자들의 마음에 불행에 대한 예감을 불러일으켰다. 하늘의 회의는 루스벨에게 간청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에게 창조주의 위대하시고 선하시고 공의로우심을 알려 주고, 그분의 율법의 신성하고 변치 않는 특성을 제시해 주셨다. 하늘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다. 그러므로 루스벨이 그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은 창조주의 성호를 모독하는 일임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파멸에 빠뜨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주어진 경고는 반항심을 일으킬 뿐이었다. 루스벨은 그리스도에 대한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더욱 마음이 굳어졌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영광에 대한 자존심이 최상권을 잡고자 하는 욕망을 자라나게 하였다. 루스벨은 자신이 받은 높은 영예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지 아니하고 창조주께 감사하는 생각을 갖지 아니하였다. 그는 총명하고 칭찬받는 위치에서 영광을 받고 있었으므로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열망하였다. 그는 천군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었다. 천사들은 그의 명령에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였고 그는 그들보다 뛰어난 지혜와 영광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능력과 권위에 있어서 아버지와 동등되시는 하늘의 군주로 인정받고 있었다. 하나님의 모든 회의에 그리스도께서는 참석하였으나 루스벨은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하는 일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 강한 천사는 "왜 그리스도께서는 최상권을 가져야 하며 루스벨보다 더 높임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의심하였다.

루스벨은 하나님 면전에 있는 자기 위치를 떠나 천사들 사이에 불평의 정신을 퍼뜨리고자 나갔다. 그는 얼마동안 자기의 참 목적을 감추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은밀한 방법으로 활동했다. 그는 하늘 거민들을 통제하는 법칙이 필요 없는 구속을 과하는 것이라고 암시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불만을 자극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천사들의 본성은 성결하므로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의지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최상의 영광을 주심으로써 자기를 불공평하게 취급하셨다고 주장함으로 동정을 얻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자기가 더욱 큰 권세와 영광을 구하는 것은 자기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고 오히려 하늘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유를 얻게 하여 그것으로써 그들을 더욱 고상한 생애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자비심이 많은 하나님께서는 루스벨에 대하여 오래 참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처음에 불만의 정신에 빠졌을 때, 심지어 그가 충성된 천사들 앞에서 거짓 주장을 하였을 때까지도 그를 그 높은 지위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오랫동안 하늘에 머물러 있게 하셨다. 회개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되풀이해서 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자 오직 무한한 지혜와 사랑으로만 할 수 있는 온갖 노력을 다하셨다. 본래 하늘에는 불만의 정신이 없었다. 그러므로 루스벨 자신도 처음에는 자기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몰랐고 자기의 심정의 실상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루스벨은 자기의 불만이 아무 이유가 없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자기가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의 주장이 정당한 것임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그는 그런 사실을 온 하늘 앞에 인정해야 할 것을 자각하였다. 만일 그가 그렇게 하였을 것 같으면 그 자신과 많은 천사들이 구원을 얻었을 것이다. 그는 당시에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을 아직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가 비록 덮는 그룹으로서의 지위는 상실했다 할지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창조주의 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따라 지정된 위치에 있기를 만족히 여겼을 것 같으면 그는 본래의 직분에 회복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는 고집스럽게

자기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창조주를 대항하는 대쟁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자기 휘하에 있는 천사들의 동조를 얻기 위하여 그의 탁월한 정신력을 기만하는 일에 기울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경고하고 권면하신 사실까지도 자기의 반역 활동에 이용하기 위하여 왜곡시켰다. 사단은 자기를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자신과 가장 밀접히 연합되어 있는 자들을 향하여 자기는 하나님께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그의 지위도 존경을 받지 못하고 그의 자유마저 빼앗길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릇되게 전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하늘 주민 앞에서 낮추려고 계획하였다는 엉뚱한 거짓말과 노골적인 기만을 퍼뜨리며 하나님의 아들을 비난하였다. 그는 자기와 충실한 천사들 사이에 근거없는 논쟁을 일으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자기편으로 전향하여 완전히 가담하지 않는 모든 자를 향하여 하늘 주민들의 유익에 냉담한 자들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는 자기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의 책임을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에게 전가시켰다. 그는 또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불공평한 처사를 공격하기 위하여 창조주를 잘못 나타내고자 힘썼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교활한 논증을 전개함으로 천사들을 미혹하려 하였다. 그는 단순한 모든 것을 신비한 방법으로 가리고 교묘하게 왜곡시킴으로 가장 분명한 여호와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 그의 높은 지위는 그의 말을 한층 더 힘 있게 하였으므로 그에게 가담하여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여 반기를 드는 자들이 많아졌다.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불평의 정신이 실제적인 모반 행위로 나타나기까지 사단의 활동이 진척되도록 허용하셨다. 그들의 본성과 진상이 모든 자들에게 분명히 드러나기까지 그의 계획이 충분히 실현될 필요가 있었다. 루스벨은 기름부음을 받은 그룹으로서 크게 높임을 받아왔고 천사들에게 크게 존경을 받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하나님의 정부는 하늘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들을 포함하였다. 그러므로 사단은 만일 그가 천사들을 반역에 가담시킬 수만 있으면 모든 세계들도 자기편에 가담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사단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온갖 궤변과 허위를 다하여 교묘하게 자기의 처지를 설명하였다. 그의 기만의 능력은 매우 놀라웠다. 그는 거짓의 가면으로 자신을 가장함으로써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그러므로 충성된 천사들까지도 그의 본성을 충분히 분별하지 못하고 그의 사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없었다.

사단은 크게 존경을 받아왔고 그의 모든 행위는 신비로 가려져 있었으므로 천사들이 그의 활동의 본질을 알아보기가 어려웠다. 죄가 완전히 드러나기 전에는 그것이 얼마나 사악한 것이었는지 알 수 없다. 지금껏 하나님의 우주에는 죄가 전혀 없었으므로 하늘의 거룩한 거민들은 죄의 본질과 극악성에 대하여 도무지 알지 못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함으로 나타날 무서운 결과를 깨닫지 못하였다. 사단은 처음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처럼 거짓되게 고백함으로써 자기의 행위를 감추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분의 정부를 확립하며 모든 하늘 주민의 행복을 구하는 것처럼 주장하였다. 그는 한편으로 그의 지도 아래 있는 천사들의 심중에 불만의 정신을 넣어 주면서 표면상으로는 불평을 없애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나타냈다. 그가 하나님의 정부의 율법과 질서를 변개코자 했을 때 그는 하늘에서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처럼 나타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취급하실 때 오직 의와 진리만을 사용하실 수 있으셨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는 아첨과 기만을 사용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전하고 하나님의 정부의 방침을 천사들 앞에 잘못 나타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늘 주민들에 대한 율법과 법칙을 제정하실 때 공정하게 하지 않았고 피조물의 복종과 순종을 요구하심으로 하나님 자신만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하늘 주민과 온 세계들 앞에서 하나님의 정부가 공의롭고 그분의 율법이 완전하다는 것이 실증되어야 한다. 사단은 자기 자신이 온 우주의 행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자처럼 보이게 했다. 그 찬탈자의 본성과 참 목적이 모두에게 알려져야 한다. 자신의 악한 행위에 의하여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도록 그에게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사단은 자신의 행위로 하늘에 야기된 분쟁에 대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정부에 그 책임을 돌렸다. 그는 모든 죄악이 하나님의 정부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자신이 목적하는 바가 여호와의 법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주장하는 바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증명해 주고 그가 시도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될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 보여 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므로 그 자신이 한 일이 그를 정죄해야만 한다. 사단은 처음부터 자신이 반역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전 우주는 그 기만자의 정체가 폭로되는 것을 보아야 한다.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사단이 하늘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후에도 그를 즉시 멸망시키지 아니하셨다. 오직 사랑의 봉사만이 하나님께 가납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충성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대한 확신에 기초해야 한다. 하늘과 그 밖의 모든 다른 세계의 주민들은 아직 죄의 본질과 그 결과에 대하여 깨달을 단계가 못 되었으므로 사단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은혜임을 깨달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만일 사단이 즉시로 멸망을 받으면 그들은 사랑으로보다는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었다. 그리하여 사단의 감화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반역의 정신도 여전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었다. 그러므로 죄악이 충분히 성숙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영원히 온 우주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정부에 대한 사단의 비난의 진상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그리고 그분의 율법의 불변성이 영구히 의문시되지 않을 위치에 놓일 수 있도록 사단이 그의 주장들을 완전히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사단의 반역은 장차 올 모든 시대를 통하여 온 우주에 하나의 교훈, 곧 죄의 본질과 그 무서운 결과에 대하여 영원한 증거가 될 것이었다. 사단의 지배와 그것이 인류와 천사에게 미치는 영향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할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보여 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부와 그분의 율법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전체의 복리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었다. 그리하여 무서운 반역의 경험에 따른 역사는 온 우주의 모든 거룩한 주민을 영원히 보호해 주는 방편이 되어 그들을 범법의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고 범죄와 그 고통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하늘에서 투쟁이 끝날 때까지 그 큰 찬탈자는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하여 주장하였다. 그러나 마침내 그의 동조자들과 함께 복된 하늘에서 추방당하는 선고를 받자 그 반역의 괴수는 대담하게 창조주의 율법을 멸시하는 말을 공언하였다. 그리고 그는 천사들은 지배받을 필요가 없으며 언제나 그들을 바르게 지도해 줄 그들 각자의 의지를 따르도록 허용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율법을 폐지하여 천사들을 그 속박에서 해방시켜 하늘의 군대들에게 더욱 높고 영광스러운 상태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고 선언하였다.

사단과 그의 동료들은 그들의 반역의 책임을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전가시키고 만일 그들이 견책을 받지 않았을 것 같으면 결코 반역을 일으키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사단과 그 무리는 불충성하는 일에 대담하고 완고해진 나머지 하나님 정부를 전복하려고 헛되이 노력하였다. 반역의 괴수와 그의 모든 동조자들은 불손하게도 그들은 압제의 세력에 죄없는 희생자들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당했다.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킨 그 동일한 정신은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반역을 선동한다. 사단은 일찍이 천사들에게 사용했던 것과 같은 방침을 인류에게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지금도 그의 정신은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 사단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제약을 깨뜨리고자 노력하고 법을 범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해 주고자 애쓰고 있다. 죄를 책망하는 일은 여전히 증오와 반항을 일으키고 있다.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이 사람의 양심을 각성시킬 때 사단은 사람들에게 스스로 의롭게 여기게 하고 그들의 죄악적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의 동정을 구하게 한다. 그들은 자신의 행위를 고치는 대신에 오히려 책망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만들어낸 것인 양 그에게 분노를 나타낸다. 이것이 의인 아벨의 시대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죄를 책망하는 자들에 대하여 나타낸 정신이다.

사단은 그가 하늘에서 한 것과 꼭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 나타냄으로 하나님을 마치 가혹하고 포학한 분으로 여기게 하여 사람들을 범죄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그의 반역에 휘말려 들어가서 범죄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부당한 속박이 인류를 타락케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품성을 선포하신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 (출 34:6, 7) 는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하늘에서 추방시킴으로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당신의 보좌의 영광을 보존하셨다. 그러나 인류가 이 반역 정신에 감염되어 죄를 범하였을 때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어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의 증거를 보이셨다. 속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난다. 십자가는 루스벨이 택한 죄악의 길에 대하여 하나님의 정부에 그 책임을 결코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온 우주 앞에 실증하는 큰 논증이다.

구주께서 지상에서 봉사 생애를 하시는 동안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전개된 투쟁이 대기만자의 품성을 드러냈다. 그가 세상의 구주께 자행한 잔인한 공격만큼 천사들과 충성된 온 우주 거민들의 애정을 사단에게서 효과적으로 근절시킨 것은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께 자기에게 경배하도록 요구한 도전적인 모독, 그를 산꼭대기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간 참람되고 오만한 일, 악의를 품고 현기증이 날 정도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권유한 일, 끊임없는 모략으로 주님을 여기저기 따라다니면서 책잡고자 한 일, 제사장과 백성들을 선동하여 그분의 사랑을 거절하게 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부르짖게 한 일, 이 모든 것은 온 우주의 경악과 의분을 자아내게 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거절하도록 선동한 것은 사단이었다. 악의 임금은 그의 온 힘과 간계를 다하여 예수님을 멸하려 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구주의 은혜와 사랑과 동정과 자비가 하나님의 품성을 이 세상에 나타내고 있음을 잘 알았기 때문이었다.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이 주장하는 모든 점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구주의 생애가 고통과 슬픔으로 충만해지게 하였다. 예수님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사단이 사용한 궤변과 허위, 불순종의 자녀들을 통하여 나타낸 증오, 비교할 바 없이 선한 생애를 사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사단의 잔인한 비난, 이 모든 것은 다 강한 복수심에서 나온 것들이었다. 이 때까지 쌓여온 질투와 원한과 복수의 불길이 갈바리에서 한꺼번에 하나님 아들에게 폭발되었다. 그 때에 온 하늘은 조용한 공포 속에 그 광경을 목격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큰 희생을 치르시고 승천하셨다. 그는 천사들의 경배 받기를 거절하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요 17:24) 고 먼저 간청하셨다. 그 때에 하늘 아버지의 보좌에서는 무한한 사랑과 능력으로 다음과 같은 대답이 나왔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히 1:6). 예수께서는 한 점의 흠도 없으셨다. 그분의 겸비가 끝나고 희생이 이루어졌으므로 그분에게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주어졌다. 이제 사단의 죄는 아무런 핑계할 여지없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는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로서의 올바른 본성을 드러냈다. 만일 그가 하늘 거민을 지배할 권세를 얻었을 것 같으면 자기의 권세 아래 있는 인류를 지배한 것과 똑같은 정신으로 하늘 거민들을 지배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나타났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함으로 자유와 높임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그 일이 속박과 타락을 초래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사단이 하나님의 품성과 정부를 거짓으로 비난하고 있는 사실이 진상 그대로 드러났다. 그는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복종과 순종을 요구함으로 당신 자신을 높이는 일만 힘쓰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리고 그는 창조주께서 다른 모든 존재들에게 극기하라고 강요하면서 자신은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주의 통치자께서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최대의 희생을 하신 것이 나타났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 (고후 5:19) 셨기 때문이다. 또한 루스벨은 영광과 최상권을 얻기 위하여 죄가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 놓은 반면,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멸하기 위하여 스스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드러났다.

하나님께서는 반역의 정신에 대하여 혐오감을 나타내셨다. 온 하늘은 하나님의 공의가 사단을 정죄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다 같이 나타났음을 보았다. 루스벨은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될 수 없고 그 형벌이 경감될 수 없다면 율법을 범하는 모든 자가 창조주의 은총에서 영원히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었다. 그는 죄에 빠진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 밖에 있으므로 자기의 정당한 포로가 되었다고 주장해 왔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돌아가신 사실은 도무지 꺾을 수 없는 논증이 되었다.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분께서 율법의 형벌을 받으시므로 인류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의 몸이 되고 겸손과 회개의 생애로써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승리하신 것처럼, 이겨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사망을 맛보신 것은 인류의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었다. 주님께서는 또한 율법을 크게 하고 존귀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 율법은 마땅히 존중을 받아야 하는바 그분께서 오신 것은 이 세상의 거민들이 율법을 그처럼 존중히 여기도록 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주의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이었다. 만일 율법의 요구가 취소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을 범한 죄를 속하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바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율법의 불변성을 입증한다. 무한한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을 강권하여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치르게 한 희생, 곧 이 속죄의 계획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 희생은 공의와 자비가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의 정부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온 우주에 실증해준다. 마지막 심판이 집행될 때 죄가 존재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 분명해질 것이다. 온 세상의 심판장께서 사단을 향하여 "네가 어찌하여 내게 반역하고 내 나라의 백성들을 내게서 빼앗아 갔느냐?"고 심문하실 때 죄의 창시자는 아무런 변명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모든 입은 닫힐 것이고 모든 반역의 군사들은 오직 유구 무언해질 것이다.

갈바리의 십자가는 율법의 불변성을 말해 주는 한편,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것을 온 우주에 선포한다. 구주께서 임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실 때 사단의 멸망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오랫동안 계속하여 온 대쟁투는 이제 판가름이 나고 죄악의 최종적 도말이 확정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히 2:14) 멸하기 위하여 무덤의 문을 통과하셨다. 루스벨은 자기를 높이고 싶은 욕망으로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사 14:13, 14) 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네가 죄악이 많고…불의하므로…내가…너로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네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로다" (겔 28:18, 19).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개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 (말 4:1) 하리라. 온 우주는 죄의 본질과 결과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처음에 천사를 두렵게 하고 하나님께 욕을 돌리게 하는 듯하던 죄의 최종적 박멸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즐겨 행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우주의 거민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옹호하고 그분의 명예를 세우는 일이 될 것이다. 다시는 죄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나 1:9) 고 말한다. 사단이 속박의 멍에라고 비난하여 온 하나님의 율법은 자유의 율법으로 높임을 받을 것이다. 시련과 연단을 받은 피조물들은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이루어진 품성을 그들 앞에 완전히 드러내신 하나님께 다시는 충성심을 변치 아니할 것이다.

30 장 — 지옥의 적개심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 3:15). 인류의 타락 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리신 이 선고는 동시에 하나의 예언이었다. 그것은 종말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에 미치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참가할 대쟁투를 미리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내가...원수가 되게 하리”라고 선언하신다. 이 원수 관계는 선천적으로 되지 않는다. 인류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으므로 그의 본성은 악해졌다. 그리하여 그는 사단과 조화되고 불목하지 않게 되었다. 죄인과 죄의 창시자인 사단과는 본질상으로 아무런 원수 관계가 존재치 않는다. 둘 다 반역으로 악해졌다. 그 배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행위를 모방하게 하여 동조와 후원을 얻기 전에는 결코 안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타락한 천사들과 악한 자들은 결사적으로 연합하기로 하였다. 만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지 않으셨을 것 같으면 사단과 인류는 동맹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대항하였을 것이다. 인류는 사단과 원수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에 연합하였을 것이다.

사단은 천사들을 반역에 가담시켰던 것처럼 인류를 범죄하도록 유혹하여 하나님을 대항하는 싸움에 협력하게 했다.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일에 있어서는 사단 자신과 타락한 천사들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없었다. 다른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는 의견이 달랐을지라도 그들이 우주의 통치자의 권위를 반대하는 일에는 완전히 연합하였다. 그러나 사단이 그와 여자와 그리고 그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라는 선언을 듣자 그는 인간의 본성을 타락시키려는 그의 노력이 방해를 받을 것과 인류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기의 세력을 저항할 수 있게 될 것을 알았다.

인류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인류에 대한 사단의 증오심이 불타올랐다. 하나님의 창조 사업을 무너뜨리고 더럽힘으로 그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전복시키고 하나님께 불명예를 돌리고자 열망한다. 그는 하늘에 슬픔이 있게 하고 땅은 재난과 황폐로 충만해지게 만들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악이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한 결과로 생긴 것이라고 지적한다. 사람의 마음속에 사단에 대한 증오심을 일으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영혼 속에 주입시키시는 은혜이다. 이와 같이 회개케 하는 은혜와 새롭게 하는 능력이 없었으면 인류는 계속적으로 사단에게 사로잡혀 그의 명령에 복종하고자 언제나 대기하고 있는 종노릇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심령에 있는 새로운 원칙이 지금껏 평화롭던 곳에 투쟁을 일으킨다.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찬탈자요 폭군인 사단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 누구든지 죄를 사랑하는 대신에 미워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정욕을 정복한 증거를 나타내면 전적으로 하늘에서 온 원칙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과 사단의 영 사이에 존재하는 적의는 세상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것은 그분께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서가 아니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외적 상태의 부족을 채우고도 남을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순결과 성결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증오심을 일으켰다. 그분의 극기와 결백한 헌신의 생애는 거만하고 방종한 자들에게 그침 없는 견책이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적의를 일으켰다. 사단과 악한 천사들은 악한 사람들과 합세했다. 모든 반역의 세력은 진리의 투사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자 꾀하였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주님께 나타냈던 것과 똑같은 적의가 나타난다. 죄의 가증한 성질을 깨닫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유혹을 거절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사단과 그 부하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진리의 순결한 원칙에 대한 증오, 그 원칙을 옹호하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와 비난은 죄와 죄인들이 존속하는 한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과 사단의 종들은 서로 조화될 수 없다. 십자가에 대한 공격은 그치지 않았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딤후 3:12). 사단의 부하들은 사단의 지휘 아래 하나님의 정부와 반대되는 그의 나라를 건설하고 그의 권위를 확립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의 충성심을 버리도록 유혹하고자 애를 쓴다. 그들의 지도자처럼 그들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곡해하고 왜곡시킨다. 사단이 하나님을 비난하기 위하여 애쓴 것처럼 그의 부하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훼방하고자 애를 쓴다. 그리스도를 죽게 한 그 정신이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죽이도록 악한 자들을 자극시킨다. 이 모든 일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는 최초의 예언에 이미 나타나 있다. 이것은 세상의 종말까지 계속될 일이다.

사단은 그의 온 군대를 동원하여 전투에 그의 힘을 다 쏟고 있다. 그런데도 그가 더 큰 저항을 받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왜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그처럼 깊이 졸고 냉담한 상태인가?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실제적 연결이 거의 없고 그분의 영이 너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주님께서 죄에 대하여 하신 것처럼 그렇게 죄를 미워하고 가증히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확고하고 단호하게 죄를 저항하지 않는다. 그들은 죄가 어느 정도로 악하고 가증한 것임을 알지 못하므로 암흑의 왕의 특성과 세력에 대하여 눈이 멀어 있다. 그들은 사단과 그 사업에 대하여 별로 적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단의 세력과 그의 악랄함에 대하여 너무도 무지하고 사단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대하여 어느 정도 전선을 확장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된다. 그들은 그들의 원수가 그 악한 천사들을 임의로 부리며 잘 짜여진 계획과

교묘한 행동으로 영혼의 구원을 방해하고자 그리스도와 싸우고 있는 강한 장군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리스도인으로 공언하는 사람들,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까지도 이따금 강단에서 말하는 것 외에는 사단에 대하여 말하는 일이 참으로 드물다. 그들은 사단이 끊임없이 활동하여 성공을 거두고 있는 증거들을 못보고 지나간다. 그들은 사단의 교활함에 대한 많은 경고들을 등한히 여긴다. 그들은 사단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서도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사람들이 그의 간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이 방심하지 않는 원수는 끊임없이 그들의 뒤를 밟고 있다. 그는 모든 집, 각 도시의 거리, 교회, 의회, 재판정에 들어가서 혼란을 일으키고 속이고 유혹함으로써 도처에서 남자들과 여자들과 아이들의 육체와 심령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넣고 증오와 경쟁과 투쟁과 혼란과 살인의 씨를 뿌린다. 그러나 그리스도교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으로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과 분리시키는 장벽을 무너뜨림으로써 그들을 정복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지된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하고자 모험함으로 죄에 빠지도록 유혹을 받았다. 그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타락하게 된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취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후 4:4). 그리스도의 확고한 추종자들이 아닌 사람들은 모두 사단의 종이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에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과 죄를 간직하고 핑계하려는 정신이 있다. 그러나 거듭난 마음에는 죄를 미워하고 그것을 확고하게 저항하는 마음이 있다. 그리스도인이 경건치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택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를 시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사단은 자신을 숨기고 속임수의 휘장으로 감쪽같이 그들의 눈을 가리운다. 그들은 그런 교제가 그들에게 해를 주리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 끊임없이 품성과 언어와 행동에 있어서 세상과 동화됨으로 그들은 더욱더 눈이 멀어간다.

세상의 습관을 따를 것 같으면 교회가 세상으로 돌아가지 세상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죄와 친숙해지면 필연적으로 죄에 대한 저항이 적어진다. 사단의 종들과 교제하는 길을 택하는 자는 미구에 그들의 지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다니엘이 왕의 궁정에서 당한 것처럼 우리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시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우리 스스로 자신을 시험을 받는 처지에 두게 되면 우리는 조만간에 넘어질 것이다. 유혹자는 흔히 자기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으로 거의 의심받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 가장 성공적으로 활동한다. 교육을 많이 받고 재능 있는 사람은 흔히 존경과 찬양을 받되 마치 그러한 자격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각의 부족을 보충해 주거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재능과 교양 자체는 하늘의 선물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경건의 대용이 될 때, 사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기보다 그분께로부터 멀리 떠나가게 할 때 그것들은 저주와 함정이 된다. 예모 있고 고상한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은 어느 의미에서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잘못이 없다. 그런 특성들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단장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참 종교를 위하여 좋은 감화를 끼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은 악을 위한 세력이 된다. 세련된 지성과 쾌활한 태도를 가진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도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사단의 손에서 단지 세련된 기구의 역할을 한다. 그의 영향력과 모본에 나타난 교묘하고 기만적인 특성은 무식하고 교양 없는 자들보다 더욱 많은 위험을 하나님의 사업에 끼친다.

열렬한 기도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심으로 솔로몬은 세상의 경이와 칭찬의 대상이 된 지혜를 얻었다. 그러나 그가 그의 능력의 근원이신 분을 떠나서 자신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그는 유혹의 포로가 되었다. 그리하여 가장 지혜로운 그 왕에게 주어졌던 놀라운 능력은 그를 영혼의 원수에게 봉사하는 효과적인 기구로 전락시켰을 뿐이었다.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진리에 대하여 눈멀게 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엡 6:12) 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다음과 같은 영감 받은 경고가 각 시대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벧전 5:8), "마귀의 궤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엡 6:11).

아담의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큰 원수는 억압하고 파괴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왔다. 그는 이제 교회를 대항하기 위한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이 잔인한 원수와 싸워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모본자를 유사하게 닮아가면 갈수록 그는 더욱 분명히 사단의 공격 목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악한 자의 기만을 폭로하고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제시하고자 애쓰는 모든 사람은, 많은 눈물과 시련 속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봉사했노라고 말하는 바울의 간증에 동참할 수 있다. 사단은 가장 맹렬하고 교묘한 시험으로 그리스도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싸움을 물리치셨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싸움들을 싸우셨다. 그리스도의 승리들은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가능케 해준다. 그리스도께서는 구하는 모든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자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정복당할 수 없다. 유혹자는 사람의 의지를 지배하거나 죄를 범하도록 강제할 능력이 조금도 없다. 그는 사람을 괴롭힐 수는 있어도 더럽힐 수는 없다. 그는 번민케 할 수는 있으나 죄에 물들게 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죄와 사단을 대항하는 싸움을 용감하게 싸우도록 용기를 북돋아 준다.

31 장 — 악령의 정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관계, 하나님의 천사들의 봉사, 악령 활동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며 인류 역사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악령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경향이 있을 뿐 아니라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 (히 1:14) 을 입은 천사들을 죽은 자의 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은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들이 육체를 떠난 죽은 자의 영이 아님을 분명히 증명해 준다. 천사들은 인류가 창조되기 전에 벌써 있었다. 땅의 기초가 놓일 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 (욥 38:7) 기 때문이다. 또한 인류가 타락한 후에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하여 천사가 파견되었는데, 그때는 아직 한 사람도 죽기 전의 일이었다. 천사는 그 본성이 사람보다 우수하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저 (사람) 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시 8:5) 라고 말한다.

성경은 하늘 거민의 수와 그 능력과 영광에 대하여 또한 그들과 하나님의 정부와의 관계, 그리고 또한 속죄 사업과의 관계에 대하여 알려 준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또 선지자는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라고 말한다. 만왕의 왕 앞에서 시위하는, "능력이 있"는 천사들은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고 그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시 103:19~21; 계 5:11) 자들이다. "선지자 다니엘은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보았다" (단 7:1). 사도 바울은 그들을 "천만 천사" (히 12:22) 라고 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 (겔 1:14) 다. 그들은 광휘 찬란한 전광 (電光) 처럼 빠르다. 구주의 무덤에 나타난 천사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으며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마 28:3, 4) 되었다. 거만한 앗수르 사람 산헤립이 하나님을 훼방하고 조롱하면서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고 위협할 때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에서 군사 십팔만 오천을 친지라." 산헤립의 군대의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앗수르 왕이 얼굴이 뜨뜻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 (왕하 19:35; 대하 32:21) 갔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는다. 천사는 축복의 약속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의인 롯을 맹렬한 불로 인한 멸망에서 구원해내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 또한 주림과 피곤으로 광야에서 죽게 된 엘리야에게, 적군에게 포위되어 있는 작은 도성에 불말과 불병거와 함께 엘리사에게 천사가 왔다. 이방 궁정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와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을 때의 다니엘에게, 헤롯의 옥에 갇힌 베드로에게, 빌립보의 옥에 갇힌 죄수들에게, 밤중에 해상에서 폭풍을 만난 바울과 그 동행자들에게,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자 고넬료에게, 이방인 사자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하고자

베드로에게 천사가 보내심을 받았다. 이와 같이 천사들은 각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봉사해 왔다.

보호하는 한 천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각 사람에게 지정되어 있다. 그 하늘의 보호자들은 의인을 악한 자의 세력에서 지켜 준다. 이 사실은 사단 자신도 시인했다. 그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이까" (욥 1:9, 10) 라고 한 말은 그 사실을 말해준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데 사용하시는 존재가 시편 기자의 말에 나타나 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시 34:7). 구주께서는 당신을 믿는 자들에 관하여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마 18:10) 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봉사하도록 지정된 천사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암흑의 왕의 부단한 악의와 기만력의 습격을 받고 악의 세력과 싸울지라도 하늘의 천사들의 끊임없는 보호가 보증되어 있다. 필요 없이 그런 보증이 주어질 수 없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보호의 약속을 하신 것은 그들이 강한 악의 세력과 대결할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는 무수하게 많고, 굳세고, 지칠 줄 모르는 악한 세력들이 있는데, 그들의 악의와 세력을 깨닫지 못하거나 유의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전해질 수 없다 태초에 죄 없이 창조된 악령들은 그 본성과 권능과 영광이 지금 하나님의 사자로 봉사하는 자들과 같았다. 그러나 그들이 죄 때문에 타락하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인류를 멸망시키는 일에 단합하여 있다. 그들은 사단의 반역에 가담하여 그와 함께 하늘에서 쫓겨났으며 각 시대를 통하여 사단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들의 동맹과 정부, 여러 가지 계급, 그들의 지혜와 교활,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파괴하기 위한 악의들을 알고 있다.

구약의 역사는 악령들의 존재와 활동에 대하여 이따금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당시만큼 악령들이 가장 악랄하게 활동한 적은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구속하는 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러므로 사단은 자기에게 세계를 지배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결심하였다. 사단은 팔레스틴을 제외한 온 세상의 각 곳에서 우상을 숭배케 하는 일에 성공을 거두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이 아직 완전히 지배하지 못한 유일한 땅에 하늘의 빛을 비추시기 위하여 오셨다. 여기서 서로 경쟁하는 두 세력은 최상권을 주장하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사랑의 팔을 펴고 당신 안에서 용서와 화평을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부르셨다. 흑암의 군대는 그들이 무한한 지배권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들은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사명을 완전히 수행하시면 그들의 지배도 미구에 끝날 것을 이해했다. 그러므로 사단은 쇠줄에 결박된 사자처럼 분노하여 사람들의 마음과 몸을

지배하는 일에 자신의 힘을 무제한으로 발휘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신약 성경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다.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보통 질병으로 고통하는 것과는 달랐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취급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완전히 이해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악령의 실제적 존재와 활동을 인정하셨다.

악령의 수효와 위력과 악의에 비하여 그리스도의 능력과 자비가 얼마나 대조적인지를 알려 주는 뚜렷한 예증은 거라사의 사귀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는 성경의 이야기에 나타나 있다. 그 가련한 미치광이들은 모든 속박을 던져 버리고 몸을 비틀고 입에 거품을 물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면서 자학하고 가까이 접근하는 모든 사람을 위협했다. 흑암의 왕은 피투성이가 된 그들의 상한 몸과 그들의 혼란한 마음을 기쁘게 바라보았다. 그 고통하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던 한 사귀는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막 5:9) 라고 소리쳤다. 로마 군대에서는 한 군단이 3 천 내지 5 천명으로 되어 있었다. 사단의 군대 역시 이와 같은 단체가 되어 진군한다. 그리고 그 사귀들이 속한 군대는 로마의 한 군단의 인원만큼 큰 단체였다. 예수님의 명령으로 사귀들은 그들의 포로들에게서 떠나가고 그 사람들은 조용하고 온순하고 정신이 똑똑하게 되어 구주의 발아래 앉았다. 그러나 그 사귀들은 돼지 떼들을 몰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요청하여 허락을 받았다. 그러자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축복보다 그 손실이 더 크다 하여 거룩한 치료자 되신 예수님을 떠나가도록 강요했다. 이것이 사단이 얻고자 했던 결과였다. 그들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 돌림으로 사단은 사람들에게 이기적 공포심을 일으켜서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사단은 손실, 불행, 고난의 원인을 그와 그의 부하들에게 돌리는 대신에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그 원인인 것처럼 비난을 받게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목적은 좌절되지 않았다. 주님께서 악령들에게 돼지 떼들을 멸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그러한 더러운 짐승을 기르는 유대인들을 견책하시기 위함이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이때에 그 사귀들을 막지 아니하셨을 것 같으면 사귀들은 돼지뿐 아니라 그 지키는 자들과 그 주인까지도 바다 가운데 빠지게 하였을 것이다. 그 돼지를 지키는 자들과 주인이 보호된 것은 오직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한 주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그 사건은 제자들에게 인류와 짐승들에게 나타나는 잔인한 사단의 세력을 보여 주기 위함이었다. 구주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만나게 될 원수가 어떤 자들임을 알고 그 간계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원하셨다. 또한 그 지방 사람들이 사단의 속박을 깨뜨리고 그에게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키시는 당신의 위력을 보게 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다. 비록 예수께서는 그 곳을 떠나셨지마는 그처럼 놀라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예수님의 긍휼을 전파하기 위하여 거기에 남아 있었다.

그와 유사한 실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족속의 한 여인의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셨다 (막 7:26~30 참조). "귀신들려 눈멀고 벙어리된 자" (마 12:22),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 (막 9:22) 진 자,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을 소란케 하던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 (눅 4:33), 그 모든 사람들을 인자하신 주님께서 고쳐 주셨다. 예수께서는 거의 언제든지 마치 사람에게 말씀하시듯이 귀신을 향하여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 그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그 때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의 위대한 능력을 목격하고 다 놀라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매 나가는도다" (눅 4:36) 고 말하였다.

일반적으로 사귀 들린 사람들은 심하게 고통하였으나 예외로 그렇지 아니한 경우도 있었다. 초자연적 능력을 얻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은 사단의 영향을 의도적으로 받았다. 그들이 사귀와 싸우지 아니할 것이 당연하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점치는 귀신에 접한 자들이다. 마술쟁이 시몬, 박수 엘루마,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의 뒤를 따른 여종 등이 여기에 속한다 (행 8:9, 13:8, 16:6 참조). 확실하고 충분한 성경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과 악한 천사들의 존재와 활동을 부인하는 자들처럼 악령의 영향을 받는 일에 있어서 더 위험한 처지에 있는 자들은 없다. 우리가 악령들의 간계를 알지 못하면 그들은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유익을 얻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그들 자신의 지혜가 명하는 대로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악령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끝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을 속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더욱 큰 세력으로 활동하여 사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도처에 퍼뜨린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자신의 활동 방법을 감추는 것이 사단의 정책이다.

자신의 술책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보다 대기만자 사단이 더 두려워하는 것은 없다. 그는 더욱 잘 자신의 정체와 목적을 숨김으로 다만 조소와 비난의 대상으로서만 사람들에게 주목되도록 자신을 나타내 왔다. 그는 자기가 반수 반인 (半獸半人) 의 기형적이며 흉칙스러운 것으로 표현되는 것을 기뻐한다. 그는 스스로가 지혜롭고 지성적인 사람으로 자처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름이 웃음과 조롱거리로 사용되는 말을 듣고서 기뻐한다. "그런 존재가 참으로 존재하는가?"라는 말을 어디서나 듣는 것은 그가 참으로 교묘하게 가면을 잘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 종교계에서도 가장 분명한 성경의 증언과 전연 반대되는 이론이 일반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사실은 바로 그가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증거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흉악한 역사에 대한 많은 실례를 열거하고 그의 은밀한 세력을 우리에게 폭로해 주고 그의 공격에 대하여 우리를 경계하게 하는 것은 그의 영향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이 가장 쉽게 사단에게 지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일 초월하신 구주의 능력으로 구원과 보호를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사단과 그 부하들의 세력과 악의에 놀라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우리는 집에 빗장을 채우고 자물쇠를

잠금으로 악한 자들의 손에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매우 주의한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힘과 수단으로써는 그 공격에 저항할 수 없는 악한 천사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접근해 올지라도 거기에 대하여 생각하는 일은 별반 없다. 만일 사단에게 맡겨진다면 그는 우리의 마음을 미치게 하고 우리의 육체를 망가뜨리고 고통스럽게 하며 생명과 재산을 파괴할 것이다. 그들의 유일의 기쁨은 불행과 파멸에 있다.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고 사단의 유혹에 굴복하여 마침내 악령의 지배를 받도록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의 상태는 무서운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언제나 그분의 보호 아래서 안전하다. 능력이 뛰어난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파견된다. 악한 자는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들을 둘러 진치고 있는 보호의 벽을 깨뜨릴 수 없다.

32 장 — 위험한 속임수

거의 6 천 년간에 걸쳐 계속되어 온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는 미구에 끝나게 된다. 그러므로 악한 자는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업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고 사람들을 그의 사슬에 굳게 매어 두기 위하여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 구주의 중보 사업이 끝나고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더 이상 효력을 나타내지 않게 될 때까지 사람들을 암흑과 완고한 상태에 붙들어 두는 것이 그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다. 사단은 자기의 권세를 거절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없을 때, 세상과 교회에 냉담한 상태가 팽배해 있을 때 별반 주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와 같은 상태에 있을 때에는 그들을 자기 손에서 잃어버릴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영원한 사물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라고 부르짖을 때에는 사단이 벌써 와서 그리스도의 권세와 다투고 성령의 감화를 소멸시키고자 노력한다.

성경은 어떤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는데 사단도 그 가운데 와서 참석했다고 말한다 (욥 1:6 참조). 사단은 영원하신 왕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의로운 자들에 대하여 자신의 악한 술책을 쓰기 위해서 참석했다. 사단은 똑같은 목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곳에 참석한다. 비록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는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는 노련한 장군처럼 미리 계획을 세운다. 하나님의 종들이 성경을 상고할 때 그는 사람들 앞에 제시될 문제에 관하여 주목한다. 그러고는 그가 속이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별을 듣지 못할 환경을 만들고자 온갖 계책과 수단을 쓴다. 경고가 가장 필요한 자는 꼭 참석해야 할 어떤 중대한 일을 보도록 만들고 또한 그 이외의 어떤 방법으로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든다.

사단은 다시 하나님의 종들이 영적 암흑에 싸여 있는 사람들 때문에 매우 근심하는 것을 본다. 그는 냉담과 부주의와 태만의 결박을 풀어 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그들이 열렬하게 기도하는 소리를 듣는다. 그러면 그는 더욱 새로운 열성으로 자신의 술책을 적용한다. 사단은 사람들이 식욕과 그밖에 자만의 상태에서 방종하도록 유혹한다. 그리하여 그는 그들의 지각을 마비시켜 그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바로 그 사실을 듣지 못하게 한다. 사단은 그가 성경 연구를 게을리 하고 기도를 등한히 하도록 유혹할 수 있는 자는 모두 자기의 공격으로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 위하여 온갖 술책을 다 쓴다. 경건한 체하면서 진리를 알고자 하지 않고 자기와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의 품성의 결함이나 믿음의 잘못을 찾아내는 것을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언제나 존재해 왔다. 그런 자들은 사단의 오른팔에 해당되는 조수들이다.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들이 적지 않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종들이 그분에게 진정한 경배를 드릴 때 언제나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왜곡되게 나타낼

것이다. 그들은 가장 열렬하고 진실하고 극기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을 마치 기만당하였거나 혹은 기만하는 자로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모든 진실하고 고상한 행위의 동기를 그릇 전하여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릇된 암시를 주고 의혹을 일으키는 것이 그들의 사업이다. 그들은 여러 가지 술책을 써서 순결하고 의로운 것을 더럽고 기만적인 것처럼 생각하게 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에게 속을 필요는 없다. 그들이 누구의 자식이며 누구의 본을 따르고 있으며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지 쉽게 알게 될 것이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마 7:16) 라. 그들의 행동은 악독한 무고자 (誣告者),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계 12:10) 인 사단의 행동과 유사하다.

대기만자는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오류, 곧 그가 멸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취미와 적성에 맞도록 준비한 여러 가지 이단설을 전하는 많은 부하들을 가지고 있다. 사단은 교회 안에 불성실하고 거듭나지 않은 자들을 들여보내어 그들에게 의심과 불신을 권유하는 한편, 하나님의 사업이 발전되기를 원하며 그 사업과 함께 전진하고자 하는 자들을 방해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어떤 원칙들만 시인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그릇된 생각을 성경의 교리처럼 소개하게 된다. 사람이 어떻게 믿든지 그것이 별반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태도는 사단의 가장 성공적인 기만 중 하나이다. 사단은, 사랑 가운데서 받아들여진바 되면 진리가 그것을 받아들인 자의 심령을 성결하게 하여 준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그는 거짓 교리, 지어낸 말, 다른 복음 등으로 대치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종들은 거짓 교사들과 싸워왔다. 그들은 그 사람들을 단순히 부도덕한자들로서뿐만 아니라 영혼에게 치명적인 거짓을 가르치는 자로서 싸워왔다. 엘리야와 예레미야와 바울은 확고하고 두려움 없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자들을 규탄하였다. 이 거룩한 진리의 옹호자들은 믿는 신조가 바르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사상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일반 그리스도교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성경 말씀에 대한 애매하고 이상한 해석과 종교적 신앙에 관한 여러 가지 모순된 이론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케 하며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큰 원수가 하는 소행이다. 그리스도교계의 여러 교회에 존재하는 불화와 분열은 주로 좋아하는 이론을 지지하기 위하여 성경을 곡해하는 일반적 습관에 기인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주의 깊이 연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새롭고 기이한 것을 발견하기 위하여 연구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릇된 교리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없는 행위를 옹호하기 위하여 성경의 어떤 절을 그 전후 관계없이 끊어 내거나 한 절 중 절반만을 인용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는 그 나머지 부분이 전혀 반대의 의미를 나타내 줄 것이다. 그들은 뱀과 같이 교활하게 전혀 관련이 없는 성경절들을 그릇 인용하여 그들의 육신적 욕망에 맞도록 조절한다. 또한 상상력이

풍부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성경의 표상과 상징을 자기들의 상상력에 일치하도록 해석하여 성경 자체가 성경의 해석자인 사실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억설을 성경의 가르침인 양 설명한다.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경건하고 겸손하고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정신으로 하지 아니하면 가장 어려운 구절은 물론이요 가장 쉽고 단순한 구절일지라도 그 진정한 의미를 곡해할 수 있다. 법왕교의 지도자들은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들을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최선의 도구로 택하여 그들의 목적에 부합되게 해석한다. 그리고 그들은 백성들에게 성경을 연구하고 그 거룩한 진리를 스스로 이해할 특권을 박탈하면서 그들에게 그 구절들을 제시한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것이다. 성경의 교훈을 아무렇게나 왜곡시켜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성경 강의를 하지 않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다.

성경은 창조주의 뜻을 알고자 갈망하는 모든 사람을 지도하기 위하여 주어졌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예언의 확실한 말씀을 주셨다. 천사들과 그리스도 자신까지 장차 속히 올 사건들을 알려 주시기 위하여 다니엘과 요한에게 오셨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중요한 것들은 신비에 싸인 채 남겨지지 않았다. 그것들은 정직한 진리 탐구자들이 당황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시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선지자 하박국을 통하여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합 2:2) 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경건한 마음으로 연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밝혀져 있다. 진정으로 정직한 모든 사람은 진리의 빛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 (시 97:11) 셨다. 교인들이 마치 감춰진 보화를 찾듯이 열심으로 진리를 탐구하지 아니하면 교회도 성결을 향하여 전진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자유주의를 부르짖음으로 원수의 간계에 눈이 멀어 있는 동안 원수는 언제나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그가 만일 인간의 이론으로 성경을 대신하는 데 성공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도외시되고 모든 교회들은 자유, 자유라고 외치면서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에게 과학적 연구는 저주가 되어 왔다. 하나님께서는 과학과 기술에 있어서의 발견과 발전으로 세상에 빛의 홍수가 쏟아지도록 허락하셨다. 그러나 아무리 해박한 지식을 가진 자들일지라도 그들의 연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지도되지 않으면 과학과 계시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 미로에 빠진다.

물질적 사물이거나 영적 사물이거나를 막론하고 인간의 지식은 부분적이며 불완전하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과학적 견해를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시킬 수 없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단순한 이론과 가설을 과학적 사실처럼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 (딤전 6:20) 으로 시험되어야 할 것처럼 생각한다. 그들은 창조주와 그분의 사업을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연 법칙으로 그것들을 설명할 수 없고 성경 역사를 믿을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구약과 신약 성경의 기록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자들은 너무도 흔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 나머지 무한한 능력을 자연에 돌린다. 그리하여 그들의 닻줄이 끊겨지므로 그들은 불신의 암초에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벗어나서 마귀에게 미혹당한다. 사람들은 그들의 창조주보다 더 지혜롭게 되고자 노력해 왔다. 인간의 철학은 영원토록 결코 계시될 수 없는 오묘를 찾아내고 설명하려고 시도해 오고 있다.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에 관하여 알려 주신 것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하여 연구하고 이해했을 것 같으면 그들은 여호와의 영광과 위엄과 능력을 깨닫고 자기 자신들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들 자신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계시해 주신 것으로 만족하게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지 않으시고 깨닫게 하고자 의도하지도 않으시는 것에 관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찾아내고자 하고 추측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속임수의 걸작이다. 그와 같이 하여 루스벨은 하늘에서 그의 지위를 잃어버렸다.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은밀한 목적을 자기에게 알려 주지 않으셨다 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높은 지위에 관하여 계시된 것을 완전히 무시해 버렸다. 그는 자기 휘하에 있는 천사들에게 동일한 불만을 갖게 함으로써 그들을 타락시켰다. 오늘날도 그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정신을 넣어 줌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무시해 버리도록 노력하고 있다.

분명하고 예리한 성경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는 자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양심을 진정시켜 줄 즐거운 이야기를 듣고자 노력하고 있다. 영적인 것이 아니고 극기와 겸비를 더욱 적게 요구하는 교리를 제시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욱 큰 호감을 가지고 받아들인다.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육적 욕망을 위하여 지력을 저하시킨다. 그들은 뉘우치는 마음과 열렬한 기도로써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필요가 없으리 만큼 영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을 미혹에서 지킬 길이 없다. 사단은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채워 줄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들에게 진리 대신 거짓 것을 쥐어 준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법왕권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리고 개신교도들 역시 십자가의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에 진리를 거절하고 그와 동일한 길을 따르고 있다. 세상과 일치되기 위한 편의와 방편을 연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는 모든 자들은 종교적 진리 대신에 지독한 이단설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고의적으로 진리를 부인하는 자들은 여러 가지 형태의 오류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어떤 종류의 속임수를 공포감으로 바라보는 자도 다른 기만을 쉽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는 자에 관하여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살후 2:10~12) 고 하였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경고는 우리가 어떠한 교리를 받아들일 것인가를 신중히 살펴보도록 알려 준다.

큰 기만자의 활동 중 가장 성공적인 것은 강신술의 기만적인 교훈과 이적들이다. 그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의심을 받지 않는 곳에 그물을 친다. 만일 사람들이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성경 연구에 몰두한다면 그들은 거짓 교리를 받아들일 만큼 어둠에 빠져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거절할 때 그들은 속임수의 포로가 된다. 또 한 가지 위험한 오류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교리로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초림하시기 전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교리이다. 이 이론은 성경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지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구주께서 당신과 아버지와의 관계, 당신의 신격 (神格), 당신의 선재성 (先在性) 에 대하여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신 바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것은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지 않고서는 품을 수 없는 견해이다. 그것은 속죄 사업에 대한 인류의 관념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믿음을 위태롭게 만든다. 그런 사상은 극히 위험할 뿐 아니라 그런 사상을 가진 자들을 설복시키는 것 역시 어렵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영감적인 성경의 증언을 부인할 것 같으면 그 점에 대하여 그들과 토론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단호한 이론일지라도 그것이 그들을 설복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고전 2:14). 그러므로 그런 오류를 주장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품성과 그분의 사명, 그리고 인류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대하여 올바른 관념을 가질 수 없다.

또 하나의 교묘하고 유해한 오류가 급속히 퍼져가고 있는데 그것은 사단은 어떤 인격적 존재가 아니며 성경에 그 이름이 사용된 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품고 있는 악한 생각과 욕망을 나타내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죽을 때 각 개인에게 그분께서 오시는 일이라고 일반적으로 강단에서 널리 전해 온 가르침은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직접 강림하시는 사실에서 분리시키기 위한 하나의 술책이다. 사단은 오랫동안 "보라 그리스도가...골방에 있다" (마 24:23~26) 는 말을 거듭해 왔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은 그와 같은 속임수를 받아들임으로 잃어버린 바 되었다. 세상에 속한 지혜는 또한 기도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고 가르친다. 과학자들은 기도가 실제적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그것이 법칙을 어기는 것, 곧 이적이 되어야 하는데 이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우주가 일정불변의 법칙으로 지배되고 있으며, 하나님 자신이 그 법칙에 반대되는 일을 하실 리가 만무하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칙에 지배를 받고 계시되, 그 법칙을 지배하실 자유는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못 나타낸다. 그런 가르침은 성경의 증언에 배치된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이 이적을 행하지 않았던가? 긍휼이 많으신 동일한 구주께서는 오늘날에도 살아 계신다. 그리고 그분께서 사람들과 함께 걸어 다니시던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그분께서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기쁜 마음으로 들어 주신다. 자연은 초자연적인 것과 협력한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께서 주시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다.

오늘날 그리스도교계의 교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릇된 교리와 기상천외의 사상들은 무수하게 많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이정표를 제하여 버림으로 생기는 해독은 헤아릴 수 없다.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 자가 단 하나의 진리만을 버리고 그 일을 그치는 경우는 별로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의 원칙들을 하나씩 차례로 버리게 되고 마침내 그들은 철저한 무신론자가 되고 만다. 인기 있는 신학의 오류들이 성경을 믿을 뻔했던 많은 사람들을 회의론자가 되게 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정의와 긍휼과 자비의 관념에 반대되는 교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그것들이 성경의 가르침으로 나타날 때에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한다.

이것이 사단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보다 사단이 더 바라는 것은 없다. 사단은 회의주의자들의 큰 군대의 선두에 서서 사람들을 속여 자기의 편에 가담시키게 하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오늘날은 의심하는 일이 유행하고 있다. 성경이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저자인 하나님께 대한 것과 같은 이유로 불신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많다. 성경의 요구에 순종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자들은 성경의 권위를 전복하고자 노력한다. 그들은 단순히 성경에서, 혹은 설교에서 무슨 결점을 찾아내기 위하여 성경을 읽고 강단에서 하는 설교에 귀를 기울인다. 의무 태만에 대한 구실을 만들고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무신론자들이 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만과 나태에서 회의론의 원칙을 채택한다.

그들은 노력과 극기를 요구하는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들을 드러낼 수 없을 만큼 안일을 좋아한 나머지 성경을 비평함으로 탁월한 지혜가 있다는 명성을 얻고자 목적한다. 성경에는 하늘의 지혜를 받지 아니한 유한한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으므로 그들은 이 점을 들어 비평의 기회를 삼는다. 불신과 회의와 무신론 편에 서는 것을 일종의 덕인 것처럼 생각하는 자들이 많다. 그들은 솔직한 것처럼 가장하고 있지마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자부심과 교만한 마음으로 행동하고 있음이 나타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하여 성경에서 무엇인가를 찾아내기를 즐긴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논쟁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먼저 비평하고 그릇된 편에서 이론을 전개한다. 그들은 그런 모양으로 새 사냥꾼의 그물에 그들 스스로가 걸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은 공개적으로 불신을 나타냈으므로 그들의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불경건한 자들과 연합하고 스스로 하늘의 문을 닫아 버린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의 거룩한 특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주셨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위대한 진리는 밝히 제시되어 있다. 진정으로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각 사람은 스스로 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그들의 신앙의 터가 될 확고한 기초를 주셨다. 그러나 유한한 사람의 마음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능히 온전히 알" (욥 11:7) 수 없다. 우리는 참람된 손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엄을 가리고 계신 휘장을 들어 올려서는 안 된다. 사도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롬 11:33) 고 부르짖는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취급하시는 것과 그분께서 일하시는 동기를 이해하는 정도만큼 우리는 무한한 능력과 연합된 풍성한 사랑과 자비를 깨달을 수 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의와 지혜로써 명령하시므로 우리는 불만을 갖거나 불신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할 정도만 당신의 목적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이므로 그 이상의 것은 전능하신 그분의 손과 사랑이 많으신 그분의 마음에 맡겨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대하여 충분한 증거를 주시는 한편 불신에 대한 구실은 결코 완전히 제거해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의심을 걸어둘 갈고리를 찾는 자는 모두 그것을 찾을 것이다. 모든 장애가 없어지고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결코 빛을 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놓여 있는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결과이다. 그러나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취되며, 그것을 마음에 간직함으로써만 왕성해질 것이다. 어떤 사람이든지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고서는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없다. 불신 역시 조장함으로써 강해진다. 그러므로 만일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지탱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를 마음에 간직하는 대신에 그들 스스로를 의심하고 트집 잡는 일에 몰두할 것 같으면 그들의 의심은 계속하여 더욱 굳어져감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을 의심하고 그분의 은혜의 보증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감화는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는 대신에 도리어 그분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멀리 그리고 넓은 범위까지 어두운 가지들을 뻗고, 다른 나무에 비칠 햇빛을 막아 버리므로 그 나무들을 찬 그늘 아래서 시들어 말라죽게 하는 열매 없는 나무들이다. 이런 사람들의 평생 업적은 그들에 대한 결코 지워버릴 수 없는 증거로써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틀림없이 수확하고야 말 의혹과 불신의 씨를 뿌리고 있다. 의심에서 벗어나기를 진정으로 희망하는 사람들이 취할 유일의 길이 있다. 그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에 관하여 의심하고 트집 잡는 대신에 이미 그들에게 비추어진 빛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하면 그들은 더욱 큰 빛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분명히 깨달은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리하면 그들은 현재 의문을 품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단은 진리와 너무나 흡사한 모조물을 제시하므로 진리가 요구하는 극기와 희생을 좋아하지 않고 속임수에 빠지기를 좋아하는 자들을 속인다. 그러나 비록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진리를 알고자 정직하게 바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사단이 자신의 권세 아래 붙들어 둘 수 없다. 그리스도는 진리이며,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취는 빛" (요 1:9) 이시다. 진리의 영은 사람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하여 보내신 바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마 7:7),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 7:17) 는 선언이 내려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사단과 그의 부하들이 그들에 대하여 꾸미고 있는 음모를 별로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하늘에 좌정해 계신 하나님은 당신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런 간계들을 모두 제압해 버리실 것이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심한 시련을 받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그분께서 그들이 받는 번민과 고통을 기뻐하시기 때문에서가 아니고 그들의 최후 승리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서이다. 그분께서는 시종 여일하게 당신 자신의 영광으로 그들을 유혹에서 보호하실 수는 없으시다. 왜냐하면 시련의 참 목적은 모든 악의 유혹을 대적할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는 데 있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버리며, 믿음으로 그분의 허락을 굳게 붙잡는다면 악인들이나 마귀들도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을 막을 수 없다. 공공연한 것이든지 은밀한 것이든지 모든 유혹과 모든 반대 세력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슥 4:6) 성공적인 저항이 가능하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벧전 3:12, 13). 발람이 많은 보상의 약속으로 유혹을 받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술 (邪術) 을 행하고 주님께 희생 제물을 드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 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은 그가 하는 악한 말을 막으시고 발람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부르짖게 하셨다.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다시 희생 제물을 드렸을 때 그 경건치 않은 선지자는 부르짖었다.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제단이 쌓아졌으며 발람은 다시 저주를 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 선지자의 원치 않는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은 그분의 택한 백성의 번영을 선언하시고 그들의 원수들의 어리석음과 사악함을 견책하셨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민 23:8, 10, 20, 21, 23, 24:9).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있는 한, 지상과 지옥의 어떤 권세도 그들을 이길 수 없었다. 그러나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언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그 저주는 마침내 그가 그들을 범죄하도록 유혹함으로써 그들에게 그 저주가 임하게 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멸망시키는 자의 손아귀에 빠지게 되었다. 사단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가장 연약한 사람이 암흑의 군대보다 더욱 강하다는 것과 만일 자기가 공공연하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다면 상대방이 대항하고 그를 저항할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십자가의 군사들을 그들의 견고한 요새에서 유인하여 냄과 동시에 복병을 두어 자기의 진지에 들어오는 모든 자를 멸망시킬 준비를 갖추고 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할 때만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 어떤 사람도 기도 없이는 하루나 한 시간도 안전하지 못하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유혹자의 간계와 그를 성공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나 있다. 사단은 성경절을 인용하여 거기에 자기의 해석을 붙이는데 전문가이다. 그는 그런 수단을 사용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바라고 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사단의 간계에 대하여 끊임없이 경계하는 동시에 믿음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33 장 — 최초의 큰 기만

인간 역사의 초기부터 사단은 우리 인류를 속이기 위하여 활동하기 시작했다.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킨 그는 지상의 거민들을 자기편에 가담시켜 하나님의 정부를 대항하여 싸우게 하고자 열망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이 사실은 사단이 하나님의 율법이 압제적이요 피조물들의 복리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하늘에서 역설해 온 주장을 끊임없이 거스르는 증거가 되었다. 그리고 더욱이 그 무죄한 부부를 위하여 마련된 아름다운 가정을 바라볼 때 사단의 질투는 불타올랐다. 그는 그들을 타락시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그들을 자신의 세력 아래 예속시켜 세상의 소유권을 얻어 이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결심하였다.

아담과 하와는 이미 이 위험한 원수에 대하여 경고를 받아왔으므로 만일 사단이 자신의 정체를 그대로 나타냈다면 그는 즉시 거절당하였을 것이었다. 그러나 사단은 그의 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적을 숨기고 암암리에 활동했다. 그는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동물이던 뱀을 그의 매개물로 이용하여 하와에게 말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 3:1). 만일 하와가 그 유혹자와 말을 교환하지 않았다면 그는 안전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감히 그 유혹자와 이야기하고자 함으로 그의 간계에 빠져버렸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같은 방법으로 정복을 당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대하여 의심하고 이론을 제기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대신에 사단의 간계가 숨겨 있는 데 불과한 사람의 이론을 받아들인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 3:2~5). 그는 그들이 하나님과 같아지고 전보다 더욱 큰 지혜를 소유하게 되어 그 존재가 더욱 고상한 상태로 바뀔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와가 유혹에 넘어지고 그의 영향을 받아 아담도 죄를 짓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와는 전혀 반대되는 뱀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창조주를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유를 속박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분의 율법을 범함으로써 큰 지혜와 높은 위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상상했다.

그러나 범죄한 후 아담이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한 말씀의 의미가 무엇임을 깨달았을까? 그는 사단이 더욱 고상한 상태로 바뀔 것이라고 확신케 했던 그대로 된 것을 발견했던가? 만일 죄를 범함으로 크게 좋은 일이 생겼다면 사단은 인류의 은인임이 입증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께서 선고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그런 것이 될 수 없음을 발견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범한 죄의 형벌로 그가 취함을 입었던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 3:19). "너희 눈이 밝"으리라고 한 사단의 말은 오직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만 사실임이 입증되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의 어리석음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악이 무엇임을 알고 범죄의 쓴 열매를 맛보았다.

에덴동산의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었는데 그 열매는 생명을 영원히 지속시키는 능력이 있었다. 만일 아담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순종하였을 것 같으면 그는 끊임없이 자유롭게

그 나무에 접근하여 영원히 살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죄를 범하자 그는 생명나무에 나아갈 길이 끊어져 죽음에 굴복하게 되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는 하나님의 선고는 완전한 생명의 파멸을 알려 준다. 순종을 조건으로 사람에게 약속된 불멸 (不滅) 은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바 되었다. 아담은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그의 후손에게 전해줄 수 없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희생으로 불멸을 그들의 손에 닿는 곳에 두지 아니하셨을 것 같으면 타락한 인류에게 소망이 없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롬 5:12).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복음으로써 드러내" (딤후 1:10) 셨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불멸을 얻을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 (요 3:36) 리라고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이 조건에 부합하는 자는 이 무한히 귀한 축복을 소유할 수 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롬 2:7) 모든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담에게 불순종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고 약속한 유일의 존재는 큰 기만자뿐이었다. 그리고 에덴동산에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와에게 말한 뱀의 선언은 영혼 불멸에 관한 최초의 설교였다. 그러나 오로지 사단의 권위에 기초를 둔 이 주장이 그리스도교계의 강단에서 반향되고, 마치 우리의 첫 조상이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과 똑같이 인류의 대다수가 그것을 즐겨 받아들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겔 18:20) 고 선언하셨지마는 범죄한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사단의 말을 이처럼 쉽게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그처럼 불신하는 사람들의 이상한 반항에 대하여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사람이 타락한 후에도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유가 허용되었다면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따라서 죄도 사라지지 않고 영속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룹 천사와 불꽃 검이 "생명나무의 길" (창 3:24) 을 지켰으므로 아담의 가족 중 한 사람도 그 장벽을 통과하여 생명을 주는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죽지 않을 죄인은 한 사람도 없다. 인류의 타락 후 사단은 그의 사자들에게 사람의 선천적 불멸성에 대한 신조를 가르치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하도록 명령했다. 그리고 이 오류를 받아들이도록 미혹당한 사람들이 죄인은 영원한 불행 중에 살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도록 인도하였다. 대리자들을 통하여 활동하고 있는 암흑의 왕은 하나님을 보복심이 많은 폭군처럼 나타내되, 그분께서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자들을 모두 지옥에 던져 넣고 그들에게 언제나 그분의 분노를 느끼게 해주고 그들이 영원한 불꽃 속에서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 몸부림치는 동안 그들의 창조주는 만족한 마음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신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사단은 자기의 특성을 인류의 창조주시며 은인이신 하나님께 돌린다. 잔인성은 사단의 본성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분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최초의 큰 반역으로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순결하고 거룩하고 사랑스러웠다. 사단 자신은 인류를 범죄하도록 유혹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사람을 멸망시키는 원수다. 그리고 그는 사람을 자기의 희생물로 확실하게 장악한 다음에 자기가 초래케 한 그 파멸을 보고 기뻐 날뛰고 있다. 그는 할 수만 있으면 온 인류를 자신의 그물 안으로 쓸어 넣으려고 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아담의 자손은 하나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날도 사단은 옛날 우리의 첫 조상들을 정복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창조주께 대한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의 정부의 지혜와 그분의 율법의 공의로움을 의심하게 함으로써 오늘날 사람들을 정복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 사단과 그의 사자들은 자기들의 극악성과 반역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그들 자신들보다 더욱 나쁘게 나타낸다. 큰 기만자는 자기 자신의 성격에 있는 무서운 잔인성을 하나님 아버지께 전가시키고 자기가 그런 불공평한 통치자에게 복종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추방되어 매우 그릇된 대우를 받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자 애쓰고 있다. 그는 여호와의 가혹한 명령에 속박되는 것보다 자기의 관대한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자유라고 세상에 선전한다. 이와 같이 그는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여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버리게 하는 일에 성공을 거두고 있다.

죽은 악인들이 영원히 불타고 있는 지옥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것과 사람이 짧은 일생에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 동안 내내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교리는 사랑과 자비의 감정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심지어 공의에 대한 우리 자신의 견해에 비추어 볼 때에도 얼마나 모순되는가. 그러나 이 교리는 널리 유포되어 있고 그것이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교의 신경 (信經) 이 되고 있다. 어떤 유명한 신학 박사는 말했다.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광경은 성도들의 행복을 영원히 증진시켜 줄 것이다. 같은 성정을 가지고 같은 환경에서 태어난 다른 사람들이 그처럼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과 그들과 전혀 구별되어 있는 자신을 볼 때 그들의 행복감은 한층 더 커질 것이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진노를 받는 자들 위에 영원한 형벌이 집행되고 그 고난의 연기가 자비를 받은 자들의 눈앞에서 피어오를 때 비참한 자들의 운명을 면한 그들은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할지어다고 부르짖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어느 페이지에서 이런 말을 찾을 수 있는가? 구속을 받아 하늘에 있는 자들이 자비와 동정의 감정, 그리고 보통 사람들에게 있는 정서마저도 모두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들이 스토아 철학자들처럼 냉정해지고 야만인처럼 잔인하게 되는가?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의 책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다. 이미 인용한 것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학식 있고 또한 정직한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사단의 궤변에

속임을 당하고 있다. 사단은 그들에게 성경의 강한 표현들을 곡해하게 하고 창조주께 속하지 않고 자기에게 속한 악의와 원한의 뜻을 성경 구절에 붙인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겔 33:11).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고통을 목격하고 기뻐하시고 그분께서 지옥의 불속에 던진 자들의 고통과 괴로움과 저주의 소리를 듣기를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해도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될 것인가? 그 처참한 부르짖음이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의 귀에 음악으로 들릴 수 있을까? 사람들은 악인들에게 과해지는 끝없는 고통이 하나님께서 우주의 질서와 평화를 파괴한 악으로서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 그것은 얼마나 두려운 모독인가! 마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가 그 고통을 영원히 지속시키시는 이유인 것처럼 주장한다. 그 신학자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 불쌍한 희생자들은 자비의 희망 없이 끊임없는 고통으로 미친 것처럼 되어 저주와 참람된 말로 분노를 쏟아 놓으므로 그들의 죄의 무게를 영원히 더하고 있다.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죄가 계속하여 증가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는 것은 아니다.

영원 지옥설로 말미암아 초래되어온 악은 사람의 마음으로 능히 헤아릴 수 없다. 사랑과 자비로 충만하고 동정이 넘치는 성경의 가르침이 미신으로 어두워지고 공포로 가리워졌다. 사단이 하나님의 품성에 물들여 놓은 거짓된 색깔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우리의 자비로운 창조주를 두려워하고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고 심지어 증오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인가? 강단에서의 가르침을 통하여 온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무서운 견해는 수천, 아니 수백만의 회의론자와 무신론자들을 만들어 내었다. 영원 지옥설은 바벨론이 모든 나라에 마시우고 있는 "진노의 포도주"라는 거짓 교리 중 하나이다 (계 14:8, 17:2 참조).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들이 이런 이단설을 받아들이고 거룩한 단에서 그것을 전한다는 것은 실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은 마치 거짓 안식일을 로마교에서 받은 것처럼 그것도 로마교로부터 받았다. 위대하고 선량한 사람들이 그것을 가르쳐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 그들이 받은 빛은 우리가 받은 빛과 같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그들의 시대에 주어진 빛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비치는 빛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버리고 우리의 선조들이 가르쳤다는 이유로 거짓 교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바벨론에 선고된 정죄를 받게 된다. 우리는 바벨론의 가증한 독주를 마시게 된다.

또한 영원 지옥설을 반대하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그것과 반대되는 오류에 빠져 있다.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므로 그분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을 영원한 지옥 불에 던지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영혼이 근본적으로 불멸이라고 믿고 있으므로 인류는 최종적으로 모두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두려운 경고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을 순종하게 하고자 위협하는 것이며 글자 그대로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죄인이 비록 이기적 쾌락을 계속하고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할지라도 최후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교리는 하나님의 자비만 생각하고 그분의 공의를 무시하기 때문에 육신적 마음을 즐겁게 하고 악인들로 하여금 죄악을 범하기에 담대하게 해준다.

보편 구제설을 믿는 자들이 그들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교리를 지지하기 위하여 어떻게 성경을 곡해하고 있는지 보여 주는 데는 그들 자신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갑작스런 사고로 즉사한 믿지 않는 청년의 장례식에서 보편 구제설을 믿는 한 목사는 다윗에 관하여 쓴 성경절, 곧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삼하 13:39) 는 구절을 인용하였다. 그 설교자는 말하였다. "나는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을 떠난 자, 혹 술취한 상태에서 죽은 자, 범죄로 새빨갛게 물든 그들의 두루마기를 씻지 못한 채 죽은 자, 이 청년처럼 아직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고 믿음의 경험을 갖지 못한 채 죽은 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우리는 성경에서 만족을 얻는다. 성경이 이 두려운 문제에 관하여 답을 해주기 때문이다. 암논은 참으로 죄를 많이 지었고 회개하지 않았다. 그는 술주정뱅이로 술에 취한 채 죽임을 당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그는 암논이 내세에서 좋은 일을 당할 것인지 나쁜 일을 당할 것인지 길흉을 알았음에 틀림없다. 다윗은 그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하였는가?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삼하 13:39).

이 말에서 어떤 결론을 추리할 수 있는가? 영원한 고통이란 다윗의 신앙에서 찾아볼 수 없지 않는가? 우리는 그렇게 확신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보편적인 순결과 평안에 관한 더욱 기쁘고 더욱 광명하고 더욱 박애적인 가설 (假說) 을 지지하는 당당한 논증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위로를 받았다. 그러면 왜 그러했던가? 그는 예언적 안목으로 영광스러운 미래를 내다보고 그 아들이 온갖 시험에서 벗어나고 속박에서 해방되어 죄악적 부패에서 순화되고 완전히 거룩하고 지혜롭게 된 후, 이미 승천하여 즐거움을 누리는 영혼들의 무리에 가담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의 유일한 위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죄와 괴로움의 현 상태에서 놓여나서 성령의 거룩한 입김이 그의 어두워진 영혼에 내어 뿜겨질 곳으로 가서 그의 영혼이 하늘의 지혜와 영원한 사랑의 즐거움으로 일깨움을 받고 품성의 성화를 얻어 하늘 거민들의 안식과 교제를 같이 나누는 데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하늘의 구원이 우리가 이생에서 행한 일에 전혀 좌우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현재의 심적 변화나 신앙이나 신앙 고백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공언하는 사람이 에덴에서 뱀이 말한

거짓말, 곧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말을 되풀이한다. 그는 가장 비열한 죄인, 곧 살인자와 도둑과 간음한 자들도 죽은 후에는 영원한 복지에 들어갈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이처럼 성경을 곡해하는 자는 어디에서 자신의 결론을 끌어오는가? 그는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마음을 나타낸 단 하나의 문장에서 그 결론을 취한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그의 슬픔의 강도 (强度) 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해져서 그의 마음은 죽은 자에게서 산 아들, 곧 죄의 형벌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도망간 아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 구절이 근친상간 (近親相姦) 의 죄를 범한 술주정뱅이 암논이 죽은 즉시 복된 곳으로 가서 거기서 순결해지고 죄 없는 천사들과 교제할 자격을 얻게 된 증거가 된다고 한다. 그것은 육신적 마음을 만족시키기에 참으로 적절하게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가? 이것은 사단 자신이 만든 것으로써 그의 일을 효과적으로 해주는 교리이다. 이런 교리로 말미암아 죄악이 편만해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 한 거짓 교사가 따르는 노선은 다른 많은 거짓 교사들이 따르는 노선을 예시해 준다. 성경의 몇 구절들을 그 문맥과 상관없이 끊어 내어 그 본래의 의미와 전혀 반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그처럼 조리가 서지 않는 구절들을 왜곡시켜 성경상에 아무 근거도 없는 교리를 증명하는데 사용한다. 술주정뱅이 암논이 하늘에 있다는 증거로 인용한 증언은 술취한 자가 하늘나라를 얻지 못하리라고 한 분명하고 솔직한 성경 말씀에 완전히 반대되는 하나의 추론에 불과하다. 이런 모양으로 의심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회의론자들은 진리를 거짓말로 바꾼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궤변에 속아서 육적 안정이라는 요람에서 잠을 자고 있다.

만일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죽는 시간에 하늘로 직접 가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살아 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신조에 의하여 스스로 생명을 끊게 되었다. 곤란과 번민과 실망으로 마음이 눌릴 때 자기의 가냘픈 생명의 줄을 끊어 버리고 영원한 세계의 복락을 향하여 날아가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인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범한 자들을 벌하실 것에 대하여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증거를 주셨다. 그분께서 무한히 자비하시므로 죄인에게 심판을 집행하지 않으신다고 스스로 안심하는 자들은 갈바리의 십자가를 쳐다보아야 한다.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신 것은 죄의 삯이 사망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은 모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무죄하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죄인과 같이 되셨다. 그분께서는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아버지의 얼굴에서 외면당하셨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분의 심장은 터지고 그분의 생명은 부서졌다. 이 모든 희생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사람이 죄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이처럼 큰 희생으로써 마련된 속죄에 동참하기를 거절하는 자는 누구나 자기 자신이 그 죄책을 지고 범죄의 형벌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보편 구제론자들이 하늘에서 거룩하고 행복한 천사들처럼 된다고 하는, 경건치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이 허락은 오직 목마른 자들에 한해서만 주어진 허락이다. 오직 생명수의 필요성을 깨닫고 모든 다른 것들을 상실하고서까지 그것을 찾는 자들에게만 그것이 공급될 것이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 21:6, 7). 여기에는 또한 조건들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우리는 죄를 거부하고 이겨야 한다. 주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임이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사 3:10, 11) 고 말씀하신다. 현인은 "죄인이 백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녕히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 (전 8:12, 13) 라고 말한다. 그리고 바울은 죄인에 대하여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 (롬 2:5, 6, 9) 라고 증거한다.

"너희는 이것을 정녕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 (엡 5:5) 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로다" (히 12:14).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계 22:14, 15).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품성과 죄를 취급하시는 당신의 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출 34:6, 7), "여호와께서...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 (시 145:20, 37, 38) 진다. 하나님의 정부의 권위와 능력은 반역을 진압하기 위하여 사용될 것이다. 그러나 보응하는 징벌을 나타내는 모든 일도 자비롭고 오래 참고 긍휼이 많은 하나님의 품성에 완전히 부합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의지나 판단도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노예적인 굴복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당신께서 사랑을 받으실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당신의 지혜와 공의와 자비를 충분히 깨달은 후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특성들에 대하여 올바르게 깨달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그분께 이끌려가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우리 구주께서 가르치시고 친히 모본을 보이신 사랑과 자비와 친절의 원리는 하나님의 품성과 의지의 사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으셨다고 주장하셨다.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구주의 교훈과 완전히 일치된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유익을 위하여 또한 당신의 심판을 받는 대상자의 유익을 위하여 악인들에게 벌을 내리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정부의 율법과 당신의 품성과 공의로움에 일치되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다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는 증거들로 사람들 주위에 둘러 주시고 당신의 율법을 깨닫게 하시고 당신의 자비의 노력으로 그들을 따라오게 하신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고 그분의 율법을 무효로 만들고 그분의 자비를 거절한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서도 그 선물을 주신 분을 멸시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가증히 여기시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완고함을 오래 참으신다. 그러나 마침내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야 할 결정적 시간이 올 것이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 반역자들을 당신의 편에 묶어 두실까? 그들이 당신의 뜻을 행하도록 강요하실 수 있겠는가?

사단을 지도자로 삼고 그의 세력에 의하여 지배되어 온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교만과 허위와 방탕과 잔혹이 그들의 품성으로 굳어졌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 세상에서 그들이 멸시하고 증오한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겠는가? 진리는 거짓말하는 자에게 결코 듣기 좋은 것이 될 수 없다. 온유는 자부심과 교만으로 더불어 화합할 수 없다. 순결과 부패는 서로 용납되지 않는다. 이타적 사랑은 이기적인 사람에게 아무런 매력이 없다. 완전히 세속적이요 이기적인 관심에 몰두되어 있는 자들에게 하늘이 어떤 기쁨을 줄 수 있겠는가?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 허비한 자들이 갑자기 하늘로 옮겨져 언제나 그 곳에 있는 고상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상태를 목격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사랑으로 충만하고 얼굴에서 기쁜 빛이 흐르고, 하나님과 어린양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곡조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고,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 흘러나오는 부단한 빛의 줄기가 구원 얻은 자들에게 비치고 있는 광경을 목격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때에 하나님과 진리와 성결에 대한 증오심으로 충만해 있는 자들이 하늘의 무리들과 섞여서 그들의 찬양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을까? 그들이 하나님과 어린양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을까?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들에게 하늘에 적합한 품성을 이룰 수 있는 은혜의 시기가 여러 해 동안 주어졌다. 그러나 그들은 순결을 좋아하는 마음을 배양하지 않고, 하늘의 방언을 결코 배우지 않았으므로 이제는 너무

늦었다. 하나님을 반역한 생애가 그들을 하늘에 적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하늘의 순결과 성결과 평화는 그들에게 괴로움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태우는 불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 거룩한 곳에서 피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보지 않기 위하여 차라리 멸망 받기를 원할 것이다. 악인의 운명은 그들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들이 하늘에서 제외되는 것은 그들 스스로 자원해서 되는 일이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공의롭고 자비로운 처사이다.

마치 홍수 때의 물과 같이 마지막 날의 불은 악인들의 불의가 도무지 고쳐질 수 없다는 하나님의 판결을 선포한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할 의향이 없다. 그들의 의지는 반역에 사용되어 왔다. 그러므로 생명이 끊어졌을 때, 그들의 생각을 반대 방향으로 돌리기에는 때가 너무 늦었다. 범죄에서 순종으로, 증오에서 사랑으로 돌이키기에는 시기가 너무 늦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자 가인을 살려두심으로 죄인에게 마음대로 죄악의 길을 계속해서 걷도록 허용하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예증을 세상에 보이셨다. 가인의 가르침과 모본의 영향으로 그의 자손들의 다수가 죄에 빠지게 되어 마침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 (창 6:5) 이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 (창 6:5, 11) 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한 자비로써 노아 시대의 악한 거민들을 제거해버리셨다. 그분께서는 자비로써 부패한 소돔의 거민들을 멸망시키셨다. 사단의 기만적 능력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찬성과 칭찬을 받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반역으로 인도한다. 가인의 시대, 노아의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 롯의 시대에 그러하였고 또한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역시 그렇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을 최종적으로 멸망시키는 것은 우주에 대한 자비에서이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롬 6:23). 생명은 의인이 받을 유업이요 사망은 악인이 받을 몫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 (신 30:15) 노라고 말하였다. 이 성경절에서 말하는 사망은 아담에게 선고된 사망이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는 아담의 범죄의 형벌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영생과 대조적인 위치에 있는 "둘째 사망"이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온 인류에게 이르렀다. 모든 사람은 빠짐없이 무덤으로 내려간다. 그러나 구원의 계획으로 모든 사람은 그들의 무덤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행 24:15).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전 15:22). 그러나 이렇게 부활하는 자들 중에는 뚜렷이 구별되는 두 부류가 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 5:28, 29). 생명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 (계 20:6) 다. 그러나 회개와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 자들은 범죄의 형벌, 곧 "죄의 삯"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형벌을 받되, 그 기간과 정도는 다르나 최종적으로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와 자비에 모순되도록 죄인을 죄 있는 그대로 구원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 죄를 범함으로 스스로 간직할 자격이 없음을 입증한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취하신다. 한 영감의 기자는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 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시 37:10) 고 말한다. 또한 사람은 "본래 없던 것같이 되리라" (욥 1:16). 그들은 오명 (汚名) 으로 덮인 채 소망 없는 영원한 멸망으로 빠져들어 간다.

이리하여 죄와 그 결과로 초래된 불행과 파멸은 모두 종식된다. 시편 기자는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영히 멸망하였...나이다" (시 9:5, 6) 고 말한다. 요한은 계시를 통하여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조금도 음조가 틀리지 않는 완전히 조화된 훌륭한 찬양의 노래를 듣는다. 그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들었다 (계 5:13 참조). 거기에는 잃어버린 사람들이 영원한 고통 중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참람된 말을 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거기에는 구원 얻은 자의 찬미 소리와 함께 지옥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혼합되어 들려오지 않을 것이다.

영혼 불멸설의 근본적 오류는 죽은 후에 의식이 있다는 교리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이 교리는 영원 지옥에 관한 교리와 마찬가지로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며 인간의 이성과 감정에도 반대된다. 일반적 신앙에 의하면 구속함을 받아 하늘에 있는 자들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특별히 그들이 남겨 두고 간 친구들의 생애를 잘 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죽은 자가 산 자가 당하는 어려움을 아는 것, 그의 사랑하는 자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보는 것과, 그들이 당하는 생애의 모든 슬픔, 실망, 고통 등을 보는 것이 어찌 행복이 될 수 있겠는가? 지상에 있는 그들의 친구들 위를 배회하는 자들이 누리는 하늘의 축복이 어느 정도로 즐거움이 되겠는가? 회개하지 않은 자의 영혼은 그 숨이 끊어지자마자 지옥불에 던짐을 받는다는 믿음은 얼마나 역겨운 것인가? 그들의 친구들이 준비되지 못한 채 죽어서 영원히 죄와 저주를 받는 지옥으로 가는 것을 본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무서운 생각으로 발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다윗은 사람이 죽으면 의식이 없다고 말한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시 146:4). 솔로몬 역시 똑같은 증언을 한다.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히 분복이

없느니라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전 9:5, 6, 10).

히스기야왕이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 그의 생명이 15 년간 더 연장되리라는 응답을 받았을 때, 왕은 감사한 마음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하였다. 그 노래에서 그는 그가 기뻐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음부가 주께 사례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 자, 곧 산 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리이다" (사 38:18, 19). 세상에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신학은 죽은 의인이 하늘에서 영원한 복락에 들어가 불멸의 혀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한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죽음 가운데서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랄 수 없었다. 그의 말은 시편 기자의 말과 일치한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시 6:5),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시 115:17).

오순절에 베드로는 부조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행 2:29).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 (행 2:34) 다고 주장했다. 다윗이 부활할 때까지 그 무덤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은 의인이 죽을 때 승천하는 것이 아님을 증거한다. 다윗이 마침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되는 것은 다만 부활을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힘입어 성취된다. 그리고 바울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 (고전 15:16~18) 라고 말하였다. 만일 4 천 년 동안 의인이 죽을 때에 즉시 승천하였을 것 같으면, 바울이 어떻게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고 말할 수 있었겠는가? 만일 그렇다면 부활은 전혀 필요 없을 것이다.

순교자 틴덜은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죽은 자들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한 영광에 참여하였거나 하나님의 택하신 천사들과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음을 공언한다. 그것은 나의 신앙의 어떤 한 부분이 결코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육체의 부활에 관한 설교는 전혀 무익하다는 것을 나는 안다"[William Tyndale, Preface to New Testa-ment (ed1534).Reprinted in British Reformers — Tindale, Frith, Barnes). 사람이 죽을 때에 불사 (不死) 의 축복을 받는다는 소망이 부활에 관한 성경상 교리를 일반적으로 등한히 하게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경향에 대하여 아담 클라크 박사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부활의 교리는 오늘날보다 초대 교회가 더욱 중요하게 여긴 것 같다. 왜 그런가? 사도들은 항상 부활에 대하여 주장하였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부활을 통하여 근면하고 순종하고 즐거워하도록 격려를 받았다. 그런데 그들의 후계자들은

오늘날 그것을 좀처럼 말하고 있지 않는다. 사도들은 그렇게 설교하였고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믿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전하면 우리의 청중들도 그렇게 믿게 될 것이다. 복음의 교리에서 이것처럼 중대한 교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강단에서 이것처럼 등한시되는 교리가 없다!" (Commentary, remarks on 1 Cor-inthians 15, part 1).

이런 상태가 계속되어 마침내 영광스런 부활의 진리가 그리스도교계에서 거의 희미해지고 사라질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리하여 유명한 어떤 종교 저술가는 데살로니가전서 4 장 13 절로 18 절에 있는 바울의 말을 다음과 같이 주해하고 있다. "의인들의 복스런 불멸의 교리는 의심스러운 주의 재림에 대한 교리를 대신하여 실제로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 우리가 죽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고 깨어 있어야 할 이유이다. 죽은 자는 이미 영광중에 들어가 있다. 그들은 그들의 심판과 축복을 고하는 나팔 소리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떠나시려 할 때 그들이 미구에 당신께로 올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 14:2, 3) 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바울은 그 사실을 더욱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 준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전 4:16~18). 그리고 그는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부언한다. 이 위로의 말씀과 이미 인용한 보편 구제론을 믿는 목사의 말은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루는가! 그 목사는 남아 있는 친구들에게 그 죽은 자가 아무리 죄악적인 생애를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가 운명할 때 천사들에게 영접을 받는다는 말로 확신 있게 위로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장차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형제들에게 알려 주고 그때에 무덤의 속박을 깨뜨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영생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말한다.

누구든지 그 복된 하늘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생애가 조사받고 그들의 품성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 통과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그들의 행위에 따라 보응을 받는다. 그 심판은 사람이 죽을 때에 받는 것이 아니다. 바울의 말에 유의해 보라.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행 17:31). 여기서 사도는 세계의 심판을 위한 특별한 때, 곧 미래의 어떤 때가 작정되었다고 분명히 말했다. 동일한 기간에 대하여 유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리고 그는 다시 에녹의 말을 인용한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유 6, 14, 15). 요한은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 (계 20:12) 더라고 말한다. 만일 죽은 자들이 이미 하늘의 복락을 누리고 있거나, 혹은 지옥의 속에서 부르짖고 있다면 장래의 심판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이런 중대한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애매하거나 모순되지 않는다. 그 문제들은 보통의 두뇌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솔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보급되어 있는 이런 교리에서 지혜와 공의를 발견할 수 있을까? 의인들이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거하다가 심판의 때에 그들의 사건을 조사받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예할지어다” (마 25:21) 는 명령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악인들은 고통의 장소에서 끌려나와 온 땅의 심판장에게 “저주를 받을 너희여 나를 떠나...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 25:21, 41) 는 선고를 받게 되는가? 아,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에 대한 수치스런 모독이다.

영혼 불멸설은 로마교가 다신교에서 가져와 그리스도교로 들여보낸 거짓 교리들 중 하나였다. 마틴 루터는 그것을 “로마 법왕의 교령의 쓰레기더미의 부분을 이루고 있는 기괴한 이야기” (E. Petavel, The Problem of Immortality, p155) 로 분류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죽은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한 말을 그 종교 개혁자는 다음과 같이 주해한다. “또 다른 곳에서도 죽은 자는 아무 감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거기에는 의무도, 과학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고 그는 말한다. 솔로몬은 죽은 자가 잠을 자고 있으며 아무런 감각도 없다고 판단한다. 죽은 자들은 일단 누우면 날이나 해가 가는 것을 계산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이 깨어날 때에 그들은 잠깐 동안 잔 것처럼 생각할 것이다” (Martin Luther, Exposition of Solomon’s Book Called Ecclesiastes, p152).

사람이 죽을 때 의인은 상급을 받고 악인은 형벌을 받는다는 말을 성경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 부조들과 선지자들도 그런 증언을 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와 사도들도 그런 일에 대하여 암시조차 하지 않았다. 성경은 사람들이 죽는 즉시 승천하지 않음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그들은 부활할 때까지 자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살전 4:14; 욥 14:10~12 참조).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어지는 바로 그날에 그 사람의 생각은 없어진다 (전 12:6 참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은 침묵 중에 있다. 그들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것은 피곤한 의인들에게 주어지는 복된 휴식이 아닌가! 그들에게 있어서 시간은 길거나 짧거나 간에 단지 일순간에 불과하다. 그들은 자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 일어나 영광스러운 불멸을 입을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고전 15:52~55). 그들이 깊은 잠에서 깨어날 때 그들은 그의 생각을 그치게 되었던 그 순간을 생각해 낼 것이다. 그들의 마지막 감정은 죽음의 고통이었고 마지막 생각은 그들이 무덤의 세력 아래 넘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무덤에서 일어날 때 제일 처음으로 일어나는 그들의 기쁜 생각은 다음과 같은 승리의 함성 가운데 메아리칠 것이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전 15:55).

34 장 — 죽은 사람들이 우리와 교통할 수 있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룩한 천사들의 봉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는 귀중한 진리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일반 신학상 오류로 애매해지고 곡해되었다. 영혼 불멸의 교리는 처음에 이교 철학에서 빌려 온 것인데 큰 배교의 암흑시대에 그리스도교와 결합되었다. 그리하여 그것은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분명히 가르친 성경의 진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입은 "부리는 영"을 죽은 자의 영이라고 믿게 되었다. 그들은 성경이 하늘의 천사의 존재와 인간의 죽음이 있기 전 인류의 역사와의 천사들의 관련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는다.

죽은 후에 사람에게 의식이 있다는 교리, 특별히 죽은 자의 영이 생존한 자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돌아온다는 신조가 현대 강신술의 길을 열어 놓았다. 만일 죽은 자가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 앞에 나가는 일이 허락되고 그들이 세상에서 가졌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지식을 가질 특권을 받는다면 그들이 현재 살아 있는 자들을 깨우쳐주고 가르치기 위하여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을 이유가 있겠는가? 일반 신학자들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만일 죽은 자들의 영이 세상에 있는 그들의 친구들 위에서 배회하고 있다면, 그들이 친구들과 교통하고 죄악을 경고해 주고 슬픔을 위로해 주도록 허락되지 않을 이유가 있겠는가? 죽을 때에 사람에게 의식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영화롭게 된 영들이 전달하는 거룩한 빛처럼 그들에게 이르러 오는 것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신성하게 간주되는 하나의 매체가 있는바 사단은 그것을 통하여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한다. 사단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타락한 천사들은 마치 영계에서 온 사자들처럼 나타난다. 악의 왕은 산 자와 죽은 자를 교통하게 해준다고 공언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매혹적 감화를 끼친다.

그는 죽은 친구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능력이 있다. 그 모조품은 완전하다. 똑같은 모습, 말씨, 음성을 놀랍도록 명확하게 재생해낸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복락을 누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 위로를 받는다. 그들은 위험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인다.

죽은 자들이 실제로 돌아와서 그들과 교통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일단 믿게 되면 사단은 준비되지 못한 채 무덤으로 간 사람들을 나타나게 한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에서 매일 행복하게 지내고 있으며 거기서 높은 위치에 있다고까지 주장한다. 그리하여 의인과 악인 사이에 아무 차이가 없다는 오류가 널리 유포된다. 영계에서 온 방문자들처럼 가장한 자들이 나타나 때로는 정확히 성취될 경계와 경고를 말해 주기도 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되면 그들은 성경을 믿는 믿음을 직접 손상시키는 교리를 제시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에 있는 친구들의

복리에 깊은 관심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가장 위험한 오류를 암암리에 넣어 준다. 그들이 약간의 진리를 말하고, 때로는 장래에 일어날 사건들도 예언하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의 말이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 거짓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쉽게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가장 신성한 성경의 진리처럼 맹목적으로 믿게 된다. 하나님의 율법은 무시되고, 은혜의 성령은 멸시당하고, 언약의 보혈은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 영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심지어 창조주를 그들 자신과 동일한 수준에 둔다. 그리하여 그 큰 반역자는 새로운 변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싸움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 이 싸움은 하늘에서 시작되어 세상에서 약 6 천 년간 계속되어 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신비한 현상을 오로지 영매의 속임이나 요술로 간주하고자 노력한다. 물론 진정한 것처럼 보이되 실상은 속임수에 해당하는 것이 많지만 또한 초자연적 능력이 나타나는 때도 많다. 근대 강신술의 효시가 되는 신비한 두드림은 인간의 속임수나 솜씨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악한 천사들이 직접 행한 일이었으며 그들은 그렇게 하여 사람을 멸망시키는 가장 성공적인 기만 중 하나를 가져오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강신술을 단순히 인간의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믿으므로 기만당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초자연적 능력의 표현을 목격하게 되면 그들은 기만당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사단과 그의 부하들이 행한 이적들에 관한 성경의 증언을 간과해 버린다. 바로의 요술쟁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흉내 내기 위하여 기이한 일을 행한 것은 사단의 도움에 의한 것이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이와 유사한 사단의 능력의 표현이 있을 것을 증언한다.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 (살후 2:9, 10) 이 일어날 것이다. 사도 요한도 이적을 행하는 능력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 (계 13:13, 14) 리라. 여기에 예언된 것은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다. 사람들은 사단을 대리하는 자들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적에 속을 것이며, 단순한 속임수에 속을 것이 아니다.

속이는 일에 오랜 경험을 가진 암흑의 왕은 온갖 부류와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교활하게 시험한다. 그는 교양 있고 세련된 사람들에게 강신술을 극히 세련된 지적 방면에서 제시함으로 많은 사람을 자신의 올무에 걸려들게 하는 데 성공을 거둔다. 강신술이 주는 지혜는 이미 사도 야고보로 말미암아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 (약 3:15) 다. 그러나 그 큰 기만자는 이러한 은닉 (隱匿) 을 자기의 목적 달성에 가장 잘 맞도록 감춘다.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시험받으실 때 찬란한 하늘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났던 그는 빛나는 천사처럼 극히 매력적인 자태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그는

고상한 주제를 제시함으로 사람들의 이성에 호소한다. 그는 황홀한 장면을 나타내는 환상을 좋아한다. 그는 사랑과 자비에 관한 웅변적 묘사를 통하여 사람들의 애정을 이끈다. 그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크게 비약시키도록 자극하고, 그들이 가진 지혜를 자랑하게 하여 결국 그들의 마음으로 영원하신 분을 멸시하게 만든다. 구주를 심히 높은 산으로 인도하여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화를 보여 줄 수 있었던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감각을 왜곡시키는 방법의 하나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시험을 제시할 것이다.

사단은 에덴에서 아첨으로, 금지된 지식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일으킴으로, 스스로 높고자 하는 야망을 자극시킴으로 하와를 속인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그런 종류의 악을 간직함으로 사단 자신이 타락하게 되었으므로 그는 또한 그런 것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멸망시키고자 목적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선악을 알" (창 3:5) 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강신술은 "사람이 향상하는 동물이므로 날 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히 향상할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친다. 또한 "사람들의 마음은 각각 자신이 판단할 것이요 다른 사람이 할 것이 아니다", "그 판단은 스스로의 판단이므로 정확한 것이요 …그 판단의 보좌는 그대 속에 있다"고 한다. 한 강신술 교사는 "나의 동포여 영적 의식"이 마음속에서 생길 때 "모든 사람은 타락하지 아니한 반신반인 (半神半人) 들이 되었다"고 말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누구든지 의롭고 완전한 자는 그리스도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사단은 참된 경배의 대상이 되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의와 완전 그리고 사람이 도달하여야 할 참된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의 대신에, 죄와 거짓이 많은 사람 자신의 본성을 경배의 유일한 대상으로, 판단의 유일한 척도 혹은 인격의 표준으로 대체시켰다. 이것은 진보가 아니라 퇴보이다. 지적·영적인 면 모두에서 바라봄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의 법칙이다. 사람의 마음은 숙고하도록 허락된 사물에 점차적으로 적응된다. 그러므로 마음은 습관적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에 동화된다. 사람은 자신이 정한 순결과 양선과 진실의 표준 이상으로 향상할 수 없다. 만일 자아를 자신의 최고의 이상으로 삼는다면 그는 자기 이상의 표준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 오히려 그는 점점 더 퇴보되어 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은 사람을 고상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기 자신만을 신뢰하면 그는 필연적으로 퇴보할 수밖에 없다.

강신술은 교양 있고 지적인 사람들을 상대로 할 때보다 방탕하고 향락적이고 육욕적인 사람들을 상대할 때에는 교묘한 수단을 덜 쓰더라도 그것을 나타낼 수 있다. 그들은 강신술의 저속하고 야비한 형태 가운데서 그들의 성향에 일치하는 것을 발견한다. 사단은 인간성의 모든 연약한 상태를 연구하여 각 사람이 범하기 쉬운 죄를 찾아내고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애쓴다. 그는 사람들이 합법적인 일에 있어서도 과도히 행하게 함으로써 부절제를 통하여 육체적·정신적·영적 힘을 약화시키도록 유혹한다.

그는 정욕의 방종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이미 파멸시켰고 지금도 파멸시키고 있으며 사람의 전반적인 성격을 짐승처럼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 사업을 완성하고자 악령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참된 지식은 사람을 모든 율법에 구애되지 않게 해준다." "무엇이든지 존재하는 것은 옳다."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신다." "범하는 모든 죄가 무죄다." 만일 사람들이 이처럼 욕망이 최고의 법이고 자유는 방종이며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고 믿게 된다면 도처에 타락과 부패가 편만할 것을 누가 의심할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은 육신적 충동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가르침을 열렬하게 받아들인다. 그리하여 자제의 고삐는 정욕의 손에 쥐어지고 마음과 정신의 힘은 동물적 성질에 지배된다. 그리하여 사단은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그물 속으로 몰아넣는다.

그러나 아무도 강신술의 거짓 주장에 속을 필요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올무를 발견하기에 충분한 빛을 세상에 주셨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강신술의 바로 기초가 되는 이론은 가장 분명한 성경의 진술과 반대된다. 성경은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그 생각이 소멸되고, 해 아래서 행하는 어떤 일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그들의 가장 사랑하는 자들의 기쁨이나 슬픔도 모른다고 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영혼과 교통하노라고 주장하는 모든 일을 분명히 금하셨다. 구약 시대에도 오늘날의 강신술자들과 같이 죽은 자와 교통하노라고 주장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신접한 자"들이 다른 세계에서 온 자들이라고 부르는 그들을 성경은 "귀신의 영"이라고 말한다 (민 25:1~3; 시 106:28; 고전 10:20; 계 16:14 참조). 신접한 자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로 선언되었고, 그것은 죽음의 형벌에 해당되는 것으로 엄하게 금지되었다. 박수라는 이름이 오늘날은 조소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람들이 악한 신과 교통한다는 주장은 암흑시대의 지어낸 이야기처럼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여러 백 명, 여러 천 명, 아니 여러 백만 명의 신봉을 얻어 과학계와 일반 종교계에 침투해 들어가고, 법조계에서도 호감을 얻고 심지어는 궁정에까지 들어가 있는 이 강신술의 큰 기만은 옛날에 금지되고 정죄되었던 "신접한 자"가 새로운 탈을 쓰고 부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강신술의 정체에 대하여 다른 아무 증거가 없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 영들이 의와 죄를 구별하지 않고, 가장 고귀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가장 타락한 사단의 종들을 구별하지 않는 것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사람들 중 가장 비열한 자가 하늘에서 높임을 받는다고 주장함으로 사단은 세상을 향하여 말한다. "그대들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과 성경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이 없다. 그대들 마음대로 살라. 하늘은 그대들이 영원히 살 곳이다." 강신술의 교사들은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히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 2:17) 고 실제로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사 5:20) 라고 말한다.

사도들의 모양으로 가장하고 나타나는 이 속이는 영들은 사도들이 세상에 있을 때 성령의 지도로 기록한 바와는 전혀 반대되는 말들을 한다. 그 영들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임을 부인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하늘 가는 길을 보여 주는 빛을 꺼버린다. 사단은 성경이 만들어낸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거나 인류 역사의 초기에는 혹시 적당하였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성경을 경시하고 쓸모없는 것으로 버려야 할 것이라는 확신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기 위하여 기이한 이적을 행한다. 강신술은 사단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며 그는 그것을 통하여 그가 하고자 하는 바를 세상 사람들에게 믿게 할 수 있다. 사단은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심판할 성경을 마음대로 그가 원하는 곳에 숨겨 놓고 세상의 구주를 보통 사람에 불과하게 만들어 버린다. 마치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파수병들이 제사장과 장로들이 시키는 대로 그분의 부활을 부인하는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처럼 강신술의 신봉자들 역시 우리 구주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이적적인 일이 아무 것도 없었던 것처럼 나타내려고 노력한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뒤에 숨겨 버리고 그들 자신의 이적에 주의를 집중시킴으로 그것들이 예수님의 업적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주장한다.

오늘날에는 강신술이 그 형태를 변하여 지금까지의 불미한 점들을 감추고 그리스도교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강단과 인쇄물을 통하여 그의 주장은 일반 사람들에게 여러 해 동안 제시되어 왔다. 그러므로 그것으로써 그 정체가 드러나 있다. 그 가르침은 부인되거나 숨겨질 수가 없다. 최근에 새로운 형태를 취하고 있는 강신술은 이전 것에 비해 묵인할 여지가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교활해진 기만성으로 그 위험도는 실제로 훨씬 더 높아졌다. 강신술이 이전에는 그리스도와 성경을 부인하였으나 오늘날에는 그 둘을 다 받아들이고 믿노라고 공언한다. 그러나 성경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방식으로 해석되는 한편, 그 엄숙하고 요긴한 성경의 진리는 효력을 상실해 버렸다. 사랑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라고 생각되고 있지만 그것은 약한 감상주의로 전락되어 선과 악을 거의 구별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견책,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 등이 모두 무시되고 있다. 사람들은 십계명을 죽은 문자처럼 여기도록 가르침을 받고 있다. 귀를 즐겁게 하고 매혹시키는 우화적 이야기들로 감각을 빼앗긴 나머지 사람들은 신앙의 기초가 되는 성경을 부인하도록 이끌린다. 그리스도께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부인당하고 있다. 그러나 사단이 사람들의 눈을 너무도 어둡게 하였기 때문에 그 기만은 식별되지 않고 있다.

강신술의 기만적 능력과 장차 그 영향이 미칠 위험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많은 사람은 단순히 그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강신술과 장난한다. 그들은 강신술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이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들은 공포에 떨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금지된 땅에 들어가게 되면 큰 힘을 가진 파괴자는 그들의 의지를 꺾고 그들에게 능력을 행사한다. 그들이 일단 권유를 받아 그들의 마음을 사단의 지시에 굴복시키게 되면 그는 그들을 사로잡는다. 그리하면 그들의 힘으로 그 유혹적 미혹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열렬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능히 그 사로잡힌 영혼들을 구원해 낼 수 있다.

죄악적 품성의 특성에 빠져 있고, 알고 있는 죄를 고집스럽게 간직하고 있는 모든 자들은 사단의 유혹을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과 천사들의 보호에서 자신을 분리시켜 놓으므로 악한 자가 기만할 때 아무런 방비 없이 쉽게 사로잡히게 된다. 그와 같이 그들 자신을 그 유혹자의 권능에 맡기는 자들은 그들의 길이 어디에서 끝날 것인지 거의 깨닫지 못한다. 그들을 넘어뜨리게 되면, 그 유혹자는 다른 사람을 유혹하여 파멸시키는 도구로 그들을 사용할 것이다.

선지자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히 아침빛을 보지 못하” (사 8:19, 20) 리라. 만일 사람들이 사람의 본질과 죽은 자의 상태에 관하여 성경이 그처럼 분명하게 말한 진리를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강신술의 주장과 그 이적에서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을 수반하는 사단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에 부합되는 자유를 택하여 그들이 좋아하는 죄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빛에서 돌이켜 바른 길을 걷지 않고, 사단이 그들의 주위에 올무를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무시하고 그의 포로가 된다.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 (살후 2:10, 11) 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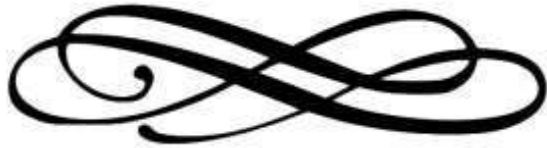
이 강신술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뿐 아니라 사단과 그의 사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 그들은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로 더불어 싸워왔다. 사단은 하늘 사자들의 능력으로 격퇴하지 않으면 한 치의 땅도 물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구주께서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그를 대항하셨던 것처럼 능히 그를 대항할 수 있다. 사단도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당시와 같이 성경 말씀을 인용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기만을 지지하기 위하여 성경의 교훈을 왜곡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이처럼 위험한 시대에 설 자들은 성경의 증언을 스스로 이해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친척이나 친구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가장 위험한 이단설을 주장하는 악마의 영들과 대결하게 될 것이다. 이 영들은 가장 부드러운 우리의 동정심에 호소하며, 그들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이적들을 행할 것이다. 우리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악마의 영이라는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그들을 대항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계 3:10) 가 우리 앞에 박두하였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을 굳게 세우지 아니한 모든 자들은 기만당하여 패배하게 될 것이다. 사단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의 속임수를 더 계속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나 사단은 사람들이 그의 유혹에 자원하여 넘어질 때에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진리의 지식을 열심으로 탐구하고 순종함으로써 그들의 심령을 정결케 하고자 애쓰고, 이와 같이 함으로 싸움을 위하여 준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안전한 방어책을 발견할 것이다. 구주께서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 (계 3:10) 리라고 언약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한 사람이 사단에게 정복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자 즉시 천사를 보내 주실 것이다.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안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주고자 하는 무서운 기만에 대하여 선지자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사 28:15). 여기에 묘사된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는 완고하고 회개하지 아니함으로써 죄인에게 형벌이 없으며 사람이 아무리 타락할지라도 모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 특별히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한 자라는 말은 환난의 날에 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늘이 제공한 진리를 버리고 그 대신에 사단이 제공한 거짓 피난처, 곧 강신술의 속임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더욱 강력하게 지적하기 위하여 사용한 말이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취하는 맹목적인 일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이상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가치가 없는 것이라 하여 거절하면서 사단의 기만은 열광적인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인다. 회의론자와 조롱하는 자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믿음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완고하다고 비난하고, 그리스도와 구원의 경륜과 진리를 거절한 자들이 받을 형벌에 관한 성경의 엄숙한 선언을 조롱함으로써 스스로 위로를 받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장을 인정하고 그분의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이 매우 편협하고 어리석고 미신적인 일이라 하여 그런 이들을 오히려 가련하게 생각한다. 그들은 사망과 언약하고 음부와 맹약한 것처럼, 곧 그들과 하나님의 보응 사이에 통할 수도 넘어갈 수도 없는 장벽을 세운 것처럼 의견을 공포한다. 그들에게 공포감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들은 완전히 유혹자에게

굴복당하고, 그와 너무도 밀접히 연합되고, 그의 정신을 너무도 완전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의 올무를 깨뜨리고 나올 능력도, 의향도 없다.

사단은 오랫동안 온 세상을 기만하는 그의 마지막 운동을 위하여 준비하여 왔다. 그는 에덴동산에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창 3:4, 5) 리라고 하와에게 한 말로써 그의 사업의 기초를 놓았다. 그는 강신술의 발전을 통하여 그의 기만의 절정을 향한 길을 한 걸음씩 준비해 왔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아직까지 완전히 성취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남아 있는 마지막 시기에 그것을 실현할 것이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이...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계 16:13, 14).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온 세상이 그 기만의 대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이 치명적인 기만에 굳게 사로잡혀 있다가 오직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그때에야 깨어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나는 공평으로 줄을 삼고 의로 추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폐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사 28:17, 18).

35 장 — 위협당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오늘날 로마교는 이전보다 훨씬 더 호감으로 개신교의 인정을 받고 있다. 천주교가 우세하지 못한 나라들에서는 법왕 교도들이 세력을 얻기 위하여 융화적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개혁교회들과 법왕의 교권 제도를 분리시키는 그 교리들에 관하여 점차적으로 무관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결국 개신교도들이 지금껏 생각해 왔던 것만큼은 중요한 점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는 것과 우리 편에서 조금만 양보하면 로마교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세력을 더해가고 있다. 일찍이 개신교도들은 매우 고귀한 값을 지불하고 얻은 양심의 자유를 높이 평가한 때가 있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법왕교를 거부하도록 가르쳤고 로마교와 조화를 이루고자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충성한 일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 표현되고 있는 의견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법왕권을 옹호하는 자들은 그 교회가 중상을 받아왔다고 주장하며, 개신교계에서도 그 말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무지와 암흑의 세기 동안에 그 교회의 지배의 특징이 되었던 포학과 모순으로 오늘날의 그 교회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그 두려운 잔인성을 그 시대의 미개함에 돌리고 근대 문화의 영향이 그 교회의 생각을 변화시켰다고 주장한다. 그 사람들은 그 거만한 세력이 8 백 년 동안 주장해 온 법왕 무류설을 잊어버렸는가? 그 주장은 철회되기는커녕 도리어 19 세기에 있어서는 이전보다 더욱 확고해졌다. 로마교는 "교회는 결코 오류가 없었고, 성경 말씀에 따르면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다" (John L. Von Mosheim, Institutes of Ecclesiastical History, book 3, Century 11, part 2, chapter 2, section 9, note 17) 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과거에 지배되어 온 원칙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는가?

법왕 교회는 그 무류설을 결코 철회하지 아니할 것이다. 법왕 교회의 교리를 부인한 자들에게 자행한 온갖 박해를 그 교회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만일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는 동일한 일을 반복하지 아니하겠는가? 현재 세속적 정부들에 의하여 과해져 있는 억제가 제거되고 로마교가 이전의 권세를 회복하게 되면 그의 박해와 학정이 급속히 부활될 것이다. 어떤 유명한 저자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법왕권의 태도와 그 정책의 성공으로 특별히 북미 합중국을 위협하는 위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북미 합중국이 로마 천주교에 대하여 느끼는 불안을 종교적 편협이나 유치한 태도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은 로마 천주교의 특성과 태도에서 우리의 자유로운 제도에 적대적인 것을 아무것도 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로마 천주교의 성장에서 불길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먼저 우리 정부와 천주교의 근본 원칙의 몇 가지를 비교해보자.

북미 합중국의 헌법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보다 더 귀중하고 근본적인 것은 없다. 그런데 법왕 피우스 9 세는 1854 년 8 월 15 일자의 동문 통달 (同文通達) 에서 '양심의 자유를 옹호한다는 불합리하고 그릇된 교리나 헛소리는 가장 유해한 오류로서 한 국가에 있어서 어떤 다른 것보다 가장 두려운 해를 끼치는 것이다'고 말하였다. 또한 그 법왕은 1864 년 12 월 8 일부의 동문 통달에서 '양심과 예배의 자유를 주장하는 자'와 또한 '교회가 폭력을 쓰지 말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자들'을 저주하였다.

"미국에 있어서의 로마교의 평화적 태도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어찌할 수 없는 경우에 관대한 태도를 취한다. 오 커너 감독은 말한다. '종교 자유는 반대가 천주교계에 해를 끼침 없이 수행될 수 있을 때까지만 허용된다.'...세인트 루이스 대감독은 한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단과 불신은 죄악이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와 스페인처럼 국민 모두가 천주교도이며, 또한 천주교가 그 국가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교국에 있어서는 이단과 불신은 다른 범죄와 같이 처벌될 것이다. ...'

천주교회의 모든 추기경과 대주교와 주교들이 법왕에게 하는 충성의 맹세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들어 있다. '나는 이단자들과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 그리고 주 (법왕) 와 그 후계자를 반역하는 자를 극력 반대하고 박해하겠나이다.'" (Josiah Strong, Our Country, ch1, pars1~4). 로마교 내에도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교회에 속한 무수한 사람들은 그들이 받은 빛을 따라 최선껏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도록 용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와 단지 형식과 의식만을 반복하는 것과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혼미하고 만족을 줄 수 없는 신앙의 교육을 받은 그들을 긍휼이 많은 자비의 눈으로 주목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르고 있는 짙은 암흑을 꿰뚫을 수 있는 빛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진리를 그들에게도 계시해 주실 것이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들의 입장을 같이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도 로마교의 제도는 과거의 역사에서처럼 그리스도의 복음과 전혀 조화되지 아니한다. 개신교회들은 큰 암흑 속에 묻혀 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였을 것이다. 로마교는 그의 계획과 경영 방식이 매우 원대하다. 그는 그의 세력을 넓히고 전 세계를 지배할 세력을 다시 얻고, 박해를 부활시켜서 개신교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없애 버리기 위한 치열하고 결정적인 투쟁을 준비하기 위하여 온갖 계책을 다 써서 그의 영향력과 권세를 증가시키는 데 힘쓰고 있다. 오늘날 도처에서 로마교는 세력을 얻고 있다. 개신교 국가들에서 로마교의 교회당과 교인수가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보라. 미국에서 개신교도들의 광범위한 후원을 받고 있는 로마교의 대학들과 신학교들의 인기를 생각해보라. 영국에서의

의식주의 (儀式主義) 의 성장과 로마교의 대열에 가담하기 위한 빈번한 탈회 행위를 보라. 이런 일들은 복음의 순수한 원칙을 존중하는 모든 사람들의 깊은 우려를 일깨워야 한다.

개신교는 로마교에 손을 내밀어 후원해 오고 있다. 그들은 로마교들도 놀라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타협하고 양보하였다. 사람들은 로마교의 진상과 그가 최상권을 잡게 될 때 생길 위험들에 대하여 그들의 눈을 감고 있다. 사람들은 정치와 종교 자유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이 원수의 진격을 저항하기 위하여 각성할 필요가 있다. 많은 개신교도들은 로마교가 매력적이 아니며 그 예배 역시 어리석고 무의미한 의식의 반복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그들은 오해하고 있다. 비록 로마교가 기만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을지라도 그것은 조잡하고 졸렬한 모양으로 가장되어 있지 않다. 로마교의 예배 의식은 가장 인상 깊은 의식이다. 그 화려한 장식과 엄숙한 의식은 사람들의 감각을 매혹하고 이성과 양심의 소리를 침묵시킨다. 그 눈은 황홀해진다. 웅장한 교회당, 당당한 행렬, 황금빛 제단, 보석으로 장식한 신단, 정선된 그림들, 정교한 조각들은 사람들의 미적 감각에 호소한다. 귀도 또한 황홀해진다. 그 음악은 비할 데 없이 훌륭하다. 은은하면서도 풍성한 오르간 소리, 웅장한 성전의 높은 천장과 둥근 기둥으로 구분된 복도를 통하여 울려오는 무수한 음성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질 때 사람들은 경이감과 숭경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외형상으로 장엄하고 화려한 모습과 의식은 죄에 빠진 영혼들의 갈망을 우롱 (愚弄) 하는데 불과하고 그 내부의 부패를 증거한다. 그리스도교는 그러한 것에 매력을 갖게 할 필요가 없다. 십자가에서 비쳐오는 빛 가운데서 참된 그리스도교는 순결하고 아름답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참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외관상 장식을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은 성결의 미와 겸손하고 안정된 정신이다. 외관상 아름다움이 반드시 순결하고 고상한 사상의 지표는 아니다. 고상한 예술 지각과 우아하고 세련된 취미가 세속적이며 육욕적인 사람의 심중에도 흔히 있다. 그들은 흔히 사단에게 이용되어 사람들에게 심령의 필요를 잊어버리게 하고 미래의 생애와 영생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무한한 구원자에게서 돌아서서 이 세상만을 위하여 살도록 만든다.

외관을 치장하는 종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에 매력적이다. 천주교 예배의 화려한 모습과 의식에는 매혹적이며 황홀케 하는 일종의 힘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기만당하여 로마교를 바로 하늘 가는 문인 것처럼 쳐다보게 된다. 오직 진리의 기초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들만이 로마교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스도께 대한 체험적 지식을 갖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바로 그런 종교가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종교이다.

교회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주장은 로마교도들에게 마음대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해준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의식 (儀式), 곧 그것이 없으면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의식 또한 죄를 범하도록 허용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해주는 경향이 있다. 타락한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심중의 은밀한 사상과 생각을 고백하는 자는 자신의 인간성을 저하시키고 심령 속에 있는 온갖 고상한 능력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 사람의 사제 (司祭), 실수와 죄가 많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너무도 흔히 음주와 방종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자기 생애에 있는 죄를 고백함으로 그의 품성의 표준은 저하되고 그로 말미암아 더럽혀진다. 그는 하나님을 타락한 인간과 같은 분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제가 하나님의 대표자의 위치에 서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그 비열한 고백은 이 세상을 더럽혀서 마지막 멸망을 받게 하는 많은 죄악을 흘려 내보내는 보이지 않는 원천이다. 그러나 방종을 좋아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마음을 펴놓는 것보다 자기와 동일한 인간에게 고백하는 일이 더욱 좋게 여겨진다. 또한 인간성에서 볼 때 고행을 하는 것이 죄를 버리는 것보다 마음에 드는 일이며 육체를 베옷과 쐐기풀로 괴롭게 하고 쇠사슬로 제어하는 편이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보다 더욱 쉽다. 육신의 마음으로는, 무거운 멍에를 메는 것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는 것보다 더욱 낫다.

로마교회와 그리스도 초림 당시의 유대교와는 현저한 유사점이 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원칙들을 비밀리에 유린하면서 표면상으로는 그 조문들을 엄격히 지켰다. 그리고 까다로운 요구와 유전을 첨가시켜 그것을 준수하는 일이 고통스럽고 괴롭게 만들었다.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을 존중하노라고 공언했던 것처럼 로마교도들은 십자가를 존중하노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상징을 높이면서도 그들의 생애에 있어서는 그것이 대표하는 그분을 부인한다.

로마교도들은 십자가를 교회에, 강단에 그리고 그들의 의복에 붙인다. 어디에서나 십자가의 휘장을 보게 된다. 외관상으로는 어디서나 그것이 존경과 높임을 받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훈들은 무의미한 유전과 거짓된 해석과 엄격한 규칙들의 무더기 아래 묻혀 버린다. 완고한 유대인들에 관한 구주의 말씀은 오히려 로마 천주교의 지도자들에게 더욱 정확히 적용된다.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 (마 23:4) 한다. 양심적인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거스름으로 받는 진노를 두려워하고 있는 한편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은 사치와 쾌락을 즐기는 생활을 하고 있다.

성상 (聖像) 과 유물 예배, 성자 (聖者) 들에게 드리는 기도, 법왕 숭배 등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에게서 떠나가게 하려는 사단의 간계이다. 사단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오직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의 분에게서 그들의 주의를 이탈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사단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28) 고 말씀하신 분을 대신할 어떤 대상에게로 그들을 이끌 것이다.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과 죄의 성질과 대쟁투에 걸려 있는 진정한 문제를 잘못되게 나타내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의 궤변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의무 관념을 박약하게 하여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게 만든다. 동시에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그릇된 관념을 갖게 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그분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게 만든다.

사단은 그의 품성 속에 본래부터 있는 잔인성을 창조주께 돌리고 그것을 종교 제도에 구현시키고, 예배의 형식에 나타내었다. 그와 같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지자 사단은 그들을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일에 자신의 대리자로 삼는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관념이 곡해됨으로써 이교국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하여 사람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일이 필요하다고 믿게 되었다. 그리하여 여러 가지 우상 숭배의 형태 하에서 무섭고도 잔인한 일들이 자행되어 왔다.

로마 천주교는 이교와 그리스도교의 형태를 혼합하고 또한 이교처럼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나타내며, 그에 못지않은 잔인하고 역겨운 수단들을 사용해 왔다. 로마교의 전성시대에는 그의 교리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기 위하여 고문하는 기구들이 사용되었다. 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위한 화형주가 있었다. 심판 때까지는 결코 알려지지 않을 어떤 규모의 대량 학살들이 감행되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주인이 되는 사단의 지배 아래 그들의 희생물이 된 자들에게 최대의 고문을 하면서도 그 생명을 종식시키지 않는 방법을 고안하기 위하여 연구하였다. 많은 경우에 사람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극악무도한 고문을 반복하였으므로 고통받는 자의 신체가 투쟁을 포기하였으며 그는 죽음을 즐거운 해방으로 환영하였다.

이런 것이 로마교에 반대하는 자들의 운명이었다. 로마교는 그 신봉자들에게도 채찍질과 굶주림의 고통과 인간이 고안해 낼 수 있는 온갖 육체적 고통과 낙담시키는 방법으로 징계를 과하였다. 하늘의 은총을 얻기 위하여 회개한 자들은 자연의 법칙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다. 그들은 사람의 지상 생애를 복되고 즐겁게 해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마련해주신 줄을 끊어 버리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선천적 애정을 억제해 버리고 그들의 동료 인간들에게 대한 동정의 생각과 감정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로 생각하여 그것들을 억누르기 위한 헛된 노력에 그들의 생애를 허비한 무수한 희생자들이 교회의 묘지에 누워 있다.

과거 수백 년 동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교국의 중심부와 그 전역에서 사단이 나타낸 잔학성을 알고자하면 로마교의 역사를 살펴보기만 하면 된다. 이 거대한 기만의 조직을 통하여 악의 왕은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인류를 불행하게 하는 그의 목적을 수행한다. 사단이 자신을 변장하는 일과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하여 그의 사업을

수행하는 일에 참으로 성공적임을 알 때 우리는 그가 성경에 대하여 그처럼 큰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더욱 잘 깨달을 수 있다. 성경이 읽혀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도 사람들에게 지워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은 회개하고 상한 심령과 겸손하고 순종하는 정신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 가운데 남녀들이 하늘에 적합한 사람들이 되려면 수도원에 묻혀야 한다는 아무런 모본도 주지 않으신다. 그분은 사랑과 동정심을 억제해야 한다고 결코 가르치지 않으셨다. 구주의 마음은 사랑으로 넘쳐 있었다. 사람이 도덕적으로 완전해지면 질수록 그의 감수성은 더욱 예민해지고 죄에 대한 지각은 더욱 밝아지며 고통하는 자들에 대한 동정심은 더욱 깊어진다. 법왕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의 품성을 우리 구주의 품성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하늘의 왕으로 존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감옥이나 고문대에 넘겨주신 일이 있었는가? 그분께서 당신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 죽음을 선고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등한히 여김을 받으시자 사도 요한은 의분을 참지 못하여 질문하였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좇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눅 9:54). 예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으로 당신의 제자를 보시며 그의 과격한 정신을 책망하셨다.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하러 왔노라" (눅 9:56 난외 주).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그 정신은 그분의 대표자라고 공언하는 사람의 정신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오늘날 로마교는 그의 무서운 잔학성의 기록을 변명으로 덮어 버리고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세상을 대한다. 그는 그리스도와 같은 차림으로 나서지만 실상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지나간 시대에 존재했던 법왕교의 원칙들은 오늘날에도 존재한다. 가장 암흑한 시대에 고안된 교리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실천되고 있다. 그러므로 아무도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 오늘날 개신교도들이 존경하고자 하는 법왕교는 종교 개혁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였고 그 당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그의 죄를 폭로하기 위하여 그들의 생명을 걸고 항쟁한 그 동일한 로마교이다. 그는 왕들과 군주들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속한 권한을 가졌노라고 공언하던 동일한 교만과 뻔뻔스런 주장을 오늘날도 가지고 있다. 그의 정신은 인류의 자유를 억압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죽인 당시와 똑같이 오늘날도 잔인하고 포학하다.

법왕교는 성경의 예언이 마지막 시대에 배도하는 일이 있으리라고 말한 바로 그대로의 단체이다 (살후 2:3, 4).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데 가장 편리한 길을 취하는 것이 그의 정책의 하나이다. 그는 여러 가지 가변적인 모양 아래 변함없는 뱀의 독을 감추고 있다. "우리는 이단자나 이단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 (Lenfant, vol1, p116) 고 법왕교는 주장한다. 성도의 피로 기록된 천여 년의 기록을 가진 이 세력이 오늘날 그리스도교의 일부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가? 천주교가 개신교와 옛날처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오늘날 개신교 국가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유가 없는 말이 아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그 변화는 법왕교에서 일어난 변화가 아니다. 개신교가 종교 개혁 시대 이래 크게 타락하였기 때문에 천주교는 오늘날의 개신교와 매우 비슷해진 것이 사실이다.

개신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노력해 옴으로써 거짓된 사랑이 그들의 눈을 가리워 버렸다. 그들은 모든 악을 선으로 믿는 것이 옳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필연적인 결과로서 그들은 마침내 모든 선을 악이라고 믿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제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어진 믿음을 옹호하는 위치에 서는 대신에 이른바 로마교에 대하여 무자비한 견해를 가졌던 것을 사과하고 그들이 완고하였던 점에 대하여 용서를 빌게 되었다. 많은 부류의 사람들, 로마교에 대하여 아무런 호감도 갖지 않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그 세력과 영향력에 대하여 별반 위험을 느끼지 아니한다. 많은 사람들은 중세기 동안에 퍼져있던 지적· 도덕적 흑암이 로마교의 교리와 미신과 압박을 조장하게 되었으므로 현 시대의 지성적 발달과 일반적인 지식의 보급과 종교 문제에 대한 자유사상의 진보 등이 편협과 압제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계몽된 시대에 그런 상태가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조롱을 받고 있다. 지적·도덕적·종교적 큰 빛이 이 시대를 비추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펼쳐져 있으므로 하늘로부터 오는 빛이 이 세상을 비추고 있다. 그러나 주어진 빛이 크면 클수록 그 빛을 곡해하고 거절하는 자들의 흑암은 더욱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면 개신교도들은 법왕교의 정체를 알고 그를 싫어하며 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자부하므로 그들을 진리로 인도해주도록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구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깨닫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지만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한 가지로 무지하다. 그들은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양심을 진정시켜야 하므로 가장 신령적이 아닌 것, 가장 굴욕적이 아닌 것을 찾아 구한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방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방법이다. 법왕교는 그런 사람들의 요구에 잘 맞도록 되어 있다. 법왕교는 거의 전 세계를 망라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 곧 자기의 공로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들과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적합하도록 마련되어 있다. 여기에 법왕교가 세력을 얻는 비결이 있다.

지적 어둠이 심했던 시대가 법왕교의 성공에 유리했던 것으로 입증되었다. 그러나 지적 빛이 밝은 시대도 꼭 마찬가지로 그의 성공에 유리하다는 것이 입증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한 지나간 시대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눈이 가리워져 자기들의 발 앞에 펼쳐 있는 그물을 보지 못하고 걸려들었다. 이 시대에 "소위 과학" 이라는 인간의 그릇된 이론에 눈이 부시어 올무를 분별하지 못하고 마치 눈이 가려진

것처럼 그리로 걸어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지능을 창조주로부터 받은 선물로 생각하고 진리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계획하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교만과 야심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 자신의 이론을 더욱 높이기 때문에 총명이 무지보다 더욱 큰 해를 끼칠 수 있다. 그리하여 성경에 대한 믿음을 암암리에 손상시키는 오늘날의 거짓 과학은 암흑시대에 있어서 지식을 억제함으로써 로마교의 발전의 길을 열어 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형태로 법왕교를 받아들이게 하는 일에 성공적인 길임이 입증될 것이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교회의 제도와 관습에 있어서 국가의 지지를 받으려는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바, 그것은 개신교가 로마교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일이다. 그뿐 아니라 개신교도들은 로마교가 유럽에서 잃어버린 최상권을 개신교 미국에서 회복하도록 문을 열어 주고 있다. 그리고 이 운동에 더욱 큰 의미를 주는 것은 일요일 준수, 곧 로마교가 만들어서 그의 권위의 표라고 주장하는 관습의 강요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 사실이다. 오늘날 개신교회들에 침투되어 그들로 하여금 일찍이 로마교가 그들 앞에서 한 그대로 일요일을 존중하는 동일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은 로마교의 정신, 곧 세속적 관습과 일치되고,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유전을 존중하는 정신이다. 미구에 전개될 투쟁에 있어서 어떤 기관들이 이용될 것인지 이해하려면 로마교가 그와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과거에 어떤 수단을 이용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된다. 법왕교와 개신교가 연합하여 그들의 교리를 반대하는 자들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알고자 하면 로마교가 안식일과 안식일 옹호자들에 대하여 나타냈던 정신을 알아보아야 한다.

왕의 칙령과 총회들과 세속적 권력에 의하여 지지를 받은 교회의 의식들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이교의 축제일이 그리스도교계에서 존경받는 위치를 차지하게 만든 계단들이었다.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최초의 법령은 콘스탄티누스 황제로 말미암아 제정되었다 (서기 321 년). 이 칙령은 도시인에게는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에 휴식할 것을 요구하면서 농촌 사람들에게는 농사일을 계속하도록 허락하였다. 이것은 사실상 이교도의 법규이었으나 황제가 형식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후 시행하였다.

왕의 칙령이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 입증되자 평소에 군주들의 은총을 받고자 희망했던 콘스탄티누스의 특별한 친우이며 추종자인 감독 유세비우스가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하였다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었다. 그 새로운 교리를 증명하는 성경상 증거는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유세비우스 자신이 부지중에 그것이 허위임을 시인하고 그것을 변경한 참 장본인들이 누구임을 지적한다. "안식일에 해야 할 일체의 의무를 우리는 주의 날로 옮겼다" (Robert Cox, Sabbath Laws and Sabbath Duties, p138) 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아무 근거도 없는 일요일에 대한 논증이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안식일을 유린하는데 대담해지게 했다. 그리하여 세상의 영광을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인기 있는 축제일을 받아들였다.

법왕교가 굳게 확립되자 일요일을 존숭하는 일은 계속되었다. 얼마 동안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경작에 종사하고 여전히 제칠일을 안식일로 여겼다. 그러나 꾸준하게 변화가 이루어졌다. 법정의 신성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들은 어떠한 민사소송의 판결도 일요일에 할 수 없도록 금지되었다. 그 후 오래지 않아 계급의 여하를 불문하고 세속적 일을 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렸으며, 그것을 범할 때는 자유인이면 벌금을, 종이면 태형에 처하게 되었다. 그 후에 그것을 범하는 부자는 재산의 절반을 몰수당할 것이며 그 일을 여전히 고집하는 자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칙령이 내렸다. 그리고 하류 계급의 사람들은 영구적으로 추방될 것이었다. 기적도 또한 이용되었다. 여러 가지 이상한 말들 중 어떤 농부가 일요일에 밭을 갈려고 쇳조각으로 쟁기를 소제하였는데 그 쇳조각이 손에 철썩 달라붙어 버렸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리하여 그는 2 년간이나 그 쇳조각을 붙이고 다니면서 "심한 통증과 부끄러움" (Francis West, Historical and Prac-tical Discourse on the Lord's Day, p174) 을 당하였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그 후에 법왕은 일요일을 범하는 자들이 교회에 가서 기도하도록 교구 담임 신부에게 명령하였고,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종의 큰 재난이 그들과 그들의 이웃에게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게 하였다. 일요일에 일을 하다가 벼락을 맞은 자들이 있으므로 이날은 안식일임이 틀림없다는 주장이 어떤 교회 회의에서 논의되었으며 그때부터 개신교도들도 그 주장을 널리 적용했다. 주교들은 "하나님께서 이날을 등한히 하는 것을 참으로 싫어하시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하였다. 또한 그들은 사제들과 목사들, 왕들과 군중들, 그리고 모든 충성된 백성들에게 "이날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리스도교의 명예를 위하여 그들의 최대의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 이날을 더욱 경건히 준수하도록" (Thomas Morer, Di-scourse in Six Dialogues on the Name, Notion, and Observation of the Lord's Day, p171) 호소하였다.

회의의 결의로서 충분치 못함이 입증되자 세상의 집권자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어 일요일에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법령을 반포하도록 간청을 받았다. 그리하여 로마에서 개최된 종교 회의에서 이전에 결정된 모든 결의가 더 한층 큰 영향력과 권위가 있는 것으로 재보증되었다. 이것들은 종교적 법률이 되어 거의 모든 그리스도교 국에서 그 나라의 집권자들에 의하여 강요되었다 (Heylyn, History of the Sabbath, pt1, ch1, sec1 참조).

그러나 일요일 준수를 성경의 권위로 보증할 수 없는 것은 여전히 큰 곤란이 아닐 수 없었다. 사람들은 태양의 날을 숭배하기 위하여 "제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한 여호와의 분명한 선언을 무시해버릴 권리가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있는가 질문하였다.

성경에서 얻어야 할 증거의 결핍을 보충하기 위하여 다른 방편이 필요하였다. 12 세기 말엽에 영국의 교회들을 방문한 열렬한 한 일요일 옹호자는 충성된 진리의 증인들에게 거절을 당하였다. 그는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효과가 없으므로 일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가르침을 강요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연구하는 일에 몰두하였다.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의 그 결함이 보충되어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으로 주장하는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일요일을 준수해야 한다는 명령과 이를 순종하지 않는 자를 위협하는 무서운 협박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소위 그 귀중한 문서, 사실은 그것이 지지하는 그 제도와 마찬가지로 비루한 위조물에 불과한 그 문서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인데 예루살렘의 골고다에 있는 성 시므온의 제단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로마의 법왕궁이 그 출처였다. 교회의 세력과 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사기와 위조도 각 시대에 걸쳐 법왕권 제도에 의해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돼 왔다.

그 두루마리는 토요일 제 9 시, 곧 오후 3 시부터 월요일 해 뜰 때까지 노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하였다. 그리고 그 권위는 많은 이적들이 입증해 줄 것이라고 하였다. 지정된 시간 외에 일하므로 마비증에 걸린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도 퍼졌다. 한 제분업자가 곡식을 갈려고 하자 가루가 나오는 대신에 피가 쏟아져 나오고 물은 힘 있게 흘러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차 (水車)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떡을 찌려고 떡반죽을 가마에 넣었던 한 부인은 떡을 꺼내 보니 가마는 매우 더워 있어도 떡은 생반죽 그대로였다. 또 다른 부인은 떡 반죽을 했으나 오후 3 시가 되었으므로 월요일까지 두어두기로 했는데 이튿날 본즉 벌써 하나님의 능력으로 훌륭한 떡으로 구워져 있었다. 어떤 사람은 토요일 오후 3 시가 지나서 떡을 구워 그 이튿날 아침에 베어 보니 거기서 피가 나왔다. 이와 같이 터무니없고 미신적인 이야기로 일요일의 옹호자들은 그날의 신성성을 옹호해 보고자 노력하였다 (Roger de Hoveden, An-nals, vol1, pp128~530 참조).

스코틀랜드에서도 영국에서처럼 고대의 안식일의 일부분과 일요일을 연결시킴으로써 일요일을 크게 존중하게 되었다. 그러나 거룩하게 지켜야 할 시간은 달랐다. 스코틀랜드 왕이 내린 칙령에는 "토요일 정오 12 시부터 거룩하게 지켜져야 한다" (Morer, pp190, 291) 고 되었고 그 시간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어떤 사람도 세속적 일에 종사하지 말 것이라고 하였다. 일요일 신성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왕교도 자신들은 안식일의 거룩한 권위와 그것을 대신하여 생긴 일요일 제도가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을 스스로 공공연하게 고백하였다. 16 세기에 있은 법왕교 회의는 아래와 같이 분명히 언명하였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칠일이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날이며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지켜오던 날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안식일을 주의 날로 변경하였다" (S.Bliss, Memoirs of Wm.Miller,

pp181, 282). 하나님의 율법을 함부로 변경한 자들은 그들이 한 일이 어떤 일인가를 모르고 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고의적으로 그들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있었다.

로마교회가 자기와 의견이 다른 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정책을 써왔는가에 대한 한 현저한 실례는 왈덴스인들에게 가한 잔악하고 장기간에 걸친 박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는 안식일 준수자들이 더러 있었다. 그밖에 다른 사람들도 넷째 계명을 충실히 지켰기 때문에 유사한 방법으로 고난을 받았다. 에디오피아와 아비시니아 교회들의 역사는 특별히 중요하다. 암흑시대의 어둠속에서 중앙아프리카의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띄지 않고 세상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는데 그들은 여러 세기 동안 그들의 신앙을 자유롭게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로마는 그들의 존재를 깨닫게 되었고 미구에 아비시니아의 황제는 법왕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승인하는 미혹에 빠지게 되었다. 이어서 다른 것들도 양보하게 되었다. 가장 엄한 형벌 아래 안식일 준수를 금지하는 법령이 반포되었다 (Michael Geddes, Church History of Ethiopia, pp111, 312 참조). 그리고 법왕의 학정은 너무도 쓰라린 멍에가 되었기 때문에 아비시니아 사람들은 그들의 목에서 그 멍에를 벗어 버리기로 결심하였다. 무서운 투쟁 끝에 로마교도들은 그들의 영토 밖으로 추방되고 옛날의 신앙이 회복되었다. 교회들은 그들의 자유를 향유함과 동시에 그들은 로마교의 기만과 광신과 전제적 세력에 대하여 배운 교훈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들은 외로운 그들의 영토에서 다른 그리스도교국에 알려지지 않고 지내는 것을 만족히 여겼다.

아프리카의 교회들은 법왕교가 완전히 배교하기 전에 그 교회가 지켰던 것처럼 안식일을 준수하였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제칠 일을 지키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의 관습을 따라 일요일에 노동을 하지 않았다. 로마교가 최상권을 잡게 되자 그는 그 자신이 정한 날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안식일을 유린하였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교회들은 거의 일천년 동안 숨어서 이 배교에 동참하지 않았다. 로마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자 그들은 참 안식일을 버리고 거짓 안식일을 높이도록 강요당하였다. 그러나 독립을 회복하자마자 그들은 넷째 계명을 준수하게 되었다 (부록 34 참조). 이와 같은 과거의 기록들은 참 안식일과 그 옹호자들에 대한 로마교의 적의와 그가 창안한 제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수단이 어떠함을 분명히 드러내 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교와 개신교가 일요일을 존중하기 위하여 연합하게 될 때 이런 사건이 반복될 것이라고 가르친다.

요한계시록 13 장의 예언은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는 짐승으로 묘사된 세력이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표범과 비슷한 짐승으로 표상된 법왕권을 경배하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 두 뿔 가진 짐승은 또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할 것이며, 더욱이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계 13:11~16) 하라고 명령할 것이다.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는 짐승으로

표상된 세력은 북미 합중국임이 이미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로마교가 그의 최상권에 대한 특별한 인정의 표로 주장하는 일요일 준수를 미국이 강요하게 될 때 성취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만이 법왕권에게 이러한 경의를 표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 때 로마의 지배권을 인정한 모든 나라에 있었던 그의 영향력은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예언은 그 세력이 다시 회복될 것을 알려 준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 (계 13:3) 리라고 한다. 치명적 상처를 받은 타격은 1798 년에 발생한 법왕권의 몰락을 가리킨다. 그 일이 있은 후 선지자는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고 말한다. 바울은 그 "불법한 자" (살후 2:8) 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존재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바로 세상 종말까지 기만하는 사업을 계속할 것이다. 또한 요한계시록의 기자는 법왕권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녹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계 13:8) 고 한다. 신대륙과 구대륙 모두에서 법왕권은 오로지 로마교회의 권위로 세워진 일요일 제도의 존중을 통하여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19 세기 중엽부터 미국의 예언서 연구자들은 이 증언을 세상에 발표해왔다.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들 속에서 그 예언이 급속히 성취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개신교 지도자들 역시 일요일 준수에 관한 신성한 권위를 똑같이 주장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하기 위하여 이적을 날조할 수밖에 없었던 로마교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하여 아무런 성경상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인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주장이 반복될 것인데 이미 그 일의 착수를 서두르고 있다.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기 위한 운동은 신속히 기초를 놓고 있다.

로마교는 약삭빠르고 교활한 점에 있어서 실로 놀라우며 장차 올 일을 안다. 그 교는 개신교회들이 거짓 안식일을 받아들임으로써 그에게 존경을 표하고 또한 그들이 과거에 사용했던 바로 그 방법으로 개신교회들이 그 안식일을 강요할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진리의 빛을 거절하는 자들은 이 자칭 무류 권력자 (無謬權力者) 의 도움을 구하여 그 교회가 제정한 제도를 존중하고자 할 것이다. 로마교가 이 사업에 있어서 개신교의 도움을 얼마나 쉽게 얻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교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로마교의 지도자들보다 더 잘 알 자들이 누구겠는가?

전 세계에 걸쳐 그 모든 가지들을 뻗고 있는 로마교는 하나의 큰 조직체를 이루어 법왕청의 지배 아래 그 유익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지구상 각 나라에 있는 여러 백만명의 교도들은 법왕에게 충성을 하도록 훈련되어 있다. 국적과 정부의 여하를 막론하고 그들은 교회의 권위를 다른 무엇보다도 더욱 높은 것으로 여겨야 한다. 그들은 비록 국가에 대하여

충성을 맹세할지라도 그 배후에는 로마교에 순종할 것을 서약하고 로마교의 이익과 배치되는 모든 서약은 취소하게 된다.

로마교가 국정에 개입하기 위하여 능숙하고 꾸준한 노력을 해온 사실은 역사가 증거하고 있으며, 그리고 일단 발판을 얻게 되면 군주들과 국민을 멸망에 빠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의 목적을 관철시키고자 밀고 나간다. 1204 년에 법왕 인노센트 3 세는 스페인의 아라곤 왕 베드로 2 세에게 다음과 같은 특별한 선서를 시켰다. "나, 아라곤 왕 베드로 2 세는 내 주 인노센트 법왕과 그의 천주교 후계자들과 로마 교회에 언제나 충성하고 순종하며 또한 그의 명령대로 우리나라를 유지하고 천주교의 신앙을 옹호하며 이단적 타락의 무리를 박해할 것을 공언하며 서약합니다" (John Dowling, The History of Romanism, b1, ch1 sec.). 이 말은 로마 법왕의 권세에 관하여 주장한 다음의 말과 일치된다. "법왕으로서 황제들을 폐위시키는 것은 합법적이다. 그리고 그는 백성들이 불의한 통치자들에게 충성하지 못하도록 해방시켜 줄 수 있다" (Mosheim, b1, cent11, pt1, ch1 sec1, note 17).

그리고 결코 변경해 본 적이 없다고 하는 로마교의 자랑을 기억해야 한다. 그레고리우스 7 세와 인노센트 3 세가 가졌던 원칙들은 오늘날도 여전히 로마 천주교의 원칙들이다. 그러므로 만일 로마교가 권력을 가지게만 되면 지나간 세기에 못지않게 그 세력을 행사할 것이다. 개신교도들은 일요일을 높이는 일 사이에서 로마교의 도움을 받고자 하면서도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별로 알지 못한다. 그들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열중하고 있는 동안 로마교는 그의 세력을 다시 구축하고 그의 잃어버린 최상권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을 관철시키고 있다. 일단 이 원칙이 미국에서 확립되어 교회가 국가의 권력을 사용하거나 지배하게 되고 국법이 종교 행위를 세속적 법률로 강요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교회와 국가의 권세가 양심을 지배하게 되면 이 나라에서의 로마교의 승리는 확실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박한 위험을 경고해 왔다. 만일 여기에 유의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개신교계는 마침내 로마교의 진상을 알게 될지라도 그때에는 이미 너무 늦어서 그 올무를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 교회는 조용히 세력을 키우고 있다. 그의 교리는 입법 기관과 교회들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그 교회는 오늘날 높고 거대한 건축물들을 세우고 있는데 그 건축물들의 은밀한 장소에서 그의 이전의 핍박이 반복될 것이다. 때가 되면 그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극히 조용히 그의 힘을 강화시키고 있다. 그가 바라는 것은 오로지 유리한 입장에 서는 일인데 그것은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 우리는 미구에 로마교의 목적이 무엇인지 눈으로 보고 느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36 장 — 절박한 최후의 위기

하늘에서 대쟁투가 시작된 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전복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 되어 왔다. 사단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창조주를 반역하였다. 그는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이 세상에서 여전히 동일한 그 싸움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인류를 기만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는 것이 그가 꾸준히 추구해 오는 목적이다. 그 목적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다 버리게 하거나 그 일부분을 버리게 하든지 간에 목적의 성취에 있어서 그 결과는 궁극적으로 똑같다. 율법의 한 조목을 범하는 자는 온 율법에 대한 경멸을 나타낸다. 그의 감화와 행동은 범죄의 편에 있으며 그는 결국 율법을 "모두 범한 자" (약 2:10) 가 된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경멸하기 위하여 성경의 교리를 왜곡시켰다. 그리하여 성경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에 오류를 혼합시켰다. 진리와 오류와의 마지막 큰 싸움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마지막 싸움에 불과하다. 우리는 지금 이 싸움, 곧 사람의 율법과 여호와의 계명간의 싸움, 성경에 기초를 둔 종교와 우화와 유전에 기초를 둔 종교와의 싸움에 참가하고 있다.

이 싸움에서 진리와 의를 대적하기 위하여 연합할 기관들은 오늘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처럼 고난과 피의 대가로 우리에게 전해 내려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별로 귀중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지만 진정으로 그것을 생애의 원리로 받아들이는 자는 극히 적다. 불신은 단순히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보급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 신앙의 기둥이 되는 교리들을 부인하게 되었다. 영감으로 기록된 위대한 창조의 진리, 인류의 타락, 속죄,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성은 소위 그리스도교계의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사실상 거부당하고 있다. 자신의 지혜와 자주성을 자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자기들의 약점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들은 성경에서 흠을 찾아내고 가장 중요한 성경의 진리를 이론적으로 해석해 버리는 것이 그들의 우수한 학식과 재능에 대한 증거인 것처럼 생각한다. 많은 목사들은 그들의 교인들에게, 많은 교수들과 교사들은 그들의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되었거나 폐기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여전히 효력이 있으므로 글자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조소와 모멸을 당해야 할 것처럼 생각한다.

진리를 거절함으로 사람들은 그 진리의 근원되시는 하나님을 거절하게 된다. 하나님의 율법을 유린함으로 그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게 된다. 거짓 교리와 이론의 우상을 만드는 것은 마치 돌이나 나무로 우상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이다. 사단은 하나님의 속성을 잘못 나타냄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거짓된 품성을 가지신 분으로 믿게

한다.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좌정해 계실 마음의 자리에 철학적 우상을 앉혀두고 있다. 한편 살아 계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한 창조의 업적으로 당신을 계시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불과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분을 경배한다. 많은 사람들이 천연계의 하나님은 부인하면서 천연계를 신과 같이 숭배한다. 비록 그 형식은 다를지라도 옛날 엘리야 당시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있던 것과 똑같은 우상숭배가 오늘날의 그리스도교계에도 존재한다. 소위 현명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신, 철학자와 시인과 정치가와 문필가들의 신, 교양 있는 상류 계급의 신, 많은 대학과 심지어 어떤 신학교의 신들은 페니키아의 태양신 바알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다.

오늘날 신속히 토대를 구축하고 있는 현대적 교리, 곧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더 이상 지킬 의무가 없다는 교리는 그리스도교계에서 받아들인 가장 큰 오류로서, 그것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더욱 대담하게 공격하는 것이 없고 그것보다 이성 (理性) 의 명령을 더욱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은 없으며 그 결과보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없다. 모든 나라에는 법률이 있어 그것을 존중하고 거기에 순종하기를 요구한다. 어떤 정부도 법률이 없으면 존재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천지의 창조주께서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다스릴 율법을 가지지 않으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유명한 목사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규에 대하여 그것이 백성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이유로 국법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공공연하게 가르쳤다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성직자의 직분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국가의 법률을 무시하여도 큰 범죄가 되는데 모든 정부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법을 유린하는 죄는 더욱 중하지 않겠는가?

국가로서도 그 법률을 없애 버리고 국민을 제각기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용납할 수 없는데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폐지하시고 죄인을 정죄하고 순종하는 자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표준을 없애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큰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해 버리는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은가? 그 결과는 이미 입증되었다. 무신론이 지배권을 장악했던 당시의 프랑스에서 일어난 장면들은 무서운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한에서 벗어나면 가장 잔인한 폭군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이 그 당시의 세상에 증명되었다. 의의 표준이 제거될 때 악의 왕이 그의 권력을 세상에 확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하나님의 율법이 거부되면 죄가 사악하게 보이지 않고 의가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게 된다. 하나님의 정부에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들을 지배하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게 된다. 그들의 위험한 가르침을 통하여 본성적으로 지배받기를 좋아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심중에 불순종의 정신이 부식되어 무질서하고 방종한 사회 상태를 초래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조소하는 한편 사단의

속임수는 열광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의 정욕대로 행동하여 이교도들에게 심판을 초래한 그 죄악을 자행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경하게 여기도록 가르치는 자들은 불순종을 거두기 위하여 불순종의 씨를 심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과해진 제재가 완전히 제거되면 미구에 인간의 법률도 무시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정직한 행위와 탐심과 거짓말과 속임수를 금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세속적 번영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유린하려 한다. 그러나 그 율법을 버린 결과로 그들이 예기하지 못한 일이 생길 것이다. 율법이 효력을 잃어버리면 누가 범죄하기를 두려워할 것인가? 재산은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폭력으로 이웃의 소유를 약탈하게 될 것이므로 강한 자가 제일 큰 부자가 될 것이다. 생명 그 자체도 존중히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결혼 서약도 더 이상 가정을 보호해 주는 거룩한 방호벽이 되지 못할 것이다. 힘 있는 자는 원하기만 하면 그 이웃의 아내를 폭력으로 빼앗게 될 것이다. 다섯째 계명은 넷째 계명처럼 무시될 것이다.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의 생명을 빼앗음으로써 그들의 타락한 마음의 욕망을 이룰 수 있다면 그들은 그런 일도 서슴지 않을 것이다. 문명 세계는 절도와 암살자의 소굴이 되고 평화와 안식과 행복은 지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의무에서 해방되었다는 교리는 이미 사람들의 도덕관념을 약화시키고 이 세상에 죄악의 물결이 들어올 수문을 열어 놓았다. 불법과 방탕과 타락은 걷잡을 수 없는 조수처럼 우리를 휩쓸고 있다. 사단은 가정에서 활동하고 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 가정이라고 공언하는 곳에까지 그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질투, 시기, 위선, 이간, 경쟁, 불화, 신성한 의무에 대한 배반, 육욕의 방종 등이 있다. 사회생활의 기초와 뼈대가 되어야 할 종교적 원칙의 전체적 체계와 교리는 마치 흔들거리는 덩어리처럼 바야흐로 부서져 없어지려 한다. 가장 타락한 범죄자들이 그들의 범죄로 투옥될 때 그들은 흔히 부러워할 만한 공훈을 세운 것인 양 선물을 받고 주목의 대상이 된다. 그들의 특성과 범죄 행위가 대대적으로 보도된다. 신문이 그 범죄 행위를 세밀하게 알려 주므로 다른 사람들이 사기, 절도, 살인 등의 행위를 본받게 된다. 사단은 자신의 흉악한 음모가 성공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한다. 부도덕에 대한 열중, 생명을 희생시키는 방종, 부절제의 놀라운 급증, 각양각색의 범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을 각성시켜 악의 물결을 막기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법정은 부패되고 위정자들은 이득을 얻고자 하는 욕망과 육욕적 쾌락을 따라 움직인다. 부절제가 많은 사람들의 재능을 흐려 버렸기 때문에 사단은 그들을 거의 완전히 지배하게 되었다. 법률가들은 그릇된 길로 빠지고 뇌물로 매수당하고 기만당한다. 음주와 술주정, 정욕적인 질투, 온갖 종류의 부정직이 그 법을 취급하는 자들 사이에서 자행된다.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사 59:14).

로마교의 최상권 시대에 편만했던 영적 암흑과 죄악은 로마교가 성경을 금지함으로 생긴 필연적 결과였다. 그러나 종교 자유 아래 복음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이 시대에 불신이 편만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는 일과 그 결과로 생기는 타락의 원인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이제는 사단이 성경을 빼앗음으로 세상을 더 이상 그의 지배 아래 둘 수 없으므로 그는 동일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다른 수단을 쓴다. 성경을 믿는 믿음을 파괴하는 것은 성경 자체를 파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목적을 성취하는 길이 된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는 신조를 소개함으로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마치 성경의 교훈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범죄하도록 효과적으로 유도한다. 그리고 그는 오늘날도 옛날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통하여 자기의 목적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오늘날의 종교 단체들은 성경에 명백히 나타나 있는 인기 없는 진리를 듣기를 거절하고 그 진리를 대적하여 싸우는 중에 여러 가지 해석을 채택했으며 회의론의 씨를 널리 뿌려온 입장을 취해 오고 있다. 영혼 불멸설과 죽은 자에게 의식이 있다는 법왕교의 오류를 그대로 고수함으로써 그들은 강신술에 대한 유일의 방어책을 거부해 버렸다. 영원 지옥의 교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믿지 않도록 이끌었다. 또한 넷째 계명의 요구가 사람들에게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제칠일 안식일을 준수할 것이 부과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 그리하여 많은 인기 있는 교사들은 그들이 이행하고 싶지 아니한 의무에서 벗어나는 유일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율법은 더 이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율법도 안식일도 모두 내어 버린다. 안식일 개혁 운동이 확대됨에 따라서 넷째 계명의 요구를 회피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는 일은 거의 세계적인 일이 될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불신에 대하여, 강신술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심의 거룩한 율법을 멸시하는 일에 대하여 문을 열어 놓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계에 있는 죄악에 대한 무서운 책임이 지도자들에게 있다.

그러나 바로 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급속히 퍼져가는 타락적 풍조가 소위 "그리스도인 안식일" (일요일을 가리킴) 을 모독하는 데서 기인된다는 것과 일요일 준수를 강요함으로 사회의 도덕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참된 안식일의 교리가 가장 널리 전파된 미국에서 특별히 강조된다. 미국에서는 도덕적 개혁 운동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중요한 운동 중 하나인 금주 운동이 흔히 일요일 휴업 운동과 병행해서 이루어지며 또한 일요일 휴업 운동가들은 그들 사회의 가장 큰 복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자처한다. 그리고 그들과 연합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마치 금주와 개혁 운동의 원수처럼 비난을 받는다. 그러나 오류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어떤 운동이, 본질적으로 선량한 어떤 다른 운동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오류를 좋은 것으로 만들어 준다는 이론은 성립될 수 없다. 우리가 독소를 건전한 음식물에 혼합시킴으로 그 정체를 가장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독성 자체를 변하게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독성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만큼 위험은 더욱

심하다. 거짓 것과 혼합시켜 그것을 참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책이다. 일요일 휴업 운동의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개혁 사업과 성경과 일치되는 원칙들을 강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율법과 반대되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종들은 그들과 연합할 수 없다. 사람의 계몽을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제외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사단은 두 큰 오류, 영혼 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설을 통하여 사람들을 그의 기만 아래 들어오게 할 것이다. 영혼 불멸설은 강신술의 기초가 되고 일요일 신성설은 로마교회에 대한 공명심을 일으킨다. 미국의 개신교도들은 솔선하여 강신술과 손을 잡기 위하여 심연 (深淵) 을 넘어 그들의 손을 내밀고 또 그들은 큰 구렁텅이를 넘어서 로마교회의 세력과 악수하기 위하여 손을 뻗칠 것이다. 그와 같은 삼중 연합의 세력 아래 이 나라는 양심의 권리를 유린하는 일에 로마의 발자취를 따르게 될 것이다.

강신술이 오늘날의 유명무실한 그리스도교를 더욱 잘 모방하면 할수록 그는 더욱 큰 기만과 유혹의 세력을 갖게 된다. 사단은 현대의 감각에 맞추어서 스스로 변장한다. 그는 빛나는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날 것이다. 강신술의 매개체를 통하여 이적들이 행해지고 병 고침을 받게 되고 부인할 수 없는 많은 기사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 영들은 성경을 믿는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교회의 제도들에 대한 존중심을 표명할 것이므로 그들의 활동은 마치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처럼 인정될 것이다. 오늘날의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과 불신자들과의 한계를 거의 구별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교회의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있고 그들과 연합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사단은 그들을 하나의 단체로 연합시켜 강신술의 대열에 쓸어 넣음으로써 그의 사업을 강화시키고자 결심하고 있다. 이적이 참 교회의 분명한 표라고 자랑하는 법왕교도들은 이적을 행하는 이 능력에 쉽게 기만당할 것이며 진리의 방패를 버린 개신교도들 역시 미혹당할 것이다. 법왕 교도들과 개신교도들과 세속인들은 한결같이 경건의 능은 버리고 경건의 모양만 받아들일 것이다. 그들은 이 연합을 온 세계를 교화시키는 큰 운동이요, 오랫동안 고대했던 복천년을 도래케 하는 운동이라고 볼 것이다.

사단은 강신술을 통하여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처럼 나타나서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 주고 새롭고 더욱 고상한 종교적 신앙을 제시해 주는 것처럼 공언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파괴자로서 활동하게 된다. 그의 유혹은 무수한 무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부절제는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켜 버리고 방종과 투쟁과 유혈이 따르게 된다. 사단은 전쟁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전쟁은 사람의 가장 악한 감정을 자극하며 전쟁의 희생자들을 죄악과 유혈 속으로 영원히 쓸어넣어 버리기 때문이다. 나라가 다른 나라를 대적하여 싸우도록 자극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다. 그렇게 함으로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날에 설 준비를 갖추는 사업에서 떠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단은 아직 준비되지 아니한 영혼들을 자기의 수확물로 거두어들이기 위하여 천재지변을 통하여 일한다. 그는 천연계의 비밀을 자세히 연구하여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천연계의 이변을 일으키기 위하여 그의 전력을 기울인다. 욥에게 고통을 주도록 허락을 받자 그는 얼마나 신속하게 양무리와 가축들, 종들과 가옥들과 자녀들을 휩쓸어 버리고 순식간에 재난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였는가. 피조물들을 보호하여 파괴자의 손에서 지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리스도교계가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였으므로 주님께서는 하시겠다고 선언하신 바로 그 일, 곧 당신의 율법을 배반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는 자들에게서 당신의 보호의 손을 거두시고 당신의 축복을 땅에서 철회하시겠다고 하신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지 아니하시는 모든 자들을 지배한다. 그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은 잘 되고 번영하게 하며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괴롭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게 한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 줄 수 있는 위대한 의사인 것처럼 가장하지만 질병과 재난을 가져와서 마침내 인구가 많은 도시들을 파멸과 황폐 상태로 바뀌게 한다. 그는 지금도 역시 활동하고 있다. 사단은 뜻하지 않은 사고,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재난, 큰 화재, 사나운 풍랑, 심한 우박, 폭풍우, 홍수, 회오리바람, 해일, 지진 등 수많은 방법으로 각 지역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다 익은 수확물을 쓸어버림으로 기근과 불행이 뒤따르게 한다. 그는 치명적 병독을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질병으로 죽게 한다. 이러한 일은 점점 더 빈번하고 비참해져 간다. 멸망이 사람과 짐승에게 똑같이 엄습한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사 24:4, 5).

그 때에 큰 기만자는 사람들에게 이런 재난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역설할 것이다.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자극한 부류에 속한 자들은 범죄자들에게 언제나 무언의 견책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이 그들이 당하는 모든 재난의 원인이 된다고 비난할 것이다. 사람들이 일요일 안식일을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는 것과, 그 죄가 재난을 일으켰으므로 일요일 준수를 엄격하게 강요하기 전에는 재난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넷째 계명의 요구를 가르침으로 일요일에 대한 존중심을 없애 버리는 자들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자요 하나님의 은총과 세속적 번영을 막아 버리는 자들이라고 선포될 것이다. 그리하여 옛날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받은 그 비난이 반복되고 똑같은 동기가 조성될 것이다.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네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좇았음이라” (왕상 18:17,

18). 거짓된 무고로 말미암아 분노한 사람들은 반역한 이스라엘이 엘리야에게 취했던 것과 똑같은 태도를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취할 것이다.

강신술을 통하여 나타난 이적을 행하는 능력은 사람을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순종하기로 결심한 자들을 대적하는 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영들과 교통하는 자들은 일요일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국가의 법률을 하나님의 율법과 똑같이 순종해야 한다고 강조할 것이다. 그들은 세상에 있는 큰 죄악을 한탄하고 도덕적 타락의 상태가 일요일을 모독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증언을 지지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러한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 큰 분노가 격발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마지막 싸움을 할 때 사단이 사용하는 방침은 그가 하늘에서 대쟁투를 시작할 때 사용한 것과 똑같다. 그는 하나님의 정부를 굳게 세우고자 노력하고 있노라고 공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비밀히 그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 왔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성취하기 위하여 노력해 온 바로 그 일을 충성된 천사들의 소위인 것으로 비난하였다. 그와 똑같은 기만정책이 로마교회의 역사에 나타났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행동하노라고 공언하면서도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힘쓰고 그분의 율법을 바꾸고자 하였다. 로마의 지배 아래서 복음에 충성했기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은 악행자로 고발당하였다. 그들은 사단과 동맹했다고 선고되고, 또 그들을 비난하고 사람들 앞과 자신들에게까지도 극악한 범죄자들로 나타나게 하고자 가능한 온갖 수단을 다 썼다. 오늘날도 그러할 것이다. 사단이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멸하고자 할 때 그는 그들을 율법을 범한 자들로, 하나님을 모독함으로 세상에 심판을 초래하고 있는 자들로 비난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의지와 양심을 결코 강제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사단의 상투적 수단은 자기가 설복할 수 없는 자들을 지배하기 위하여 무자비하게 압박하는 일이다. 위협과 폭력을 통하여 그는 양심을 지배하고 자기 자신이 숭배를 받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는 종교적 세력과 세속적 권세를 통하여 활동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인간의 법률을 강요하도록 사람들을 충동한다. 성경상 안식일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법률과 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회의 도덕적 제지를 깨뜨리고 무정부 상태와 타락을 초래하고, 지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자들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양심의 지시에 순종하는 그들의 행동은 완고와 고집과 권위에 대한 멸시로 단정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정부에 대하여 불평하는 자들로 고발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할 의무를 부인하는 목사들은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주장할 것이다. 의회와 법정에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거짓 증언으로 정죄당할 것이다. 그들의 말을 거짓되게 조작하고 그들의 동기는 가장 나쁘게 해석될 것이다.

개신교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는 분명한 성경상 논증을 부인할 때 그들은 그들이 성경으로 믿음을 넘어뜨릴 수 없는 사람들을 침묵시키고자 열망할 것이다. 비록 그들 자신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그들은 모든 그리스도교계에서 하고 있는 일을 양심적으로 거부하고 법왕권의 안식일의 요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도록 이끌게 될 길을 오늘날 따라가고 있다. 교회와 국가의 지도자들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로 하여금 일요일을 존숭하게 하고자 매수하고 설득하고 강요하기 위하여 연합할 것이다. 그들은 신적 권위의 부족을 압제적 법령으로 보충할 것이다. 정치적 부패는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과 진리를 존중하는 마음을 소멸시키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까지도 그 위정자와 입법자들은 일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법령에 대한 민중의 요구에 굴복할 것이다. 그처럼 큰 희생을 치르고 얻은 양심의 자유가 더 이상 존중되지 않을 것이다. 절박한 싸움에서 우리는 선지자의 말씀에 나타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계 12:17).

37 장 — 믿음의 기준이 되는 성경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히 아침빛을 보지 못하" (사 8:20) 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거짓 교사의 영향과 암흑의 영들의 기만적 능력을 대항하는 그들의 방어책으로 삼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나 사단은 온갖 계책을 다 써서 사람들이 성경 지식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왜냐하면 성경의 분명한 말씀이 사단의 속임수를 폭로해 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업이 부흥될 때마다 악의 왕은 일어나서 더욱 맹렬한 활동을 한다. 그는 지금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마지막 싸움에 혼신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 큰 기만이 미구에 우리 앞에 공개될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는 우리의 눈앞에서 놀라운 이적을 행할 것이다. 거짓 것이 참 것과 너무도 유사할 것이므로 성경으로 밖에는 그것들을 분간할 수 없을 것이다. 성경의 증언에 의하여 모든 말과 모든 이적이 시험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들은 반대와 조롱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견딜 수 있다. 그들은 그들 앞에 있는 시련을 견디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 오직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와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거기에 일치되도록 행동할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할 것인가" 하는 시험이 이르러 올 것이다. 결정의 시간은 이제 박두해 있다.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의 보호 아래 굳게 설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구주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돌아가셨다가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다. 그리고 천사들도 나타나서 주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에 새겨주고자 힘썼다. 그러나 제자들은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일시적 해방만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희망의 중심이 되어 있는 주님께서 굴욕적인 죽음을 당하셔야 한다는 생각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었던 말씀들은 그들의 마음에서 사라졌다. 그러므로 시련의 때가 이르자 그들은 아무런 준비가 없었음이 발견되었다. 예수님의 죽음은 마치 그분께서 그들에게 미리 경고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그들의 희망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미래가 펼쳐졌던 것처럼 우리 앞에는 예언으로 미래가 분명히 펼쳐져 있다. 은혜의 시기의 끝과 환난의 때를 위한 준비에 관련된 사건들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마치 이 중요한 진리들이 그들에게 전혀 계시되지 않았던 것처럼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될 영향력을 모두 빼앗아 버림으로 그들이 환난의 때에 준비되지 못하게 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천사들이 공중에 날아가면서 선포하는 것으로 나타내시리 만큼 그렇게 중대한 경고를 사람들에게 주실 때 그분께서는 이성을 가진 모든 사람이 그 기별에 유의하기를 바라신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 (계 14:9~11 참조) 하는 자에게 무서운 심판이 선고되어 있으므로 모든 사람은 짐승의 표가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받지 않고 피할 수 있을 것인지 알기 위하여 예언을 부지런히 연구하도록 지도되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귀를 돌려 진리를 듣지 않고 지어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을 내다보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 (딤후 4:3) 리라. 그 때가 분명히 이르렀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 진리가, 죄악적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욕망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사단은 그들이 좋아하는 속임수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성경, 오직 성경만을 모든 교리의 기준과 온갖 개혁의 기초로 삼아 지지하는 백성을 가지실 것이다. 학자들의 의견, 과학의 이론, 종교 회의에서 정한 신조나 결정은 사람들이 대표하는 교회와 다수의 의견에 따라 다양하고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종교적 신앙에 관하여 그 찬부를 결정할 때는 위에 열거한 것들의 전부나 그 하나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어떤 교리나 교훈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것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하는 분명한 말씀에 일치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단은 하나님 대신에 사람에게 주의를 끌게 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는 사람들이 그들의 의무를 깨닫기 위하여 스스로 성경을 상고하는 대신에 감독이나 목사나 신학 교수들을 그들의 지도자로 바라보도록 이끈다. 이렇게 되면 그는 지도자들의 마음을 지배함으로써 자기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말씀하실 때 백성들은 그분의 말씀을 즐겁게 들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심지어 제사장들과 법관들까지라도 그분을 믿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나라의 지도적 인물들은 주님의 가르치심을 책잡고 부인하기로 결심하였다. 비록 그들이 주님께 대하여 죄를 찾아내고자 노력하였으나 헛된 수고만 하였고 주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깨닫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편견 속에 넣어 두었고 그들은 그분의 제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그분께서 메시야 되시는 가장 분명한 증거를 거부하였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 사람들은 당시의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그들을 존경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온 사람들이었으며 백성들은 그들의 권세에 아무 이의 없이 굴복해 왔었다. 사람들은 "우리의 법관들과 학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만일 그분이

그리스도이면 이 경건한 사람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겠는가?"라고 말하였다. 그와 같은 지도자들의 영향으로 유대인들은 그들의 구주를 거절하게 되었다.

그 제사장들과 법관들에게 작용한 그 정신은 지금도 매우 경건한 것으로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여전히 나타나 있다. 그들은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에 관한 성경의 증언을 연구하기를 거부한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속한 사람의 수가 많은 것, 재산이 풍부한 것, 인기가 있는 것을 지적하고 진리를 옹호하는 자들을 세상 사람들과 동떨어진 믿음을 가진 소수의 가난하고 인기 없는 자들이라 하여 멸시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한 부당한 권위의 행사는 유대인들이 흩어진 후에도 계속될 것을 미리 아셨다. 주님께서는 양심을 지배하기 위하여 세속적 권세를 존중하는 일이 있을 것을 미리 보셨는데, 그 일은 각 시대를 통하여 교회에 참으로 무서운 저주가 되어 왔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주님의 무서운 책망과 사람들에게 그 눈먼 지도자들을 좇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경고는 미래의 세대에 대한 경계로 기록되어 있다.

로마교회는 성경을 해석하는 권리를 성직자들에게 맡기고 있다. 성직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성경은 일반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다. 종교 개혁은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주었으나 로마교로 말미암아 지지된 그와 같은 원칙은 개신교에 속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스스로 상고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그들은 성경의 교훈을 교회에서 설명한 대로만 받아들이도록 가르침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에 아무리 분명히 계시된 것일지라도 그들의 신조나 그들의 교회가 확립해 놓은 교훈에 반대되는 것은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성경에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가 충분히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을 지켜 주도록 성직자에게 맡기고자 하는 자들이 많다. 오늘날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배운 것 이외에는 자기들의 신앙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노라고 공언하고 있다. 그들은 구주의 가르침은 거의 유의하지 않고 지나쳐 버리면서 목사들의 말은 맹목적으로 믿는다. 그러면 목사들은 과오가 없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들이 빛을 가진 자들이란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그들의 지도에 맡길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은 세속의 길을 끊어 버릴 도덕적 용기가 부족하므로 학자들의 발자취를 따르게 되고 그들 스스로 연구하기를 싫어하므로 속절없이 오류의 쇠사슬에 매여 있게 된다. 그들은 이 시대를 위한 진리가 성경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음을 깨닫고 그 진리를 증거할 때 성령의 능력이 수반되고 있음을 느낀다. 그러나 그들은 그 빛에서 그들을 돌아서게 하는 지도자의 반대에 맹종한다. 비록 이성과 양심이 각성되어 있을지라도 그 기만당한 사람들은 감히 목사들과 다르게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의 개인적 판단과 영원한 유익은 다른 사람의 불신과 교만과 편견으로 말미암아 희생당하게 된다.

사단이 인간의 감화력을 통하여 사람들을 자기의 포로로 사로잡아 두는 방법은 많다. 그는 애정의 비단실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된 자들과 연결시켜 둠으로써 사람들을 자기편이 되게 한다. 그 결합의 관계가 부모, 자식, 부부, 사회 등 어느 관계이든지 그 결과는 동일하다.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은 양심을 지배하기 위하여 그들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들의 지배 아래 들어간 사람들은 의무에 대한 자기의 확신을 따라 행할 만한 충분한 용기와 독립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은 분리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소유하고서도 그릇된 견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생애만 올바르면 무엇을 믿어도 상관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생애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만일 우리의 손이 미치는 범위 안에 빛과 진리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들을 특권을 이용하기를 게을리 하면 우리는 사실상 그것을 거절하게 되고 우리는 빛보다 어둠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 16:25).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온갖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해서 과오와 죄를 범했다고 핑계할 수는 없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갈 때 여러 갈림길이 있는 곳에 이르자 거기는 각각 어디로 가는 길인지 표시해 놓은 안내판이 서 있었다. 만일 그 사람이 그 안내판을 무시하고 그의 생각에 옳게 보이는 길을 택한다면 그가 아무리 진실할지라도 그는 필경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의 교훈을 잘 알게 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우리 스스로 알게 하신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고 말씀하셨다. 젊은이와 늙은이를 막론하고 무식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에서 면제되거나 놓여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율법과 율법의 원칙과 그 요구가 충분히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좋은 의도를 가진 것만으로 넉넉지 못하다.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거나 목사가 그에게 옳다고 말해 주는 것으로 넉넉지 못하다. 그의 영혼의 구원이 위기에 놓여 있으므로 그는 자기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여야 한다. 자기의 확신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목사가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임을 아무리 확신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기초가 될 수는 없다. 그는 하늘 가는 여로의 모든 노정 (路程) 이 표시된 지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떤 일에나 추측으로 해서는 안 된다. 성경에서 진리를 배워서 빛 가운데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여 그의 본을 따르게 하는 것이 모든 이성을 가진 자의 첫째요 최고의 의무이다. 우리는 날마다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모든 사상을 검토해 보고 성경의 절과 절들을 비교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스스로 자기의 의견을 형성해야 한다.

성경에 가장 분명히 계시된 진리들이 위대한 지혜를 가진 것으로 자처하는 학자들에 의하여 의심과 흑암 속에 묻혀 버렸는데, 그들은 성경에는 그 사용된 언어에 나타나지 아니한 신비하고 은밀하고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가르친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이다. 예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 (막 12:24)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성경에 기록된 언어는 표상이나 상징으로 사용된 것 외에는 그 언어의 분명한 뜻에 의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 7:17) 고 약속하셨다. 만일 사람들이 읽는 그대로 성경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마음을 잘못 인도하고 혼란케 하는 거짓 교사들이 없었을 것 같으면 천사들을 기쁘게 할 일이 성취되어 오늘날 오류에서 방황하고 있는 무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우리 안으로 인도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정신력을 다 사용하고 하나님의 오묘를 이해하기 위하여 사람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의 이해력을 써야 한다. 그러나 어린아이같이 온순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배우는 자의 진정한 정신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성경상 어려운 문제들은 철학적인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과학의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간직하는 것과 동일한 자부심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경건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진정한 소원을 가지고 연구해야 한다. 우리는 겸손하고 가르침을 받으려는 정신으로 나가서 위대하신 영원 자존자 (永遠 自存者) 에게서 지식을 얻고자 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악한 천사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 마음을 굳어지게 함으로 진리의 감동을 받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학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오묘라고 선고해 버리거나 별로 중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지나쳐 버리는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교훈으로 충만해 있다.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실천하기를 원치 않는 진리에 대하여 그들의 눈을 감아 버리기 때문이다.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그 연구에 사용되는 지성의 능력에 의존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전심전력하는 태도, 곧 의를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에 달려 있다.

성경은 기도 없이 연구해서는 안 된다. 오직 성령께서만 우리를 그처럼 중요한 것들을 이해할 필요를 쉽게 느끼게 하시고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를 곡해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실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끌리고 그 말씀의 경고로 경계를 받고 그 약속으로 새로움과 활기를 얻게 하는 것이 천사들의 직무이다. 우리는 시편 기자의 기원 (祈願) 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해야 한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시 119:18). 이따금 유혹을 저항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기도와 성경 연구를 게을리함으로 하나님의 허락을 쉽게 기억할 수

없고 성경을 무기로 삼아 사단을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사들은 신령한 사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주위에 둘러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에게 필요한 바로 그 진리를 기억나게 해줄 것이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 (사 59:19) 이다. 예수께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 14:26) 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훈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미리 쌓아 두어야 위태한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교훈들을 우리의 기억에 떠오르게 해주신다. 다윗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 119:11) 고 말하였다.

영원한 구원의 가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회의론 (懷疑論) 의 침입을 받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 바로 진리의 기둥들이 공격을 받을 것이다. 오늘날의 불신에 속한 풍자 (諷刺) 와 궤변 (詭辯), 교활하고 치명적인 교훈의 공격권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사단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그의 시험을 적용한다. 그는 교육받은 자들에게는 과학적 반대 이론과 철학적 이론으로 대결하는 한편 무식한 자들에게는 희롱과 조롱으로 성경을 불신케 하거나 경멸하도록 공격하고자 계획을 세웠다. 심지어 경험이 별로 없는 젊은이들도 그리스도교의 기본 원리에 대하여 의혹을 품게 된다. 이와 같은 청년기의 불신은 그것이 비록 미약할지라도 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신앙을 조소하고 은혜의 성령을 멸시하게 되었다 (히 10:29 참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 축복이 될 수 있었던 전도유망한 많은 사람들의 생애가 더러운 불신의 기운으로 시들어 버렸다. 인간 이성의 자랑스런 결정력을 의지한 나머지 그들이 하나님의 오묘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도움이 없어도 진리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자들은 사단의 올무에 걸려 있다.

우리는 이 세상 역사의 가장 엄숙한 시기에 살고 있다. 지상의 무수한 사람들의 운명은 바야흐로 결정되려 하고 있다. 우리의 미래의 행복과 다른 영혼들의 구원은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에 의하여 좌우된다. 우리는 진리의 영으로 지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물어야 한다. 우리는 금식과 기도로써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심판의 광경에 대하여 많이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물에 대하여 깊고, 산 경험을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한순간도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 참으로 중대한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사단의 요술에 걸려 있는 땅에 처해 있다. 하나님의 파수꾼들아, 졸지 말라. 원수는 몰래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 그는 그대들의 마음이 해이해져서 졸고 있을 때 어떤 순간이든지 덤벼들어 그대들을 사로잡으려고 준비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진정한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속고 있다. 그들은 그들이 악한 일을 범하지 아니한 것을 자랑하는 한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하고 고상한 행위를 행치 아니한 것을 잊어버렸다. 그들이 하나님의 정원에 있는 나무가 되는 것만으로는 넉넉지 못하다. 그들은 과실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강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성취할 수 있었던 모든 선을 행치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그들에게 지우신다. 그들은 하늘 책에 땅을 버리게 하는 자들로 기록된다. 그러나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경우일지라도 전혀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하고 그분의 은혜를 남용한 자들에 대하여 오랫동안 참으시는 사랑의 마음은 여전히 탄원하신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취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엡 5:14~16). 시련의 날이 이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생애의 법칙으로 삼은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여름에는 상록수와 다른 나무를 뚜렷하게 구분할 수 없다. 그러나 겨울바람이 불어오면 상록수는 변함없이 남아 있지만 다른 나무들은 잎이 떨어져 그 가지가 벌거숭이가 된다. 이와 같이 지금은 마음이 거짓된 신앙 고백자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구별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구별이 분명히 지어질 때가 이미 절박해 있다. 반대가 일어나게 되면, 완고와 억압이 다시 기세를 떨치게 되면, 박해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면, 반신반의의 위선적인 자들은 흔들리고 믿음을 버릴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반석과 같이 굳게 설 것이며, 그들의 믿음과 소망은 번영의 때보다 더욱 강하고 더욱 밝아질 것이다. 시편 기자는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시 119:99, 104) 고 말한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잠 3:13),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렘 17:8).

38 장 — 최후의 경고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예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계 18:1, 2, 4).

이 성경절은 요한계시록 14 장의 둘째 천사가 선포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이 반복하여 전해지는 때를 가리켜 준다 (계 18:4 참조). 그리고 그것은 1844 년 여름에 그 기별이 처음 선포된 이래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단체에 침투된 타락의 상태를 첨가해서 말해 준다. 여기에는 종교계의 두려운 상태가 묘사되어 있다. 진리를 거절할 때마다 사람의 마음은 더욱 어둡고 더욱 완고해져서 그들은 마침내 대담한 불신으로 무장하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를 무시하여 십계명 중 한 계명을 계속해서 범하고 마침내 그들은 그 계명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을 박해하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백성에게 과해지는 멸시를 통하여 무시당하신다. 강신술의 교훈이 교회에 용납되고, 변화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을 붙들고 있던 제재가 사라지면 신앙의 고백은 가장 비열한 죄악을 숨기기 위한 구실이 될 것이다. 강신술의 이적을 믿는 신앙은 미혹하는 영과 마귀의 가르침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 주게 될 것이므로 악한 천사들의 감화를 교회 안에서 느끼게 될 것이다.

이 예언에는 바벨론시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계 18:50). 바벨론의 죄는 차고 넘쳐 있으며 그의 멸망의 시기는 절박해 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가운데 한 백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전에 그 충성된 자들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 (계 18:4) 도록 불러냄을 받아야 한다. 그리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로 표상된 운동은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비추고 큰 음성으로 외치면서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 이 천사의 기별과 관련하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음성이 들린다. 이 선포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땅위의 주민에게 주어져야 할 마지막 경고가 된다.

세상에서 일어날 사태는 참으로 무섭다. 하나님의 계명을 대항하는 싸움에 가담하고 있는 세상의 세력들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계 13:16) 거짓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교회의 습관을 따르도록 명령할 것이다. 거기에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모두 법률상 형벌을 받게 되고 마침내 그들은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는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창조주의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하는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모든 자들이 진노를 받을 것을 경고해준다. 이와

같이 자기 앞에 분명히 문제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정한 제도를 따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는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그가 하나님 대신에 순종하기로 택한 그 세력에 충성하는 표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한 하늘의 경고는 다음과 같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계 14:9, 10). 그러나 진리가 마음과 양심 속에 분명히 알려지기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다. 다만 진리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거절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진다.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를 들을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넷째 계명에 대한 의무는 그들 앞에 진정한 빛으로 결코 제시되지 않았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며 모든 동기를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지식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이 투쟁의 계쟁점 (係爭點) 에 관하여 기만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 법령은 사람들에게 맹목적으로 강요되지는 않을 것이다. 각 사람은 현명한 결정을 하리만큼 충분한 빛을 갖게 될 것이다.

안식일은 충성의 큰 시금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특별히 투쟁의 초점이 되는 진리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을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좇아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그리하여 한 계층의 사람들은 세상의 세력에 복종하는 인을 받음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는 반면에 다른 한 계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충성하는 표를 받는 길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셋째 천사의 기별의 진리를 전파한 사람들이 흔히 세상을 쓸데없이 놀라게 하는 사람들로 단순히 간주되어 왔다. 종교적 제한이 미국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교회와 국가가 연합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은 아무 근거도 없고 불합리한 것으로 단정되어 왔다. 그리고 종교 자유의 옹호자였던 이 나라가 그 외의 다른 상태로 변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공언해 왔다. 그러나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문제가 광범위하게 거론되면 오랫동안 의심하고 믿지 않았던 그 사건이 가까워 옴을 알게 되고 따라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결과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보내어 세상과 교회 안에 있는 죄를 다 같이 책망하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부드러운 말을 듣기를 원하고, 순수하고 솔직한 진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많은 개혁자들은 그들의 사업을 착수할 때 교회와 국가의 죄를 지적하는 일에 극히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자 결심하였다. 그들은 순결한 그리스도인 생애의 모범을 통하여 사람들을 성경의 교훈으로 돌아오게 하고자 희망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에게

나타나 그로 하여금 악한 왕과 반역한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게 하신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하게 하셨다. 그들은 성경의 솔직한 말씀, 곧 그들이 제시하기를 주저해 왔던 교훈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들은 진리와, 사람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위험에 대하여 열렬하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말하였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그 경고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

그와 같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선포될 것이다. 그 기별이 가장 큰 세력으로 전파되어야 할 때가 오면 주님께서는 마음이 겸비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자신들을 주님의 사업에 바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도하실 것이다. 일꾼들은 교육 기관에서의 훈련보다 오히려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믿음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열성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도록 강권함을 받게 될 것이다. 바벨론의 죄들은 공개될 것이다. 국가의 세력으로 교회의 제도를 강요하는 일의 무서운 결과, 강신술의 침입, 법왕권의 조용하면서도 신속한 발전 등이 폭로될 것이다. 이러한 엄숙한 경고로 사람들은 동요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도무지 들어보지 못한 무수한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 될 것이다. 그들은 바벨론이 그의 오류와 죄 때문에, 그리고 하늘에서 온 진리를 거절함으로 타락한 교회라는 증언을 듣고 놀라게 된다. 사람들이 그들의 이전 지도자들에게 가서 사실이 그러냐고 열렬한 마음으로 질문하면 그 목사들은 지어낸 말을 들려주고 평안한 일을 예언하며, 그들의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각성된 양심을 진정시키려 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단순한 인간의 권위에 만족하고자 하지 않고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라는 분명한 말씀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면 일반 지도자들은 옛날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권위를 의심받았을 때 격노한 것처럼 그 기별을 사단에게 속한 것이라고 배척하고 죄를 좋아하는 무리를 선동하여 그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핍박할 것이다.

투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사람들의 마음이 유린된 하나님의 율법을 향하여 돌아서면 사단은 분노하게 된다. 그 기별에 따르는 능력을 보고 그 기별을 반대하는 자들은 발광할 것이다. 성직자들은 그 빛이 그들의 교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하여 거의 초인간적 노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하여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한 논쟁을 진정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교회는 국가의 강한 세력에 호소하게 되고, 이 일을 통하여 로마교도와 신교도들은 연합하게 된다. 일요일을 강요하는 운동이 더욱 대담하고 결정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법률의 힘이 가해질 것이다. 그들은 과료와 투옥으로 위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버리게 하는 유혹의 수단으로 훌륭한 지위가 주어지고 어떤 자들은 보수와 특권이 제공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단호한 대답은 일찍이 루터가 그들과 같은 환경에서 대답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라"는 말이 될 것이다. 법정에 소환된 사람들은 진리를 강력하게 변호할 것이며,

그 말을 듣는 자들 중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다른 방법으로는 진리를 알려 줄 수 없었던 무수한 사람에게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심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반역으로 취급받을 것이다. 사단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어진 부모들은 그 믿는 자녀들을 혹독하고 가혹하게 취급할 것이며 주인과 여주인은 계명을 지키는 하인을 박해할 것이다. 애정은 끊어지고 자녀들은 상속권을 잃고 가정에서 쫓겨날 것이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딤후 3:12) 고 한 바울의 말이 문자 그대로 실현될 것이다. 진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일요일을 안식일로 존중하지 않게 될 때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옥에 갇히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추방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노예처럼 취급될 것이다. 인간의 지혜로 볼 때 지금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람들을 제어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이 물러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미워하는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면 이상한 현상이 생기게 될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사랑이 제거되면 그 마음이 매우 잔인해질 수 있다.

폭풍우가 다가올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해 오면서도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못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를 떠나 반대편의 대열에 가담할 것이다. 그들은 세상과 연합하고 그 정신에 동참해 왔으므로 모든 것을 세속적인 사람들과 거의 동일하게 생각해 왔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그들은 평안하고 인기 있는 편을 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한때 진리 안에서 기쁨을 누렸던 재능 있고 말솜씨가 좋은 사람들은 그 능력을,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기 위하여 사용할 것이다. 그들은 이전의 형제들에게 가장 큰 원수가 된다. 안식일 준수자들이 법정에 소환되어 그들의 신앙에 대한 답을 해야 할 때 그 배교자들은 그들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고 비난하는 사단의 가장 유력한 대리자들이 된다. 그들은 거짓 보고와 암시를 통하여 그들을 반대하도록 통치자들을 선동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박해의 시기에 주님의 종들의 믿음은 시련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성실하게 경고해 왔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 의지해 왔다.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영은 그들에게 말하도록 강권했다. 그들은 거룩한 열성으로 고취되고, 그들에게 강한 자극을 주는 거룩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되 그 결과는 고려하지 않고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게 되었다. 그들은 현실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그들의 명성이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하여 애써 노력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나 반대와 비난의 폭풍우가 그들을 엄습하면 어떤 자들은 "만일 우리가 말한 결과가 이렇게 될 줄 미리 알았으면 우리는 침묵을 지켰을 것이다"라고 놀라서 부르짖을 것이다. 그들은 어려움에 둘러싸인다. 사단은 무서운 유혹으로 그들을 공격한다. 그들이 착수한 일은 그들의 능력으로 도저히 성취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멸망의 위협을 받는다. 그들을 활기차게 해준 열성은 사라진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설 수 없다. 그 때에 그들은 속절없는 그들의 상태를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피하여 힘을 구한다. 그들은 그들이 증거한 말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 경고하라고 명하신 주님의 말씀이었음을 기억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리를 넣어 주셨으므로 그들은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나간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똑같은 시련을 경험하였다. 위클리프, 후스, 루터, 틴덜, 박스터, 웨슬리 같은 사람들은 모든 교리를 성경으로 시험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성경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나 버려야 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에 대하여 가혹한 분노로써 박해가 일어났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 교회 역사의 각 시대는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에 적합한 어떤 특별한 진리의 발전으로 각각 구분되어 왔다. 모든 새로운 진리는 증오와 박해를 대항하여 싸우면서 그 길을 개척해 왔다. 진리의 빛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유혹당하고 시련을 받았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비상시에 특별한 진리를 주신다. 그렇다면 누가 감히 그 진리를 전하기를 거부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마지막 은혜의 초청을 세상에 전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들은 잠잠할 수 없다. 만일 그들이 잠잠하면 그들의 영혼은 위험에 빠진다. 그리스도의 사신들은 결과를 전혀 괘념치 않아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의무를 다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반대가 더욱 격렬해짐에 따라 하나님의 종들은 다시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은 그들이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여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길이 옳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준다. 그러므로 비록 시련이 계속될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강해진다. 싸움은 더욱 급박해지고 격렬해진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과 용기는 사태가 어려워짐에 따라 더욱 강해진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간증한다. "우리는 세상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나누어 어떤 부분은 요긴하고 다른 부분은 요긴하지 않다고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간여할 수 없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권세를 이미 정복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정복된 세상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사단이 존재하고 그리스도교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한 여러 가지 형태의 박해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의 원리이다. 암흑의 군대와 대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악한 천사들은 그들의 손에 들어온 자들이 하나님의 종의 감화로 빼앗길 때 놀라서 그를 공격할 것이다. 하나님의 종의 모범으로 견책을 받은 악인들은 악한 천사들과 연합하여 매혹적인 시험으로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이 성공을 거두지 못할 때에는 압제적 권력을 써서 양심을 강요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의 중보자로 하늘 성소에 계시는 동안 성령의 제어하시는 능력이 통치자들과 백성들에게 미치게 된다. 성령의 능력은 여전히 나라의 법률들을 어느 정도 통제한다. 만일 이 법률들이 아니었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악화되었을 것이다. 우리의 통치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대리자로 활동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국가의 지도적 인물들 가운데 당신의 대리자들을 가지고 계신다. 원수는 자기의 종들을 충동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크게 방해할 조치를 취하도록 제안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가들은 거룩한 천사들의 감화를 받아 단호한 논증으로 그런 제의에 반대한다. 이와 같이 불과 소수의 사람들이 강력한 악의 세력을 제지할 것이다. 진리를 대적하는 원수의 반대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제지될 것이다. 마지막 경고가 주어질 때 주님께서 오늘날 사용하고 계시는 지도자들의 주의가 그 기별에 집중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환난의 때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설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 협력하는 천사는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한다. 온 세계적 범위의 사업이 비상한 능력으로 성취될 것이 여기에 예언되어 있다. 1840 년에서 1844 년까지의 재림운동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스럽게 나타났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세계의 모든 선교지에서 증거되었다. 그리고 어떤 나라들에서는 16 세기 종교 개혁 이후 어떤 곳에서 있었던 것보다 가장 큰 종교적 각성이 일어났다. 그러나 셋째 천사의 마지막 경고 아래 이루어질 큰 운동은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날 것이다.

그 운동은 오순절의 운동과 유사할 것이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귀중한 씨앗의 발아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른비를 주신 것처럼 그 사업의 종말에는 늦은비를 주셔서 추수할 곡식을 무르익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호 6:3).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 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욜 2:23).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행 2:17, 21).

위대한 복음의 사업은 그 시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 못지않은 큰 능력이 나타남으로 마쳐지게 될 것이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이른비가 내림으로 성취된 예언들은 그 사업의 종말에 늦은비가 내림으로 다시 성취될 것이다. 그리하여 사도 베드로가 기대했던 "유쾌하게 되는 날" (행 3:19) 이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 (행 3:20) 라.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으로 빛나고 밝은 표정을 얼굴에 짓고, 하늘에서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저곳으로 분주히 왕래할 것이다.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다.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며,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것이다. 사단도 또한 거짓 기사들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까지 할 것이다 (계 13:13 참조). 이리하여 세상의 거민들은 그들의 입장을 분명히 취하게 될 것이다. 기별은 변론으로 전해지기보다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것이다. 변론으로는 벌써 제시되었다. 씨앗은 이미 뿌려졌으므로 이제는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선교인들에 의하여 전달된 인쇄물들은 감화력을 발휘해 왔다. 그러나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충분히 이해하거나 순종하는 일에 장애를 받아 왔다. 이제는 밝은 광선이 각 곳으로 뚫고 들어가서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정직한 자녀들은 그들을 결박하고 있던 줄을 끊어 버리게 된다. 이제는 혈연관계, 교회 관계가 그들을 붙들어둘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해진다. 진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욱 귀중하다. 여러 기관들이 진리를 대적하기 위하여 결속하였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편에 서게 된다.

39 장 — 무정부 상태

"그 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 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 때에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단 12:1).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마쳐지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한 자비의 탄원은 더 이상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사업을 다 이루었다. 그들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 (행 3:19) 르는 "늦은비" (호 6:3) 를 받았으므로 그들 앞에 있는 시련의 때를 위하여 준비를 갖추었다. 천사들은 하늘에서 분주히 왕래하고 있다. 지상에서 돌아온 한 천사는 그의 일이 마쳐진 것을 보고한다. 마지막 시험이 이미 세상에 주어졌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한 것이 입증된 사람들은 모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 (계 7:2) 을 받았다. 그 때에 예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중보 사업을 그치신다. 그분께서는 손을 들어 큰 음성으로 "되었다" (계 16:17) 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분께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계 22:11) 고 엄숙히 선언하시자 온 하늘의 천사들은 그들의 면류관을 벗는다. 생사간에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마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셨다. 주님의 백성의 수효는 찼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는 바야흐로 구원의 후사들에게 주어지고 예수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통치하시게 된다.

주님께서 성소를 떠나실 때 이 땅의 거민들에게는 암흑이 덮인다. 이처럼 두려운 시기에 의인들은 중보자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악인들을 누르고 있던 억제는 제거되고 사단이 마침내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완전히 지배하게 된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끝났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그분의 사랑을 멸시하고 그분의 율법을 유린하였다. 악인들은 그 은혜 시대에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렸고 계속적으로 거절당한 하나님의 영은 마침내 거두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악한 자 마귀에게서 방어되지 못한다. 사단은 이 땅의 거민들을 최후의 큰 환난 가운데 빠뜨릴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간의 감정의 거센 바람을 막아 주지 않으면 각종 투쟁의 요소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온 세계는 옛날 예루살렘을 휩쓸었던 것보다 더 무서운 폐허를 나타낼 것이다.

단 한 천사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고 그 땅을 통곡의 소리로 가득해지게 했다. 다윗이 백성들의 숫자를 조사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한 천사가 그 죄에 대한 벌로 무서운 멸망을 초래하였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거룩한 천사들에 의하여 나타났던 것과 똑같은 파괴력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악한 천사들에 의해서도 발휘될 것이다. 파괴력은 이제 준비되어 있다. 각 곳에 폐허 상태를 가져오기 위하여 하나님의 허락만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심판을 초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그리고 그들은 천연계의 두려운 재난과, 지상을 비극으로 충만하게 하는 인간의 투쟁과 유혈 사태의 장본인으로 간주될 것이다. 마지막 경고에 따르는 능력은 악인들을 격노케 해왔다. 그들의 분노는 기별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일어나고 사단은 증오와 박해의 정신을 극도로 격발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마침내 유대 민족에게서 떠나갔을 때,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사단의 지배 아래 가장 무섭고 흉악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스스로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생각했다. 성전에서의 봉사는 계속되었고, 희생 제물은 더럽혀진 그 제단 위에 드려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를 흘리고 그분의 종들과 사도들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백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게 해달라는 기원이 매일 상달되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소에서 취소할 수 없는 결정이 선고되고 세상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된 후에도 땅 위에 사는 주민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할 것이다. 여러 가지 종교 의식은 하나님의 영이 이미 떠나간 사람들에 의하여 여전히 계속될 것이다. 악의 왕이 그의 무서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충동할 그 극악무도한 열성이 하나님께 대한 열성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안식일이 모든 그리스도교국을 통하여 투쟁의 초점이 되고 종교계와 정계의 권력자들이 계속하여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게 될 때 그 세속적 요구에 굴복하기를 끈덕지게 거절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온 세계의 저주의 표적이 될 것이다. 교회의 제도와 국가의 법에 반대하는 소수의 사람이 그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모든 국가들이 혼란과 무법 상태에 빠지는 것보다 그들이 고난을 받는 것이 더욱 낫다고 역설할 것이다. 1800 년 전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똑같은 이론을 제기했다. 교활한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요 11:50) 라고 말하였다. 이 이론은 결정적인 것처럼 보일 것이다. 마침내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성별하는 사람에 대하여 일종의 법령이 반포될 것이다. 그들은 가장 중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선고를 받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그들을 사형에 처하는 자유를 사람들에게 부여할 것이다. 유럽의 로마교도들과 미국의 타락한 개신교도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지자가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묘사한 고난과 고통에 빠지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찜이뇨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렘 30:5~7).

야곱이 심한 고통을 당한 밤, 곧 야곱이 에서의 손에서 구원을 받고자 기도로 씨름하던 그 밤 (창 32:24~30 참조) 은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을 경험을 나타내 준다. 에서에게 주기로 되어 있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기만 수단을 썼기 때문에 야곱은 형의 무서운 협박에 놀라 목숨을 구하고자 도망하였다. 여러 해 동안의 유랑 생활을 마친 후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처자들과 가축들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출발하였다. 국경에 이르자 그는 에서가 그에게 복수할 뜻으로 일단의 군사를 이끌고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공포에 사로잡혔다. 무장도 방위력도 없는 야곱의 일행들은 바야흐로 폭력과 살육으로 속절없이 희생당할 수밖에 없을 것처럼 보였다. 그리하여 불안과 공포의 무거운 짐에 자책의 짐이 또한 첨가되었다. 왜냐하면 그 위기는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초래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것이었다. 그의 유일한 방어책은 기도하는 길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 형에게 잘못을 갚고 또한 위협당하고 있는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기로서 해야 할 일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환난의 시기가 가까워 옴에 따라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을 올바른 위치에 놓고 편견을 제거하고 양심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험에서 피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가족들이 그의 고통을 목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그 장소에서 떠나보낸 후 야곱은 하나님께 탄원하기 위하여 홀로 남았다. 그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인정한다. 동시에 그는 매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과, 벧엘에서 이상 (異像) 을 보던 밤에, 또한 유랑하는 땅에서 그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한다. 그의 생애에 위기가 다가왔다. 모든 것이 위험에 처해 있다. 어둠과 외로움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 갑자기 어떤 손이 그의 어깨를 붙잡는다. 그는 그의 원수가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줄로 생각한다. 그는 죽을 힘을 다하여 그 공격자와 씨름을 한다. 날이 샐 무렵이 되자 그 낯선 사람은 초인간적인 힘을 발휘한다. 한 번 건드리자 힘이 강한 야곱은 마치 마비된 것처럼 되어 버린다. 그리하여 그는 넘어져버리고 속절없는 상태에서 정체불명의 그 적대자의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애원한다. 야곱은 방금 자기가 싸운 상대가 언약의 천사임을 이제 깨닫는다. 거의 모든 기력이 빠지고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는 그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의 죄 때문에 오랫동안 곤란과 자책과 고통을 참아왔다. 이제 그는 그것이 용서받았다는 확증을 얻어야 한다. 그 거룩한 방문자는 바야흐로 떠나갈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야곱은 그에게 매달려서 축복해 달라고 탄원한다. 그 천사는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고 강권한다. 그러나 그 족장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고 외친다. 얼마나 놀라운 확신과 굳센 의지와 인내력이 여기에 묘사되어 있는가! 그것이 만일 오만하고 참람된

요구였다면 야곱은 즉시 멸망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간구는 그가 자신의 약하고 무가치한 것을 고백하고 더욱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자임을 나타내는 증거였다.

그는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 (호 12:4) 었다. 겸비와 회개와 항복을 통하여 죄와 실수가 많은 이 사람은 하늘의 권위자로 더불어 씨름하여 이겼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떨리는 손으로 굳게 붙잡았다. 그러므로 무한하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의 간구를 물리칠 수 없으셨다. 그의 승리의 증거로서 또한 그의 본을 따르는 사람들을 권장하려 하는 표로서 그의 이름은 그의 죄를 회상케 하는 이름에서 승리를 기념하는 것으로 바뀌어졌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그가 사람에게도 이길 수 있다는 하나의 보증이었다. 그는 에서의 분노를 더 이상 두려움으로 맞이하지 않게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이었다.

사단은 천사들 앞에서 야곱을 비난하고 그가 그 자신의 죄 때문에 멸망받음이 당연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에서를 충동하여 야곱을 향하여 진군해 오게 하였다. 그리고 그 믿음의 족장이 기도로 밤을 새울 때 사단은 그에게 범죄한 것을 깨닫게 하여 그를 낙심케 하고 하나님을 붙든 손을 놓쳐버리게 하고자 노력하였다. 야곱은 거의 절망할 지경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그는 하늘의 도움이 없이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야곱은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자 탄원하였다. 그는 그의 목적을 돌이키지 않았다. 그는 천사를 굳게 붙들고 열렬하고 고민 어린 호소로 부르짖은 끝에 마침내 승리를 얻었다.

에서를 충동하여 야곱을 향하여 군대를 진군시킨 것과 똑같이 사단은 환난의 때에 악한 자들을 선동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자 할 것이다. 야곱을 비난했던 것과 똑같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하는 일에 진력할 것이다. 그는 세상을 그의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적은 무리는 그의 최상권을 거부하고 있다. 만일 그가 그들을 세상에서 제거해 버릴 수만 있으면 그의 승리는 완성될 것이다. 사단은 거룩한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며, 그들의 죄가 용서된 것도 짐작한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문제가 하늘 성소에서 결정된 것은 모른다. 사단은 그들을 유혹하여 범죄케 한 죄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므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과장하여 제시하고,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도록 제거된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제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의 죄는 용서해 주시면서 자기와 자기의 부하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불공평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단은 그들이 자기에게 사로잡힌 자들이라고 주장하고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어 멸망시킬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한 것에 대하여 사단이 비난함으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시험하도록 사단에게 허락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의 확신과 믿음과 견인불발의 정신은

격렬하게 시험을 받을 것이다. 과거를 회고할 때 그들의 희망은 사라진다. 왜냐하면 그들의 온 생애에서 선을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완전히 깨닫는다. 사단은 그들의 상태가 절망적이며 그들의 오점은 영원히 씻어 버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함으로 그들을 위협하고자 노력한다. 그는 그들의 믿음을 파괴시킴으로 그들이 그의 유혹에 굴복하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버리게 하고자 희망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죽이고자 열광하는 원수들에게 에워싸일지라도 그들이 겪는 고민은 진리를 위하여 당하는 핍박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 그들은 아직껏 모든 죄를 다 회개하지 못하지나 않았는가, 혹은 그들의 어떤 결점 때문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 (계 3:10) 라고 하신 구주의 약속을 성취시키지 못하지나 않을까 하고 두려워한다. 만일 그들이 용서를 받았다는 보증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들은 고문이나 죽음 앞에서도 위축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만일 무가치함이 입증되고 그들 자신의 품성의 결함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각처에서 반역의 음모에 관한 말을 듣고 또한 적극적인 반역 활동을 목격하게 된다. 그때 그들의 마음에는 그 큰 반역을 그치게 하고 악인들의 사악한 행위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열렬한 욕망, 곧 애타는 심정이 타오르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그 반역의 활동을 저지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한편 그들 자신에게는 악의 큰 물결을 저항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음을 깨닫고 몹시 큰 가책을 느끼게 된다. 만일 그들이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업에 그들의 능력을 남김없이 쏟아오고 계속적으로 힘 있게 전진했을 것 같으면 그 사단의 세력이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느끼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한다. 그리고 그들의 많은 죄를 이미 회개한 사실을 가리키면서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사 27:5) 고 하신 구주의 약속을 성취시켜달라고 애원한다. 그들은 그들의 기도가 즉시 응답받지 못할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 비록 극심한 불안과 공포와 고통으로 괴로움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간구하는 일을 그치지 않는다. 마치 야곱이 천사를 붙잡고 놓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놓지 않는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는 말이 그들의 심령에서 우러나온다.

만일 야곱이 속임수로 장자의 상속권을 빼앗은 죄를 사전에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 주심으로 그의 생명을 자비롭게 보호해 주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민과 공포로 괴로워할 동안 만일 아직 자복하지 아니한 죄가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되면 그들은 압도당하고 말 것이다. 절망이 그들의

믿음의 줄을 끊어 버리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도움을 애원할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무가치함을 깊이 느끼고 있는 동안 그들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고 숨겨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들의 죄는 이미 심판정에서 도말되었다. 그들은 그 죄들을 다시 생각해 낼 수 없다. 사단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에 나타나는 불성실을 간과해 버리실 것이라고 믿게끔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 대한 태도로써 당신은 절대로 죄악을 시인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다. 죄를 핑계하거나 숨김으로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 용서받지 않은 채 하늘의 기록에 남겨둔 모든 자는 사단에게 정복당할 것이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 크면 클수록, 그들의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의 안목에는 그들의 행위가 더욱 가증하게 보이고 그들의 큰 원수의 승리는 더욱 확실해진다. 하나님의 날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 하는 자들은 환난의 때에나 그 이후의 어떤 기간에 그 준비를 할 수 없다. 이러한 모든 자들의 경우는 희망이 없다.

아무런 준비 없이 최후의 쟁투를 맞이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절망 끝에 무서운 고민의 말로 그들의 죄를 자복할 것이다. 그 때에 악한 자들은 그들의 고통을 보고 기뻐 날뛸 것이다. 그런 고백들은 마치 에서와 유다의 고백과 같은 성질의 것들이다. 그런 자복을 하는 자들은 죄 자체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고 죄의 결과 때문에 슬퍼한다. 그들은 진정으로 뉘우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형벌이 무서워서 그들의 죄를 인정한다. 그러나 옛날 바로와 같이 그들은 형벌이 제거되면 다시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로 돌아갈 것이다.

야곱의 역사는 또한 속임을 당하고 시험을 받아 죄에 빠졌던 사람들이라도 진정한 회개로써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분께서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증해 준다. 사단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멸망시키고자 애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위급한 때에 그들을 위로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 주실 것이다. 사단의 공격은 격렬하고 단호하며 그의 속임수는 무섭다. 그러나 여호와의 눈은 당신의 백성을 주목하시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 그들의 고난은 크고, 풀무의 불꽃은 바야흐로 그들을 태워 버릴 것처럼 보일 것이다. 연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로 단련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시련의 기간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그들이 가장 순조롭고 번영하던 때에 주신 것과 똑같이 강하고 부드럽다. 그러나 그들을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반사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에게 있는 세속적인 것들이 불타 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고통의 시기는 우리에게 피로와 지연 (遲延) 과 주림에 견딜 수 있는 믿음, 곧 격렬하게 시련을 받을지라도 쇠약해지지 아니할 믿음이 필요하다. 그때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다. 야곱은 끈기 있고 확고하였기 때문에 승리하였다. 그의 승리는 줄기찬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임을 보여 주는 하나의 실증이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열렬하고 꾸준하게 나아가는 모든 사람은 그가 성공한 것처럼 성공할 것이다. 자아를 기꺼이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꾸준하고 열렬하게 기도하기를 원치 않는 자들은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는 것이 무엇임을 깨닫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적은가! 모든 힘이 다할 때까지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온 심령을 다 기울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얼마나 적은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의 물결이 간구하는 자들 위에 밀려올 때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자들이 어찌 그리 적은가!

오늘날 믿음을 조금밖에 활용하지 않는 자들은 사단의 기만적 권세와 양심을 억압하는 법령에 굴복될 위험이 가장 크다. 비록 그들이 그 시련을 견디어 낼지라도 그들은 환난의 때에 더욱 심한 난관과 고통 속에 빠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습관을 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이 등한히 한 믿음의 교훈을 무서운 절망 가운데서 배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주님의 약속을 실증함으로써 하나님과 친숙해져야 한다. 천사들은 열렬하고 진실한 모든 기도를 기록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누는 교통을 등한히 하기보다 차라리 이기적 만족을 버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극심한 빈궁과 가장 큰 극기는 그분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부귀와 명예와 안일과 우정보다 더 낫다.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세상일에 몰두당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허용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는 재산과 가옥과 비옥한 토지를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심으로써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을 주실지도 모른다.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수 없는 어떤 길에 발을 들여 놓기를 거절할 것 같으면 그들은 죄에 유혹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세상을 경고할 마지막 엄숙한 사명을 전달하는 사자들이 냉담하고 무관심하고 게으른 태도가 없이 열렬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것 같으면, 그들은 많은 곳에서 마치 야곱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창 32:30) 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으므로 왕자라는 하늘의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의 때가 곧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경험하고 있지 못한 경험 즉 사람들이 얻기를 너무도 게을리 하고 있는 한 가지 경험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로 당하는 환난이 가벼운 것이 상례이지만 우리 앞에 있는 위기는 그렇지 않다. 가장 자세하게 묘사하여도 그 시련의 크기를 여실하게 표현할 수 없다. 그 환난의 때에 각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겔 14:20).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고 계시는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여지고자 노력해야 한다. 우리 구주께서는 비록 생각으로라도 유혹의 힘에 굴복당하지 않으셨다. 사단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가 발을 붙일 어떤 곳이 있는지 찾는다. 그러던 중 어떤 죄된 욕망을 품게 되면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유혹의 힘을 발휘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요 14:30) 라고 친히 말씀하셨다.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사단이 이용할 수 있는 죄가 전혀 없었다. 그것은 환난의 때에 서게 될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상태이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죄와 분리되어야 한다. 우리의 귀하신 구주께서는 우리 자신을 당신께 연합시키도록 초청하시되 우리의 연약함을 당신의 능력에, 우리의 무지를 당신의 지혜에, 우리의 무가치함을 당신의 공로에 연합시키기를 간청하신다.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험들은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가르쳐 주는 학교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앞에 더욱 안이하고 즐거워 보이는 길, 곧 우리가 택하기를 좋아할 그런 길이 아니라 생애의 진정한 목적이 되는 길을 제시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품성을 그 거룩하신 모본을 따라 이루는 사업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리자들과 협력하는 일이 우리에게 부과되어 있다. 이 일을 게을리 하거나 지연시키는 자들은 누구나 그들의 영혼을 가장 무서운 위험에 빠뜨릴 수밖에 없다.

사도 요한은 계시 중에 하늘에서 큰 음성으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 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계 12:12) 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하늘의 음성으로 이와 같이 크게 부르짖는 장면은 얼마나 두려운가. 사단의 분노는 그의 시간이 단축되어 감에 따라 격렬해진다. 그리하여 그의 기만과 파괴 행위는 환난의 때에 그 절정에 이를 것이다. 미구에 하늘에는 이적을 행하는 마귀의 능력을 알려 주는 증거로서 초자연적인 무서운 광경이 나타날 것이다. 마귀의 영은 땅의 왕들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속임수로 그들을 얽어매어 하늘 정부를 대적하는 그의 마지막 투쟁에 사단과 연합하도록 그들을 강요할 것이다. 그 악한 영들로 말미암아 통치자들과 백성들은 다 같이 속을 것이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라고 자칭할 것이며 구주께 속한 칭호와 예배를 요구할 것이다. 그들은 병을 고치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성경의 증거와 반대되는 계시를 하늘로부터 받았노라고 공언할 것이다.

큰 기만적 연극의 주역으로서 사단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가장할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희망의 성취로 오랫동안 고대하고 있노라고 공언해 왔다. 이제 그 큰 기만자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신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사단은 세계 각처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계시록에 묘사한 바와 같이 실로 위엄 있고 광휘 찬란한 모습으로

자신을 사람들 앞에 나타낼 것이다. 그를 두르고 있는 영광은 사람이 일찍이 목격한 일이 없는 찬란한 광경이다 (계 1:13~15 참조).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부르짖는 승리의 함성이 공중에 울려 퍼진다. 사람들이 그 앞에 부복하여 그에게 경배한다. 그렇게 하는 동안 그는 손을 들어 마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당신의 제자들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축복할 것이다. 그의 음성은 부드럽고 온화하고 아름답다. 우아하고 동정어린 음조로 그는 일찍이 구주께서 말씀하신 은혜로운 하늘 진리 중 어떤 것들을 알려준다. 그는 사람들의 병을 고친다. 그런 다음에 그는 그리스도와 같은 특성으로 가장하여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가 축복한 그날을 거룩히 지키도록 명령한다. 그는 제칠일을 거룩히 지키기로 고집하는 자들은 빛과 진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보낸 그의 사자들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강력하고 거의 압도적인 기만이다. 마치 마술쟁이 시몬에게 속은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무리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권능이라” (행 8:10) 고 말함으로써 그 마술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기만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거짓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성경과 일치되지 않는다. 그의 축복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곧 성경이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가 쏟아지리라고 한 바로 그 부류의 사람들에게 선언된다. 그리고 더욱이 사단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광경을 모조하도록 허락되어 있지 않다. 구주께서는 이 점에 속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경고하시고 재림의 광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명히 예언하셨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 24:24~27). 이러한 재림은 위조할 수 없다. 온 우주가 그 사건을 알고 온 세계가 그 일을 목격할 것이다.

오직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만이 온 세계를 사로잡는 그 강력한 미혹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의 증언에 의하여 그들은 그 기만자의 변장을 알아내게 될 것이다. 그 시련의 때는 모든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시험의 체질로 말미암아 참 그리스도인이 나타날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정적 증거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가? 그들은 이와 같은 위기를 당하여 성경, 오직 성경만을 붙들고 놓지 않을 것인가?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그날에 설 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방해할 것이다. 그는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세상 재물에 얽히도록 일을 주선하고 그들이 무겁고 어려운 짐을 지게 함으로 이 세상 걱정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눌리게 하여 마치 도적과 같이 시련의 날이 그들에게 이르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교국의 여러 위정자들이 십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서 정부의 보호를 제거해 버리고 그들을 멸망시키려 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준다는 법령을 반포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시와 촌락을 떠나 가장 황량하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하여 함께 무리를 지어 거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은 산악들로 이루어진 요새에서 피난처를 찾을 것이다. 그들은 피에몽 골짜기에 숨어 있던 그리스도인들처럼 땅의 높은 곳을 성소로 삼고 "견고한 바위" (사 33:16) 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민족과 모든 계층의 사람들, 높은 자와 낮은 자, 부한 자와 가난한 자, 백색 인종과 유색 인종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극히 부당하고 잔인한 속박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은 괴로운 날을 보내고, 쇠사슬에 매이고 감옥에 갇히고,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중 더러는 어둡고 불결한 옥에 갇히어 기아로 거의 죽을 지경을 당할 것이다. 아무도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그들을 돕고자 즐거이 손을 뻗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시련의 때의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잊어버리실까? 그분께서는 홍수 전 세상을 심판하실 때 충성된 노아를 잊어버리셨던가? 그분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평원의 도시들을 태워 버리실 때 롯을 잊어버리셨던가? 그분께서는 애굽에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요셉을 잊으셨던가? 그분께서는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들의 운명과 같이 만들겠다고 엘리야를 위협하는 맹세를 했을 때 그를 잊어버리셨던가? 그분께서는 풀무불에 던져진 훌륭한 세 청년을 잊으시거나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잊으셨던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 (사 49:14~16) 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슥 2:8) 고 말씀하셨다.

비록 원수들이 그들을 옥에 가둔다 할지라도 감옥의 벽이 그들의 영혼과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차단시킬 수는 없다.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보시고 모든 시험을 잘 아시는 그분께서는 세속적인 모든 권세를 초월하신 분이시다. 천사들은 적막한 옥에 갇혀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하늘의 빛과 평화를 줄 것이다. 그 감옥은 마치 궁궐처럼 될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므로 마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밤중에 기도하고 찬미했을 때처럼 그 음산한 담벼락이 하늘빛으로 빛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벌이 당신의 백성들을 압박하고 죽이고자 하는 자들에게 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사람들이 범죄하는 데 대담해지게 한다. 그러나 오래 지체된다고 해서 분명하고 두려운 그 형벌이 결코 감해지는 것은 아니다.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드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리니 그 공이 기이할 것임이라" (사 28:21). 우리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형벌하는 일을 하시는 것은 비상한 일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겔 33:11). 여호와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 (출 34:6) 시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 (출 34:7) 으신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은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출 34:6, 7; 나 1:3). 의 가운데서 행하시는 무서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짓밟힌 율법의 권위를 옹호하실 것이다.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내릴 심한 형벌의 정도는 주님께서 공의를 집행하시기까지 오래 참으신 것으로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그분께서 헤아려 보시는 죄의 분량이 차기까지 형벌하지 않고 버려두시는 그 백성들은 마지막으로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중보 사업을 성소에서 마치실 때,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들에게 이미 경고한,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가 내릴 것이다 (계 14:9, 10 참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려 하셨을 때 애굽에 내린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지막 구원 직전에 이 세상에 내릴 더욱 무섭고 큰 규모의 형벌과 성질상 유사한 것이었다. 계시록의 기자는 그 무서운 재앙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악하고 독한 헌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강과 물 근원에 쏟으매 피가 되더라." 이러한 두려운 재앙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옹호할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계 16:2~6).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형을 언도함으로써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그 사람들의 피를 흘린 것과 똑같은 죄를 범한 것이다. 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아벨시대 이후로 모든 성도들의 피를 흘린 죄를 범하였다고 주장하셨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과 똑같은 정신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하고자 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계속하여 일어나는 재앙으로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계 16:8, 9). 이 무서운 시기에 있을 지상의 형편에 대하여 선지자들은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생축이 탄식하고 소떼가 민망해 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 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욜 1:10~12, 17~20; 암 8:3)

그 재앙들은 전 세계적인 것이 아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지상의 거민들은 완전히 전멸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람들에게 지금껏 알려진 것들 중 가장 무서운 재앙이 될 것이다. 은혜의 시기가 마치기 전에 사람들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에는 자비가 섞여 있었다. 그리스도의 중보의 피가 죄인이 범한 죄의 분량대로 재앙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에는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가 쏟아진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오랫동안 멸시해 온 하나님의 자비의 보호를 받고자 할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 (암 8:11, 12) 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박해와 고통을 당하고 궁핍과 고난을 견딜지라도 그들은 죽도록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자아를 희생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한 사람도 지나쳐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며, 기근의 때에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다. 악한 자들이 기근과 질병으로 죽어갈 동안 천사들은 의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줄 것이다. 의롭게 행하는 자들에게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이 있다.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사 33:15, 16, 41:17).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합 3:17)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합 3:17, 18)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시 121:5~7).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염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네게 보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 (시 91:3~10) 로다.

그러나 사람의 안목으로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보다 앞서 간 순교자들처럼 곧 그들의 피로써 그들의 증거를 인 쳐야 할 것같이 보일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가고 그들이 원수들의 수중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인지 두려워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무서운 고뇌의 시기이다. 그들은 밤낮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한다. 악한 자들은 기뻐 날뛰며 조롱한다. "이제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서 건져내지 않으시느냐?" 그러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조롱하며 외치던 말,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마 27:42) 고 하던 말을 기억한다. 야곱과 같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씨름을 계속한다. 그들의 얼굴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고민이 나타난다. 모든 사람의 얼굴은 창백해진다. 그러나 그들은 열렬한 간구를 그치지 않는다.

사람들이 만일 하늘의 사물을 볼 수 있다면 그들은 능력 있는 천사의 무리가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온 사람들을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천사들은 부드러운 동정심으로 그들의 고통을 바라보고 그들의 기도를 들었다. 그들은 사람들을 위험에서 구해 내라는 사령관의 명령이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쓴 잔을 마시고 피의 침례를 받아야 한다. 그들에게 그처럼 큰 고통의 요소가 되는 구원의 지연은 그들의 탄원에 대한 가장 좋은 응답이다. 그들이 주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진심으로 기다리고자 애를 쓰고 있는 동안 그들은 그들의 신앙 경험에서 그처럼 활용해 보지 못하였던 믿음과 소망과 인내를 활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환난의 때는 단축될 것이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눅 18:7, 8). 마지막은 사람들이 예기하는 것보다 속히 올 것이다. 곡식은 거두어져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기 위하여 묶여지고 가라지는 멸망의 불에 던져지기 위하여 단으로 묶이게 될 것이다.

그들의 임무에 충실한 하늘의 파수병들은 계속하여 깨어 있다. 비록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죽이고자 하는 시간을 정해 놓았을지라도 그들의 원수들은 경우에 따라 그 법령의 실행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그 결정된 날짜보다 미리 그들의 생명을 빼앗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 충성된 각 사람을 둘러 진치고 있는 강한 수호자들의 경계망을 깨뜨릴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도시와 촌락들에서 피해 가다가 공격을 받는다. 그러나 그들을 해하고자 높이 들려진 검 (劍) 은 마치 지푸라기처럼 무력하게 꺾여 힘없이 떨어진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전사 (戰士) 의 모양을 한 천사들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각 시대에 걸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천사들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셨다. 천사들은 사람들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그들은 번개와 같이 빛나는 옷을 입고 나타났는가 하면, 먼 길을 여행하는 행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천사들은 인간의 모양으로 경건한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도 했다. 그들은 마치 피곤한 것처럼 정오에 상수리나무 아래서 쉬기도 하였다. 그들은 사람의 집에 영접되어 대접을 받기도 하였다. 그들은 길 저문 행인들의 안내자도 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직접 제단의 불을 붙이기도 하였다. 그들은 감옥의 문을 열고 주님의 종들을 놓아 주기도 하였다. 그들은 하늘의 갑옷을 입고 구주의 무덤에서 돌을 굴려 내기 위하여 내려온 일도 있다.

사람들의 모양을 한 천사들은 때때로 의인들의 집회에 참석한다. 그리고 그들은 소돔 성에 가서 그 주민들의 행위를 기록하여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한계를 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했던 것처럼 악인들의 집회에도 방문한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기를 즐겨하신다. 그분께서는 또한 당신을 진심으로 섬기는 소수의 사람 때문에 재난을 억제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평안을 연장시켜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은 그들 자신의 생명이 그들이 조롱하고 핍박하는 충성된 소수의 사람들의 은혜로 지속된다는 사실을 거의 깨닫지 못하고 있다.

비록 이 세상의 위정자들이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들의 회의에 천사들이 대변자로 참가하는 일이 종종 있다. 사람의 눈으로 그들을 목격하고, 사람의 귀로 그들의 호소를 듣고, 사람의 입술로 그들의 제의를 반대하고, 그들의 권고를 조롱하고, 사람의 손으로 그들을 모욕하고 멸시해 왔다. 의회와 법정에 있어서 이 하늘의 사자들은 인류 역사를 잘 알고 있음을 보여 주고, 그들 자신이 압박을 받는 자들을 위하여 가장 유능하고 능변적인 옹호자 이상으로 호소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크게 지연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고통을 주게 될 그러한 목적들을 깨뜨리고 악을 제지시켜 왔다. 위협하고 고통스런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 (시 34:7) 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렬한 소원으로 그들의 왕께서 오시는 징조를 기다린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하고 묻자,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사 21:11, 12) 고 서슴지 않고 대답한다. 빛은 산봉우리 위에 뜬 구름에서 비치고 있다. 그분의 영광은 미구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바야흐로 의의 태양은 빛을 비추려 한다. 아침과 밤이 다 같이 가까워졌다. 의인들에게는 영원한 낮이 펼쳐지고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밤이 덮이려 한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씨름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사정을 호소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와 그들 사이를 가리고 있는 휘장은 거의 걷힐 것처럼 보인다. 모든 하늘은 영원한 날이 밝아오는 서광으로 빛나고, "너의 충절을 굳게 지켜라. 도움이 찾아온다"는 말이 마치 천사들의

노래의 음조처럼 귀에 들려온다. 전능하신 승리자 그리스도께서는 불멸의 영광의 면류관을 당신의 피곤한 군사들에게 내어 주시며, 반쯤 열린 문에서는 음성이 들려온다. "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의 모든 슬픔을 잘 알고 너희의 비애를 담당해 왔다. 너희는 아직 싸워 보지 못한 원수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미 너희를 위하여 이 싸움을 싸웠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이름으로 넉넉히 이긴다."

귀하신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 때에 도와주실 것이다. 하늘로 가는 길은 그분의 발자국으로 트여졌다. 우리의 발을 상하게 하는 모든 가시는 이미 그분의 발을 상하게 했다. 우리가 지도록 요구받은 모든 십자가는 우리보다 먼저 그분께서 지셨다. 주님께서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자 투쟁을 허락하신다. 환난의 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무서운 시련이다. 그러나 이 시기는 모든 참된 신자에게 있어서 위를 쳐다보고 믿음으로 자기를 둘러 있는 허락의 무지개를 보아야 할 때다.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원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여늘 나여늘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양식이 핍절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흉용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 (사 51:11~16) 으리라.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네 주 여호와 그 백성을 신원하시는 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걸음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너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곤고케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네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 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 가려는 그들 앞에 네가 네 허리를 펴서 땅 같게, 거리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사 51:21~23).

각 시대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지상의 권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자 할 때 그들이 당해야 하는 위기를 주목해 보셨다. 그들은 마치 사로잡혀 정배당한 자들처럼 주림과 학대로 죽음의 공포에 떨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홍해를 갈라놓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강한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들을 사로잡힘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 (말 3:17) 라. 만일 이 때에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들이 피를 흘릴지라도 그 피는 하나님의 추수를 위하여 종자로 뿌려진 순교자들의 피와 같지 아니할 것이다. 이 때 그들의 충성은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는 증거가 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완고한 사람들의 마음은 자비의 물결이 다시 되돌아올 수 없도록 그것을 물리쳐 버렸기 때문이다. 만일 의인들이 그들의 원수에게 희생 제물이 되도록 버려진다면 그것은 암흑의 왕의 승리가 될 것이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 (시 27:5) 신다고 말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간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사 26:20, 21) 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재림을 꾸준하게 기다려온 사람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구원은 영광스러울 것이다.

40 장 — 위대한 구출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법률상 보호가 제거되면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운동이 일제히 일어날 것이다. 법령으로 정해진 기간이 가까워 오면 사람들은 그 미운 종교 단체를 근절하고자 공모할 것이다. 그리하여 하룻밤 사이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해서 반대와 책망의 소리를 완전히 침묵시켜버리고자 결정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옥중에서, 혹은 산림과 산중의 적막한 곳에 숨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를 탄원한다. 그러는 동안 각처에는 무장한 사람들의 단체들이 악한 천사의 무리들에게 충동되어 살해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 일어나실 때는 바로 위기일발의 순간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와 같이 노래할 것이며 저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 팔의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 (사 3:29, 30) 라.

승리와 조소와 저주의 함성을 지르면서 악인들의 무리가 그들의 노획물에게 달려들려 할 때 밤의 어둠보다 더욱 짙은 암흑이 온 땅을 덮는다. 그때 무지개가 나타나 하나님의 보좌에서 비치는 영광으로 빛나며, 모든 하늘로 뻗치어 마치 기도하고 있는 무리를 둘러 주는 것처럼 보인다. 분노에 날뛰던 무리들은 갑자기 멈칫해진다. 조롱하던 그들의 부르짖음은 사라진다. 그들은 살기등등한 분노의 동기를 잊어버린다. 그들은 무서운 예감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을 주목해 보고 압도적으로 찬란한 빛에서 피하려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를 쳐다보라"는 분명하고 음악적인 소리를 듣는다. 그들이 눈을 하늘로 돌리자 그들은 약속의 무지개를 보게 된다. 하늘을 덮고 있는 어둡고 험악한 구름이 흩어질 때 그들은 스데반처럼 하늘을 응시하게 된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가 당신의 보좌에 앉아 계신 광경을 보게 된다. 그들은 그분의 거룩한 모습에서 그분의 겸비의 표를 찾아낸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요 17:24) 고 간구하시는 음성이 그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듣는다. 다시 그들은 다음과 같은 음악적인 승리의 음성을 듣는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순결한 자들이여 나오라. 그들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므로 천사들과 함께 다닐 것이다." 그 때 믿음을 굳게 지켜온 사람들의 창백하고 떨리는 입술에서 승리의 함성이 터져 나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능력을 나타내시는 때는 한밤중이다. 갑자기 태양이 나타나서 혁혁히 빛나고, 징조와 기사들이 신속하게 잇달아 일어난다. 의인들은 그것들이 그들의 구원의 표징임을 깨닫고 엄숙한 환희로 바라보지만 악한 자들은 그 광경을

공포와 경악으로 바라본다. 천연계의 만물은 정상 궤도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인다. 시냇물은 흐르기를 멈춘다. 검고 짙은 구름이 솟아올라 서로 충돌한다. 하늘의 험악한 광경 가운데서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이 나타나는 한 공간이 나타난다. 거기서 "되었다" (계 16:17) 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그 음성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 큰 지진이 일어난다. "사람이 땅에 있어 옴으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계 16:18). 하늘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같이 보인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영광이 사방으로 퍼져가는 것처럼 보인다. 산들은 마치 바람에 불리는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거친 바위들이 사방으로 흩어진다. 큰 폭풍우가 몰려오는 것과 같은 소리가 난다. 바다에서는 사나운 물결이 서로 부딪친다. 마치 파괴 행위를 하는 악마의 소리 같은 태풍의 무서운 소리가 들린다. 온 지구는 바다의 물결처럼 아래위로 요동하며 그 표면은 파괴된다. 땅의 기초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 같다. 산맥들은 가라앉고, 사람들이 거하는 섬들은 자취 없이 사라진다. 죄악으로 소돔과 같이 되어 버린 항구들은 사나운 파도에 휩쓸려 간다.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 (계 16:19, 21) 는다. 한 덩어리가 백근쯤 되는 큰 우박이 쏟아져 파괴하는 일을 하게 된다. 지상의 오만한 도시들은 낮아진다. 세상의 큰 인물들이 그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들의 재산을 허비하여 건축한 호화로운 건물들이 그들의 목전에서 무너져 내린다. 감옥의 벽들은 무너지고 믿음 때문에 속박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방된다.

무덤은 열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 (단 12:2) 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그를 찌른 자" (계 1:7) 들,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을 조소하고 조롱한 자들,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분의 백성들을 몹시 핍박한 자들도 또한 일어나서 영광중에 계신 그분을 쳐다보고 충성되고 온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보게 된다.

짙은 구름은 여전히 하늘을 덮고 있다. 그러나 태양은 때때로 구름을 뚫고 마치 원한에 찬 여호와의 눈처럼 나타난다. 무서운 섬광이 하늘에서 흘러나와 불꽃으로 된 보 (褓) 처럼 지구를 둘러싼다. 무서운 우레 소리를 뚫고 신비하고 두려운 음성으로 악인들의 운명이 선고된다. 그 말이 모든 사람에게 이해되는 것은 아니지마는 거짓 교사들은 분명히 이해하게 된다. 조금 전까지도 그처럼 무모하고 교만하고 도전적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잔인하게 함으로써 의기양양하던 자들은 이제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고 떨며 무서워한다. 그들이 통곡하는 소리는 사방에서 나는 소리들을 제압하고 들려온다. 마귀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고 그분의 권능 앞에서 떤다. 그 때에 사람들은 자비를 탄원하고 공포에 사로잡혀 부복한다.

옛날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날에 대한 거룩한 계시를 보고 말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로다" (사 13:6). "바위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자와 거만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쥐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사 2:10~12, 20, 21).

주위의 암흑에 비하여 4 배나 밝은 별빛이 구름 사이에서 비친다. 그것은 충성된 자들에게는 희망과 기쁨을 말해 주지마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는 쓰라림과 진노를 알려 준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들은 이제 안전하게 되어 여호와의 은밀한 장막에 숨은 것과 같다. 그들은 벌써 시험을 받고 세상과 진리를 멸시하는 자들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을 입증하였다. 바로 죽음을 앞에 두고 충성을 굳게 지킨 자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 그들은 악마로 변한 사람들의 어둡고 무서운 포학에서 갑자기 구원을 받았다. 조금 전까지 창백하고 불안하고 말라빠져 있던 그들의 얼굴은 이제 경이와 믿음과 사랑으로 빛난다. 그들은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시 46:1~3).

이 거룩한 신뢰의 말씀이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 구름은 흩어지고 별빛이 찬란한 하늘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좌우편에 있는 어둡고 험악한 하늘에 비하여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럽다. 하늘 도성의 영광이 그 열린 문에서 흘러나온다. 그 때에 공중에는 접쳐진 두 돌비를 쥔 손이 나타난다. 선지자는 말한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시 50:6). 시내산에서 불꽃과 우레 가운데 생애의 지도 원리로 선포된 거룩한 율법, 곧 하나님의 의는 이제 심판의 표준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그 손이 돌비를 펴자 불과 같은 글자로 기록된 십계명이 나타난다. 그 어구들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다. 사람의 기억력은 일깨워지고, 각 사람의 마음에서 미신과 이단의 암흑은 사라진다. 간단하면서도 포괄적이며 권위 있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이 땅의 모든 거민들에게 볼 수 있게 제시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유린한 자들의 공포와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 회개하고 개선할 기회가 있는 동안 그들의 품성을 율법에 비추어 보고 그들의 결점을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호감을 사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들까지 율법을 범하도록

가르쳤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히도록 강요해 왔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들이 멸시해 온 그 율법으로 정죄를 받는다. 그들은 아무런 변명할 것이 없음을 너무도 분명히 깨닫는다. 그들은 그들이 경배하고 섬길 대상을 이미 택하였다. "그 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말 3:18).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하던 자들은 목사들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진리와 의무에 대하여 새로운 견해를 가진다. 그들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이 됨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 그들은 거짓 안식일의 참 성질과, 그들이 건축해온 모래로 된 기초를 너무 늦게 깨닫는다.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워온 사실을 발견한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천국의 문으로 인도하고 있노라고 공언하면서도 영혼들을 멸망으로 인도해 왔다. 성직에 있는 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대하며 그들의 불성실의 실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마지막 심판날에 가서야 비로소 알려질 것이다. 우리는 오직 천국에 가서야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임을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악한 종아 나를 떠나가라는 선고를 받는 자의 운명은 두려운 것이 될 것이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짜와 시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주어진다. 가장 큰 뇌성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온 땅에 들린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서 그들의 눈을 위를 향하여 주목하고 귀를 기울인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지고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때와 같이 빛난다. 악인들은 그들을 쳐다볼 수 없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존경해 온 사람들에게 축복이 선고될 때 큰 승리의 함성이 일어난다.

곧 사람의 손바닥 반만한 작고 검은 구름이 동쪽에서 나타난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는 구름인데 멀리서는 어둠에 둘러싸인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인자의 징조임을 깨닫는다. 그들은 엄숙한 침묵 속에서 그 구름이 땅으로 점점 가까워짐을 주목한다. 그 구름은 점점 밝아지고 영광스럽게 되어 마침내 커다란 흰 구름이 되는데, 그 아래는 타는 불과 같이 광명한 빛이 있고 그 위에는 언약의 무지개가 있다. 예수께서는 강한 정복자처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분은 이제 수치와 저주의 쓴 잔을 마시기 위하여 "간고를 많이 겪"는 분으로서가 아니라 산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늘과 땅의 승리자로 오신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그를 따르더라" (계 19:11, 14). 거룩한 천사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늘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의 길에 수행한다. 하늘은 찬란한 천천만만의 천사들로 충만해진 것 같다. 그 광경은 사람의 붓으로 묘사할 수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그 찬란한 모습을 가히 상상할 수 없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 (합 3:3, 4) 도다. 그 살아 있는 구름이 점점 가까이 옴에 따라 각 사람의 눈은 생명의 왕을 보게 된다. 이제 그 거룩한 머리는

가시관으로 상해 있지 않고 찬란한 면류관이 씌어져 있다. 그분의 얼굴은 정오의 태양보다 더욱 찬란하게 빛난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계 19:16).

그분 앞에서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 (렘 30:6) 이며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실망의 공포가 덮인다.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치며...모든 낯이 빛을 잃" (나 2:10) 는다. 의인들은 떨면서 "누가 능히 서리요" 하고 부르짖는다. 천사들의 노래는 그치고 무서운 침묵의 시간이 흐른다. 그 후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다. 의인들의 얼굴은 빛나고 각 사람의 마음은 즐거움으로 충만해진다. 천사들은 땅으로 접근해옴에 따라 더욱 높은 음조를 내며 다시 노래를 부른다. 만왕의 왕께서는 불꽃에 싸여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 주님 앞에서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함께 말리고 땅은 진동한다. 그리고 모든 산과 섬들은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 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 (시 50:3, 4) 시도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계 6:15~17).

경멸적인 조롱은 그친다. 거짓 입술은 침묵에 빠진다. "군인의 갑옷과 피묻은 복장" (사 9:5) 이 따르는 무력 충돌과 전쟁의 소동은 그친다. 이제는 기도의 음성과 통곡과 슬픔의 소리 외에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조금 전까지 조롱하던 사람들의 입술에서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부르짖음이 터져 나온다. 악한 자들은 그들이 멸시하고 거절해 온 주님의 얼굴을 보기보다 차라리 산의 바위들 아래 묻혀지기를 바란다.

죽은 자의 귀를 꿰뚫어 듣게 하시는 그의 음성을 그들은 안다. 얼마나 자주 그 애소하는 듯한 부드러운 음성이 그들에게 회개를 호소하였던가! 얼마나 친구와 형제와 구주로서의 감동적 애원을 그들이 들었던가! 주님의 은혜를 거절한 자들에게 참으로 오랫동안 가장 큰 정죄의 느낌을 주어 오고 자책감을 갖게 했던 음성은 너무나 오랫동안 탄원해 왔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겔 33:11). 아, 그 음성은 차라리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의 음성이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 (잠 1:24, 25) 다. 그 음성은 그들이 잊어버리고자 애를 썼던 기억들, 곧 그들이 멸시한 경고, 거절한 초청, 경멸한 특권들에 대한 기억을 다시 일으켜 준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그분을 조롱한 자들이

있다. 대제사장이 맹세하면서 대답을 요구했을 때 주님께서 엄숙하게,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마 26:64) 고 선언하신 고난의 주님의 말씀이 감동적인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찌른다. 이제 그들은 영광 중에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권능의 우편에 앉으신 것을 본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신 말씀을 조롱한 자들도 이제는 말이 없다. 거기에는 왕이라는 주님의 칭호를 조롱함으로 군인들에게 명령하여 주님께 왕으로 관을 씌우게 한 교만한 헤롯도 있다. 불경건한 손으로 주님께 자색 옷을 입히고, 주님의 거룩한 이마에 가시관을 씌우고 저항하지 않는 손에 가짜 홀을 들리고, 참람된 조롱으로 그분 앞에서 절을 한 바로 그 사람들도 있다. 생명의 왕을 때리고 침을 뱉던 자들이 이제는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피하고, 주님께서 임하시므로 나타나는 저항할 수 없는 영광에서 숨고자 애를 쓴다.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은 자들과 주님의 옆구리를 찌른 군인도 두려움과 후회로 그 상처의 흔적을 바라본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갈바리의 사건을 놀라울 정도로 환하게 회상한다. 그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악마적 기쁨에 사로잡혀 부르짖던 일을 공포감에 사로잡힌 채 기억한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마 27:42, 43). 그들은 구주께서 말씀하신 비유, 곧 포도원의 수확을 주인에게 바치기를 거절하고 그의 종들을 때리고 주인의 아들을 죽인 농부의 비유를 생생하게 회상한다. 그들은 또한 그들 자신에게 선고된 말씀을 기억한다. 포도원의 주인은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 불성실한 자들의 죄와 그들이 받을 형벌에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 자신이 취한 행동과 바로 그들의 운명 자체를 본다. 이제는 인간적 고민의 절규가 나타난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예루살렘 거리에 울려 퍼졌던 것보다도 한층 더 큰 소리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진실로 메시야다!” 하는 두려운 실망의 통곡이 일어난다. 그들은 만왕의 왕 앞에서 피하고자 노력한다. 그들은 천연계의 이변으로 생긴 깊은 동굴 속에 그들의 몸을 숨기고자 헛된 노력을 한다.

진리를 거절한 모든 자들의 생애에는 양심이 각성되고, 위선적 생활에 대한 괴로운 추억이 되살아나서 심령이 헛된 후회로 괴로움을 당하는 순간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고 “재앙이 폭풍같이” (잠 1:27) 이르는 날에 하는 후회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을 죽이려던 자들은 그 사람들 위에 있는 영광을 본다. 그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그들은 성도들이 기쁜 소리로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사 25:9) 고 부르짖는 음성을 듣는다.

땅이 흔들리고 번개가 번쩍이고 우레 소리가 요란한 중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자는 성도들을 불러일으킨다. 주님께서는 의인들의 무덤을 보시고 당신의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드시고,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여, 일어나라!"고 외치신다. 이 땅의 어느 곳에서나 죽은 자들이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이때에 온 세상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중에서 부활한 큰 무리로 소음 (騷音) 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은 사망의 감옥에서 나와 불멸의 영광을 입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전 15:55) 고 외친다. 그리고 산 의인들과 부활한 성도들은 음성을 합하여 오랫동안 승리의 즐거운 함성을 올릴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무덤으로 들어갈 때와 똑같은 키로 나온다. 부활한 무리 가운데 선 아담은 키가 크고 위엄 있는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보다는 조금 키가 작다. 아담과 그 후세의 백성들을 비교해 보면 현저한 차이가 나타난다. 그 한 가지 점으로도 인류가 크게 퇴화 (退化) 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영원한 활력과 원기를 소유하고 부활한다. 사람은 태초에 품성뿐만 아니라 용모와 자세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시키고 거의 지워 버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셨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주님의 영광스런 몸과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한 때 죄로 더러워져서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이 되었던 썩을 몸이 완전하고, 아름답고,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한다. 모든 흠과 결함은 무덤 속에 버려진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에덴의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은 회복되고 구속받은 자들은 처음 영광중에 있을 당시의 인류의 완전한 키만큼 "자라난다" (말 4:2 흠정역 영어 성경).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저주받은 죄의 흔적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충성된 백성들은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정신과 육체에 주님의 완전한 형상을 반사할 것이다. 아,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가! 그것은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고대하고, 열렬한 기대로 생각해 오던 것이었지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이었다.

살아남은 의인들은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였다. 그들은 이제 죽지 않을 몸으로 바뀌어져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천사들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어린아이들은 천사들에 의하여 어머니들의 팔에 안긴다. 사망으로 오랫동안 헤어졌던 친구들이 다시 만나 다시는 헤어지지 않게 되며 그들은 함께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올라간다.

구름수레의 양쪽에는 날개가 있고, 그 아래는 산 바퀴가 있다. 수레가 위를 향하여 굴러갈 때마다 바퀴는 "거룩하다"고 소리를 낸다. 날개 역시 움직일 때마다 "거룩하다"고 부르짖는다. 수행하는 천사들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고

부르짖는다. 그리고 수레가 점점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할렐루야!"라고 외친다.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기 전에 구주께서는 당신을 따른 자들에게 승리의 휘장을 주시고 왕족으로서의 신분의 표를 주신다. 그 광휘 찬란한 행렬은 그들의 왕 주위에 둥그렇게 둘러선다. 주님은 모든 성도와 천사들보다 더욱 위엄이 있고 큰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분의 얼굴에서 흘러나오는 빛은 온화한 사랑으로 넘친다. 구원받은 셀 수 없이 큰 무리들은 모두 주님을 주목하고 일찍이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던 주님의 영광을 쳐다본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오른손으로 승리자들의 머리에 영광의 관을 씌워주신다. 각 사람에게 관이 주어지는데, 거기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모든 사람의 손에는 승리의 종려가지와 빛나는 거문고가 쥐어진다. 그리하여 지휘하는 천사가 음을 맞추자 모든 손은 훌륭하게 거문고를 켜게 되고, 아름답고 풍부한 음조가 흘러나오게 된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감격에 사로잡혀 모두 감사의 찬미를 부른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계 1:5, 6).

속량 받은 무리들 앞에는 거룩한 성이 나타난다. 예수께서는 진주문을 넓게 여시고 진리를 지킨 백성들을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신다.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낙원, 곧 아담이 순결했던 시절의 본향을 본다. 그때 그들은 사람의 귀로 일찍이 들어본 어떤 음악보다 더욱 훌륭한 음성을 듣는다. "너희 싸움은 끝났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구주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드린 기도가 이제 성취된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피로 속량한 자들을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유 24) 아버지에게 보여 주시면서 말씀하신다. "여기에 내가 있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도 있습니다." "내게 주신 저희를 보전하와 지키었나이다." 아, 얼마나 놀라운 속죄의 사랑인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속량 받은 자들을 쳐다보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형상이 반영되어 있는 것과 죄의 흔적과 암영 (暗影) 이 제거되어 인류가 다시 하나님과 조화된 것을 보실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쁜 순간이 된다!

예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당신께 충성한 자들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환영하신다. 구주의 즐거움은 당신의 고통과 굴욕으로 구원한 영혼들을 영광의 나라에서 보는 것이다. 또한 구속받은 자들도 그들의 기도와 수고와 희생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인도한 자들을 그 축복받은 무리 중에서 보게 될 때, 주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들이 크고 흰 보좌 주위에 모일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의 마음을 채우게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은 그 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인도한 자들을 보게 되고, 그 인도를 받은 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 다른 사람들이 또한 다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여 그들이 모두 안식의 하늘에

들어오게 된 것을 보게 되어, 그들은 주님의 발아래 그들의 면류관을 던지고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게 된다. 구속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으로 영접될 때, 존경의 마음으로 기쁘게 외치는 소리가 공중에 충만해진다. 두 아담은 바야흐로 서로 만나려 한다. 하나님의 아들은 팔을 벌리고 서서 인류의 시조, 곧 주님께서 창조하신 자이며 창조주께 범죄하고, 그의 죄 때문에 주님의 몸에 십자가의 못자국을 남기게 한 그 시조를 안으려 하신다. 잔인한 못자국을 식별하고 아담은 주님의 품에 안기려 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발아래 그 자신을 던지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고 부르짖는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친절하게 그를 안아 일으키시고 그가 오랫동안 쫓겨나 있던 에덴의 본향을 다시 한 번 보라고 명령하신다. 에덴에서 쫓겨난 후로 아담의 생애는 슬픔으로 충만했었다. 시들어가는 모든 나뭇잎, 모든 희생 제물, 아름다운 천연계에 덮이는 모든 암영, 인류의 순결에 나타나는 모든 오점 등은 자기의 죄를 생생하게 기억나게 하는 것들이었다. 그가 죄악이 충만해 가는 것을 바라볼 때 받은 가책 때문에 당한 번민은 무서운 것이었다. 그가 죄를 경고하면 그는 도리어 죄를 끌어들인 당사자라는 비난을 받았다. 거의 1 천년 동안 그는 꾸준한 겸손으로 죄의 형벌을 받았다. 그는 충심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허락하신 구주의 공로를 의지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인류의 실패와 타락을 구속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속죄의 사업을 통하여 아담은 최초의 통치권을 회복한 것이다.

아담은 기쁨으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일찍이 자기의 기쁨이 되었던 여러 가지 나무들, 곧 그가 무죄하고 즐거웠던 시절에 손수 그 과실들을 딴 나무들을 주목해 본다. 그는 자기 손으로 전정한 포도나무들과 한 때 사랑하여 재배하던 화초들을 본다. 아담은 그것이 분명히 옛날 것과 같은 것임을 깨닫고, 정말로 회복된 에덴임을 알게 되며, 자기가 쫓겨날 때보다 그것이 더욱 아름답게 된 것을 보게 된다. 구주께서는 그를 생명나무로 인도하여 빛나는 그 열매를 따서 아담에게 먹으라고 하신다. 그는 자기 주위를 둘러보고 하나님의 낙원에 서 있는 구속받은 그의 가족의 큰 무리를 본다. 그때 그는 그 찬란한 면류관을 벗어 예수님의 발 앞에 던지고, 그분의 가슴에 몸을 던져 구주를 포옹한다. 그는 황금 거문고를 탄다. 그러자 승리의 노래가 하늘 공간에 울려 퍼진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담의 가족은 주님께 경배할 때 노래를 부르며 구주의 발 앞에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 던진다.

아담의 타락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 기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무덤을 열어 준 천사들은 이 재회 (再會) 를 목격한다. 이제 그들은 구속 사업의 성취를 보고, 소리를 합하여 찬양의 노래를 부른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의 무리가 보좌 앞에 있는 수정같이 맑은 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바닷가에 모인다. 땅에서 구속받은 십사만 사천 명은 하나님의 거문고를 손에 들고 어린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다.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거문고 타는 자들의 그 거문고 타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그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 노래는 십사만 사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이다. 그것은 모세와 어린양의 노래, 곧 구원의 노래이다. 그 노래는 십사만 사천 명 외에 아무도 부를 수 없는 노래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체험의 노래, 곧 다른 어떤 사람도 체험하지 못한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살아 있는 자들 가운데서 땅으로부터 끌어올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속한 자들" (계 15:2, 3, 14:1~5) 이다. 또한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들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의 시기를 지내고, 야곱의 환난을 견디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마지막으로 내릴 때 중보자 없이 선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으므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다. 그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이 기근과 질병으로 황폐해지고, 태양이 심한 열로 사람들을 태우는 광경을 목격하고, 그들 스스로도 고통과 기갈을 당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 (계 14:5, 7:14~17).

각 시대를 통하여 구주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시련의 학교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아 왔다. 그들은 세상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 고난의 풀무에서 정결함을 받았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반대와 증오와 중상을 견디었다. 그들은 괴로운 투쟁을 통하여 주님을 따르고, 극기하고, 실망의 쓴맛을 보았다. 그들은 그들 자신들의 괴로운 경험을 통하여 죄의 사악함, 그 능력, 그 해독, 그 참상을 깨닫고, 죄를 미워하게 된다. 무한한 희생으로 죄에서 치료받게 되고 그들이 겸손해진 것을 깨닫고 그들의 마음은 타락한 일이 결코 없는 다른 세계의 거민들이 맛볼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충만해진다. 그들은 용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욱 많이 사랑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였으므로 주님과 함께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기에 합당하다.

하나님의 후사들은 다락방, 오막살이, 감옥, 단두대, 산, 사막, 지하 동굴, 해저 동굴 등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들은 땅에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 를 받은 자들이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단의 기만적 요구를 강경히 거절함으로 누명을 쓰고 무덤으로 내려갔다. 그들은 인간 법정에서 가장 극악한 죄인으로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그는 심판장" (시 50:6) 이 되신다. 이제 세상의 판결이 뒤집혀진다. "여호와께서…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사 25:8).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리라.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 (사 62:12, 61:3) 게 하신다. 그들은 더 이상 허약한 자, 고통받는 자, 흩어진 자, 압박받는 자들이 아니다. 이제부터 그들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땅 위에서 가장 영광스런 사람이 일찍이 입어본 어떤 의복보다도 더욱 귀한 옷을 입고 보좌 앞에 선다. 그들은 지상의 왕들이 지금껏 써 본 어떤 왕관보다 더욱 영광스런 면류관을 쓴다. 고통과 애곡의 날은 영원히 끝났다. 영광의 왕께서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모든 슬픔의 원인을 제거하셨다. 그들은 종려가지를 흔들며 명랑하고 아름답고 조화로운 찬양의 노래를 부른다. 그들은 모두 소리를 합하여 천지가 흔들릴 만큼 노래를 부른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있도다.” 그러자 온 하늘의 거민들은 다음과 같은 찬송으로 화답한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계 7:10, 12).

우리는 이 세상에서 놀라운 속죄 문제를 깨닫기 시작할 뿐이다. 우리는 우리의 유한한 이해력으로 치욕과 영광, 생명과 죽음, 십자가에서 만난 공의와 자비를 매우 열렬하게 숙고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지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지라도 우리는 그 의미를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 구속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 깊이와 높이는 다만 어렴풋하게 이해될 뿐이다. 구속의 경륜은 비록 구속받은 자들이 주께서 그들을 보시는 대로 보고, 아시는 대로 알게 될 때도 완전히 이해될 수 없다. 그러나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새로운 진리가 경이와 희열에 넘치는 마음속에 전개될 것이다. 비록 땅 위의 슬픔과 고통과 시련이 그치고 그 원인이 제거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지불된 대가를 언제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토록 구속받은 자들의 연구와 찬양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들은 영광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광대한 우주의 무수한 세계들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그분, 그룹과 영광의 스랍들이 즐겨 경배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왕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자신을 낮추시고 죄의 치욕과 슬픔을 지시고 아버지의 얼굴에서 숨겨진 채 마침내 잃어버린 세상의 죄 때문에 갈바리의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심장이 터지고 생명이 떠나간 사실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온 우주의 창조자시며 모든 운명의 결정자께서 인류를 위한 사랑 때문에 당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스스로를 낮추셨다는 것은 영원히 우주의 경이와 존경을 자아낼 것이다. 구원을 받은 모든 민족들이 그들의 구주를 쳐다보고 그분의 얼굴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빛나고 있는 것을 볼 때, 또한 그들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속하는 그분의 보좌를 보고, 그분의 나라가 끝이 없을 것을 알게 될 때 그들은 환희에 사로잡혀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를 그 귀하신

보혈로 하나님께 구속하시고자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십자가의 오묘는 모든 다른 오묘들을 설명해 준다. 우리를 두려움과 경이감으로 충만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속성은 갈바리에서 흘러나오는 빛을 통하여 아름답고 매력 있게 나타난다. 성결과 공의와 권능이 자비와 온유와 부모와 같은 사랑에 혼합되어 나타난다. 우리는 높고, 또한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의 위엄을 볼 때, 은혜롭게 나타난 그분의 품성을 보고, “우리 아버지”라는 사랑스런 그 칭호의 진정한 의미를 이전 어느 때보다 새롭게 이해하게 된다. 우리는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는 길 외에 다른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 희생의 결과로 이 세상이 거룩하고, 행복하고, 죽지 아니할 구원받은 백성들로 채워지는 기쁨이 생겼다. 구주께서 암흑의 권세로 더불어 싸우신 결과는 구속받은 자들에게 기쁨이 되고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영혼의 가치가 참으로 크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불된 대가를 만족히 여기신다.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도 당신의 위대한 희생의 결과를 보시고 만족히 여기신다.

41 장 — 지상의 황폐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 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 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계 18:5~10).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한 "땅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계 18:3, 11, 15~17).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날에 바벨론이 당할 형벌이 이와 같다. 바벨론은 그 죄의 분량을 다 채웠다. 그의 때가 이르렀고, 멸망의 시기는 무르익어 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힘에서 돌이키실 때 인생의 큰 싸움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들은 무서운 각성을 할 것이다. 은혜의 시기가 계속되는 동안, 그들은 사단의 속임수에 눈이 멀었으며, 그들은 죄악의 길을 정당화했다. 부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대하여 그들의 우월성을 자랑했다. 그러나 그들의 부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써 얻은 것이었다. 그들은 주린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고,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기를 등한히 했다. 그들은 스스로를 높이고 동료 인간들의 존경을 얻고자 노력했다. 이제 그들은 그들을 위대하게 해주었던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궁핍해지고 아무런 방비 없이 버려진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우상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무서워 떤다. 그들은 세상의 부와 향락을 얻기 위하여 그들의 영혼을 팔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하게 되고자 노력하지 않았다. 그 결과로 그들의 일생은 실패로 돌아가고 그들의 향락은 이제 쓴 것으로 바뀌고 그들의 재물은 썩어 버렸다. 일생 동안에 얻은 것이 잠깐 동안에 사라진다. 부한 자들은 그들의 거대한 저택이 파괴되고 금과 은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통곡한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우상들과 함께 멸망하여야 한다는 두려움으로 그들의 통곡은 침묵으로 바뀐다.

악한 자들은 매우 통분해 한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그들의 동료 인간들에 대한 의무를 등한히 하고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현실적인 결과를 한탄하는 것이며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그들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들은 그 일을 위하여 수단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조롱하고 모욕하고 멸망시키고자 희망했던 자들이 질병과 폭풍과 지진에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세상은 보게 된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사르는 불이 되시는 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하여 진리를 저버린 목사는 그의 교훈의 성격과 영향을 이제 분별하게 된다. 그가 강단에 섰을 때, 거리로 걸어갈 때, 여러 가지 생애의 장면에서 사람들과 교제할 때, 전지 (全知) 하신 분의 눈이 언제나 그를 떠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심령의 모든 상태, 기록된 모든 문자, 표현한 모든 말, 사람들을 거짓된 피난처에 쉬게 한 모든 행동 등은 이미 씨를 뿌렸다. 이제 그의 주위에 있는 불행하고 잃어버린 바 된 영혼을 통하여 그는 수확을 바라본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 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렘 8:11).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 (겔 13:22) 도다.

“내 목장의 양 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재에 굴라 이는 너희 도륙을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피할 수 없으리로다” (렘 23:1, 2, 25:34, 35). 목사들과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지 못한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공평하고 의로운 율법의 제정자이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해 온 것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훈계를 버렸기 때문에 수많은 죄악과 불화와 증오와 불법의 샘이 열려 마침내 이 세상은 넓은 전쟁터와 부패의 시궁창이 되어 버렸다. 진리를 거절하고 오류를 고수하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이 사실은 분명하게 나타난다. 불순종하고 불충한 자들이 영원히 잃어버린 영생을 찾고자 하는 갈망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세상에서 재능과 능변 때문에 숭배를 받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것들의 진상을 깨닫는다. 그들은 범죄로 인하여 모든 것을 상실한 것을 깨닫는다. 그리하여 그들은 지금까지 모멸해 온 충성된 성도들의 발 아래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한다.

사람들은 그들이 지금껏 속아온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피차간에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하였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연합하여 목사들에게 가장 혹독한 비난을 한다. 불충한 목사들은 순탄한 일들만 예언해 왔다. 그들은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 하고 율법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을 핍박하도록 지도했다. 이제 그 목사들은 실망한 나머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기만적 활동을 고백한다. 그때 무리들은 분노에 사로잡힌다. 그들은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는 멸망을 받게 되었다”고 부르짖는다.

그리하여 그들은 거짓 목사들에게 달려든다. 한때 그들을 가장 존경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저주를 그들에게 퍼붓는다. 한때 그들에게 월계관을 씌우던 손이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 들려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기 위하여 사용되던 칼이 이제는 그들의 원수를 멸하는 데 사용된다. 도처에 투쟁과 유혈의 참극이 벌어진다.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붙이심을 인함이라" (렘 25:31). 6 천년 동안 대쟁투는 전개되어 왔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늘의 사자들은 인류를 경고하고 깨우치고 구원하기 위하여 악한 자의 세력을 대항하여 싸워왔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를 결정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싸움에서 사단과 완전히 연합했다. 하나님께서 짓밟힌 율법의 권위를 옹호하실 때가 왔다. 이제 싸움은 사단과 더불어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하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악인을 칼에 붙이심"이라.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는 구원의 표가 찍혔다. 에스겔의 계시에서 살육하는 기구를 가진 자들이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는 명령을 받은 것처럼 이제 멸망의 천사가 나간다. 선지자는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겔 9:1~6) 고 말한다. 멸망시키는 일은 백성의 영적 보호자라고 공언하는 자들로부터 시작된다. 거짓 파수꾼들이 먼저 진멸당한다. 어떤 사람도 동정을 받거나 살아남지 못한다. 남자, 여자, 소녀, 어린이들이 모두 멸망당한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사 26:21).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 (슥 14:12, 13) 라. 사람들이 격한 감정으로 미친 듯이 싸울 때 자비가 섞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림으로써 땅 위의 악한 주민들, 곧 제사장들과 통치자들과 백성들과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높은 자들과 낮은 자들이 모두 죽게 된다. "그날에 나 여호와에게 살육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이 슬퍼함을 받지 못하며 염습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렘 25:33).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악한 자들은 온 지면에서 사라진다. 그들은 주님의 입의 기운으로 죽고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멸망당한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데려가시므로 이 세상에는 거민들이 없어진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 (사 24:1, 3, 5, 6) 리라.

온 땅은 황량한 황무지같이 된다. 지진으로 파괴된 도시와 촌락들의 폐허들, 뿌리째 뽑힌 수목들, 바다에서 튀어나오고 땅이 갈라지므로 솟아올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친 바위들이 지구 표면에 널려 있다. 또한 커다란 동굴들은 산들이 그 기초부터 갈라진 지점을 말해 준다.

이때에 이루어지는 사건은 또한 대속죄일의 마지막 엄숙한 봉사로 예표되었다. 지성소의 봉사가 마쳐지고, 속죄 제물의 피의 공로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성소에서 옮겨지면, 아사셀 염소가 산 채로 여호와 앞에 끌려나왔다. 그때 대제사장은 회중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 (레 16:21) 었다.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늘 성소의 속죄 사업이 완성되면 하나님과 천사들과 구속받은 큰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는 사단에게 놓일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혹하여 범하게 한 모든 죄의 책임을 사단이 져야 할 것으로 선고될 것이다. 마치 아사셀 염소가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으로 쫓겨났던 것처럼 사단도 쓸쓸한 지구, 곧 거민이 없고 황량한 광야로 추방당할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기자 요한은 사단이 추방될 것과 땅이 황폐하고 혼돈한 상태로 바뀔 것을 예언하고, 그와 같은 상태가 일천 년 동안 존속될 것을 말한다. 주님의 재림의 광경과 악인의 멸망에 관하여 말한 후 예언은 다시 계속된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일천 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계 20:1~3).

"무저갱"이라는 표현은 땅이 혼돈하고 암흑한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나타낸 것임이 다른 성경절들에 의하여 명백해진다 (창 1:2; "깊음"이라고 번역된 말의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을 번역한 70 인 역에 의하면 요한계시록 20 장 1~3 절의 "무저갱"과 동일한 말임). "태초"의 땅의 상태에 대하여 성경은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말한다. 예언은 땅이 최소한 부분적으로 그러한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한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장차 있을 하나님의 큰 날을 바라보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 (렘 4:23~26)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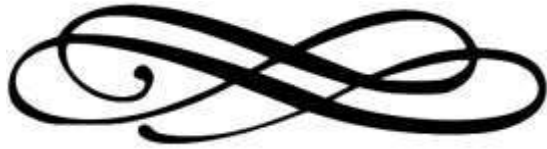
이 곳이 사단과 악한 천사들이 일천 년간 거할 곳이다. 사단은 지구에 갇혀서 다른 세계에 접근하여 결코 타락한 적이 없는 자들을 유혹하고 괴롭힐 수 없게 될 것이다. 그가 결박당한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하는 말이다. 그가 세력을 행사할 대상자는 한 사람도 남아 있지 않다. 여러 세기 동안 오로지 그의 기쁨이 되어 온 기만과 파괴 행위에서 그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선지자 이사야는 사단이 패배당하는 때를 미리 보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격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사 14:12~17).

육천 년간 사단의 반역 행위는 "땅을 진동"시켰다. 그는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았다. 그는 육천 년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사단은 그들을 영원히 가두어 두고자 하였으나 그리스도께서 그의 속박을 깨뜨리시고 갇힌 자들을 자유롭게 놓아 주셨다. 이제 악인들까지도 사단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악한 천사들과 함께 남아있으면서 죄악이 가져온 저주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된다.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중에 자건마는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네가 자기 땅을 망케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 (사 14:18~20) 느니라.

일천 년간 사단은 그 황폐된 땅에서 방황하며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거슬러 반역한 결과를 바라본다. 그 기간에 당하는 사단의 고통은 참으로 크다. 타락한 이후로 그는 끊임없는 활동 때문에 반성할 여유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의 세력을 빼앗기고 처음에 하늘 정부를 반역한 이래 그가 담당해 온 역할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자기가 자행한 모든 죄악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하고, 그가 범하도록 유혹한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아야 하는 무서운 장래를 내다보면서 두려워 떤다. 사단의 결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다. 선지자는 말한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 (사단을 말함) 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홀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마지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 (사 14:3~6) 라.

악인의 심판은 첫째와 둘째 부활 사이에 있는 일천 년간에 이루어진다. 사도 바울은 이 심판이 재림 뒤에 있을 사건임을 지적한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 (고전 4:5) 라. 다니엘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 (단 7:22) 다고 말한다. 이때에 의인들은 왕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 요한계시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계 20:4, 6). 바울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전 6:2) 고 예언한 말은 이때를 지적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율법전 (律法典) 곧 성경에 비추어 그들의 행위를 조사하여 육신의 행위에 따라 모든 사건을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 행위를 따라 악한 자가 받아야 할 형벌이 정해져서 사망책에 있는 그들의 이름 아래 기록된다. 또한 사단과 악한 천사들 역시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받는다. 바울은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전 6:3) 고 말한다. 그리고 유다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 (유 6) 다고 주장한다.

일천 년이 끝나면 둘째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 때에 악인들은 사망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기록된 판결대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기자는 의인의 부활에 대한 기록을 마친 후,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 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계 20:5) 고 말한다. 이사야는 악인들에게 관하여,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음같이 모음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사 24:22) 고 주장한다.

42 장 — 대쟁투의 종막

그리스도께서는 일천년 끝에 다시 지상으로 돌아오신다. 그분은 구속받은 무리들과 수행하는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놀라운 위엄으로 내려오실 때 그분께서는 죽은 악인들에게, 형벌을 받기 위하여 일어나라고 명령하신다. 그들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어 일어난다. 첫째 부활 때 일어났던 자들과 얼마나 대조적인가! 의인들은 죽지 않을 젊음과 아름다움을 입고 있었다. 그러나 악인들은 사망과 질병의 흔적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그 큰 무리에 속한 모든 사람의 눈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주목하게 된다. 악인들은 목소리를 합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고 부르짖는다. 그들이 이렇게 부르짖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서가 아니다. 진리의 힘이 본의 아니게 입술에서 그런 말을 나오게 한다. 그들은 무덤에 내려갈 때와 똑같이 그리스도께 대한 적의 (敵意) 와 반역 정신을 가지고 일어난다. 그들은 과거의 생애에 있었던 오점을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은혜의 시기를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런 기회가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할 것이다. 일생 동안의 생활은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지 못했다. 두 번째의 은혜의 시기가 그들에게 주어질지라도 그것은 첫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요구를 기피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곳이며, 천사들이 재림의 약속을 되풀이한 장소, 곧 감람산 위에 내려오신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 (슥 14:5, 4, 9) 라. 화려 찬란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그 성은 영접할 준비가 된 성결한 곳에 정착하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천사들과 함께 그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신다.

이제 사단은 최상권을 위한 마지막 큰 싸움을 준비한다. 그의 세력을 빼앗기고 기만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악의 왕은 비참해지고, 기가 꺾여 있었다. 그러나 악인들이 부활하여 그 수많은 무리들이 그의 편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자 그의 희망은 되살아난다. 그는 대쟁투에 항복하지 않으리라고 결심한다. 그는 잃어버린 자들의 모든 군대를 그의 군기 아래 모으고 그들을 통하여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한다. 그 악인들은 사단의 포로들이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써 반역의 두목의 지배를 받아왔다. 그들은 사단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의 명령에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사단은 그 초기의 간계 (奸計) 를 써서 자기 자신이 사단임을 부인한다. 그는 자기가 이 세계의 정당한 소유주인데 그의

상속권을 부당하게 잃어버렸다고 주장한다. 그는 그의 미혹당한 부하들에게 자신을 구주로 나타내고 자기의 능력으로 그들을 무덤에서 부활시켜 바야흐로 그들을 가장 잔인한 횡포에서 구해 내려 한다고 그들에게 보증해 준다.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게 되자 사단은 그의 주장을 옹호하기 위하여 기사를 행한다. 그는 약한 자들을 강하게 만들고 자기의 정신과 힘을 모든 자들에게 준다. 그는 그들을 지휘하여 성도들의 진을 공격하여 하나님의 성을 빼앗고자 계획한다. 악마 같은 광희 (狂喜) 로 그는 사망에서 부활한 무수히 많은 무리를 가리키면서 자신을 그들의 지도자라고 주장하고 그가 그 성을 탈환하여 자기의 보좌와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 큰 군중 가운데는 홍수 전에 존재했던 장수 (長壽) 한 족속들, 거대한 체격과 위대한 지능을 가지고서도 그 몸을 타락한 천사들의 지배에 맡겨, 그 모든 기능과 지능을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바친 자들이 있다. 그들은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세상으로 하여금 그들의 천재적 재능을 우상시 하게 하였으나, 그들의 잔인성과 사악한 발명이 세상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피조물의 면전에서 쓸어 버리셨다. 거기에는 여러 나라를 정복한 왕과 장군들이 있고, 싸움터에서 결코 패배해 본 일이 없는 용사들이 있고, 접근해 올 때 여러 나라들이 전율할 수밖에 없었던 거만하고 야망적인 전사 (戰士) 들이 있다. 그들은 사망을 통하여서도 변화되지 않았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올 때 그들의 생각은 죽을 때와 똑같은 정복욕에 의하여 행동한다.

사단은 그의 부하들과 의논하고, 그 다음에는 왕들과 정복자들과 강력한 사람들과 상의한다. 그들은 자기들 편에 속한 자들의 수효와 세력을 보고, 그들에 비하여 성 안에 있는 군대의 수가 적으므로 쉽게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새 예루살렘의 부와 영광을 빼앗기 위하여 계획을 세운다. 전원이 즉시 전투 준비를 개시한다. 숙련된 기술자들은 무기를 제작한다. 무훈이 혁혁한 군대의 지휘관들은 호전적인 무리들을 중대와 사단으로 나누어 배치한다. 드디어 진군 명령이 내린다. 셀 수 없이 많은 대군이 행진을 시작한다. 그것은 일찍이 어떤 정복자도 소집한 일이 없는 대군, 이 지상에 전쟁이 있어 온 이래 각 시대의 모든 군대를 모두 합할지라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의 큰 군대이다. 가장 강한 전사인 사단이 그 군대를 진두지휘하고, 악한 천사들이 그 마지막 전투에 힘을 합한다. 왕들과 전사들이 그를 좇고, 여러 군단으로 이루어진 큰 무리가 각 지휘관들의 명령 아래 그를 따른다. 그들은 군대식으로 질서 정연하게 우툴두툴한 지상을 행진하여 하나님의 성으로 나아간다. 새 예루살렘의 문은 예수님의 명령으로 닫힌다. 그러자 사단의 군대는 그 성을 둘러싸고 공격을 준비한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 앞에 다시 나타나신다. 그 성보다 훨씬 높은 곳, 찬란한 황금 기초 위에 높이 들린 보좌가 있다. 그 보좌에 하나님의 아들이 좌정하시고, 그분의 나라의 백성들이 그 주위를 둘러싼다. 그리스도의 권능과 위엄은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붓으로

묘사할 수 없다.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이 그분의 아들을 둘러싼다.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하나님의 성을 충만케 하고, 그 빛이 성문 밖으로 흘러나와 온 세상을 그 빛으로 넘치게 한다. 보좌 가장 가까이에는 한 때 사단의 사업에 열렬했으나 지금은 마치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와 같은 처지에서 깊고 열렬한 헌신의 마음으로 구주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 다음에는 거짓과 불신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한 사람들과, 그리스도교계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폐기되었다고 주장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한 사람들과, 각 시대를 통하여 믿음을 위하여 순교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 외에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서" (계 7:9) 있다. 그들은 전쟁을 마치고 승리를 얻었다. 그들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상급을 받았다. 그들의 손에 있는 종려가지는 승리를 표상하고, 흰옷은 지금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흠없는 의를 상징한다.

구속받은 자들이 일제히 다음과 같은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소리는 하늘 공간에 메아리치고 또 메아리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있도다" (계 7:10). 천사들과 스랍들도 소리를 합하여 찬송한다. 구속받은 자들은 사단의 세력과 악의를 보아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권세 외에는 어떤 능력도 그들을 승리자가 되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을 과거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깨닫는다. 그 빛나는 무리들 가운데는 마치 자기 자신의 능력과 선행으로 승리한 것처럼 구원을 자기 공로에 돌리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말하지 않는다. 오직 모든 찬미의 내용과 모든 찬양의 주제는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마지막 대관식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거민이 모인 가운데 행해진다. 이제 만왕의 왕께서는 최고의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당신의 정부에 반역한 자들에게 선고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분의 백성을 박해한 자들에게 판결을 집행하신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 20:11, 12) 라.

기록책들이 펼쳐지자마자 예수님의 눈은 악인들을 주목하신다. 그때 그들은 그들이 지금껏 범한 모든 죄를 깨닫는다. 그들은 그들의 발이 어디에서부터 순결과 성결의 길에서 벗어났는지, 그들의 교만과 반역이 그들을 얼마나 심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였는지 깨닫게 된다. 그들을 죄에 빠지게 한 매혹적인 시험을 받은 것, 축복을 무시한 것, 하나님의 사자들을 모욕한 것, 경고를 거절한 것,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은 마음으로 자비의 물결을 물리쳐 버린 것,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불로 기록된 문자와 같이 나타난다.

보좌 위에 십자가가 나타난다. 그리고 아담의 유혹과 타락, 그 후에 계속적으로 전개되는 위대한 구속의 경륜의 장면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구주의 비천한 탄생, 그분의 단순하고 양순한 초기 생애, 요단강에서의 침례, 광야에서의 금식과 시험, 하늘의 가장 귀중한 축복들을 사람들에게 알려 준 그분의 공생애, 사랑과 자비의 봉사로 피곤해진 낮과, 한적한 산에서 기도하며 깨어 있던 밤들, 그분의 은혜에 대하여 질투와 증오와 악의에서 나온 음모, 온 세상의 죄 짐에 눌렸던 두렵고 신비한 겟세마네의 고민, 살기등등한 폭도들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 배반,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예루살렘 거리를 난폭하게 끌려 다니신 저항 없는 죄인, 의기양양하게 그분을 안나스 앞에 세운 것, 대제사장의 집에서 송사 받고,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또한 비겁하고 잔인한 헤롯 앞에서 조소와 모욕과 고문을 당하시고 마침내 사형 선고를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 모든 장면들이 생생하게 묘사된다.

이제는 크게 동요하는 무리들 앞에서 마지막 광경, 인내의 수난자가 갈바리로 가는 길을 따라가고, 하늘의 왕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교만한 제사장들과 조롱하는 폭도들이 죽어 가는 그분의 고민을 조롱하고, 초자연적 흑암이 나타나고, 땅이 흔들려 바위가 깨어지며 무덤이 열리므로 세상의 구주께서 생명을 버리시는 순간을 알려 주는 광경들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전에 있었던 그대로의 무서운 광경들이 나타난다. 사단과 그의 사자들과 그의 백성들은 그들이 한 일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막을 힘이 없다. 각 일을 담당했던 자는 그가 한 역할을 회상한다. 이스라엘의 왕을 죽이기 위하여 무구 (無垢) 한 아이들을 살해한 헤롯, 가책받는 심령을 달래기 위하여 침례 요한의 피를 흘린 야비한 헤로디아, 지조 없는 빌라도, 조롱하던 군인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고 외친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광적인 무리, 그들 모두가 그들의 죄가 얼마나 가증함을 보게 된다. 구원받은 무리들이 그들의 면류관을 구주의 발 앞에 던지면서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부르짖을 때, 악한 자들은 구주의 얼굴에 나타난 거룩한 위엄과 찬란하게 빛나는 햇빛을 피하려고 애쓰지만 헛된 노력이 되고 만다.

속량함을 받은 무리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사도들, 용감한 바울, 열심 있는 베드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요한, 그리고 진실한 마음을 가진 형제들과 많은 순교자의 큰 무리가 있다. 그러나 성벽 밖에는 일찍이 그 사람들을 박해하고, 투옥시키고, 살해한 자들이 각종 비루하고 가증한 자들과 함께 있다. 거기는 한 때 그리스도인들을 고문하고, 그들의 극심한 고통을 보고 악마적 기쁨을 느끼던 잔인무도한 네로도 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기양양하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본다. 네로의 어머니도 거기서 자기가 한 일의 결과를 목격한다. 그는 자기의 아들에게 유전된 악한 품성 그리고 자기의 감화와 모본으로 말미암아 과격해지고 그릇되게 조장된 감정이 어떻게 세상을 떨게 한 범죄의 열매를 맺었는지를 알게 된다.

거기는 또한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라고 공언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의 양심을 지배하기 위하여 고문대, 투옥, 화형주 등을 사용한 법왕교의 승려들과 주교들이 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율법을 변개하고자 한 교만한 법왕들도 거기에 있다. 이 거짓된 교회의 교부들은 하나님 앞에 불가불 청산해야 할 일이 있다. 그들은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에 참으로 마음을 많이 쓰시고 그 율법을 범한 자를 결코 무죄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고난당하신 백성들과 마음을 같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하여 그들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 25:40) 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알게 된다. 모든 악인들은 하늘 정부에 대한 대반역이라는 죄목으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들은 그들의 소송에 대하여 탄원할 것이 전혀 없고, 핑계할 것도 없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사망의 선고가 내려진다.

죄의 삯은 고상한 자립과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노예와 파멸과 사망임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입증된다. 악인들은 그들의 반역의 생애를 통하여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깨닫는다. 영원한 영광의 심히 중한 것이 일찍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부러워할 만한 것이 되어 있는가? 잃어버린 자들은 부르짖는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자진하여 그것들을 멀리하고자 했다. 아, 얼마나 이상한 것에 열중했던가! 우리는 평안과 행복과 영광을 불행과 수치와 절망과 바꾸었다." 모든 사람은 그들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들의 생활로써 "우리는 이 예수로 왕 삼는 것을 원치않노라"고 선언했던 것이다.

악인들은 마치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대관식을 주목한다. 그들은 주님의 손에 그들이 멸시하고 범한 하나님의 율법의 돌비가 쥐어져 있는 것을 본다. 그들은 구원 받은 사람들이 경이와 환희와 찬송의 소리를 높이는 것을 본다. 그 음조의 물결이 성 밖에 있는 무리들에게 퍼져나갈 때 모든 사람은 한 음성으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계 15:3) 고 외치면서 엎드려 생명의 왕께 경배한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을 보고 마비된 것처럼 보인다. 한 때 덮는 그룹이었던 그는 타락했던 당시를 생각한다. 빛나는 스랍,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하여 변화되고, 어찌하여 타락하였는가! 그는 일찍이 존경받던 회합에서 영원히 제외된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싸여 다른 천사가 그분 가까이에 서 있는 것을 본다. 그는 키가 크고 위엄 있는 한 천사가 그리스도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 드리는 것을 본다. 그는 자기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 천사의 높은 지위가 그의 것이 되어 있을 것임을 깨닫는다.

추억은 허물없고 순결하던 옛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시기하지 않았을 때에 소유하였던 평안과 만족을 회상케 한다. 그의 비난과 반역, 천사들의 동정과 지지를 얻기 위한 그의 기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자신의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함으로 나타낸 그의 고집 등, 이 모든 일들이 마음 가운데 생생하게 떠오른다. 그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개한 자기의 사업과 그 결과, 곧 사람들 상호간의 원한, 무서운 생명의 파멸, 나라들의 흥망성쇠, 왕위의 전복, 장기간 계속된 소란과 투쟁과 혁명 등을 되돌아본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업을 반대하고 인류를 타락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애써 온 것을 생각한다. 그는 흉악한 자기의 간계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데에 아무런 힘이 없었음을 깨닫는다. 사단이 자기의 수고의 열매인 그의 나라를 바라볼 때, 그는 오직 실패와 파멸만을 깨닫게 된다. 그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성을 쉽게 함락시킬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거짓임을 알고 있다. 그는 그 대쟁투가 계속되는 동안 거듭거듭 실패하고 굴복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 큰 모반자의 목적은 언제나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반역의 책임이 하나님의 정부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의 탁월한 지력을 모두 기울여 왔다. 그는 신중하고 조직적으로 일을 하여 그 큰 무리들이 그처럼 오랫동안 계속해 온 대쟁투에 대한 그의 주장을 수락하도록 이끄는 데 놀라운 성공을 거두어 왔다. 수천 년 동안 이 반역의 괴수는 오류를 진리라고 속여 왔다. 그러나 이제 그 반역이 마침내 실패로 끝나고 사단의 경력과 품성이 드러날 때가 왔다. 큰 기만자 사단은 그리스도를 폐위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고, 거룩한 성을 탈취하기 위한 마지막 큰 싸움에서 그의 정체는 완전히 폭로되었다. 그와 연합해 온 자들은 마침내 그의 사업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것을 알게 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과 충성된 천사들도 하나님 정부에 대한 사단의 음모의 전모를 보게 된다. 사단은 온 우주의 증오의 대상이 된다.

사단은 그의 고의적인 반역이 그로 하여금 하늘에 적합하지 못하게 만들었음을 안다. 그는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워왔다. 하늘의 순결과 평화와 조화는 그에게 극심한 고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에 대한 그의 비난은 이제 잠잠해졌다. 그가 여호와께 돌리려고 노력해 온 비난이 자기에게로 남김없이 돌아온다. 이제 사단은 엎드려 자기에게 내리는 판결의 공의로움을 고백한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계 15:4).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진리와 오류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이제 분명해졌다. 반역의 결과, 곧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한 결과가 모든 지적 존재자의 눈앞에 분명해졌다. 하나님의 통치와 반대되는 사단의 법칙이 실천된 결과가 무엇임이 온 우주에 공개되었다. 사단 자신의 사업이

그를 정죄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와 자비는 완전히 옹호되었다. 대쟁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취하신 처사가 오로지 당신의 백성들의 영원한 행복과 그분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유익을 위하여 하신 일임이 드러난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시 145:10). 죄의 역사는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의 행복을 위하여 있는 것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충성된 자와 반역한 자들을 막론하고 온 우주는 대쟁투에 속한 모든 사실을 바라보면서 한 마음으로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고 선언한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베푸신 큰 희생이 분명히 제시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정당한 지위를 차지하고, 정사와 권세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굴욕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것은 당신 앞에 있는 즐거움, 곧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인도하는 즐거움을 위해서였다. 그 슬픔과 치욕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지만 기쁨과 영광은 그보다 더 컸다. 그분은 구원받은 자들이 당신의 형상을 회복하고, 모든 마음에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을 간직하고, 모든 얼굴에 그들의 왕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신다. 그분은 당신의 수고의 결과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을 보시고 심히 만족해하신다. 그때 그분께서는 의인의 무리와 악인의 무리가 다 같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외치신다. "나의 피로 산 자들을 보라! 나는 그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죽었다. 나는 그들이 영원토록 내 앞에서 살아가게 하고자 그런 일을 당하였다." 그때 보좌를 둘러 있는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계 5:12) 라고 찬양의 노래를 부른다.

비록 사단이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최상권에 대하여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지라도 그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는다. 반역의 정신이 강한 급류와 같이 다시 밀려온다. 사단은 분노로 충만해져 대쟁투에 항복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그리하여 하늘 왕에 대한 마지막 결사적 쟁투가 전개된다. 그는 부하들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분노에 사로잡혀 그들을 충동시켜 즉시 일대 결전을 하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그가 반역하도록 유혹한 무수한 무리 가운데 이제 그의 최상권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그의 권세는 끝났다. 악인들은 사단이 고취하는 바와 똑같이 하나님께 대한 증오심으로 충만해 있다. 그러나 그들의 처지가 절망적이라는 것과 그들이 여호와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들의 그 분노는 사단과, 기만에 있어서 그의 대리 역할을 해왔던 자들을 향하여 폭발된다. 그들은 악마와 같은 분노로 사단과 그 대리자들에게 달려든다.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네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네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리리라.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화광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임이여 네가 경계거리가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로다" (겔 28:6~8, 16~19).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섶같이 살라지리니",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케 하셨" (사 9:5, 34:2) 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시 11:6).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땅이 깨어진다. 땅의 깊은 곳에 감추었던 무기들이 터져 나온다. 땅의 깨어진 모든 틈에서 맹렬한 화염이 터져 나온다. 모든 바위가 불이 된다. 풀무불처럼 불타는 날이 마침내 왔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것들이 타 버린다 (말 4:1; 벧후 3:10 참조). 땅의 표면은 마치 용해된 하나의 덩어리, 곧 하나의 거대한 끓는 큰 불못처럼 된다. 이때는 경건치 않은 자들의 형벌과 멸망의 때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 (사 34:8) 이다.

악인들은 땅에서 그들의 보응을 받는다 (잠 11:31 참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같은 날이 이르리니...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말 4:1) 사를 것이다. 어떤 자들은 한 순간에 멸망당하지만 어떤 자들은 여러 날 동안 고통을 받는다. 모든 사람은 "그들의 행위대로" 형벌을 받는다. 의인들의 죄는 사단에게 옮겨진다. 그는 자기 자신의 반역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범하게 했던 모든 죄 때문에도 고통을 받는다. 사단의 형벌은 그에게 속은 자들이 받는 형벌보다 훨씬 더 크다. 그의 기만으로 타락한 자들이 모두 멸망당한 후에도 그는 여전히 죽지 않고 계속하여 고통을 받는다. 정결케 하는 그 불로써 악인들은 뿌리와 가지, 곧 뿌리가 되는 사단과 가지가 되는 그를 따르는 자들이 마침내 완전히 멸망당한다. 율법의 형벌이 완전히 집행되고, 공의의 요구가 충족되면 하늘과 땅은 여호와의 의를 바라보고 찬송하게 된다.

사단의 파괴 행위는 영원히 끝난다. 육천 년 동안 그는 제 마음대로 불행으로 땅을 충만케 하고 온 우주를 슬프게 하였다. 모든 피조물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당해 왔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사단의 존재와 유혹에서 영원히 벗어난다. "온 땅이 평안하고 정온하니 무리가 소리질러 노래하는도다" (사 14:7). 찬송과 승리의 함성이 충성된 온 우주에서 터져 나온다.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 소리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계 19:6) 라고 노래한다.

땅이 멸망의 불에 싸여 있는 동안 의인들은 거룩한 성 안에서 안전하게 있다. 둘째 사망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하나님이 악인에게는 태우는 불이 되지만 당신의 백성에게는 해와 방패가 되신다 (계 20:6; 시 84:11 참조).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계 21:1). 악인을 태우는 불은 땅을 정결케 한다. 모든 저주의 흔적은 일소된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죄의 무서운 결과를 언제나 생각나게 해줄 영원히 불타는 지옥은 없다.

오직 한 가지 기념물은 남게 된다. 우리 구주께서는 십자가의 표를 영원히 언제나 간직하실 것이다. 그분의 상하신 머리와 옆구리와 손발에는 죄가 빚어놓은 잔인한 유일의 흔적이 남게 된다. 선지자 하박국은 영광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광선이 그 옆구리 [영어 성경 — 방주] 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취었도다" (합 3:4) 고 말한다.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붉은 피를 흘린 그 옆구리는 구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권능이 그 속에 감"추인 곳이다. 속죄의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구원하기에 능하셨던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멸시한 자들에게 공의를 행하는 일에도 강하셨다. 그분의 굴욕의 표는 그분의 가장 큰 영광이다. 갈바리에서 상한 흔적은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주님께 대한 찬양을 불러일으키고 그분의 능력을 말해 줄 것이다.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미 4:8). 화염검이 에덴동산에서 최초의 부부를 내쫓은 이래 성도들이 "그 얻으신 것을 구속" (엡 1:14) 할 시기를 열렬하게 사모해 온 그때가 왔다. 원래 사람에게 그의 나라로 주어졌으나 사단의 손으로 넘어가서 오랫동안 강한 원수에게 점령당해 있던 땅은 위대한 구속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람에게로 돌아왔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 "땅도...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 (사 45:18) 셨다. 땅이 구속받은 자들의 영원한 거처가 될 때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이 성취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함이여 거기 영영히 거하리로다" (시 37:29).

장래의 유업이 지나치게 물질적인 것처럼 생각되는 일을 염려하여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게 해주는 바로 그 진리를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보증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늘 집에 관하여 전혀 무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 (고전 2:9) 던 것들이다. 사람의 언어는 의인들이 받을 상급을 묘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것은 오직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깨닫게 될 것이다. 유한한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낙원의 영광을 깨달을 수 없다.

성경은 구원 얻은 자의 유업을 본향이라고 부른다 (히 11:14~16 참조). 그 곳에서 하늘의 목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양 무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생명나무는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다. 흘러 다함이 없는 강은 수정같이 맑고, 그 가에 있는 나무들은 구속받은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된 길 위에 그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넓은 평원이 아름다운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고, 하나님의 산들은 높은 봉우리들을 뻗고 있다. 이 평화로운 평원에서, 이 생명 강가에서, 오랫동안 순례자요 방랑자로 살아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그들이 거할 집을 발견한다.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리라.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 (사 32:18, 60:18, 65:21, 22) 라.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질러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그 때에 이리가 어린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 (사 35:1, 55:13, 11:6, 9) 다. 하늘의 분위기 속에는 고통이 존재할 수 없다. 그 곳에는 눈물이 없고, 장례 행렬이 없고, 슬픔의 흔적이 없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계 21:4; 사 33:24).

그 곳에서 영화롭게 된 새 땅의 수도 새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면류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 (사 62:3) 다.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계 21:11).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계 21:24). 주님께서는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 (사 65:19) 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계 21:3) 저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성에는 "밤이 없"다. 아무도 휴식을 필요로 하거나 원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데 피곤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신선하고 유쾌한 아침의 기분을 언제나 느낄 것이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취심이라” (계 22:5). 고통스러울 정도로 눈이 부실 정도는 아닌 찬란한 빛이 태양 광선을 대신할 것이다. 그러나 그 광도 (光度) 는 오늘날의 정오의 밝음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과 어린양의 영광이 거룩한 성을 끊임없이 비추어 준다. 구속받은 자들은 태양이 없을지라도 언제나 낮의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성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계 21:22).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으로 더불어 자유롭게 교통하는 특권을 얻는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같이 희미하” (고전 13:12) 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마치 거울 속에 비친 것처럼 천연계 가운데서, 또한 그분께서 인류를 취급하시는 일을 통하여 바라본다. 그러나 그 때에는 사이를 가로막아 놓았던 희미한 휘장 없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얼굴의 영광을 직접 바라볼 것이다.

거기서 구속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아심같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심령 속에 심어 주신 사랑과 동정은 거기서 가장 진실하고 부드럽게 활용될 것이다. 거룩한 자들과 나누는 순결한 교제, 축복받은 천사들과 그 옷을 어린양의 피로 씻어 희게 한 각 시대의 충성된 자들과의 조화로운 생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을 함께 결합시키는 거룩한 유대 관계, 이것들은 구속받은 자들의 행복을 이루는 요소들이다. 거기서 죽지 않을 특권을 얻은 사람들은 창조력의 경이, 속죄애 (贖罪愛) 의 오묘를 결코 사라지지 않을 기쁨으로 명상한다. 하나님을 등한히 하도록 유혹하던 잔인하고 기만적인 원수는 더 이상 없다. 모든 능력과 재간은 증가되고 발달된다. 지식을 얻는 데 두뇌가 피로해지거나 정력이 소모되는 일이 없다. 가장 큰 기도 (企圖) 도 실행되고, 가장 고상한 포부도 성취되며, 가장 높은 희망도 실현될 것이다. 그럴지라도 거기에는 여전히 정복해야 할 새로운 높은 봉우리, 경탄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경이, 이해해야 할 새로운 진리, 마음과 몸과 영의 능력을 다 기울이게 하는 새로운 연구 대상들이 있게 된다.

우주의 모든 보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구 대상으로 펼쳐진다.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난 그들은 멀리 떨어진 다른 세계들, 곧 인간의 불행을 보고 슬프게 탄식하고,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기쁨의 노래를 부른, 다른 세계들을 향하여 피곤을 모르는 날개를 펴고 날아간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땅 위의 자녀들은 타락하지 않은 다른 세계의 주민들의 지혜와 기쁨을 같이 나누게 된다. 그들은 여러 시대에 걸쳐 하나님의 솜씨를 명상함으로 얻은 지식과 지혜의 보화를 같이 나눈다. 그들은 흐려지지 않은 시력으로 창조의 영광, 곧 별들과 태양계들이 모두 그들에게 정해진 일정한 궤도를 따라 하나님의 보좌를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큰 것에 이르기까지 만물 위에는 창조주의 이름이 기록되고, 모든 것에는 창조주의 능력이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영원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더욱 풍성하고 더욱 영광스러운 계시가 나타난다. 또한 지식이 발전되어 감에 따라 사랑과 존경과 행복도 증가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의 품성에 대한 그들의 감탄은 더욱 커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속죄의 풍성한 부와 사단과의 대쟁투에 있어서의 놀라운 결과를 제시해 주실 때 구속받은 자들의 마음은 더욱 열렬한 헌신의 마음으로 감동되고, 그들은 더욱 충만한 기쁨으로 금 거문고를 탄다. 그리하여 천천만만의 무리는 음성을 합하여 찬양의 대합창을 한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계 5:13).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 (鼓動) 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 (原子) 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끝을 기대하면서